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0.txt

제목: 한방 암 면역치료 시행 ‘하나통합한의원’, 핵심은 티버스터  
날짜: 201404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252  
본문: [쿠키 건강] 200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은 K(58·여)씨. 이후 여덟 번의 항암치료와 30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2011년 7월 종합건강검진에서 복막에 전이된 위암이 발견됐고, 2012년 8월까지 11차 항암치료를 받던 K씨는 혈소판수치 감소로 항암 휴식기를 가졌다.<br/><br/>항암 휴지기에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은 K씨는 한방 암치료와 식생활 개선,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했다. K씨는 하나통합한의원이 독자 개발한 천연 항암 조성물 ‘티버스터(T.buster)’를 복용했다. 지난해 5월 K씨는 복막 전이 위암 판정을 받은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컴퓨터단층활영 검사에서도 복부의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br/><br/>이에 대해 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20% 이내의 증가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항암제를 시작하기 보다, 항암치료 휴지기를 가지면서 항암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고 몸의 균형과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좋은 방법</span>”이라고 조언했다.<br/><br/>이처럼 하나통합한의원은 기존 항암치료와 병행해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한다. 암치료 지쳐있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한방 암 면역치료의 주안점은 환자들의 휴지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신체의 안정을 통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어 내는 ‘면역력 관리’에 있다.<br/><br/>◇독자 개발 ‘치종단(티버스터)’ 임상결과 학술지에 발표<br/><br/>암세포 휴지기에 신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 올리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한방 암 면역치료의 원리이자 목적이다. 이는 암 세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한방치료에 의해 보완된 몸으로 2차 항암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것을 뜻한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각종 암에 적용되는 한방치료와 면역치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증치료가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현재 하나통합한의원이 시행하는 면역치료와 항암치료 방법은 우루시올(urushiol·옻나무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치종단과 치종탕이 있으며, 약침치료와 뜸, 침, 식이요법 등이다.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2'>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말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이 2012년 12월부터 독자 개발해 처방중인 치종단을 암환자 48명에게 적용한 결과,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복용해도 간기능 검사상 이상을 나타낸 환자는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복용기간이 9.3개월로 간기능검사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관찰됐다. 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원장은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세계적 권위의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하기도 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현재 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마치고 제품을 선보였다.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 의료진이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 티버스터에 대한 임상결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연령·병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치종단(Ⅱ) ‘티버스터’는 구분에 관계 없이 단독치료 3개월 후 시행한 1차 관해평가에서 67% 이상, 단독치료로 12개월 후 시행한 2차 관해평가에서 36% 이상 안정상태(SD)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3'>한방 암 면역치료도 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근거중심의학 기반의 치료가 중요하다면서, 개인별 맞춤치료와 통합의학을 통해 암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1.txt

제목: [암과의 동행] 갑상선학회, 갑상선암 과잉진료 논란 입장은?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189  
본문: [쿠키 건강]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논란에 대해 대한갑상선학회(이사장 정재훈)가 공식입장을 밝혔다.<br/><br/>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독 갑상선암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과 달리 사람들이 쉽게 병원을 방문하여 큰 돈 들이지 않고 쉽게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또한 “지난 2002년 이후 모든 병원마다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넣어 갑상선암의 조기진단이 급증한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밖에 민간보험에 가입한 이유로 진단을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욕구, 진료권고안이 법적인 보호막이 되지 못한 까닭에 실제 진료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하지만 이런 조기진단만으로 급증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국가암통계자료를 보면 1cm 이하의 미세유두암과 1~2cm 이상의 큰 갑상선암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학회는 19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층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 연령층이 아님에도 갑상선암이 최근 10년간 약 2.3배 증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갑상선암 발생에 환경적 인자보다 유전적 소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쉽게 이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이외에도 요오드의 과다섭취, CT나 PET 검사 등과 같은 의학적 방사선 피폭의 증가, 비만인구의 증가 등이 일부 갑상선암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적인 후보인자들이라고 설명했다.<br/><br/>◇직경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직경 1 cm 를 넘는 암은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30년 이상 장기간 추적한 결과 등에 근거한 것이다.<br/><br/>다만 “추적관찰을 하다가 종양이 커지거나 주위로 진행되는 양상이 발견될 때에 비로소 세포검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지난 2010년 갑상선암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권고안에서 갑상선 종양이 우연히 발견됐다 하더라도 직경 0.5cm 이하인 경우 주위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br/><br/>학회는 직경 1cm 를 넘는 암의 경우 갑상선전절제술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망률과 재발률을 의미 있게 낮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br/><br/>직경 0.6cm와 1cm 사이 종양의 경우가 애매하지만 재발률을 낮추고, 암의 크기가 0.6~0.8cm 이상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경과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 미국갑상선학회에서도 이런 경우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br/><br/>◇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 올바른 표현인가?<br/><br/>대한갑상선학회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하며 무엇보다 먼저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미분화암처럼 진단후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뒤늦게 재발하고 뒤늦게 사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br/><br/>즉, 누적 사망률은 진단 후 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 10~30년 이상의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더욱 최근에 문제가 되는 1cm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이르고 앞으로 최소 10년 후에나 판단해야 한다</span>”고 밝혔다.<br/><br/>◇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암만 치료하라?<br/><br/><br/><br/>학회는 1cm 이상의 갑상선종양도 의사의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br/><br/>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암이 매우 커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경우에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br/><br/>갑상선종양의 위치와 크기, 목의 두터운 정도, 그리고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촉지 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초음파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br/><br/>또한 암이 여러 장기로 원격 전이되는 경우 전이 장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암은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br/><br/>◇갑상선암 과잉진료 보다 비합리적인 제제가 더 큰 해악<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는 기록은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 현실을 일부 반영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제를 가하면 더 나쁜 해악이 될 것</span>”이라고 경고했다.<br/><br/>이어 “개인이 자기 돈을 내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이라며 “만약 갑상선종양이 발견된다면 의사는 지금까지 입증된 자료에 근거해 제시된 진료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br/><br/>특히 “치료 계획은 각 개인의 의학적 상태, 동반 질환의 유무, 정확한 진행 상태파악 및 기대 여명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 논리가 아닌 순수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대한갑상선학회는 “<span class='quot0'>의료 행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2.txt

제목: 증가하는 의료비 의료실비보험 비교가입으로 대책!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404  
본문: [쿠키 생활] 의료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이란, 각종 질병, 상해로 인해 통원 및 치료를 받을 때 실손으로 보장받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운다.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해환경 등에 의해 의료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뇨나 신경성질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발병율이 높다.<br/>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드는 치료비용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로 평균 1억원 정도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64세 이상의 노년으로 나타나 고령화 현상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노년에는 특히 면역력 감소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br/>이같이 의료비항목을 부담을 줄이고자 그 대비책 가운데 의료실비보험 추천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먼저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가입이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3.txt

제목: 서울대병원 장진영 교수, 세계간담췌학회 최우수 구연상 수상  
날짜: 201404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293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장진영 교수(사진)까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세계간담췌학회(IHPBA)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br/>장 교수는 2000편이 넘는 발표 연제 중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이는 한국인 수상자로는 최초이다.<br/>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국제 다기관 연구 결과를 통한 췌장암 전구병변의 악성 위험 평가를 위한 진단모델 개발’ 제목으로 학술대회 4일차인 지난달 26일 Best of Best Plenary Oral Session에서 소개됐다.<br/>췌장암은 전형적인 선진국 질환으로 알려져, 연구나 진료가 서양이나 일본 위주로 진행됐으나, 이번 연구 성과가 국제적으로 높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국내 췌장 진료의 수준 및 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반증한다.<br/>장진영 교수는 “<span class='quot0'>2000년 이후 한국에서도 췌장암 발생률이 급증하면서, 국가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5년 생존율은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췌장암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에서 적절한 수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만든 것에 이 연구에 큰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이 연구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7개 대형 병원과 일본의 동경의대, 오사카의대병원 등 20여개 이상의 유수 대형병원이 참여한 국제적인 연구인데, 이것을 처음으로 국내 학자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br/>장 교수는 국내 의료진으로서는 유일하게 2010년부터 세계췌장학회 주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췌장암 전구병변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췌장암의 치료 성적 향상 및 적절한 치료대상을 정하는 췌장암 치료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br/>이에 대해 장 교수는 “췌장암의 치료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췌장암 조기진단을 위한 도구개발 함께 적극적인 수술 및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의 병행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췌장암이 치료 불가능한 암으로 여겨졌으나, 조기발견 췌장암의 경우 치료 후 완치율이 5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이외에도 현재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진행 중인 췌장암 조기진단 종양마커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췌장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4.txt

제목: 서울시, 의료 취약계층 3만8500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키로  
날짜: 20140404  
기자: 최정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151  
본문: 서울시가 올해 서울역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약 3만8000여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br/>시는 무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횟수 및 수혜 대상을 지난해 381회 3만6899명에서 올해 477회 3만8500명으로 늘리겠다고 3일 밝혔다. 간·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선별검사인 종양표지자 검사, 폐렴 예방접종도 추가됐다.<br/>이번 사업에는 9개 시립병원에서 의사 5명, 간호사 15명, 약사 5명, 의료기사 6명, 행정인력 9명 등 총 40명이 ‘나눔진료봉사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해 검진, 예방접종, 치과진료 등을 실시한다. 치과, 안과,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한 이동검진 차량 2대와 초음파검사 장비를 포함한 13개 이동형 장비가 사용된다.<br/>특히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외에도 2000명에게 폐렴 예방접종을 새로 실시한다. 시내 5개 권역 쪽방촌 주민 700명은 종양표지자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치과검진이 시행된다. 시는 월 20명 내외를 선정해 틀니를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 2∼3회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실’도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건강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8)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02-2276-7762)로 문의하면 된다.<br/>최정욱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5.txt

제목: 타달라필,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후 발기부전 예방못해  
날짜: 201404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4100000325  
본문: 미국 국립암연구소 후원 RTOG, RCT 연구결과<br/><br/>[쿠키 건강] "전립선암에 방사선치료(RT)를 시행한 남성을 대상으로 매일 타달라필(제품명 시알리스)을 투약한 결과 발기능 개선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타달라필이 해당 환자 발기부전에 예방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br/><br/>이는 메이요클리닉의 Thomas M. Pisansky 연구팀이 '타달라필, 전립선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발기부전 예방 효과'를 평가한 결과로 JAMA 온라인 4월 2일자에 게재됐다(JAMA. 2014;311(13):1300-1307).<br/><br/>타달라필은 전립선암 치료 후 발기부전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지만 예방적 약제로서의 역할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에 타달라필이 '전립선암으로 RT를 받은 환자에서 발기능력 보존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가'와 파트너와의 전체 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br/><br/>이중맹검으로 진행된 무작위대조군연구(RCT)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3차 의료기관 및 76개 지역사회를 토대로 위약과 1:1 비교를 실시했다. 여기에 2009년 11월부터 2012년 2월(추적관찰 2013년 3월)까지 전립선암으로 RT를 받고 발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242명 환자가 등록됐다.<br/><br/>24주간 외부 방사선치료(63%) 혹은 근접방사선치료(brachytherapy, 37%)를 시작한 121명 환자는 매일 5mg의 타달라필을 복용하고 121명은 위약을 투여했다. 참가자는 국제발기능지수(IIEF)에 따라 각각 RT 시행 전, 2-4주, 20-24주, 28-30주, 1년 이후를 평가했다. 참가자와 파트너는 RT 시행 전, 20-24주, 28-30주, 1년에 성 적응 설문지 및 로크 결혼적응검사지에 응답했다.<br/><br/>결과에 따르면 평가된 총 221명 환자에서 28-30주 사이에 발기능 유지는 타달라필 투여군 80명(79%; 95% CI, 70%-88%), 위약군 61명(74%; 95% CI, 63%-85%)이었다. 1년 후 두 그룹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72%; 95% CI, 60%-84% vs 71%; 95% CI, 59%-84%; P=0.93).<br/><br/>더불어 타달라필은 전반적인 성기능 혹은 만족감 개선에 관련이 없었다. 항목의 부척도에서도 둘 사이 차이는 없었다. 타달라필을 복용한 참가자의 파트너는 성적 만족감에 있어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결혼적응검사 역시 참가자와 파트너 모두에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6.txt

제목: 암 유전자 검사, 암환자와 가족 간 의견 충돌 가능성 있다  
날짜: 201404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3100000301  
본문: [쿠키 건강] 암 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대다수의 가족이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 간에 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의견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사진 왼족)와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오른쪽) 공동 연구팀은 2011년 암환자와 가족 990쌍을 대상으로 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br/>이번 연구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 ‘임상유전학(Clinical Genetics)’에 발표됐다.<br/>연구팀은 암 유전자 확인 검사가 지금보다 보편화된다고 할 때, 암 환자와 가족은 검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환자가 치료 받고 있는 암에 대한 유전적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환자가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br/>그 결과 대부분의 환자(87%)와 가족(86%)은 환자가 검사를 받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환자와 가족을 한 단위의 가정으로 보았을 때, 22.5%의 가정에서는 환자가 동의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가족은 원하지만 환자는 검사를 원하지 않는 등 환자와 가족 간 의견 불일치하기도 했다.<br/>가족 중 유전 정보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직계 가족(자녀, 형제)이 검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다수의 환자(92%)와 직계 가족(83%)은 좋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22%의 가정에선 환자와 직계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br/>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환자가 암감수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알릴 생각이 있는지도 물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환자(93%)와 가족(93%)은 검사 결과를 말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누가’, ‘언제’, ‘누구에게’ 말할지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했다.<br/>‘누가’ 말할지에 관해서는 환자가 검사 결과를 숨기는 경우, 의료진이 환자 동의 없이도 가족에게 검사 결과를 알릴 수 있다는데 66%의 환자와 가족(각각)은 동의했다. 하지만 42%의 가정에선 양측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의료진에게도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암의 유전적 감수성에 대한 정보는 매우 민감하다. 환자와 가족은 서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관련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 의료진도 환자가 원치 않으면 어떤 말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하다.<br/>신동욱 교수는 “환자가 암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하고,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검사가 진료의 일부로 보편화 된다면 이러한 갈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검사로 인한 가족 간 갈등과 윤리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br/>이어 박종혁 과장도 “<span class='quot0'>현재 우리나라의 짧은 암 진료 환경에서는 환자와 가족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 치료 결정과정에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가족문화 특성을 고려한 암 진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7.txt

제목: 서울시, 의료 취약계층 3만8000여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날짜: 201404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3100000349  
본문: [쿠키 사회] 서울시가 올해 서울역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 약 3만8000여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br/>시는 무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방문횟수 및 수혜 대상을 지난해 381회 3만6899명에서 올해 477회 3만8500명으로 늘리겠다고 3일 밝혔다. 간·대장암 등 소화기계 암 선별검사인 종양표지자 검사, 폐렴 예방접종도 추가됐다.<br/>이번 사업에는 9개 시립병원에서 의사 5명, 간호사 15명, 약사 5명, 의료기사 6명, 행정인력 9명 등 총 40명이 ‘나눔진료봉사단’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독거노인, 장애인, 외국인근로자를 방문해 검진, 예방접종, 치과진료 등을 실시한다. 치과, 안과, 엑스레이 검사가 가능한 이동검진 차량 2대와 초음파검사 장비를 포함한 13개 이동형 장비가 사용된다.<br/>특히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외에도 2000명에게 폐렴 예방접종을 새로 실시한다. 시내 5개 권역 쪽방촌 주민 700명은 종양표지자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치과검진이 시행된다. 시는 월 20명 내외를 선정해 틀니를 무료 제공키로 했다.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 2∼3회 장애인시설 및 특수학교 등을 방문하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실’도 운영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건강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br/>시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시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18)나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02-2276-7762)로 문의하면 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8.txt

제목: “요양병원 활성화가 재활치료 엉망되게 했다”  
날짜: 2014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3100000187  
본문: 재활치료 활성화 위해 수가 산정, 재활병동, 팀접근 필요 주장<br/><br/>[쿠키 건강] 요양병원의 활성화가 재활치료의 전달체계는 물론 재활치료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재활의료체계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요양병원들이 재활치료를 덤으로 해주면서 재활치료는 폭발적인 인기종목이 됐지만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떠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br/><br/>부산에서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을 운영하는 박인선 원장은 “요양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재활치료를 하는 곳도 많아졌다. 하지만 환자가 좋아지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재활치료에서 요양과 재활은 구분돼야 한다. 요양이 환자의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고, 재활은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박 원장은 재활병원들이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들이 사활을 걸고 환자 유치영업을 하고 있고, 삭감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br/><br/>재활의학과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경과를 살피면서 재활 치료가 효율적으로 잘 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재활치료를 계속 하다 삭감이 되는 시기가 오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퇴원시킨다는 것이다.<br/><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환자들은 제대로 된 재활치료는 받지 못하고 3주마다 재활병원과 요양재활병원을 떠돌아다니고 가산은 탕진하고 장애는 그대로 남이 있는 재활폐인이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할 의료 재원이 엉뚱하고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br/>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신형익 교수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제공받지 못한채 2~3개월 간격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br/><br/>재활치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재활치료 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그 결과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br/><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1'>급성기와 아급성기 집중재활치료를 제도화 하려면 일본과 미국 등과 같이 별도의 재활의료 수가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의사, 재활간호사, 언어재활사 등 팀으로 구성된 접근이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재활의료기관들이 생겨나야 하고 더불어 재활병동이나 재활센터 등이 만들어져 정부가 인증하고 평가해야 한다</span>”고 주장했다.<br/><br/>정부도 재활치료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장애인국에서 다뤘던 재활문제를 공공보건정책과로 가져왔고 따라서 재활에 대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다듬겠다고 밝혔다.<br/><br/>이어 권 정책관은 “<span class='quot2'>암 환자의 재활이나 외상환자의 재활 등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 뇌졸중 환자의 재활에도 관심을 쏟겠다</span>”며 “<span class='quot2'>재활의료를 공공의료 측면에서 고려해 올해 재활의료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재활치료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표준치료모델과 활서화 방안도 검토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sunjae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09.txt

제목: 방송 프로그램서, 한의학 현재와 미래 집중 조명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56  
본문: [쿠키 건강]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Early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Non-Small-Cell Lung Cancer’라는 논문은 기존의 공격적 치료 위주의 암치료 패러다임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싸.<br/><br/>전이성 폐암 환자가 완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벼운 공격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공격적인 ‘표준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보다 삶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생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암 치료 시 암 ‘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표준치료’보다 암 환자 ‘몸’을 중시하는 치료가 오히려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하나의 역발상이었다.<br/><br/>벚꽃이 만개한 환절기에 주변에서 흔히 면역력 증진, 면역력 강화와 같은 면역력과 관련된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60kg의 성인의 경우, 6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0~10,000내외의 암 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br/><br/>이런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면역감시체계’에 의해 인지되고 제거되고 통제되어 암 발생이 억제된다는 것이 ‘종양면역학’에서 밝혀지고 있다.<br/><br/>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로부터 면역력을 부여받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면역학습을 통해 2차성징이 이루어질 때까지 면역계가 성숙되어 온전한 ‘면역감시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면역감시체계는 건강 신체에서는 온전히 정상 기능을 발휘해서 암을 억제하지만, 흡연, 바이러스, 화학물질, 방사선, 자외선, 스트레스와 같은 발암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암의 억제력을 넘어선 발암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된다.<br/><br/>이렇게 발생한 암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와 같은 공격암치료와 더불어, 암을 스스로 억제하는 ‘면역감시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인적 치료의 융합은 세계적 추세이다.<br/><br/>미국, 독일을 필두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통합암치료의 현황과 그 가능성을 조명하고, 미래 부가가치의 근원으로써의 한의학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고자 ‘우리의학,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1일 오후 10시에 심층 조명됐다.<br/><br/>미국의 MD앤더스암센터와 중국의 악양병원을 거쳐 통합암치료의 세계적 흐름을 익혀온 방선휘한의원의 방선휘 한방내과전문의는 “<span class='quot0'>한의학의 치료기술을 통해 초기암의 수술전후 관리부터 말기암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부분에 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한 효과는 WHO에서도 공언한 바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0.txt

제목: 인세 수익금 불우환자 치료기금으로, 삼성서울병원에 기부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17  
본문: ‘암 그리고 전쟁’ 저자 원자핵물리학자 문창범씨<br/><br/>[쿠키 건강] 삼성서울병원(원장 송재훈)은 ‘암 그리고 전쟁’을 집필한 문창범씨가 인세로 받은 100만원의 수익금을 불우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고 2일 밝혔다.<br/><br/>암 그리고 전쟁은 원자핵물리학자인 문씨가 아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안 순간부터 치료를 마치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히 적어 내려간 책이다.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한 320여 일간의 투병일기이다.<br/><br/>문씨는 이 책에서 암이라는 공포의 병을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생명에 대한 깊은 고찰도 책 곳곳에 묻어나 있다. 문창범·김인숙 부부는 이 책을 쓰며 치료비가 부족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인세 1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세도 기부할 뜻을 전해왔다.<br/><br/>삼성서울병원은 부부의 뜻에 따라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환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1.txt

제목: 환자들 삶의 질 우선하는 한방 암 면역치료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44  
본문: [쿠키 건강] # 2011년 8월 건강검진 후 위암4기 복막 난소전이 진단을 받은 A(46·여)씨는 꾸준히 항암치료를 이어왔다. A씨는 수차례 화학항암제를 변경한 후 2013년 8월초 3차 항암제의 기대 효과가 10% 정도이고, 효과가 없을 경우 4~6개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다. 2013년 8월29일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은 A씨는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진단에 따라 한약으로 치종탕과 천연항암조성물 ‘티버스터’, 황뜸과 고주파온열치료를 받았다.<br/><br/>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A씨는 치료 1개월 후 컴퓨터단층촬영(CT) 결과 눈에 보이는 초기 위암이 없고, 복수와 복수와 크루켄베르그 종양(난소의 전이성 종양)이 줄었다는 영상의학과 판독결과를 받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현재 이 환자는 관해평가 상 부분관해(PR) 또는 안정상태(SD)를 유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2005년 유방암 진단 후 왼쪽 가슴을 절제하고 8번의 항암치료와 30번의 방사선치료를 받았던 B(57·여)씨. B씨는 2011년 7월 종합건강검진에서 복막에 전이된 위암 판정을 받은 후, 2012년 8월까지 11차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암세포가 일정 양 줄었으나 혈소판수치 감소로 항암 휴식기를 가지면서, 항암 면역치료와 식생활 개선,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했다. B씨는 항암 면역치료를 위해 하나통합한의원에서 티버스터(T.buster)’를 복용했다.<br/><br/>2013년 5월 B씨는 2년전 복막 전이 위암 판정을 받은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멸됐으며, 6월 컴퓨터단층활영 검사에서도 복부의 암세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br/><br/>이처럼 기존의 항암치료로 암 절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보조적 항암’ 치료를 받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한방치료는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병용되는 면역요법이 많다. 예를 들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기전을 가진 옻나무를 약재로 사용하면 보조적 면역을 넘어서 보조적 항암에 근접한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br/><br/>또한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11종 한의서에 근거해 처방을 내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br/><br/>하지만 김보근 원장은 “한방치료를 포함한 보완대체요법들의 효과를 ‘암이 치료됐다!’고 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3대 치료법(수술, 항암, 방사선) 등을 병용한 삶의 질의 상승 효과인지, 그 중 한방 보완대체요법 단독치료의 효과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 ‘티버스터’<br/><br/>위 두 환자의 경우처럼 하나통합한의원이 표방하는 한방 암 면역치료는 면역력강화를 통한 항암 치료에 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항암치료에서 독한 성분들이 일반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체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1'>암세포가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20% 이내의 증가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항암제를 시작하기 보다, 항암치료 휴지기를 가지면서 항암으로 인해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고 몸의 균형과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span>”고 설명했다.<br/><br/>천연항암조성물 ‘티버스터(T.buster)-치종단(Ⅱ)’는 하나통합한의원의 면역치료와 한방 암 치료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 의료진은 지난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티버스터의 임상결과를 담은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br/><br/>이 논문에 의하면 성별·연령·병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치종단(Ⅱ) ‘티버스터’는 구분에 관계 없이 단독치료 3개월 후 시행한 1차 관해평가에서 67% 이상, 단독치료로 12개월 후 시행한 2차 관해평가에서 36% 이상 안정상태(SD)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r/><br/>김보근 원장은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각종 암에 적용되는 한방치료와 면역치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증치료가 가능하다. 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2.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면역감시체계 정상유지하는 통합면역암치료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90  
본문: [쿠키 건강]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 여전히 ‘암’이다. 암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고령화, 흡연, 유전적 요인 등이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br/><br/>2010년 국가 암 등록 자료를 보면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며 유방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국내 갑상선암 발병률이 30배나 높아졌다. 이는 갑상선암 발생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최근 초음파나 검사의 발달로 인해 더 많은 발견과 관련돼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br/><br/>갑상선암은 악성종양을 말하며, 갑상선호르몬을 생산 및 저장했다가 필요한 기관에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갑상선암이 발병됐을 경우 특별한 증상은 없으며, 일부 크기 증가나 쉰목소리, 통증, 압박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br/>대부분 갑상선암은 유두암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의 순서로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갑상선암중 비교적 덜 위험한 유두암이 전체의 80%를 잡고 있어 비교적 갑상선암 환자 생존률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br/><br/>부산 통합면역암치료 방선휘한의원의 경우 수술 전 면역관리를 받은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변비나 소화장애 구토등 예상하는 후유증도 작았으며, 검사 상 소견도 상당히 좋은 상태로 다영한 호전 사례를 보이고 있다.<br/><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실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소견의 갑상선암 환자 A씨가 본인의 약한 체력과 갑상선 절제로 예상되는 만성피로에 대한 부담감으로 수술을 거부하고 있었으나, 면역치료를 받으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심리적인 안정도 되찾아서 수술에 대한 용기를 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의 수술로 인한 체력소실과 면역력저하 등 공격적치료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면역감시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는 면역치료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인 생활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3.txt

제목: [르포] 집 앞 외출조차 힘겨웠던 이들… 높기만 하던 병원 문턱을 뛰어넘다  
날짜: 20140402  
기자: 정부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127  
본문: 중증장애인 20명, 골든써클재단 ‘무료 검진’ 선물받던 날<br/>10㎝.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높이지만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윤두선(53)씨에게는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커다란 장벽이다. 아파도 몸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했던 윤씨는 1일 오전 자그마치 1년 만에 힘겹게 휠체어를 끌고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을 찾았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윤씨에게 ‘무료 암 검진’을 선물했다.<br/>봄꽃이 만개한 이날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골든써클재단의 MCC(Medical Compassion Care) 사업이 첫선을 보이는 자리였다. MCC는 비장애인이 서울대병원에서 ‘스마트 암 검사’를 받으면 재단이 그 수만큼 중증장애인들에게 무료 검진을 지원하는 ‘1+1 의료 기부’다. 비장애인이 재단(02-785-8105)에 기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재단에서 중증장애인을 섭외해 암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br/>들뜬 마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병원을 찾아온 중증장애인 20명이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원형 탁자를 따라 둥글게 줄을 섰다. 검진 차례를 기다리며 곳곳에서 왁자지껄 수다가 벌어졌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병원 방문도 봄나들이다.<br/>스마트 암 검사는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6대 암의 발병 여부와 혈당, 동맥경화, 신장, 간 기능 등 21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최적의 검사 기법이다. 평균 정확도는 85∼95%로 일반 혈액검사보다 높다. 비용도 33만원으로 일반 종합검진보다 저렴하고 보름 정도면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br/>이 검사를 개발한 서울대 의대 병리과 김철우 교수는 “<span class='quot0'>복잡한 종합검진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 기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재단과 협의해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br/>윤씨는 “<span class='quot1'>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의료 접근권이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span>”라며 “<span class='quot1'>힘들게 병원에 가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검사 장비가 없어 엑스레이조차 못 찍고 오는 경우도 있다</span>”고 토로했다. 그는 전신을 휠체어에 의지해 산다. 왼쪽 손목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br/>윤씨는 “<span class='quot1'>10㎝ 문턱을 넘기도 힘든 중증장애인은 같은 병에 걸려도 비장애인보다 수만 배 고통스럽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렇게 미리 검진 받고 병을 예방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질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1+1 의료 기부’에 동참한 비장애인 박종형(50)씨는 충북 속리산에서 왔다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3년째 중증장애인 이동봉사를 해온 큰아들(17)에게 이런 기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 검진을 받은 것도 든든한데, 누군가가 내 덕에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span>”며 활짝 웃었다.<br/>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4.txt

제목: 10대 5명과 시비붙어 후유증 시달린 30대 자살 사건… ‘쌍방폭행’ 결론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40  
본문: [쿠키 사회] 엘리베이터에서 시비가 붙어 10대 5명과 몸싸움을 벌인 30대가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br/>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에 가담한 1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br/>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울산 중구 한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던 이모(32)씨는 고교 졸업반이던 10대 5명에게 “먼저 내리고 타라”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부러져 전치 8주, 10대 1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br/>앞서 울산 중부경찰서는 이씨와 10대 5명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br/>그런데 지난달 11일 이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씨의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유족들은 “이씨는 퇴원을 한 뒤에도 머리가 아파 잠을 못 잘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집단 폭행의 후유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이 생겨 600여만원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br/>하지만 이씨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씨의 부친은 암 투병 중이었고, 이씨마저 입원하면서 8주 동안의 입원비를 이씨의 친척이 대신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씨는 수술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자살을 택했다.<br/>검찰은 “이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사망원인과 관련해서도 폭행 사건과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증거가 없다. 10대들의 폭행이 이씨의 자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5.txt

제목: 서울대치과병원-국립암센터,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59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1일, 국립암센터와 자매병원 협약을 체결했다.<br/><br/>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체결한 ‘치과의사전공의 위·수탁교육 협약’의 연장선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교육 계획 및 지도감독 ▲환자 진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조 ▲기술지원 및 시설이용 기회 제공 등 업무협약의 범위를 확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진료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br/><br/>이에 대해 류인철 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치료 분야의 특성화된 국립암센터와 구강악안면외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협약을 통해 상호 특수한 진료 환경에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교육·진료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구강보건의료서비스의 선진화와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span>”고 전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6.txt

제목: 과일·야채 권장량 倍 늘려야… “야채가 과일보다 4배 효과”  
날짜: 20140402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094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하루 야채 및 과일 섭취량은 5접시(접시당 80g으로 전체 400g)다. 이를 배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일보다 야채가 4배나 건강에 더 좋다는 점도 확인됐다.<br/>영국 런던대(UCL) 연구진은 영국인 6만5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연구결과 야채나 과일을 최소 하루 7접시 먹는 사람은 1접시 이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조기사망률이 42% 줄었다. 또 5∼7접시를 먹는 사람의 조기 사망률은 36%, 3∼5접시는 29%, 1∼3접시는 14% 감소했다. 최소 7접시를 먹는 사람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5%, 심장병 사망률은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방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 7접시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고, 10접시가 최적의 숫자</span>”라고 주장했다. 하루 5접시의 WHO 권장량을 최소 2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를 이끈 오이놀라 예보데 박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아무리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더 먹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글래스고대 나비스 사타르 박사는 “<span class='quot1'>하루 7접시 이상 먹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야채와 과일에 보조금을 지급해 비용을 낮추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에서는 야채가 과일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야채의 경우 접시당 16%씩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과일은 접시당 4%에 불과했다. 통조림에 들어간 냉동 과일은 사망률을 오히려 17%나 증가시켰다. 당분 때문이다. 과일 주스는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2 플러스 5’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호주는 하루 과일 2접시와 야채 5접시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염병과 공공보건 저널’에 실렸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7.txt

제목: “갑상선암 획일적 제재 가해져선 안돼”  
날짜: 201404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410  
본문: 대한갑상선학회 정재훈 이사장 공식입장 발표<br/><br/>[쿠키 건강] 최근 불거진 갑상선암 과잉진단 및 과잉진료 논란을 두고 대한갑상선학회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br/><br/>정재훈 대한갑상선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는 절대적인 해악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제제가 가해져선 안될 것"이라면서 '갑상선암 과다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br/><br/>◇1㎝ 이하의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br/><br/>앞서 의사연대가 "갑상선검사 결과 크기가 1㎝ 이하인 경우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진위 여부는 의료진뿐 아니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갑상선암 환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다.<br/><br/>이는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했을 때 많은 수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여진다.<br/><br/>그러나 정 이사장은 "외국 부검자료를 살펴보면 갑상선 잠재암은 대상집단 및 지역에 따라 적게는 0.45%, 많게는 36%에서 발견되는데 대부분 0.3㎝ 이하였다"면서 "따라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1㎝ 이하는 틀린 주장이고, 정확하게는 0.3㎝ 이하의 매우 작은 크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br/><br/>실제로 0.5㎝ 이하의 작은 갑상선종양은 초음파소견상 악성을 시사하는 위양성률이 높고 세포검사에서 부적절한 검체의 빈도가 높다.<br/><br/>이에 대한갑상선학회는 2010년 권고안에서 갑상선종양이 우연히 발견됐어도 직경이 0.5㎝ 이하인 경우 주위 림프절로 진행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세포검사 자체를 하지 않도록 정했다.<br/><br/>문제는 종양의 크기가 0.6~1㎝인 경우인데, 정 이사장은 "0.6~1.0㎝ 크기의 갑상선암 35년 재발률이 14%로 높고, 0.6~0.8㎝ 이상에서 원격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경과관찰보다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러한 크기의 갑상선암은 미국갑상선학회에서도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결론적으로 추적관찰을 하다가 종양이 0.5㎝을 초과하는 크기로 커지거나 주위로 진행되는 소견이 발견될 때 세포검사를 시행하고, 이후부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라는 것이 학회측의 공식주장이다.<br/><br/>◇갑상선암 5년 생존율 올바른 표현인가?<br/><br/>연대측에서 제시한 "국내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 100%" 데이터에 대해서는 "갑상선암의 자연적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암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br/><br/>미분화암처럼 진단 후 3~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진행이 매우 느리고, 진단 후 사망까지 걸리는 시간의 중간값이 15년 정도이므로 최소 15년 이상의 관찰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br/><br/>따라서 갑상선암의 생존율을 발표할 때는 5년 생존율이 아닌 최소 10년에서 30년 생존율이라는 긴 기간을 사용해야 한다.<br/><br/>정 이사장은 "최근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1㎝ 이하의 작은 암의 경우 치료를 시작한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단은 너무 이르고, 앞으로 10~20년 후에 판단해야 한다"면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부분의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이유는 증상이 없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장기간 치료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증상이 있거나 손으로 만져지는 갑상선암만 치료해라?<br/><br/>의사 연대를 결성한 서홍관 박사(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는 지난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갑상선 결절이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초음파검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그러나 정 이사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증상이 없고, 종양의 크기가 4~5㎝ 이상이 되서 주위 장기를 압박하거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위 조직으로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암이 다른 장기로 원격전이된 환자의 경우 전이장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므로 그 후에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할 수 없다.<br/><br/>그는 "실제로 1㎝ 이상의 갑상선종양도 촉진만으로는 절반도 발견할 수 없고, 초음파검사로 발견되는 갑상선종양의 약 15%만 숙련된 의사가 촉진할 수 있다"면서 "초음파검사로 조기진단이 가능한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입게 되는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냐?"고 반박했다.<br/><br/>◇효율보다 환자의 안전성 측면 고려해야<br/><br/>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뒤틀어진 의료현실이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다만 정 이사장은 "갑상선검사는 환자 개인의 기본권에 맡기돼 검사 결과 갑상선종양이 발견됐다면 이후에 의학적 상태, 동반질환의 유무, 정확한 진행상태 및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치료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의료행위는 효율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위만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8.txt

제목: 도덕 불감증에 걸린 ‘인구보건복지협회’, 복지부 감사서 지적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389  
본문: 법 위반하면서 국가건강검진 시행<br/>도 넘은 직원 혜택, 납품 업체서 협찬금까지 받아<br/>[쿠키 건강]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 소속 13개 지역 가족보건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특히 인구협회는 부당한 방법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하고, 출장 암검진을 과다하게 실시한 후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45일간의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 처분을 받기도 했다.<br/>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기관경고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br/>감사결과에 따르면 인구협회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검진비 등의 진료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문제는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br/>자료에 따르면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이 70명으로 제한됐으나, 인구협회 일부 지회 가족보건의원은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한 출장 암검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검진비용 환수 삭감/조정 처분을 받았다. 2010년에만 3895만원이 환수, 삭감/조정됐고, 2011년 2000여만원, 2012년 1452만원, 2013년(9월 현재) 633만원이 환수됐거나 삭감 조정됐다.<br/>또 인구협회 소속 가족보건의원들은 건강검진 대상자들로부터 일반 내과와 정형외과 진료를 실시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을 삭감당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과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br/>◇공무원 자격 사칭 등 불법 행위 남발…협회 직원들에게는 할인 혜택<br/>특히 인구협회 일부 지회에서는 공무수행 마크 부착과 보건복지부 앰블럼을 부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남발했다.<br/>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4월 인구협회 모 지회가 건강진단 홍보를 하면서 검진차량에 ‘공무수행’ 마크를 사용했으며, 같은 11월에는 복지부 앰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환자유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br/>이러한 불법행위로 2012년 3월 관할 지방검찰청에 ‘공무원 자격사칭’과 ‘공기호 부정사용죄’로 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공무수행 마크 사용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또 이번 감사 결과 인구협회가 산하 직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등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전국 13개 인구협회 지회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과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한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다.<br/>복지부는 진료비 감면은 협회 세입에 관계자는 것으로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회 간 진료비 감면에 대한 형성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구협회 각 지회는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지회별 서로 상이한 진료비 감면기준을 작용하고 있었으며, 감면비율 과다 적용으로 인한 협회 진료비 수입감소 초래, 직원에 대한 진료비 차등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br/>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회 간 진료비 감면기준과 회원 혜택내용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기준과 회원 혜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통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임의로 진료비 감면을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br/>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지회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감사 결과 00지회는 타 지회에 비해 적은 거주인구수로 건강검진 등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며, 회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임의로 80%로 결정하고 성과급 995만원을 9명에게 지급했다.<br/>이외에도 인구협회는 백신구입시 부적절한 수의계약 체결, 입찰공고내용 게시 부적정, 보험료 미정산 등 청소용역업무 수행 부적정, 인테리어 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법인카드사용 부적정, 명절선물 기준초과 부적정, 직원 해외배낭 연수에 따른 예산낭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체로부터 의약품 납품업체로부터 혐찬금을 받는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을 지적받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19.txt

제목: 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아피니토정’ 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313  
본문: [쿠키 건강]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이하 한국노바티스)의 진행성 유방암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정’(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에 적용된다.<br/><br/>아피니토정은 2012년 12월 식약처로부터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저해제 치료에 실패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HER2 음성인 폐경 후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아피니토정’과 ‘아로마신정’(성분명 엑스메스탄) 병용요법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호르몬 치료의 유효성을 증대시켜주는 최초이자 유일한 표적치료제이다.<br/><br/>이번 보험 급여 결정은 아피니토정이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 아로마신정 병용요법이 임상적 근거가 있는 최신 치료제로 언급된 점, 3상 무작위 배정 비교임상시험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병의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free survival)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킨 점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br/><br/>다기관 대규모3상 임상연구인 BOLERO-2(Breast cancer trials of OraL EveROlimus-2)에 따르면, 전체평가(central assessment)에서 아로마신정 단독투여군의 무진행생존기간이 4.1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아피니토정과 아로마신정 병용투여군에서는 11개월을 기록, 아피니토정과 아로마신정 병용요법이 병의 무진행생존기간을 두 배 이상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OLERO-2의 하위분석자료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는 평가에서도 아피니토정과 아로마신정 병용투여군이 아로마신정 단독투여군에 대비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항암화학요법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또 다른 치료 대안이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br/><br/>곽훈희 한국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번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국내 의료진들에게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혜택을 보지 못했던 진행성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치료 기회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br/><br/>진행성 유방암은 전이성 유방암과 국소 진행성 유방암을 포함하는데 전이성 유방암은 3, 4기 유방암으로써 간, 폐 등의 다른 주요 장기로 암이 전이된 경우를 말하며 국소 진행성 유방암은 림프절이나 유방 내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된 경우를 말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0.txt

제목: 하루 한 잔 건강을 지키는 스마트한 주스, 그린 스무디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227  
본문: [쿠키 생활] 해독 주스, 청혈 주스, 파이토 주스, 그린 스무디 등 건강 주스의 열풍이 뜨겁다. 패스트푸드와 각종 간편식은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줬지만 다양한 성인병과 암의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는 함께 높였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간편하면서도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주스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br/>◇그린 스무디<br/>새삼 각종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마시는 주스가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식사를 할 때는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게 된다. 육류와 함께 쌈으로 채소를 섭취하기도 하고 삶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섭취할 경우 각종 채소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100% 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br/>특히 열을 가해 조리할 경우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과일 등을 추가로 섭취해야 한다. 녹색 잎채소와 과일을 함께 생으로 갈아 마시는 그린 스무디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건강 주스로 생으로 갈아 마시기 때문에 각종 재료가 보유한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재료로 무한한 레시피를 만들 수 있다.<br/>◇과일과 녹색 잎채소, 최고의 궁합<br/>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알지만 생채소를 먹기란 쉽지 않다. 갈아서 채소를 마실 경우 특유의 향과 맛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br/>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과일이다. 특히 파인애플이나 바나나는 맛과 향이 강해 훨씬 부드럽게 목으로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서로 보완이 가능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할 경우 더욱 섭취 효과를 높일 수 있다.<br/>녹황색 채소 중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은 케일은 장을 청소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해 디톡스를 도와주는데 이때 파인애플과 함께 섭취하면 풍부한 효소로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br/>◇제대로 된 그린 스무디, 고성능 블렌더가 완성<br/>그린 스무디를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체내 소화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채소를 가열해 섭취할 경우 소화 흡수율은 높아지지만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되는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그린 스무디다.<br/>그린 스무디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고속 블렌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섬유질은 체내에 섬유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고 섬유질을 이루고 있는 ‘섬유소’에 내재영양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체내흡수율 등 그 효과가 달라진다.<br/>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로푸드(low food) 쉐프는 ‘경미니’ 쉐프는 “3마력 이상의 강력한 힘을 제공하는 블렌더를 사용할 경우 강력한 회전력으로 섬유질까지 미세하게 분쇄가 가능하고 재료 고유의 맛이 살아 있는 그린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br/>고성능 블렌더는 모터의 회전운동으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 비타민C등 기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39℃를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 온도는 모터의 회전 운동에 의해 올라가므로 모터의 파워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br/>건강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주방 가전 브랜드 리큅은 경미니 로푸드 쉐프와 다양한 그린 스무디 레시피와 제조 방법을 공개한다.<br/>매주 수요일 공개되는 레시피는 스무디 재료들의 특징과 효과 그리고 만들기 팁을 제공해 집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br/>리큅과 경미니 셰프의 그린 스무디 레시피는 리큅 공식 블로그(www.blog.naver.com/lequiptalk)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lequiptalk), 유투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1.txt

제목: 한화손보,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 출시  
날짜: 201404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2100000331  
본문: [쿠키 경제]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을 출시하고 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br/>이 상품은 고객의 스타일에 맞춰 보험기간의 선택이 가능하며 100세 만기 뿐만 아니라 적정보험료에 맞춘 년 만기를 운영하고 보장 집중기의 복층설계를 통해 집중 보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고객의 라이프 스테이지 별 다양한 담보를 통해 개인의 니즈에 맞는 설계가 가능하다.<br/>암, 뇌혈관질환/뇌졸중, 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등 3대 진단비의 비갱신형 가입이 가능하고, 생식기질환 및 관절염수술을 포함한 “16대질병수술비”등을 부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켰다.<br/>또한 목적자금 중도 환급이 가능하며, 회사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영업보험료의 1% 할인 혜택도 준다.<br/>이 상품의 가입연령은 담보에 따라 20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10년부터 5년 단위로 30년까지, 보험기간은 60세~110세 만기로 설계할 수 있다.<br/>한화손해보험 상품개발팀 이명균 팀장은 “<span class='quot0'>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 보장보험은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보장기간, 보장크기와 범위 등 니즈에 맞게 균형설계가 가능한 종합보험</span>”이라고 설명하고, “<span class='quot0'>보장자산과 건강자산의 빈틈없는 설계로 100세 시대 노후 생활까지 고려 상품이다</span>”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2.txt

제목: 국립암센터 자체개발 면역세포치료제, 임상 1상 식약처 승인  
날짜: 201404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215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은 폐암, 위암, 및 췌장암을 포함한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터티엔티셀(TERTiNT Cell)의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br/><br/>국립암센터는 2009년부터 다양한 고형암 환자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자가유래 세포독성 T 세포치료제’ 개발을 수행해 왔다. 지난 3월 21일 터티엔티셀(TERTiNT Cell)의 제1상 임상시험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승인돼, 표준 치료에 실패한 다양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착수한다.<br/><br/>hTERT(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는 암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단백질로, 대부분의 암세포들이에 많이 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세포들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터티앤티셀(TERTiNT Cell)은 hTERT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종양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치료 대상 환자는 사전선별검사를 통해 hTERT 항원에 대한 반응성이 확인된 환자로 표준 치료에 실패한 폐암, 위암, 췌장암, 간암 환자들이다.<br/><br/>이진수 원장은 “<span class='quot0'>표준 치료에 실패하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많은 폐암, 위암, 췌장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지난 2011년 4월부터 국립암센터는 자체 개발한 면역세포치료제로, 버킷 림프종, 비인두암, 호지킨 림프종, 림프세포증식 질환 및 위암을 위한 앱비앤티셀(EBViNT Cell)과 악성 뇌종양(악성신경교종)을 위한 위티엔티셀(WTiNT Cell)의 임상시험을 진행해 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3.txt

제목: [신제품] 한미약품, 복약 편의성 높인 경구용 항암제 ‘카페빈정’  
날짜: 201404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263  
본문: [쿠키 건강] 한미약품은 복약 편의성을 높인 경구용 항암치료제 ‘카페빈정’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br/><br/>카페빈은 직장결장암, 위암 및 유방암 치료에 효과적인 카페시타빈 성분의 항암치료제이다.<br/><br/>카페시타빈 성분은 종양 부위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구내염, 설사, 구역, 탈모, 호중구감소증과 같은 전신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br/><br/>특히, 카페빈은 국내 항암치료제 최초로 환자 대상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카페빈 단독 병용 약물을 직장결장암, 위암, 유방암 환자군에 투여한 결과, 생존 기간 연장 및 암 진행속도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카페빈은 150mg, 500mg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며, 경구용 제제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수입약 대비 저렴한 약가(150mg 650원/500mg 1950원)로 출시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br/><br/>한미약품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카페빈은 환자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 받아 처방 신뢰도가 높은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복용이 간편하고 약값도 저렴해 항암환자들의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카페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3주간을 주기로 1250mg를 1일 2회(아침, 저녁) 2주간 복용한 후 1주 휴약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4.txt

제목: 롯데손해보험, '내마음속 건강보험' 출시  
날짜: 201404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381  
본문: [쿠키 경제] 롯데손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종합보험 '(무)롯데 내마음속 건강보험'을 1일 출시했다.<br/>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최대 20년 갱신형 특약을 통해 기존 종합건강상품 대비 낮은 초기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20년의 긴 갱신주기로 잦은 보험료 변경의 부담을 해소했다.<br/>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30대도 보험료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성인 암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암종류별 실제치료비에 맞게 4단계의 차등화된 보장과 함께 암으로 입원시, 수술시, 항암치료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두번째암(원발암, 전이암)에 대하여도 100세까지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하여 암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br/>또한 주요 14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위궤양 등)에 신 담보로 4대 질병(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을 추가하여 18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보험금 일시지급 뿐 아니라 매 10년간 보험금을 지급하여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한 가정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br/>롯데손보 상품개발팀 김태수 팀장은 “<span class='quot0'>전 특약 갱신형으로 합리적인 보험료와 긴 보장기간으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했다</span>” 며 “<span class='quot0'>롯데 내 마음속 건강보험은 사망ㆍ후유장해ㆍ암ㆍ2대성인질환ㆍ운전자보험ㆍ 배상책임 ㆍ실손의료비의 종합적 보장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걱정 없이 100세까지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품이다</span>” 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5.txt

제목: 런던대 연구진 "하루에 과일·채소 최소 7접시 먹어라"… WHO 권장량 2배로 늘려야  
날짜: 20140401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496  
본문: [쿠키 생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0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하루 야채 및 과일 섭취량은 5접시(접시 당 80g으로 전체 400g)다. 이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일보다 야채가 4배나 건강에 더 좋다는 점도 확인됐다.<br/>영국 런던대(UCL) 연구진은 영국인 6만50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12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 연구 결과 야채나 과일을 최소 하루 7접시 먹는 사람은 1접시 이하를 먹는 사람에 비해 조기사망률이 42% 줄었다. 또 5~7접시를 먹는 사람의 조기 사망률은 36%, 3~5접시는 29%, 1~3접시는 14% 감소했다. 최소 7 접시를 먹는 사람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25%, 심장병 사망률은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예방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하루 7접시도 충분하지 않은 양이고, 10접시가 최적의 숫자</span>”라고 주장했다. 하루 5접시의 WHO 권장량을 최소 2배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를 이끈 오이놀라 예보데 박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아무리 많은 양의 야채와 과일을 섭취하더라도 더 먹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과일과 야채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글래스고 대학의 나비스 사타르 박사는 “<span class='quot1'>하루 7접시 이상 먹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야채와 과일에 보조금을 지급해 비용을 낮추고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등의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번 연구에서는 야채가 과일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왔다. 야채의 경우 접시 당 16%씩 사망률을 감소시키지만 과일은 접시 당 4%에 불과했다. 통조림에 들어간 냉동 과일은 사망률을 오히려 17%나 증가시켰다. 당분 때문이다. 과일 쥬스는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호주의 ‘2 플러스 5’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호주는 하루 과일 2접시와 야채 5접시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전염병과 공공 보건 저널’에 실렸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6.txt

제목: 건강관리협회,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 공모전 열어  
날짜: 201404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322  
본문: [쿠키 건강]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가 오는 5월 31일 금연의 날을 기념해 이달 30일까지 ‘제20회 전국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공모전’을 실시한다.<br/>이번 공모전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의 좋은 점을 일깨워 담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br/>지난 2012년 통계청에 보고된 사망자 수에 흡연에 의한 기여위험도를 곱해 추정한 흡연 관련 사망자 수는 2012년 한 해에만 무려 5만8155명(남성 4만9704명, 여성 84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br/>흡연은 사망 원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에는 4,800가지가 넘는 해로운 물질과 암을 일으키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69가지 성분이 들어있다.<br/>건강관리협회가 주최하는 제 20회 초등학생 금연 글짓기 공모는 이와 같은 내용을 모든 어린이들에게 해로움을 알리고, 금연의 좋은 점을 일깨우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7.txt

제목: 제일병원 “산부인과 의료 한류 개척”  
날짜: 20140401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337  
본문: 요즘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제일병원이 불임치료와 여성암 치료, 특화검진 등을 통해 산부인과 의료한류를 개척해 주목받고 있다. 제일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미용·성형 중심에서 벗어나 여성 특화진료를 통해 새로운 의료관광 롤 모델을 구축하고, 병원 경쟁력 강화와 수익 창출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 김태경 제일병원 행정부원장은 “<span class='quot0'>50년간의 여성 특화진료 노하우를 의료관광에 접목시켜 외국인 화자들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환자들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span>”이라고 설명했다.<br/>2009년 국제협력팀 신설로 본격적인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선 제일병원은 첫해에만 8747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2만262명의 외국인 환자가 제일병원을 방문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불임치료와 여성암, 특화검진 등을 내세워 제일병원만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가장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러시아와 몽골 등 환자 유치 국가도 다양하다. 지난 2011년에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새로운 시장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현지 병원들과 협력 업무도 추진하고 있다. 김 행정부원장은 “<span class='quot0'>카자흐스탄의 경우 의료시스템 수출과 환자 유치 등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일병원은 지난해 베트남과 미얀마, 캄보디아를 방문해 불임치료 환자 유치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올해 동남아시아 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br/>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일병원은 2012년 인터내셔널 클리닉(International Clinic)을 개설했다. 이 클리닉은 외국인 전담 의료진과 간호사, 통역사가 배치돼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예약과 진료, 검사, 치료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제일병원은 한국 방문에 필요한 서류발급 등 행정서비스, 인근 호텔과의 숙박 연계, 병원이 소유한 콘도형 숙소 제공 서비스 등으로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행정부원장은 “<span class='quot0'>1963년 국내 최초 여성전문병원이라는 전통과 50년간의 산부인과 진료라는 고유 브랜드가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큰 경쟁력이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불임치료 성공률이 높고 자궁경부암 등 여성암 진료와 치료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실력을 인정받고 있다</span>”고 자부했다.<br/>또한 외국인 환자들의 국적이 다양화하고 입원 환자들이 늘면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단 개발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유럽 환자식 외에 러시아·몽골 환자식 25종을 지난해 자체적으로 추가 개발했으며, 병원 영양사들이 직접 개발한 이 메뉴들은 현재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8.txt

제목: [인터뷰] 충북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 배장환 교수 “신속한 병원 도착이 生死 결정”  
날짜: 20140401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401100000045  
본문: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낀 후 얼마 만에 병원을 찾느냐가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급성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병원을 늦게 찾은 경우였습니다.”<br/>충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배장환 교수는 인터뷰 내내 급성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병인만큼 한시라도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장질환은 뇌졸중·암과 더불어 한국인의 사망원인 1·2위를 다투는 질환이다. 그중에서도 심근경색은 사망률도 높은데다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 확률이 높은 질환이다. 혈전 등으로 막힌 혈관을 재빠르게 뚫어주지 않으면 심장조직은 영영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괴사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심근경색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일단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119에 연락해서 심근경색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br/>충북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 및 수술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배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병원 문턱도 오지 못하고 길에서 죽는 경우가 있다. 1분 1초를 다투는 질환이지만 모든 병원이 심근경색환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병원 간 이송 중에 사망하기도 한다”며 “심근경색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진과 치료실을 갖춘 곳에서 초기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 교수는 “<span class='quot0'>흉통을 느껴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자가용이 아닌 119에 연락해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구급차에는 심장 발작으로 심장과 호흡이 멎었을 때, 즉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기가 갖춰져 있다</span>”고 덧붙였다. 또한 배 교수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는 “병원을 찾은 어르신들께 심근경색을 아시는지 여쭤보면 ‘알고 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다 보니 급성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이를 모르고 방치하다 도저히 손쓸 수 없을 때 병원을 찾는 문제가 생긴다”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앓고 있거나 심장병의 가족력이 있다면 평소 심근경색 증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br/>배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흉통을 느끼고서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사망한 한 50대 남성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면서 “그 환자는 흉통을 느끼고도 집에서 이틀을 견디다 병원을 찾았다. 자신에게 찾아온 증상이 심근경색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치료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증상에 대한 인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배장환 교수는 지역민들의 심근경색 예방과 극복을 위해 한마디 덧붙였다.<br/>“이곳의 의사들은 한밤중에 급성심근경색 환자가 오더라도 15분 내로 막힌 혈관을 뚫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병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급성환자와 더불어 만성심근경색 환자들 및 그 보호자들이 치료받기 위해 타지로 가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29.txt

제목: 한방암면역치료, ‘온열요법’과 병용한 ‘티버스터’도 성과  
날짜: 2014033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184  
본문: [쿠키 건강] 건강한 정상인의 체온은 36.5℃(35.8~37.2℃) 정조이다. 또한 피부 온도는 33.9℃정도로 정상 체온 36.5℃보다는 약간 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체온은 인체의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진다.<br/><br/>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하나통합한의원 김보근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능력과 면역력뿐만 아니라 효소활성도, 소화 능력, 혈액순환 등 전반적인 인체 활동 능력이 모두 저하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체온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 가량 감소되고,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은 최대 500~600% 가량 증가된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처럼 체온이 면역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은 의학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실제 독일 등 유럽에서 암 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로 체온이 활용된다. 또 일본에서도 기초체온이 정상체온 범위보다 1.5℃ 가량 낮으면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는 의견도 있다.<br/><br/>일본의 국립예방위생연구소에서는 자궁암 세포와 열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39.5℃ 이상의 온도에서 암세포가 10일 만에 사라져서 암세포가 고온에 약하다는 점을 밝혀냈다.<br/><br/>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방 암 면역치료에서 일정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온열치료이다.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체온이 일정 온도 이상 상승시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이론을 근거로 실제 암 환자의 치료에 온열요법을 적용하는 양·한방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의 경우 천연 항암 조성물 ‘티버스터’와 다양한 온열치료, 고주파온열치료 등을 시행해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B형 간염 보균자였던 50대의 남성 환자의 경우 평소 아무런 자각증상 없이 2013년 3월 건강검진중 간암 판정을 받았다. 여러 개의 작은 종양이 있었지만 기존의 항암 수술을 미루고, 우선적으로 한방으로 면역력을 키우면서 암을 다스리기를 원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본원의 천연물 항암 성분이 있는 탕약과 티버스터로 치료를 시작했다. 복용 약 2주일 후 검사에서 종양표지자 수치가 변화되기 시작해, 한달 내로 정상치로 회복됐다”며 “온열요법, 체질오행침 등의 치료를 병행한 결과 현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이러한 온열요법의 경우 양방에서는 고주파 기계를 통해, 한방에서는 주로 뜸을 통해 속열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고주파 온열요법은 스포츠 선수의 근육통,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오십견, 위장병 환자의 염증치료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또한 암환자들은 항암이나 방사선과 동시에 진행했을 때 상승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티버스터’와 ‘온열치료’ 병용 사례로 지난 2013년 8월 다발성 간전이의 담당남 판정을 받은 A(71·남)씨는 수술을 미루고 한방 암 면역치료를 9월3일부터 시행했다. 천연 항암 조성물인 치종단과 티버스터, 면역단을 복용하면서 왕뜸 온열요법과 화침치료, 면역약침을 병행했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2'>A환자의 경우 최초 혈액검사시 종양표지자인 CA-19-9 수치가 194.70였으나, 1개월 간의 티버스터와 온열치료를 통해 종양표지 수치가 66.61까지로 떨어졌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박생채 원장은 “뜸 치료는 한방 전통요법이면서 약 2시간 가량 지속되는 쑥봉의 열감을 몸속으로 깊이 전해주는 효과가 있으면서 비용이 저렴하다. 따라서 환자들이 부담없이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온열요법을 활용한 임상사례는 많이 검토되고 있고, 하나통합한의원도 고주파와 뜸을 통한 온열요법을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0.txt

제목: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자주 우울… 혹시 치매?  
날짜: 2014033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022  
본문: 한국골든에이지포럼(회장 김일순)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내가 치매에 걸린다면’이란 제목으로 치매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br/>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널리 알리고, 치매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치매특별등급제도란 바로 경증 치매 환자들에게도 방문간호 등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br/>치매란 기억력 판단력 공간지각능력 등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 감퇴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고령 노인이 가장 겁내는 병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병이기도 하다.<br/>고령자의 입장에서 어떤 증상을 겪을 때 치매를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할지 알아봤다.<br/>◇자꾸 깜박깜박 잊을 때=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듯 기억력도 자연히 조금씩 감퇴되기 마련이다. 치매 역시 다른 질환처럼 초기에 경미한 기억력 감퇴 증상을 시작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br/>문제는 초기엔 그 증상이 아주 가볍고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눈치 채지 못한다는 점이다.<br/>치매와 관련해 요즘 가장 관심을 끄는 기억력장애는 ‘경도인지장애’(MCI)다. 연구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 환자 4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이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병은 혈관성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치매 유형이다.<br/>경도인지장애는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뭔가를 잊어버릴 때 의심해 볼 수 있다.<br/>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최근의 일을 잊어버리는 단기 기억력 저하, 전에는 잘 해내던 일을 갑자기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계산 실수가 잦아질 때는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경도인지장애를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br/>◇노인성 우울 증세가 보일 때=치매 노인과 비슷한 증상을 보여 오인하기 쉬운 노인병도 있다. 소위 ‘가성치매’를 유발하는 노인성 우울증이다. 주의할 것은 이 우울증을 방치할 경우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br/>미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22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정도를 조사하고, 6년 뒤 다시 인지기능 손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 노인성 우울증이 심했던 노인일수록 인지기능 손상 정도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인지기능 손상은 치매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br/>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기선완 교수는 “<span class='quot1'>노년기의 우울증은 치매로 혼동되거나 두 증상을 서로 동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노년기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노인성 우울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치매 치료 시 우울증 치료도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치매 환자 중 우울증을 함께 겪는 비율은 약 30∼40%다. 기 교수는 “<span class='quot1'>우울증은 기분 장애이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와 다른 질병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매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갑자기 몸무게가 줄었을 때=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몸무게가 줄면 암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암 때문이기보다는 다른 원인 때문일 경우가 더 많다. 암에 의한 체중감량은 말기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다.<br/>확률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의 경우 알츠하이머도 갑자기 체중이 주는 여러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미국 시카고 러시대 메디컬센터 의료진이 평균 연령 75세의 가톨릭 성직자 82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계속 하락한 성직자들의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성직자들에 비해 3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이는 음식물 섭취와 신진대사의 이상이 뇌손상을 유발, 치매 발병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된다.<br/>한편 과거 일상적으로 맡아왔던 냄새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 노화로 귀가 어두워져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치매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1.txt

제목: 신경락빛사랑한의원장 조병준 장로 “건강한 몸 원한다면 체내 쌓인 독소부터 없애라”  
날짜: 20140331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032  
본문: “여러가지로 부족한데 2014년 국민일보 미션어워드 수상 한의원으로 선정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사랑을 바탕으로 환자와 고객들에게 더 잘 하라는 격려로 알겠습니다.”<br/>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아이스페이스(I-SPACE)에 있는 신경락빛사랑한의원 원장 조병준(64) 장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 더 열심히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br/>“현대인은 질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 그 원인은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 때문입니다.”<br/>적절치 못한 인스턴트 및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 체내에 독소를 만들고 이것이 축적돼 결국 질병이 된다는 설명이다.<br/>결국 이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 체내에서 축적된 독을 빼는 방법은 결국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땀을 흘릴 기회가 적고 대소변으로도 독소배출이 안되니 체내 독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br/>“면역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의 일부분도 장에서 분비하니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며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성 독소가 나가야하니 소변배출도 함께 중요합니다.”<br/>그렇다면 식생활 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무엇일까.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해독식이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와 과일, 현미밥과 삶은 고구마 한개 정도에 김치, 오이, 당근, 깻잎, 배춧속, 상추, 양배추, 고추, 양파 등을 장에 찍어 드시면 해독식이 된다</span>”며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소식(小食)을 해야 하고 생채소 중심의 반찬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r/>조 원장은 “<span class='quot0'>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된다</span>”고 설명했다.<br/>체내 독소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질병이 호전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것에 보람이 크다</span>”고 환하게 웃었다.<br/>조 원장은 원래 고교 교사로 있다가 1983년 경희대 한의대에 새로 입학, 6년간 한의학을 공부해 40세에 한의원을 개원했다. 12년간 진료경험을 쌓고 일산으로 온 뒤 비만 전문한의원으로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도 앞다투어 모여 들었다.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줌으로써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도록 한 것이 주효했다. 체질과 유형에 따른 원인치료가 선제돼야 하고 부작용과 후유증도 없도록 노력했다.<br/>너무 무리를 한 탓에 심한 디스크 환자가 되어 한동안 진료를 접어야 했던 조 원장은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적으로는 더 크게 성장했다. 교회 장로로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의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게 됐다.<br/>조 원장은 지방 제거를 위해 먼저 환자의 몸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없애도록 돕는 것에 진료의 초점을 맞춘다. 독소를 빼 혈액을 맑게 하여 대사기능을 높여 주고, 한쪽으로 위의 축소를 도모해 소식(小食)을 하는 체질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방법으로 부작용 없이 3개월간 15∼25㎏ 이상을 감량하게 만든다.<br/>신경락빛사랑한의원을 내방한 환자들은 “소식(小食)을 하는 데도 힘이 나고 체중은 날마다 줄어가면서 아픈 곳은 사라지고 컨디션은 좋아지니 신기하다. 젊은 시절의 체중과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니 매사에 자신이 생긴다”며 입을 모은다.<br/>앞으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겠다는 조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미션어워드 수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겠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동안 30년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제를 개발하는데도 노력을 하고 있다</span>”는 뜻을 밝혔다(신경락빛사랑한의원 031-902-2221).<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2.txt

제목: ‘강한병원’으로 제2도약 선언, 서유성 순천향대병원장  
날짜: 2014033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151  
본문: 개원 40주년, 서울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br/><br/>[쿠키 건강]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이라는 순천향 정신이 오롯이 살아있고, 그 정신을 40년간 계속 이어 왔습니다. 순천향대병원이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강점이 많은 이유죠.”<br/>순천향대학교병원 서유성 원장은 오는 4월 2일 개원 40주년을 맞아 ‘강한병원, 좋은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병원 구성원들이 제2의 탄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br/>이를 이해 순천향대병원은 지난 2년 동안 외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병동 리노베이션에 본격 나선다. 특히 순천향대병원은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화두로 10년, 20년 후에도 좋은병원, 강한병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br/>이처럼 순천향대병원 개원 40주년을 넘어 제2도약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서유성 원장은 “순천향대병원 설립자께서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라는 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진료에 임하셨다”며 “순천향이란 이름에서 묻어나오는 느낌처럼 인정이 넘치고 교직원들끼리 우애가 두텁다. 우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 분들께서도 인간적인 정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신다”고 지난 40년의 성과를 돌아봤다.<br/>◇1974년 문연 순천향대병원은?<br/>1974년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환자사랑의 순천향(順天鄕) 정신으로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로 개원했다.<br/>설립자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1921~1999)는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인공이자 대표적인 한국의 의료인으로 평가받는다. 1946년 일본 경도부립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까지 서울대의대 내과 조교를 거쳐 미국 코넬의대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마쳤다.<br/>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를 잡은 순천향은 현재의 순천향대서울병원을 모체로 1978년 학교법인 동은학원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갖춘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했다. 이어 1979년에는 순천향구미병원 개원에 이어 1982년 순천향천안병원을 개원했다. 지난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7개 단과대학과 7개 대학원을 거느리고 전국 4곳에 네트워크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다.<br/>특히 2001년에는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부천병원을 개원해 순천향의료원은 현재 3000병상의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현재 30개 진료과에 750병상을 운용하고 있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60여명의 전문교수진을 포함하여 1600여명의 교직원이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br/><br/>◇40년 역사에 이은 강한병원 되도록 노력할 것<br/>서 원장은 “지난 40년 역사만큼 경험과 노하우도 풍부하고, 훌륭하신 교수들도 많다. 또한 사이버나이프를 비롯해 최신 방사선 암치료기인 인피니티 등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증이나 평가에서 상위등급과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어 실력과 경험 모두를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br/>특히 병원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2년간 기울인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서 원장은 수익증대를 통한 건실 경영, 공간의 효율적인 구성과 재배치, 조직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신관 오픈을 계기로 외래 검사실, 진료실, 각 센터 등을 리노베이션했다고 설명했다.<br/>이러한 시스템과 병원 체질 개선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이뤄졌다. 서 원장은 “어떻게 하면 환자가 더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고민에서 모든 외래 진료가 같은 층에서 이뤄지도록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br/>또한 CT, MRI, 초음파 검사 등 모든 영상의학적 검사도 한 곳으로 모았으며, 곧 선보일 확장된 응급의료센터도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게 된다.<br/>이와 함께 순천향대병원은 올 해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화두로 삼았다. 이를 위해 순천향대병원과 서유성 원장은 다섯 가지 혁신을 추진 중이다. 경영혁신, 진료환경 혁신,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혁신, 병원의 위상 혁신, 교직원들의 마음가짐 혁신이 그것이다.<br/>서 원장은 “클리닉, 센터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다. 당일 내원 환자는 당일 진료와 검사를 마무리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며 “협력병의원과 유대도 강화하고 있으며,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의료관광도 소홀한 면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제진료센터도 강화하고, 국제협력팀을 만들어서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br/>이외에도 순천향대병원은 통합의료정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의료정보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15년 초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순천향대병원이 첨단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br/>“우리 병원의 비전이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입니다. 10년 후에 순천향은 초대형 병원은 아니지만 ‘좋은병원 강한병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br/>“<span class='quot0'>새로운 병원, 더 발전한 병원, 순천향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병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span>”는 서유성 원장은 “<span class='quot0'>순천향대병원이 진정한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span>”고 강조해다.<br/>한편, 순천향대병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아 4월 2일 오후 6시30분부터 용산아트홀에서 기념 공연을 펼친다. ‘순천향, 마흔 살의 이야기’ 주제의 이날 공연은 개그맨 서경석씨의 사횔, 인기 가수 바비킴과 JK김동욱 BMK가 각각 토크와 노래를 들려 줄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3.txt

제목: 순천향대 서울병원 ‘제2의 탄생’ 선언  
날짜: 2014033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023  
본문: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정형외과 교수·사진)이 개원 40주년을 맞아 ‘강한 병원,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의 탄생을 선언했다.<br/>순천향대 서울병원 서유성 병원장은 “<span class='quot0'>10년, 20년 후에도 좋은 병원 강한 병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2년 동안의 외래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최근 마무리 한데 이어 올해 총 350억원을 들여 입원 병동 개선공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br/>순천향대 서울병원은 1974년 4월 2일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현 위치에서 ‘순천향종합병원’으로 개원했고 78년 순천향의대를 설립, 대학병원 체제로 거듭났다.<br/>이 병원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병원으로 명성을 얻었다. 당시 국내 다른 병원들의 고급화 및 현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br/>지금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어도 작지만 강한 ‘강소병원’이란 평가를 얻고 있다. 40년 역사에서 얻은 진료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명의도 많기 때문. ‘사이버나이프’를 비롯해 최신 방사선 암 치료기인 ‘인피니티’ 등 첨단 의료장비도 두루 갖추고 있다.<br/>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앞으로 모든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환자 중심에 두기로 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외래 진료가 같은 층에서 이뤄지도록 바꾸고 컴퓨터 단층 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영상의학 검사도 한 곳으로 모아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응급의료센터도 쾌적하게 대폭 확장했다.<br/>서 병원장은 “<span class='quot0'>10년 후 순천향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병원 가장 강한 병원’으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육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진심으로 환자들 편에 서는 병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span>”고 다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4.txt

제목: [기획] 정부가 수용키로 한 과제 42건 분석해보니… ‘규제=암덩어리’ 아닌 것도 많다  
날짜: 20140331  
기자: 이성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060  
본문: 모든 규제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입됐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유지했을 때와 없앴을 때 공공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민일보가 30일 규제완화 끝장토론에서 제기돼 정부가 수용키로 한 42건의 과제를 분석한 결과 ‘규제=암덩어리’로 규정짓기에는 무리한 과제들이 다수 존재했다.<br/>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다. 정부는 규제 때문에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업계 건의를 수용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국토부는 출입문 개폐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구조변경’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문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꾸면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br/>택배차량 증차 문제도 정부 방침이 180도 바뀐 사례다. 택배업계는 정부의 허가제 방침으로 택배 차량이 부족해 불법 택배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그러나 2004년 이후 화물운송업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신규 증차를 전면 금지했다.<br/>퇴직연금 규제개선은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완화 과제에 포함됐다. 자산운용업계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식투자 한도 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규제는 개별 근로자들이 퇴직 이후 생계를 의지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는 특수성에서 생겨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은퇴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자산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끝장토론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이 없다</span>”고 말했다.<br/>사법부가 판단한 사안을 정부가 반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학교 주변 호텔건립과 관련해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제정해 대한항공 호텔 건립을 해결해주겠다고 밝혔다.<br/>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역시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통해 근로자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논리와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속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처간 조율 등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span class='quot1'>규제개혁은 여러 부처들이 걸려있는 데다 트레이드오프(상충관계)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율을 해야 하는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1'>대통령이 나서서 하나하나 풀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br/>세종=이성규 백상진 기자 zhibago@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5.txt

제목: 코내시경으로 뇌종양 제거한다  
날짜: 20140331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1100000024  
본문: 내시경술의 진화는 어디까지 계속될까. 코 내시경으로 뇌종양을 제거하는 신의료기술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br/>삼성서울병원 뇌종양센터는 지난 2월부터 ‘뇌종양 내시경수술 클리닉’을 새로 개설, 두 달째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병원은 내시경을 이용,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2008년 이래 400여 건이나 시술한 경험을 갖고 있다.<br/>뇌종양 내시경수술은 외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 환자의 콧구멍을 통해 내시경과 미세수술기구를 종양이 자라는 뇌 속까지 밀어 넣고 종양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br/>뇌하수체 종양, 두개인두종, 척색종, 뇌수막류, 뇌수막종, 후각신경아세포종 등 뇌와 인접한 부위에 발생한 대부분의 암과 비강암 제거에 적용된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종양은 뇌종양의 약 10∼15%를 차지하는 뇌하수체 선종이다.<br/>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남도현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엇보다도 머리를 열지 않고 코를 통해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술 흔적이 눈에 띄지 않게 되고 회복도 빠른데다 뇌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최소화해줄 수 있어 좋다</span>”고 말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6.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부담 덜어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0100000139  
본문: [쿠키 생활] 의료기술의 발전은 암 치료와 더불어 암 생존율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치료비용 발생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 암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암을 대비하기엔 부족하다.<br/>국내 암 유병자수는 현재 100만 명이다. 암 발병 연령대도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스트레스와 더불어 운동부족, 잘못된 생활식습관 등이다.<br/>통계에 의하면 암에 걸리면 암에 대한 두려움 12% 보다 치료비 부담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부담되는 암 치료비 대안으로 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암 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보종으로 매 년마다 보장내용 축소 또는 보험료상승이 예상되는 상품이다.<br/>암 보험은 검사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할 수 있기기에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암 발생율이 높은 암 종류로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보장금액이 큰 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br/>특히 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해도 소비자들이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다.<br/>▶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 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어 암 보험 상품 비교 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올바른 보험 가입이 될 수 있다.<br/>또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br/>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7.txt

제목: PCSK9 개발 경주, 화이자가 먼저 웃을까?  
날짜: 201403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0100000008  
본문: 보코시주맙 2상임상서 효과 입증<br/><br/>[쿠키 건강] 화이자의 보코시주맙(bococizumab)이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해 주목을 받았다.<br/><br/>화이자는 PCSK9 차단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보코시주맙이 2상임상 결과 모든 용량에서 1차 종료점을 충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2만 2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가을 시작된 대규모 3상임상 프로그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br/><br/>화이자에 따르면 월 2회 150mg 투여군과 월 1회 300mg 투약한 환자군에서 LDL-C 감소에 큰 영향력을 보였다. 시험은 총 314명 환자가 연구에 등록돼 위약군 대비 투약군의 이상반응 특징을 비교했다.<br/><br/>현재 임상가에 새로운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PCSK9 약물 개발에는 화이자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br/><br/>암젠은 이미 13개 3상임상 가운데 6개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고, 제휴를 맺은 리제네론과 사노피는 같은 계열 약물로 후기임상에 돌입했다.<br/><br/>PCSK9 약물은 LDL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춰 향후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이 확실시 되지만 개발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일부 난관을 극복해야만 한다.<br/><br/>이는 시장에서 저렴한 스타틴 제네릭과의 경쟁과 함께 PCSK9 기전 약물들이 질환의 특정 바이오마커에 있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br/><br/>한편 추적관찰 결과 스타틴 제제를 복용한 소수의 환자에서 정신착란과 혼미 등 신경인지 부작용 문제가 보고돼 FDA가 최근 경고한 바 있다.<br/><br/>이는 투약을 중단하면 쉽게 회복됐지만 이러한 부작용 문제에 대해 FDA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8.txt

제목: 순천향대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운영  
날짜: 201403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30100000041  
본문: 특화된 시술과 숙련된 전문의…쾌적하고 안전한 진료·치료 환경 제공<br/><br/>[쿠키 건강]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원장 박래경)이 소화기질환과 소화기암 진단·치료 기능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센터장 이태일)를 확장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br/><br/>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지난 28일 소화기내시경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다.<br/><br/>새로 문을 연 소화기내시경센터는 6개 독립된 룸으로 구성됐다. 상부위장관내시경실, 대장내시경실, 초음파내시경실, 협대역내시경실 등을 갖췄다. 또한 상담실, 대기실, 환자갱의실, 전처치실, 주사실, 회복실, 세척실 등이 구비돼,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와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br/><br/>병원 측에 따르면 상부위장관, 대장 등에 대한 최첨단 진단내시경이 가능하고, 초음파내시경과 협대역내시경은 최고의 기종과 종류를 갖춰 일반내시경으로 진단이 어려운 병변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최초로 조기위암의 점막하박리술(ESD)을 시행해,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br/><br/>순천향대 구미병원 소화기내시경센터는 매년 1만5000건 이상의 소화기내시경 검사와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세계소화기내시경학회(World Organization of Digestive Endoscopy. OMED)로부터 ‘국제내시경교육센터’로 인증을 받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와 순환체계로 진료하며 축적된 시술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하다.<br/><br/>이태일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새롭게 확장한 센터는 환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늘고 있는 소화기질환에 대한 연구와 진료로 지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39.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암보험으로 대비  
날짜: 2014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175  
본문: [쿠키 생활] 국내 암 유병자수는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암 발병 연령대도 젊은 층으로 확대되어 신규 암환자 수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br/>최근 주요 암 발생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더불어 운동부족, 잘못된 생활식습관 등이 있다.<br/>의료기술의 발전은 암 치료와 더불어 암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치료비용 발생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국가에서 암 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암을 대비하기엔 부족하다.<br/>통계에 의하면 암에 걸리면 암에 대한 두려움 12% 보다 치료비 부담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부담되는 암 치료비 대안으로 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암 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보종으로 매 년마다 보장내용 축소 또는 보험료상승이 예상되는 상품이다.<br/>암 보험은 검사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할 수 있기기에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암 발생율이 높은 암 종류로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보장금액이 큰 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br/>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해도 소비자들이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올바른 보험 선택이 될 수 있다.<br/>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0.txt

제목: 장홍석 서울성모병원 교수, 대한방사선수술학회장에 선출  
날짜: 201403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107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장홍석 교수(사진)가 대한방사선수술학회 회장에 선출됐다.<br/><br/>장홍석 회장은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열린 제9차 대한방사선수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5년 3월까지 1년이다.<br/><br/>지난 2004년 창립된 대한방사선수술학회는 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의학물리사 등 방사선수술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로,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감마나이프학회, 사이버나이프연구회, 노발리스 연구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br/><br/>신임 장홍석 회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종양학과 신경외과, 방사선물리학이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뤄 기존의 방사선으로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 첨단 방사선수술을 선도하는 학회가 되도록 힘쓰겠다</span>”고 말했다.<br/><br/>1985년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장 회장은 현재 서울성모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상과장, 의료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1.txt

제목: [김양규의 성서 한방보감] 영양 불균형  
날짜: 2014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019  
본문: 비만은 영양 과잉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영양 불균형이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3대 영양소와 미네랄, 비타민 등의 미량원소가 다 필요하다. 3대 영양소는 많이 필요하고 미량원소는 적은 양만 있어도 된다. 3대 영양소는 소위 타는 영양소이며 미량원소는 태워주는 영양소이다. 타는 영양소가 잘 타기 위해서는 태워주는 영양소가 잘 태워주어야 한다. 그런데 태워주는 영양소인 미량원소가 부족하면 타는 영양소인 3대 영양소가 잘 타지 못한다.<br/>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최종 산물이 포도당이 되어 이것이 세포 속에 들어가 미토콘드리아에 의해 ATP라는 에너지화가 돼야 하는데, 잘 태워지지 못하면 포도당이 핏속에 다량 남게 된다. 이것이 쌓이면 당뇨도 되고 비만도 된다. 그래서 비만은 영양의 불균형이 원인이다.<br/>당뇨 역시 마찬가지다. 당분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당분을 분해하는 요소를 많이 먹지 않아서 생긴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아무리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분해시키는 마이너 팩터를 많이 먹어주면 예방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량원소들을 의도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필요하다.<br/>암세포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으면 암이 되기 쉽고 암세포에 원료를 공급해서 증식을 촉진시키는 셈이 된다. 또한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아민이라는 물질은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의 원료가 되는데, 이것은 위장 내에서 아질산염과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아질산염은 가공육이나 어육연제품 등에 식품첨가물인 발색제로 첨가되고 있다. 동물성단백질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그 대사에서 비타민 B6를 필요로 하는데,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게 되면 크산투렌산이라는 중간대사 산물을 만들게 된다. 이 물질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독작용을 한다.<br/>그러므로 동물성단백질의 과잉섭취는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육 고기를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다.<br/>결핵 역시 마찬가지다.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공기 중에 결핵균이 많을까만 그런 결핵균을 마신다고 다 결핵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영양의 불균형으로 꼭 필요한 영양이 부족할 때 한방에서 말하는 폐음부족, 원기부족증으로 결핵이 생기는 것이다. 보통 감기 끝이나 오랜 질병의 끝에 기운이 진해져서 생기게 되는데 원인균은 물론 결핵균이지만 몸의 원기 부족 때문에 발병하게 된다. 원인균을 마셔서 다 병이 생긴다면 병이 생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br/>감기 역시 그렇다. 체내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감기가 많은 부분 예방이 된다. 물을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는 것은 몸의 저항력을 키워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큰 동기가 된다. 물 안에는 엄청난 영양소가 있는데 우린 일상에서 물을 그리 많이 마시지 않는다. 꼭 목이 마를 때가 아니더라도 식간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미네랄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br/>한방에서 건강은 음과 양의 균형으로 본다. 영양 역시 음양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균형이 맞지 않은 식사를 한다. 그 때문에 생기는 병이 적지 않다. 음식만 조금 신경 써 먹으면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말이다.<br/>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맞추어 사는 사람들이다. 간혹 진리투쟁을 하다 보면 은혜를 잃게 되고,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거스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진리와 은혜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런 경건생활이 건강한 경건생활이라 싶다. 한방에서 건강을 음과 양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확인하게 된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2.txt

제목: 의료비항목 절약방안, 의료실비보험 비교가입 필수!  
날짜: 201403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176  
본문: [쿠키 생활]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종으로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br/>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생 의료비가 평균 1억원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64세 이후인 노년으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노년에는 자연스러운 면역력 감소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br/>최근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해환경 등에 의해 젊은 층도 의료비항목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중 당뇨병이나 신경성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율이 높다.<br/>이 때문에 의료비항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 가운데 의료실비보험 추천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br/>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먼저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 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가입이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3.txt

제목: 과도한 흡연이 ‘탈장’ 위험 높인다  
날짜: 2014032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9100000105  
본문: 탈장 발생, 수술 후 재발 방지 위해 금연이 최선책<br/>[쿠키 건강] 담배는 니코틴, 타르 등 발암인자 및 독성물질이 들어있어 일반인들에게 백해무익한 기호 식품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담배는 폐와 관련된 암 또는 기관지계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가지, 담배가 일으킬 수 있는 질병 중에는 일상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질병이 ‘탈장’이다. 탈장과 흡연의 상관관계는 의학계에서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흡연으로 인한 탈장 예방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지속적인 흡연, 만성기침으로 복압상승으로 탈장 유발<br/>탈장은 내장을 받쳐주는 근육층인 복벽이 약해지면서 생긴 구멍을 통해 장이 복벽 밖으로 밀려나온 현상을 말한다. 탈장의 원인은 크게 복압의 증가, 복벽 조직의 약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흡연은 이 두 가지 종류의 탈장을 모두 유발할 수 있다. 먼저 흡연 시 유발되는 기관지염으로 인한 만성기침은 복압을 상승시켜 탈장을 유발 시킨다.<br/>지속적인 기침이 복압을 끊임없이 상승시키면 약해진 복벽 중 주로 사타구니 주변이 돌출되는 서혜부 탈장을 유발한다. 서혜부 탈장은 탈장의 75%를 차지하는데, 남성의 경우 어렸을 때 복부에서 사타구니로 고환이 내려온 흔적 때문에 일종의 ‘터널’이 있어 여성보다 더 쉽게 서혜부 탈장이 일어날 수 있다.<br/>두 번째로 흡연 시 마이오스타틴(myostatin)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한다. 이 물질은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파괴하고 종합적으로 복벽의 조직을 약화시켜 탈장을 일으킨다.<br/>민상진 메디힐병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자신이 흡연자이고 평소 심한 기침이 자주 동반될 경우 기관지계 질환은 물론 탈장의 위험성까지 주의해야 한다</span>”고 조언했다.<br/>◇탈장 발병 후 방치하면, 장기괴사 등 2차 위험 초래 <br/>탈장이 생기면 서서 배에 힘을 줄 때 사타구니나 배꼽부위가 불룩하게 튀어나오는데, 눕거나 해당 부위를 누르면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밖에 기침을 할 때 배 안에서 압력이 느껴질 때도 탈장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br/>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 탈장은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기 때문이다.<br/>탈장은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거나 약물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술하는 것이 좋다. 탈장 수술은 위급하거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병원이 아니라도 복강경시술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소화기센터나 외과가 개설된 전문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으면 된다.<br/>민상진 원장은 “탈장은 초기에 특별한 통증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복벽의 구멍을 통해 빠져나온 장이 오래 방치되면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장기가 썩는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을 절개해야 하는 큰 수술이 동반돼 치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증상 발견 후 즉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br/>◇복강경 수술법 선택과 금연, 탈장 재발률 줄여야<br/>탈장 수술 후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직접 절개하는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다. 탈장 시 복강경을 이용한 후복막 보강술은 복벽 안쪽에 인공그물을 넣어 약해진 복벽을 튼튼하게 보강하는 수술방식이다.<br/>인조그물이 안쪽에 설치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만져지지 않으며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고 인조그물을 복벽에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성수술 후 통증의 발생 빈도도 낮다. 무엇보다 복강경 수술은 1㎝정도의 작은 구멍 3개를 뚫고 수술을 하므로 회복속도가 빨라 조기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br/>흡연은 탈장 환자의 수술 후 재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 다수 연구에서도 흡연은 복부 수술상처가 감염 등의 이유로 근육층이 벌어져 내장이 밀고 나오는 창상탈장 및 서혜부 탈장의 수술 후 재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br/>민상진 원장은 “탈장 수술 경력이 있는 흡연자라면 수술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금연을 시도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고령 및 비만, 전립선 비대증,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운동 등의 위험인자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금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4.txt

제목: 4월부터 손보료 평균 10% 인하  
날짜: 20140328  
기자: 고세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8100000077  
본문: 다음 달부터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되는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영업용의 경우 평균 10% 인상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온라인 및 중소 보험사들 위주로 오른다.<br/>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장기 손해보험료의 경우 개정된 참조 위험률(보험료율 가이드라인)이 4월부터 적용되면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가량 인하된다. 장기손해보험료 조정은 3년 만이다.<br/>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암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암 보험료는 평균 10% 오를 전망이다.<br/>자동차 보험료는 삼성화재가 지난 16일 영업용 보험료를 14% 올린 데 이어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동부화재·현대해상·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들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br/>더케이손보와 하이카다이렉트,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은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다음 달 중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3% 올린다.<br/>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5.txt

제목: 인류는… 무리는… 복거일 장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날짜: 20140328  
기자: 정철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8100000056  
본문: 소설가 복거일(68)의 장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문학동네)는 1930년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연상케 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서울 거리의 풍물과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보씨의 유동적인 내면 의식을 포착했듯,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역시 현이립이라는 작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는 복합적인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작품은 분단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높은 땅 낮은 이야기’(1988)와 주변부 지식인들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 ‘보이지 않는 손’(2006)에 이은 ‘현이립 3부작’의 완결편이기도 하다.<br/>소설은 아내가 친정에 혼사가 있어 집을 비운 어느 날 아침, 뒷산의 짙어진 봄빛을 보고 산책을 나간 현이립이 자택이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천을 출발해 가장 멀리 떨어진 가양대교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된다. 징검다리 건너 산책길에서 우연히 노인들의 화투판을 보게 된 그는 이런 상념에 빠져든다. “인류는 늙은 개체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종이다. 자연엔 자연사가 없다. 늙으면 사자도 하이에나의 먹이가 된다. (중략) 결국 곧 죽을 노인 계층이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들의 몫을 앞당겨서 소비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보편적이어서 비록 점진적인 변화였지만,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혁명보다도 훨씬 혁명적이었다.”(36∼37쪽)<br/>산책의 명분은 ‘역사 속의 나그네’라는 3부작 소설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다음 작품 구상을 위해 조금 쉰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이립의 머릿속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산책길에서 만난 가게들, 그 가게의 점원, 길 위의 사람들, 동식물들 모두가 그에게 이 사회의,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와 방향을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산책로 저만치 무더기로 핀 꽃다지를 보면서도 그의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br/>“무리는 아름답다. 개체들이 지닌 아름다움을 훌쩍 뛰어넘는 ‘창발적 아름다움’을 무리는 지녔다. 그리고 무리는 개체들의 개별적 중요성을 본질적으로 초월하는 생물적 중요성을 지녔다. 무리의 창발적 아름다움과 무리의 초월적 중요성 사이엔 분명히 깊은 관련이 있다. (중략) 개체들은 모두 자신의 중요성을 극대화해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72∼73쪽)<br/>현이립은 이처럼 지식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이다. 산책길에서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현이립이야말로 작가 복거일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전작인 ‘보이지 않는 손’의 ‘작가의 말’에서 “이 작품은 어떤 뜻에선 나의 자서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니와 이 작품의 ‘작가의 말’에서도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를 씀으로써 그 자서전을 완결한 셈”이라고 밝히고 있다.<br/>안타까운 것은 주인공 현이립이 간암판정을 받고도 글을 쓰기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마저 2년 반 전 간암 판정을 받은 복거일 자신의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복거일은 작중 현이립을 두고 “<span class='quot0'>암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작가들을 곁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는 꼭 써야할 작품을 떠올리며, 단순한 생명 연장보다 삶의 가치를 좇기로 결심했다</span>”라고 썼다. 그렇기에 현이립의 산책길은 실제로 항암치료를 거부한 채 글쓰기에 몰두한 복거일 자신의 특별한 산책길로 다가온다. 암에게 삶을 송두리째 내놓을 수는 없다는 복거일의 투병방식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행사하겠다는 우리 시대 지식인의 또 다른 표상이 아닐 수 없다.<br/>정철훈 문학전문기자 chjung@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6.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 유방암 통합 면역암 치료 공개  
날짜: 201403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8100000271  
본문: [쿠키 건강] 통합 면역 암치료를 시행하는 방선휘한의원 방선휘 박사가 28일 오전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 위기의 주부들 ? 여성 질환’에 출연해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원인과 함께 유방암 자가 진단법과 수술 후 생기는 부종에 좋은 간편한 스트레칭법 등을 자세히 공개 했다.<br/><br/>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유방암 증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대 여성에게 많이 발병되며 지난 15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15년 전에는 3천여 명에 불과, 2010년에는 만 오천 명 정도로 부쩍 증가 하였다. 유방암은 원래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는 병이나 우리나라도 생활이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유방암이 증가했다는 의견이다.<br/><br/>방선휘원장은 “유방암의 원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함께 스트레스를 꼽았으며, 내성적이고 화를 속으로 삭이는 성격의 여성들이 다른 여성 질환도 함께 호소한다”고 전했다.<br/><br/>또한, 남성도 유전자로 인해 유방암이 발생될 수 있으며 여성에 비해 낮은 확률이지만 남자도 분명 유방암을 걸릴 수 있기에 체중 관리와 잦은 음주 삼가를 당부했다.<br/><br/>이날 방송에서 방선휘박사는 “<span class='quot0'>유방암에 좋은 영양소로 단백질과 비타민D가 중요하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이 6배에 증가한다</span>”고 전했다. 유방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콩, 표고버섯, 새우, 우유, 고등어를 꼽았다.<br/><br/>이 날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유방암에 좋은 음식인 콩을 이용한 현미밥 콩전”도 선보이며,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7.txt

제목: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돌봐 드립니다… 요양노인 섬기는 파주 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  
날짜: 20140328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8100000089  
본문: 세계 최대의 기도원인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국제기도원은 1973년 설립된 이후 국내외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은혜와 기적의 기도장소로 사랑받아 왔다.<br/>그런데 이 기도원 입구 왼쪽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육중한 고딕식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원래 실버타운으로 공사를 했으나 지난 2012년 11월 23일 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로 새 출발한 시설이다.<br/>“이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펼치는 사회공헌 복지시설입니다. 조용기 원로목사님의 복지사역을 향한 뜻과 이영훈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로 설립됐습니다. 현재 60여명의 분야별 전문 직원들이 100여명의 요양노인들과 호스피스 치료대상자를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br/>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 정철호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0'>이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교회 예산이 상당히 투입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전 직원이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해 개원했고 현재 90여명의 어르신이 입소 대기자로 등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span>”고 설명했다.<br/>개원 1년6개월이 된 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는 전체 대지가 5000㎡에 이르며 건물 내부 면적만도 4300㎡나 된다. 1층과 2층은 굿피플노인전문요양원, 3층은 굿피플의원(호스피스)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시설을 살펴보면 넓고 쾌적한 공간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고급 노인전문요양원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br/>지하에 200여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실이 있고 프로그램실, 세탁실, 목욕실,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있다. 1층에는 요양실과 상담실, 간호사실, 목욕실, 사무실 등이 있다. 2층에도 요양실과 프로그램실 식당 등이 있다. 3층은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위한 10개의 병상과 진료실 상담실 가족실 임종실 원무실이 있어 입원 환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돕고 있다.<br/>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의 요양노인 서비스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br/>첫째, 영적서비스로 매일 오전에 예배를 갖고 주일예배 역시 위성영상으로 정규예배를 드리게 된다. 둘째, 의료간호 서비스는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투약과 응급대응, 욕창관리, 필요 시 자매병원 입원수속 등을 돕고 있다. 셋째, 재활서비스는 재활 및 물리치료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다. 넷째, 생활서비스는 식사 수발과 청결 및 위생, 의복관리 등을 해주게 된다. 마지막 여가 및 문화서비스는 미술치료 및 치매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노래교실과 생일잔치 등을 열어주는 것이다. 신체기능 유지를 위해 물리치료 서비스도 인기가 높다.<br/>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 주변은 군부대가 자리해 지난해 ○○부대와 자매결연을 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군장병들이 이곳을 방문, 입소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나가기도 한다. 손자 같은 군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나들이 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훈훈해 보인다.<br/>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인 굿피플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정식지정을 받았다. 6명의 말기암 환우가 입원할 수 있으며 현재 4명이 입원 중이다. 굿피플의원이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받기까지 여러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서 직원교육 및 운영과 관련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br/>호스피스 의원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우에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소천하도록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다.<br/>매주 순복음호스피스선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이곳으로 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간병 보조, 시설 미화 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br/>“<span class='quot1'>여의도순복음교회의 많은 예술단이 수시로 찾아와 공연을 해주고 지역사회 노인들과도 연계된 프로그램 및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지역 공동체도 섬기고 있습니다.</span>”<br/>이재희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여의도순복음교회 미용선교회 및 의료선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매월 머리단장을 맡아주고 계시며 에벤에셀 몸찬양단 및 기하성 전국여선교연합회 등이 후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자체 예산으로는 운영이 힘든데 비정기 후원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여의도굿피플복지센터는 교회가 사회를 위해 나누고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설립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재희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이곳이 직장이 아닌 사역지로 인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어르신과 환우를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다.<br/>파주=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8.txt

제목: 하나통합한의원, ‘췌장암’ 한방 암 면역치료 성과는?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04  
본문: [쿠키 건강] # 췌장암 4기로 간 전이 진단을 받은 L(54·남)씨. 지난 2008년 갑상선 전절제와 주위 림프절 수술을 받았으며, 2013년 상복부 불편감과 5~6kg의 체중감소, 눈과 몸, 소변에서 황달증상과 몸의 소양감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다. L씨는 간수치와 빌리루빈 수치의 이상이 발견됐으며, 2013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 후 한방 암 면역치료를 위해 2013년 4월 12일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았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L씨는 한방 암 면연치료를 위해 한약으로 치종탕, 치종단, 면역단, 면역약침을 시행했으며, 2013년 5월1일 부터 티버스터 복용을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당시 L씨는 예정됐던 화학요법은 본인이 포기해 한방 암 면역치료만을 받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한방 암 면역치료 후 L씨는 T.Bilirubin 수치가 9.4에서 2.2로 감소했으며, AST수치도 384에서 54, ALT 수치도 511에서 92로 줄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한방 암 면역치료는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병용되는 면역요법이 많다”며 “암세포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기전의 옻나무 약재를 사용하면 보조적 면역을 넘어 보조적 항암에 근접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티버스터도 이러한 개념으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11종 한의서에 근거해 처방을 내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치료의 대표적인 방법은 면역요법이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옻나무추출물을 통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차단시켜 기존 3대 항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경우 천연물 성분 자체를 통해 천연물항암제를 개발해 보다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티버스터(T.buster)이다.<br/><br/>실제 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보근 원장은 이와 관련된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br/><br/>또 하나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은 치종단(Ⅱ)인 ‘티버스터(T.buster)’이다. 위 두 환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티버스터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49.txt

제목: 부담되는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으로 대비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496  
본문: [쿠키 생활] 암 발병 연령대가 젊은 층으로 확대되어 최근 신규 암환자 중에서 20. 30대 암 환자도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br/>발병 연령대가 확대된 이유중의 하나가 유해환경 노출과 불규칙적인 생활식습관, 스트레스 등이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 젊다고 건강에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안심할 수 없다.<br/>통계에 의하면 암에 걸리면 암에 대한 두려움 12% 보다 치료비 부담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부담되는 암 치료비 대안으로 암 보험 가입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암 보험은 필수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손해율이 높은 보종으로 매 년마다 보장내용 축소 또는 보험료상승이 예상되는 상품이다.<br/>암 보험은 검사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할 수 있기기에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암 발생율이 높은 암 종류로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등의 보장금액이 큰 암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해도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br/>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0.txt

제목: 서울대병원, 美 암전문 시티오브호프 병원과 협력 강화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301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오병희)이 미국 암 전문병원인 시티 오브 호프(City of Hope) 측과 암 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br/><br/>서울대병원은 지난 25일 시티 오브 호프 대표단이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암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br/><br/>이번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교수와 간호사, 수련의 등 의료진 및 학생 파견 프로그램 운영, 위암 공동연구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시티 오브 호프 대표단은 위절제수술을 참관하는 등 서울대병원이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위암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br/><br/>이에 앞서 서울대병원과 시티 오브 호프 병원은 지난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후속 조치로 성사됐다.<br/><br/>시티 오브 호프는 미국 ‘국립암센터 지정 종합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로 국립암센터의 지원 하에 새로운 암 예방·진단·치료 방법의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병원이다.<br/><br/>오병희 원장은 “<span class='quot0'>시티 오브 호프 병원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해 기쁘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우수 의료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암 치료 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1.txt

제목: 선병원, 몽골에 암·치과치료 국내 의료기술 전수  
날짜: 201403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28  
본문: [쿠키 건강] 대전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이 몽골 국립암센터와 선진 의료기술 전수 등을 내용으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br/><br/>이번 MOU체결은 선승훈 선병원 의료원장과 이승구 박사(정형외과), 선경훈 선치과병원장 일행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몽골 국립 암센터, 치과센터를 방문해 암 및 치과치료에 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MOU를 통해 선병원은 몽골 국립암센터와 암환자 치료 및 의료진의 교육과 연구, 서비스 제공 등의 협력 업무를 추진한다.<br/><br/>선병원은 몽골에 암치료 최신 의료기술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료진 연수와 병원 서비스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또 암환자 치료를 위한 화상 컨퍼런스와 협력치료(치료 후 귀국하는 환자에 대한 현지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암환자 치료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br/><br/>이날 협약식에서는 선승훈 의료원장이 ‘한국의료의 우수성과 선병원의 병원경영 차별화’라는 주제의 특강을, 소아정형 및 골종양 분야 권위자인 이승구 박사는 ‘골육종 암 치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였고, 몽골 의료진 및 복지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br/><br/>선승훈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협약으로 선병원은 몽골 최대 암 치료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선병원의 의료서비스 문화도 함께 전수할 계획</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이와 함께 27일에는 국립치과센터를 방문 신축 치과병원의 시스템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의료진 연수를 진행키로 했다.<br/><br/>선경훈 선치과병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 방문은 중부권 최대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선치과병원의 경영 노하우와 1일 보철치료가 가능한 캐드캠 디지털치과에 대한 국립치과센터의 관심과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교정, 임플란트, 보철, 양악 등 14개 분과 시스템과 의료기술을 전수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선병원은 2012년부터 5년간 ‘한·몽골 보건의료협력 프로젝트’에 선정, 몽골 의료진에게 척추·관절, 심장, 암분야의 의료기술 연수를 실시했고, 지원부서 80여명에게도 행정 및 서비스 교육을 병행하여 몽골의 의료환경 개선과 인력양성에 기여해 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2.txt

제목: 건보공단 ＂3484 암 치료” 537억 규모 담배 소송  
날짜: 20140327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72  
본문: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담배소송이 5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원고는 담배를 30년 이상 태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이다. 소송가액이나 원고 수 면에서 역대 국내 담배소송 중 최대 규모다.<br/>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 3484명을 치료하기 위해 2003년 이후 10년간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소송대상은 시장점유율 1위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로 확정됐다. 국내 매출 규모가 가장 작은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가 포함될지 여부는 미정이다.<br/>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첫 담배소송이다. 그간 개인이 낸 담배소송은 원고인 개인과 피고인 담배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가 워낙 컸다. 이 때문에 원고 승소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배금자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나선 만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내부문건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다. 법정에서 담배회사와 대등하게 파워게임을 해볼 만하다”고 기대했다.<br/>공단은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송가액을 애초 검토했던 2302억원에서 500억원대로 대폭 줄였다.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담배가 발병 원인이라는 점이 비교적 분명한 장기 흡연자를 골라냈다.<br/>대상자들은 건강검진 당시 의사에게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 중 20년 이상은 하루 1갑 이상(흡연력 20갑년) 흡연했다’고 답변한 1만3748명 가운데 한국인암예방연구(KCPS)를 통해 흡연 이력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KCPS가 사용된 이유는 작업환경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무원·교직원이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흡연기간 30년 흡연력 20갑년’이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이 인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담배회사는 작업장 발암물질 등 기타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공무원 같은 화이트칼라의 경우 쉽지 않다.<br/>건보공단 안선영 고문변호사는 “<span class='quot0'>소송액수를 낮추고 대상 환자를 줄이면 담배로 인한 발병이라는 인과(因果)는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신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통해 중독성을 높이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 집중해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pan>”고 설명했다.<br/>건보공단이 승소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흡연 경험이 있는 암 환자 개인이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일 길이 열린다. 패소하더라도 담배의 폐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분위기만 조성되면 캐나다의 사례처럼 통계만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담배소송 근거법안도 추진할 수 있다.<br/>건보공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소송 대리인 선임공고’를 게시하고 담배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1곳을 공개모집했다. 착수금은 1억3790만원,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는 2억758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음 달 11일 공모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3.txt

제목: 건보공단 ＂3484 암 치료” 537억 규모 담배 소송  
날짜: 20140327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179  
본문: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담배소송이 537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원고는 담배를 30년 이상 태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이다. 소송가액이나 원고 수 면에서 역대 국내 담배소송 중 최대 규모다.<br/>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암에 걸린 환자 3484명을 치료하기 위해 2003년 이후 10년간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 537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소송대상은 시장점유율 1위 담배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로 확정됐다. 국내 매출 규모가 가장 작은 제이티인터내셔널(JTI)코리아가 포함될지 여부는 미정이다.<br/>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첫 담배소송이다. 그간 개인이 낸 담배소송은 원고인 개인과 피고인 담배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격차가 워낙 컸다. 이 때문에 원고 승소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배금자 변호사는 “정부기관이 나선 만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내부문건을 확보하는 것도 용이하다. 법정에서 담배회사와 대등하게 파워게임을 해볼 만하다”고 기대했다.<br/>공단은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송가액을 애초 검토했던 2302억원에서 500억원대로 대폭 줄였다. 2001∼2010년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담배가 발병 원인이라는 점이 비교적 분명한 장기 흡연자를 골라냈다.<br/>대상자들은 건강검진 당시 의사에게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 중 20년 이상은 하루 1갑 이상(흡연력 20갑년) 흡연했다’고 답변한 1만3748명 가운데 한국인암예방연구(KCPS)를 통해 흡연 이력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KCPS가 사용된 이유는 작업환경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공무원·교직원이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흡연기간 30년 흡연력 20갑년’이면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이 인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담배회사는 작업장 발암물질 등 기타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공무원 같은 화이트칼라의 경우 쉽지 않다.<br/>건보공단 안선영 고문변호사는 “<span class='quot0'>소송액수를 낮추고 대상 환자를 줄이면 담배로 인한 발병이라는 인과(因果)는 비교적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신 담배회사가 첨가물을 통해 중독성을 높이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 집중해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span>”고 설명했다.<br/>건보공단이 승소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흡연 경험이 있는 암 환자 개인이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일 길이 열린다. 패소하더라도 담배의 폐해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분위기만 조성되면 캐나다의 사례처럼 통계만으로 담배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담배소송 근거법안도 추진할 수 있다.<br/>건보공단은 이날 홈페이지에 ‘소송 대리인 선임공고’를 게시하고 담배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1곳을 공개모집했다. 착수금은 1억3790만원, 승소했을 경우 성공보수는 2억758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음 달 11일 공모절차가 완료되면 4월 중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4.txt

제목: 의료비항목 절약하려면 의료실비보험 가입, 상품비교 필수!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498  
본문: [쿠키 생활] 최근 불규칙적인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유해환경 등에 의해 의료비항목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중 당뇨병이나 신경성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율이 높다.<br/>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에 가계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의료비 지출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가 평균 1억원으로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br/>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종으로 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br/>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의료실비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br/>질병수술비 담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 발병될 위험이 있다면,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 아울러, 무료상담을 통해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내용에 대한 상세설명과 함께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아갈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5.txt

제목: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 방사선치료 ‘탁월’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316  
본문: IHPBA 2014, 연세의대 윤홍인 교수 연구<br/><br/>[쿠키 건강] "연구 결과 방사선치료(RT)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LAHCC) 환자의 전체생존율(OS)을 개선시켰다. 더욱이 정상적인 간기능과 좋은 행태를 보이는 LAHCC에서 RT는 효과적인 치료이다."<br/><br/>서울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간담췌학회 학술대회(IHPBA)에 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약학 윤홍인 교수팀은 '국소적으로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의 RT 임상적 혜택'을 주제로 연구를 게재했다.<br/><br/>대한간암연구회 진료 가이드라인에서 RT는 증거수준-II에 해당된다. 여기서 환자는 간외 전이가 없어야 하고 Child-Pugh 분류 A-B, 종양 침범이 간조직 3분의 2미만 이어야 한다. 이에 성향점수매칭(PSM)분석을 통해 LAHCC 환자의 OS에서 RT가 가지는 효과를 평가했다.<br/><br/>연구는 세브란스병원에서 RT를 진행한 829명과 무작위 등록된 코호트 연구군 4522명을 비교했다. 여기서 종양의 병기 I-II, 전이발생, Child-Pugh(B-C), 치료목적이 불분명한 환자를 제외한 각각 109명, 751명 대상으로 1대1 PSM 분석을 실시했다. 이 후 RT 시행 109명과 기타 치료군 109명을 직접 비교했다.<br/><br/>RT에 따른 OS 결과는 종양크기(>5cm), 단일암, 수정된 TNM 병기 III, T3, BLCL 분류 B, C, 간문맥 침범, 주간문맥 침범을 변수로 잡았다.<br/><br/>△먼저 종양크기(>5cm)에 있어 OS 중앙값은 RT군(11.5개월)과 비교군(5.7개월)이었다(HR 1.84 P<0.001).<br/><br/>△단일암에서 RT군(17.6개월)과 비교군(5.5개월)이었다(HR 1.92 P 0.01).<br/><br/>△수정된 TNM 병기 III은 RT군(17.6개월)과 비교군(5.8개월)이었다(HR 2.04 P 0.002).<br/><br/>△T3에서 RT군(17.6개월)과 비교군(5.8개월)이었다(HR 2.06 P 0.001).<br/><br/>△BLCL 분류 B는 RT군(19.6개월)과 비교군(9.4개월)이었다(HR 2.83 P 0.02). BLCL 분류 C는 RT군(10.5개월)과 비교군(5.7개월)이었다(HR 1.29 P 0.09).<br/><br/>△간문맥 침범에서 RT군(10.0개월)과 비교군(5.6개월)이었다(HR 1.27 P 0.13). 주간문맥 침범은 RT군(11.1개월)과 비교군(4.7개월)이었다(HR 2.32 P<0.001).<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6.txt

제목: 삼성생명, ‘종신＋CI’… 통합하니 더 똑똑해진 보험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13847610  
본문: 삼성생명이 최근 출시한 ‘통합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무배당)’은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무배당)에 통합기능을 부가한 상품이다. CI보험이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br/>본인 및 배우자, 자녀 3명까지 가족단위 설계가 가능하며, 가입 6개월 이후부터 특약 중도부가할 수 있다. 장기요양연금전환특약을 도입, 장기요양상태가 되면 전에 지급하던 연금액의 2배를 최대 10회까지 간병비용으로 지원해주는 기능도 있다.<br/>통합 스마트 변액유니버설 CI종신보험(무배당)의 주요 보장 내용을 보면 우선 암,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종의 중대 질병과 심장·간·신장 등 5대 장기이식수술이 포함된다. 여기에 관상동맥우회술 등 8종의 중대 수술까지 포함, 총 19종의 질병과 수술이 이 상품 속에서 보장된다.<br/>각종 특약을 통해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에 대해 최대 두 번까지 CI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소액암이나 제자리암(암의 초기, 0기에 해당하는 암) 등 경미한 종양도 보장한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7.txt

제목: ‘기린 도살’ 덴마크 동물원 사자 4마리 또 도살 물의  
날짜: 20140327  
기자: 이용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238  
본문: 건강한 기린을 도살해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덴마크의 코펜하겐 동물원이 사자 4마리를 또다시 도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br/>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코펜하겐 동물원이 노령의 암·수컷 사자 2마리와 그 새끼 2마리 등 총 4마리의 사자 가족을 도살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수사자 1마리를 들여오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당초 이 사자 4마리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동물원 측은 “사자 무리의 질서와 자연적인 행동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자들을 안락사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10개월 된 새끼 사자 2마리는 새 수컷 사자에 의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6살 수컷과 14살 암컷 사자는 어차피 수명이 다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 사자 가족이 살던 공간에는 젊은 수사자 1마리가 수일 내 들어올 예정이다. 이 수사자는 2012년 태어나 출산 적령기가 된 암사자 2마리와 함께 지내게 된다. 동물원 측은 “이 사자들이 앞으로 사자 무리의 핵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br/>코펜하겐 동물원은 지난달 9일 국제적인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중에 18개월 된 건강한 기린 ‘마리우스’를 총으로 사살해 국제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근친교배를 막는다는 이유로 마리우스 도살을 정당화한 동물원 직원은 이후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br/>동물원은 이번에 도살한 사자의 사체를 다른 동물의 먹잇감으로 주지 않았으며, 일부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폐기했다고 밝혔다.<br/>이용상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8.txt

제목: 조울병환자 자살문제 심각…방안 없나?  
날짜: 201403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7100000311  
본문: [쿠키 건강] 조울병에서의 자살 시도는 전체 환자의 약 25~5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증 상태보다는 우울한 상태와 혼합형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기분이 들떠있을 때 보다는 기분이 저하되었을 때에 더 자주 일어난다. 특히 한국은 2006~2012년까지 자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할때 여전히 높은 편이다.<br/><br/>2001년에 보고된 조울병 환자의 질환별 사망률(Osby et al, Arch gen psychiatry) 가운데서도 자살이 비조울병 환자 대비 남성이 15배 여성은 22.4배로 가장 높았다. 이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남성 1.9배 여성 2.6배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약 30배 많은 수치로, 조울병에서 나타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br/><br/>지난해 새롭게 발간된 정신과 가이드라인인 DSM-5에도 조울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자살 위험도가 15배 가까이 높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자살의 원인 가운데 4분의1이 조울병이며,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나 우울증상을 경험했던 환자에서도 자살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다.<br/><br/>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울병 환자의 자살문제가 전세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br/><br/>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조울병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Bipolar Disorders, ISBD)의 제16차 연례학술대회에서는 'Suicide in Bipolar Disorder: an ISBD task force report' 라는 주제로 각국 전문가들이 조울병 환자의 자살에 대한 원인과 사회적·의학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 ISBD의 테스크포스(TF)가 구성한 조울병 환자의 자살 관련 데이터도 발표됐다.<br/><br/>TF가 연구논문 37개 및 메타분석을 토대로 조울병에서 나타난 자살 성향과 유병률 등을 10년간 비교·분석한 결과, 조울병 1형과 2형에 따라 자살 시도율에 차이가 있었다. 울증이 조증보다 더 많은 1형에서는 자살 시도율이 33.9%, 우울증과 함께 살짝 들뜨는 경조증 증세를 동반한 2형 환자에서는 28.6%가 나타났다.<br/><br/>세부적으로는 조울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자살위험도가 20~30% 가량 높았으며, 주요 우울장애(MDD) 등 다른 병력 소견을 가진 환자보다도 많았다. 자살 시도 시 사용된 방법에는 음독자살이 30~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손목자상과 자해(5.6~22.7%) 뛰어내리기(4.8~13.2%) 순이었다.<br/><br/>브라질 상파울로의대 Doris Moreno 교수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조울병이 다른 정신건강질환 환자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다"면서 "이는 공공보건적 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도 더 세밀한 검토와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br/><br/>전 세계 조울병 환자의 자살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맞춤 치료전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캐나다 써니브룩헬스사이언스센터 Ayal Schaffer 박사는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자살 시도 및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살은 여전히 암, 심질환, 뇌졸중 다음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치료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인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유전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하지만, 조울병 환자에서 자살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치료적 접근에 대해서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Lakshmi Yatham 교수가 약물 및 상담치료를 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Yatham 교수는 "장기적인 약물치료에서 리튬을 사용하면 자살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 간질치료제는 자살위험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조울병 환자에게 항 우울제를 사용하면 자살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br/><br/>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밀히 파악하고 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이러한 노력으로 TF는 조울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자살 실태를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2020년까지 자살률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59.txt

제목: 예장 고신 40개 교회 ‘암환우복지선교회’ 창립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610013836371  
본문: 서울 남서울세계로교회(예장고신) 김종찬(53) 목사는 2011년 1월 복부에 통증이 지속돼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교회 개척 직후 설립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다. 위 대부분을 잘라내고, 일곱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탓에 몸무게는 20㎏ 넘게 줄었다.<br/>암은 다행히 다른 곳으로 전이 되지 않았다. 치료는 끝났지만 김 목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병원 암병동을 찾아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암을 겪었다는 것에 환자들은 강한 공감대를 느꼈다. 김 목사는 매달 30∼40명의 암 환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격려하는 등의 사역을 이어갔다.<br/>하지만 지난해 9월 김 목사의 아내 백종선 사모가 유방암에 걸렸다. 목사에 이어 사모까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교인들은 하나 둘 떠났다. 더 이상 사역을 할 수도 없었다.<br/>김 목사에게 손을 내민 것은 동료 목회자들이었다. 후원을 요청하러 찾아간 자리에서 김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서울 압구정교회 노은환 목사는 암 환자를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목사는 기도 끝에 암환우복지선교회를 만들기로 결심했고, 지난 1월부터 동역자를 찾아 나섰다. 두 달 사이에 예장고신 수도권 9개 노회(남서울, 경기 등)의 40여 교회 목회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서울 강남일교회 낙현교회 영신교회 압구정교회 평신도 150여명은 자원봉사자로 동참키로 했다.<br/>암환우복지선교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압구정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분당샘물교회 최문식 목사는 “<span class='quot0'>암 환우를 돌보는 것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span>”라고 말했다.<br/>글·사진=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0.txt

제목: “삭발이라고 다 같은 삭발이냐”…암투병 친구 격려하려 머리 깎았다 ‘정학’ 처분 논란  
날짜: 201403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6100000003  
본문: [쿠키 지구촌] 미국에서 암 투병 친구를 격려하기 위해 삭발을 한 초등학생에게 정학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br/>25일(현지시간) 콜로라도 지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캡록 아카데미 학생 캠린 린프로(9)는 월요일인 지난 24일 삭발을 한 채 등교했다.<br/>린프로의 이같은 ‘돌발 행동’은 소아암 치료를 받기 위해 삭발한 절친한 친구 딜래니 클레멘츠를 격려하고 싶어서였다. 린프로의 부모도 칭찬도 해주며 흔쾌히 동의했다.<br/>하지만 학교의 입장은 달랐다. 학교 당국은 린프로가 ‘용모 규정’을 위반했다며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징계를 내렸다. 정학 처분을 받은 것이다.<br/>이 탓에 린프로는 학교 근처 공원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다.<br/>이에 어머니 제이미 올슨 린프로는 페이스북에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린프로가 삭발한 클레멘츠와 똑같이 머리를 빡빡 민 채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br/>클레멘츠의 어머니도 “린프로의 행동은 매우 용기 있고 칭찬받을 일”이라며 학교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span class='quot0'>린프로가 정학을 당했다고 해서 많이 슬펐다</span>”고 덧붙였다.<br/>인터넷에서는 학교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br/>자율형 공립학교인 캡록아카데미 학교 운영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 린프로에게 내려진 정학 처분을 거둬들였다.<br/>린프로는 25일부터 학교 수업을 다시 듣게 됐다.<br/>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span class='quot1'>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만한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삭발한 학생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하지만 이번 사안은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돼 정학 처분을 유예한다</span>”고 밝혔다.<br/>제이미 린프로는 지역 방송 KUSA-TV와 인터뷰에서 “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한 학교의 조치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규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1.txt

제목: [절망의 땅 아프리카에 희망을] (4·끝) 또 다른 고통, 기생충 위협  
날짜: 201403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610013836312  
본문: 더러운 물 마시고 기생충 감염<br/>아프리카를 병들게 한다<br/>아프리카 우간다의 한 마을. 발이 퉁퉁 부은 소녀가 힘겹게 대문을 나선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이내 되돌아온다. 삐쩍 마르고 여린 몸과는 어울리지 않게 크고 둔탁한 발은 마치 코끼리의 발처럼 크다. 하지만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소녀에게 ‘코끼리 발을 가진 아이’라고 놀리지 않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발,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 몸의 곳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부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br/>아프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다. ‘삐쩍 마른 아이들이 배만 부풀어오른 모습’이다. 이는 오랜 영양 부족으로 생기는 기아부종이지만 상당수는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이기도 하다. 물 속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들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관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살면서 몸속에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br/>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이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방과 치료 모두 어렵다는 것이다. 치료약이 없거나 난치병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언제부터 발병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인지,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아프리카 환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숙제다.<br/> 기생충의 습격, 아프리카 일상이 되다<br/>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은 이미 아프리카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는 식수와 생활용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폐수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마시고 씻다 보면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br/>이곳에서 살펴보면 기생충의 종류도 어마어마하다. 사람의 피부와 피하조직을 뚫고 들어가 10∼20년을 살다가 새로운 숙주를 찾기 위해 다시 피부를 뚫고 나오는 메디나충도 있다.<br/>또 사람의 몸 속 림프절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죽은 후 기생충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단백질이 혈액 속으로 분출되면서 격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림프절과 림프관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림프사상충도 발견된다.<br/>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림프사상충에 감염되면 림프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한 통증을 동반하고, 팔이나 다리가 심각하게 붓는다. 여기에 세균 감염 및 섬유질 축적 등의 원인들이 겹쳐 팔이나 다리가 두꺼워진 상태로 그냥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br/>이 밖에도 사람의 혈관에 하루에 수백 개의 알을 낳고 살다가 점차적으로 방광과 간을 망가뜨려 각종 암을 유발하는 기생충, 실명을 야기하는 기생충 등 건강을 위협하는 기생충의 종류와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아프리카 열대기후의 특성상 적절한 예방책을 찾을 수 없어 오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생충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br/>아프리카에서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이 극심한 데에는 비위생적인 식수 및 보건환경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앞서 밝힌 것처럼 더러운 물을 마시고 씻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생충에 감염되는 경우도 많고, 모기에 물려 전염되는 경우도 많다.<br/>후자의 경우 모기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을 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사람에게도 기생충이 감염되는 무차별적인 전염성을 갖고 있어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br/>또한 기생충에 감염된 후부터 발병까지의 시간이 천차만별인데다 때로는 몇 년 이상의 잠복기가 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더라도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유전적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방치하게 된다.<br/> 소외열대질환(NTD) 퇴치를 위하여<br/>이제 더 이상 선진국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빈곤국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질병들을 가리켜 소외열대질환(NTDs, Neglected Tropical Diseases)이라고 부른다. 기생충으로 인한 각종 질병도 이에 해당한다. 식수와 생활용수, 폐수처리시설이 분리되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적시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정비되어 있다면 기생충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 기능을 잃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잃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br/>굿피플은 현재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등 곳곳에 보건소를 건축·운영함으로써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치료약 보급을 실시하는 한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과 각 가정들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수도시설을 개선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br/>또한 굿피플 지부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보건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해 기생충에 감염된 이들이 치료 시점을 놓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덧붙여 모기장을 보급해 모기로 인해 기생충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br/> 건강한 아프리카를 만들어주세요<br/>50년 전, 우리나라도 기생충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다. 각 가정마다 가족 수대로 동시에 회충약을 먹기 위해 정기적으로 약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기생충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것처럼 아프리카의 이웃들 또한 가까운 미래에는 기생충으로 인해 신음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이다.<br/>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그 사랑과 헌신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다. 우리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인 10억여명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소외열대질환으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br/>약 한 알이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충에 방치되어 부푼 배와 코끼리 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프리카의 이웃들. 월 3만원이면 그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안전한 모기장을, 든든한 보건소와 방역 활동을 선물할 수 있다.<br/>가난하고 굶주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건강한 아프리카를 만드는 일에 모두 힘써야 할 때다.<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생명지키기 동참하세요<br/>◇굿피플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국제구호개발 NGO로서 소외지역개발, 빈곤퇴치, 아동보호, 교육, 질병예방 및 치료, 긴급구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br/>△일시후원 : 우리은행 1005-502-128597 (예금주 : 사단법인 굿피플 인터내셔널)<br/>△ARS : 060-700-1544 (한 통화 1만원)<br/>△후원문의 : 02)783-2291· www.goodpeople.or.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2.txt

제목: 전립선암 치료에 적용되는 ‘한방 암 면역치료’와 ‘티버스터’  
날짜: 201403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5100000205  
본문: 환자를 중심에 두고 면역력 관리 최우선<br/><br/>[쿠키 건강] 전립선암은 미국 등 서구에서 많이 발생했으나,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서구화로 성인 남성들에게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암 중의 하나다. 실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는 남성 암 발생률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br/><br/>하지만 전립선암은 암 중에서 진행속도와 전이가 느린 순한 암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효과가 잘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립선암 검사 방법은 직장수지검사, 직장경유 초음파검사, 혈중 PSA(Prostate specific antigen, 전립선특이항원) 검사가 있고,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 진단된다.<br/><br/>전립선암이 발생하여 증식하면 요도를 압박하여 배뇨곤란이나 잦은 소변, 소변 후 시원하지 않고 남은 듯한 느낌이 생기며, 야간의 잦은 배뇨, 잔뇨감, 하복부불쾌감,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br/><br/>전립선암의 느린 진행속도와 전이로 암의 확진이 있어도 바로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로 전립선암 환자들이 양방의 호르몬 혹은 항암, 방사선 등의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br/><br/>천연물 항암조성물 티버스터와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원장은 “암치료 지쳐있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들을 찾는다. 전립암에도 이러한 한방 암 면역치료가 적용된다”며 “한방 암 면역치료의 주안점은 환자들의 휴지기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신체의 안정을 통해,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들어 내는 ‘면역력 관리’에 있다”고 설명했다.<br/><br/>◇한방 암 면역치료와 티버스터, 전립선암 치료는<br/><br/>실제 하나통합한의원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은 K(73·남)씨는 한방 암 면역치료와 티버스터 복용으로 전립선암의 종양 표지자인 ‘전립선암 특이항원(PSA)’ 수치가 꾸준히 감소했다.<br/><br/>K씨는 지난 2013년 부정맥 치료 중 건강검진을 받고 PSA 수치가 8.7ng/ml로 나와 2월 정밀진단 결과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지난해 7월 하나통합한의원을 방문해 티버스터와 치종탕, 왕뜸치료 등의 한방 암 면역치료를 받았다. 최초 하나통합한의원 진료 당시 7.66ng/ml(7월 16일)이었던 PSA 수치가 한방 암 면역치료 후인 7월 27일 6.27ng/ml 까지 낮아졌다. 이후 K씨의 PSA 수치는 6.45nl/ml(8월), 6.07nl/ml(9월) 까지 점차 감소해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올해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 티버스터에 대한 임상결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1'>현재 한방 암 치료는 면역요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옻나무추출물을 통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차단시켜 기존 3대 항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방법 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하나통합한의원의 경우 천연물 성분 자체를 통해 천연물항암제를 개발해 보다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티버스터(T.buster)</span>”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3.txt

제목: 담배소송 본격화… 가액 최종 조율  
날짜: 20140325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5100000127  
본문: 지난 1월 정부기관의 첫 담배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송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소송액수는 500억∼2300억원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저액을 따져도 그간 개인이 낸 담배소송 최고액(3억700만원)의 170배가 넘는 규모다.<br/>승소할 경우 암 환자 개인이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제공 받아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br/>건보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537억∼3376억원 사이 6개 시나리오를 보고했다. 이 중 최저 537억원에서 최고 2302억원까지 4개 시나리오 중 1개를 채택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br/>건강보험은 매년 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일정액의 진료비를 쓴다. 만약 담배로 인해 암에 걸렸다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담배소송의 논리적 근거다. 따라서 소송가액은 담배로 인한 암 환자라는 인과(因果)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br/>기본이 되는 집단은 2001∼2010년 중앙암등록본부의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록자 중 건강검진 당시 의사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약 2만명이다. 물론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암 환자라고 모두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2만명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 기간 중 적어도 20년 동안은 하루 1갑 이상을 피운(흡연력 20갑년) 골초 환자를 선별해냈다. 대략 1만3700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불된 진료비 2302억원이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최대 소송가액이 된다.<br/>단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에 기록된 본인 답변이 근거라는 게 약점이다.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통해 흡연이력이 좀더 명확히 확인된 3500명으로 대상을 좁히면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4개 시나리오 중 최저액이다.<br/>안선영 고문변호사는 “대상과 액수를 줄이면 입증이 쉽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송가액을 키우는 건 언제든 가능해 편리한 점이 있다”며 “반면 소송액수를 낮추면 흡연 폐해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파급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담배소송의 피고는 국내 4대 담배회사 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국내 1위 담배회사는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KT&G(2012년 매출 기준 2조6376억원)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6449억원), BAT코리아(4783억원), JTI코리아(2575억원) 등이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4.txt

제목: 폐암 키운 의사 오진… 환자에 위자료 5000만원  
날짜: 20140325  
기자: 손병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5100000142  
본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br/>소비자원에 따르면 강모(36)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 더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다.<br/>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br/>하지만 소비자원은 의사의 오진으로 강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첫 엑스선에서 보이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했다</span>”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엑스선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br/>소비자원은 다만 “<span class='quot0'>최초의 엑스선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span>”고 설명했다.<br/>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5.txt

제목: 비타민C 결핍,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  
날짜: 201403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5100000226  
본문: [쿠키 건강]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타민C 결핍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br/>25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는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이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비타민C가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등 노화관련 질병과 유방암 등 암질환에 예방 및 치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br/>특히 비타민C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미국의 피오나 해리슨 교수(Fiona Harrison, Ph.D.)는 비타민C 결핍이 알츠하이머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br/>피오나 해리슨 교수는 ‘노화와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비타민C의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연구결과에서 “<span class='quot0'>사람은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으므로 비타민C가 더욱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비타민C 부족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피오나 교수는 “<span class='quot1'>비타민C 결핍은 알츠하이머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밀로이드를 축적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체내 비타민C 수치는 신경근육 및 기억력 결손과 직결되며 비타민C의 섭취는 인지 능력, 그리고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밝혔다.<br/>또한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돼 이목이 집중됐다.<br/>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에드거 밀러 교수(Edgar Miller III, Ph.D., M.D.)는 ‘비타민C 보충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비타민C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임상결과를 발표했다.<br/>에드거 밀러 교수는 “<span class='quot2'>비타민C를 매일 60~4000mg 정도 복용한 140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C 섭취가 단기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으며 비타민C가 노화를 진행시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한편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은 비타민C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의학, 약학, 식품영양학 등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학술행사로, 2008년부터 2년마다 국내외 비타민C 연구의 각계 권위자들이 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어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6.txt

제목: 아베종양내과,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결과 발표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387  
본문: [쿠키 건강] 일본 전이·재발 암 치료병원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 17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에서 열린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br/><br/>아베종양내과 측은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개별화 암 치료방식인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 주제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암 백신 치료법은 1996년 아카가와 키요코 박사의 연구 성공으로 시작됐으며, 같은 해 세계 유수 학회에서 T세포를 인식할 수 있는 암 항원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br/><br/>이날 심포지엄에서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별 종양마커 검사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특징이 있다</span>”고 밝혔다.<br/><br/>실제 히로유키 박사 연구팀은 지난해 1~9월 진행성 전이·재발 암 환자 총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와 복합 면역세포치료를 6회 실시한 결과 74.4%의 성과를 거뒀다. 이중 암세포가 완전 관해 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 된 환자는 5명(12.82%), 정지되거나 안정된 환자는 22명(56.41%)으로 나타났으며 진행된 환자는 10명(25.64%)에 그쳤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수지상세포는 인체의 1% 미만이라 치료를 위해서는 약 2~3시간의 성분 채혈과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베종양내과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 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를 마련했다</span>”고 말했다.<br/><br/>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는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표적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따라서 CTL이 정상 세포를 공격할 확률은 거의 없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br/><br/>아베종양내과에 따르면 암 항원 인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WT1과 MUC1 펩타이드, 개인별 유전자검사를 하여 환자에게 맞는 암 항원을 찾아 추가해야 한다.<br/><br/>이와 관련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지금까지는 WT1 펩타이드 중 일부만 사용해 치료 효과가 떨어졌다</span>”며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는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포함해 평균 3~5개의 펩타이드를 사용해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span>”고 전했다.<br/><br/>WT1 펩타이드는 1~449번까지 있으며,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함으로써 암 재발을 방지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많은 일본 내 병원들이 수지상세포를 동결 보관해 사용하기 때문에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1'>아베종양내과에서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 14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에 대한 추가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7.txt

제목: 과다검진 논란 갑상선암… 정부, 가이드라인 만든다  
날짜: 20140324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060  
본문: 갑상선암 과다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진다. 조기검진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적시해 건강한 일반인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고 암 환자가 되는 일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전문가들 사이에서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6월쯤 국립암센터를 통해 갑상선암 조기검진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 생명과 무관한 무증상 환자들이 의사 권유로 조기검진을 받은 뒤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하는 경우다(국민일보 3월 20일자 1면 보도).<br/>현재 정부는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인 5대 암(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에 한해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과다진단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갑상선암도 조기진단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와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 무증상 일반인의 유형을 구체화해 병원에 권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br/>정부는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의 나이 제한 여부와 간암 고위험군의 정기검진 기간(현행 1년) 등 그간 이견이 많았던 암 검진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br/>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는 “<span class='quot1'>세계 어느 나라도 증상 없는 사람들을 마구 검진해 암 환자로 만들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8.txt

제목: 최대 200억 담배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440  
본문: [쿠키 사회] 지난 1월 정부기관의 첫 담배소송을 의결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소송 규모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소송액수는 500억~2300억원대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최저액을 따져도 그간 개인이 낸 담배소송 최고액(3억700만원)의 170배가 넘는 규모다.<br/>승소할 경우에는 암 환자 개인이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담배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것도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br/>건보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537억~3376억원 6개 시나리오를 보고했다. 이중 최저 537억원에서 최고 2302억원까지 4개 시나리오 중 1개를 채택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br/>건강보험은 매년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일정액의 진료비를 쓴다. 만약 담배로 인해 암에 걸렸다면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건강보험이 지불한 진료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게 담배소송의 논리적 근거다. 따라서 소송가액은 담배로 인한 암 환자라는 인과(因果)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br/>기본이 되는 집단은 2001~2010년 중앙암등록본부의 폐암(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등록자 중 건강검진 당시 의사에게 담배를 피운다고 답한 약 2만명이다. 물론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암 환자라고 모두 담배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2만명 중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고 이 기간 중 적어도 20년 동안은 하루 1갑 이상을 피운(흡연력 20갑년) 골초 환자를 선별해냈다. 대략 1만3700명이다. 이들을 위해 지불된 진료비 2302억원이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최대 소송가액이 된다.<br/>단, 건강검진 받을 때 문진표에 기록된 본인 답변이 근거라는 게 약점이다.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를 통해 흡연이력이 좀더 명확히 확인된 3500명으로 대상을 좁히면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줄어든다. 4개 시나리오 중 최저액이다.<br/>안선영 고문변호사는 “대상과 액수를 줄이면 입증이 쉽고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 소송가액을 키우는 건 언제든 가능해 편리한 점이 있다”며 “반면 소송액수를 낮추면 흡연 폐해를 환기시키는 사회적 파급력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담배소송의 피고는 국내 4대 담배회사 중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국내 1위 담배회사는 시장점유율 60% 이상인 KT&G(2012년 매출 기준 2조6376억원)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6449억원), BAT코리아(4783억원), JTI코리아(2575억원) 등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69.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최대 8526억 규모 가능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273  
본문: 소송 규모와 승소 가능성 놓고 고심<br/><br/>[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놓고 6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는 537억원에서 많게는 8526억원 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의 규모에 대해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송과 관련해 승소가능성, 금연운동 확산 등 사회적 영향, 소송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논의했다.<br/><br/>공단이 검토한 기본전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전체 암등록 환자는 6만646명으로 이 기준으로 소송을 할 경우 규모는 8526억원(인지대 송달료 26억9000만원)에 달한다.<br/><br/>이를 환자군으로 나눠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안은 ‘기본전제 대상자 중에서 일반검진자료에 포함되고 2001년부터 암발생 시점 기간동안 흡연을 1회 이상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환자수는 1만500명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3376억원(인지대 송달료 10억6000만원)이 된다.<br/><br/>또 2시나리오는 ‘1시나리오 대상자 중에서 검진문진표 상 2001년부터 암 발생시점까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할 때 환자 1만4666명, 소송규모 2497억원(인지대 송달료 7억9000만원)이 된다.<br/><br/>3시나리오는 ‘2시나리오 대상자 중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로 2302억원(환자 1만3748명, 인지대 송달료 7억3000만원) 규모의 소송으로 진행되고, 4시나리오는 ‘기본전제 대상자 중에서 KCPS코호트자료에 포함되고 KCPS자료 상 2000년부터 암 발생시점까지 흡연을 1회 이상 응답한 자’는 736억원(환자 4827명, 인지대 송달료 2억3000만원) 규모이다.<br/><br/>5시나리오는 ‘4시나리오 대상자 중 동시에 검진문진표 상 1992년부터 암 발생시점까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으로 1회 이상 응답한 자’로 597억원(환자 3810명, 인지대 송달료 1억9000만원) 규모이며, 6시나리오는 ‘5시나리오 대상자 중에서 특히 검진문진표 상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자’로 537억원(환자 3484명, 인지대 송달료 1억7000만원) 규모이다.<br/><br/>지난 2월 열린 건보공단 자문위원회에서는 흡연력 및 피해 규모 산출을 위한 공단의 검진자료 및 급여자료는 그 자체로도 증거 가치가 매우 높고, 2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된 경우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병 간 인과성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br/><br/>특히 담배소송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금연정책이어서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가능한 소송규모를 키워야 하고, 소제기와 동시에 담배소송법을 마련해 청구취지를 최대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어 소송 규모와 승소 가능성을 놓고 고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br/><br/>한편 건보공단은 이달 중 외부변호인(15일 동안 공고)을 선임 한 뒤 의견을 듣고 4월 중으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0.txt

제목: 생명보험 통계에 나타난 남성 최다 사망원인은?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009  
본문: [쿠키 경제] 생명보험계약 통계로 본 남성의 최다 사망원인은 간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보험개발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보험 상품 전체 계약을 집계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2010년 2889명, 2011년 2925명, 2012년 2990명으로 계속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여성의 사망원인 1위는 지난 3년간 폐암이었다. 폐암은 남성의 경우 사망원인 2위였다. 여성의 경우 2위 사망원인은 2010년, 2012년엔 위암이 가장 많았으나 2012년엔 심장정지가 2위로 올라섰다.<br/>고려대 의과대학 오상철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계나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보다 생명보험 계약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더 정확하고 유의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사망원인이 들어간 진단서를 끊어야한다. 때문에 굳이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는 일반 사망자 통계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br/>아울러 생명보험 8개 상품군 중 암보험의 신계약 건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10년 56만6427건이었던 암보험 상품 신계약건수는 2011년 2011년 63만6737건, 2012년 106만3437건으로 늘어났다. 남성의 경우 2012년 기준 전년대비 43.8%, 여성은 89.5%나 급증한 수준이다. 반면 건강·연금·종신·정기·변액보험 등은 신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연령별 사망건수는 남성은 55~59세가, 여성은 7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1.txt

제목: 男-간암 女-폐암… 생보계약 통해본 최대 死因  
날짜: 20140324  
기자: 조민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116  
본문: 생명보험 계약 통계로 본 남성의 최다 사망원인은 간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보험개발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보험 상품 전체 계약을 집계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2010년 2889명, 2011년 2925명, 2012년 2990명으로 계속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반면 여성의 사망원인 1위는 지난 3년간 폐암이었다. 폐암은 남성의 경우 사망원인 2위였다. 여성의 경우 2위 사망원인은 2010년, 2012년엔 위암이었으나 2012년엔 심장정지가 올라섰다.<br/>고려대 의과대학 오상철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계나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보다 생명보험 계약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더 정확하고 유의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명확한 사망원인이 들어간 진단서를 끊어야 한다. 때문에 굳이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된 일반 사망자 통계보다 정확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br/>아울러 생명보험 8개 상품군 중 암보험의 신계약 건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10년 56만6427건이었던 암보험 상품 신계약 건수는 2011년 63만6737건, 2012년 106만3437건으로 늘어났다. 남성은 2012년 기준 전년대비 43.8%, 여성은 89.5%나 급증한 수준이다. 반면 건강·연금·종신·정기·변액보험 등은 신계약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였다. 연령별 사망보험금 신청건수는 남성은 55∼59세, 여성은 7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br/>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2.txt

제목: 이화의료원 3월말부터, ‘여성 건강 캠페인’ 펼쳐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321  
본문: 이대여성암병원·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 기념<br/><br/>[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슬로건을 내걸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br/><br/>이화의료원은 24일 오전 8시 이대여성암병원 다목적실에서 5주년 기념 떡 케익 커팅식을 열고, 향후 ‘여성건강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br/><br/>이날 행사에는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 등 경영진과 김점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장 등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br/><br/>떡 케익 커팅식은 2009년 3월 문을 연 후 국내 여성암 치료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이대여성암병원과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 건강검진을 남성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해 여성친화적 시설로 여성들에게 호응을 받아온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의 개소 5주년을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이날 이화의료원은 1887년 국내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保救女館)’을 설립한 이래 국내 유일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내 여성 교육 및 연구, 진료를 선도해온 전통을 잇고, 여성 질환 치료 대표 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의 ‘여성건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br/><br/>◇‘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슬로건 제정<br/><br/>이화의료원은 캠페인 슬로 ‘여성을 행복하게, 사회를 건강하게’를 선정하고, 다양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 3월말부터 본격 시행한다.<br/><br/>우선 여성 건강을 위해 질병 예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바른 의학 정보 전달을 위해 여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건강강좌 및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br/><br/>이달 28일 주웅 이대여성암병원 부인종양센터 교수가 청호나이스 주최 ‘제1회 물 사랑교실’에서 ‘암 예방을 위한 하버드식 건강법’ 강연을 펼치고, 4월에는 AIA생명, 신정 6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암과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여성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 연다.<br/><br/>또한 여성건강백서 ‘여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발간과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을 제작해, 여성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 길잡이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br/><br/>이와 함께 현재 암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해온 정서 치유 프로그램 ‘파워업(Power-up) 강좌’도 활성화한다. 이 강좌는 국선도, 노래교실, 합창반, 희망텃밭에 이어 웃음 치유, 미술 치료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하며, ‘명의와 함께 하는 여성암 환자 힐링 여행’도 연례 행사로 진행한다.<br/><br/>이화의료원은 한국장기기증원(KODA) 및 한국인체조직기능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활동과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앞장선다. 이외에 서서울 생명의 전화가 주최하는 ‘청소년 자살 예방 세미나’와 ‘달빛 소나타 생명사랑 걷기운동’에도 동참하는 등 사회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br/><br/>이순남 이화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0'>이대여성암병원과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개소 5주년을 기념해 시작하는 이번 여성건강 캠페인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여성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3.txt

제목: 폐암 심각해지는데… X-레이 3번 찍고 만 의사 '위자료 5000만원'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435  
본문: [쿠키 생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친 폐암 환자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4일 결정했다.<br/>소비자원에 따르면 강모(36)씨는 2008년 3월 우측 흉부 통증으로 경기도 평택의 한 종합병원에서 흉부 엑스(X) 레이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강씨는 이후에도 2011년 6월까지 두 차례 더 흉부 통증이 있을 때마다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정상 판정이 나왔다.<br/>그러나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이듬해 11월 다른 병원을 찾은 강씨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현재 그는 항암 치료 후 투병 중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오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br/>하지만 소비자원은 의사의 오진으로 강씨가 폐암 진단 시기를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span class='quot0'>첫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작은 폐병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 검사가 필요했고 이후 병변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사는 계속해서 정상으로 판독했다</span>”고 밝혔다. 이어 “최초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폐병변은 2㎝ 이하의 단일성 폐 결절로,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보여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완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br/>소비자원은 다만 “<span class='quot0'>최초의 엑스레이 검사 후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폐암의 치료와 예후를 결정할 수 있는 암의 진행 정도를 확정할 수 없고, 현재 환자가 생존하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 배상으로 제한했다</span>”고 설명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4.txt

제목: 동아ST, 저소득층 암환자 위한 약제비 기부  
날짜: 201403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4100000191  
본문: [쿠키 건강] 동아에스티는 21일 오후 용신동 본사에서 박찬일 사장과 (재)한국의료지원재단 유승흠 이사장, 남궁성은 위원장 및 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의료비지원 지정기탁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고, 한국의료지원재단에 저소득층 암환자의 약값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br/><br/>이번 기부금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위장관기질종양,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증식질환 과호산구성 증후군, 만성호산구성 백혈병, 재발성 또는 전이성?융기성 피부섬유 육종 총 7개 질환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이매티닙(Imatinib) 성분의 항암제를 처음 처방 받는 최저 생계비 200% 이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환자가 병원에 약값지원을 신청하면 병원이 한국의료지원재단에 접수 후 평가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치며, 결과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약값을 지원 받을 수 있다.<br/><br/>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위장관기질종양 등의 치료를 위해 환자는 건강보험혜택을 제외하고 연간 약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약값을 부담하고 있어 이번 지원을 통해 의료소외계층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어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재)한국의료지원재단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건의료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며, ‘아픈 이웃에게 희망을’의 슬로건으로 국민성금과 기업의 후원금을 모집해 2011년부터 의료비가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의료소외계층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br/><br/>박찬일 동아에스티 사장은 “사회가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과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 될 때 더 큰 빛을 발한다는 기업이념에 따라 이번 의료비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br/><br/>한편, 약값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한국의료지원재단 02-2090-9744로 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5.txt

제목: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갑상선암 환자 줄인다…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으로 과잉진료 억제  
날짜: 201403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3100000113  
본문: [쿠키 생활] 갑상선암 과다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진다. 조기검진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적시해 건강한 일반인이 갑상선암 검진을 받고 암환자가 되는 일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br/>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span class='quot0'>전문가들 사이에서 갑상선암 과다진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6월쯤 국립암센터를 통해 갑상선암 조기검진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대부분 생명과 무관한 무증상 환자들이 의사 권유로 조기검진을 받은 뒤 암을 발견해 수술까지 하는 경우다(국민일보 3월 20일자 1면 보도).<br/>현재 정부는 국가 암 검진 사업 대상인 5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에 한해 조기검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갑상선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과다진단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갑상선암도 조기진단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와 검진을 권고하지 않는 무증상 일반인의 유형을 구체화해 병원에 권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br/>정부는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의 나이 제한 여부와 간암 고위험군의 정기검진 기간(현행 1년) 등 그간 이견이 많았던 암 건진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br/>국립암센터 서홍관 박사는 “<span class='quot1'>세계 어느 나라도 증상 없는 사람들을 마구 검진해 암환자로 만들지 않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합리적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서 박사 등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 소속 전문의 8명은 지난 18일 “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검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6.txt

제목: 생명보험 통계로 본 한국 남녀 사망원인 1위는?  
날짜: 201403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3100000015  
본문: [쿠키 경제] 우리나라 남녀의 최다 사망원인은 무엇일까.<br/>생명보험계약 통계로 집계된 남녀 최다 사망원인은 남성은 간암, 여성은 폐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23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생명보험상품 전체 계약을 통해 집계된 남성의 사망원인은 간암이 2010년 2889건, 2011년 2925건, 2012년 2990건으로 매년 제일 많았다.<br/>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이 가운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녀 모두 폐암으로 알려져있다. 재작년 통계청의 발표를 봐도 남성은 폐암-간암-위암, 여성은 폐암-위암-대장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br/>오상철 고려대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의료계나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보다 생명보험 계약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더 정확하고 유의미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자연사하면 주변 사람의 진술로 사망원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보험은 보험금을 받으려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명확한 사인이 들어간 진단서를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br/>여성의 사망원인은 지난 3년간 폐암이 1위였으며 2010년 1069건, 2011년 1123건, 2012년 1216건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또 지난 3년간 남성 사망원인 2위다.<br/>오 교수는 “<span class='quot1'>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나 폐암은 암 가운데서도 치유가 가장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여성은 흡연이 다이어트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과 여권 신장 등의 영향으로 최근 흡연자와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7.txt

제목: DNA 검사로 대장암을 잡는다?  
날짜: 201403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3100000034  
본문: [쿠키 건강] 비침습적 DNA 검사가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마운트사이나이병원 Steven Itzkowitz 박사팀은 NEJM 3월 19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대변 채취를 통한 DNA 검사를 실시했을 때 대장암 조기 발견률이 92%, 치료가 가능한 조기 암 발견율 역시 94%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DNA 검사는 평소 대장내시경을 꺼려하던 성인환자를 위해 대체검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br/><br/>연구팀은 50~84세 성인환자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대변 샘플을 기반으로한 DNA 검사기기인 콜로가드(Cologuard)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비침습적 검사인 분혈잠혈반응 검사(FIT)를 비교·분석했다.<br/><br/>그 결과 콜로가드가 대장암을 발견하는데 에서의 민감도가 92%, FIT는 74%였고, 고도 이형성증 폴립 발견율은 콜로가드가 69%인 반면 FIT는 46%로 나타났다. 단 특이성 부분에서의 민감도는 콜로가드가 87%, FIT 는 95%로 FIT가 8% 더 높았다.<br/><br/>Itzkowitz 박사는 "콜로가드가 대장암과 폴립을 발견하는데 높은 민감도를 보여 대장 내시경을 꺼려하던 환자들이 좀 더 쉽게 검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r/><br/>미국 다트머스의대 Douglas Robertson 교수도 "DNA 검사가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되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또 미국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는 대장내시경, 결장결 검사, FIT를 권고하고 있는데 DNA 검사는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권고 대상에서 포함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br/><br/>한편, 콜로가드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에 앞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8.txt

제목: 의료비 절약되는 의료실비보험 가입하려면 가입요령 확인!  
날짜: 201403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3100000188  
본문: [쿠키 생활] 의료실비보험은 각종 질병이나 상해 등에 따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종으로 가계지출항목에서 늘어나는 의료비 항목을 줄여주기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br/>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의료비는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가 평균 1억원으로 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br/>의료실비보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수술,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br/>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보는 방법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먼저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가입이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손보험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79.txt

제목: “암 막으려면 하루 30분 주 5회 운동을” 복지부 ‘암 예방의 날’ 맞아 건강 10계명 발표  
날짜: 20140322  
기자: 황인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2100000082  
본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br/>보건복지부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암 예방 수칙 10계명을 발표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 외에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할 것, 체력과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와 금연할 것, B형간염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것 등이 제시됐다.<br/>복지부는 올해부터 암 예방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암 예방부터 조기발견, 암 치료 및 말기 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 암 관리 종합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 연구 인프라 강화와 관련해 “<span class='quot0'>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해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span>”고 말했다.<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0.txt

제목: [사설] 갑상선암 과잉진단 피해 줄이려면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2100000002  
본문: 한국에서 갑상선암이 폭증하는 이유가 과잉진단 때문이라는 ‘갑상선암 과다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의 최근 선언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된 ‘의사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1년 한 해 약 4만명, 인구 10만명당 81명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지난 1986년에 비해 30배나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이 23.7%에 이른다. 의사연대 측은 “<span class='quot0'>실제 환자가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안 찾아도 될 암까지 찾았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의사연대의 한 교수는 갑상선암 환자의 90%이상이 과잉 초음파검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투자비를 회수하려고 갑상선 초음파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암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다.<br/>국내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세계 1위인데도 사망률은 84위다. 별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술을 남발했다는 의혹을 살 만한 통계다. 갑상선 제거수술을 하면 평생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 매일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고,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과잉진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br/>과다진단은 갑상선암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척추수술 등의 경우에도 심각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조사결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같은 특수·고가 의료장비 보유대수는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반면 의료 인력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잉진료의 폐해를 줄이려면 의료수가를 조정할 때 특수·고가장비 의존도는 낮추고 의료 인력 투입을 늘리는 의료행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1.txt

제목: [이왕재 박사의 성서 건강학] 대장 건강  
날짜: 201403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2100000009  
본문: 캐나다와의 FTA 문제가 오랜 논의 끝에 타결된 모양이다. 필자가 다녀 온 캐나다는 분명 자동차 산업과 같은 중공업보다는 농축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 발전한 나라이니 자동차를 파는 회사는 신이 날 것이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울상일 것이라는 짐작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대로다.<br/>육류가 싼 값으로 식탁에 오르겠지만 축산업 도산이 우려된다는 뉴스와 상관없이 이제 분명 더 많은 분들이 육류를 소비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육류소비가 연간 44㎏에 이르러 거의 육식국가가 된 듯한 기분이다.<br/>양질의 단백질이 전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되어 국민건강지수를 끌어 올린 것은 틀림없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장암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의 경우 대장암이 항상 상위권에 포진하는 것을 보면 분명 육식과 대장암은 그 관계를 뗄 수 없을 것 같다.<br/>대장은 소장에 비해 길이가 현저하게 짧다. 다만 그 직경이 소장보다 크다. 소장의 기능이 소화와 흡수라고 하면 대장의 기능은 대변 만들기라고 보면 된다. 6∼7m의 긴 소장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양분이 거의 다 흡수되고, 흡수될 수 없거나 흡수할 필요가 없는 물질들이 대변이 되어 배설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은 수분흡수다. 실상 수분 흡수의 양으로 보면 소장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흡수율이 대장에서 더 높다는 이야기다. 즉, 하루에 약 1.5ℓ의 수분이 대장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90% 이상이 흡수되고 나머지 10%(100㎖ 내외) 정도가 대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대장의 다른 큰 특징의 하나는 그 안에 많은 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일반인들이 대장균이라고 일컫는 균을 말한다. 그 수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보다도 무려 10∼100배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사람은 균의 바다 위에 산다’는 어느 미생물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 균들은 우선 인간에게 직접 감염을 통해 만날 수 없는 균들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하자면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br/>또한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인간에게 유익한 물질을 남기는 소위,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실례가 유산균으로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김치 속에 풍부하게 살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독자들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생관계로 좋은 물질만을 인간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대변의 냄새가 그를 증명해 준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균들이 부패균이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부패시키기 때문에 숙주인 인간에게 결코 좋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br/>대변 냄새의 주종이 단백질이 부패될 때 발생하는 냄새인 것으로 보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부패균과 인간이 공생한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장암의 절반이 맨 끝 부분인 직장에서 발생하고 균이 없는 소장에는 거의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장암은 대장균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br/>필자에 의한 흥미로운 실험의 결과는 건강을 위해 다량의 비타민C를 복용한 경우 병원성을 나타내는 대장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비병원성 대장균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는 비타민C의 정기적 복용이 늘어나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대비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라는 생각이다.<br/>지나친 단백질이 부패돼 대장건강을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협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탈이 난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크리스천이 되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2.txt

제목: 암 예방, 건강한 생활 실천이 중요…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75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건강한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br/><br/>이번 행사에서 유근영 서울대 교수(홍조근정훈장), 김열홍 고려대 교수 및 태영숙 고신대 교수(이상 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93명(기관 1곳 포함)에게 유공자 수상이 이루어졌으며,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지난해에 이어 암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됐다.<br/><br/>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유근영 교수는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APOCP)의 초대 사무총장(2006)으로서 현재 8년째 임기를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암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br/><br/>근정 포장을 수상한 김열홍 교수는 2013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맞춤형 암 치료를 위한 유전체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태영숙 교수는 암환자가 가족이나 의료인으로부터 받는 도움(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측정 기준을 개발하는 등 암 환자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br/><br/>한편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암 예방 및 치료·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암 예방부터 조기 발견, 암 치료 및 말기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암관리 종합 개선 대책’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br/><br/>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span class='quot0'>국가암검진 프로그램 재정비, 공익적 임상 연구 확대, 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암 연구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span>”이라고 밝히고, “<span class='quot0'>암 예방을 위해 평소 금주, 금연, 건강한 식습관, 주기적인 운동 등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 날 행사에서는 암 예방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금연 부스에서의 홍보 활동도 이루어져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3.txt

제목: [현장에서/ 김단비 기자] 암 극복 위해 마음이 내는 소리를 듣자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00  
본문: 환자가 되어보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암’을 마주한 환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다.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암을 판정받은 환자의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 공포로 얼룩져있다. [암환자 마음읽기] 코너를 새롭게 담당하며, 생각보다 많은 암 환자가 정신과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통 암 판정 이후 일정시간이 흐르면 현실부정 등의 우울증 정도가 줄어들지만 친구와 가족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볼 필요가 있다.<br/><br/>우울증은 많은 암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유병률이 10~20%정도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진단받는 경우고 더 많은 수가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울한 감정에 빠진다는 소리다. 암 환자의 우울증은 심리의 문제를 넘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치료방법 결정 등에도 영향을 준다. 완치로 가는 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br/><br/>폐암을 극복한 여성 환우를 만났다. 그녀는 폐암을 선고받고서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애연가인 남편 때문에 일평생 간접흡연을 한 것이 자신이 폐암에 걸린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남편을 원망하며 시작된 첫 번째 방사선치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여성 환우는 “마음에 가득 찬 분노 때문이었는지 암의 크기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이후, 담당교수는 나에게 심리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고, 우울증 치료를 통해 원망과 갈등을 해소하고 나니 암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br/><br/>남성 암 환자가 우울증을 겪을 경우, 결과는 더욱 좋지 못하다. 여성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데다, 심리치료사에게조차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내가 만난 남성 암 환자는 완치하는 그 과정이 ‘고독한 산행’이었다고 표현했다.<br/><br/>암 환자는 다양한 감정상태를 경험한다. 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많아서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암에 대한 온갖 정보를 모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데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인생이 여행이라면, 암은 여행 중 만난 험준한 산이다. 산행을 즐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완치라는 정상에 오를 수 있다.<br/><br/>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발간되는 국민일보 [암과의 동행] 섹션에서 연재중인 [암환자 마음읽기]는 암 환자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암을 안고 일상을 즐기는 방법, 의료진과의 갈등,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 전함으로써 완치로 가는 길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포기와 희망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암과 대적하지 않고 암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암과의 동행]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br/><br/>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4.txt

제목: 안 짜게 안 타게 ‘암 예방의 날’…복지부 제안 건강수칙 10가지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428  
본문: [쿠키 사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짠 음식이나 탄 음식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식습관이 중요하다.<br/>보건복지부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암 예방 수칙 10계명을 발표했다.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는 것 외에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할 것, 체력과 체중을 유지하고 금주와 금연할 것, B형간염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을 통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할 것 등이 제시됐다.<br/>복지부는 올해부터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을 다양화해 암 예방 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암 예방부터 조기발견, 암 치료 및 말기 암 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국가암관리 종합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연구 인프라 강화와 관련 “<span class='quot0'>국가 암 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공익적 임상 연구를 확대해 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5.txt

제목: 암 치료 후 건강관리는 어떻게?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52  
본문: [쿠키 건강]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서구형 생활양식의 확대로 인해 암을 진단 받는 경우가 크게 늘어 매년 20만 명의 암환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최재경, 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체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64%에 이른다.<br/><br/>국내에서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이로 인해 암을 진단 받고 치료 후에도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를 암경험자로 정의하며 이는 암환자들의 가족과 친구, 돌봄 제공자까지 포함하기도 한다.<br/><br/>암 치료를 종료한 암 경험자들은 암 치료로 인한 후기 부작용, 다양한 만성질환, 높은 이차 암의 위험,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br/>최재경(사진)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교수를 통해 ‘암경험자와 가족 건강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br/><br/>1. 암 치료와 추적 관찰 잘 받기, 후기 합병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암 경험자의 치료경력과 동반 질환의 유무 등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후기합병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로, 통증, 불면 같은 문제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br/><br/>2. 다른 암에 대한 검진 챙겨 받기= 이차 암은 암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서 암 치료 이후에 원래 있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암 경험자는 이차 암의 발생률이 높아 이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br/><br/>3. 심장뇌혈관질환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도 철저히 하기= 암 경험자는 암 치료로 인한 후기 영향과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의 동반질환 유병률이 높다. 심장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환자 개개인에 따른 맞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br/><br/>4.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도 가급적 마시지 않기= 흡연과 음주는 암 경험자의 사망과 암 재발 및 이차 암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어 금연, 금주해야 한다.<br/><br/>5. 건강 체중 유지하기= 비만은 암 재발의 원인이 되고 이차 암 및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br/><br/>6. 운동은 꾸준히 매주 150분 유지하기= 운동은 암 경험자의 심장뇌혈관 질환 및 대사성질환의 예방효과가 있고 신체 증상(피로, 통증 등) 및 정신적 증상(우울, 불안 등)을 호전시킬 수 있다.<br/><br/>7. 마음 건강 챙기고 힘들 때 도움 청하기= 암 치료 후에 불안 및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br/><br/>8. 가족도 함께 검진 받고 건강 챙기기= 암 경험자의 가족은 암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br/><br/>9. 예방 접종하기= 면역 이상이 없는 암 경험자에게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디프테리아-파상풍, B형 간염 등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암 경험자 가족 및 간병인에게도 적절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br/><br/>한편,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암 치료 후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최재경 교수와 안아름 교수가 건강강좌를 진행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6.txt

제목: 암 치료비용 부담,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시 가입요령 확인!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444  
본문: [쿠키 생활] 암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는 질병 중 하나다. 최근 생활습관에서,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등의 여러 환경적 요인이 암을 발생할 수 있다.<br/>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연령이 낮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br/>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자리잡은 것은 바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부담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암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12%에 비해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6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br/>P씨(36세)는 지인의 오랜 암 투병을 보면서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 커 미리 대비하고자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얘기에 하루빨리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갱신형 암 보험이었던 것이다.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가 부담이 안갈 것 같아 가입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험료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br/>암 보험은 검사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할 수 있기기에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하지만 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데 ,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해도 소비자들이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한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7.txt

제목: 내게 필요한 암보험은?… 상품 비교사이트 등 활용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78  
본문: [쿠키 생활]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건강검진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지난 10년 사이 국내 암 환자 수는 두 배로 늘었다. 평균 수명인 81살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로,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암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암 보험을 일찍 가입해야 유리하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실제 암 보험을 드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br/>암 환자 상당수는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고, 치료비 및 생활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많은 암 보험 상품들이 넘쳐나면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보험비교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br/>올해 출시된 암 보험상품들은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연장한 것들도 있다. 이는 평균수명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보장기간을 재수립한 것이다. 최근에는 암 진단비를 최대 5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암 보험도 나와 인기를 얻고 있다.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암을 대비하는 첫 단추가 된다.<br/>갱신형 암 보험은 당장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지만, 그 보험료는 매년 인상되는 실정이다. 암보험은 특히 갈수록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비갱신형 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br/>보험금은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재무구조가 약한 보험사를 선택하면 보상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br/>암 발병률 증가로 인한 비갱신형 암 보험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MG손해보험, AIA생명,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에서 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각 보험사별·상품별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암 보험 선택비중을 어떤 항목에 더 크게 둘 것이냐에 따라 비교순위도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암 보험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비갱신형암보험 비교사이트(http://navernews2.co4.kr/)를 활용해 각 상품의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ivemic@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8.txt

제목: 한방암면역치료 ‘티버스터’를 통한 간암 치료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02  
본문: 하나통합한의원, 면역력 치료의 핵심 티버스터<br/><br/>[쿠키 건강] 최근 간암 치료에서 한방 암 면연치료 등 항암보조요법을 적용해 치료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끈다. 21일 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자체 개발해 한방 암 면역치료에 적용하고 있는 천연물조성 항암제 ‘티버스터(치종단Ⅱ)’가 실제 환자 적용 사례에서 증상 개선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br/><br/>실제 2013년 3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 2cm의 작은 종양 여러개가 간에서 발견된 A(51·남)씨. B형간염 보유자로 건강검진시 간암이 의심돼 정밀진단을 통해 최종 확진을 받았다.<br/><br/>A씨는 2013년 4월초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아 한약인 치종탕과 티버스터와 함께 침술 등 한방 암 면역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에 대한 간 종양표지자(PIVKA-Ⅱ) 수치 변화를 살핀 결과, 한방 치료전 106이었던 수치가 1주일 후에 87로 낮아졌다. 또 한방 암 면역치료 2주 후에는 60, 3주차에 27로 줄었다.<br/><br/>이에 대해 박상채 하나통한의원 대표원장은 “A씨의 경우 티버스터 복용 한달 후에 간수치(AST,ALT)와 종양표지자(PIVKA-Ⅱ)수치 모두 낮아지는 등 혈액검사상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A씨는 자각적으로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고 약인성 간기능 장애로(간수치 상승) 티버스터 복용을 하루 3회에서 2회 복용으로 줄여 간수치가 정상화됐다. 이후 중국 출장을 가는 등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도 “한방 암 면역치료는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병용되는 면역요법이 많다”며 “암세포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기전의 옻나무 약재를 사용하면 보조적 면역을 넘어 보조적 항암에 근접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티버스터도 이러한 개념으로 환자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11종 한의서에 근거해 처방을 내린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의 암 치료 목표는 기존 항암치료와 병행해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암치료 지쳐있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또한 기존 치종단 성과를 향상시켜 천연물 조성 항암제로 개발된 치종단(Ⅱ) 일명 ‘티버스터(T.buster)’도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이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0'>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최근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서도 좋은 임상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89.txt

제목: 을지대병원 ‘암 환우를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 개최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48  
본문: [쿠키 건강] 을지대학교병원은 20일 오전 11시부터 병원 3층 범석홀에서 ‘암 환우를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br/><br/>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최신 방사선치료 소개(방사선종양학과 윤선민 교수) ▲암 환우를 위한 웰빙식이 치료(영양과 여인섭 과장) ▲수면 건강과 생체 리듬 유지(정신건강의학과 정성훈 교수) ▲해피 바이러스 웃음치료(웃음치료사 최윤희 강사) 등의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br/><br/>특히 영양과에서는 홀 외부에서 암 환자를 위한 쿠킹클래스 시연회를 열고, 암 환우를 위한 웰빙 식이 레시피, 암 예방 생활 지침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br/><br/>한편 을지대학교병원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해가며 힐링 토크콘서트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0.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하려면 가입요령 반드시 확인!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445  
본문: [쿠키 생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가 평균 1억원이라 한다.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br/>의료실비보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벼운 감기부터 상해,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하는 편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노후에 발생될 수 있는 치료비용뿐 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의료비 지출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부담도 덜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을 보면 가입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얼마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등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1.txt

제목: ‘황우석과 연구했다’ 가짜 면역세포 주사한 무면허 의료업자 일당 적발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348  
본문: [쿠키 사회]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들에게 가짜 면역세포를 주사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무면허 의료 업자와 모집책 등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br/>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말기 암환자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L씨(57)와 모집책 K씨(58·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K씨의 남편(64)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br/>L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면역세포 치료를 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모집한 말기 암환자 5명에게 중국의 시설로 오게 한 뒤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지난해 7월 담도암 환자 1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치료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br/>K씨와 남편은 암환자들에게 ‘L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황우석 박사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했다’고 속여 환자들을 모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L씨는 1988년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제적됐으며 줄기세포를 연구한 적이 없다. K씨 등은 L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고 치료비의 30%인 1억1300만원을 받았다.<br/>L씨가 환자들에게 주사한 면역세포 주사액은 아미노산 화합물 등으로 면역력 증강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서 치료받은 암환자 6명 가운데 3명은 치료 중 증세가 악화해 숨지고 나머지 3명은 국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br/>사진=국민일보DB<br/>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2.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하려면 가입요령 반드시 확인!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446  
본문: [쿠키 생활]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가 평균 1억원이라 한다.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br/>의료실비보험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벼운 감기부터 상해,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하는 편이며, 관심을 가지고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노후에 발생될 수 있는 치료비용뿐 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면서 발생되는 의료비 지출항목으로 지급되는 비용부담도 덜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막상 가입하려고 보장내용을 보면 가입금액에 대한 부분이나 얼마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등과 상품을 비교하려고 해도 생소한 용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읽고 비교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면 보험 가입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3.txt

제목: [겨자씨] 잃어버린 것의 은총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13797937  
본문: 필자는 30여년간 사용한 아주 소중한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긴 세월의 추억과 익숙함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전 선물 받은 더 값진 고급 만년필이 있어 요즘은 그것을 사용한다. 만년필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 성격상 죽는 날까지 낡은 만년필을 수리하고 또 수리해 썼을 것이다. 잃어버리면 새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더 좋은 은총이 있다.<br/>모압여인 룻은 남편 말론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났다.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을 잃고 새 남편 다윗을 만났다. 탕자는 재산과 세상 벗, 향락을 다 잃어버리고 더 귀한 아버지와 집, 품꾼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성실과 근면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안이 있고 대신할 것이 있다. 필자는 암으로 위를 자르고 췌장, 십이지장도 적출했다. 위는 남아 있는 2분의 1이, 췌장은 남아 있는 3분의 1이, 아무것도 없는 십이지장은 소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대신하는 것들로 인한 감사와 생존의 의미, 삶의 질은 가히 일곱 배다.<br/>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보다 더한다(사 30:26).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대안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대신할 대용은 없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찬송을 대용할 것이 없다. 십일조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신할 그 어떤 대체는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없다. 예수는 복사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원안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고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br/>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4.txt

제목: [겨자씨] 잃어버린 것의 은총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120  
본문: 필자는 30여년간 사용한 아주 소중한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긴 세월의 추억과 익숙함 때문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전 선물 받은 더 값진 고급 만년필이 있어 요즘은 그것을 사용한다. 만년필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내 성격상 죽는 날까지 낡은 만년필을 수리하고 또 수리해 썼을 것이다. 잃어버리면 새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 더 좋은 은총이 있다.<br/>모압여인 룻은 남편 말론과 사별하고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났다. 아비가일도 남편 나발을 잃고 새 남편 다윗을 만났다. 탕자는 재산과 세상 벗, 향락을 다 잃어버리고 더 귀한 아버지와 집, 품꾼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성실과 근면을 찾았다. 세상의 모든 것은 대안이 있고 대신할 것이 있다. 필자는 암으로 위를 자르고 췌장, 십이지장도 적출했다. 위는 남아 있는 2분의 1이, 췌장은 남아 있는 3분의 1이, 아무것도 없는 십이지장은 소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 대신하는 것들로 인한 감사와 생존의 의미, 삶의 질은 가히 일곱 배다.<br/>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날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보다 더한다(사 30:26). 그러나 우리가 만일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대안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대신할 대용은 없다. 찬송을 잃어버리면 찬송을 대용할 것이 없다. 십일조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대신할 그 어떤 대체는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없다. 예수는 복사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의 원안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고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br/>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5.txt

제목: GSK, 면역항암백신(MAGE-A3) 3상임상에 연이은 '암초'  
날짜: 201403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356  
본문: MAGRIT, 1·2차 종료점 충족 못해<br/><br/>[쿠키 건강] GSK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면역 항암백신이 후기임상에서 두번째 난관과 마주했다.<br/><br/>GSK는 MAGE-A3가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가을 흑색종을 타깃으로 한 해당 연구가 첫번째 장애물에 봉착한 이후 두번째이다.<br/><br/>하지만, 관계자들은 연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이 치료에 혜택이 예상되는 암환자의 부모집단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MAGE-A3는 종양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 항원-3를 목적으로 체내 면역체계의 공격을 자극한다. 관계자는 부모집단 연구가 2015년까지 계속되지만 결과에 있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br/><br/>MAGE-A3의 3상임상인 MAGRIT은 종양 면역치료에서 위약군 대비 무질병생존율(DFS)을 유의하게 올리지 못했다. 1차 종료점은 전체 MAGE-A3 양성 모집군과 위약 비교, 2차 종료점은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MAGE-A3 양성 환자의 비교 결과였다.<br/><br/>이 연구는 이중맹검 무작위대조군 연구로 병기 1B~3A로 진단 받은 약 3분의 1 NSCLC 환자를 대상으로 27개월 동안 MAGE-A3와 위약을 13회 근육주사해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했다. 여기에 34개국 400개 지역 이상에서 MAGE-A3 양성을 보인 환자 2312명이 등록됐다.<br/><br/>이번 후기 임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GSK의 주가는 2% 가까이 떨어졌다. 항암 백신에 사용되는 면역증강제를 공급하는 업체인 Agenus 역시 이날 주식장이 개시되자 13%까지 하락했다.<br/><br/>Agenus의 주식은 지난 가을 GSK의 MAGE-A3가 흑색종을 타깃으로한 첫번째 3상임상이 실패하면서 동반 타격을 받은 바 있다.<br/><br/>MAGE-A3는 연이은 실패로 GSK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GSK R&D 총책임자인 Moncef Slaoui는 "이 새로운 치료제가 혁신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잠재성이 높은 보상이 주어지는 치료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br/><br/>그는 현재 HGS 인수 당시 획득한 심질환 치료제 다라플라딥(darapladib)과 MAGE-A3 같은 최첨단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br/><br/>다라플라딥은 작년 가을 첫번째 3상임상에서 실패했다. 또 듀켄씨근이영양증(DMD) 치료제인 드리사퍼센(drisapersen)이 작년 후기임상에 실패하면서 제제의 권리를 프로센사(Prosensa)에 반환한 바 있다.<br/><br/>한편, 이번 실패는 항암 백신 시장에 또 한번의 차질로 남았다. MAGE-A3가 연이은 후기 임상실패로 허둥거리는 반면 면역 종양 치료제인 MK-3475와 니볼루맙(nivolumab)은 분석가들의 주목을 받았다.<br/><br/>이와 함께 Merck KGaA는 항암 백신 스티뮤박스(Stimuvax)의 후기임상에 실패했다. 이제제는 현재 테세모타이드(tecemotide)로 이름을 바꾸고 특정 환자 모집단을 선정해 피보탈 연구를 재시행하려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6.txt

제목: 건강에 좋은 ‘봄나물’은?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245  
본문: [쿠키 건강] 조선시대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을 그린 ‘농가월령가’ 이월령(음력)에는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며 소루쟁이 물쑥이라”라는 대목이 나온다. 고들빼기, 씀바귀, 소루쟁이, 물쑥은 이른 봄에 나오는 봄나물들이다.<br/>봄나물은 대부분 먹거리와 약재로 함께 쓰이는 양수겸장이다. 들이나 습지 근처에서 주로 자라는 소루쟁이가 좋은 예다. 어린잎은 먹고 말린 뿌리는 건위제나 피부약, 해열제로 이용한다. 양재근은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적이란 연구결과도 제시됐다.<br/>물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대개 연한 뿌리와 줄기를 요리해서 먹는다. 흙냄새 같은 독특한 향기를 지닌 것이 특징이다. 고들빼기도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로 먹으면 쓴맛이 난다. 씀바귀는 언뜻 보기에는 냉이나 고들빼기와 닮았다. 이름처럼 쌉싸름한 맛이 난다. 바로 이 쓴맛이 미각을 북돋워준다. 뿌리를 주로 먹는 씀바귀는 춘곤증에 시달리는 직장인, 수험생에게 유익하다. 졸음을 쫓는 효과가 있어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건강에 좋은 봄나물에 대해 알아본다.<br/>◇달아난 식욕도 불러들이는 맛<br/>봄나물의 맛이 쓴 것은 안에 사포닌이란 쓴맛 성분이자 웰빙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포닌은 인삼의 약효 성분이기도 하다.<br/>봄나물이라고 하면 달래, 냉이, 씀바귀 등 어릴 때 부른 동요에 등장하는 식물들이 먼저 떠오른다. 이들은 모두 이른 봄에 나온다. 달래는 마늘과 ‘사촌’이다. 달래에는 마늘의 대표적인 항암성분인 알리신이 들어 있어 매운맛이 나지만 동시에 암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br/>피로 해소를 돕고 유해산소를 없애는 비타민 C도 풍부하다. 식욕을 되살리는데도 그만이다. 뼈와 치아 건강을 돕고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칼슘이 봄나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달래는 깨끗이 씻은 뒤 고추장, 식초, 깨소금에 무쳐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는 것이 좋다.<br/>향이 독특한 냉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채소로 유명하다. 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춘곤증이 심한 사람에게 냉이를 추천하는데, 냉이는 피로를 해소하는 비타민 B1과 노화 방지와 피로해소, 감기예방의 기능을 하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냉잇국이나 냉이 된장찌개는 멀찌감치 달아난 식욕을 불러들이고 활력을 되찾게 한다. 냉잇국은 쌉싸름한 맛과 독특한 향, 잘근잘근 씹히는 맛이 있다. 된장국을 끓이더라도 시금칫국에는 조갯살, 아욱국에는 마른 새우가 어울리듯이 냉잇국에는 쇠고기를 넣어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난다. 냉이를 무치거나 국을 끓일 때는 잡티를 깨끗이 골라내고 물에 씻을 때는 살살 주물러 풋내를 빼야 한다. 삶아서 물에 담가두면 쓴맛이 빠지고 부드러워진다. 된장도 조선된장을 써야 제맛이 난다.<br/>◇칼슘,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쑥<br/>달래, 냉이, 씀바귀보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봄나물이 더덕, 두릅, 쑥이다. 세 나물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도 대개 3~5월에 시장에 나온다. 셋 중 가장 먼저 출시되는 더덕은 씹을수록 진한 향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흔히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구워 먹지만 봄에 나는 연한 뿌리는 잘게 찢어 매콤하게 무쳐 먹어도 좋다.<br/>4월께 나오는 두릅은 대개 잎(새순)을 먹는다. 잎 크기가 성인의 엄지손가락만 할 때는 연해서 먹기 좋지만 이보다 더 커지면 질겨진다. 두릅은 단백질이 풍부한 나물로 보통은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지만 튀김이나 물김치를 담가 먹어도 별미다.<br/>쑥은 봄나물 중 가장 늦게 시장에 나온다. 5월 단오에 채취한 것이 약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쑥은 과거부터 한방이나 민간요법의 약재로 널리 쓰였다. 맹자는 “<span class='quot1'>7년 묵은 지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라.</span>”는 말을 남겼다. 중국의 고의서인 ‘본초강목’에는 “쑥은 속을 덥게 하고 냉을 쫓으며 습을 없애준다.”고 기술돼 있다.<br/>영양적으로 칼슘, 식이섬유 함량이 높다. 식이섬유는 변비와 대장암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웰빙 성분이다. 그러나 향이 너무 강한 탓에 쑥을 주재료로 만든 음식은 쑥 튀김 정도다. 보통은 국이나 떡에 넣어 먹는다.<br/>◇버릴 부분이 없는 약초, 민들레<br/>이 외에도 봄철에 자주 먹는 봄나물로는 돌나물, 망우초, 민들레가 있다.<br/>돌나물은 석상채라고도 불린다. 대개 맛이 쓴 새순을 먹는다. 봄에 돌나물을 초무침이나 물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식욕이 되살아난다. 생즙은 피로를 풀어준다. 망우초(근심을 잊게 해주는 풀)라고 불리는 원추리는 봄나물 중 거의 유일하게 단맛이 나는 채소다.<br/>봄에는 어린 싹을, 여름에는 꽃을 김치로 담가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는다. 원추리에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해 겨우내 지친 몸에 활기를 되찾아준다.<br/>봄 들녁을 곱게 장식하는 민들레는 국화과 식물이다. 영어명인 ‘dandelion’은 ‘사자의 이빨’이란 뜻이다. 톱니 같은 잎을 가져서다. 보통 사람들에게 민들레는 ‘야생화’지만 건강 전문가들에겐 ‘약초’다. 민들레는 버릴 것이 없다. 꽃은 따서 봄 내음이 가득한 술을 담그는 재료로 쓴다. 잎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br/>특히 잎에 든 베타 카로틴은 유해산소를 제거해 노화와 성인병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이다. 또 잎을 먹으면 소변 보기가 쉬워진다. 그 효과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이뇨제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다. 뿌리는 훌륭한 간 기능 개선제다. 뿌리에 든 콜린은 간 영양제로 알려져 있다.<br/>당뇨병 치료에도 유용하다. 동물실험에선 민들레 뿌리에 풍부한 이눌린이 혈당 조절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에선 오래전부터 뿌리를 고혈압 치료에 이용해왔다.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채취한 민들레의 약성이 가장 뛰어나다.<br/>파프리카, 양송이, 양상추, 청경채 등은 봄나물은 아니지만 봄의 에너지를 듬뿍 머금은 봄채소들이다. 봄나물처럼 칼륨,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해 봄의 나른함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샐러드를 만들어 생으로 먹는 것이 봄나물이나 봄채소를 영양소 손실 없이 섭취하는 방법이다. 최대한 많이 먹으려면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살짝 데쳐 먹는 것이 좋다.<br/>\*도움말=임대종 원장(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7.txt

제목: 우리 것도 혹시 암덩어리? 노대래 “공정위 규범은 규제와 달라”  
날짜: 201403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1100000414  
본문: [쿠키 경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규범(rules)은 일반적인 규제(regulations)와 다르므로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br/>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의 성격을 놓고 격론이 오갔던 터여서 노 위원장이 비교적 개념정리를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br/>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에서 “<span class='quot0'>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은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규범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으로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span>”이라고 설명했다.<br/>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담합 금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규정 등 각종 금지행위 규정을 비롯해 현장조사 및 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위해 필요한 규정과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 등은 규제 개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br/>다만 공정위 소관 규제 482건 중 약 60%가 규범에 해당하며 나머지 40%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일반 규제라는 입장이다.<br/>노 위원장은 “<span class='quot0'>규범은 특정 산업 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 제외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다만 규범 가운데서도 국제적 추세와 판례에 맞지 않는 사항은 별도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노 위원장은 경제상황·정책기조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이 규제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폐지·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br/>노 위원장은 “<span class='quot0'>규제 완화라고 해서 시장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 완화하면 시장질서가 파괴되고 무정부 상태와 같은 힘에 의한 경쟁만이 남는다</span>”며 “<span class='quot0'>고쳐나가면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정화하는 게 중요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8.txt

제목: 잘못된 음주습관, 당신의 몸을 병들게 한다  
날짜: 201403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0100000355  
본문: [쿠키 건강] 알코올은 암의 종류를 막론하고 암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간질환을 일으키며, 이때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절주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간암으로 발전한다.<br/><br/>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span class='quot0'>알코올로 인한 만성적인 자극은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유발시키며 각종 암에 대한 유병률 또한 높이고 있다</span>”며 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했다.<br/><br/>◇알코올성 간질환<br/><br/>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간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알코올의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가 간의 손상이기 때문이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해독 하지만 간자체도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이 휴식 없이 쉬지 않고 연이어 과음, 폭음을 하게 되면 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이상을 일으킨다.<br/><br/>간은 피막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간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상신호를 가장 늦게 보내는 장기가 바로 ‘간’인 이유이다. 이처럼 지방간이 되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br/><br/>전용준 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원장은 “<span class='quot1'>과음을 지속하게 되면 대개 지방간→알코올성 간염→간경화, 간암의 순서로 진행된다</span>”며 “<span class='quot1'>간은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간경화, 간암까지 이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없다고 방심해선 안 된다</span>”고 조언했다.<br/><br/>◇알코올성 소화기 질환<br/><br/>알코올은 위에 직접 작용해 위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식도나 위장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쓰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내시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각한 증상이 발견된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식도암, 위암, 대장암의 위험이 높다.<br/><br/>장기간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술이 췌장을 자극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췌장염이 병발한다. 췌장암의 경우, 질병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가장 중요한 증상인 복부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또한 식욕감퇴 및 오심, 구토는 심한 복통 후에 거의 반사적으로 발생하며 췌장머리 부분에 위치한 종양이 담즙의 흐름을 막아 황달이 생기는데 췌장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80%에 나타난다. 췌장액의 분비가 감소해 흡수장애가 오거나 음식물 섭취가 저하되면 이상체중(정상으로 여윈 상태의 체중)에서 10%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난다.<br/><br/>◇암 예방 4가지 생활수칙<br/><br/>◆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체중 유지한다= 매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고, 세 끼 적절한 양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시간과 식사량이 불규칙한 경우나 식사 때가 아닌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몸을 골고루 쓰는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다.<br/><br/>◆과음은 피하고 평소에 절주 또는 금주를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적어도 2~3일 정도는 금주를 하며 간을 포함한 장기에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간은 최소한 48시간을 쉬어야 원상태로 회복된다. 음주로 인한 질병은 절주나 금주를 하기 전에 절대 고칠 수 없다. 음주 역시 습관이 되기 전에 절주하는 것이 더 큰 질환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다.<br/><br/>◆술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습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처음에는 긴장을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볍게 한두 잔 하던 것이 점차 주량이 늘고 횟수가 거듭되면서 생활습관까지 되는 것이므로, 초기에 자신의 음주습관이 생활습관병 수준인지 알지 못한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교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활습관 하나만 교정해도 병세가 약화되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음주습관을 체크하고 적당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br/><br/>◆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짠 음식 섭취, 붉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 등은 암과 관련된 식습관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은 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삼가고, 생선이나 우유, 두부 등을 적극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타민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녹황색 채소는 알코올 분해를 돕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이처럼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099.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3월, 여성의 날 이벤트 진행  
날짜: 201403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0100000510  
본문: [쿠키 건강] 매년 3월 8일은 UN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br/><br/>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면역 암 치료 방선휘한의원(원장 방선휘)은 3월 한달 동안 부인과 진료상담을 하는 여성 환자들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선휘한의원은 한국 여성들이 많이 겪는 여성 암 질환에 대한 예방법 및 건강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br/><br/>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쑥듬은 진통, 진정, 제지등의 작용으로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면역작용을 통해 독소나 병원균이 몸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고 몸속에 이중 단백질이 생성되어 항체가 만들어지므로 면역 작용을 일으킨다</span>”고 말했다.<br/><br/>쑥뜸은 몸속 깊숙한 곳까지 온열을 전달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피하조직을 데워주고, 혈액을 원활하게 해 허약해진 몸이나 냉해를 입은 장기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신진대사가 왕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면역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준다.<br/><br/>방선휘한의원 측은 항암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손발 저림이나 통증,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온열쑥뜸과 면역약침을 통해 완화 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여성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에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br/><br/>방선휘 원장은 “여성을 날 계기로 여성암 환우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테고 완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온열쑥뜸은 쑥뜸을 이용해 몸의 체온을 40도까지 올려 열에 약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체온이 올라가면 몸 속 면역세포가 증가해 면역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br/><br/>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방선휘한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br/><br/>한편, ‘세계 여성의 날’ 은 1908년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화재로 불타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0.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3월, 여성의 날 이벤트 진행  
날짜: 201403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0100000422  
본문: [쿠키 건강] 매년 3월 8일은 UN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br/><br/>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면역 암 치료 방선휘한의원(원장 방선휘)은 3월 한달 동안 부인과 진료상담을 하는 여성 환자들에 한해, 쑥뜸 무료 시술 이벤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선휘한의원은 한국 여성들이 많이 겪는 여성 암 질환에 대한 예방법 및 건강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br/><br/>이번 이벤트에 제공되는 무료 쑥뜸 시술의 효과에 대해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진통, 진정, 제지등의 작용으로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 면역작용을 통해 독소나 병원균이 몸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고 몸속에 이중 단백질이 생성되어 항체가 만들어지므로 면역 작용을 일으킨다</span>”고 말했다.<br/><br/>쑥뜸은 몸속 깊숙한 곳까지 온열을 전달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며 피하조직을 데워주고, 혈액을 원활하게 해 허약해진 몸이나 냉해를 입은 장기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신진대사가 왕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면역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준다.<br/><br/>방선휘한의원 측은 항암치료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손발 저림이나 통증, 구토 증상이 있을 경우 온열쑥뜸과 면역약침을 통해 완화 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여성암 뿐만 아니라 모든 암종에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br/><br/>방선휘 원장은 “여성을 날 계기로 여성암 환우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테고 완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온열쑥뜸은 쑥뜸을 이용해 몸의 체온을 40도까지 올려 열에 약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체온이 올라가면 몸 속 면역세포가 증가해 면역력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br/><br/>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방선휘한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br/><br/>한편, ‘세계 여성의 날’ 은 1908년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화재로 불타 희생된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해 공식 지정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1.txt

제목: 놔둬도 문제 없는데… ‘갑상선암’ 의사들의 자아비판  
날짜: 20140320  
기자: 황인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0100000136  
본문: 직장인 박모(42)씨는 2년 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건강검진 때 의사 권유로 갑상선 검사를 추가했더니 0.5㎜의 아주 작은 혹이 발견됐다.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작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다 그래도 몸에 암세포를 두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곧바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는 “<span class='quot0'>수술 후 피로감과 두통 등 후유증이 매일 반복된다</span>”고 토로하고 있다.<br/>국립암센터 자료와 관련 논문을 종합하면 1986년 인구 10만명당 남녀 각각 0.8명과 3.9명이던 갑상선암 발병률은 2011년 인구 10만명당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다. 영국보다는 무려 17.5배 많다. 대부분은 박씨처럼 아무 증상이 없는 데도 의사 권유로 검진했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다. 세계에서 유독 한국만 갑상선암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 투자비를 회수하려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다보니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 갑상선암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23.7%. 전체 암 평균 증가율(3.6%)의 7배나 된다.<br/>이런 기형적인 상황을 보다 못해 암 전문의들이 “<span class='quot1'>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검진을 즉각 중단하라</span>”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홍관(국립암센터) 안형식(고려대) 이재호(가톨릭대) 교수 등 암 전문의 8명은 ‘갑상선암 과다 진단 저지를 위한 의사연대’를 구성하고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br/>안형식 교수는 “<span class='quot2'>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갑상선의 암세포를 찾으려고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건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2'>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시키고 상업화된 건강검진 체계를 개편하라</span>”고 촉구했다.<br/>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게 상식이지만 갑상선암만은 그렇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쓸데없는 조기 검진이 불필요한 수술과 후유증을 양산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br/>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을 받고 있다. 일단 수술하면 평생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 갑상선을 제거하면 신진대사와 체온조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라져 적절한 호르몬 분비를 위해 매일 호르몬제를 먹어야 한다. 한동안 힘든 운동을 피해야 하는 등 생활에 제약도 많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수술환자 중 7.3%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성대마비 같은 후유증에 시달린다. 호르몬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6%나 됐다.<br/>의료비 낭비 역시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8년 1200억원에서 2012년 26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갑상선암 수술 4만건 대부분이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판단한다. 수술비 낭비만 860억원이다.<br/>게다가 갑상선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0.5∼0.7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기 진단과 수술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예방서비스위원회(USPSTF)는 이미 1996년 갑상선암에 대해 조기 진단 권고 ‘D’ 등급 판정을 내렸다. 굳이 발견할 필요가 없는 암이란 뜻이다. 국내 국가암정보센터도 ‘증상이 없는 갑상선암’의 검진(촉진, 초음파)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주요 대형병원은 대부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시행한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인 셈이다.<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2.txt

제목: JW크레아젠, 수지상세포 간암치료제 3상 임상 진행  
날짜: 201403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20100000325  
본문: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에서 150여명의 간암 환자 대상 임상 계획<br/><br/>[쿠키 건강] 면역세포를 활용한 신개념 간암치료제 신약이 임상 3상 단계에 진입한다.<br/><br/>JW중외신약은 자회사인 JW크레아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지상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간암치료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에 대한 임상 3상시험 계획(IND)을 승인 받았다고 20일 밝혔다.<br/><br/>이번 임상은 간암 환자 중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에 대한 확정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br/><br/>임상 승인에 따라 JW크레아젠은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다기관에서 약 150여명의 간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수행해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의 수술 후 재발억제 효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br/><br/>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는 JW크레아젠의 특허기술인 수지상세포 관련기술과 CTP 약물전달기술을 바탕으로 환자 본인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간암을 치료하는 맞춤형 암치료제이다.<br/><br/>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분리해 제조하기 때문에 치료기간 중에도 부작용이 없고 투여 후에는 암세포에 대한 기억면역이 유도돼 장기적으로 암의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br/><br/>JW크레아젠은 이번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혁신적인 간암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br/><br/>JW크레아젠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지난 3년 동안 간암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시험 결과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암 재발억제 효과를 확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3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대표적인 다빈도 암인 간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JW크레아젠은 2011년부터 3년 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연구비를 지원받아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에서 크레아박스-에치씨씨주의 임상 2상 시험을 수행해 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3.txt

제목: “당뇨병 환자 암 걸리면 사망률 높다” 왜?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264  
본문: 고혈당 치료강도 따라 사망위험↑…인슐린 환자 암진단 후 1년 사망률 가장 높아<br/><br/>동반질환, 암진단 지연, 항암요법과 상호작용 등 원인 추정<br/><br/>[쿠키 건강] 당뇨병 환자들이 암을 진단받는 경우 사망위험이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고혈당 치료강도(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암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돼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연구팀은 고혈당 요법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중증도에 따른 동반질환 이환과 이로 인한 열악한 예후, 증상 가림(masking)에 따른 암 진단 지연, 항암요법과의 상호작용 등을 잠재적 원인으로 지적했다.<br/><br/>◇40만명 이상 암 환자 등록·분석연구<br/><br/>덴마크 코펜하겐대학의 Kristina Ranc 교수팀은 유럽당뇨병학회(EASD) 저널 Diabetologia 2014.03.13 온라인판에 '당뇨병 환자의 암 진단 후 사망률'에 관한 등록·관찰연구 결과를 발표, "비약물치료 또는 경구 혈당강하제나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모든 당뇨병 환자에서 암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연구팀은 1995~2009년 사이 덴마크에서 암 진단을 받은 42만612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유무에 따른 사망률 정도를 비교·분석했다. 이 가운데 총 4만2205명의 환자들이 암 진단 시점에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었다.<br/><br/>환자들은 암 진단 시점의 당뇨병 상태에 따라 비당뇨병 환자, 비약물치료 당뇨병 환자, 경구 혈당강하제 치료 당뇨병 환자, 인슐린 치료 당뇨병 환자 등 4개 그룹으로 분류됐다. 당뇨병 유무와 함께 고혈당 치료에 따른 암 사망률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br/><br/>◇당뇨병 환자의 암 사망률<br/><br/>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비약물요법 - 경구 혈당강하제 - 인슐린 치료그룹 순으로 모든 당뇨병 환자의 암 사망률이 비당뇨병 환자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br/><br/>전체 암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당뇨병 대비 당뇨병 환자의 암 사망 위험비(hazard ratio)가 비약물요법·경구 혈당강하제·인슐린 치료그룹에 따라 남성에서 1.10배·1.23배·1.29배, 여성에서 1.11배·1.22배·1.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치료강도와 암 이환기간 별 사망률<br/><br/>전반적으로 당뇨병 이환기간은 암 사망률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혈당 치료강도가 높고 암 이환기간이 늘어날수록 사망위험은 증가했다.<br/><br/>암 진단 시점에서 당뇨병 이환기간이 2년인 환자들을 분석했을 때, 암 진단 후 1년째 사망률(mortality rate ratio)은 인슐린 치료그룹이 남성 3.7, 여성 4.4로 가장 높았다. 암 진단 후 9년 시점에서의 사망률은 남성 5, 여성 6.5로 역시 인슐린 치료그룹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br/><br/>같은 기간 동안 경구 혈당강하제 또는 비약물치료 그룹의 암 사망률은 남성 1.5와 여성 2로 비당뇨병 그룹에 비해 높았으나 인슐린 그룹보다는 낮았다.<br/><br/>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다 높은 강도의 공격적인 당뇨병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이 암 진단 시점에서 동반질환 이환의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생존 확률이 열악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br/><br/>연구팀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당뇨병을 동반한 암 환자에서 항암치료는 물론 적절한 당뇨병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양내과와 내분비내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치료전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암 사망률 증가의 잠재적 원인<br/><br/>연구팀은 당뇨병 환자에서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현상과 관련해 몇 가지 잠재적 원인을 설명했다. 우선 당뇨병 이환에 따라 여타 질환들이 동반돼 암의 예후를 더욱 열악하게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br/><br/>동반질환 이환에 따라 암 증상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진단이 지연됐을 수도 있다는 설명도 첨가됐다. 여기에 동반질환 치료와 항암요법의 상호작용과 함께 당뇨병 이환에 따른 고혈당 치료가 암의 진행과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잠재적 원인으로 꼽혔다.<br/><br/>◇당뇨병과 암의 연관성<br/><br/>한편 미국암학회(ACS)와 미국당뇨병학회(ADA)는 지난 2010년 당뇨병과 암에 관한 성명을 발표, "당뇨병 환자에서 간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발생의 상대위험도가 정상인과 비교해 2배 이상 높다"고 밝힌 바 있다.<br/><br/>간암과 췌장암의 위험도가 높은 이유는 인슐린이 췌장 베타세포에 의해 생성되고 문정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되는 만큼, 당뇨병 환자에서 두 장기의 인슐린 노출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br/><br/>또한 연령(고령)·성별(남성)·비만·운동부족·식이·음주·흡연 등이 두 질환 모두에서 가장 흔한 위험인자로 지적됐는데, 이들 위험인자가 두 질환의 연관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성명은 당뇨병 환자에서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동반되는 위험인자 때문인지, 고혈당·인슐린저항성·고인슐린혈증 등 당뇨병 자체의 대사장애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br/><br/>당뇨병과 암의 연관성을 설명하는데 생물학적 연결고리도 근거가 되고 있다. 인슐린은 체내에서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주된 임무인 혈당조절과 매우 낮은 강도의 증식작용이다. 인슐린이 인슐린수용체와 결합하면 혈당조절 임무를, IGF-1(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수용체와 결합하면 증식작용을 담당하게 된다.<br/><br/><br/><br/>정상인의 경우 인슐린이 대부분 인슐린수용체와 결합한다. 하지만 고인슐린혈증으로 인해 장시간 높은 인슐린 농도를 유지하면 IGF-1수용체와의 결합이 증가해 암의 원인인 증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이상돈 기자 sdlee@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4.txt

제목: 3월 21일은 암 예방의 날, 생활습관병인 음주와 암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72  
본문: [쿠키 건강] 오는 3월 21일은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암 예방의 날이다. 술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음주도 생활습관병 중 하나이다.<br/><br/>이것은 음주를 반복하는 생활습관으로 인해 병이 생기거나 음주로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알코올성 간 질환 외에도 소화기 질환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처럼 음주습관으로 없던 질환이 생기고 경미하던 질환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음주습관도 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알코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장기와 세포를 병들게 한다. 우리 몸속에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반응으로 몸에 이상신호를 보낸다.<br/><br/>◇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술을 오랫동안 마실 경우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거의 모든 신체 조직과 기관이 지속적인 음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위장질환, 간질환 등은 만성적인 자극과 영향으로 인한 질병이 찾아와 질병이 중기 이상의 진행된 뒤에도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 내시경, 초음파, 혈액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발견하게 된다.<br/><br/>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은 “<span class='quot0'>알코올로 인한 만성적인 자극은 여러 가지 신체적 질환을 유발시키며 각종 암에 대한 유병률 또한 높이고 있다</span>”며 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했다.<br/><br/>▲알코올성 간질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다. 알코올의 가장 심각한 폐해 중 하나가 간의 손상이기 때문이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 해독하지만 간자체도 알코올이 분해 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간이 휴식 없이 쉬지 않고 연이어 과음, 폭음을 하게 되면 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이상을 일으킨다.<br/><br/>간은 해로운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해독기능, 혈액의 저장고기능, 신체의 요구에 맞추어 필요한 영양소를 가공하는 등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은 피막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간질환이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상신호를 가장 늦게 보내는 장기가 바로 ‘간’인 이유이다. 이처럼 지방간이 되어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해 계속 술을 마시게 되어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한다.<br/><br/>전용준 원장은 “<span class='quot0'>과음을 지속하게 되면 대개 지방간→알코올성 간염→간경화, 간암의 순서로 진행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간은 재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다가 간경화, 간암까지 이르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증상이 없다고 방심해선 안된다</span>”고 조언했다.<br/><br/>▲알코올성 소화기 질환= 알코올은 위에 직접 작용하여 위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키고 식도나 위장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쓰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내시경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각한 증상이 발견된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식도암, 위암, 대장암의 위험이 높다.<br/><br/>장기간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면 술이 췌장을 자극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췌장염이 병발한다. 췌장암의 경우, 질병의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가장 중요한 증상인 복부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암이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r/><br/>또한 식욕감퇴 및 오심, 구토는 심한 복통 후에 거의 반사적으로 발생하며 췌장머리 부분에 위치한 종양이 담즙의 흐름을 막아 황달이 생기는데 췌장머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의 약 80%에 나타난다. 췌장액의 분비가 감소하여 흡수장애가 오거나 음식물 섭취가 저하되면 이상체중(정상으로 여윈 상태의 체중)에서 10%이상의 체중감소가 나타난다.<br/><br/>이처럼 음주를 반복하는 생활습관병은 병세가 진전되기까지 별다른 지각증세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 환자 스스로 습관 교정에 대한 자각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려진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br/><br/>다사랑중앙병원 내과 전용준 원장의 도움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시킬 수 있는 암 예방 수칙에 대해 소개한다.<br/><br/><br/><br/>1. 소식을 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체중 유지한다.<br/><br/>매일 규칙적으로 과식하지 않고, 세 끼 적절한 양으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시간과 식사량이 불규칙한 경우나 식사 때가 아닌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괴로워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몸을 골고루 쓰는 걷기, 달리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좋다.<br/><br/>2. 과음은 피하고 평소에 절주 또는 금주를 해야 한다.<br/><br/>쉬지 않고 연이어 술을 마시면 간이 지쳐 피로가 누적된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시게 될 경우 적어도 2~3일 정도는 금주를 하며 간을 포함한 장기에 쉴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간은 최소한 48시간을 쉬어야 원상태로 회복된다.<br/><br/>잘못된 생활습관이 장기간에 걸쳐 몸에 고착되면 병이 된다. 때문에 생활습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병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음주로 인한 질병은 절주나 금주를 하기 전에 절대 고칠 수 없다. 음주 역시 습관이 되기 전에 절주하는 것이 더 큰 질환으로 진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길이다.<br/><br/>3. 술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습관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br/><br/>처음에는 긴장을 해소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가볍게 한두 잔 하던 것이 점차 주량이 늘고 횟수가 거듭되면서 생활습관까지 되는 것이므로, 초기에 자신의 음주습관이 생활습관병 수준인지 알지 못한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교정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활습관 하나만 교정해도 병세가 약화되고 합병증을 막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음주습관을 체크하고 적당한 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br/><br/>4.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br/><br/>짠 음식 섭취, 붉은 육류의 과도한 섭취 등은 암과 관련된 식습관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은 암의 위험을 높이므로 싱겁게 먹는 식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좋다.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식품을 삼가고, 생선이나 우유, 두부 등을 적극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타민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녹황색 채소는 알코올 분해를 돕기 때문에 충분히 먹는 것이 좋다. 이처럼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5.txt

제목: 쓸데없는 조기진단에 평생 약 달고 사는 갑상선암 환자들… "보다 못한 의사들이 나섰다"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500  
본문: [쿠키 사회] 직장인 권영옥(50)씨는 지난해 12월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무료로 받은 갑상선암 검사에서 3㎜ 정도 되는 혹이 발견됐다. 증상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몸에 암세포를 두고 살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권씨는 바로 갑상선 제거 수술을 받았다.<br/>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1986년 인구 10만 명 당 남녀 각각 0.8명과 3.9명이었던 갑상선 암 발병률은 2011년 인구 10만 명 당 81명으로 30배 정도 늘었다. 세계 평균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영국보다는 무려 17.5배가 많았다. 대부분은 권씨처럼 무증상인데도 의사 권유로 검진을 받았다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경우다.<br/>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갑상선암 환자수는 2000년대 이후 대형병원들이 고가의 초음파 진단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투자비 회수를 위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급증한 것이다. 2000년 이후 국내 갑상선암 연평균 증가율은 23.7%로 전체 암 평균 증가율(3.6%)을 크게 웃돈다.<br/>암은 조기발견이 좋다는 게 상식이지만 갑상선암만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되레 쓸데없는 조기검진은 불필요한 수술과 후유증으로 이어지고 있다.<br/>한국보건연구원에 따르면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9명은 수술을 받았다. 일단 수술을 하면 평생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살아야한다. 신진대사,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호르몬 분비를 위해 매일 호르몬제를 먹어야 하고 한동안 힘든 운동을 피해야 하는 등 생활에 제약도 많다. 수술환자 중 7.3%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성대마비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르몬제 부작용도 6%나 됐다.<br/>의료비 낭비 역시 심각하다.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8년 1200억원에서 2012년 2600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2012년 갑상선암 수술 4만건 대부분이 불필요한 수술로 판단한다. 수술비 낭비만 860억원이다.<br/>게다가 갑상선암 사망률은 조기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인구 10만명 당 0.5~0.7명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예방서비스 위원회(USPSTF)는 조기진단 추천 권고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갑상선암에 대한 조기진단을 1996년에 이미 ‘D’로 평가했다. 굳이 발견할 필요 없는 암이라는 뜻이다. 국내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증상이 없는 성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갑상선암 검진(촉진, 초음파)은 권장하고 있지 않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대형 병원에서는 대부분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일종의 ‘불안 마케팅’인 셈이다.<br/>부작용이 지속되면서 참다못한 현장 의사들이 “<span class='quot0'>득보다 해가 많은 갑상선암 검진을 즉각 중단하라</span>”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소영(예방의학전문의), 서홍관(국립암센터), 안형식(고려대) 이재호(가톨릭대) 등 암 전문의 8명은 ‘갑상선암 과다저지를 위한 의사 연대’를 구성하고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갑상선암 증가에 우려를 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br/>안형식 교수는 “<span class='quot1'>발견할 필요 없는 갑상선의 암세포를 찾기 위해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는 건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정부가 나서 무분별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중단시키고 상업화된 건강검진체계를 개편하라</span>”고 촉구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6.txt

제목: 밀리터리 서비스 마저…안랩 ‘예비군 민방위’ 스미싱 주의보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418  
본문: [쿠키 사회] 건강검진 청첩장 동창회 공지에 이어 이번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이다. 안철수연구소 기업 ‘안랩’이 19일 예비군·민방위 훈련 일정 통보를 미끼로 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br/>안랩은 3월 첫주 스미싱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2030 남성들이 피할 수 없는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일정을 알려면 누르라며 무차별 뿌려진 스미싱 문자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br/>안랩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계속 주제가 바뀌는 스미싱 문자를 알리고 있다. 3월 들어 악용된 사례는 암 검진, ‘사랑가득~’ 안부 묻기, 장녀 결혼, 동창회 불참시 벌금, 면세점 여인의 날 이벤트, 아이 안전 지킴이 등등을 자처한 메시지다. 여기에 붙은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가 털리게 된다.<br/>1~2월엔 소치올림픽,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발렌타인데이, 설날 안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이 등등에 심지어 “고객님 메일이 불법 사용으로 조회되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스미싱까지 있었다.<br/>안랩은 “<span class='quot0'>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장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하는 사회 공학적 기법이 주를 이룬다</span>”며 즉시 삭제를 당부했다.<br/>사진=안랩 트위터(@AhnLab\_man)<br/>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7.txt

제목: 화가 강승애, 말기암 환자 돕기 전시회 개최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09  
본문: [쿠키 생활] 서양화가이자 한국 여성중견 화가의 대표주자인 강승애 화가의 17번째 개인전이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개최된다. 생명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개인전은 치료가 어려운 말기암 환자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단체를 위한 자선 전시회로 열릴 예정이다.<br/>생명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씨앗, 새싹, 풀잎, 줄기, 화분 등의 이미지를 담아 은은하고 고요한 색채 언어를 나타낸 작품을 전시한다. 한편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강승애 작가는1994년 첫 개인전을 비롯해 활발한 전시회를 갖고 있다. 또 대만 국제미술교류전 초대출품, 이탈리아 밀라노 현대미술 초대전, 일-한 여류미술전 등 수 많은 단체전에 참가해 한국 미술작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현재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한국수채화작가회, 한국여류화가회,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 등 다양한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8.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유방암환우의 히말라야 등정기, 전시회 열어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66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 유방암환우들로 구성된 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오는 29일까지 서울대암병원 4층에서 유방암환우들의 히말라야 등정기 ‘희망의 길을 걷다’ 전시회를 개최한다.<br/><br/>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유방암 환우와 병원 의료진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는 과정을 담은 포스터 20여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치료로 지친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오는 11월로 예정된 킬리만자로 등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br/><br/>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킬리만자로 등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유방암환우회합창단은 환우들에게 희망과 긍정, 도전과 용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유방암 치료와 연구의 권위자이자 유방암환우로 구성된 ‘비너스회’ 설립과 유방암 예방과 퇴치를 주도해 온 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도 참여했다.<br/><br/>노동영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반인도 오르기 힘든 히말라야 등정에 성공하고 킬리만자로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유방암환우들의 모습이, 지금도 암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환자와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09.txt

제목: 카엘젬백스, 식약처에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32  
본문: [쿠키 건강]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V1001’의 전립선암 3상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br/><br/>카엘젬백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GV1001은 전립선비대증 호르몬 조절제로서 이미 특허를 출원했으며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화학치료제인 도세탁셀을 병용 투여한 실험 군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및 암세포 이동성 억제에 대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세계 전립선암 치료 시장은 2012년 38억 달러 규모에서 2022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국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망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립선암 시장은 최근 2012년 750억원 규모로 2년 전 대비 66% 급속한 성장을 했으며, 제약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부각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0.txt

제목: 한국로슈, 항암제사업부 부서장 신정범 상무 임명  
날짜: 201403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37  
본문: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에는 이희정 이사<br/><br/>[쿠키 건강] 한국로슈는 신임 항암제사업부 부서장에 전(煎)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 신정범(사진) 상무를, 신임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에 이희정 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br/><br/>신임 항암제 부서장으로 임명된 신정범 상무는 2010년 스페셜티 케어 부문 프로젝트 매니저로 입사했으며, 당해 신설된 Commercial Excellence의 부서장으로 임명된 후 영업 마케팅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생조직의 성공적인 안착을 이끌며 한국로슈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br/><br/>특히 조직 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신정범 상무는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및 한국릴리에서 영업부, 마케팅 및 기획 전략 부서를 거쳤으며, 미국 펜실베니아 경영대학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br/><br/>신정범 상무는 “로슈가 독보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항암제 사업부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혁신적인 항암제를 공급함으로써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내 환자들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Commercial Excellence 부서장으로 임명된 이희정 이사는 2009년 한국로슈에 입사해 스페셜티 케어 부문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으며,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0년 스위스 로슈 본사로 발령, 신진대사 프랜차이즈 부문 인터내셔널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국제적인 업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의 사업 개발 및 도매 팀 부장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끌어 오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희정 이사는 대웅제약 영업 및 전략 기획 부문에서 근무했으며,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MBA)를 취득했다.<br/><br/>이희정 이사는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하는 Commercial Excellence 부서의 부서장을 맡게 되어 기대가 많이 되고,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국로슈가 더욱 신뢰 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1.txt

제목: 항암제 개발 ‘문샷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날짜: 201403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9100000391  
본문: 아스트라제네카, MD앤더슨 면역·종양 프로젝트 참여<br/><br/>[쿠키 건강] 아스트라제네카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메드이뮨社가 미국 MD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하는 면역-종양 연구 프로젝트 "문샷(moon-shot)"에 참여한다. 문샷은 "우리는 십년 안에 달에 갈 것이다. 의지만 확고하다면 불가능은 없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는 케네디 전 미국대통령의 1962년 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됐다.<br/><br/>이번 조약으로 메드이뮨은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와 함께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br/><br/>프로젝트는 생존율과 관련 근간에 사망위험이 큰 8개 암종(급성골수성백혈병(AML), 골수이형성증(MDS),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악성 흑색종, 폐암, 전립선암, 삼중음성 유방암 및 난소암)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다기능팀(CFT)이 참여해 혁신적 항암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메드이뮨은 향후 임상시험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종양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 특정 체내 면역세포의 종양 사멸 능력을 올리는 개념이다. MD앤더슨은 메드이뮨의 일부 면역 치료 실험약물이 해당 환자에서 어떠한 면역 반응을 도출하는지 평가하게 된다.<br/><br/>그동안 MD앤더슨은 BMS 흑색종 치료제 여보이 개발에 책임 연구자였던 Jim Allison이 참가하는 한편 6개 문샷프로그램에 4000만 달러를 조성하는 성공가도를 달렸다.<br/><br/>현재 모든 참여 그룹은 자금을 묶어두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PD-1과 PD-L1을 이용한 신개념 블록버스터 제제의 주도적 연구는 메드이뮨을 포함 머크, BMS, 로슈가 경쟁하고 있다.<br/><br/>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세포사멸-1(PD-1) 단백질과 암세포에 발현되는 세포사멸 리간드-1(PD-L1)로 이들이 결합하면 종양을 체내 면역체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메드이뮨은 이 분야 연구에 상승세를 나타냈다.<br/><br/>메드이뮨 종양 사업부 사장인 Ed Bradley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파이프라인 중 4개 실험약물이 대부분 암환자 치료에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프로젝트 연구에 일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아스트라제네카와 메드이뮨의 성과를 기다리는 많은 분석가들은 이들이 2017년까지 다른 경쟁사를 제치고 시장 선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대부분의 R&D 사업부를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연구 비중을 높인 본부를 영국 캠브리지로 옮겼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원종혁 기자 jhwo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2.txt

제목: [건강나침반] 삶의 질 높이고 고통 줄이는 통합면역치료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2  
본문: 의학저널 ‘NEJM’에 2010년 발표된 ‘Early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Metastatic Non-Small-Cell Lung Cancer’ 논문은 암 치료의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이성 폐암 환자가 완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가벼운 공격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공격적인 ‘표준치료’를 시행 받은 환자보다 삶의 질이 개선됨은 물론 생존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암 치료 시 암 ‘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표준치료’보다 암 환자 ‘몸’을 중시하는 치료가 오히려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에서 불고 있는 통합암치료의 열풍과 깊은 관련이 있다. 수술, 방사선, 항암과 같은 공격적인 치료를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도출했지만 지속적인 전이와 재발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국 전역 55곳의 통합 암센터들에서는 침 치료를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방법들이 시술되며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br/>몸무게 65㎏의 성인의 경우 60∼70조개의 세포로 이뤄져 있는데 하루에 1000∼1만개의 암세포가 매일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교한 ‘면역감시체계’에 의해 인지·제거되고, 통제돼 암 발생을 억제한다. 통합면역암치료에서 주목하는 점은 면역감시체계 회복 및 강화다. 면역감시체계는 건강한 신체에서는 온전히 정상 기능을 발휘해서 암을 억제하지만, 흡연, 바이러스, 화학물질, 방사선, 스트레스와 같은 발암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암 억제력을 넘어선 발암요인에 의해 암이 발생한다.<br/>통합면역치료는 암 치료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암 수술 전후 면역치료= 수술을 앞둔 암 환자는 수술 준비기간 동안 2∼4주간의 면역치료를 받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신속한 회복을 도와주고, 수술을 이미 받고 체력적 고갈로 수면, 식사, 대소변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암 병행 치료= 암 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 중 항암치료가 가져오는 심한 체력저하나 오심, 구토, 손발 저림 등의 부작용으로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2기 내외의 암의 경우 수술을 시행하고 일정한 횟수의 항암치료를 받아낸다면 5년 생존율을 현저히 높일 수 있다. 항암치료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통합면역치료와 병행해 치료한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항암을 마칠 수 있다. △방사선 병행 치료= 방사선 치료기간 동안의 피로, 오심, 구토, 통증, 화상을 흔히 호소한다. 방사선치료로 생기는 체력저하와 부작용은 통합면역치료를 병행할 경우 기력을 유지하고 증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 △항암방사선 부작용 치료= 오심구토, 변비설사, 탈모, 빈혈, 암성피로, 항암제유발 신경병증, 두경부암 구강건조, 개구장애, 빈혈, 방사선 장마비, 방사선 피로 등의 경우에는 각 증상에 대한 종양침구치료, 온열요법, 공기압치료, 봉독치료 등의 적절한 치료로 회복을 도와주고 삶의 질을 올려주게 된다. △진행암 집중면역치료=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항암제와 방사선치료의 반응율이 극히 미미하고 부작용이 현저히 예상될 경우 과감히 통합면역암치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자 수행상태 개선, 종양관련 증상 조절 등으로 몸의 면역이 강화되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생존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암과 허약암 치료= 항암과 방사선 치료로 몸이 너무 허약해진 경우 면역암치료를 통해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 70∼80대 고령의 암 환자는 기대수명이 길지 않고 대체적으로 암의 진행이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면 암을 지니고 있는 몸을 보살피는 치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전이재발 억제 면역치료= 공격적인 암치료를 통해 우리 몸의 정상세포와 면역체계가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된다. 신속한 면역력 상승을 통한 암세포 억제가 필요한 시점이며, 암 치료 종료 1년이 가장 중요하다.<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3.txt

제목: 한방 암 면역치료로 암 환자에게 희망을  
날짜: 201403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230  
본문: 하나통합한의원 ‘티버스터’ 양한방 병행 치료 성과<br/><br/>[쿠키 건강] # 평소 당뇨가 있던 S(81·남)씨는 지난 2011년 10월 췌장암 진단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2년 10월 담도 전이로 재수술 후 병기 췌장암 2기 진단을 받고, 항암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했다. 이후 담도 주위에서 재발 소견 진단을 받고 2013년 8월1일 하나통합한의원을 찾아 한방 암 면역치료를 받았다. S씨는 치종탕과 치종단, 티버스터의 한약과 함께 약침과 왕뜸으로 면역치료를 시행했다.<br/><br/>박상채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S씨의 경우 한방치료 1개월 뒤인 8월 29일 종양표지자 CA19-9 수치가 변화(9750→7780)됐으며, 종양표지자인 CEA 수치도 개선됐다</span>”면서 “<span class='quot0'>2013년 10월 5일 영상의학과 진단(CT) 결과에서 관해평가상 안정상태(SD)를 유지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2012년 12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던 K(57·남)씨는 복부통증과 다양한 소화계통 증상으로 2013년 1월 하나통합한의원을 방문했따. 당시 K씨는 제심타빈과 타세바로 항암치료를 시작한 단계였으며, 환자 본인이 원해 양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됐다. K씨는 젬스타빈과 타세바의 항암치료와 함께 치종탕과 티버스터, 면역약침 등으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26일 기존 항암치료를 받던 병원 진단 결과 췌장과 간에서 종양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소견을 들었다.<br/><br/>특히 박상채 원장은 “기존 항암치료와 한방 암 면역치료를 꾸준히 병행한 K씨는 2013년 4월 24일 진단 소견에서도 췌장 종양 크기의 감소, 간의 병변 크기 감소 등의 진단이 나왔다”면서 ““K씨는 티버스터 복용 2개월 차에 식욕부진 소실 , 통증 감소 등 호전 반응 나타났다”고 설명했다.<br/><br/>일반적으로 암세포 휴지기에 신체의 면역력과 체력을 끌어 올리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사멸하는 것이 ‘한방 암 면역치료’의 원리이자 목적이다. 이는 암 세포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면 한방치료에 의해 보완된 몸으로 2차 항암치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것을 뜻한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각종 암에 적용되는 한방치료와 면역치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증치료가 가능하다”며 “하나통합한의원이 시행하는 면역치료와 항암치료 방법은 우루시올(urushiol·옻나무 추출 성분)을 활용한 치종단과 치종탕이 있으며, 약침치료와 뜸, 침, 식이요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실제 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우루시올 성분은 최근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와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과 항산화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김보근 원장은 이와 관련된 ‘치종단의 A549 비소세포성암주에서의 항암기전’ 논문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인 대체의학저널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br/><br/>또 하나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은 치종단(Ⅱ)인 ‘티버스터(T.buster)’이다. 위 두 환자 사례에서도 나타났듯 티버스터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보근 원장은 “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br/><br/>이와 관련 하나통합한의원 의료진이 3월 대한암한의학회지에 발표한 ‘치종단(Ⅱ)를 활용한 암환자 치험 20례에 대한 고찰’ 논문에 의하면 티버스터에 대한 임상결과도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연령·병기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치종단(Ⅱ) ‘티버스터’는 구분에 관계 없이 단독치료 3개월 후 시행한 1차 관해평가에서 67% 이상, 단독치료로 12개월 후 시행한 2차 관해평가에서 36% 이상 안정상태(SD)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r/><br/>K씨의 경우처럼 한방 암 면역치료와 기존 항암치료를 병행해 치료에 성과를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박상채 원장은 “최근 한방 암 면역요법이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점이 알려지고, 면역약침, 경락약침 등의 혈맥약침 등이 개발되면서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병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충분한 영양섭취, 암 수술환자 재발 막는데 큰 도움  
날짜: 201403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4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신규 암 환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평생 남성 5명 중 2명, 여성 3명 중 1명이 암을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다. 암 환자 생존율도 크게 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함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암 환자의 생존율은 2001∼2005년 대비 12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br/>과거 ‘암=사망’이라는 공식이 대중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시절 환자들은 우선 암으로부터 벗어나기 급급했다.<br/>하지만 최근 치료 기술의 향상으로 암 생존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치료 이후 장기 생존을 위한 건강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암 생존자가 마치 모든 암으로부터 ‘졸업’했다는 생각에 건강관리를 소홀한다면 암의 재발, 2차 암, 만성질환 등의 문제로 삶의 질이 저하돼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br/>암 생존자는 반드시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서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br/>가장 중요한 항암 식단 역시 일반인처럼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과일과 채소 섭취를 통해 미네랄과 비타민 섭취를 돕는 것이 기본이다. 미국 암 협회도 하루 5가지 이상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균형 잡힌 식사로도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는 1일 영양섭취량에 근거한 멀티비타민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좋다.<br/>최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브링검 여성병원 예방의학연구팀은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성 1만4641명을 대상으로 ‘멀티비타민의 장기 복용이 남성의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이나 특정 암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7년부터 약 12년에 걸친 연구 결과 멀티비타민을 복용한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전반적인 암 발생 위험이 8% 낮아졌다. 특히 암 병력이 있었던 그룹의 경우 2차 암 발생률이 27%가량 감소했다.<br/>이 연구를 주도한 마이클 가지아노 박사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멀티비타민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해당 연구는 미국의학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게재됐다.<br/>특히 ‘센트룸실버’는 멀티비타민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하버드 의과대학 임상시험에 사용된 대표 멀티비타민 제품으로서 멀티비타민의 암 예방효과에 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다.<br/>센트룸은 현재 세계 85개국에서 판매 중인 세계 1위 멀티비타민이다. 미국 의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멀티비타민으로 알려진 센트룸은 14가지 비타민과 13가지 미네랄 등 총 27가지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암 환자의 영양 불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br/>센트룸은 만 14세 이상부터 50세 이하를 위한 ‘센트룸’과 만 50세 이상에 맞춰 항산화 성분 등을 강화한 ‘센트룸실버’ 두 가지 제품이 있다. 특히 센트룸에 포함된 ‘폴산’은 신경관 결손과 같은 태아의 기형을 예방할 수 있어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에게 복용이 권장된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5.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 환자 마음읽기] “왜 나인가…” 절망만 말고 나만의 ‘명의’ 선택 나서라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13761257  
본문: ‘암’ 판정을 받은 이후, 하루바삐 치유를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왜 하필 내가 암인가’라는 생각에 좀처럼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환우들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은 여전하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어느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환자 본인도 그 가족들도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br/>암을 발견하고서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신의 담당 의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병원의 규모만 보고 찾아갈 것도 아니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암에 OOO교수가 명의’라는 식으로 조언하는 것도 반만 새겨듣는 것이 좋다. ‘명의’라 해서 모든 환자에게 ‘좋은 의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br/>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 환자는 담당의사에 대한 명확한 선택기준을 세워야 한다. 좋은 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정의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장경험이 풍부한 의사, 둘째,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의사, 마지막으로 환자와 친밀도가 높은 의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은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환우회를 담당하고 있거나 환자들과 소소하게 모임을 갖는 의사라면 권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면모가 강한 의사일 것이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환자 욕심이다. 따라서 반드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지 고민하며 의사를 선택한다. 선택기준에 따라 향후 치료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가령,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환자에게는 세 번째 기준의 의사가 좋은 의사일 것이다.<br/>더불어 암 소견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것이 좋다. 이는 의사와 병원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서 찾아간 병원일수록 완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크다. 곰곰이 따져보고 환자가 확신에 차서 선택한 의사일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가 시작된다.<br/>또한 의사를 찾아갈 때는 맨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질문할 목록을 준비해 가자. 의사가 무작정 얘기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환자가 먼저 암 유형이 어떠한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치료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최신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며 중요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 항암치료·방사선치료와 같은 기본적인 암 치료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간다면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br/>결론적으로 귀동냥에 의존하기보다 기준을 세워 능동적으로 의사를 선택하는 일은 완치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일단 의사를 선택했다면 그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한다. 주치의를 믿지 못할수록 ‘OO가 어디에 좋다’는 식의 허황된 정보에 끌리기 마련이며 치료효과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환자들 식생활 궁금해하는데… “기름기 적은 닭가슴살·장조림 좋아”  
날짜: 201403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19  
본문: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 ‘정(情)담회’<br/>국민일보 쿠키미디어는 올바른 암 질환·치료·예방 정보 제공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암과의 동행’ 건강섹션에 암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획연재에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암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한민국 암 명의(名醫)들의 조언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 일상생활에서의 항암 치료와 관리 등의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연재가 독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br/>끝이 보이지 않는 대장암 투병생활로 인해 답답해진 마음을 풀어줄 특효약을 찾는다면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에서 매월 2회 진행하는 ‘정(情)담회’에 주목해 보자. 황대용(대장암센터장) 교수가 진행하는 대장암 ‘정담회’에서는 영양가 있는 정보를 통해 대장암 치료과정에서 겪는 후유증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br/>지난달 28일 열린 ‘정담회’에서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대장암 환자의 식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붉은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또는 가공 육류의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 치료 중에 아예 육류 섭취를 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황대용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의 원인 중 하나가 ‘고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기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고기에 붙어 있는 기름이 문제인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대장암 수술 후에는 배변활동의 변화, 줄어든 식사 섭취량 등으로 영양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기름기가 적은 고기(장조림이나 닭 가슴살)를 섭취함으로써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span class='quot0'>흔히 흰쌀밥이 안 좋다는 생각에 현미나 잡곡밥을 먹지만 도정이 덜 된 곡류는 오히려 장에 자극을 주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br/>수술 후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는 환자에게 황 교수는 “<span class='quot0'>하루 3회 이상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가스를 발생시키는 콩류나 양배추, 브로콜리 등의 식품은 피하며, 식사 후에는 장운동을 위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또한 항암치료에 따른 식욕부진에 대해서 황 교수는 “식욕부진은 많은 암 환자들이 겪고 있는 흔한 부작용이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 평소에 좋아하던 간식을 가까이 두고 먹고 싶을 때 먹거나 고형물이 먹기 힘들면 음료를 마시도록 한다. 그래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담당 의사에게 말해 도움이 되는 약물을 복용해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항암치료 중에는 정상 조직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열량과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식욕이 좋으므로 그 시간대에 식사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br/>‘과일즙을 먹어도 되나’라는 질문에 황대용 교수는 “<span class='quot0'>소화를 촉진하는 과일은 대장암 환자에게 좋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만들어진 과일즙은 위생 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제조과정에서 맛을 위해 설탕을 넣거나 유통을 위해 방부제를 넣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 먹지 않는 것이 좋다</span>”고 말했다. 이어 황 교수는 “<span class='quot0'>유기농 채소보다는 일반채소를 먹는 것이 더 안전한데, 그 이유는 농약을 뿌리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 채소에는 각종 세균이 기생해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항암치료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는 한 환자는 음주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황 교수는 “술은 몸 안으로 들어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발암물질을 만든다. 그 외에도 술은 각종 염증 관련 물질들을 생성하기 때문에 하루 한 잔 정도의 음주량으로도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절주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7.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날짜: 20140318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1  
본문: “<span class='quot0'>항암치료 체력 관건… 비위 맞게 골고루 잘 먹어야</span>”<br/>1년 전 간암에 걸린 김영민(가명·53)씨는 간암에 좋다는 식품인 ‘느릅나무 즙’을 꾸준히 섭취했다. 김씨가 느릅나무 즙을 복용하게 된 계기는 김씨보다 먼저 간암에 걸린 이웃이 느릅나무 즙을 먹고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다. 검증되지 않은 약초나 약물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섭취하지 말라는 병원 주치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이웃의 병세가 호전됐다는 소식에 그만 실낱같은 희망을 느릅나무 즙에 걸어 본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병세만 더 나빠지게 됐다. 주치의의 검진 결과 느릅나무 즙을 복용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은 것이 간에 오히려 부담이 돼 병세가 악화됐다는 것. 김씨는 “<span class='quot1'>간암이 호전됐다는 이웃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느릅나무 즙을 복용한 게 문제였다</span>”며 “<span class='quot1'>병을 고치려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꼴이 됐다</span>”고 하소연했다.<br/>김씨처럼 각종 암에 좋다는 식품을 함부로 복용했다간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각종 매체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복용해 암을 완치했다고 선전하는 것도 맹신해서는 안 된다.<br/>강윤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2'>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무조건 암에 좋다 하여 복용했다간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 있다</span>”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암에 도움 되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항암치료 중에는 음식 섭취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 좋은 곳이 암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암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그렇다면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암 환자의 올바른 영양 섭취방법은 무엇일까.<br/>강 교수에 따르면 암 환자가 암과 싸워 이기기 위해선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 먹어야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비위가 상하고 입맛이 떨어진 환자의 경우라면 영양섭취를 위해 맵고 짠 것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비위에 맞게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br/>강 교수는 “암세포는 막 자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으면 오히려 암세포가 그걸 받아서 더 잘 자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오해이며 암 환자는 먹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양소를 골고루 자주 먹어야 한다. 일명 ‘포도요법’과 같은 편식을 하면 안 된다”며 “일단 암에 걸려 항암치료에 들어가면 체력을 유지하는 게 필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식 섭취에 대해서도 “무조건 육식을 기피하는 것도 좋지 않으며,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다면 장막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범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소화를 잘 되게 해서 먹는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전했다.<br/>식욕이 떨어진 암 환자들의 경우 호르몬 계통의 ‘메게스테롤’ 성분을 투여하게 되면 식욕이 촉진되고 체중저하를 줄일 수도 있다.<br/>한편 강 교수는 기스트 암 치료의 표준 요법을 증명해 보령암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난해 10월 국제적 학술지인 란셋종양학저널에 실리기도 했다.<br/>조규봉 쿠키뉴스 기자 ckb@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8.txt

제목: 암 경험자, 2차암 예방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필요  
날짜: 201403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214  
본문: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통해 통합적인 건강관리 지원<br/><br/>[쿠키 건강] 고령화와 서구형 생활양식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20만 명이 암 진단을 받는다. 현재 치료 중인 암 환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다행히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전체 암의 5년 생존율도 높아져 현재는 약 64%에 이른다.<br/><br/>하지만 암을 치료한 뒤에도 암 경험자는 치료 후 부작용과 만성질환, 2차암의 위험을 안고 산다.<br/><br/>암 경험자는 치료 후 피로와 통증, 불면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고 암에 대한 공포와 치료과정의 고통 등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 골다공증,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과 심장뇌혈관질환의 유병률도 높다. 치료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생기는 암(2차암)의 위험도 크다.<br/><br/>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의 최재경(사진) 교수는 “<span class='quot0'>후기 합병증도 받은 치료와 동반 질환 등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진과 본인 맞춤형 건강관리는 필수</span>”라고 강조했다.<br/><br/>금연과 금주도 중요하다. 담배와 술은 그 자체로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암 치료 후 흡연과 음주는 암의 재발과 2차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br/><br/>적정체중을 유지하고 매주 150분씩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비만 역시 암의 재발과 2차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꾸준한 운동은 심장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같은 대사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br/><br/>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증상은 운동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데 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도 극복할 수 있다.<br/><br/>면역 이상이 없는 암 경험자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디프테리아-파상풍, 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도 필요하다. 이 때 가족도 함께 접종받는 것이 좋다. 암 환자의 가족 역시 환자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습관을 공유하고 가족 내 암 관련 유전자 변이가 전달 될 수 있어 일반인에 비해 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br/><br/>최재경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경험자의 가족 역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철저히 받고 암의 위험인자인 술과 담배는 끊는 것이 좋다</span>”고 전했다.<br/><br/>건국대병원은 암 경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을 개소했다.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암 전문센터의 협진 시스템으로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법과 부작용 치료법,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br/><br/>암 경험자의 가족을 위해 암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발생위험이 큰 암을 선별해 주기적인 검사도 하고 있다. 암경험자와 가족을 위한 세부프로그램으로는 금연과 절주, 체중관리, 불면과 통증치료, 예방접종 등이 있다.<br/><br/>최재경 교수는 “<span class='quot1'>암 진단을 사망선고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암 치료 이후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암 경험자와 가족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19.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 환우회 한국비너스회 “유방암 이겨낼 용기·희망 얻었어요”  
날짜: 201403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3  
본문: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로 바쁘게 살던 그녀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유방암’이 찾아들었다. 암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세상과 단절하게 만드는 ‘유리벽’과 같다. 예전과 다른 외형, 전보다 약해진 몸은 완치 후에도 그녀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br/>지금 주변에서 유방암을 겪고 있는 여성이 있다면, ‘한국비너스회’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유방암의 길을 걷고 있는 환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뿐더러, 유방암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울대학교병원 유방암환우회 ‘한국비너스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경희·박춘숙씨는 유방암을 졸업한, 유방암 선배들이다. 암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서 생기가 돋는다. 그들은 건강 비결로 주저 없이 한국비너스회를 꼽았다. 박춘숙 부회장은 “2002년에 암2기 판정을 받았다. 그 누구보다 건강을 자부했던 나였기에 유방암 판정은 큰 충격이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고 시중에 판매되는 어떠한 암 관련 서적도 내 맘에 차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span class='quot0'>환우회를 통해 아픈 내 처지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며 서로 마음을 나누다 보면 암에 대한 두려움은 차츰 줄어든다</span>”고 덧붙였다.<br/>한국비너스회는 2000년 창립되어 매월 등산, 일일찻집을 통한 불우환우 돕기, 포크댄스 교실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에게 예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가는 있다는 의지와 용기를 심어준다. 유경희 한국비너스회 회장은 “나는 살기 위해 한국비너스회에 가입했다. 유방암을 진단받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보다 먼저 겪었던 회원들의 경험담을 듣고 함께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br/>유방암 환우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술 전과 다른 유방의 모습이다. 모양이 변했거나 아예 없는 채로 살아야 한다. 박춘숙 부회장은 “한국비너스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서 가는데, 그동안 남들 시선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채워 가는 목욕을 한다. ‘몇 년 만에 오는 목욕탕’이라며 아이처럼 신이 난 환우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비너스회를 만든 노동영 서울대병원 유방센터 교수는 “창단 초기부터 7∼8년 동안은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 열정을 쏟았다. 치료의 연장선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어울려 논다는 의미였으며 의사로서 환우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교수는 “환우회 활동이 완치율을 높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암 동지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갈 때, 예후는 좋아진다. 깊은 슬픔과 자괴감으로 얼룩진 투병생활이었는지, 반대로 사람과 삶, 행복의 의미를 찾아 가는 여행이었는지는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환우회의 의미를 설명했다.<br/>한국비너스회는 올해, 킬리만자로 등산에 도전한다. 이에 대해 노 교수는 “일반인도 어려운 코스지만 재발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한국비너스회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알차고 순수한 단체다. 이 세상 모든 유방암 환우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김단비 쿠키뉴스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0.txt

제목: 한방으로 치료하는 ‘유방암’, 한방 면역치료 시행  
날짜: 201403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210  
본문: [쿠키 건강] 유방암은 유럽과 미국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률이 급증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암으로 자리 잡았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08년 8만4319명에서 2011년에는 11만135명으로 최근 4년 사이에 23.4%나 급증했고, 앞으르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br/><br/>더욱이 심각한 점은 최근 젊은 여성층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제 유방암도 40~50대만 걱정하는 질환이 아니라 20~30대의 젊은 여성들도 조심해야 할 질환이 되고 있다.<br/><br/>대부분의 암이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으나 뒤늦게 발견 될수록 예후가 좋지 못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빨리 알아챌 수 없는 이유가 암이 대부분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특히 유방암의 경우에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br/><br/>암이 진행도가 높은 경우 가장 흔히 보이는 증상은 유방에 통증이 없이 멍울이 만져지는 것이다.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유방뿐만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멍울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 심할 경우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수 도 있다.<br/><br/>현대 의학 치료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수술, 약물요법, 방사선치료가 있다. 그러나 치료과정인 수술과 항암호르몬요법, 화학요법은 공격성 암 치료로 환자의 체력손실이 있을 수 있고. 수술 후 장기적 부작용으로 항암제의 경우 탈모, 구토, 백혈구감소증(면역력 저하), 혈소판 감소증(피가 쉽게 나며 잘 멈추지 않는다), 조기폐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br/><br/>이런 신체체력저하와 각종부작용등을 보완하기 위해 부산통합면역암치료전문 방선휘한의원에서는 면역치료방법을 병행하고 있다.<br/><br/>방선휘한의원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방선휘한의원은 면역을 올리는 치료를 함으로 면역력을 높여 전이 재발을 방지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빠른 회복을 돕고 신체의 자생력을 올려 스스로 좋아질 수 있게 개개인의 체질과 맥을 살펴 치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특히 방선휘 원장은 “<span class='quot0'>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손발저림, 구토 등을 완화하고 유방암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면역약침을 통해 면역력을 올려주고 인체의 주요 혈 자리에 뜸을 통해 심부온도를 상승시켜 면역력 증강 및 암 치료에 효과가 나타났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평균 수명 81세까지 살 경우 한국인 37%, 암에 걸린다  
날짜: 201403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2  
본문: 한국인 사망원인 1위는 암(癌).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한국인의 암 발생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인 81세까지 살 경우 3명 중 1명(36.9%)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 한 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br/>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10대 암은 무엇일까. 또 성별, 연령별 암종 차이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의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2011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암유병률을 살펴본다.<br/>◇한국인 남자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 ‘암 발병’= 우리나라 국민 중 암에 걸려 현재 치료하고 있거나 치료 후 생존해 있는 ‘암 경험자’가 1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단위 암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암으로 진단받은 인구수다. 전체 인구 45명당 1명꼴로 암이 발병했다.<br/>성별로 보면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로 암이 발생했다. 지난 2011년 신규 암 환자 수는 21만8017명(남 11만151명, 여 10만7866명)으로 2010년 대비 6.0%, 2001년 대비 96% 증가했다(남 1.8배, 여 2.2배). 남녀 전체 주요 암의 연평균 증가율 순위를 보면 갑상선암(23.7%), 전립선암(13.5%), 유방암(5.9%), 대장암(5.6%) 순이었다. 간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구 고령화, 암진단 기술 발달, 조기검진 활성화 및 서구형 식생활, 신체활동의 감소 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암 발생 감소의 주요 원인은 자궁경부암 검진사업, B형 간염바이러스 치료제 도입, 흡연율 감소 등이다.<br/>◇암 발생 1위는? ‘갑상선암’,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늘어= 한국인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은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순,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이었다.<br/>남녀를 합해 2011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단연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주요 암 발생 순위는 미국, 영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일본과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비슷했다. 대부분의 암 발생률은 일본과 비슷했다.<br/>다만 암 완치의 기준이 되는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정부가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1993∼1995년 41.2%, 1996∼2000년 44.0%, 2001∼2005년 53.8%, 2007∼2011년 66.3%로, 매년 생존율이 올라가고 있다.<br/>남녀 전체에서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2.0%), 유방암(91.3%), 대장암(73.8%), 위암(69.4%)이 높은 5년 생존율을 보였다. 간암(28.6%), 폐암(20.7%), 췌장암(8.7%)은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br/>성별로는 여자의 생존율(75.2%)이 남자(57.6%)보다 높았다.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99.9%), 유방암(91.3%)이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많았고, 여성에서만 발생하는 자궁경부암(80.1%)의 높은 생존율 때문으로 추정된다.<br/>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사망률 1위의 암은 폐암이며 이어 간암, 위암 순이었다. 여성에서도 폐암이 1위이며 대장암, 위암이 뒤를 잇는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2.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가 암정복추진기획단 이승훈 단장 “국산 신약 개발 통한 항암주권 확보 시급”  
날짜: 201403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4  
본문: “암(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투자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암 치료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암도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암정복의 길’ 멀지 않았습니다.”<br/>지난 7, 8기에 이어 제9기 국가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이승훈 단장(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그는 우리나라 암 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지난 2012년에 국민훈장동백장을 받기도 했다.<br/>‘암정복추진기획단’은 정부가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6년에 착수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설치한 기구다.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은 한국형 암의 원인 및 기전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암 예방·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소속 암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훈 단장은 “<span class='quot0'>암정복추진기획단은 정부가 암 정복을 위해 10개년 계획사업을 추진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span>”고 말했다. 실제 암 환자의 완치라고 여겨지는 5년 생존율이 지난 1993∼1995년 41.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7∼2011년 5년 생존율은 66.3%로 증가했다. 이 단장은 “암 성적이 좋아진 이유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 50%에게 조기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어 암의 조기 발견이 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더불어 표적치료제 도입, 암 치료기술 발전 등으로 치료 성적이 향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br/>“과거에는 암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 숨기고 싶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암센터가 보편화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죠.”<br/>이 단장은 “<span class='quot0'>암센터가 보편화되자 국민의 암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됐다</span>”며 “이는 일본도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2001년 국립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최근 대학병원도 암센터를 줄줄이 설립했다. 또한 정부도 전국에 지역암센터를 설립하면서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암 치료가 제공되고 있다.<br/>암정복추진기획단의 장기적인 목표는 항암신약개발 등을 통해 암에 대한 치료 성과를 이루는 것이다. 이 단장은 “<span class='quot0'>글리벡을 시작으로 이레사, 허셉틴, 넥사바 등 고가의 표적치료제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1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그는 암 정복을 위해서는 “<span class='quot0'>국산 항암신약 개발을 통한 ‘항암 주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것이 창조경제</span>”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현재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항체치료제 등 3개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시스템통합적 글로벌 항암제개발사업단’을 설립해 외부 기관과 함께 6개 항암신약 물질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국산 신약이 기초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다각적으로 마련돼야 한다</span>”고 전했다.<br/>한국도 국가적으로 암 연구를 종합적으로 기획·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단장은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미국국립암연구소가 총괄해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암유전체 빅데이터 정보를 구축해 전 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경쟁보다는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연구 드림팀을 만들어 암 생존율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에 초점을 두고 암 연구를 수행하게 해야 암 정복을 위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3.txt

제목: [안웅식의 빛으로 치료하는 암] 암세포만 골라 없애는 광역학치료 대중화의 길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1  
본문: 광역학 치료기술은 ‘광감각제’라고 불리는 약제와 이 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적합한 파장을 발생시키는 레이저 광선을 가지고 약제를 인체에 투입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필요한 부위에 광선을 쬐어 원하는 부위의 치료를 하는 기술이다. 광감각제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표적 침착돼 빛에 노출 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암세포 표적치료의 특성이 있다. 적당한 파장의 레이저와 함께 암세포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항암제와 함께 결합체를 만들거나 수용체나 암특이 항체를 부착하면 원하는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이상적으로 암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br/>광역학 치료 역사는 갈릴레오와 그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탈리아 파도바대학에서부터 유래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닌다. 광역학 치료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더딘 광역학 치료용 광감각제 개발과 고가의 레이저 발생 장치 때문이었다. 현재까지 주로 1세대 광감각제만 진료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기술 진보로 다양한 광감각제와 레이저 발생 기술, 빛을 전달하는 기술이 발달돼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가 예측된다.<br/>기존 암 치료는 고식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인 수술치료는 국소요법으로서 국소적인 경우에는 완치가 가능하나 전신성인 경우는 수술 자체가 어렵다.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미세전이와 수술 중 암세포 전이를 막을 수 없고 수술 시 마취 영향에 따라 면역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항암치료는 전신요법으로 세포사를 유도하나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일어나면 독성으로 인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세 번째인 방사선치료법은 국소요법으로 치료기전에 있어 세포괴사와 세포사를 동시에 일으켜 효과는 좋으나 항암치료와 마차가지로 어느 정도 용량을 넘으면 더 이상 인체에 조사할 수 없다. 반면, 광역학치료는 국소요법으로 개발됐으나 전신요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전으로는 세포사, 세포괴사와 국소면역작용을 일으킨다. 사용 횟수 제한이 없고 고식적 치료뿐 아니라 대증요법을 통해 증상완화를 이뤄 암 환자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혀나 성대, 직장 등의 경우 기능을 유지하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고식적인 방법과 병합해 사용 가능하다.<br/>광감각제는 1∼3세대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개발됐다. 최근 초음파에 반응하는 광감각제까지 개발돼 초음파 조사만으로 암병변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 광감각제는 발생하는 레이저 빛의 파장에 따라 630나노미터를 중심으로 1세대로 분류되며, 대표적인 약물로 포토프린이 있다. 670나노미터를 기준으로 클로린(chlorin e6) 기반의 2세대, 나노와 관련해 파장에 관계없이 3세대 약물이 있다. 레이저 발생 기술은 과거 한 가지 기기가 하나의 파장인 레이저빛을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파장을 가변해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br/>환자 치료에서 광역학 치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과 병합하거나 이들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좋은 임상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등 가능성을 보여준다. 국소요법으로 개발된 광역학 치료법이 전신요법으로 발전하고 있고, 치료 가능성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각 분야에서 이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여러 곳 있다. 현재 광역학 치료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규제와 힘든 여건이 있지만, 이와 같은 치료법이 하루속히 대중화돼 많은 사람이 광역학 치료를 통해 암뿐만 아니라 기타 질병도 치료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br/>국제광역학학회 회장 (원광대 산부인과 교수)<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4.txt

제목: [암과의 동행] 국민 10명 중 7명 나도 걸릴수도… 암에 걸린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날짜: 201403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15  
본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가끔 나도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와 마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마스랩이 지난 2월 18일, 19일 양일간 무작위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해 서울지역 547명(남성 277명, 여성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br/>우선 ‘자신이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끔 생각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주 생각한다’가 62명, ‘항상 생각한다’가 58명에 달해 75% 이상이 스스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아니다’는 135명이 답했다. 또 ‘암에 걸린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배우자(242명)에게 알리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 모두(153명), 나를 아는 사람(36명) 순이었다. ‘알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116명으로 높게 나타나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성향도 보였다.<br/>‘암에 걸린다면 가장 걱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돈(186명), 가족(146명), 치료과정(141명)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74명)은 높지 않았다.<br/>사람들이 생각하는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313명)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각종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된 현대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흡연·음주(100명), 불규칙한 생활(78명), 가족력(56명) 순이었다.<br/>‘암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229명)이 가장 높았고, ‘건강한 식습관’(100명)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건강보조식품 복용’이 24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95명이었다.<br/>한편 ‘자신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 암 종류’로는 위암(132명)·간암(74명)·유방암(42명) 등 대표적인 암보다 ‘기타 다른 암’(299명)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본인의 식습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br/>이번 조사 응답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10대 12명, 20대 8명, 30대 11명, 40대 23명, 50대 101명, 60대 이상 392명이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어디가 癌수술 잘할까  
날짜: 201403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16  
본문: 본인 또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겼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 우선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 해당 암에 대한 명의는 누구인지, 어떤 병원이 암 치료를 잘하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저 소위 빅 5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최신 시설과 좋은 학교 출신의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므로 치료도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br/>정부에서는 이러한 암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암 질환별 진료 적정성 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평가등급, 각 지표별 평가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다.<br/>◇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 평가= 2012년 발표된 ‘위암·대장암·간암 수술사망률’(암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 평가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위암에서 서울의 소위 빅 5 중 1개 병원(세브란스)이 1등급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평가는 2010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인데 10건 미만으로 수술을 진행한 의료기관의 비율이 절반(위암 114개소 51.6%, 대장암 153개소 52.6%, 간암 53개소 46.1%)에 달했다. 또 암 수술환자가 수술 후 입원 중 또는 30일 이내 사망한 사망률(실제 사망률)은 위암 0.92%, 대장암 1.63%, 간암 1.88%로 나타났다.<br/>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수술 후 실제 발생한 사망환자 비율(실제사망률)과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 위험요인을 보정한 ‘예측사망률’(위험도 보정사망률)을 비교한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보다 낮으면 의료의 질이 높고,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보다 높으면 의료의 질이 낮은 병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해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 ‘1등급’,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2등급’을 부여했는데 1등급 의료기관은 위암 93개, 대장암 122개, 간암 56개로 나타났다. 또 3개 암 모두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51개, 2개 암이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38개였다.<br/>평가 결과 3개 암 모두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서울 19개소(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 경희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고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병원, 인제대 백병원, 중앙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건국대병원, 서울보훈병원, 원자력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부산 4개소(고신대 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천 3개소(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 인천성모병원) △대구 4개소(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대전 3개소(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 1개소(울산대병원) △강원 1개소(연대 원주기독병원) △경기 10개소(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가톨릭 성빈센트병원, 고대 안산병원,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경남 2개소(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북 3개소(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충남 1개소(단국대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경남·경북·전남·충북·제주지역은 간암수술 사망률 평가에서 1등급이 없었다. 》관련기사 36면<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6.txt

제목: [암과의 동행] 검진비 10%만 내면 되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 40%대 그쳐  
날짜: 201403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7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암검진 사업이 수검률 미비, 중복검사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br/>최근 5년(2009∼2013년)간 암검진 수검률을 보면 2009년 45.3%에서 2010년 47.8%, 2011년 50.1%, 2012년 39.4%로 크게 낮아졌다. 2013년에는 소폭 증가한 42.8%의 수검률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수검 대상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br/>세부적으로 보면 ‘위암’의 수검률은 2009년 41.3%에서 2010년 44.7%, 2011년 47.3%, 2012년 5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방암’도 2009년 48%에서 2012년 58%, ‘자궁경부암’도 2009년 38.1%에서 2012년 46.1%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대장암’은 2009년 29.2%에서 2010년 34.9%로 증가했지만 2011년 34.8%, 2012년 27%로 2009년보다 더 떨어졌다. ‘간암’ 역시 2009년 41.1%에서 2010년 46.1%로 증가하다 2011년 46%, 2012년 42%로 감소했다.<br/>암검진 사업은 암에 걸리기 전에 환자를 발견해서 향후 암 발생으로 인한 환자의 부담을 절감하고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데 저조한 수검률에 대한 건보공단의 대책은 검진 독려 이외에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미수검자에 대해 문자·안내문 등을 통해 수검 안내를 재차 하고 있고, 지사별로 수검률 향상을 위한 경쟁도 하고 있다</span>”고 밝혔지만 수검율 변화는 미미해 근본적인 개선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br/>국가 암검진은 △위암(40세 이상 남녀, 2년 주기검진,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검진, 유방촬영술+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권장) △자궁경부암(3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검진, 자궁경부세포검사) △대장암(50세 이상 남녀, 1년마다 검진,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간암(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1년마다 검진, 복부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등 5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검진 신뢰도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br/>대장암의 경우 분변잠혈반응검사를 우선 시행하는데 그동안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검자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잠혈이 검출되면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하고, 용종과 악성종양 의심병변을 관찰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시행해 확진하는 과정이 더 필요해 시간, 비용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문제는 건보공단이 암 환자에게도 국가암검진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인데 암 환자의 경우 상태 확인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암검진을 또 받을 경우 비용이 중복 지출될 수 있다.<br/>국가 암검진은 수검자가 무료 또는 검진비의 10% 이내만 부담하고 검진할 수 있어 국민으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고, 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되면 의료비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이 때문에 보다 수검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7.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암 환자 마음읽기] “왜 나인가…” 절망만 말고 나만의 ‘명의’ 선택 나서라  
날짜: 20140318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40  
본문: ‘암’ 판정을 받은 이후, 하루바삐 치유를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왜 하필 내가 암인가’라는 생각에 좀처럼 정신이 차려지지 않는다.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제 환우들이 겪는 일상 속 어려움은 여전하다.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어느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야 할지,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환자 본인도 그 가족들도 이런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다.<br/>암을 발견하고서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신의 담당 의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병원의 규모만 보고 찾아갈 것도 아니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암에 OOO교수가 명의’라는 식으로 조언하는 것도 반만 새겨듣는 것이 좋다. ‘명의’라 해서 모든 환자에게 ‘좋은 의사’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br/>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우선, 환자는 담당의사에 대한 명확한 선택기준을 세워야 한다. 좋은 의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세워 정의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장경험이 풍부한 의사, 둘째,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의사, 마지막으로 환자와 친밀도가 높은 의사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은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은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환우회를 담당하고 있거나 환자들과 소소하게 모임을 갖는 의사라면 권위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면모가 강한 의사일 것이다.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환자 욕심이다. 따라서 반드시 어느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둘지 고민하며 의사를 선택한다. 선택기준에 따라 향후 치료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가령, 환자와 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환자에게는 세 번째 기준의 의사가 좋은 의사일 것이다.<br/>더불어 암 소견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것이 좋다. 이는 의사와 병원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암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서 찾아간 병원일수록 완치에 대한 확신보다는 불안감이 크다. 곰곰이 따져보고 환자가 확신에 차서 선택한 의사일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치료가 시작된다.<br/>또한 의사를 찾아갈 때는 맨몸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질문할 목록을 준비해 가자. 의사가 무작정 얘기해주길 기다리기보다는 환자가 먼저 암 유형이 어떠한지, 보험적용이 되지 않지만 효과적인 치료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최신 치료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물어보며 중요한 내용은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 항암치료·방사선치료와 같은 기본적인 암 치료방법을 대략적으로 알고 간다면 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br/>결론적으로 귀동냥에 의존하기보다 기준을 세워 능동적으로 의사를 선택하는 일은 완치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리고 일단 의사를 선택했다면 그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한다. 주치의를 믿지 못할수록 ‘OO가 어디에 좋다’는 식의 허황된 정보에 끌리기 마련이며 치료효과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8.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수술 잘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환자 맞춤 진단·치료”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0  
본문: “환자들에게 다학제 협진을 바탕으로 최상의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모든 의료진이 환자들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암 수술과 항암 치료 이후에도 암 환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해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강점입니다.” 항상 환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센터 구성원들과 최상의 치료 결과를 고민한다는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이은숙(사진) 센터장은 환자 개개인과 함께 소통하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원활한 협진시스템과 환자 맞춤치료=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인 암이다. 따라서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은숙 센터장은 “<span class='quot0'>40대 이상의 중년 여성들은 유방암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공포심에 병원 오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유방암은 조기 발견으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만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지난 2000년 10월 문을 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는 조기 검진에 필수적인 최신 유방촬영기와 초음파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방암센터는 각 과별 의료진의 다학제 협진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 진단, 치료법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유방암센터에는 유방암 수술을 담당하는 외과, 항암제 치료를 맡고 있는 내과 전문의, 유방 영상을 전담하는 영상의학과, 방사선치료를 담당하는 방사선종양학과, 전신 재발평가를 맡는 핵의학과 전문의들은 물론 병리과, 마취과 의료진들이 긴밀한 협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개별화된 검사와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유방암 환자들의 심리 상담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건강클리닉 전문의와 림프부종 예방과 관리, 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매주 수요일 여러 분야 의료진이 최신 저널의 연구 성과와 새로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제 유방암 환자에 대한 치료 방향을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처럼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는 협진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 치료 제공, 43병상에 달하는 유방암 환자 전담병동 운영, 암만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암센터 의료진의 특화 진료 등에 힘입어 개원 후 꾸준히 환자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 환자 수술 815건(기타 수술 포함 약 1200건)을 기록하기도 했다.<br/>유방암센터의 또 다른 강점은 유방암 수술과 함께 유방재건술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치료는 수술 치료, 항암 치료(항암화학치료, 항암내분비치료, 표적치료 등), 방사선 치료로 이뤄진다. 유방암외과에서는 유방암 치료 시 유방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방 보존적 수술법을 적용한다. 초기 유방암이지만 암 부위가 커서 유방의 많은 부분을 제거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유방 재건술이 시행된다. 이 경우 수술 후 유방이 사라진 데 대한 상실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0'>이는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고 환자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 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 만족도 향상에 크기 기여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환자들과 소통하는 유방암센터= 환자 치료는 물론 유방암 연구 분야에서도 센터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항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혈액종양내과에서는 유방암 세포의 특성과 환자의 상태에 맞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시행한다. 또한 환자의 수술조직에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항암화학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법을 적극적으로 적용, 환자 맞춤치료를 선도한다. 이와 관련 유방암센터는 지난해(11월 기준) 22건의 유방암 분야 관련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br/>“<span class='quot1'>환자들과 소통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수술과 항암치료 후에도 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span>”<br/>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는 매주 유방암 환자 대상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이 환우회 내의 자조모임에도 직접 참여해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건숙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수간호사는 “수술 전 환자설명회 형식의 교육을 통해 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체계적인 암 치료,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면서 “의료진과 함께 전담 간호사와 심리치료 전문가, 영양사, 미술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암 환자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센터는 매년 10월 유방암 대국민 강좌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한다. 지난 2008년 센터 의료진이 처음 출간한 ‘유방암 100문 100답’은 국립암센터가 이후 출간한 각 암별 100문 100답의 시작점이 되기도 했다.<br/>◇대한민국 최고 유방암센터 목표=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는 임상치료와 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각 분야 전임의 교육과 전공의 교육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년 전임의 교육을 통해 유방암 치료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고, 싱가포르 출신 의료진도 유방암센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현재 연수를 받고 있다.<br/>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유방암센터는 올해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환자 불만 zero’ 실천과 암 환자 수술 1000건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희망과 열정으로 Healing Together!’를 슬로건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독거노인 봉사활동과 기부저금통을 통한 나눔 실천 등의 센터 사회공헌활동 강화, 장기생존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수행, 암 환자 치료와 치료 후 관리 등 대한민국 유방암 치료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이은숙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다양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구와 진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유방암센터를 만들고, 국가 최고의 리딩기관으로서 사명감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한피부암학회, 피부암 치료·연구·인식 개선 위해 왕성한 활동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3  
본문: “<span class='quot0'>피부암은 일상생활에서 별 지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암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span>” 임상 현장에서 피부암 치료와 연구를 전문으로 하며 피부암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김일환 대한피부암학회 회장(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사진 왼쪽). 김 회장은 “<span class='quot1'>피부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지만 인식이 낮아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노령인구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로 피부암 발생빈도가 늘고 있어 질환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피부암 진단과 치료, 예방, 연구와 함께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활동을 펼치는 피부암학회는 지난 2005년 6월 설립된 대한피부과학회 산하의 피부암연구분과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피부암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30여명의 관련 분야 전문의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2005년 10월 대한피부암연구회(초대 회장 조광현)가 창립됐다. 이후 2009년 6월 대한피부과학회 산하 학회로 승격돼 피부암학회로 정식 출범했다. 김 회장은 “<span class='quot1'>피부암학회는 피부과 전문의는 물론 피부 병리분야 전문의들도 아우르는 학회로, 회원 100여명이 연간 1회 이상의 학술대회와 다양한 학술 연구활동,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피부암학회가 출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피부암’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식도 개선도 포함됐다. 특히 피부의 특성상 피부암은 매우 다양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가 최선의 방법임에도,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피부 병변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김 회장은 “피부암은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의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환자들이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국가가 정책적으로 암 예방과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피부암 인식 개선 정책이 부족한 점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피부암학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학술연구와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학술연구 분야의 경우 국내 피부암 환자 치료에 맞는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국내 피부암 정복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부암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사업 일환으로 피부암학회는 올해 ‘피부암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각 지역별 병원에서 피부암을 주제로 대국민 인식 개선 건강강좌를 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피부암 예방과 치료 정보도 제공한다. 지난해 피부암학회가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한국인의 피부암’ 책자도 이러한 질환 알리기의 일환이다.<br/>또한 피부암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 차단’을 위한 올바른 건강정보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일환 회장은 “<span class='quot2'>피부암 예방에서 자외선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자신의 신체 부위에 몰랐던 점이 갑자기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점에 이상한 변화가 발견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0.txt

제목: 큐리언트, 항암후보물질 네이처에 게재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449  
본문: [쿠키 건강] 큐리언트의 항암후보물질(Q701)에 대한 암전이 효과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와 '사이백스(SciBx)'에 잇달아 게재되면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br/><br/>큐리언트는 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로부터 지난해 2월 항암후보물질을 Q701을 라이선싱해 내성암 치료관련 개발을 수행중이다.<br/><br/>Q701은 악슬 키나제(Axl kinase) 저해제로 막스플랑크연구소의 악셀 울리히(Axel Ullrich)박사 연구팀과 엘디씨(막스플랑크연구소 중개연구기관, LDC)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br/><br/>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엘디씨의 이번 연구결과는 암세포가 아닌 면역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면역 활성을 높여 항암효과를 보여주는 새로운 적응증 연구다.<br/><br/>면역세포가 NK세포(Natural killer cell)에 발현되어 있는 티에이엠(TAM, Tumor-associated macrophages) 수용체를 억제해 세포의 면역학적 활성을 증가시켜 NK세포의 항암면역활성을 통해 암 전이를 억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전이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으로 평가된다.<br/><br/><br/><br/>이 회사는 지난해 8월에도 내부프로그램으로 개발 중인 내성 결핵치료제 관련 개발성과가 세계적 의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誌에 실리는 등 개발중인 과제의 우수성이 소개된 바 있다.<br/><br/>큐리언트 남기연 대표는 "큐리언트가 개발 중인 내성암 치료 후보물질이 항암 면역 활성화를 통해 암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며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항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항암제 개발과 약제내성암 치료제 개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개념 항암제 개발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1.txt

제목: [암과의 동행] 동성제약 ‘광과민제’, 中企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1  
본문: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감각제 개발을 위한 국내 의료진과 제약기업의 공동 연구과제가 정부 지원을 받는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말 ‘광과민제(광감각제) 및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사용하는 광역학 항암 치료기술 개발’과 관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br/>이번 개발 과제는 동성제약과 원광대학교 산부인과 안웅식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이번 중기청 지원과제 선정에 따라 오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연구를 수행하며, 약 1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제품과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기술경쟁력 향상을 모색하는 지원제도이다.<br/>연구를 담당하는 안웅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과제는 광과민제와 관련 동성제약이 주관하는 두 번째 연구로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기존 광감각제와 비교해 레이저빛의 파장이 650∼900 나노미터로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인체에 투여 시 기존의 1세대 광감각제보다 조직침투가 깊어 보다 넓은 범위를 치료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특히 이번 과제는 항체, 함암제와 결합한 새로운 아연 프탈로시아닌 나노선을 제작함으로써 임상적 이용에 한층 다가섰다는 평가다. 특히 안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광의학 치료용 광감각제 연구와 관련해 최근에는 정보통신(IT)·바이오(BT)·나오(NT) 기술 등의 융합 의료 개발기술을 시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광의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광의학적인 암의 조기진단과 함께 광의학적인 암의 치료기술이 발전돼 가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광역학 치료는 광과민물질을 주입한 후 조직에서 빛의 작용으로 효과를 보는 방법이다. 광과민물질(광감각제)이 체내에 주입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광역학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광역학치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산소, 광감각제, 가시광선이다. 치료 효과는 선택적으로 종양세포 내에 응집되는 광감각제의 특성, 가시광선의 조직 내 투과력, 광감각제의 조사된 가시광선의 흡수력에 따라 결정된다.<br/>광감각제는 주변의 정상조직에 비해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로 구성된 악성 조직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 가시광선에 의해 활성화된 광감각제는 조직 내 산소와 상호작용해 매우 짧은 반감기와 작용 반경을 가지는 활성화 산소를 생성한다. 이 활성화 산소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시키고 미세혈관의 장애를 초래해 직접적인 세포 독성을 지니고 종양 세포를 파괴한다.<br/>안웅식 교수는 “<span class='quot0'>적절한 병변의 치료를 위해서는 광감각제의 종류와 용량, 약물과 빛 간의 시간, 방사 강도, 빛의 양 및 파장을 잘 선택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10문 10답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17  
본문: Q1 대장암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br/>전체 대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시행합니다.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조직을 떼내어 현미경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이 같은 일련의 검사를 통해 대장암이라는 확진을 내릴 수는 있어도 실제 암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수술 전에 알 수 없습니다.<br/>Q2 대장암 병기란 무엇인가요?<br/>대장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0기부터 4기까지 분류하는데 4기로 갈수록 병이 많이 진행됐음을 의미합니다. 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의 치료성적에 따르면 0기 혹은 1기의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고 2기는 87%, 3기는 67%의 환자가 완치되어 예전의 행복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대장암 4기라 할지라도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나 폐로 전이됐다 하더라도 절제가 가능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br/>Q3 대장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br/>대장암은 수술치료가 완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전통적인 개복술과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있습니다. 결장암은 종양의 크기가 작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나 직장암의 경우 복강경보다는 개복술로 시행할 때 치료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초기인 경우는 대장내시경을 통한 절제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외의 치료로는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br/>Q4 대장암 수술 방법은?<br/>수술은 대장암 부위를 포함한 정상적인 대장과 주위 혈관 및 혈관주위 림프절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충분히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암이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하지만 드물게 항문에 아주 가까이 위치한 항문괄약근을 침범했다면 항문을 없애고 인공항문(장루)을 만드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 직장암이 골반 쪽으로 많이 침범했거나 주위 림프절 전이로 의심되는 경우 수술 전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수술을 진행합니다.<br/>Q5 대장암 수술 후 항암치료는 왜 하나요?<br/>항암치료는 수술 후 재발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전이가 있거나 재발된 경우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사 또는 경구용 항암제를 사용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약제를 동시에 병합해 사용하거나 단독 약제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물은 혈관이나 장을 통해 흡수되어 전신으로 전달되므로 대장에 있는 암뿐 아니라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된 곳에서도 효과를 보이는 전신치료법입니다.<br/>Q6 사용되는 항암제의 종류는?<br/>대장암에 흔히 사용되는 항암제로는 주사제인 5-플루오로우라실(5-FU)과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 그리고 경구용 항암제인 카페시타빈 등이 있습니다.<br/>5-플루오로우라실(5-FU)은 다른 항암제와 비교해 부작용이 경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구내염, 설사, 손톱·발톱·피부의 착색 등이 발생하며 약간의 탈모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br/>옥살리플라틴은 구토와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주사 횟수가 8∼9회를 넘어가면 손발 끝이 무감각해지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항암제 치료가 끝난 후 약 1∼2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완화를 위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리노테칸 약제의 가장 무서운 부작용은 바로 설사입니다. 만약 심하게 지속된다면 지사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약 투여 시 땀이 많이 나거나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제에 비해 탈모가 발생하는 편인데, 이는 약 투여 후 약 2주에서 4주 사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카페시타빈은 먹는 항암제입니다. 경구 약이어서 복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족증후군(손발의 허물이 벗겨지고 통증이 유발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br/>Q7 항암치료 후 부작용은?<br/>메스꺼움은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심할 때는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주로 과일통조림이나 얼음, 요거트, 샤베트 등의 찬 음식, 크래커나 토스트 등 위장에 부담이 적은 음식을 택합니다. 실내 환기를 자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설사를 할 경우 채소를 푹 익히거나 데쳐서 먹고 생과일이나 커피·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은 음식은 피하세요. 반면 변비는 수분 및 음식섭취가 충분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걷는 운동과 충분한 음식물 및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사 후 약 7∼14일 정도에는 혈구 감소증과 탈모, 혈관염에 의한 혈관착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 투여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심한 몸살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일단 백혈구 감소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와서 혈액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백혈구 감소로 인해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Q8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 음식관리는?<br/>항암치료 중에는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므로 세균에 의한 감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음식에 존재하는 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 익힌 물과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의심되는 음식은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칼 등 주방기구와 식기·수저는 반드시 소독해 사용합니다. 고기와 닭, 생선은 잘 익혀서 먹어야 하며 날계란이나 덜 익힌 계란, 그리고 이들이 들어간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br/>Q9 성생활은?<br/>항암치료 중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나 임신을 원하는 남성 대장암 환자는 항암치료 후 약 6개월 정도까지는 임신하지 말 것을 권하며 특히 여성 대장암 환자의 경우 반드시 담당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임신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br/>Q10 일상 생활에서 주의할 점은?<br/>수술 직후 걷는 활동은 장 운동에 도움이 되며 빠른 회복이 가능토록 합니다. 하루 중에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시간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평지를 걷는 것이 도움이 되며 근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수술 이전에 하던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중이라면 외부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3.txt

제목: [이태형 칼럼] 부활의 증인: C자매 이야기(2)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5  
본문: 1, 2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다. 가슴은 오그라들었고, 부은 얼굴은 잿빛이 되어갔다. 거울을 보니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한번도 찾지 않은 하나님께 절규했다. “당신이 계시다면 나 좀 지금 데려가주세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긴 싫다고요.”<br/>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C자매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떠올렸다. “<span class='quot0'>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span>” ‘너는 내 것이라’는 말에 눈물이 났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것인 것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암에 걸리게 하셨다는 깨달음이 왔다. 암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잠시 멈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계신지 돌아볼 생각을 했던 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성경을 보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죽는 것은 자는 것이었고 죽음 이후를 위해 이미 예비 된 처소가 있었다.<br/>항상 정답을 찾았는데 정작, 이미 손에 정답을 쥐고 있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다시 사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삶에서 비극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하나님은 신이시다. 다시 사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자각이 왔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br/>항암치료를 받으면서 C자매는 죽음을 생각했다. 관점은 이미 바뀌었다. 회개 이후 C자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말기암에 걸린 자신이 할 일은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죽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후의 사명’이었다. 병중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간증을 했다. “제가 혹시 죽더라도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실 터이니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지금처럼 기쁘게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br/>여섯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은 이후에 최종 결과가 나왔다.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기적입니다. 축하합니다”란 의사의 말에 C자매는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죽음을 준비했던 자신에게 시간을 더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즉각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부활을 증거하도록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자각만이 가득 찼다.<br/>C자매의 삶은 달라졌다.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의 조건이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온갖 의무조항으로 가득 찬 일상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직 그녀는 가슴 복원 수술을 하지 않았다. 한쪽 가슴엔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C자매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한다. 그 ‘스카’(Scar·흉터)는 예수님 영접했음을 알려주는 스티그마(Stigma·흔적)였다. 인생의 ‘스카’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스타’(Star·별)가 되었다.<br/>요즘 C자매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예수는 나의 주!”를 세 번 외친다. 하루 종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br/>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th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의 ‘후코이단’, 미래 항암제로 주목  
날짜: 20140318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3  
본문: 전통식품 미역이 미래 항암제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산 미역포자엽(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br/>지난 1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월드저널 온라인판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수록됐다. 미역 등 갈조류의 항암활성, 특히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기능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채택돼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사이언티픽월드저널은 바이오의학 및 환경과학 논문을 주로 다루는 생활과학분야 학술지로 2001년부터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br/>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논문의 제목은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6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미역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항암과 관련해 어떤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했다.<br/>그 결과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암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요법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논문에 따르면 갈조류의 황산다당류인 후코이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아포토시스)을 유도하는 특이 활성을 지닌다.<br/>또 인체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고,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혈소판에 점착하는 것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이 있다.<br/>갈조류의 색소성분인 후코산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한 항암활성을 나타낸다.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이러한 활성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고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때문에 갈조류의 종자를 확보하고,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br/>우리나라 역시 2005년 해양수산부, 완도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사업을 벌여 후코이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후코이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붙은 후코이단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완도, 고흥, 기장 등 우리 연안에서 자라는 미역을 활용할 경우 황산기 함유량이 대단히 높은 질 좋은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인근해의 미역을 활용해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품질지표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즈쿠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미국의 후코이단이 최대 16% 정도의 황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후코이단의 품질력은 압도적인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미역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항암제로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역의 ‘후코이단’, 미래 항암제로 주목  
날짜: 20140318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572  
본문: 전통식품 미역이 미래 항암제로 거듭나고 있다. 국내산 미역포자엽(미역귀)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에 강력한 항암기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br/>지난 1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월드저널 온라인판에 주목할 만한 논문이 수록됐다. 미역 등 갈조류의 항암활성, 특히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기능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채택돼 일반에 공개된 것이다. 사이언티픽월드저널은 바이오의학 및 환경과학 논문을 주로 다루는 생활과학분야 학술지로 2001년부터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br/>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논문의 제목은 ‘갈조류의 두 가지 주요 대사물인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항암, 항종양 잠재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발표된 60여 편의 관련 논문을 분석해 미역 등의 갈조류에서 추출한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항암과 관련해 어떤 잠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했다.<br/>그 결과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이 암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요법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br/>논문에 따르면 갈조류의 황산다당류인 후코이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아포토시스)을 유도하는 특이 활성을 지닌다.<br/>또 인체의 면역반응을 향상시키고,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며, 암세포가 혈소판에 점착하는 것을 방해해 전이를 막는 기능이 있다.<br/>갈조류의 색소성분인 후코산틴도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며 종양의 혈관신생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강력한 항암활성을 나타낸다. 후코이단과 후코산틴의 이러한 활성은 부작용 없이 암을 치료하고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r/>이 때문에 갈조류의 종자를 확보하고, 갈조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도 치열한 상태다.<br/>우리나라 역시 2005년 해양수산부, 완도군 등을 중심으로 국가지원사업을 벌여 후코이단 생산공장을 설립하는 등 후코이단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붙은 후코이단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완도, 고흥, 기장 등 우리 연안에서 자라는 미역을 활용할 경우 황산기 함유량이 대단히 높은 질 좋은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br/>2005년 국가지원으로 설립된 해림후코이단의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우리 인근해의 미역을 활용해 후코이단을 생산할 경우 품질지표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모즈쿠를 주로 활용하는 일본, 미국의 후코이단이 최대 16% 정도의 황산기를 함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 후코이단의 품질력은 압도적인 수준</span>”이라고 밝혔다.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미역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질 미래 항암제로 빛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 해림후코이단은 웹사이트(www.fucoidanmall.or.kr)에서 후코이단 무료 샘플신청을 받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6.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도영록 계명대 동산의료원 교수  
날짜: 201403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5  
본문: “<span class='quot0'>만성골수성백혈병, 복약 순응도 유지 가장 중요</span>”<br/>백혈병 하면 예전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병으로 설정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효능이 높고 복용은 더 편리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무조건 죽는 병이라는 인식을 벗고 있다. 2013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조혈계 암인 골수성백혈병은 연간 1887건(남자 1062건, 여자 825건)의 새로운 환자가 등록돼 전체 암 발생의 0.9%를 차지했다.<br/>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가 18.3%로 가장 많고, 70대 16.5%, 40대 14.8%의 순이었다. 치료제는 2001년 처음 나온 1세대 글리벡에 이어 최근에는 2세대 치료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br/>도영록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CML: Chronic Myeloid Leukemia)의 최신 치료경향에 대해 “만성기 CML은 충실한 복약을 통해 잘 조절될 수 있다. 만성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완전 분자생물학적 관해(완화)를 획득해 약제를 중단하는 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치료술이 발달했고,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극미량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도 개발됐다”며 “치료는 만성기의 타이로신 키나제 저해제(TKI, tyrosine kinase inhibitor)를 경구 복용함으로써 혈액학적·염색체·분자생물학적 관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br/>이어 “현재는 1세대 약제인 글리벡보다 2세대 약물을 초기 치료로 사용해서 조기에 더 깊은 수준의 관해를 획득하고자 목표를 정하고 치료에 임한다”며 “근래에는 경구 약제의 치료효과가 탁월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약제의 종류도 TKI가 처음 환자들에게 사용된 2000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최근의 치료 경향은 양호한 치료 반응을 조기에 획득해서 그 상태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므로 약제 선택에 있어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br/>복약 순응도와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 반응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처방된 약제를 90% 이상 복용하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생존율 차이가 있는 만큼 복약 순응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밝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동반질환(당뇨·고혈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화된 맞춤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동반질환 관리가 잘 되어야 복약 순응도를 잘 유지할 수 있고, 동반질환에 따라 TK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br/>약물 복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치료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가속기와 급속기 등의 위험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br/>도영록 교수는 “<span class='quot1'>CML은 관리와 복약 순응도 등이 중요한 질환이어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병원에서 지역 환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병원의 역할이자 장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계명대 동산의료원은 2011년에 개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자가·동종·제대혈 이식 등을 진행하고 있고 2016년 개원하게 될 새 병원에서는 더 큰 센터를 개소해서 소아과와 같이 이식을 진행할 예정</span>”이라고 설명했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생약성분 종근당 ‘프리페민 정’… 월경전증후군 치료제로 각광  
날짜: 20140318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9  
본문: 종근당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생리전증후군, PMS) 치료제 ‘프리페민 정’(사진)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프리페민 정은 스위스 생약전문회사 젤러(Zeller)에서 생산한 일반의약품으로 유럽의약국(EMA)으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다.<br/>프리페민 정의 주성분은 아그누스카스투스 열매에서 추출한 생약성분(식물성분)으로, 월경전증후군으로 인한 두통, 피부증상, 아랫배 통증, 가슴팽창, 신경과민, 과민성 감정굴곡, 우울, 피로, 수면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이다.<br/>월경전증후군(PMS)은 가임기 여성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여러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들이 생리주기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br/>주로 배란 후 황체기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생리 시작 직전이나 그 직후 소실되어 여성들의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준다.<br/>종근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전증후군을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최초로 출시된 생약성분 월경전증후군 치료제가 그동안 명확한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아 온 여성들의 일상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이 제품은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일 1회, 1회 1정으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정(情)담회’는… 환자·가족들과 월 2회 ‘대장암 이기기’ 모임  
날짜: 201403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18  
본문: 건국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센터장 황대용 교수·외과)는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병원 5층 휴게실에서 ‘대장암센터 정(情)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정담회는 대장암 환자들과 가족, 대장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담회는 대장암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점과 궁금증들을 직접 해결하는 대화의 장이다.<br/>황대용 센터장은 “<span class='quot0'>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완쾌돼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정담회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대장암 환자들과 가족, 그리고 대장암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공간</span>”이라고 설명했다.<br/>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는 대장암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황대용 센터장을 비롯해 여러 교수진과 전담 간호사 등 대장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대장암센터는 대장암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전후 치료와 약물치료를 담당하는 대장암 수술 및 치료 전문 외과 의료진, 대장암 간 전이 수술 전문 외과 의료진이 수술과 진료를 맡고 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암 진단과 조기 대장암의 대장내시경 시술을 맡는 소화기내과 의료진, 치료 전과 후의 CT영상을 통해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영상의학과 의료진, PET 등을 통해 대장암 영상을 분석하는 핵의학과 의료진, 방사선 치료와 임상실험 등 새로운 약물치료를 시도하는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병리학 의료진과 혈액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 등이 환자 진료와 치료를 담당한다.<br/>건국대병원 대장암센터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정담회’와 함께 다양한 암 질환, 치료,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강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대장암사이버클리닉(www.koreacancer.com) 운영을 통해 퇴원 환자 및 일반인들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펼치고 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3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대장암, ‘1등급’ 倍 늘어 의료질 향상 뚜렷… 유방암, 종합병원-병원급 20점 격차  
날짜: 20140318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26  
본문: 대장암·유방암 병원 평가<br/>1차례 평가를 거친 대장암은 지난해에 비해 의료질 향상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사망률은 2011년 1.23%에서 2012년 1.17%로 낮아졌고, 1등급 병원은 2배 증가했다. 2차 대장암 평가는 2012년 진료분에 대해 266개 기관 1만842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수술을 시행한 연령은 60대에서 5372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암 병기는 Stage3이 6694건(3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결과는 89.97점으로 전년보다 7.27점 높아졌고, 입원일수는 15.2일에서 14.8일로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진료결과가 향상됐다.<br/>대장암, 적정성평가로 의료질 개선<br/>각 평가지표 점수를 종합해 의료기관별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평가대상 기관 중 종합점수 산출이 가능한 135개(50.8%) 기관의 1만8021건(97.8%)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2012년 10건 미만 수술한 131개 기관의 409건은 등급산출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1등급은 92개소(68.2%)로 전년에 비해 48개 증가했고, 2등급(23개소)·3등급(9개소)·4등급(6개소)·5등급(6개소)은 모두 감소했다.<br/>권역별로 1등급을 받은 병원을 보면 △서울권 28개소(가톨릭 서울성모병원,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동신의료재단 동신병원, 이대 목동병원, 중앙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양대병원, 강북삼성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병원, 대항병원, 서울송도병원, 서울의료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을지병원, 원자력병원, 한솔병원) △경기권 22개소(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양대 구리병원,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암센터, 김포우리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양병원,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인하대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현대병원) △경상권 21개소(계명대 동산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영남대병원, 제일병원, 울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양산부산대병원, 안동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동아대병원, 드림병원, 메리놀병원, 부산대병원, 안락항운병원, 차의과대 구미차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성모병원) △강원권 4개소(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아산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전라권 8개소(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순천성가롤로병원, 원광대병원, 광주기독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충청권 8개소(건양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을지대병원, 단국대병원, 청주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가톨릭 대전성모병원) △제주권 1개소(제주한라병원) 등이다.<br/>대장암 하위 4·5등급 병원수 줄어<br/>반면 하위등급인 ‘4등급’은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오산한국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기독병원(이상 경기권),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이상 경상권) 대전보훈병원(충청권) 등 6개 의료기관이며, ‘5등급’은 서울권(비에비스나무병원, 서울SKY병원) 경상권(동국대 경주병원) 충청권(건국대 충주병원, 충북 충주의료원 등) 5개 기관이다.<br/>유방암 수술, 40대가 가장 많아<br/>유방암 평가 결과(201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 160개 기관 4574건) 수술은 40대(36.2%)와 50대(30.3%) 등 생산활동인구에서 높았다.<br/>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는 구조(1항목)를 비롯한 진료과정(17항목)과 결과(2항목)를 평가하는 총 20개 지표 중 3개를 제외한 17개 지표를 종합해 결과를 산출했는데 상급종합병원은 평균(95.08점)보다 높은 98.43점을 받은 반면, 병원급은 76.39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br/>특히 구조 부문인 4개 진료과(외과, 혈액종양내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전문인력 구성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개 진료과가 대부분 충족된 98.9%로 나타났는데 병·의원은 주로 외과 1개만 있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또 유방보존술 시 최종 절제연에서 잔존암이 있는 양성으로 확인된 비율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0.4%였지만 병원(1.2%)과 의원(2.1%)은 이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많았다.<br/>이 같은 지표를 통해 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은 병원은 총 72개소로 △서울권 24개소(서울성모병원, 강동경희대, 강동성심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을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중앙대병원, 원자병원력,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양대병원) △경기권 17개소(가톨릭 성빈센트·의정부성모·인천성모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암센터, 건보공단 일산병원,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길의료재단 길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경상권 14개소(경상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고신대 복음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안동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강원권 3개소(강릉아산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전라권 5개소(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충청권 7개소(단국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가톨릭 대전성모병원, 건양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을지대병원) △제주권 2개소(제주대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으로 나타났다.<br/>반면 5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박희붕외과의원·한사랑병원(이상 경기권), 구의료재단구병원·마더즈외과병원·분홍빛으로병원(이상 경상권), 충북충주의료원(충청권) 등 6개이다.<br/>한편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의 질 관리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암 질환에서 대장암·유방암·폐암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위암·간암의 진료결과는 2014년부터 신규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폐암의 경우 올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시작해 1년 단위로 매년 폐암진료의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br/>조민규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0.txt

제목: 두꺼운 허리둘레 성인 조기사망률 높인다  
날짜: 201403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246  
본문: [쿠키 건강]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이라도 허리둘레가 크면 각종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미국 메이요클리닉의 James Cerhan 박사팀은 11개 코호트 연구의 남녀 65만명을 비교·분석한 결과 "허리둘레가 큰 성인일수록 심장병, 폐질환, 암으로 조기에 사망할 위험도가 크다"고 밝혔다.<br/><br/>사망 위험도는 남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43인치인 이들이 35인치 이하인 이들보다 52%, 여성은 37인치 이상이 27인치 이하일 때보다 80% 높았다. 즉 40세 이상 성인에서 허리둘레가 클 수록 기대수명이 약 5년 더 낮아진 것이다. 더불어 허리둘레가 2인치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도가 남성은 7%, 여성은 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연구팀은 비만을 측정할 때 쓰이는 BMI도 함께 언급했다. BMI 수치가 정상범위인 18.5~24.9㎏/㎡에 속하는 성인도 허리둘레가 크면 조기사망 위험에 있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br/><br/>Cerhan 박사는 "BMI만으로는 체중에서 지방을 뺀 제지방량(lean mass)과 지방량(fat mass)을 구분할 수 없고, 지방이 포함되는 부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법이 될 수 없다"면서 "BMI와 허리둘레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단 연구팀은 허리둘레와 BMI의 전체범위를 통틀어 조기사망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세계 첫 유방암 항체시밀러… 셀트리온 ‘허쥬마’ 국내서 판매 시작  
날짜: 20140318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030  
본문: 세계 최초의 유방암 항체시밀러 ‘허쥬마’가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0일 셀트리온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쥬마에 대해 최종 판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br/>이번 허가에 따라 허쥬마는 보건복지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판매가 가능해진다.<br/>허쥬마의 판매허가 승인은 중증질환인 항암제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영역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br/>세계 최초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승인이기 때문이다. 허쥬마는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의 기능을 억제해, HER2가 과발현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표적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br/>이에 따라 유방암 치료제인 허쥬마는 연간 63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시장의 규모는 대략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유방암 항체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 임상을 마무리한 회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당분간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셀트리온은 허쥬마의 개발을 위해 30개월에 걸쳐 15개국에서 임상1·3상의 다국가 임상을 진행했으며 이 임상결과는 세계최대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등에서 발표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br/>다국적 기업 등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셀트리온은 유일하게 두 개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허가에 연이어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분야의 선도기업임을 확실히 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판매허가를 받아냄으로써 세계적인 바이오의약기업으로서 이름을 알린 바 있다.<br/>고가인 항체 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는 비싼 약가가 문제가 돼 왔다. 허쥬마의 오리지널 약제는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회사와 유럽 보건당국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br/>셀트리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허쥬마 발매에 따라 국내의 경우 오리지널 약제의 가격은 30% 자동 인하되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장윤형 쿠키뉴스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2.txt

제목: “암에 특효” 백령도 약쑥 과대광고한 일당 검거  
날짜: 201403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390  
본문: [쿠키 사회]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령도산 쑥즙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과장 광고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와 공모한 제조업체 대표 남모(66·여)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br/>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 넘게 서울 구로구 일대 찜질방 3곳에서 손님을 상대로 백령도산 쑥즙 상품이 암(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4억9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br/>이씨는 매달 300만원씩을 주고 찜질방 3곳을 임대한 뒤 함께 입건된 방문판매원 3명을 고용해 손님을 상대로 매일 한두 차례씩 무료 시연 등 판촉 행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br/>방문판매원들은 찜질방 TV로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한 방송 보도를 틀어주고 “<span class='quot0'>백령도 주민의 생계를 도와줘야 한다</span>”는 호소로 구매를 유도했다.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는 1박스에 밀봉된 쑥즙 96개와 함께 과장 광고 내용이 적힌 전단을 담아 2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25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은 찜질방을 찾은 여성들과 노인들이었다.<br/>백령도에서 건강식품 제조 사업을 하던 남씨는 평소 알던 이씨가 서울에서 본격적인 판매를 해보자고 제안하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br/>경찰은 “<span class='quot1'>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뢰해선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병이 있는 사람은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3.txt

제목: [희귀난치병 가족의 눈물] 치료비 건보혜택 받아도… 3대 비급여 부문 지출 ‘눈덩이’  
날짜: 20140318  
기자: 이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8100000158  
본문: 주부 박지숙(가명·45)씨는 근이영양증을 앓는 두 아들을 돌보고 있다. 온몸의 근력이 점점 쇠약해지다 심장 근육까지 약해지면 호흡 기능이 정지돼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모계 유전일 수 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할 여유도 없었다. 병과의 사투는 현실이다. 돈이 필요했다. 검사비와 입원비, 선택진료비, 약값, 간병비, 보조기구비…. 통장에 구멍이라도 난 듯 돈은 줄줄 빠져나갔다. 남편이 매일 새벽까지 녹초가 되도록 일하지만 빚은 늘어만 가고 있다. 박씨 가정은 매달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파산 직전이다.<br/>이성인(가명·50·여)씨의 딸(21)은 돌 무렵 척추성근위축 진단을 받고 20년째 투병 중이다. 처음 발병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다. 그 뒤 수년간 아이 치료비로 억대의 돈이 들어갔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없었다. 지인이 “<span class='quot0'>이혼하면 한부모가정이 돼서 정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 이씨는 곧장 남편과 이혼했다. 이씨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자 동사무소에서는 “<span class='quot1'>(전 남편이 주는) 양육비가 있으니 월 40만원만 지급하겠다</span>”고 했다. 치료비·간병비는 고사하고 20만원 월세를 내기에도 빠듯한 돈이다.<br/>이들처럼 가족 중 누군가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리면 가정 붕괴는 시간문제다(국민일보 3월 17일자 1·3면 참조). 그저 몹쓸 병에 걸렸을 뿐인데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이런 비극만큼은 막겠다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을 내걸었다.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모두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공약의 요지다.<br/>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4대 중증질환 보험 보장률은 89.8%다. 치료비 중 90% 가까이 보험 적용을 받으므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그래픽 참조).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수치와 비슷하다. 박 대통령은 당시 2013년까지 85%, 2014년 90%, 2015년 95%에 이어 2016년 100%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공약이 이행되는 듯하다. 그러나 높은 수치 속에는 함정이 있었다.<br/>먼저 정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보장률 90% 속에는 암·심장·뇌혈관 질환자들까지 포함돼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치료가 이뤄지면 질병코드로 ‘V’가 표시된다. 이를 전부 묶어서 산출된 수치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만 산출하려면 다시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br/>3대 비급여 부문에서 당하는 고통도 여전하다. 선택진료제,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에서 지출되는 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괴롭히는 가장 큰 요소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항목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구분해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선택진료제의 경우 복지부는 선택진료비를 받는 의사 수를 줄이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희귀난치성 질환은 그 병을 아는 의사가 드물어 소수의 전문 의료진, 즉 ‘선택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선택진료제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선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다.<br/>9세 때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아 올해로 40세가 된 아들을 돌보는 주유희 근이영양증환우모임 회장의 경우 심장, 폐기능, 호흡관리 등 관련 진료가 모두 선택진료다. 다발성경화증을 앓는 신현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의 사정도 비슷하다. 신씨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진단도 쉽지 않다. 해당 분야 권위자가 아니면 진료가 불가능한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인다곤 했지만 우리는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br/>혜택이 축소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은 ‘응급환자’로 분류돼 응급실 진료를 받을 때 응급관리료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많게는 4만8000원에 달하는 응급관리료의 10%만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이 항목이 지난해 10월 전액 비급여로 전환됐다. 이영우 CRPS환우회장은 “<span class='quot2'>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신경안정제를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은 많게는 한 달에 8번 응급실에 간다</span>”며 “<span class='quot2'>기초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 외에도 월 40만원 정도를 평생 지불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조치</span>”라고 말했다.<br/>이도경 정부경 전수민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4.txt

제목: [메디컬 뉴스] 을지대병원, 암 환우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 外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063  
본문: ’체형교정 다이어트’ 중국어판 출간<br/>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한방비만체형클리닉 송미연 교수가 최근 ‘평생 살 안 찌는 몸 만드는 체형교정 다이어트’ 중국어판을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br/>송 교수는 이 책에서 상체 비만 거북이형, 뱃살 두둑 캥거루형, 전신 비만 거미형, 하체 튼실 개미형 등 문제 체형 교정에 필요한 8주 집중 운동법을 소개했다(02-440-7575).<br/>암 환우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br/>을지대병원은 20일 오전 11시 2층 을지홀에서 ‘암 환우를 위한 힐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사선 및 식이영양요법을 소개하는 자리다.<br/>방사선종양학과 윤선민 교수가 ‘최신 방사선 치료 소개’, 영양과 여인섭 과장이 ‘암 환우를 위한 웰빙 식이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정성훈 교수가 ‘수면 건강과 생체 리듬 유지’란 제목으로 각각 강연할 예정이다(042-611-3546∼7).<br/>‘암 경험자가 잘 걸리는…’ 강좌<br/>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는 20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1 강의실에서 ‘암 경험자가 잘 걸리는 만성병 관리하기’란 제목으로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가정의학과 최호천 교수(02-2072-0077).<br/>구내염 치료제 ‘뮤가드’ 판매 협약<br/>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바이오기업 ‘엑세스’사와 구내염 치료제 ‘뮤가드’를 국내에 독점 수입·판매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뮤가드는 암 환자 치료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을 통해 치료 및 예방하는데 유용한 제품이다. 한미약품은 하반기에 이 약을 국내 출시할 계획이다.<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5.txt

제목: 치매·당뇨·암·파킨슨병 등 유발 단백질 응집 시키는 새 원인 규명  
날짜: 20140317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069  
본문: 국내 연구진이 치매 당뇨 암 파킨슨병 등을 일으키는 단백질 응집 현상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냈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숙명여대 화학과 함시현(사진) 교수팀이 단백질과 물의 상호 작용이 단백질 응집 현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규명하고 이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br/>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면 몸 안에서 응집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독성을 띨 수 있다. 이런 단백질 응집 현상은 주변 세포들의 기능 장애와 세포 사멸을 일으켜 당뇨나 암 등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br/>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대로 단백질 주변 물의 구조와 분포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단백질이 왜 얼마나 응집하는지 90%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몸 안에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백질의 응집을 분자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br/>함 교수는 “<span class='quot0'>단백질 신약 개발은 단백질 응집이 걸림돌이 돼 왔는데 이번 연구 결과가 신약 개발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대규모 제약회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span>”고 말했다.<br/>이번 논문은 화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4월호 표지논문은 물론 ‘주목할 만한 논문’에도 선정됐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6.txt

제목: 암 환자 불안 진단 초기에 가장 심하다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268  
본문: [쿠키 생활] 암 환자들은 암 진단을 받은 직후부터 치료가 시작되기 전까지 가장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안감은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다소 줄어 치료가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됐다.<br/>연세의료원은 다음 달 하순 연세암병원 개원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의 암 환자와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이 ‘암 진단 직후부터 치료 시작 전까지’ 불안을 가장 많이 느낀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그 다음으로는 불안을 많이 느낀 시기는 ‘입원 및 통원 기간’이 27.8%, ‘치료 후 완치 판정까지’가 25.3%로 조사됐다.<br/>이번 조사에 참여한 암 환자와 가족 중 남성은 88명(44%), 여성이 112명(56%)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18.5%, 40대 31.5%, 50대 35.5%, 60대 11.5% 등의 분포였다.<br/>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등의 심리 변화를 차례로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투병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 변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특히 암 진단 초기에 불안감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br/>암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여전히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불안은 실제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었다.<br/>이 때문에 암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에 대해 바라는 점도 ‘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암 환자와 가족들은 가장 가고 싶은 병원으로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배려하는 병원’(133명, 중복선택 가능), ‘자신의 병과 치료 계획 등을 잘 설명해주는 병원’(132명)을 꼽았다. 두 가지 모두 불안을 떨쳐버리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br/>암 환자와 보호자들이 암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는 것과 함께 병원측에 바라는 것은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배려(27%)’와 ‘충분한 규모와 첨단 시설(23.7%)’인 것으로 나타났다.<br/>노성훈 연세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와 가족들은 빠르고 정확한 치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과 편안한 배려를 원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맞춰 암지식정보센터, 암예방센터 등 최상의 치료와 더불어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병원이 되도록 힘쓰겠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7.txt

제목: “암 진단 받은 직후 치료 전까지 불안감 가장 심해”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205  
본문: [쿠키 건강] 암 환자는 진단-치료-완치(재발)라는 투병과정에서 지속적인 불안상태를 보이는데 특히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기 전까지 심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연세암병원은 개원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 암환자와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4명(39.4%)이 ‘암 진단 직후부터 치료 시작 전까지’ 가장 불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입원 및 통원 기간’이 27.8%, ‘치료 후 완치 판정까지’가 25.3%로 나타났다.<br/><br/>과거와 달리 완치율이 현저히 높아졌지만 암은 여전히 환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병인 것이다. 이 때문에 암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꼽았다.<br/><br/>또한 암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가고 싶은 병원으로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배려하는 병원’(133명, 중복선택 가능)과 ‘자신의 병과 치료 계획 등을 잘 설명해주는 병원’(132명)이 꼽혔다. 두 가지 모두 불안을 떨쳐버리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br/><br/>한편 암 치료 측면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암 병원에 바라는 점은 ‘수준 높은 의료진(25.8%)’과 ‘진단 및 치료의 전문성(25.4%)’이었다. 치료 외에 바라는 것은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배려(27%)’ 및 ‘충분한 규모와 첨단 시설(23.7%)’이라고 답했다.<br/><br/>노성훈 연세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암 환자와 가족들은 빠르고 정확한 치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과 편안한 배려를 원한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오는 4월 개원하는 연세암병원은 환자의 이러한 요구에 맞춰 암지식정보센터, 암예방센터 등 최상의 치료와 함께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병원을 추구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8.txt

제목: ‘폐암’에서 한방암면역치료, 하나통합한의원 ‘티버스터’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187  
본문: [쿠키 건강] 암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항암치료에서 독한 성분들이 일반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고 체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항암치료 과정에서 휴지기를 갖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다.<br/><br/>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결합한 통합의학적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하나통합한의원 박상채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이 암세포가 30%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20% 이내의 증가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바로 다음 항암제를 시작하기 보다, 항암치료 휴지기를 갖고 손상된 신체를 회복하고 몸의 균형과 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일반적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한방 암 면역치료의 경우 과거 내원 암 환자들 대부분은 3~4기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방 암 면역요법이 항암과 방사선의 부작용을 완화한다는 점이 알려지고, 면역약침 등 혈맥약침이 개발되면서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병용하려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br/><br/>◇폐암 환자 한방 암 면역치료 ‘티버스터’ 효과는?<br/><br/>실제 지난 2012년 7월에 비소세포성 폐선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는 같은 해 9월에 하나통합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br/><br/>김보근 하나통합한의원 대표원장은 “<span class='quot1'>폐암 4기는 치료율이 높지 않고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한방에서 폐암은 치료가 잘되는 편에 속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암을 전신 질환으로 보고 처음부터 관리하는 점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하나는 옻나무가 예로부터 폐질환에 잘 듣는 약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span>”라고 설명했다.<br/><br/>A씨는 당시 알림타와 시스플라틴 항암치료 시행 중이었고, 동시에 한방을 병용해 치료를 받았다. 약 3개월(12주) 동안 양한방 병용치료를 통해 면역력이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항암의 치료율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을 적용했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2'>A환자는 옻나무고농축제재를 바탕으로 처방을 했으며, 2013년 1월부터 항암 휴식기를 가지면서 천연물 조성 항암제 티버스터를 기본으로 한 한방 단독치료를 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2'>그 결과 현재 원발부위는 크기 변화가 없고 전이된 부위는 크기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관해평가상 안정상태(SD, stable disease)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처럼 하나통합한의원의 암 치료 목표는 기존 항암치료와 병행해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암치료 지쳐있는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최선의 치료 방법들을 찾는 것이다. 또한 천연물 조성 항암제로 개발된 치종단(Ⅱ) 일명 ‘티버스터(T.buster)’도 하나통합한의원의 한방 암 면역치료의 핵심이다.<br/><br/>이에 대해 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2'>2세대 우루시올 성분 치료제인 티버스터는 면역력 강화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행 등으로 내성과 부작용이 없는 한방 암 면역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span>”고 말했다.<br/><br/>또 다른 환자 K(60·남)도 지난 2012년 병원 정밀 진단 후 평편상피성 폐암 3기b판정 후 방사선과 화학요법 동시에 실시했다. 이후 체력상의 문제로 항암을 포기한 후 운동과 민간요법으로 관리 하던 중 2013년 2월 26일 하나통합한의원에서 침술과 치종탕, 티버스터 처방으로 한방 암 면역치료를 시작했다.<br/><br/>박상채 원장은 “<span class='quot3'>K씨의 경우 치료 시작후 3월에 받은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상 좌폐문 부위에서 보였던 폐암은 보이지 않았고, 전이로 추정되는 병소 발견되지 않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하나통합한의원에 따르면 K씨의 2013년 6월 영상의학과 판독에서도 2011년 9월 CT와 비교했을 때, 방사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불분명한 삼출액의 소량 증가가 있지만 종양의 크기는 비슷하며 한방 치료로 SD(안정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김보근 원장은 “<span class='quot2'>현재 한방 암 치료의 대표적인 것은 면역요법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옻나무추출물을 통해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차단시켜 기존 3대 항암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주는 방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하나통합한의원의 경우 천연물 성분 자체를 통해 천연물항암제를 개발해 보다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치료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티버스터(T.buster)</span>”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49.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서울대치과병원 ‘잇몸질환 치료와 예방’ 外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181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20일(목) 낮 12시 치과병원 지하 제1강의실에서 ‘잇몸질환의 치료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대한치주과학회가 제정한 ‘잇몸의 날’을 맞아 진행하는 것으로 잇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치료와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강좌는 치주과 김태일 교수(사진)가 1시간 동안 진행하며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문의: 02-2072-3114)<br/><br/>◎서울특별시 서남병원(원장 김준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2층 이화홀(대강당)에서 ‘스트레스 탈출 및 힐링 웃음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건강강좌를 통해 서남병원은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노년기 우울 및 질병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1부 강의는 서울시 서남병원 이홍수 가정의학과 전문의(진료부원장·공공의료단장)가 강사로 나서며, 2부는 유해자 웃음치료사가 힐링 웃음 치료를 제공하나. 추첨을 통해 신체 조절 능력과 스트레스 저항도 및 피로도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율신경균형검사(스트레스검사)도 시행된다.(문의: 02-6300-9008, 1566-6688)<br/><br/>◎서울아산병원 천식센터 권혁수(알레르기내과)·이세원(호흡기내과) 교수는 20일 오후 2시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최신 치료’를 주제로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환절기에 잦은 감기와 멈출 줄 모르는 기침이 지속되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호흡곤란, 객혈, 가래,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되면 반드시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과 개인별 맞춤 치료법에 관해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문의: 02-3010-3051~4)<br/><br/>◎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20일 오후 3시부터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암 경험자가 잘 걸리는 만성병 관리하기’를 주제의 건강강좌를 펼친다. 이날 강좌에서는 가정의학과 최호천 교수가 ▲암 치료 후 잘 동반되는 만성병은 무엇인가요? ▲암 종별로 잘 발생하는 만성질환이 있나요? ▲동반된 만성질환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암 치료 후 만성병이 합병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됐으며,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문의: 02-2072-0077, 0088)<br/><br/>◎아주난청인공와우센터는 21일(금) 오후 6시30분부터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1층 소강당1에서 ‘제14회 아주난청재활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잔존청력 보존을 위한 인공와우 수술과 양측 인공와우 수술, 노화성 난청과 인공와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아주난청인공와우센터 소개 및 시술현황(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인공와우 수술의 현재와 미래-잔존청력 보존 수술법 중심(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양측 인공와우의 이해와 실제(이비인후과 박헌이 교수) ▲노화성 난청과 인공와우(이비인후과 박헌이 교수) ▲인공와우 수술 후 재활 ▲환자 사례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난청 환자와 가족, 특수학교 및 재활기관 관계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치료사 및 청각사 등 난청과 인공와우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등록비는 없다.(문의: 031-219-4319, 4320)<br/><br/>◎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제3회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강좌는 “Recent Advances in Palliative Care”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연구원 등 Healthcare provider를 위한 연수강좌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부에서는 ▲Mucositis management ; 2014 update(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Renewed hope for Neuropathy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 ▲New drugs of bone metastasis(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 ▲Interventional pain management(마취통증의학과 신화용 교수)등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강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강좌 사전등록은 오는 17일(월)까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02-6299-3242) 또는 메일(cau.hmo@gmail.com)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0.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하려면 꼼꼼하게 비교해야!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491  
본문: [쿠키 생활] 봄철에는 꽃가루, 진드기 등에 의해 알레르기 발생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번으로 잘 낫지 않는 질환일 경우 두 세 번은 기본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때 드는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 하락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br/>가계부 지출항목에서 의료비지출 항목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후에 집중적으로 높다. 현재 뿐 만 아니라 노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 하는 편이다.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은 확인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험 가입 시 참고해보자.<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1.txt

제목: [사설] 희귀난치병 환자 돌보는데 국가가 나서야  
날짜: 201403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022  
본문: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50대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집에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했다. 2007년에는 전남 담양에서 한 아버지가 유전성 희귀난치병으로 20년간 투병한 아들의 산소호흡기를 떼 숨지게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생명을 제 손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br/>식물인간이나 희귀난치병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말 그대로 생지옥에 산다. 치료는커녕 무슨 병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다 병명을 알게 돼도 치료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절망한다. 치료방법이 있더라도 막대한 비용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희귀난치병을 앓는 아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나라고 기도했다는 한 어머니의 고백은 난치병 환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어떤지를 웅변한다.<br/>보건복지부가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지만 새 발의 피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7000여종의 희귀질환 중 134종만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는다니 제도가 있으나 마나다. 국내 희귀질환자는 13만여명에 달하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는 중증 희귀난치성 질병 환자는 17%인 2만3000명이다.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br/>의료비 지원 대상 환자라도 실제 지원을 받기까지 수개월∼수년씩 걸리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쳐부수어야 할 ‘암덩어리 규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br/>100조원 복지시대라지만 정작 벼랑 끝에 내몰려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복지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희귀난치질환도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처럼 국가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 희귀난치질환을 가족에게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나 다름없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2.txt

제목: 고대안암병원, ‘유방암 수술 후 림프부종 관리’ 건강강좌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178  
본문: [쿠키 건강] 고대병원(안암)은 오는 3월 20일(목) 오후 2시 8층 중회의실에서 유방암 환자를 위한 ‘수술 후 림프부종 관리’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br/><br/>재활의학과 손현주 치료사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암환자 및 가족과 관심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의료는 무료다. (문의: 02-920-6569, 6670)<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3.txt

제목: 강북삼성병원 소화기암센터, 최규용 센터장 진료 시작  
날짜: 201403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152  
본문: [쿠키 건강]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최근 소화기암센터 센터장에 최규용 전(前) 대한소화기학회 회장을 선임하고 지난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br/><br/>소화기암센터장에 선임된 최규용 교수는 국내 소화기내과전문의 최초로 해외에서 대장 분야를 연수한 제1호 의사로 알려져 있으며, 대장내시경 1인 시술법과 수면내시경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보급해 왔다.<br/><br/>지난 2003년 대한장연구학회를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2005~2007), 대한소화기학회 회장(2010~2011) 등을 맡아 국내 소화기학 분야 연구를 선도해 왔다. 최 교수는 내시경 기술 발달이 늦어 진단의 어려움이 있었던 2004년, 국내 최초로 이중풍선 소장 내시경을 도입·실시해 소장 분야의 진단과 수술 발전을 이끌기도 했다.<br/><br/>최규용 교수는 소화기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부회장, 고문 이사로 활동고 있다.<br/><br/>최 교수 “<span class='quot0'>지난해 4월 문을 연 강북삼성병원 소화기암센터는 소화기 질환과 암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센터</span>”라며 “<span class='quot0'>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서비스, 진료, 수술, 관리에서 모두 감동을 주는 센터로 만들겠다</span>”는 포부를 전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개원… 심장병·뇌졸중·혈관병만 전문적 진료  
날짜: 2014031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7100000043  
본문: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심장질환과 뇌졸중, 혈관질환만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심장뇌혈관병원을 새로 개원했다고 16일 밝혔다.<br/>이 병원은 심장센터와 혈관센터, 뇌졸중센터, 이미징(영상의학)센터, 예방재활센터, 운영지원실 등 5개 센터와 1지원실 체제로 운영된다.<br/>초대 심장뇌혈관병원장으로는 현재 미국 메이오클리닉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재건(62·사진) 교수를 선임했다.<br/>오재건 병원장은 심장 분야에서 350여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으며, 6개 언어로 번역된 심장초음파의 교과서 ‘더 에코 매뉴얼(The Echo Manual)’을 출판하는 등 심장혈관질환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br/>한국인 최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카데믹서치 기준 전 세계 100대 심장의학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한 오 병원장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합진료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br/>특히 심장과 뇌졸중, 혈관질환을 극복하는 한국형 치료 모델을 새로이 정립할 예정이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으면서 발병 원인도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r/>이들 질환을 동시에 앓거나 다른 한쪽이 뒤따라 발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11∼2012년,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뇌졸중 환자 4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뇌혈관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비율이 무려 25.1%에 달했을 정도다.<br/>삼성서울병원은 이렇게 심장 및 뇌졸중, 혈관 질환을 각각 또는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예방, 진료, 재활과 교육까지 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br/>오 병원장은 “<span class='quot0'>개원 준비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환자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만을 고민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우리나라 심장, 뇌졸중, 혈관 치료의 새 패러다임을 보여준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5.txt

제목: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 제일병원서 새 생명 얻어  
날짜: 201403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6100000013  
본문: [쿠키 건강]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3세가 국내 한 병원의 도움으로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고 새로운 삶을 되찾았다.<br/><br/>제일병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고려인 3세인 이주영(34)씨가 제일병원과 고려인협회 도움으로 고국인 한국 땅에서 새 삶을 되찾았다고 밝혔다.<br/><br/>이주영씨는 지난해 지속된 복통으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고 두 자녀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주영씨는 수술을 미룬 채 암이 커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br/><br/>그러던 중 제일병원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2월 24일 암 치료를 위해 고국땅을 밟았다. 제일병원은 지난해 5월 고려인협회와 MOU체결을 통해 고려인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과 의뢰환자 지원시스템 마련했다.<br/><br/>지난 3월 4일 큰 수술을 마친 이씨는 “제일병원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됐다”며 “나 하나만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네 식구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다. 자궁암 명의이신 김태진 교수님을 비롯해 모든 의료진이 가족처럼 대해준 덕에 힘든 것 없이 아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치료 받고 있다”며 “전문화된 제일병원의 각 종 의료장비와 시설, 서비스 등 선진 의료시스템을 경험하면서 100% 완치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br/><br/>이주영씨를 위로하기 위해 최근 병원을 방문한 고려인협회 신 브로니슬라브 회장 역시 “<span class='quot0'>한국의 많은 병원들이 여러 질환에 대한 무료수술을 지원해 주지만, 이처럼 많은 치료비용이 드는 암 환자를 지원해 주는 일은 매우 드문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고려인으로써 동족의 따듯한 정과 자부심과 느끼해 준 제일병원에 감사드린다</span>”고 인사를 전했다.<br/><br/>김태경 제일병원 행정부원장은 “<span class='quot1'>여러 협력 유관기관들이 제일병원을 믿고 꾸준히 의뢰환자를 보내는 등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상호 교류 확대해 나갈 계획</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6.txt

제목: 암환자에 동반된 당뇨병, 사망률 높인다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227  
본문: ‘당뇨병학(Diabetologia)’ 3월 13일 온라인판에 관련 연구 발표<br/><br/>[쿠키 건강] 당뇨병과 암이 동반된 환자들의 사망률이 당뇨병이 동반되지 않은 이들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스테노당뇨병센터 Kristina Ranc 박사팀은 당뇨병학(Diabetologia) 3월 13일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에서 "경구용 약물이나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모든 당뇨병 동반 암환자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연구는 덴마크에서 1995~2009년 암으로 진단받은 42만61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4만2205명은 암으로 진단받은 시기에 당뇨병을 동반하고 있었다. 총 사망률을 평가한 결과 당뇨병을 동반한 이들에서 사망률이 높았고, 이는 경구용 약물과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br/><br/>특히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 진단을 받은 시기에 당뇨병 유병기간이 2년인 이들을 분석했을 때, 암으로 진단받은 후 1년째 사망률은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이들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비동반군 대비 3.7배, 여성은 4.4배 높았고, 진단 9년째 평가에서는 각각 5배, 6.5배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br/><br/>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암으로 진단받은 시점에서 공격적인 당뇨병 치료를 받은 이들의 예후와 생존률이 더 좋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결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c 박사는 "경구용 약물이나 인슐린으로 당뇨병 치료를 받은 암환자들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종양내과와 내분비내과 간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치료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br/><br/>한편, 그는 "당뇨병 동반 암 환자들의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률이 높고, 암 관련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 암 진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고, 혈당 강하젼략이 암 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세형 기자 sh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7.txt

제목: 암 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요령, 꼼꼼히 체크!  
날짜: 201403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375  
본문: [쿠키 생활] 의료비 부담은 비단 실손보험만은 아니다. 최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잦은 음주, 스트레스도 암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을 때도 비용이 든다.<br/>통계청에 의하면 걸리는 두려움이 12%에 비해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62%로 높게 나타났다.<br/>암은 검사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에도 암 보험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암 보험 가입 시 알아야할 가입요령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요령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br/>암 이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P씨(36세)는 지인의 암 투병을 보고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얘기에 하루빨리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갱신형 암 보험이었다.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가 부담이 안갈 것 같아 가입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험료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br/>따라서 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한다면 소비자들도 손해없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증가한다.<br/>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 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8.txt

제목: 암 진단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요령, 꼼꼼히 체크!  
날짜: 201403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377  
본문: [쿠키 생활] 의료비 부담은 비단 실손보험만은 아니다. 최근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잦은 음주, 스트레스도 암을 유발시킨다고 한다. 때문에 암 진단을 받을 때도 비용이 든다.<br/>통계청에 의하면 걸리는 두려움이 12%에 비해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62%로 높게 나타났다.<br/>암은 검사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치료비, 수술비용 발생에다가 발병 이후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상실의 대비에도 암 보험 가입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암 보험 가입 시 알아야할 가입요령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보험료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요령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br/>암 이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에 전문가들도 암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br/>P씨(36세)는 지인의 암 투병을 보고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얘기에 하루빨리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갱신형 암 보험이었다.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가 부담이 안갈 것 같아 가입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험료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br/>따라서 암 보험에 가입하려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한다면 소비자들도 손해없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증가한다.<br/>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 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59.txt

제목: 유방절제 졸리, 두 번째 수술 검토… “다른 수술 위해 조언 구할 것”  
날짜: 20140314  
기자: 박지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061  
본문: 지난해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큰 화제가 된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39·사진)가 두 번째 암 예방 수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br/>졸리는 최근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다른 수술(난소 절제술)이 남아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받은 유방절제수술에 관한 질문엔 “매우 행복하다.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고 답했다.<br/>졸리는 지난해 5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내 의학적 선택’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 인자를 발견, 암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당시 그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됐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50%였다. 졸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나서 난 적극적으로 대처하리라 마음먹었다”며 절제술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다. 졸리의 어머니는 난소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2007년 57세의 나이로 숨졌다.<br/>한편 졸리는 영화 ‘말레피센트’ 개봉을 앞두고 있다. 5월 개봉하는 이 작품은 프랑스 동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졸리는 마녀 말레피센트 역을 연기했다.<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0.txt

제목: [살며 사랑하며-이혜진] 움직임이 우리를 살릴 거야  
날짜: 2014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016  
본문: “나는 오랫동안 예술을 알리기 위해 삶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뒤로 나는 삶을 알리기 위해 예술을 이용해 왔습니다.” 올해로 94세, 전설적인 무용·안무가이자 세계 현대무용계에서 최고령자이기도 한 안나 할프린의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대목이다. 지난 주말 바로 안나 할프린의 인성교육과 예술치유에 대한 소박하지만 배움과 공감으로 충만했던 페스티벌이 열렸다.<br/>안나는 마사 그레이엄, 도리스 험프리 등과 함께 현대무용의 부흥기를 이끌었지만 그들과는 방향이 달랐다. 뛰어난 누군가의 움직임을 획일적으로 따라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으며, 테크닉 이전에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본질적이 움직임에 보다 관심이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양한 예술가, 철학자들과 교류하며 예술 실험을 펼쳐나갔다. 그러던 중 암이 발병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몸의 각 부분과 그곳의 움직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br/>그때부터 사람들이 춤, 움직임의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이를 다시 예술적 방식으로 변형시키는 일에 몰두하며 일반인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안나는 고령에도 샌프란시스코 타말파 인스티튜트를 통해 여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br/>안나의 영향이었을까. 수줍은 듯한 아저씨들의 그루브, 머리는 이미 반백이지만 움직임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저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춤이 아닌 내 안의 나를 의식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댄스 한판이 펼쳐졌다. 갓난아이를 안은 엄마가 덩실덩실 리듬을 타자 아기 얼굴에 까르르 미소가 번진다.<br/>신이 나 팔다리를 흔들고 고개를 까딱이는 아이를 보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잊고 나의 몸과 마음을 가두고 살았던가 싶었다. 생존을 위한 긴장,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도시생활의 소란스러움에 점령당한 몸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br/>학창시절 율동을 해야 하는 때면 늘 제일 못 따라하는 ‘구멍’이 되어 혼나기 일쑤였고, 춤추는 곳에 가면 두 다리가 딱 바닥에 붙은 듯 엉거주춤 불안해하던 나였다. 일을 하며 다른 이들의 심경을 헤아리는 데 바쁘다 보니 늘 긴장한 병사 같았다.<br/>땀이 고일 만큼 춤을 추고 나니 온 몸으로 생생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순간 벽면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에서 미소 띤 안나 할프린이 이렇게 속삭여왔다. “너만의 춤을 춰봐. 마음껏, 자유롭게!”<br/>이혜진(해냄출판사 편집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1.txt

제목: 병원비 부담,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꼼꼼히 확인!  
날짜: 201403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376  
본문: [쿠키 생활] 가계부 지출항목에서 의료비지출 항목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후에 집중적으로 높다. 현재 뿐 만 아니라 노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를 비롯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번으로 잘 낫지 않는 질환일 경우 두 세 번은 기본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때 드는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 하락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 하는 편이다.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은 확인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험 가입시 참고해보자.<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2.txt

제목: 병원비 부담,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꼼꼼히 확인!  
날짜: 201403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374  
본문: [쿠키 생활] 가계부 지출항목에서 의료비지출 항목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후에 집중적으로 높다. 현재 뿐 만 아니라 노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를 비롯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번으로 잘 낫지 않는 질환일 경우 두 세 번은 기본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때 드는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 하락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 하는 편이다.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은 확인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험 가입시 참고해보자.<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3.txt

제목: 사랑, 궁금하니… 달콤쌉싸름한 뮤지컬 ‘미친 연애’ ‘시간에…’ 나란히 개봉  
날짜: 20140314  
기자: 전정희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4100000041  
본문: 사랑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실수와 불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늘 희극적이라는 것이다. ‘오만과 편견’의 영국작가 제인 오스틴의 말이다.<br/>사랑에는 개론이 없다. 어떻게 다가오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 설령 불행한 결말이라도 세월 저만치에서 보면 그마저도 행복했다.<br/>봄을 맞는 연인에게 소품 같은 뮤지컬 두 편이 나란히 걸렸다. ‘미친 연애’와 ‘시간에…’로 ‘달콤쌉싸름한’ 사랑에 대한 헌사다. ‘미친 연애’는 사랑 전, ‘시간에…’는 사랑 후에 대한 세레나데이다.<br/>‘미친 연애’는 인기 블로거의 연애 상담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소위 연애 멘토로 불리는 최정의 ‘미친 연애’ 블로그는 누적 방문객만 3200만명. 이 파워 블로거는 ‘30일 안에 내 사람 만들기’ ‘당신이 아직 혼자인 진짜 이유’ ‘남자의 속마음, 여자의 속마음’ 등의 책을 통해서도 연애 에세이 최강자임을 알렸다.<br/>뮤지컬 ‘미친 연애’는 파워 블로거 그 남자 최정을 무대로 이끌어낸 로맨틱 코미디. 최정은 학창시절부터 99명의 여자에게 차이며 ‘탁구공’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다. 그리고 ‘여신’이라고 여겼던 100번째 만난 박다은마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기로 했다”라며 떠나자 카사노바가 되기로 결심한다.<br/>‘내 심장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진정으로 소중한 미친 사랑을 하고 싶다’<br/>객석을 향한 최정의 이 같은 세레나데는 봄바람에 살랑대는 여심을 흔든다. 최정 역에 서세권 홍서준 김지강이 캐스팅됐다. 각기 ‘요덕스토리’ ‘위대한 캐츠비’ ‘맨 오브 라만차’가 대표작. 박다은 역은 ‘아이다’의 박수진, ‘왕세자 실종사건’의 정유하이다. 홍민우 극본·연출. 14일부터 4월 27일까지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소월아트홀(070-8224-8383).<br/>‘시간에…’는 지난해 말 개봉돼 300만명을 모았던 ‘어바웃 타임’ 같은 시간여행을 소재로 한 이야기. 2008년 제2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최우수작품상 및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3년 만의 귀환 무대이다.<br/>사귄 지 2년째 되는 날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지수, 평생을 ‘예스맨’으로 살아오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은 명운, 하루하루 소매치기로 살던 중 훔친 지갑에서 1등으로 당첨된 로또를 발견한 현실. 이 세 인물은 한 번도 제 삶을 펴보지 못한 쓸쓸한 청춘들이다.<br/>이들에게 만약 세 번의 시간여행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삶엔 ‘사랑 후’가 있다. 무덤덤해진 연인과의 사랑을 되살리고 싶은 지수,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 명운, 어릴 적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현실. 그들은 세월 저만치의 이별에 가슴 아파한다. 배우 서지주 이홍재 지혜연이 여행자들이다.<br/>제작사 뮤지컬스토리 측은 “객석과 닿을 듯한 소극장 무대의 생생함으로 관객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열린극장에서 5월 25일까지(02-2299-0723).<br/>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4.txt

제목: 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가드’ 도입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188  
본문: 미국 엑세스사와 국내 판권 계약… 암환자 대상 임상 유일제품<br/><br/>[쿠키 건강] 한미약품이 항암보조제로 쓰이는 구내염 치료제를 도입한다.<br/><br/>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엑세스사와 구내염치료제 ‘뮤가드(MuGard)’의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시판허가 절차를 밟는다고 13일 밝혔다.<br/><br/><br/><br/>뮤가드는 암 환자 치료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을 통해 치료 및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항암제 투여 또는 방사선 치료를 받는 암 환자들은 입 안 또는 목 안의 점막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돼 입이 마르거나 허는 증상이 동반된다.<br/><br/>이 제품은 무향무취의 가글제로 사용이 간편하고 암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국 두경부암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치료군의 통증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궤양성 구강 점막염 증상 완화 및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br/><br/>또 뮤가드는 항암보조용 외에도 일반 구내염, 발치 등 다양한 적응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br/><br/>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그동안 국내에서 상용화된 구내염치료제는 암 환자 대상의 임상자료가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으로 입증된 뮤가드를 통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스티븐 루한더 엑세스사 회장은 “한국 제약시장의 선두인 한미약품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력으로 경쟁력을 갖춘 한미약품이 뮤가드의 한국시장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br/><br/>한편, 1988년에 설립된 엑세스사는 미국 나스닥 장외증시 상장사로 항암제 및 항암 보조 치료제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회사이다. 뮤가드 외 천연비타민 B12의 흡수 기전을 기반으로 한 나노 고분자 전달 기술 등을 개발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5.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28일, ‘암 진료·연구 현황’ 내용 학술 심포지엄 열어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351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원장 노동영)은 오는 28일 암병원 2층 서성환홀에서 ‘Toward world leading cancer hospital’ 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br/>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암병원 의료진을 비롯해 각 분야 권위자가 좌장 및 발표자로 참여한다. 특히 심포지엄은 국내 암 진료 및 연구 현황을 실제적으로 접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br/><br/>심포지엄은 ▲간암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임상강좌 시리즈 ▲부인암·위암·췌장/담도암 및 종양내과 관련 서울대학교암병원의 우수 연구 성과 발표 ▲세계 선도의 암병원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 ▲임상의학과 기초과학 간 연구협력 사례 발표 등 네 개의 세션과 14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br/><br/>노동영 원장은 “<span class='quot0'>서울대암병원은 2011년 개원부터 매년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암 관련 지식 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의과학계가 이룬 성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6.txt

제목: 앤젤리나 졸리, "유방절제수술 외에 다른 암 예방 수술도 고려 중"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251  
본문: [쿠키 연예]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두 번째 암 예방 수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졸리는 지난해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수술과 재건 수술을 받은 바 있다.<br/>졸리는 최근 미국 연예매체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 끝에 “아직 다른 수술(난소 절제술)이 남아 있다”며 “다음 단계를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br/>그는 지난해 받은 유방절제수술에 대한 질문에 “내 결정에 매우 행복하고 훌륭한 의사를 만난 것도 매우 행운이었다”고 답했다.<br/>졸리는 지난해 5월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 인자를 발견하고 암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br/>당시 그는 BRCA1으로 알려진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였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50%였다. 그의 어머니도 난소암으로 10년 가까이 투병하다 숨졌다. 이모도 지난해 유방암으로 사망했다.<br/>졸리는 동화 ‘숲 속의 공주’를 리메이크한 디즈니의 신작 ‘말레피센트’에서 마녀 말레피센트 역을 맡아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7.txt

제목: 30~40대 여성 또래 남성보다 많이 앓는 질병은?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193  
본문: [쿠키 건강] 사회와 가정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30~40대 여성들. 그들의 파워가 막강하다. 나날이 주목받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여성 건강’은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우리 몸이 보내오는 건강 ‘신호’를 체크해야 여성 건강이 보인다.<br/><br/>◇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방광염= 방광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잘 생긴다. 그 까닭은 여성의 요도 길이가 3~4cm로 남성과 비교하면 매우 짧아 외부의 세균이 방광으로 침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여성의 요도 주위는 남성과 달리 부드러운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관계 때 애무나 성기를 삽입할 때 요도 주위가 잘 다치며 쉽게 자극된다. 또 여성의 요도는 항문과도 가까워 대장균 등에 의해 쉽게 감염될 수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br/><br/>남성들이 비뇨기과를 찾는 횟수보다 여성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일이 더 많은 데는 이유가 있다. 이처럼 여성 생식기의 특이한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이다. 남성 생식기는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어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며, 깨끗이 씻어 내기도 쉽다. 반면 여성 생식기는 몸안에 함몰돼 있다. 흔히 소설에서 여성의 음모를 수풀로, 생식기를 늪이나 계곡으로 표현하듯 여성의 생식기는 늪처럼 분비물이 고이면 잘 배출되지 않고 항상 습한 상태다. 여러 잡균에 감염되기 쉽고 곰팡이류가 자라기 좋은 환경인 셈이다. 여성에게 생식기 관련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br/><br/>◇남성보다 심한 철분 손실, 빈혈도 심해= 남성은 대체로 암이나 심장병 등 심각한 질병으로 위협받으며 굵고 짧게 살아가는 반면, 여성은 관절염, 당뇨, 갑상선 질환을 비롯한 내분비 질환 등 비교적 병세는 가볍지만 오랜 시간 고통받는 병으로 인해 서서히 시들어 간다. 그런 면에서 여성에게 흔한 것이 빈혈이다. 빈혈은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로, 신체 장기의 산소 부족과 에너지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br/><br/>빈혈의 근본 원인은 대개 적혈구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철분이 부족해서다. 그런데 남성은 철분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위장관 출혈이나 암 등으로 비교적 드물지만, 여성은 매월 생리로 인한 철분 손실이 크므로 빈혈이 될 가능성이 항상 높다. 30~40대 가임기 여성의 20%가 월경과다증으로 빈혈의 위험이 가중되고, 젊은 여성들은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4명 중 1명꼴로 빈혈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갑상선암, 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주요 질환= 갑상선암으로 한 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4만6549명이다. 국내 최대 암 환자 그룹이 됐다. 초음파로 갑상선을 검사하는 경우가 늘면서 발견하는 암도 늘어나는 것이다. 그중 약 80%가 여성이다. 40대 여성들이 은근히 많다. 유방암 환자는 2008년 2만 명에서 3년 만에 2만6000여 명으로 늘었다. 한국의 유방암은 40대에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유방암은 40대부터 철저히 조기 검진해야 한다. 한편 서구에서는 60대, 70대로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다.<br/><br/>자궁경부암은 국내에서 한 해 3800~4000명 정도 걸린다. 주로 성생활이 활발한 30대에 HPV에 감염돼 40대 중후반에 생기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60대에 잘 생긴다. 하지만 요즘은 성관계 시작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미혼 여성의 성생활도 활발해 30대 초반에도 자궁경부암 발생이 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정기 암 검진을 받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암인데도, 젊은 여성은 암이 커지고 나서 뒤늦게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br/><br/>◇예쁜 하이힐, 발 건강에는 안 좋아= 각선미와 옷맵시를 살려주는 하이힐을 즐겨 신는 여성들에게는 무지외반증이 복병이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가락이 좁은 앞쪽으로 강하게 쏠리는데, 이로 인해 발가락이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인대가 수축한 채로 굳어서 생기는 질병이 무지외반증이다. 오래 서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지정맥류도 조심해야 한다. 이는 다리의 정맥 혈관이 피부 밖으로 튀어나와 보이는 것을 말한다. 다리나 발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올라오지 못해 정맥에 피가 고이고 늘어나는 병이다. 처음에는 다리가 좀 피곤하고 무거워졌다는 느낌이지만, 진행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깨는 경우도 흔하다.<br/><br/>하지정맥류는 남성에 비하면 여성에게 두 배나 많다. 여성은 혈액 순환을 돕는 다리 근육량이 적어 다리 혈관에 피가 고이기 쉽고, 임신이나 생리 주기 호르몬의 영향 등으로 판막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 영향이 크지만,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 오래 서서 일하는 여성들은 다리 근육을 자주 움직여주고, 잘 때는 다리를 베개에 올려놓고 자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이외에도 30~40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은 류머티즘 관절염, 우울증 등이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30세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8.txt

제목: 청호나이스, ‘제1회 물 사랑 교실’ 개최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290  
본문: [쿠키 생활] 청호나이스가 물과 건강을 주제로 한 ‘제1회 물 사랑 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br/>‘물 사랑 교실’은 먹는 물의 중요성과 건강을 주제로 한 열린 강좌로 이번 제1회 물 사랑 교실에선 이대목동병원 주웅 교수의 ‘암 예방을 위한 하버드식 건강법’과 먹는 물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br/>‘물 사랑 교실’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에 위치한 청호나이스 본사 11층 은산홀에서 진행된다. 참석자 전원에겐 3만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화장품과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가 지급된다.<br/>무료로 진행되는 청호나이스 주최 ‘제1회 물 사랑 교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물 사랑 교실에 대한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청호나이스 홈페이지(www.chungho.co.kr) 또는 전화(02-3019-5296)로 하면 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신민우 기자 smw@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69.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 출범, 심근경색·뇌졸중·혈관질환 치료율 높인다  
날짜: 201403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3100000323  
본문: [쿠키 건강] “<span class='quot0'>삼성서울병원의 심장뇌혈관병원’은 ‘환자행복’을 위한 진료체계혁신의 최종산물이며 통합치료가 불가피한 심장·뇌·혈관질환에 대해 가장 이상적인 치료모델이다.</span>”<br/><br/>송재훈 삼성서울병원 의료원장(사진 좌측)은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장뇌혈관병원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br/><br/>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발병 원인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br/><br/>이에 삼성서울병원의 심장뇌혈관병원은 기존 다섯 개의 센터(심장센터, 뇌졸중센터, 혈관센터, 이미징센터, 예방재활센터)를 통합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첫 진료부터 협진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br/><br/>특히 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심장 혹은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되면 그 즉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진다. 일례로 1주일 이내 발생한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환자는 신속 뇌졸중 클리닉을 통해 그 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br/><br/>이에 대해 송 원장은 “<span class='quot1'>심장 및 뇌졸중, 혈관 질환을 각각 또는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예방, 진료, 재활과 교육까지 통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진료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span>”라고 말했다.<br/><br/>한편 초대 심장뇌혈관병원장은 현재 메이요클리닉 순환기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재건 교수(사진 우측)가 맡았다.<br/><br/>오재건 교수는 심장 분야에서 350여 편의 국제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으며, 6개 언어로 번역된 심장초음파의 교과서 ‘The Echo Manual’를 출판하는 등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br/><br/>초대 심장뇌혈관병원장을 맡게된 오재건 교수는 “<span class='quot2'>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병원의 진료체계는 본래 질환에 대한 치료성과를 높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질환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심장, 뇌졸중, 혈관 치료의 새 이정표가 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0.txt

제목: 미국 USPSTF “멀티비타민 심혈관·암 예방 근거 없다” 결론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412  
본문: 관련 권고문 미국 내과학저널(AIM)에 실어<br/><br/>[쿠키 건강] 미국 예방서비스테스크포스(USPSTF)가 멀티비타민에 대해 심혈관 또는 암 예방효과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미국내과학회저널(AIM)에 실었다.<br/><br/>그동안 비타민은 유용성이 있다는 연구와 없다는 연구가 혼재돼 있었는데 이번 저널 게재를 계기로 없다는 것으로 확정 결론을 낸 셈이다.<br/><br/>USPSTF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또는 미네랄 보충제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타민, 멀티비타민 또는 미네랄 등이 심혈관 예방 또는 암을 예방해준다는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타카로틴 보충제와 비타민 E는 혜택과 위험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br/><br/>USPSTF는 베타카로틴 보충제의 경우 흡연자의 암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험이 이득보다 더 컸으며, 비타민 E 보충제 또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암, 또는 사망률면에서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했다.<br/><br/>이같은 결론에 따라 USPSTF는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이나 비티민 E 보충제를 복용하는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1.txt

제목: 심신이 지친 엄마를 위한 ‘힐링 뷰티’ 캠페인 인기  
날짜: 201403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432  
본문: [쿠키 생활] 여성이라면 누구나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속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주부들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자신을 가꾸기 힘들어지고 자신감을 잃기 쉽다.<br/>특히 아이를 낳은 후 사회활동이 단절된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들은 환경렘��?岵?무기력증과 허무함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투병한 여성 환자들 역시 갑작스런 외적 변화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심신이 지친 여성들을 위해 최근 기업들은 마음을 힐링하고 외모를 가꾸어주는 ‘힐링 뷰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br/>◆자신을 가꾸기 힘든 엄마에게 ‘스드메’ 선물하는 ‘베페렐라’ 프로젝트 <br/>여성으로서 언제나 아름답고 싶은 마음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국제 임신출산육아용품 전시회(베페 베이비페어) 주최사인 베페는 임신 및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젝트 ‘베페렐라’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3명을 선정해 베이비 사진 전문 스튜디오 ‘베이비 파스텔’에서 사진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이하 스드메)서비스를 제공하고 엄마들이 선호하는 10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선물로 증정한다.<br/>‘3월의 베페렐라’로 선정된 박주현씨는 “<span class='quot0'>아이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 외모에 신경 쓰거나 오랫동안 외출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span>”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br/> ◆베페, 3월의 베페렐라 박주현씨 <br/>베페는 오는 20일까지 ‘임신, 행복 그리고 변화’라는 주제로 4월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에 ‘베페렐라’로 선정된 3명에게는 ‘스드메’ 서비스가 제공되며, 100만 원 상당의 무스텔라 '임산부&베이비 스킨케어' 풀 패키지와 키디 카시트 '릴렉스 프로'를 선물로 증정한다. 참가 희망자는 베페 홈페이지(http://www.befe.c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자는 3월 21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br/>◆경력 단절 여성에게 ‘환한 얼굴’ 선물하는 뷰티 캠페인 <br/>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이 단절된 경단녀들도 적절한 우울증 예방이 필요하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랑콤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환한 얼굴, 밝은 마음, 아름다운 미래’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진행한다.<br/>랑콤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경력 단절 여성 대상 뷰티 클래스를 진행했으며, 캠페인 웹사이트(app.lancomekorea.co.kr/womens-day)에서 재취업 희망 여성의 사연을 받아 매달 10명에게 개인별 맞춤 심리분석 책인 ‘내마음보고서’를 전달한다. 더불어 오는 16일까지 재취업 중인 예비 워킹맘을 응원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br/> ◆여성암 환자에게 아름다움 전하는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 <br/>오랜 투병 생활 중인 여성들 역시 갑작스러운 외적 변화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외모 변화로 고통받는 여성암 환자에게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캠페인이다.<br/>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 포털사이트 (http://makeupyourlife.amorepacific.com)에서 1:1 메이크업 카운셀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암 환우들을 위한 셀프 뷰티 가이드’를 제공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캠페인에 아모레 카운셀러 및 교육강사 50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2.txt

제목: 한양대구리병원, ‘암 예방과 조기검진’ 건강강좌 열어  
날짜: 201403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170  
본문: [쿠키 건강]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김경헌)은 지난 7일 구리보건소에서 ‘암 예방과 조기검진’ 주제의 건강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좌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br/><br/>강좌에서 원영웅 한양대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몸에 있는 어떤 세포가 죽지 않고 과도하게 자라서 같은 세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덩어리가 되면 이것이 종양이다. 이 종양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그것이 바로 암이다”라면서 “암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원 교수는 “암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 CT, MRI, PET-CT 등이 있는데 검사비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암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 검사 방법마다 검사비도 다르고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맞는 올바른 검사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특히 최근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원영웅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의학으로 혈액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단지 암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혈액검사를 통해 재발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면서 오직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100% 암의 확정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한편, 한양대구리병원은 2011년 6월부터 매월 건강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4일에는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성윤 교수가 강사로 나서 ‘우리아이 성조숙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3.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20일, 암경험자 만성병 관리 건강강좌  
날짜: 201403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309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어린이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암 경험자가 잘 걸리는 만성병 관리하기’ 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br/><br/>이날 강좌에서는 가정의학과 최호천 교수가 ▲암 치료 후 잘 동반되는 만성병은 무엇인가요? ▲암 종별로 잘 발생하는 만성질환이 있나요? ▲동반된 만성질환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암 치료 후 만성병이 합병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br/><br/>강의 후, 질의 응답시간이 마련됐으며,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문의: 02-2072-0077, 0088)<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4.txt

제목: 아프리카 대륙,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 배출  
날짜: 201403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493  
본문: [쿠키 국제] 아프리카가 2030년까지 전 세계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고 최근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가 지적했다.<br/>프랑스에서 발간된 이 보고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유입으로 석탄과 땔감의 소비가 늘어나 아프리카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입자의 5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AFP 통신이 11일 전했다.<br/>지난 2005년 아프리카 대륙이 배출한 대기 오염 유발 인자는 5%의 이산화황과 산화질소, 유기 탄소(20%), 블랙카본(10%), 일산화탄소(10%), 비메탄계 탄화수소(10%) 등이었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 공동 연구진이 밝혔다.<br/>연구진은 “<span class='quot0'>규제가 따르지 않으면, 2030년에 이르러 아프리카에서 공해 배출량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공해 입자는 자동차 휘발유와 디젤, 오토바이 연료, 난방과 조리를 위한 연료, 석탄, 땔감, 동물분뇨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span>”고 설명했다.<br/>또 “아프리카 인구가 2100년까지 세계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광산이나 유전, 그 밖의 산업 종사자들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대륙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br/>연구진은 서부와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륜자동차를 덜 이용해야 하고,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남부 아프리카에선 석탄 사용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혈관과 폐에 침입해 천식과 알레르기,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 입자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암 유발 물질로 분류됐다. WHO는 매년 2백만 명이 실내외에서 오염된 미세 입자를 흡입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5.txt

제목: 아산의학상 서판길·이경수 교수 등 선정  
날짜: 2014031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067  
본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1일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62) 울산과학기술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의학부문)와 이경수(58) 성균관의대 영상의학과 교수(임상의학부문)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br/>서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 간 신호전달 개념과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규명하는 데, 이 교수는 영상의학 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병기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각각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젊은의학자부문에는 고재원(35)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와 박덕우(42) 울산의대 심장내과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6.txt

제목: 교육정보 수집 제한… 경기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날짜: 201403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374  
본문: [쿠키 사회] 금융기관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 교육정보 수집 규제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교육정보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br/>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사전에 막고자 교육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목적 외 이용 등을 제한해 정보주체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다.<br/>조례안에 따르면 각급 기관은 분야별 책임자와 취급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br/>교육감은 매년 교육정보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교육정보 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br/>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정보 주체들을 대상으로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병행한다.<br/>매달 교육정보 인권보호의 날(세 번째 수요일 검토)을 지정해 운영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br/>암호화돼 관리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정보와 달리,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기 초마다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이뤄져 왔다.<br/>학생명부 작성과 돌봄교실 신청 때 주민등록번호,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 때 이메일과 연락처, 서포터스 선발 때 교육경력, 가정환경조사 때 학부모 직업·직장·재산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이 대표적이다.<br/>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 없이 강사인력 모집이나 수당지급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br/>도교육청은 조례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보주체 사전 동의, 수집·이용 목적과 기간 명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 수집, 제3자 제공 고지, 업무용 PC 보안성 강화,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담은 ‘적법한 업무처리를 위한 교육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각급학교와 기관에 통보했다.<br/>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7.txt

제목: 진주 운석 또 발견… 이번에는 4.1㎏  
날짜: 201403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2100000357  
본문: [쿠퀴 사회] 경남 진주에서 또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br/>지난 11일 오후 4시30분쯤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중촌마을 박상덕(80)씨의 밭에서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암석이 발견했으며 12일 오전 이 암석을 공개했다.<br/>암석이 발견된 곳은 지난 10일 운석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암석(가로 18㎝, 세로 14㎝, 높이 12㎝, 무게 9.36㎏)이 발견된 대곡면 단목리에서 4㎞ 떨어진 곳이다.<br/>박씨는 “<span class='quot0'>11일 오후 밭을 둘러보다가 평소 보지 못한 돌덩어리가 있어 면사무소에 신고했다</span>”고 말했다.<br/>박씨가 발견한 암석은 가로·세로 각각 15㎝, 높이 17㎝ 정도에 무게가 4.1㎏으로 간이 측정됐다. 암석은 타원형의 둥그스름한 모습으로 표면은 탄 것처럼 시커먼 색깔을 띠고 있다. 박씨는 이 암석을 극지연구소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br/>한편 진주에서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떨어진 같은 시간대에 곳곳에서 별똥별을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진주 암석이 발견된 전날인 지난 9일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창원과 진해, 거창, 함양, 산청에서도 운석과 관련해 모두 다섯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신고자들은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고, 지진이 난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br/>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8.txt

제목: 오는 17일, ‘신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 세미나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319  
본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발표<br/><br/>[쿠키 건강] 국내 암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지상세포를 활용한 암 백신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br/><br/>이와 관련 한국ACC바이오는 일본 전이·재발암 치료병원인 아베종양내과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박사)을 초청해 ‘신(新)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를 주제로 오는 17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br/><br/>‘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이 지난해 열린 제17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에서 전이·재발암 환자 74.4%에게서 효과를 거뒀다고 밝힌 치료방식이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 연구팀은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총 6회 실시했다. 그 결과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 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 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이란 성과를 얻었다. 이는 치료 사전·사후 각각 영상진단과 종양마커검사, 암 관련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알아낸 결과다.<br/><br/>이 항암면역치료의 핵심은 개인별 유전자형 검사와 HLA-항원 검사, 암 종류별 종양마커 기능검 사 등을 통해 기존 치료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개인별 암세포의 특징이나 항암제에 대한 내성, 암세포로 발전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해 보다 정확한 치료와 재발 및 전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지금까지 인체 내 1% 미만인 수지상세포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3시간의 성분채혈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이 같은 불편함을 해결했다</span>”고 설명했다.<br/><br/>이어 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여,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가 이 표식을 가진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span>”며 “<span class='quot1'>정상세포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 치료에 효과적</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암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함께 활용했다. WT1 펩타이드는 1번부터 449번까지 있으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헬퍼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하여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아베종양내과는 매번 소량만 채혈해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함으로써 치료효과를 떨어뜨리는 기존 동결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했다.<br/><br/>한편, 아베종양내과는 오는 6월 14일 제18회 국제개별화의료학회(일본 삿포로)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치료 임상연구결과’를 추가로 밝힐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79.txt

제목: 순천향대 부천병원, 25~26일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152  
본문: [쿠키 사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은 ‘제2회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좌 및 식단전시회’를 오는 25~26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br/>행사는 암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건강하고 올바른 식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br/>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식단전시회에서는 25~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밥상, 면역을 올리는 밥상, 빈혈을 예방하는 밥상, 식욕을 돋우는 밥상, 영양을 강화하는 밥상, 암예방 식단 등을 선보인다.<br/>또한 영양관리를 위한 교육 자료가 무료로 제공된다.<br/>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강좌는 오는 26일 오후 2~3시 이 병원 지하 1층 순의홀에서 개최된다. 암환자의 건강관리, 암환자는 어떻게 먹을까요?, 암을 이기는 밥상 등을 주제로 각각 소화기내과 문종호 교수, 종양혈액내과 김현정 교수, 영양팀 임희숙 영양사가 강연한다.<br/>추첨을 통해 10명의 참석자에게 영양보충제품, 무료 영양상담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032-621-5071~2 소화기내과 외래).<br/>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0.txt

제목: [이태형 칼럼] 부활의 증인-C 자매 이야기(1)  
날짜: 2014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13698161  
본문: C자매는 40년 가까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다. 영혼의 선장은 ‘오직 나’일 뿐이었다.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인 그녀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면 청담동 일대를 누비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었다. 독신을 고집했다.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말하는 ‘카르페디엠(이 순간을 즐겨라)’은 그녀의 모토였다.<br/>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카르페디엠’식으로만 살아지는 게 아니었다. 2012년 10월, 그녀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전해부터 가슴에 통증이 왔지만 애써 무시하고 순간을 잡으며 살아나갔다. 8㎝의 암덩어리는 유방을 넘어 폐와 뼈까지 전이됐다. 담당의는 치료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말했다. “너는 집에 가서 유언하라. 네가 살지 못하리라”는 벼락같은 음성을 들은 히스기야와 같이 그녀는 한순간에 죽음을 준비하는 말기암 환자가 되어버렸다.<br/>이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준 한 언니가 있었다. 그 언니는 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해”라고 말했다. 그것이 성공이요, 행복이며 정답이라고 했다. 애써 그 이야기를 무시했었다. 새로운 주인은 필요 없었기에. 암에 대해 의사는 포기했지만 언니는 단호했다. “너, 죽지 않아. 반드시 살아. 죽어도 살아. 부활의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br/>다른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 언니와 함께 교회 공동체들은 생면부지의 C자매를 위해 중보기도에 들어갔다. 언니는 전화로 기도하는 상황을 알려주기도 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기도의 효능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다. 1, 2차 항암치료를 받을 때 죽을 것같이 힘들었었는데 3차 항암치료는 별 무리 없이 받게 됐다. ‘기도의 힘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br/>어느 토요일, 언니가 출석하는 지방의 교회 찬양예배에 나갔다. 2시간 넘는 예배시간을 견디기 힘들었다. 목사님의 설교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도망치듯 나왔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있었다. 인생의 답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만 더 가보자.’ 다음날 주일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석키로 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에서 그 교회가 발행한 소책자를 보았다. 부활책자로 가장 큰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책자를 읽으면서 갑자기 깨달아졌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은혜였다. 예배당에 들어갔다. 갑자기 먼저 와 있는 성도들의 뒤통수에서 환한 빛이 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 ‘아, 여기가 내 집이로구나.’ 어제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던 목사님의 말씀이 콱콱 마음에 박혔다. “<span class='quot0'>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span>”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정답을 찾은 것이다.<br/>정답을 찾은 그때,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다. 암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며, 죽음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전환됐다. 암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찾을 생각조차 못했었던 그녀였다. 암이 정답을 만나게 해줬다. 그래서 암은 선물이었다. 이제 C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존하는 실재가 됐다. 작가 브레넌 매닝은 말했다. “<span class='quot0'>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는 용기를 동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부활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span>”<br/>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thlee@kmib.co.kr<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1.txt

제목: 제13회 보령암학술상 울산의과대학 강윤구 교수 수상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181  
본문: [쿠키 건강]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 시행하고 있는 보령암학술상 제13회 수상자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종양내과 강윤구(사진)교수가 선정됐다.<br/><br/>강 교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연구, 교육을 선도하며 최근 새로 정립된 이 질환에 대한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 됐다. 시상식은 11일 오전 서울대학교 삼성암연구동에서 진행되며 강 교수에게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수여된다.<br/><br/>강 교수는 Korean GIST study group의 회장 및 GOLS(GIST Opinion Leader Summit)의 운영위원으로서 위장관기질종양에 대한 국내 및 국제 연구를 주도했으며, 또한 국제 임상연구들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 새롭고 효과적인 항암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br/><br/>최근에는 이마티닙 및 수니티닙 등 표준치료에 실패한 GIST 환자들에서 다시 이마티닙을 투여하면 위약에 비해 진행의 위험을 50% 감소시킬 수 있음을 위약대조 3상연구인 RIGHT study를 통해 입증하여 Lancet Oncology에 게재했는데, 이로서 모든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서도 이마티닙을 재투여해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br/><br/>또한 논문 68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특히 그 중 1편은 Lancet에, 4편은 Lancet Oncology 등 세계적으로 최정상급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다.<br/><br/>현재 위암에 대한 약물요법에 관한 임상연구, 위암, 간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을 위한 실험실적 연구, 위암, 간암, GIST 환자에서 유전체 분석에 따른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br/><br/>김승호 보령제약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span class='quot0'>강윤구 교수님뿐 아니라, 종양학 분야에서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암정복에 한발짝씩 다가가고 있다</span>”고 말하고 “<span class='quot0'>보령암학술상이 암 연구 활동을 더욱 진작시키고, 격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건강한 사회구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span>”는 바람을 밝혔다.<br/><br/>보령암학술상은 2002년 국내 종양학 분야 연구에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 온 학자들의 업적을 기리고, 국내 종양학 분야의 학술활동을 진작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해 매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를 맞이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2.txt

제목: 제7회 아산의학상 울산과기대 서판길·성균관대 이경수 교수 수상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401  
본문: [쿠키 건강]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수여하는 국내 의학계 최고 권위의 ‘제7회 아산의학상’ 수상자로 서판길(62세,사진 좌측) 울산과기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이경수(57세,사진 우측)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br/><br/>기초의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서판길 교수는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인 세포신호전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암 성장과 전이 과정의 비밀을 밝힌 업적을 높이 평가받았고,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이경수 교수는 영상장비를 이용해 폐암의 조기진단과 암의 진행 상태인 병기 결정을 실용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br/><br/>젊은의학자부문에는 뇌신경세포들을 연결해주는 시냅스의 핵심 분자 메커니즘을 밝혀낸 고재원(35세) 연세대 생명시스템대 교수와 관상동맥질환에서 약물용출성 그물망 시술 후 항혈소판제의 적절한 사용기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박덕우(40세) 울산대 의대 교수가 선정됐다.<br/><br/>기초·임상부문 수상자 서판길, 이경수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3억원이,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 고재원, 박덕우 교수에게는 각각 상금 5천만원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3월 21일(금) 열린다.<br/><br/>한편 ‘아산의학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임상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국내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시상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3.txt

제목: [신간]전립선에 대한 모든 것…‘전립선 바로알기’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259  
본문: [쿠키 건강] 전립선에 대한 올바른 건강정보와 다양한 전립선 질환 정보를 담은 일반인들과 환자 대상의 ‘전립선 바로알기’ 개정판이 출간됐다.<br/>대한전립선학회(회장 유탁근·을지의대 교수)는 최근 전립선 질환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전립선 바로알기(3판)’를 발행하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br/>일반적으로 전립선 질환은 크게 양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으로 나뉜다. 양성전립선비대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80세 이후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유병률을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전립선 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br/>이 책에 따르면 전립선염은 주로 젊은 남성에 발병하여 많은 고통을 주고 있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 남성암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으로 이전보다 많은 환자들이 전립선암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처럼 전립선이 남성건강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립선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br/>특히 전립선이 ‘남성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쳐 병을 키우는 환자들도 많다.<br/>대한전립선학회 측은 “<span class='quot0'>진료 현장에서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한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전립선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다</span>”고 설명했다.<br/>‘전립선 바로알기’ 제3판에서는 전립선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전립선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기 쉽게 담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도 수록돼다. 또한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제시하여 전립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주고 있다.<br/>유탁근 회장은 “<span class='quot1'>전립선 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전립선학회와 동료 비뇨기과 의사들을 통해 다방면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 대부분 중년 이상인 전럽선 질환 환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결론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려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전립선과 전립선 질환에 대한 잘못되거나 부족한 정보에 따른 피해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책을 선보이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br/>이어 정태영 대한전립선학회 간행이사(중앙보훈병원 비뇨기과)는 “<span class='quot2'>이번 3판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좀 더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를 높였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4.txt

제목: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비교추천 체크해야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537  
본문: [쿠키 생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를 비롯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 번으로 잘 낫지 않는 질환일 경우 두 세 번은 기본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때 드는 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 특히 나이가 들면 면역력 하락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기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br/>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이 중 절반이 64세 이후인 노후에 집중적으로 높다. 현재 뿐 만 아니라 노후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 하는 편이다.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은 확인하지만 일반인들이 읽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험 가입시 참고해보자.<br/>우선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따라서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5.txt

제목: 중앙대병원, 제3회 혈액종양내과 연수강좌 개최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420  
본문: [쿠키 건강] 중앙대학교병원은 오는 3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병원 중앙관 4층 강의실에서 ‘제3회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연수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연수강좌는 “Recent Advances in Palliative Care”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연구원 등 Healthcare provider를 위한 연수강좌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br/><br/>1부에서는 ▲Mucositis management ; 2014 update(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 ▲Renewed hope for Neuropathy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 ▲New drugs of bone metastasis(혈액종양내과 김희준 교수) ▲Interventional pain management(마취통증의학과 신화용 교수)등의 강연으로 진행된다.<br/><br/>그리고 2부에서는 ▲Emerging treatment for Delirium & Depression(정신건강의학과 민경준 교수) ▲Geriatric oncology (혈액종양내과 황인규 교수) ▲Social Welfare in cancer patients(사회사업팀 이경은 팀장) ▲Q&A 등의 프로그램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br/><br/>이번 강좌를 준비한 혈액종양내과 장정순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새로운 기술혁신과 분자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것도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에서는 각종 주요 암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현 시점의 표준요법에 대해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되고자 한다</span>”고 전했다.<br/><br/>이번 연수강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3점을 부여하며 강좌 사전등록은 오는 17일(월)까지 중앙대병원 혈액종양내과(02-6299-3242) 또는 메일(cau.hmo@gmail.com)로 신청 또는 문의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6.txt

제목: 국내 의료진, 복강경 위암수술 안전성 세계 최초 입증  
날짜: 20140311  
기자: 한상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395  
본문: 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br/><br/>모든 위암에 관계 없이, 개복 수술과 장기생존률에 차이 없어<br/><br/>[쿠키 건강] 복강경 위암 수술이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고, 수술 합병증과 사망률 등에서 개복 수술과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위암 복강경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 추적 조사한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분당서울대병원 김형호 교수(사진 왼쪽)와 아주대병원 한상욱 교수(오른쪽)는 ‘복강경 위암 수술의 장기 결과’ 논문을 통해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 약 3000명을 장기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br/><br/>연구팀은 1998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위암 치료를 위해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2976명(복강경 위 절제술 1477명, 개복수술 1499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장기 성적을 위암 병기별(1A~3C)로 분석했다.<br/><br/>분석 결과 병기에 관계없이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동일한 생존율을 보임을 확인했다. 또한 수술합병증과 사망률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복강경 위암 수술 안전성 세계 최초 입증<br/><br/>위암 환자에게 복강경 수술이 흔히 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장기 생존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번 연구는 세계 복강경 위암 수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수의 기관이 참여해 모든 병기의 위암에서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br/><br/>이번 연구는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주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김형호)과 아주대병원(한상욱), 동아대병원(김민찬 교수), 신촌세브란스병원(형우진 교수), 여의도성모병원(김욱 교수), 서울대병원(이혁준 교수), 동산병원(류승완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조규석 교수), 서울성모병원(송교영 교수), 전남대병원(류성엽 교수) 등 10개 국내 의료기관이 참여했다.<br/><br/>연구 제1저자인 김형호 교수는 “<span class='quot0'>세계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복강경 위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장기성적에 대해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에서 복강경 위암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다기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세계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고, 장기 생존율에 차이가 없음을 입증함에 따라 복강경 위암 수술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span>”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br/><br/>특히 위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배를 열지 않고 위암을 치료할 수 있는 복강경 수술 도입은 혁신 그 자체였다는 평가다. 개복 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월등히 작아 출혈이나 합병증이 위험이 적은데다, 미용적 측면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br/><br/>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강경 수술이 위암 표준 수술법인 개복 수술의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했다. 전문의마다 안전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다. 개복 수술은 오랜 역사로 그간 많은 연구들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지만, 복강경 수술은 그런 장기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br/><br/>◇해외 연구자들도 주목<br/><br/>이번 연구는 암연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임상종양학회지(Journal of Clinical Oncology)’를 통해 발표됐음,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임상종양 리뷰지(Nat Rev Clin Oncol)’에서도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조명해싸.<br/><br/>미국의 메모리얼 슬로언케터링 암병원(Memorial Sloan-Kettering Center) 비비안 스트롱 교수(Vivian E. Strong)는 임상종양학회지 논설(editorial)을 통해 “한국의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는 잘 분석된 대규모 케이스 사례 연구를 통해 최소 침습적 접근인 복강경 수술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며, 개복 수술과 동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쾌하게 입증했다”며 “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 결과도 매우 기대된다”고 평가했다.<br/><br/>이에 대해 한상욱 교수는 “<span class='quot1'>복강경 수술이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발과 관련된 장기 성적이 없어 복강경 수술에 둘러싼 논란에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span>”며 “<span class='quot1'>한국 의료진에 의해 복강경 위암 수술이 표준술식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span>”고 말했다.<br/><br/>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는 김형호 교수를 총괄 책임연구자로 복강경 위암 수술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임상연구(KLASS-01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이 연구는 국내 16개 병원 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 비용대비효과, 환자 삶의 질, 면역력 그리고 장기생존율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15년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위암에서 복강경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7.txt

제목: 지멘스헬스케어, 유럽영상의학회(ECR)서 첨단 의료장비 선봬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419  
본문: [쿠키 건강] 지멘스 한국법인 헬스케어 부문은(대표 박현구)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6차 유럽영상의학회(ECR: European Congress of Radiology) 학술대회’에서 최신 의료영상 기술과 IT 기술을 선보였다고 11일 밝혔다.<br/><br/>지멘스 헬스케어는 올해 새로운 16-슬라이스 CT 스캐너 소마톰 스콥(Somatom Scope)과 진단의 정확성 및 속도는 한층 높이고 의료영상 촬영시 제한점을 줄인 장비들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br/><br/>◇16-슬라이스 CT 스캐너 ‘소마톰 스콥(Somatom Scope)’ 공개<br/><br/>우선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멘스 헬스케어가 선보인 16-슬라이스 CT 스캐너인 소마톰 스콥(사진)은 임상용 다목적 CT로, eCockpit 기술 패키지를 통해 시스템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높일 수 있는 첨단 기술도 탑재됐다.<br/><br/>이와 함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해 현존 장비 중 가장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또 새로운 절전 기능으로 장비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였으며, 발열량이 적어 동급의 이전 모델과 비교할 때 최고 65%까지 에너지를 절약해 기기 전체 수명도 연장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eCockpit 기술 패키지는 eSleep, eMode, eStart 기능 등이 포함됐으며, 스캐너를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수명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전체 작동 수명 내내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암 검진, 외상 진단, 인터벤션 영상의학, 혈관 촬영 등 여러 임상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br/><br/>◇MRI, 소음과 움직임 잡는 기술<br/><br/>지멘스 헬스케어는 이번 유럽영상의학회에서 환자 움직임에 관계 없이 빠르게 촬영이 가능한 복부 영상촬영 기술과 장비의 소음을 한층 줄인 MRI 기술도 선보였다.<br/><br/>지금까지의 MRI는 연조직의 대비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주로 신경과 근골격 검진에 사용됐는데, 새로 선보인 지멘스 헬스케어의 ‘FREEZEit’은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복부 부위의 동적 측정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장기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조절할 수 없는 환자도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동 및 중환자가 그 대표적인 예다.<br/><br/>또한 지멘스 헬스케어는 MRI 검진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Quiet Suite’를 내놨다. Quiet Suite는 MRI 검진에 최적화된 HF 펄스를 사용해 영상 품질 및 검진 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음을 크게 줄이는 기술이다. FREEZEit과 Quiet Suite는 모두 지멘스 헬스케어 MRI 장비 ‘MAGNETOM Skyra 3T’에서 이용할 수 있다.<br/><br/>◇초음파 영상도 HD 시대, 초음파진단기 ‘HELX Evolution’ 시리즈<br/><br/>새로운 초음파 기술로는 의료진을 배려한 21.5인치 HD 화질의 LCD 모니터로, 이전 모델보다 화면이 60% 더 커진 영상화면을 제공하는 HELX Evolution 시리즈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br/><br/>초음파 애플리케이션 방식인 Virtual Touch IQ(VTIQ)은 ARFI(탄성측정초음파) 영상촬영 기술을 기반으로 유방이나 갑상선 등의 조직 경직도를 각각 수치화해 보여주므로, 조직 내의 이상 증상의 위치와 상태를 더욱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이외에도 지멘스 헬스케어는 새로운 지능형 콘셉트를 적용한 최신 X-레이 시스템인 MAX(Multiple Advances in X-ray)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영상의학과내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화질을 크게 높이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MAX 시스템은 고유한 방식으로 x-레이 디텍터(검출기)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어깨 부상을 당한 환자가 영상 촬영용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면, MAX 시스템이 X-레이 튜브의 정확한 각도를 인식해 촬영조정이 수월해졌다.<br/><br/>박현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지멘스 헬스케어는 매년 영상의학 분야에 새로운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8.txt

제목: 한국로슈 표적치료제 ‘아바스틴’ 보험 급여 적용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306  
본문: [쿠키 건강] 한국로슈는 자사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폴피리(FOLFIRI: Irinotecan, Leucovorin, (infusional) Fluorouracil, 이리노테칸 기반의 화학요법) 병용요법에 대해 지난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됐다고 11일 밝혔다.<br/><br/>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환자들은 아바스틴 투여시 기존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바스틴은 표적치료제로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 정책에 따른 첫 보험 적용 사례로 그 의의가 더욱 크다.<br/><br/>아바스틴은 혈관내피 성장인자(VEGF)를 표적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체의약품으로서,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1차 치료, 그 이후 질병이 진행될 경우 동반 화학요법 교체 후 연속 2차 치료에 효과를 입증하고 국내 승인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이다. 특히 아바스틴?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 유전자 변이 여부에 제한 받지 않고 전반적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br/><br/>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은 국내 발생률 3위, 사망률 4위를 차지하는 암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대장암 발생이 크게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아바스틴 보험 적용에 따라 기존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 되어 기쁘다</span>”고 전했다.<br/><br/>한편, 아바스틴은 전이성 대장암 외에도 유방암, 폐암, 신장암, 뇌종양, 난소암 등 총 6개 암종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89.txt

제목: 한국암웨이, ‘암웨이 프라자 강남점’ 오픈  
날짜: 201403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1100000277  
본문: [쿠키 건강] 한국암웨이는 11일 서초구 반포동에 ‘암웨이 프라자 강남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br/><br/>암웨이 프라자 강남점은 웰니스 1번지 강남에 위치한다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웰니스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결합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웰니스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br/><br/>1,2층 약 2,078m2 규모의 암웨이 프라자 강남점은 쇼핑은 물론 브랜드 체험, 비즈니스 상담, 소규모 미팅 및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멀티 플래그십 스토어 형태로 오픈했다.<br/><br/>‘브랜드 존’인 1층은 암웨이 브랜드의 정체성과 가치, 트렌드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문객들은 암웨이 대표 브랜드인 뉴트리라이트(건강기능식품), 아티스트리(스킨케어), 이스프링(정수기), 엣모스피어(공기청정기), 암웨이 퀸(조리기구) 등의 제품을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정수기 이스프링의 ‘워터 바’ 공간이 대표적이다. 또한, ‘헤리티지 아카이브’에서는 인터렉티브 디지털 월을 통해 암웨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br/><br/>2층은 쇼핑과 비즈니스 공간이 결합되었다. 쇼핑 존인 암웨이 마켓, 파티룸 컨셉의 쿠킹 스튜디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회의실이 준비되어 있다. 새로운 환경과 서비스를 통하여 쇼핑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교육과 미팅의 패러다임 변화를 구현했다는 평가다. 쇼핑 존에서는 암웨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br/><br/>한편 암웨이 프라자는 서울 강남을 포함 부산, 대전, 대구, 강릉, 제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0.txt

제목: [메디컬 뉴스]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개최 外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13686814  
본문: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개최<br/>한국이앤엑스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13∼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전시장에서 제30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4)를 개최한다. ‘행복을 열어가는 스마트한 세상’이란 표어를 내건 이번 전시회엔 국내 510개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독일, 대만, 일본, 스위스, 이탈리아 등 총 38개국 1095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사가 참가해 3만여 점의 첨단 의료기기와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전시한다.<br/>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온코써미아’ 도입<br/>고려대 안산병원은 최근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 ‘온코써미아(Oncothermia)’를 새로 도입,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온열치료는 암 조직에 열에너지를 가하여 암 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암 증식을 억제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br/>‘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전’<br/>건양의대 김안과병원과 전국저시력인연합회는 올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전’을 진행한다. 시각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시 또는 수필로 표현, 응모하면 된다.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부문으로 나뉘는데, 부문별로 상금 50만원의 대상 1명, 상금 30만원의 금상 1명 등 10명씩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김안과병원에서 열린다.<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1.txt

제목: 생일상의 미역국이 다이어트 특효식품…알긴산과 미네랄 많아 다이어트에 효과적  
날짜: 201403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000230  
본문: [쿠키 생활]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생일날에나 챙겨먹었던 미역국을 더 자주 먹어야 할 것 같다. 미역, 다시마 등 갈조류가 다이어트 특효식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br/>보통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체중조절 효과를 느낄 수 있다.<br/>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다이어트에 적극 활용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br/>최근 영국 뉴캐슬 대학 윌콕스 박사 등은 국제 학술저널인 푸드캐미스트리를 통해 해조류에 함유된 알긴산이 췌장 리파아제 효소의 활동을 저해시켜 지방흡수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br/>췌장 리파아제 효소는 중성지방을 분해시켜 이를 우리 몸이 흡수하도록 만드는데, 이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면 지방세포가 흡수되지 않고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br/>이뿐만이 아니다. 국립 타이완 대학의 우 박사 등은 최근 국제저널인 마린드럭에 발표한 논문에서 갈조류의 색소인 후코산틴이 신진대사의 속도를 향상시켜 건강에 치명적인 백색지방을 태운다고 설명했다.<br/>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많이 먹을 경우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 흡수가 저해되며, 이와 더불어 몸에 축적된 백색지방이 제거된다는 것. 그야말로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 식품으로 손색이 없다.<br/>실제로 최근 미역과 다시마 등 갈조류를 이용한 다이어트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br/>이미 국내 유명 제약사들이 앞 다투어 알긴산을 활용한 제품을 내놓고 있다.<br/>휴온스가 내놓은 알룬, JW중외신약의 제이메이드정, 삼진제약의 액티브슬림 등이 현재 출시된 대표적인 알긴산 다이어트 의약품으로 꼽힌다.<br/>식품회사들 역시 미역과 다시마를 활용한 제품들 출시에 적극적이다.<br/>해림후코이단이 선보인 ‘미역귀인(美力貴人)’은 미역귀(미역포자엽), 뿌리다시마, 김, 파래 등 100% 국내산 해조류를 분말로 만들어 즉석에서 스프처럼 마실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br/>또 여기에 암 세포를 자살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미역귀 추출 후코이단까지 첨가하여 가치를 더 높였다.<br/>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센터 정일훈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안전하고 부담 없이 체중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해조류를 가까이 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특히 갈조류에는 알긴산, 후코이단, 후코산틴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span>”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2.txt

제목: 육아와 가사, 직장생활 병행 3040 여성, 본인 건강엔 소홀  
날짜: 201403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000105  
본문: [쿠키 건강]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30~40대 여성들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놓였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위상이 높아지고 활동은 더욱 두드러졌으나 육아와 가사, 이와 병행하는 직장생활 등으로 정작 자신의 건강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탓이다.<br/><br/>◇육아, 가사노동, 직장생활에 떠밀려 건강은 뒷전= 이처럼 30~40대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노동, 혹은 직장생활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하기 십상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가운데 30대 여성들의 수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대가 같은 30대 남성의 수진율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br/><br/>◇우울감, 스트레스 심하고 건강검진조차 소홀=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 하는 30~40대 전업주부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보다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결과가 있다. 전업주부가 직장에 다니는 기혼 여성에 비해 양육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우울증의 정도가 더 심했다. 육아와 가사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는 가운데, 특별한 변화 없이 반복하는 일상에 무료함을 느끼고 사회생활에 도태되는 건 아닌지 하는 조바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단조롭고 일상적인 주부의 생활환경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흔한 증세로 간주돼 경고증상이 무시되기 일쑤인 데다.<br/><br/>또 대부분 직장인이 1년 혹은 2년마다 직장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달리, 전업주부들은 이 같은 정기 검진 체계에서도 사실상 소외돼 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되더라도 육아와 가사로 바쁘거나 무료 건강검진의 효과를 불신해 응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직장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으나, 전업주부의 경우는 이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다.<br/><br/>한편,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라고 해서 전업주부와 별반 다른 건 없다. 직장생활 외에 육아와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인 경우가 태반이고, 특히 슈퍼맘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은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슈퍼맘은 예상이 빗나갈 경우 더 많은 낙담과 좌절을 느끼기 쉽다. 이럴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쫓겨 자신의 건강은 더욱 소홀하기 십상이다.<br/><br/>◇30세부터 건강검진 시작, 생활습관 개선도 필요=<br/><br/>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육아와 출산에 가사노동, 직장생활까지 도맡고 있는 30,40대 여성들이야말로 건강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건강검진 계획을 세워야 한다</span>”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자신의 건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br/><br/>30대부터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의 암 질환과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은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표 질병이다. 다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만 의존하기보다 30세부터 건강검진 계획을 미리 세워 관리를 시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br/><br/>전문가들은 30세부터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35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은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40세 이상의 여성은 매년 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다.<br/><br/>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1'>지방과 탄수화물, 당류 섭취는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3.txt

제목: 세계적 오페라 감독 모르티에 타계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13686837  
본문: 세계적인 오페라 감독이자 기획가인 벨기에의 제라르 모르티에(70)가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벨기에 언론이 9일 보도했다.<br/>탁월한 연출력과 기획력으로 수많은 오페라 극장의 감독과 세계 유명 음악축제의 기획을 맡아온 모르티에는 암이 발병하면서 지난해 9월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극장의 예술 감독직을 사임했다.<br/>헨트 출신의 모르티에는 1981년부터 10년간 브뤼셀의 라모네 왕립극장을 이끌면서 유럽 변방의 이 극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오스트리아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사후 잘츠부르크 축제의 총감독을 맡아 명성을 얻었다. 이 밖에 파리 국립오페라단 총감독, 바이로이트 축제 공동예술감독을 지냈다. 파딜라 라난 벨기에 문화장관은 “<span class='quot0'>모르티에의 파격적이고 대담한 연출은 그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주었다</span>”고 평가했다.<br/>이광형 선임기자<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4.txt

제목: 진료카드에 ‘종양’ 못본 군의관, 병사는 지금…7개월간 방치, 4기 판정 받아  
날짜: 201403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000026  
본문: [쿠키 사회] 군의관이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중요 문구를 지나쳐 종양을 앓고 있는 병사가 수개월 간 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군의관은 중징계를 받게 됐다.<br/>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br/>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br/>병세 악화에 대해 확인 조사를 실시한 국군의무사령부는 수개월 전 군의관의 실수로 K병장이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이었던 지난해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실시한 X-레이 촬영 결과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br/>하지만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내려 버렸다.<br/>만약 B 대위가 카드를 제대로 봤다면 K 병장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br/>국군의무사령부는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br/>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br/>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span>”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5.txt

제목: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1부) 자살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아라] 5. 코드 F의 공포  
날짜: 2014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1010013686820  
본문: “정신병자 낙인찍힐라” 자살시도자·가족, 상담조차 거부<br/>“<span class='quot0'>됐으니까 내 진료기록 모두 삭제해 주세요.</span>”<br/>지난해 말 강원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주부 A씨(43)가 실려 왔다. 재혼한 남편과 자식 대학 진학 문제로 싸우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자 다량의 진통제를 복용한 상태였다.<br/>의료진은 서둘러 A씨의 위를 세척한 뒤 3일간 입원토록 했다. A씨가 자살을 시도한 다음 날 상담사(사례관리자)가 찾아가 정신의학과 외래진료를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이혼 경력과 불안정한 재혼 생활 등에 비춰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다.<br/>상담사의 간곡한 설득에 A씨는 마음을 열고 서비스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퇴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그는 병원에 찾아가 의료진에게 “<span class='quot0'>치료 프로그램이고 뭐고 내 진료기록을 모두 삭제해 달라</span>”고 요청했다.<br/>“<span class='quot0'>정신의학과 상담을 하면 진료기록이 남는다던데, 이 좁은 동네에서 ‘정신병자’라고 소문나면 병원이 책임질 겁니까?</span>” 워낙 완강한 A씨 태도에 상담사도 결국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br/>아버지와 딸은 치료를 반대했다 <br/>“<span class='quot0'>차라리 나가서 사라져 버려.</span>”<br/>지난해 10월 경기도의 대학병원 응급실에 김승현(가명·18)군이 실려 왔다. 소화제·진통제 등 집에 있던 알약을 무작정 입에 털어 넣었다. 두 달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승현이에게 심기가 불편했던 아버지가 이날 폭언을 했다. 하필 여자친구도 비슷한 시각에 이별을 통보했다. 승현이가 자살을 시도한 건 두 달 사이 벌써 두 번째였다.<br/>승현이는 의료진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 의료진은 승현이를 퇴원 후에도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아버지였다. 그는 “내 아들을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라”며 버럭 화를 냈다. 이어 “우리 아들은 잠시 청소년기 방황을 한 것이지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한의원에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겠다”며 상담마저 거부한 채 승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br/>심장병을 앓고 있던 최순덕(가명·70) 할머니는 가족들이 자살 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였다. 홀로 아파트에 살던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한 달 치 심장병 약을 한꺼번에 먹었다. 응급조치로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할머니는 삶에 애착이 없었다.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들에게 “약에 의존해 연명해 봤자 자식들에게 짐만 될 것 같다”고 여러 번 털어놓았다.<br/>상담사들은 할머니를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장기간 관리하고 치료하려 했다. 할머니도 딸 같은 상담사들의 진심어린 말에 결국 동의했지만 정작 딸의 반대가 거셌다. 할머니의 딸은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실수로 많이 먹은 것이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니 상관 말라. 정신 병력이 남으면 안 된다”며 치료를 거부했다.<br/>할머니를 치료했던 대학병원 관계자는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span class='quot1'>어머니의 우울증이 드러나면 자식들이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비난받을까 봐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span>”며 “<span class='quot1'>자살 시도를 했다고 모두 정신과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진료를 받는 것이 옳다</span>”고 말했다.<br/>코드 F의 공포 <br/>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정신의학과 질환의 진료기록에 표기되는 ‘F’란 글자다. 정신의학과에서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료를 청구할 때 ‘F’란 분류코드가 붙는다. 이를 ‘정신병자 낙인’으로 생각해 진료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다. 자살 시도자는 일시적으로 신체가 회복돼도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회적 ‘낙인’ 탓에 치료도 받아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많다.<br/>인제대 부설 일산백병원이 지난해 9∼12월 응급실에 온 자살 시도자 91명을 상대로 ‘자살 시도 이후 정신건강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난다. 45명은 ‘자살 시도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28명은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거부감’을 꼽았다. 여전히 자살을 질병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치료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원주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민성호 교수도 “<span class='quot2'>‘F코드’를 색안경 끼고 보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보험상의 불이익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자살 시도 이후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으려 해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F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지불한 의료비는 보상 받을 수 없다. 자살 시도는 질병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나 입원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보험 등 관련이 없는 보험에 대해서도 ‘F코드’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가 가입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다.<br/>일산백병원 박은진 교수는 “<span class='quot3'>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제때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지 않으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살 고위험군’</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보험업계 등의 어긋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6.txt

제목: 부담되는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가입조건 꼼꼼하게 체크  
날짜: 201403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9100000116  
본문: [쿠키 생활] 암 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중단되었는데, 최근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 암 발생율이 증가하면서 다시금 가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손해율이 발생하는 만큼 보험사에서도 보장내용 등을 축소 등이 있어 암 보험 가입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br/>예전에 비해 암 완치율이 높아졌다고 하나, 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환경오염문제와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 암 발생율은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하고 있다.<br/>통계청에 의하면 암에 걸리는 두려움이 12%에 비해 암에 걸렸을 때 발생되는 비용부담이 62%로 높게 나타났다.<br/>최근에는 이러한 암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지만, 암 보험 종류가 다양한데다가 보상내용에 어려움이 있어 스스로 비교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br/>P씨(36세)는 지인의 암 투병을 보고 비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자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얘기에 하루빨리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갱신형 암 보험이었다. 가입할 때 저렴한 보험료가 부담이 안갈 것 같아 가입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보험료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유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br/>암에 가입할 때는 가입요령만 잘 확인한다면 손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비교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 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가량 증가한다.<br/>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7.txt

제목: [손에 잡히는 책] 암 치료 시장의 FDA-제약사 검은 카르텔  
날짜: 201403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090  
본문: 암 없는 세상/G. 에드워드 그리핀(포북·2만8000원)<br/>오늘날 의료기술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 3명 중 1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암 연구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매년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끝내 암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지고 있다.<br/>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그 이유를 값싸고 항암 효과도 좋은 ‘레이어트릴’과 같은 고농도 비타민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기에 나선 암 치료 시장의 검은 카르텔 구조에서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말하자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국립암연구소(NCI)와 거대 제약사, 심지어 정치권력까지 끌어들여 복잡한 카르텔을 형성, 사익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큰 돈 안 들이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비타민요법, 레이어트릴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레이어트릴은 살구와 복숭아씨에서 추출한 성분 ‘아미그달린’(비타민17)을 농축시켜 만든 주사제다. 미국과 멕시코, 독일 등에서 대체의학요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존 비어드 메모리얼재단 과학팀장 에른스트 그렙스 주니어 박사가 1970년대 초 명명했다.<br/>저자는 최근 40여 년간의 의·과학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암 치료 시 레이어트릴을 활용하면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암 권력으로 변모한 FDA와 거대 제약사들의 상업적 음모를 무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석혜미 옮김.<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8.txt

제목: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암, 알아야 이긴다’ 무료강좌  
날짜: 201403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241  
본문: [쿠키 건강]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은 3월 12일(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4층 화상회의실에서 ‘암, 알아야 이긴다’를 주제로 일반인 대상 공개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정주영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암 검진의 올바른 이해’와 ‘국가 암 검진 안내’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비롯한 상담시간이 마련돼있다.<br/><br/>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므로 정기검진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암 예방에서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강의는 암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문의: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 031-8086-2395)<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199.txt

제목: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채식보다 육식 즐기는데 식습관 바꿔야 하나  
날짜: 201403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007  
본문: Q 저는 채식보다 육식을 즐깁니다.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가리지 않고 육식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보면 이것저것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요.<br/>A 전문가들의 견해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있는데 육식을 통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야채와 함께 먹어야 하고 식생활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br/>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기술한 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유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br/>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교도 문화에 에워싸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br/>먹을 것과 금할 것을 지시하신 것도 사랑과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은 이교도들의 제물용이거나,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몸에 좋고 유익한 것이라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육식중심의 식습관을 균형식단으로 바꾸라고 권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식단에도 자유를 주셨습니다.<br/>단 신앙생활과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음주는 결국 사람을 술의 노예로 만들고 중독에 빠지면 패가망신을 자초합니다. 담배의 경우는 암의 원인을 제공하고 간접흡연에 의한 가족의 건강도 망치게 됩니다. 과도한 육식은 동맥경화의 원인을 만들고 체내 지방축적으로 인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br/>편식도 금해야 하지만 과식이나 과음도 피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이유로 몬도가네와 유사한 식탐이나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전한 식문화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과식보다는 소식이, 편식보다는 균형식이 건강한 삶을 지속시킵니다.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근검절약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며 최상의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br/>●신앙생활 중 궁금한 점을 jj46923@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목사가 상담해 드립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0.txt

제목: ‘탈모’ 괜찮아 졌다고? 다시 돌아왔다…재발 위험 높아 주의  
날짜: 201403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252  
본문: [쿠키 건강]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은 누구나 소망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예기치 못한질병이 발병하기도 하고, 완치 되었다고 믿는 순간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br/><br/>특히 암과 같은 병의 재발은 환자에게 첫 발병을 인지하는 순간보다 더욱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긴다. 한 번 경험해 본 만큼 치료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기 때문이다.<br/><br/>병의 재발에 대한 공포는 비단 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무려 1000만 인구에 육박하며,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탈모 역시 재발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의 탈모는 20~30대 젊은 층은 물론, 여성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br/><br/>이규호 모아름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은 “<span class='quot0'>탈모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한 번 시작하면 완치가 매우까다롭다는 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탈모의 원인이나 유형에 따라 재발 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관리 여부에 따라 비교적 쉽게개선이 되는 것 같다가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금방 재발이 되기도 하는 등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치료가 중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원형탈모, 염증성 탈모, 견인성 탈모’는 재발 위험 높아<br/><br/>비교적 재발 위험이 높은탈모 유형은 원형탈모, 두부백선이나 모낭충으로 인한염증성탈모, 외부 압력으로 인한 견인성 탈모가 대표적이다.<br/><br/>▲변수 많고 예측 어려워 재발 위험 가장 높은 ‘원형탈모’=원형탈모는 이 중에서도 가장 재발이 잦은 탈모 유형이다.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는 말 그대로 원형의 모양으로 모발이 빠지는 증상이다. 보통 특별한 자각 증상없이 다양한 크기의 원형으로 모발이 빠지며, 원형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생기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등 변수가 많다.<br/><br/>특히 환자의 50%가첫 발병 후 1년 내 재발을 경험할 정도로 재발확률이 높은 편이다. 만약탈모 부위의 크기가 작고, 개수도 많지 않다면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 그러나 탈모 부위의 개수가 늘어나고, 원형의 크기 역시 점점 커진다면 심한 경우, 전신 탈모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br/><br/>▲염증 개선 없으면 끝없이 반복되는 ‘염증성 탈모’=두부백선이나 두피 모낭충으로 인한 염증성 탈모 역시 재발이 쉽다. 두부백선은 두피의 모낭과 그 주위 피부에 피부 사상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두부백선이 생기면 심한 가려움증과 염증이 나타난다.<br/><br/>반면 두피 모낭충은 일종의 진드기로 피부표면 1㎠에 10마리 이상이면 심각한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탈모 환자의 94%에서 모낭충이 발견됐다는 임상보고도 있을 만큼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은모낭 깊숙한 곳에서모근을 갉아먹어 염증과 탈모를 유발한다.<br/><br/>이처럼 두부백선이나 두피 모낭충으로 인해 잦은 염증이 원인으로 작용한 염증성 탈모는 염증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탈모가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다.<br/><br/>▲못된 습관, 잦은 미용술로 두피 손상 반복되는 ‘견인성 탈모’=모발을 세게 잡아당겨 묶거나 뽑는 습관이나과도한 미용술 등 외부 압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견인성 탈모 역시 재발이 잦다. 보통 모발은 3~5년간 성장기에 있다 1~3개월간 휴지기 생활을 반복하는데 성장기의 모발은 모근을 지탱하는 모낭에 싸여 영양을 공급 받아 자란다.<br/><br/>그런데 이 때 모발이 장시간 견인 압력을 받으면 모발을 지탱하던 모낭도 같이 뜯겨져 모근과 모낭이 분리되면서 빠지는 견인성 탈모가 나타난다. 잦은 파마나 염색 등 미용술로 인해 모발과 두피가 화학적인 손상을 입는 경우 역시 견인성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견인성 탈모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탈모를 유발하는 습관이나 화학적 손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높다.<br/><br/>◇탈모 유형에 적합한 치료가 최우선…증상 호전돼고 방심은 금물<br/><br/>이처럼 탈모는 원인과 유형에 따라 재발 위험이 높고, 완치가 매우 까다로운 질환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와 각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탈모 증상이 시작됐다면 탈모 전문병원을 찾아 자신의 탈모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탈모 유형과 원인에 따라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br/><br/>만약 원형탈모라면 모낭주위 염증 억제를 목표로 국소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미녹시딜 등 바르는 약을이용한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다.<br/><br/>반면, 염증성 탈모라면 염증 개선이 우선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고, 염증 부위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켜야 한다. 견인성 탈모는 모발을 뽑거나 꽉 조이는 등의습관 개선이 우선이다. 더불어 잦은 미용술로 인한 손상이 원인이라면 한 동안 파마나 염색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br/><br/>이규호 원장은 “<span class='quot0'>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질환인 만큼 만약 탈모 징조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더불어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만큼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1.txt

제목: 국립암센터 유창환 촉탁의, ‘최종욱 최우수 논문상’ 수상  
날짜: 201403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7100000230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 두경부종양클리닉 유창환(사진) 촉탁의는가 최근 하이원 리조트에서 열린 제45회 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최종욱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br/><br/>이번 논문은 두경부암의 치료 수준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 비암성 건강인자(Non-cancer health event)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생존율의 향상을 위한 환자들의 비암성 건강 위협 요인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제시함해, 종양학의 권위 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에 게재됐다.<br/><br/>대한갑상선두경부외과학회는 매년 당해 두경부외과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 중에 학술적 가치와 공헌도가 높은 최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2.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PET-CT검사 1만 명 돌파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71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PET-CT 검사를 받은 환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br/><br/>이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는 2월 26일 오후 PET-CT 검사실에서 1만 번째로 PET-CT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게 선물과 꽃다발을 증정했다.<br/><br/>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0년 7월 PET-CT 1기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 환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2012년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PET-CT 1기를 추가 도입했다.<br/><br/>PET-CT는 95%의 정확도로 조기암을 발견하며 암 병변의 위치 파악과 조직검사 위치 설정에도 이용되고, 방사선 치료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한 암 이외에도 치매를 포함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도 이용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3.txt

제목: 전이성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보험급여 적용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63  
본문: [쿠키 건강] 전이성대장암 및 두경부암 표적항암제인 한국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가 2014년 3월 5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br/><br/>이는 정부와 얼비툭스 판매사인 머크 주식회사의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얼비툭스는 국내에서 2005년 희귀의약품으로서 처음 승인된 이후 10년 만에 보험 급여가 된 것이다.<br/><br/><br/><br/>얼비툭스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전이성 대장암 표적항암제 중 유일하게 생체지표가 있는 표적항암제로 투여 전에 유전자 검사(Biomarker test)를 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맞춤 치료제이다. FIRE-3 연구에 따르면 얼비툭스는 KRAS 유전자 변이가 없는 환자에게 있어 다른 표적항암제보다 생존 기간 연장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br/><br/>얼비툭스는 두경부암에서 유일하게 승인을 받은 표적항암제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을 입증한 약제이기도 하다.<br/><br/>얼비툭스의 국내 판매사인 머크는 “2005년 희귀의약품으로서 국내에서 처음 승인된 이후 10년 만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전이성 대장암 및 두경부암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존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4.txt

제목: 비타민C, 노인성 질환-암 치료 예방 효과는?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68  
본문: 제4회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 개최… 3월 25일 국내외 석학 연구 발표<br/><br/>[쿠키 건강] 지난 해부터 불었던 비타민C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C의 항산화 효능에 주목하면서 바람직한 비타민C 복용법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국내외 의료, 의약, 식품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비타민C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br/><br/>제4회 비타민C 국제 심포지엄이 ‘비타민C와 고령화 사회의 웰니스’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의료, 의약, 식품 분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비타민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br/><br/>‘비타민C의 노인성 질환 예방 효과’, ‘비타민 C의 암 치료 및 관리 효과’, ‘비타민C의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피오나 해리슨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에드거 밀러 3세 교수 등 해외 석학들과 서울대학교 의대 이왕재 교수, 대한비타민연구회 염창환 회장 등이 연자로 참여한다.<br/><br/>행사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프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한국식품과학회 홈페이지(www.kosfost.or.kr)에서 사전등록 후 참석할 수 있다.<br/><br/>한편 한국식품과학회와 광동제약은 비타민C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과 높은 필수 성분임을 알리기 위해 2008년부터 국내외 석학을 초청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br/><br/>2008년 제1회 행사는 ‘생활질환과 비타민C의 건강보호 효과’, 2010년 제2회는 ‘비타민C의 면역증진과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2012년 제3회는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비타민 C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5.txt

제목: 아스트라제네카-보건산업진흥원,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 시행  
날짜: 201403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82  
본문: [쿠키 건강]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항암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Oncology Research Program)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연구진의 12개 항암분야 초기 중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항암분야는 한국 환자들의 다양한 의학적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분야 중 하나로, 암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사망원인 1위 또한 암이다.<br/><br/>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암환자 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21만8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암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br/><br/>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항암 분야 연구진으로부터 초기 연구 프로젝트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연구 주제는 항암 분야의 중개연구에 관한 것으로, 지원자는 4월 15일까지 연구개발 예비 제안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br/><br/>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개발팀(Oncology iMed)은 예비 제안서를 검토, 심사해 5월 중 4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연구진은 해당 기관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연구지원금을 받게 되며, 아스트라제네카의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의 일환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 중 일부를 전임상 실험에 활용할 수 있다.<br/><br/>또한 우수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개발팀의 기술자문 및 협력, 전세계 아스트라제네카 항암 연구 과학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br/><br/>정기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번 프로그램이 국내 연구진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한 한국 연구진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span>”고 밝혔다.<br/><br/>리즈 채트윈(Liz Chatwin)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암은 한국 내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한국과 전 세계 암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약개발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도 한국 보건의료계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한국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프로세스 초기단계부터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br/><br/>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06년 글로벌제약사 최초로 보건복지부와 ‘연구개발 및 임상교류에 대한 양해각서’을 체결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국내 연구진의 기초 연구를 지원한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Virtual Research Institute)’ 등을 진행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두 번째 MOU, ‘Partnering with Korea’를 체결해 한국 보건의료계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지속해 오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6.txt

제목: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1부) 자살 바이러스의 백신을 찾아라] 3.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날짜: 20140306  
기자: 전수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083  
본문: 병들고 늙은 아버지는 쓸쓸하게 ‘마지막 선택’을 했다<br/>지난해 6월 김한영(가명·76)씨는 위암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이다. 수술은 잘됐다. 그냥 혼자 지내고 싶었는데 아들은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고집했다. 맞벌이하는 며느리가 아침저녁 열심히 상을 차렸다. 싫은 내색도 별로 없었다. 다만 밥상머리에서 아들 내외와 일곱 살 손녀는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다. 꼬장꼬장하던 김씨가 한껏 부드럽게 “아범은 요즘 고되지 않냐” “아가, 유치원은 재미있니” 말을 붙여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는 법이 없었다.<br/>권위 있는 아버지<br/>그래도 밥 먹을 때가 나았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녀가 유치원에 가면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았다. 1주일에 한 번 병원 가는 날만 바깥 공기를 쐬었다. 그 밖에는 통증을 잊기 위해 억지로 자다 깨는 게 전부였다. 점심은 거르는 날이 더 많았다. 커다란 식탁에 홀로 밥을 차리는 게 처량해서다.<br/>그에게도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1977년 전기 기술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을 벌어 자식 셋을 대학에 보냈다. 젊음을 바쳐 부족함 없이 키운 자식들에게 늘 당당했다. ‘권위 있는 아버지’란 점이 마음에 들었다. 자식들이 용돈을 건네면 “그 돈 없어도 거뜬하다”고 큰소리를 쳤다.<br/>처량함을 느끼기 시작한 건 아내에게 당뇨 합병증이 찾아온 2009년부터다. 벌어둔 돈은 병원비로 금방 빠져나갔다. 자식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다 보니 생활이 점점 궁핍해졌다. 자존심에 차마 ‘돈 좀 더 달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간간이 공공근로에 나가 생활비를 보탰다. 이듬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자식들 앞에선 눈물 한 번 보이지 않았다.<br/>아내의 빈자리<br/>아내가 없는 집에 시간이 갈수록 자식들 발길도 뜸해졌다. 주말마다 돌아가며 들르던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더니 아내의 첫 기일이 지나자 명절에도 만나기 힘들어졌다. 딸들이 “노인정에라도 나가 보라” 했지만 김씨는 “청승맞다”며 고집을 피웠다. 암 진단을 받은 뒤론 생각이 복잡해졌다. ‘죽으면 아프지도, 외롭지도, 자식들이 번거롭지도 않겠지….’ 아들집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틈틈이 유서를 썼다.<br/>지난해 9월 석 달 만에 아들집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던 날, 김씨는 점퍼도 벗지 않고 불 꺼진 거실에 주저앉았다. 창 밖에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이날로 삶의 적적함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유서를 꺼내 마지막으로 훑어보고 다시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다.<br/>고개를 돌리자 안방이 보였다. 이부자리에 누워 손짓하던 아내의 앙상한 팔목이 눈에 선하다. 안방에 들어가 낡은 옷장을 열었다. 큰딸 결혼식 때 매려고 백화점까지 가서 장만했던 파란 넥타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넥타이를 안방 문고리에 걸고 매듭을 만드는 손이 떨렸다. ‘여보.’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주름이 무성한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br/>자살 실패에 절망한 노인<br/>그날 오후 8시쯤 김씨는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씨가 돌아온 걸 본 아파트 경비원이 그동안 받아둔 신문을 챙겨 올라간 덕이었다. 김씨는 안방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119 대원은 “<span class='quot0'>3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span>”고 말했다.<br/>자녀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응급실 인턴이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 동의서를 들고 보호자를 찾았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큰딸은 “선생님이 잘못 아셨는데, 우린 이런 것 필요 없다. 우리 아버지는 정신 말짱하고 강인한 분”이라며 오열했다. 자식들은 ‘당당한’ 아버지의 서글픈 내면을 처음 마주했다.<br/>의료진이 자식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낸 건 자정이 다 돼서다. 응급실 인턴이 인적사항부터 자살 시도 상황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당직이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식을 되찾은 김씨를 보러 왔지만 그는 눈물만 흘릴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의료진은 당분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br/>이튿날 아침 일찍 교수가 다시 병실을 찾았다. 우울증 진단이 나왔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 질환, 대인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노인의 전형적인 불안과 우울이었다. 오랜 시간 삶에 회의를 느껴온 김씨는 죽음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 유서도 미리 준비했고 위험한 수단을 택했다. 무엇보다 ‘실패한 자살’에 크게 절망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체계적 자살 위험평가’에 따라 김씨 상태를 가장 위험한 단계인 ‘상(上)’으로 표기했다.<br/>다시 생명을 얻으라<br/>진단은 김씨 거주지인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모 자살예방팀장에게 전달됐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많이 힘드셨죠?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병실을 찾은 전 팀장이 인사를 건넸지만 김씨는 한번 힐끗 보곤 벽 쪽으로 돌아누웠다.<br/>전 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span class='quot1'>심리적 어려움으로 응급실 방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있다</span>”며 말을 이었다. 김씨가 “다른 데 알아보라”고 밀어냈지만 전 팀장은 그가 입원한 사흘 내내 병실을 찾아 왜 상담이 필요한지 거듭 설명했다. 반쯤은 귀찮아서, 또 반쯤은 기특해서 김씨는 마지막 날 상담에 동의했다.<br/>전 팀장은 김씨가 퇴원 후 매주 한 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동행했다.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많아서다. 김씨가 “<span class='quot2'>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무슨 치료를 받느냐</span>”며 어깃장을 놓을 때도 전 팀장이 옆에 있었다. 진료 내용을 되짚어주고 처방된 약의 복용법과 부작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병원 가는 날이 아니어도 자주 집에 찾아가 낮잠은 얼마나 자는지, 식사는 잘하는지 챙겼다. 곁눈으로 약봉지가 제때 줄어들고 있는지도 확인했다.<br/>김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전 팀장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젊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서 미안하다”거나 “폐 끼치기 싫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한 얘기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어놓던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10년 전”이라고 고백했다.<br/>이제 전 팀장은 더 이상 외래진료에 동행하지 않는다. 대신 2주에 한 번씩 만나 상담을 한다. 전 팀장의 권유로 자녀들도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간다. 김씨는 “<span class='quot2'>전에는 죽을 생각뿐이었는데 이제 살아보려 한다</span>”며 “<span class='quot2'>전 선생님처럼 나를 돕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볼 작정</span>”이라고 말했다.<br/>“폐 끼치기 싫어” 노인자살률 OECD 1위<br/>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10만명당 자살자 수)은 2000년 34.2명에서 2010년 80.3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같은 기간 22.5명에서 20.9명으로 줄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노인 자살률은 노인 빈곤, 질병의 증가, 핵가족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모두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요인들이다.<br/>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 61세 이상 노인 494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중 2259명이 육체적 질병 문제로, 1361명이 정신과적 문제로 자살을 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7∼2011년 보험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는 더 극명하다. 이 기간에 우울증 환자는 12.4% 증가했는데 80대 이상 환자는 81.9%, 70대 이상은 52.6%나 급격히 늘어났다.<br/>노인의 자살 시도는 성공률이 높아 더 치명적이다. 자살 시도자는 200명 중 1명꼴로 사망하는데 노인은 2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다. 몸이 약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발견도 어렵다. 박기창 횡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3'>노인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자살을 감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span>”고 말했다.<br/>청소년이 주로 ‘복수성’ 자살, 중년층이 ‘회피성’ 자살을 하는 데 비해 노인은 대부분 ‘이타적’ 자살을 한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내가 죽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이 정부 지원을 받을 테니까’ 등의 이유가 많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이구상 팀장은 “<span class='quot4'>노인은 자살 재시도 의지가 강해 정신보건 서비스 거부율이 높은 편</span>”이라며 “<span class='quot4'>특히 80대 이상 남성은 자살률이 우리나라 평균의 7배나 되는 초고위험군이어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7.txt

제목: 노인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 50%로  
날짜: 20140306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6100000134  
본문: 올해 말부터 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환자의 유방재건술에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7월부터 진료비의 50%만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처치·약제 9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br/>우선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주 등 고가 항암제에 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 5%를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은 얼비툭스주의 경우 월 450만원에서 23만원까지 낮아진다. 또 양전자단층촬영(PET), 안구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 영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평생 3개까지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심장 스텐트의 수혜 범위도 확대된다.<br/>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률이 현재 틀니 시술과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된다.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와 치아 부위 등은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8.txt

제목: 암환자, 종양침구학 검증되고 안전한 치료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253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중암암등록본부가 2012년 발표한 ‘2010년 암등록통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만 2,053명으로 지난해보다 98.5% 증가했다.<br/><br/>암생존자 100만명 시대를 넘어 암유병자 110만명에 달한다.<br/><br/>암환자들은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후 지속적이고 주관적인 암 관련 피로(Cancer ? related Fatigue)를 호소한다.<br/><br/>하지만, 수술과 무차별적인 항암제에 의존하는 현대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암 관련 증상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없고, 공격적인 암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해 한방 침치료 등 보완대체의학 치료가 주목받고 있다.<br/><br/>뒤이어 암제로 유발된 골수억제 동물모델에서 침치료가 과립구집락자극인자와 과립대식세포집락자극인자의 분비를 촉진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br/><br/>이후 항암치료 및 수술을 받는 암환자에게 널리 시술됐다. 현재는 미국의 다나파버암센터, MD앤더슨암센터, 존스홉킨스암센터, 메모리얼슬로언-캐터링암센터를 비롯한 미국 전역의 통합 암센터에서 암환자에게 침치료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br/><br/>부산 양한방 통합 암치료기관인 방선휘한의원의 방선휘 박사는 “<span class='quot0'>침치료에 대해 무지한 상당수 의사들의 통념 때문에 많은 암환자들이 침치료를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교육 받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침으로 암을 다스리는 종양침구학은 전 세계 의학계에서 새롭게 각광 받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span>”라고 설명했다.<br/><br/>방선휘 박사는 “종양침구학은 분명 신속하고 검증됐으며, 안전한 치료법이다. 암환자를 위해 더 활발한 처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암 발생률과 암 생존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암 성장을 억제하고 암 관련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한방 면역 항암 치료의 가치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09.txt

제목: 부산 온 종합병원, 지역 암환자 위한 ‘암센터’ 개소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157  
본문: [쿠키 건강] 부산의 온 종합병원(원장 정근)은 지난 3일 암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역 암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암 치료환경 제공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br/><br/>온 종합병원 3층 암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정근 원장과 최경현 암센터장, 뇌종양센터 이동열 원장, 신경센터 노순기 부원장, 갑상선·유방센터 유성목 센터장, 영상의학센터 구봉식 소장,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박정호 과장)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br/><br/>이번 암센터 개소를 위해 온 종합병원은 지난해 5월 부산의료원과 64채널 PET-CT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방사선치료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온 종합병원 암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대학병원 못지않은 원스톱 진료 협력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병원 핵의학과와의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br/><br/>신대병원 암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소화기암 수술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최경현 원장이 암센터장을 맡았다. 또 암센터에는 국내 뇌종양 수술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前) 침례병원장 이동열 신경외과 원장과 함께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로 암수술팀이 구성됐다.<br/><br/>특히 암 병동과 암센터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인력을 상시 배치해, 지역 암 환자들이 불편 없이 원스톱으로 상담과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br/><br/>최경현 암센터장은 “<span class='quot0'>온 종합병원 암센터는 지역의 특화된 병원들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역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보다 편안한 치료환경과 우수한 치료효과는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span>”한다고 강조했다.<br/><br/>이어 정근 원장은 “개원 4주년을 맞아 지역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는 암센터를 개소해 무척 기쁘다”면서 “최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의료계 역시 장비는 물론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지역 환자들을 위한 공유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 한 해는 공유의료의 첫 시발점이 될 암센터의 조기 안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br/><br/>또한 정근 원장은 “<span class='quot1'>이를 통해 암 환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어렵게 찾아가지 않더라도 수준 높은 진단과 수술, 치료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0.txt

제목: 영양 많고 효능 풍성한 버섯!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187  
본문: [쿠키 건강] 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다. 스태미나에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암작용까지 있다는 버섯은 이제 우리 식탁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단골 식품이 된 지 오래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김경민 과장(가정의학전문의)의 도움말을 통해 ‘영양가득 효능 풍성한 버섯’에 대해 알아본다.<br/><br/>◇콜레스테롤 낮추고 항암작용까지<br/><br/>제철에 나는 곡물과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는 것은 건강 상식이다. 버섯은 음력 오뉴월, 즉 고온 다습한 여름이 제철이다. 한겨울인 음력 정월에는 먹기 힘들다.<br/><br/>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겨울에 버섯을 맛보지도 못한 것은 아니다. 정월 대보름의 절식(節食)인 묵은 나물, 즉 ‘진채(陣寀)에는 버섯이 들어간다. 조선시대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정월 대보름엔 버섯·박시나물 말린 것과 콩나물·순무·무 등을 묵혀 먹는데 이를 진채라 한다‘고 쓰여 있다. 일부 지방에선 묵은 나물을 만들 때 들깻가루를 넣어 함께 볶기도 했다.<br/><br/>버섯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는 실험적으로 증명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 학자들은 생표고 100g(마른 것은 50g)을 일주일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0%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br/><br/>또한 버섯은 다이어트에도 유용하다. 버섯의 열량은 100g당 30㎉안팎이다. 녹색 채소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부분 버섯은 수분이 90%이상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먹으면 포만감이 금세 느껴진다. 버섯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변비 예방㎉치료에 유효한 것도 식이섬유 때문이다.<br/><br/>김경민 과장은 “항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나뉜다. 양지와 운지, 상황, 아가리쿠스, 차가버섯 등 수많은 버섯이 암 예방을 표방한다. 이 버섯들의 항암성분으로 기대되는 것도 베타글루칸이다.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암세포 등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br/><br/>일본은 30년 전부터 버섯에서 베타글루칸을 추출한 뒤 이를 항암제로 사용해 왔다. 베타글루칸이 주성분인 ‘버섯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br/><br/>자연살해(NK)세포㎉T세포 등 면역기능과 관련된 세포의 수와 활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면역요법제다. 그러나 사람을 대상으로 버섯의 항암 효과를 확실하게 입증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래서 고가의 약용 버섯을 굳이 사 먹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전문가도 많다.<br/><br/>◇우리 밥상의 대표버섯 표고와 양송이<br/><br/>우리 국민이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버섯으로는 표고와 양송이가 있다. 표고는 중국과 동남아의 풀버섯, 유럽·미국의 양송이 버섯과 함께 세계 3대 재배 버섯으로 꼽힌다. 동양요리에서 표고는 ‘약방의 감초’격인 식재료이다.<br/><br/>영양적으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의 보고(寶庫)다. 한창 자라는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권할 만하다. 김경민 과장은 “표고에 든 대표적인 웰빙 성분인 렌티난(다당류의 일종)은 암 예방을 돕고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며 항(抗)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에리타네닌이란 성분이 들어 있어 혈관 건강에도 유익하다”고 말했다.<br/><br/>양송이는 크림 수프와 볶음요리엔 거의 빠짐없이 들어간다. 피자, 샐러드, 그라탱 등에도 넣으며 어떤 음식 재료와도 맛이 잘 어울린다.<br/><br/>우리는 주로 고기를 구울 때 곁들여 구워 먹는다. 양송이의 갓 속에 고이는 국물엔 양송이의 각종 영양 성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인공배양으로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값이 싸다는 것이 장점이다. 영양적으로는 단백질과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이 풍부하다.<br/><br/>다이어트에도 유용하다. 열량(100g당 23㎉)이 낮은 데다 섭취하면 금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1.txt

제목: 건국대병원, 14일 ‘대장암’ 건강강좌 개최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279  
본문: [쿠키 건강] 건국대병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원내 대강당(지하 3층)에서 대장암을 주제로 ‘대장암 CLEAN 스토리, Part1. 봄이야기’ 건강강좌를 진행한다.<br/><br/>이번 행사는 ‘재발과 전이가 잘 되는 암, 대장암’을 주제로 황대용 대장암 센터장의 강연에 이어 유정아 영양팀장이 대장암 환자를 위한 ‘봄 내음 가득한 맛있는 밥상’에 대해 소개한다.<br/><br/>이어 병동간호팀의 웃음치료와 함께 대장암센터 의료진과의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돼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2.txt

제목: 건국대병원, 갑상선암경험자 비만관리 프로그램 짠다  
날짜: 201403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5100000278  
본문: [쿠키 건강] 건국대병원이 2014년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 사업으로 ‘갑상선암경험자 비만관리 프로그램’과 ‘직원 대상 나트륨 섭취 감소 활동을 통한 짠맛 역치 감소와 식행동 개선’을 선정해 4일 발표했다.<br/><br/>건강증진병원 사업은 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와 직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모해 선정한다.<br/><br/>이번에 선정된 ‘갑상선암경험자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갑상선암을 치료한 환자가 치료 후 비만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사업이다.<br/><br/>사업을 진행하는 박경식 건국대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 비만의 유병률도 높고 최근 두 질환의 병리학적 요인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보고도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갑상선암경험자의 비만 위험이 늘수록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고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높다</span>”며 비만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br/><br/>갑상선암은 5년 생존율이 99.8%, 10년 생존율이 95%다. 평균 기대수명이 암 중 가장 길다.<br/><br/>박경식 교수는 연구결과 등 기초자료를 조사를 거쳐 갑상선암 경험자의 비만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파악해 비만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br/><br/>직원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감소 활동을 통해 짠맛의 역치(짜다고 느끼는 데 필요한 나트륨의 양)를 낮추고 식행동을 개선하는 사업도 진행된다.<br/><br/>과다한 나트륨의 섭취는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 골다공증, 위암 등 질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일 나트륨 목표 섭취량은 2000mg다. 하지만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권고치의 2배를 초과하는 4878mg을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br/><br/>이번 사업을 제안한 유정아 건국대병원 영양팀장은 “<span class='quot1'>염분에 대한 선호도는 싱겁게 먹을수록 역치가 낮아지고 짜게 먹을수록 역치가 올라간다</span>”며 “<span class='quot1'>짠맛에 대한 역치를 낮출 수 있는 미각적 훈련과 싱겁게 먹는 방법에 대한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span>”이라고 전했다.<br/><br/>유정아 팀장은 직원 급식의 염도 조사와 나트륨 섭취 관련 지식도와 식행동 조사를 거쳐 일주일에 한번 저 나트륨 급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나트륨 줄이기 직원 급식 캠페인과 함께 희망자에 한해 식단 개별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br/><br/>건국대병원은 지난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 사업을 선정해 진행했다. 최재경 가정의학과 교수는 건국대병원 비만관리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만의 일반상식과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주제로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개월 뒤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등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매우 만족과 만족이 대부분으로 평가도 좋았다.<br/><br/>또 정소정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저소득층 아동의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건강증진체조, 주기적인 인바디체크 등을 통해 식사습관과 운동습관을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br/><br/>건국대병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건강증진병원(WHO HPH, Health Promoting Hospitals & Health Services) 한국 네트워크 총회에서 의장병원으로 선정됐다.<br/><br/>건국대병원은 국내 대학병원으로는 유일하게 2011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이후 환자와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관련 교육과 환경 개선 방안을 계획해 시행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3.txt

제목: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 가난에… 홧김에… 좌절에… 막다른 선택  
날짜: 20140304  
기자: suminism@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166  
본문: 지난달 은경(가명·15·여)이는 진통제 두 상자를 까서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었다. 부모님이 4년 전 이혼한 뒤 내성적 성격에 마음을 닫고 지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다. 이날은 학원에 늦어 엄마에게 혼이 났고, 순간 응어리졌던 감정이 폭발했다. ‘아빠, 나 살기 싫어 약 먹었다.’ 짧은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병원에 실려가 정신을 차린 은경이를 두고 엄마는 “사춘기라 그렇다”고 했다.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권했지만 엄마는 서둘러 은경이를 데려갔다. 이운하(가명·53)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외환위기로 대기업에서 밀려났고 금융위기에 사업이 부도나 17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리어카 끌고 노점도 해봤지만 패자부활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죽음을 고민하면서 가족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이라도 안겨주려다 애꿎은 누군가가 다칠 거란 생각에 포기했다. 번개탄 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그에게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산다” “죽을 용기로 더 살아보자”고 했다. 이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큰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김한영(가명·76)씨는 아파트에 홀로 남아 주로 누워 지낸다. 손에 익지 않은 IPTV 리모컨을 만지다 잠이 들고 아픈 허리가 쑤셔 일어난다. “아가, 유치원은 재미있니?” 식탁에서 손자에게 말을 붙여도 돌아오는 답은 짧기만 하다. ‘내 인생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는 고된 치료 대신 아내 곁에 가려 했다. 실패로 끝나 실려 간 병원에서 뒤늦게 달려온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span class='quot0'>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닌데….</span>” 우리는 독감에 걸릴까봐 예방주사를 맞고 열이 나면 병원에 간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 술·담배를 끊고 그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항암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예상되고 만연한 질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와 사회가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에서 자살은 독감이나 암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 ‘질병’이다. 2012년 1만4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30대 사망 원인 1위, 40~50대 2위를 차지했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33.50명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29명의 2.5배를 넘어섰다. 우리는 2003년 이후 자살률 세계 1위의 서글픈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독감이나 암처럼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한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자살을 ‘예방 가능한 재난’으로 여겨 1980년대부터 자살예방사업에 뛰어들었다. 2000년에는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도 설립됐다. 우리 정부는 2004년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살 시도자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이어주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자살 재시도율이 줄면서 자살도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아픔은 자살이란 질병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민일보는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 시리즈(2부 10회)로 자살 예방과 치료의 현주소와 대안을 보도한다. 자살 보도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모든 기사는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강원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과 민성호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장의 감수를 받았다. 시리즈 6면, 관련기사 8면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4.txt

제목: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 가난에… 홧김에… 좌절에… 막다른 선택  
날짜: 20140304  
기자: suminism@kmib.co.kr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175  
본문: 지난달 은경(가명·15·여)이는 진통제 두 상자를 까서 한 움큼 입에 털어 넣었다. 부모님이 4년 전 이혼한 뒤 내성적 성격에 마음을 닫고 지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쳐다보는 게 일상이었다. 이날은 학원에 늦어 엄마에게 혼이 났고, 순간 응어리졌던 감정이 폭발했다. ‘아빠, 나 살기 싫어 약 먹었다.’ 짧은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병원에 실려가 정신을 차린 은경이를 두고 엄마는 “사춘기라 그렇다”고 했다.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권했지만 엄마는 서둘러 은경이를 데려갔다. 이운하(가명·53)씨는 지난해 말 경기도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웠다. 외환위기로 대기업에서 밀려났고 금융위기에 사업이 부도나 17억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리어카 끌고 노점도 해봤지만 패자부활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죽음을 고민하면서 가족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이라도 안겨주려다 애꿎은 누군가가 다칠 거란 생각에 포기했다. 번개탄 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그에게 친구들은 “다 그렇게 산다” “죽을 용기로 더 살아보자”고 했다. 이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 큰아들 내외가 출근하면 김한영(가명·76)씨는 아파트에 홀로 남아 주로 누워 지낸다. 손에 익지 않은 IPTV 리모컨을 만지다 잠이 들고 아픈 허리가 쑤셔 일어난다. “아가, 유치원은 재미있니?” 식탁에서 손자에게 말을 붙여도 돌아오는 답은 짧기만 하다. ‘내 인생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지난해 위암 진단을 받고는 고된 치료 대신 아내 곁에 가려 했다. 실패로 끝나 실려 간 병원에서 뒤늦게 달려온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span class='quot0'>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닌데….</span>” 우리는 독감에 걸릴까봐 예방주사를 맞고 열이 나면 병원에 간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 술·담배를 끊고 그래도 암 진단을 받으면 항암치료를 시작한다. 이렇게 예상되고 만연한 질병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와 사회가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에서 자살은 독감이나 암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 ‘질병’이다. 2012년 1만4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0~30대 사망 원인 1위, 40~50대 2위를 차지했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33.50명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29명의 2.5배를 넘어섰다. 우리는 2003년 이후 자살률 세계 1위의 서글픈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독감이나 암처럼 자살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갖춰야 한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자살을 ‘예방 가능한 재난’으로 여겨 1980년대부터 자살예방사업에 뛰어들었다. 2000년에는 국제자살예방협회(IASP)도 설립됐다. 우리 정부는 2004년 ‘국가 자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살 시도자를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이어주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자살 재시도율이 줄면서 자살도 예방·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집세와 공과금이 밀려 동반 자살한 ‘세 모녀’의 아픔은 자살이란 질병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민일보는 ‘자살이란 이름의 질병’ 시리즈(2부 10회)로 자살 예방과 치료의 현주소와 대안을 보도한다. 자살 보도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모든 기사는 박종익 중앙자살예방센터장(강원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과 민성호 원주세브란스병원 정신의학과장의 감수를 받았다. 시리즈 6면, 관련기사 8면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5.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비교추천은 필수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495  
본문: [쿠키 생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 노출이 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하여,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6.txt

제목: [인사] 서울아산병원  
날짜: 201403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242  
본문: ◆서울아산병원△암센터소장 유창식(兪昌植) 교수<br/><br/>△내과장 유빈(柳濱) 교수<br/><br/>△마취통증의학과장 및 수술실장 최인철(崔仁鐵) 교수<br/><br/>△신장내과장 양원석(梁原錫) 교수<br/><br/>△간이식·간담도외과장 김기훈(金基勳) 교수<br/><br/>△위장관외과장 유문원(兪文源) 교수<br/><br/>△심장병원 심장영상센터소장 강덕현(姜德鉉) 교수<br/><br/>△암센터 두경부암센터소장 남순열(南淳烈) 교수<br/><br/>△암센터 부인암센터소장 김용만(金容滿) 교수<br/><br/>△암센터 비뇨기암센터소장 홍준혁(洪晙赫) 교수<br/><br/>△소화기병센터 간센터소장 이한주(李翰柱) 교수<br/><br/>△전립선센터소장 주명수(朱明秀) 교수[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7.txt

제목: “100만원씩 담긴 봉투만 남기고…” 지병 앓던 60대노인 숨진 채 발견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317  
본문: [쿠키 사회] 지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 100만원을 남기고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br/>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50분쯤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 1층 방안에서 숨진 정모(67)씨를 이모(8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의 방에는 “주인아저씨 감사합니다” “화장해주세요”라는 메모가 각각 적힌 봉투 2개만 남겨져 있었다. 봉투 속에는 빳빳한 새 돈으로 100만원씩 들어가 있었다.<br/>이씨는 “<span class='quot0'>정씨가 며칠째 우편물을 가져가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숨져있었다</span>”고 진술했다..<br/>경찰은 부검 결과 정씨가 간암을 앓고 있었고 자살이나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br/>오래전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나서 10년 넘게 홀로 산 정씨는 지난해 말까지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얼마 전부터는 일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냈다.<br/>말기 암환자였음에도 이따금 동네 한의원만 갔을 뿐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암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드러났다.<br/>관할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관내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지만 정씨는 관리 대상 명단에조차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8.txt

제목: ‘안락사 논란’ 말기암 부친 살해 남매 징역형…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176  
본문: [쿠키 사회] 말기 암으로 고통 받는 50대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해 ‘안락사 논쟁’이 일었던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br/>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 이모(28)씨와 딸(3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br/>이씨 남매와 아내는 지난해 9월 말기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모(57)씨가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br/>아들은 아버지가 자연사한 것처럼 꾸며 장례까지 마쳤지만 죄책감에 술에 취해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이 괴로워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누나에게 보내고 자살을 기도하다 “남동생이 자살할 것 같다”는 작은누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털어놓았다.<br/>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3개월에서 3년형을 건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배심원들은 이씨 남매에 대해서는 8명이 징역 3년 6월, 1명이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아내에 대해서는 1명이 징역 1년 3월, 8명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다.<br/>재판부는 배심원단 평결보다 형량을 높였으나 선처를 요구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일반 살인죄보단 형량을 낮추고 딸은 법정구속하지 않았다.<br/>재판부는 “<span class='quot0'>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고인이 ‘죽여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에서 한 말은 진지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span>”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19.txt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쉬워진다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359  
본문: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br/><br/>[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br/><br/>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 되었던 것과는 달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br/><br/>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br/><br/>식약처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이 지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하게 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된다.<br/><br/>기본부담금은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000분의 1 이내(예상납부액: 업체별 생산·수입액의 0.0546~0.0681%), 추가부담금은 전년도 피해보상액의 25%이다. 부담금 요율은 5년 이내에서 재산정하고, 체납가산금은 체납액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한다.<br/><br/>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신청은 진료비의 경우 해당 진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고,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이다.<br/><br/>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7명(의료계 2인, 약계·병의원·학계 각 1인, 전문가 2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소비자단체연합회, 소비자전문 공공기관 각 1인), 의료법 및 법의학 전문가로서 판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 2명(식약처 자문변호사, 변호사협회 각 1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각 1인) 등 13명으로 구성된다.<br/><br/>이와 함께 제약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켰다.<br/><br/>식약처는 2012년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됐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0.txt

제목: 국가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기승  
날짜: 201403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291  
본문: [쿠키 건강] 국가 건강검진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2014년도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시기에 맞춰 건강검진을 악용한 각종 스미싱 문자가 발견되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br/><br/>건보공단은 지난 2월17일부터 2014년 건강검진 대상자 2073만명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개별 주소지로 발송하고 있는데 우편물에는 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URL 주소 http://www.nhis.or.kr)가 안내된다. 또 ‘검진표 재중’ ‘본인외 개봉금지’가 표기된 창봉투 형식으로 개별발송하고 있다.<br/><br/>반면 스미싱문자메시지는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통지서 확인.’ 문구와 함께 악성앱이 깔리는 URL이 포함돼 있어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br/><br/>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건보공단은 이달 초순부터 공단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것을 확인하고, 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등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문자로 인해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1.txt

제목: 생활고 시달리다 동반자살 가족 잇따라  
날짜: 20140304  
기자: 조성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4100000172  
본문: 집세와 공과금이 밀리자 동반 자살을 택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에 이어 생활고와 힘겨운 처지를 견디지 못해 함께 목숨을 끊는 일가족이 잇따르고 있다.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br/>3일 경기도 광주의 다세대 주택에서 이모(44)씨가 지체장애를 갖고 있던 딸(13), 아들(4)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남매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 숨져 있었다. 방문과 창문에는 유리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흔적이 있고, 방안에서 다 타버린 번개탄 5개와 소주병 2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씨가 부인과 이혼한 뒤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다 재혼했는데 가정불화가 깊어졌던 듯하다</span>”고 말했다.<br/>2일에도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안모(57)씨가 아내 이모(55)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안씨 내외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운 상태로 숨을 거뒀고 방에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br/>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딸(21)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행복하게 살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택시기사로 일했던 안씨는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경찰에서 “부모님이 아버지 암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br/>경기도 동두천에서도 30대 주부가 네 살배기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동두천경찰서는 2일 오후 7시45분쯤 동두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윤모(37)씨와 아들(4)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윤씨의 옷에서는 시아버지 명의의 세금 고지서에 ‘이렇게 죽게 돼서 미안하다’고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br/>윤씨는 4년 전 재혼해 함께 숨진 아들을 낳았다. 그동안 아들은 경기도 포천 시댁에 맡긴 채 남편이 데려온 딸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그는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렸으나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br/>경찰은 윤씨의 아들이 네 살이 되도록 말을 잘 못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등 성장이 더뎠으며 윤씨가 이를 어려운 가정형편 탓으로 생각해 왔다는 유족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하던 윤씨가 아들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우울증이 심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다.<br/>경북대 사회학과 노진철 교수는 “<span class='quot1'>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다 자포자기해 자살하는 경우가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안전망이 매우 약하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도 “<span class='quot2'>우리 사회에 긴급 복지시스템이 있지만 그 존재나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2'>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원스톱 복지센터를 만들고 기다리는 대신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조성은 박요진 김유나 기자 jse130801@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2.txt

제목: 남 돕는 훈련이 암 생존자 삶의 질 높여  
날짜: 2014030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012  
본문: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극복 후 생존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암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사진) 교수팀은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국내 10개 병원에서 추천받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생존자 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br/>윤 교수팀은 환자들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34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36명)으로 나눠 두 달 동안 각각 관찰했다.<br/>‘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를 ‘건강코치(Health Coach)’로 만드는 훈련으로 건강교육, 리더십, 코칭 등 3가지에 초점을 두고 4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에선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리더십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건강 코치 훈련이 이뤄졌다. 2단계와 4단계에선 바로 전 단계의 훈련을 복습해 체득하게 했다.<br/>그 결과, 건강코치 훈련을 받은 실험군은 정신적 건강 점수가 연구 개시 당시 81.4점에서 두 달 후 85.4점으로 개선됐다. 특히 정신적 활력 점수가 연구 개시 때의 71.5점에서 77.8점으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반면 대조군의 정신적 건강 점수는 같은 기간 83.9점에서 81.0점으로 되레 나빠졌다. 정신적 활력 점수도 72.4에서 71.0으로 떨어졌다.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암 생존자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험군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좋은 습관(7HP) 중 ‘지속적으로 쇄신하라’ 점수가 12.8점에서 13.5점으로 좋아진 반면 대조군은 12.8점에서 12.6점으로 나빠져 대조를 이뤘다.<br/>연구결과는 암 전문 잡지 ‘아시아태평양암예방저널’(APJCP) 최신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3.txt

제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 예방의 날’ 수기 공모전 실시  
날짜: 201403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139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학원장 이수용)은 오는 21일 ‘제7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의 날 수기’를 이달 31일까지 공모한다.<br/><br/>지난해에 이어 3회째 열리는 이번 수기 공모전은 암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암 극복 사례를 공유하여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암 환자와 환자 가족, 암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br/><br/>공모내용은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암 조기 발견 경험담부터 암 극복사례, 간병 이야기 등 암과 관련된 자유주제이다.<br/><br/>최우수상 1명에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상과 암정밀검진권(150만원 상당), 우수상 2명에게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상과 종합검진권(50만원 상당)등이 수여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4.txt

제목: [김단비 기자의 질병과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진짜 안전한걸까?  
날짜: 201403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184  
본문: [쿠키 건강] ‘부작용’ 없는 백신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아마비, 간염 등 무서운 질병을 막아내는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증상이 가볍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논란은 그 양상이 좀 다르다. 지난해, 일본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후 신경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의학자들이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에 들어있는 알루미늄 성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br/><br/>◇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br/><br/>일단, 자궁경부암 백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보자. 백신의 원리는 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체(세균 혹은 바이러스)를 몸 안에 주입한 뒤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br/><br/>이때 제조과정서 백신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화학물질이 흔하게 사용된다, 수은의 일종인 티메로살(thimerosal)과 포름알데히드를 희석한 포르말린(formalin) 그리고 알루미늄(aluminium)다. 티메로살과 포르말린은 면역반응만 유도한 채,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하지는 못하도록 비활성화시키거나 세균의 독소를 중화시키는 용도다. 알루미늄은 면역강화제로서 백신의 항체 생산 능력을 증폭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중 ‘알루미늄’이 이번 일본발 백신 부작용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br/><br/>백신 회의론자들은 백신의 성분 중 알루미늄 일부가 자가면역질환을 유도하고, 특히 뇌손상과 치매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백신제제로 사용된 지 60년이 된 성분이다. 세월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자궁경부암 백신 외에도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된 백신은 뇌수막염백신, A형·B형 간염백신, DTP 백신, 폐렴구균 백신 등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백신안전성자문위원회(GACVS)는 2003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알루미늄이 포함된 전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위험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br/><br/>일본에서 파생된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세계산부인과불임학회(COGI)는 “새로운 백신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그들은 올해 2월 자궁경부암 백신의 유효성을 논한 국제회의에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은 현재까지 전세계에 2억 도즈 이상 공급됐으며 높은 효과를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매우 안전하다”고 결론지었다.<br/><br/>◇자궁경부암 백신, 안전하게 맞기<br/><br/>인유두종 바이러스(HPV)에 감염된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등 여성 생식기암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HPV 백신 접종은 이 같은 다양한 암을 비롯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파괴하는 생식기 사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br/><br/>그래도 근육통이나 접종부위 부종 등 경미한 부작용이 무섭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기억하자. 첫째, 백신을 접종하기 전, 몸 컨디션을 꼭 확인하자. 특히 열이 있다면 접종을 미뤄야 한다. 둘째, 최근에 자신이 아팠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다면 이 같은 사실을 접종 시 의사에게 꼭 알려라. 마지막으로 항체 형성 과정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므로 접종 다음날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5.txt

제목: [질환 바로알기-기면증]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  
날짜: 201403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3100000143  
본문: [쿠키 건강] 바쁜 업무와 야근, 잦은 술자리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 직장인들과 학업에 지친 학생들. 피곤에 지친 젊은 연령층 대부분이 적정 수면시간인 6~7시간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몰려오기도 한다.<br/>실제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중·고등학생 9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면시간은 초등학생이 8시간,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이 5시간 30분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 역시 지난 2011년 6월 한 취업포탈 커뮤니티 조사에 의하면 수면시간이 평균 6시간 10분에 불과했다.<br/>◇지난 2011년 이후 환자수 매년 25% 이상 증가<br/>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년간 ‘기면증’ 진료 인원이 2356명으로, 이는 2011년 진료 인원보다 29.7%나 늘어난 수치이다. 특히 최근 기면증 진료 인원이 지난 2008년 1348명, 2009년 1447명, 2010년 1451명이었으나, 2011년에도 전년대비 25.2%나 증가했다.<br/>이에 대해 주민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뇌신경센터 교수(신경과)는 “<span class='quot0'>기면증은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지만 주요 증상이 대개 10대 중후반에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20대, 10대 환자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성별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유병률은 0.002~0.18%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br/>환자가 늘어난 것은 수면 시간이나 잠자는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예전과 달리 질환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잠을 많이 자고 졸려하는 사람에 대해 ‘게으르다’ 또는 ‘잠이 많다’라고만 여겼다. ‘가위눌림’이라고 말하는 수면마비도 질환보다는 귀신에 의한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치부했다. 수면마비는 일반인도 100명 중 20여명 정도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하지만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추세와 함께 수면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신의 잠버릇을 질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 심지어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수면시간이 줄어 피곤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기면증으로 오인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br/>◇올해 유행한 H1N1 바이러스 기면증의 원인?<br/>2009년 많은 사상자를 냈던 신종인플루엔자와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지만, H1N1 바이러스가 나타난 2010년 이후 기면증 환자가 급증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역시 2011년 기면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br/>실제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H1N1 예방백신 중 하나인 ‘펜뎀릭스(Pendemrix)’를 맞은 어린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기면증을 경험할 확률이 9배나 높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br/>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예방백신을 접종한 환자 외에도 신종플루에 걸렸던 이들 중 기면증을 확진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원인이 제조 공정에서의 문제보다는 H1N1 바이러스의 특수성에 있다고 보고 있다. H1N1 바이러스가 기면증의 원인으로 알려진 하이포크레틴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주민경 교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H1N1 바이러스가 새롭게 대두된 이후 기면증 환자가 늘었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올해 H1N1 바이러스가 유행한 만큼 앞으로의 환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깨야 할 때 자는 중추신경 이상 질환<br/>‘기면증’은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자고 깨야 할 때가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는 질환이다. 마비와 혼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narke’와 발작의 ‘lepsis’의 합성어(Narcolepsie)로, 프랑스인 약사 젤리노가 1880년 처음 사용했다.<br/>이후 의사들은 1979년 기면증을 수면질환으로 진단을 내리고 특발중추성과다수면과 함께 과다졸림 질환으로 분류했다. 또 1차 국제기면증심포지엄에서는 기면증을 ‘과다한 주간 졸림과 렘수면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구성된 하나의 증후군’으로 정의했다.<br/>우리나라는 발작성 수면 및 탈력발작(G47.4)으로 등록하고 2009년 5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와 지원을 돕는 헬프라인에 의하면 국내 기면증 환자수는 8만여명 정도다.<br/>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지만 수면과 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히포크레틴(hypocretin-1) 분비가 뇌의 시상하부에서 제대로 되지 않거나 HLA-DQB1\*0602, HLA-DRB1\*1501과 같은 백혈구 항원 형질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뇌졸중, 뇌종양처럼 뇌에 이상이 생긴 뇌질환자나 자기면역질환자, 사고로 인해 두부외상을 입은 내외과 질환자도 생길 수 있다.<br/>◇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누구보다 큰 사람들<br/>기면증의 가장 큰 증상은 낮에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오거나 졸리지 않을 때도 각성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졸리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환자 대부분이 만성피로를 호소한다.<br/>그렇다고 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 시간 동안 잠이 오는 증상을 기면증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또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잠을 못자 피곤한 것과 유전자로 인해 생기는 원인도 차이가 있다.<br/>참을 수 없는 잠은 환자의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학업이나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자신감 결여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운전 중 잠이 들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든 생활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질환에 대해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신기해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br/>또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자책하다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하다. 특히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으면 더하다. 뇌신경질환 또는 호르몬과 관련한 약제인 탓에 개인에 따라서는 두통 외에도 경련, 불면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br/>웃거나 화를 낼 때, 농담을 주고받을 때처럼 감정변화가 있을 경우 얼굴이나 무릎, 다리근육, 몸 전체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이 수초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을 탈력발작이라고 하는데 기면증 환자의 10명 중 6명이 경험한다.<br/>◇평생 약물치료만 잘해도 정상생활 가능한 만성질환<br/>정부에서 기면증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정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한번 등록하면 평생 꼬리표처럼 달고 사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모다피닐 또는 퇴행성질환, 뇌혈관질환에 효과적인 카니틸 성분의 약 복용만 잘 하면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된다. 또 유전자를 치료하거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계속 연구, 개발 중이다.<br/>대표적인 검사는 수면다윈검사가 있다. 이 검사는 코골이나 무호흡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수면다윈검사는 자는 동안 발생하는 뇌파와 눈의 움직임을 살피는 안전도, 근육의 긴장도를 따져보는 근전도, 수면 중 발생하는 부정맥을 위한 심전도, 동맥혈, 산소포화도, 호흡운동, 호흡기류, 자세까지도 측정한다. 또 이 검사를 통해 얼마 후 렘수면에 빠지는지와 같은 수면 패턴과 각성의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br/>수면다윈검사가 야간수면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중수면잠복기 검사는 주간졸림증을 알아보는 검사다. 정기적인 시간을 두고 낮잠을 청해 평균수면잠복기와 렘수면의 출현여부를 따진다.<br/>주민경 교수는 “기면증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일부 환자 중에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고 스트레스를 줄인 후 졸리거나 각성 증상이 준 경우가 많다. 희귀난치성질환이지만 에이즈나 암처럼 관리만 잘하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만성질환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br/>\*도움말=주민경 교수(한림대학교성심병원 뇌신경센터·신경과 교수)<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6.txt

제목: 고기 없이 밥 못 먹는 당신, 대장암 키운다  
날짜: 201403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2100000008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수명인 81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3%로, 3명 중 1명은 암 환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암은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부산물로, 이들의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률이 높은 대장암이 그렇다.<br/>고지방식을 포함한 서구식 식습관으로의 변화는 대장암 증가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육류 소비량과 대장암 발생률이 비례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 각국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지 오래다. 잘못된 식습관이 대장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따라서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대장암의 발병을 크게 줄일 수 있다.<br/>대장은 소장에서 넘어온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 후 직장에 모아 두었다가 항문을 통해 대변의 형태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양 성분의 소화 및 흡수보다는 생리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유독한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종 발암 물질을 포함한 유독성 노폐물이 모여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br/>대장암은 대장벽에 비정상 악성종양 세포가 자라는 것을 말한다. 대장암의 원인은 크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뉘는데, 특히 식사와 관련성이 많아 질환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육류 섭취량에 따라 대장은 암 발병률이 높은 환경에 놓이며, 암 세포의 발생 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채소류 섭취를 늘려야 한다.<br/>◇붉은색 고기 과다 섭취는 대장에 치명적<br/>우리가 자주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붉은색 고기로 구분된다. 닭고기와 같은 흰색 고기에 비해 붉은색 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조리 혹은 섭취 과정에서 지방을 제거하기가 어렵다. 지방의 과다섭취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담즙산 분비를 증가시켜 대장 점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r/>따라서 지방이 많은 붉은색 고기의 과다 섭취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는 과다 섭취 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 철분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br/>대신 붉은색 고기 섭취를 줄이고 흰색 고기나 생선, 두부 등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붉은색 고기를 조리할 때에는 가능한 기름기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기름을 가능한 최대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br/>◇암 발생률은 음주량과 정비례…충분한 채소 섭취는 필수<br/>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수명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의 수명이 단축된다고 한다. 적당을 넘어선 과음이 생활화되면 대장 뿐 아니라 식도나 간의 암 발병률 또한 높아진다. 습관적인 음주 혹은 한꺼번에 마시는 과음은 췌장암과 결장암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인다.<br/>채소는 어떤 형태로 섭취하던지 충분한 양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생채소를 먹을 때에는 드레싱이나 쌈장 등의 양념이 많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야한다. 특히 드레싱은 지방 및 당으로 인해 칼로리 섭취가 지나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나물은 살짝 익혀내는 과정에서 질감이 부드러워지고 부피도 줄며, 약간의 기름과 양념으로만 맛을 내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편이다.<br/>하지만 비빔밥 등에 들어가는 껍질 및 줄기류의 고섬유질 채소는 섬유질 성분이 수분을 지나치게 흡수시켜 부종이나 변비, 심하면 장폐색을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br/>과일 중에는 딸기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가 대장에 가장 좋다. 블루베리 내 식이섬유는 바나나의 2.5배로 소장에서 당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케 하는 효과가 있다.<br/>아사이베리의 경우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의 21배, 석류의 23배, 적포도의 55배, 키위에 12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베리 중의 베리라고 불린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라 역설했으며, 넘버원 슈퍼푸드로까지 선정되었다. 항산화 능력의 촉진이 장의 해독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아사이베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br/>◇커피가 대장암에 약이라고?<br/>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를 하루 6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최고 40%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5% 가량 발병 확률이 낮았다고 밝혔다.<br/>국내의 연구진 또한 커피에 포함된 페놀릭파이토케이칼 성분이 대장암과 피부노화 억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대장암과 커피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였다. 커피의 원두는 레드베리의 씨로, 다른 베리류처럼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따라서 황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막아 우리 몸의 노화와 발암물질 생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br/>정순섭 이대목동병원 위암·대장암협진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은 다른 장기보다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일상에서의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건강한 대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식습관에 신경을 쓰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아야 한다</span>”고 당부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7.txt

제목: 오는 7일, 전 세계 암 치료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  
날짜: 2014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2100000050  
본문: 대한임상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 ‘SISSO 2014’, 7일부터 개최<br/><br/>[쿠키 건강] 지난 2004년 고(故) 김진복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외과학회 원로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항암요법연구회가 10년 만에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학회로 성장했다.<br/><br/>이와 관련 대한임상종양학회(KSCO)는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서울국제종양외과심포지엄(SISSO 2014, Seoul International Symposium of Surgical Oncology)’을 개최한다.<br/><br/>‘Spotlighting Surgical Oncology in the Era of Personalized Cancer Treatment’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는 위암, 대장암, 간담췌암, 유방암, 육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 26명이 연자로 참석한다. 이 중 12명이 영국, 네덜란드, 미국, 일본 4개국에서 초청된 해외연자로 구성됐다.<br/><br/>◇유럽·일본종양외과학회장 등 석학 초청<br/><br/>10주년을 기념하고 학회의 위상에 걸맞게 특별히 현 유럽종양외과학회(ESSO) 회장을 맡고 있는 영국의 그레엄 존 포스톤(Graeme John Poston) 교수와 일본종양외과학회(JSCO) 회장인 히데오 바바(Hideo Baba) 교수도 초청했다.<br/><br/>두명의 교수는 플레너리(Plenary) 세션 I에 나와 '국가별 외과학회간 협력의 현재와 미래'란 대주제 하에 유럽과 일본 외과학회의 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이다.<br/><br/>학회 연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State-of-the-Art Lecture에서는 네덜란드 레이덴의대 Cornelis J.H. van de Velde 교수가 암 치료에 있어서 다학제적 관리의 중요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도쿄의대 Kenichi Sugihara 교수도 결장암 수술의 표준적 치료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많은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br/><br/>일본 구루메의대 Kazuo Shiriuzu 교수와 미국 MD앤더슨 암센터 Alexander Lazar 교수도 각각 외과적 수술의 검체 평가와 연부조직육종의 단계에 따른 치료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State-of-the-Art Lecture 각 세션 마지막에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닌 패널토론 세션을 20분간 배정해 보다 심도있는 질문과 다양한 토론이 오갈 수 있도록 했다.<br/><br/>그 밖에 6개로 이뤄진 Core 세션에서는 직결장암, 유방암, 위암, 간담췌암, 연조직육종암 분야의 환자 맞춤형 치료에 대해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최신 치료법을 소개한다.<br/><br/>김남규 대한임상종양학회 이사장(세브란스병원 대장항문외과)은 "현재까지 선등록인원은 300명 정도이며 초록도 56편이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SISSO 2014를 통해 대한임상종양학회의 정체성을 다지고 유관 학회들과 차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8.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비교추천은 필수  
날짜: 201403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2100000189  
본문: [쿠키 생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 노출이 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때문에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가격비교견적추천사이트(www.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과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29.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암 피하려면 주 4~5회 콩 식품 섭취를  
날짜: 20140301  
기자: 의학전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1100000079  
본문: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혹시 발암 위험신호가 아닌가 싶어 안절부절못합니다. 이들은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구해 먹는 열성을 보이기도 합니다.<br/>이런 암 염려증 환자들은 물론 암 예방을 바라는 일반인도 귀가 솔깃할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콩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 부인암, 위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br/>한국유방암학회는 최근 총 227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음식 섭취가 한국인의 유전성 유방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주당 4∼5개씩 콩 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주당 1개 이하만 먹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방암을 일으키는 ‘BRCA1·2’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콩을 자주 먹는 사람에게선 발병 위험이 3분 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이는 콩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br/>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는 “<span class='quot0'>콩 식품을 자주 먹으면 유방암 외에도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물리치고, 위암 예방에도 기여한다는 보고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콩류에 풍부한 식물성 여성호르몬 ‘이소플라본’의 항산화 작용이 이들 암 억제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span>”고 말했습니다.<br/>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0.txt

제목: [문종성의 가스펠 로드] (2) 콜로라도 사막에서 만난 ‘행복한’ 암환자  
날짜: 201403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301100000007  
본문: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br/>임계점을 넘어갔다. 분노가 터졌다.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다 땀과 섞여 눈가를 쓰리게 했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멍하니 있다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전거 바퀴 펑크였다. 두 시간 동안 수리에 매달렸는데…. 그것도 섭씨 47.7도 미국 콜로라도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다.<br/>가시밭길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사막 도로다. 바람을 타고 날아든 단단하고 뾰족한 가시들이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더 이상 남아 있는 튜브나 여분의 펑크 패치도 없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섰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기도한 뒤 도로가로 나갔다. 히치하이킹을 하기 위해서였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흔들었고, 바로 첫 차가 멈춰 섰다.<br/>흰색 밴이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59세 메리라고 했다. 그녀는 나의 상황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서 트렁크에 짐을 실어요”라고 했다. 수리를 위해 자전거 숍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슨 방법을 찾는단 말인가? 오후 2시를 넘긴 시각, 메리는 아직 점심조차 챙기지 못한 나를 웬디스로 데리고 가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주었다.<br/>그리곤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자전거 숍 정보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안타깝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메리가 작심한 듯 물었다.<br/>“<span class='quot0'>아까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span>”<br/>“덴버 한인교회요.”<br/>“좋아요. 갑시다!”<br/>지금까지 두 시간 넘게 돌아다닌 그녀다. 그런데 80㎞가 떨어진 곳에 또 데려다 주겠단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br/>“나 실은 암 환자예요. 놀랐죠? 그렇게 안 보이죠? 6개월 전에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고, 18일 후에 다시 2차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은 딸이 집으로 와 절 간호해 주고 있어요. 다행히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은 아니에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무척 당황하고, 놀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비밀스러운 뭔가를 말하는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좌절하지 않았어요. 늘 웃으려고 애썼고,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주일에 교회에 가더라도 환자로서 특별대우를 기대하기보다 성가대나 주방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섬겼어요.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br/>암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처음 만난 청년의 ‘작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녀의 여유, 활짝 웃는 여유. 암 때문에 새롭게 보게 된 인생을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당당한 고백에 그녀의 짧은 흰색머리가 이제야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다.<br/>그녀는 병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 어떻게 딸과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변곡점을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값진 은혜였다. 덴버에 도착했을 때 메리는 크게 팔을 벌렸다. 나를 뜨겁게 안아주었다. 아쉬운 작별을 고했다. 그녀의 품은 따뜻했다. 우리 인생에 환한 미소를 지을 날이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암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단지 예수님이 있을 뿐이었다.<br/>문종성 (작가·vision-mate@hanmail.net)<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1.txt

제목: 타인 건강 돌보는 훈련, 암 생존자 삶의 질 높인다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222  
본문: [쿠키 건강]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br/><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통합케어 윤영호 교수팀은 국립암센터와 함께 국내 10개 병원에서 추천 받은 암 치료 후 5년 이상 장기 암 생존자 70명을 대상으로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br/><br/>‘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은 암 생존자를 '건강코치(Health Coach)’ 로 만드는 훈련(training)이다. 건강코치는 암 재발 위험이 있는 암 환자가 주도적 건강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br/><br/>훈련은 건강교육, 리더십, 코칭 등 3가지 요소에 초점을 두고, 4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 리더십과 대인관계를 다루고, 3단계부터 본격적인 건강코칭 훈련이 이뤄진다. 2단계와 4단계는 바로 전 단계의 훈련을 실습하고 피드백 받는 단계로, 다자간 전화회의를 통해 훈련 받은 내용을 체득한다.<br/><br/>연구팀은 2011년 암 장기 생존자 70명을 ‘건강 파트너 프로그램’ 을 실시하는 실험군(34명)과 실시하지 않는 대조군(36명)으로 나눠 8주간 관찰 후, 두 집단의 삶의 질을 비교했다.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연구팀은 9개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점수화했다.<br/><br/>그 결과 실험군의 정신적 건강(Mental Health)이 81.4에서 85.4으로 좋아졌다. 특히 정신적 활력이 71.5에서 77.8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반면 대조군의 정신적 건강은 83.9에서 81.0로 나빠졌으며, 정신적 활력도 72.4에서 71.0으로 떨어졌다. 또한 암 위기 후 긍정적 성장(PTGI) 역시 실험군은 70.6에서 75로 크게 좋아졌지만, 대조군은 70.3에서 68.9로 나빠졌다.<br/><br/>프로그램은 암 생존자의 삶의 태도도 진취적으로 바꿨다. 실험군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7HP) 중 ‘지속적으로 쇄신하라’ 점수가 12.8에서 13.5로 좋아진 반면 대조군은 12.8에서 12.6으로 나빠져 대조를 이뤘다.<br/><br/>이번 연구는 타인의 건강을 돌보는 훈련이, 암 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건강교육에 리더십과 코칭이 결합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을 방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br/><br/>윤영호 교수는 “<span class='quot0'>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의학과 인문학이 접목된 획기적인 프로그램</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암 분야 권위지인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2013년 12월호에 발표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2.txt

제목: 이집트 군부, 에이즈 100% 정복 선언… “그런데 어째 좀”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126  
본문: [쿠키 과학] 이집트 군부가 “에이즈를 정복했다”고 선언했다. 의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며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27일 미국 뉴스채널 CNN에 따르면 이집트 암치료검진센터의 이브라힘 압델 아티 소장은 지난 23일 열린 치료기 설명회에서 “에이즈와 C형 간염을 100% 정복했다. 위대한 과학적 개가”라고 주장했다.<br/>치료기는 피를 뽑아 정화한 뒤 다시 주입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16시간 안에 고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압델 아티 소장은 이집트 군부의 수장인 압델 파타 엘 시시 국방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군부도 이 치료기를 주도적으로 홍보했다.<br/>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엘 시시 장관에게 충성경쟁을 벌이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게 의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연구진 안에서도 “<span class='quot0'>발표 내용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span>”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3.txt

제목: ‘주인아주머니, 마지막 집세입니다’… 70만원 든 봉투 남기고 생활고 비관 세 모녀 동반 자살  
날짜: 20140228  
기자: 박세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176  
본문: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오던 박모(60·여)씨가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26일 밤이었다. 당뇨병 투병을 포기한 큰딸(35),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가 된 둘째딸(32)도 함께였다. 나란히 누워 숨진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봉투에는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었다.<br/>세 모녀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이다. 이불 두 채를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비좁은 방에는 누렇게 뜬 벽지 위로 박씨 부부와 두 딸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화목해 보이는 사진 속 가족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br/>불행은 남편이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큰딸은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박씨가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고 둘째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내왔다.<br/>그래도 월 38만원 집세와 매달 20만원 정도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밀린 적 없었는데, 한 달 전 박씨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식당일을 그만두게 됐고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br/>세 모녀 시신은 집주인 임모(73)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임씨는 “<span class='quot0'>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span>”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br/>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27일 “<span class='quot1'>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span>”고 말했다.<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4.txt

제목: “넘어졌다고 자살했단다, 한국은 대체 뭐하냐”…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인터넷 한탄 잇따라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188  
본문: [쿠키 사회]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놓고 인터넷에서 한탄이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0'>21세기 대한민국 수도에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span>”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br/>28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오던 박모(60·여)씨가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26일 밤이었다. 당뇨병 투병을 포기한 큰딸(35), 카드 빚에 신용불량자가 된 둘째딸(32)도 함께였다. 나란히 누워 숨진 세 모녀 옆에 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봉투에는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었다.<br/>세 모녀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이다. 이불 두 채를 깔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비좁은 방에는 누렇게 뜬 벽지 위로 박씨 부부와 두 딸의 가족사진이 걸려 있었다. 화목해 보이는 사진 속 가족은 이제 남아 있지 않다.<br/>불행은 남편이 12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큰딸은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 박씨가 근처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고 둘째가 종종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아슬아슬하게 지내왔다.<br/>그래도 월 38만원 집세와 매달 20만원 정도인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밀린 적 없었는데, 한 달 전 박씨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 식당일을 그만두게 됐고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수입이 끊겼다. 막다른 길에 몰려 한 달간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br/>세 모녀 시신은 집주인 임모(73)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임씨는 “<span class='quot1'>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span>”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br/>경찰은 외부인 출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고 번개탄을 피운 점 등으로 미뤄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br/>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출을 많이 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한국보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않는 한국이 더 절실하다” “길에서 넘어지는 작은 사고로 세 모녀가 스스로 삶을 끝내야 했다니,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눈물이 난다.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더 화가 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5.txt

제목: 여성이라면 알아둬야 할 예방접종은?  
날짜: 201402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8100000206  
본문: 부천성모병원, ‘여성건강과 예방접종’ 주제로 오는 3월 5일 강좌 개최<br/><br/>[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여성건강과 예방접종’이란 주제로 오는 3월 5일 오후 4시반부터 부천성모병원 옴니버스홀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br/><br/>이번 강좌는 여성건강과 관련된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여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br/><br/>이번 강좌에서는 산부인과 이대우 교수가 예방접종으로 유일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 산부인과 신재은 교수가 임신부라면 누구나 궁금해 하는 ‘임신과 예방접종’에 대해 부인과 유인숙 간호사가 ‘성인예방접종이란?’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할인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br/><br/>이해남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과장은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가임기여성이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부터 부인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 등 성인여성 대상 예방접종도 다양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를 통해 여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미리미리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6.txt

제목: 암 치료비 부담 덜어주는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견적 필수  
날짜: 201402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7100000572  
본문: [쿠키 생활] 암 발병은 정신적인 두려움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까지 안겨준다. 암에 대한 두려움 만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함께 가지게 되는데, 실제 2009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12.2%, 암 치료비 부담이 67.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br/>최근 서구화식습관이 늘어나면서, 주위환경, 흡연이나 음주 등은 암을 불러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br/>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설마 내가'라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br/>실제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는데 암 진단이라는 결과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암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은 받은 암 진단으로 수술후 완치는 되었지만, 대비도 못한 탓에 치료비용으로 몇 개월 치의 월급이 고스란히 의료비로 지급되었다.<br/>또한, 30대 중반의 여성 P씨는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다 보니, 치료나 검사 비용으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치료비 걱정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암 보험 추천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가입했다고 한다.<br/>암 보험은 일반 암부터 고액의 암까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 종류와 치료기간에 따라 암 비용의 차이가 큰데, 고액의 암은 검사비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다.<br/>치료비가 큰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 문제는 보장내용과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스스로 암 보험 상품 비교하기가 어려워, 저렴한 것이 좋아서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이다.<br/>꼼꼼한 소비자라면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하여도 손해없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암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가입요령 및 주의사항 알아보자.<br/>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한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7.txt

제목: 고리원전 주변 암 진단율 3.1%… 전국평균 2∼3배  
날짜: 20140227  
기자: 윤봉학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7100000062  
본문: 고리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진단율이 수도권 등 전국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최근 3년 6개월간 암 종합검진을 받은 부산 기장군민 3031명 가운데 94건이 암으로 판정돼 암 진단율이 3.1%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등 대형 종합병원(1.04∼1.06%)의 2∼3배에 달하는 것이다.<br/>종류별로는 갑상선암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31건), 대장암(6건), 폐암(4건), 전립선암(3건) 등 순이었다.<br/>뇌혈관 검진을 받은 기장군민 1879명 중에서는 42건의 종양이 확인됐고, 뇌경색과 뇌혈관 질환도 1711건이 발견됐다.<br/>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기장군은 2010년 7월부터 기장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에게 검진비용(80만원) 전액 또는 절반을 지원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가 5대 암 검진대상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하루 2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br/>박상일 암예방검강증진센터장은 “<span class='quot0'>고리원전과의 상관관계는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조사에서는 검진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평생 처음 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암 진단율이 높게 나온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8.txt

제목: 여성 질환 ‘자궁근종’…20대부터 예방해야  
날짜: 201402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7100000184  
본문: [쿠키 건강] 20대부터 시작해 30~40대 여성의 몸에 소리 없이 파고들어 건강을 앗아가는 질환 ‘자궁근종’. 이 질환은 초기에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욱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br/><br/>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을 일컫는다. 주로 호르몬 작용의 요충지가 되는 자궁 체부나 자궁 경부에 생기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 난소와 질, 외음부, 자궁 주변 조직에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과는 무관한 성격의 종양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 20%가량이 자궁에 크고 작은 근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빈도가 높은 질병이다.<br/><br/>자궁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근육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하나의 자궁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을 해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대부분 증상 없이 근종이 자라다 크기가 커져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과다</span>”라며 “<span class='quot0'>그 밖에 비정상 자궁출혈, 골반의 통증과 압박감, 복통, 요통, 월경불순, 성교통, 빈뇨 등 자궁과 생식기의 기능 이상이 대표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모든 병이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통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평소에 자신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자궁근종은 물론 여러 여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br/><br/>현대인은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장 운동을 더디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특히 장 운동이 지체되면 늘어진 장이 자궁을 압박해 피로감을 준다.<br/><br/>임대종 원장은 “<span class='quot0'>체내 에스트로겐 대사를 증진시켜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싹양배추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자궁 건강에 도움을 준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39.txt

제목: 완화의료 54개 전문기관, 27억원 예산 차등지원  
날짜: 201402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7100000281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국고 지원 사업설명회를 열고, 54개 기관(868병상)에 대해 총 27억원의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br/><br/>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암관리법에 따라 전국 총 54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br/><br/>복지부는 지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2013년 10월)을 발표하고, 완화의료팀제도 및 가정호스피스제도 법제화, 건강보험 수가 도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완화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 완화의료 기관간 협력·교류 지원 등을 통해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질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0.txt

제목: [질환 바로알기-광선각화증①] 피부암 발전 가능성 높아 주의  
날짜: 201402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7100000267  
본문: [쿠키 건강] 최근 고령화로 인해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선각화증(Actinic Keratosis)’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관심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광선각화증은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50대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피부암학회(회장 김일환·사진, 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광선각화증’의 진단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장기간 태양광선 노출로 인해 발생되는 각화성 병변<br/>광선각화증(일광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는 각화성 병변으로 표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암 전단계 질환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자외선(태양광선)의 노출이 주된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임상적으로 적갈색 또는 흑갈색의 인설이 있는 반점 또는 구진의 소견을 보이며 촉진 시 병변의 거친 표면을 확인할 수 있다.<br/>농어업 종사자 등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히 발생하며 얼굴, 두피, 입술, 귀, 목, 팔, 손등과 같이 만성적으로 자외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 주로 나타난다.<br/>실제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생부위는 얼굴이 82.3%로 가장 많고, 두피가 12.5%, 손 및 손목이 4.2%, 종아리 1.1%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얼굴에서는 뺨, 관자놀이, 코, 이마, 안검, 턱 순으로 발생했다.<br/>주로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자주 발병하여 노인각화증 이라고도 불리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선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젊은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김일환 대한피부암학회 회장은 “<span class='quot0'>광선각화증은 호발 부위에 따라 단일 병변 혹은 자외선에 노출된 전체 부위에 붉은 갈색을 띠는 다발성 병변 형태로 나타나며,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병변이 존재할 수 있어 진단 및 치료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설명했다.<br/>일단 질환이 발병할 경우 만졌을 때 표면의 건조한 인설로 인해 까칠까칠한 것이 특징이다. 피부 표면과 같이 편평하면서 때로는 수㎜ 정도 융기하기도 한다. 각질을 제거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호발 부위 내 각기 다른 변형의 단계에 있는 변이된 클론(Clone)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될 수 있다. 입술에 발생할 때는 광선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아래 입술에 나타나며 각질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광선구순염(Actinic cheilitis)이라고 한다.<br/>◇50세 이상 중장년층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br/>광선각화증 유병율은 전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또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광선각화증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1년 대비 2012년도에 약 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br/>노령인구의 증가,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 등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광선각화증의 유병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r/>특히 이 질환은 5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총 2만2600명으로, 연령별 분포의 경우 50대가 전체의 13%, 60대 20%, 70대 32%, 80대 이상이 16%로, 50대 이상의 노년층 발병률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br/>국내 남녀 환자 비율의 경우 2012년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약 1대 1.69로 여성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하지만, 국내 성별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증상 발생시 여성의 조기 내원 비율이 더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발병률은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br/>◇광선각화증 왜 위험한가?<br/>광선각화증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가 광선각화증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해외 연구에서는 편평세포암의 72%~82%가 광선각화증과 관련 있다고 보고 됐으며, 일광노출부위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의 경우 광선각화증 동반 비율이 97.2%라는 연구보고도 있다.<br/>대한피부암학회에 따르면 국내 편평세포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광선각화증이 동반되어 나타난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간 강원지역 피부암전구증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광선각화증이 전체 피부암전구증의 7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br/>일반적으로 광선각화증의 유병기간이 늘어날수록 피부암으로의 발전 가능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 158명을 대상으로 한 유병기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미만이 12.1%, 1년 이상 4년 이하가 54.4%, 5년 이상이 11.4%로 대부분 1년 이상의 만성경과를 보였다.<br/>대한피부암학회 측은 “이는 광선각화증 병변 자체에서 느끼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생 즉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br/>일반적으로 광선각화증이 편평세포암으로 진행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24.6 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환자의 경우 이 기간을 초과해 질환을 방치할 수 있으므로 편평세포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1.txt

제목: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 3년 6개월, 97건 암 발견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12  
본문: [쿠키 건강]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97건의 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br/><br/>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기장군민은 총 4910명이며, 이 가운데 3031명이 암 종합검진을 받았고 뇌혈관 검진은 1879명이 받았다.<br/><br/>암 종별로 보면 갑상선암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암 31건, 대장암 6건, 폐암 4건, 전립선암이 3건, 간암, 식도암, 유방암, 직장암이 각 2건, 담도암이 1건이었다.<br/><br/>안수연 갑상선·두경부암센터장은 "갑상선암을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고 하지만 그냥 방치해 목 주위나 림프절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근에는 조기발견 뿐만 아니라 상당히 진행되어 큰 수술을 해야 하는 갑상선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br/><br/>'뇌혈관 검진'에서는 악성 뇌종양 3건, 양성 뇌종양 또는 기타 종양 등이 42건이었으며, 뇌경색과 뇌혈관 질환이 1711건, 그 외 1000건 정도 크고 작은 뇌질환을 발견했다. 특히 뇌혈관 검진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뇌질환이 중복으로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br/><br/>박상일 암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암 진단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데, 검진 연령대가 높고 평생 검진을 받아 본 적 없는 분들이 검진을 받은 점 또한 영향을 주었다. 다행히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후 무리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고, 뇌혈관검진으로 뇌출혈을 직전에 발견해 긴급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br/><br/>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40세 이상 군민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검진비용의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만 40세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록장애인은 전액을 지원받는다.<br/><br/>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군민에게는 반액인 40만원을 지원하며, 본인이 4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br/><br/>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의 유용성을 재차 확인하고, 올해부터 기장군민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2.txt

제목: 미국도 갑상선암 급증…과잉진단 탓?  
날짜: 201402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345  
본문: [쿠키 건강] 조기에 적극적인 검사 결과 국내 갑상선암이 급진적으로 늘어난 것과 같이 미국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br/><br/>미국 다트머스의대 Louise Davies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 20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span class='quot0'>미국내 갑상선암에 대한 무분별한 검사 등의 진단으로 암 환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br/><br/>연구팀은 SEER 프로그램을 이용해 1974~2008년의 갑상선암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은 물론 과잉진단 및 치료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분석했다. 그 결과 1975년에 10만명 당 4.9명 꼴이였던 갑상선암 환자수가 2009년에는 10만명 당 14.3명으로 9명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과거 CDC가 같은 기간동안의 갑상선암 유병률이 안정적이라는 분석과는 다소 상반된 수치를 보였다.<br/><br/>연구팀은 “데이터를 보면 2001~2010년 갑상선암은 연간 1.2%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간암이 20여년동안 연간 2.4% 유병률이 많아졌다. 이는 주요 암의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br/><br/>책임연구자 Davies 교수는 “<span class='quot1'>갑상선암의 급진적 증가세는 환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잉진단과 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심각한 임상학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pan>”고 말했다.<br/><br/>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클리브랜드의대 Allan Siperstein 교수는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은 연구”라며 “이전 연구들과 비교 해봤을 때도 갑상선암 유병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지만, 꼭 과잉진단 때문만은 아니다. 사망률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br/><br/>미국 시카고의대 Raymon Grogan 교수도 “<span class='quot2'>참고한 데이터는 미국 국민만을 대상으로한 자료로 정확성이 떨어진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전 세계적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등만 봤을때도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span>”고 전했다.<br/><br/>이에 논문 공동저자인 다트머스의대 Welch 교수는 “<span class='quot1'>하지만 지난 30여년동안 기기들이 발전하면서 무분별한 검사가 시행된 것은 사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과잉진단 및 치료를 줄이기만 해도 갑상선 종양을 재분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한편, 갑상선암의 과잉진단 논란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과 비교했을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br/><br/>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본부가 2013년 12월말 발표한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를 보면 갑상선암은 1999~2011년 10여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23.7%로,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또 2011년 데이터만을 단독으로 비교해봤을 때도 그 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이 갑상선암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에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3'>첨단 영상진단기기의 발전 덕분에 미세한 신체변화까지도 집어낼 수 있게 돼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갑상선암까지 진단하게 되면서 생긴 기현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3.txt

제목: 의학자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중단’ 주장… “왜?”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360  
본문: [쿠키 건강]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수의 의학자들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br/><br/>도쿄신문은 26일 “<span class='quot0'>심포지엄에 참석한 의학자들이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 사레들은 백신효과를 높이기 위해 백신에 들어가 있는 특수 알루미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span>”고 보도했다.<br/><br/>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파리대학의 프랑수와 오쉐 교수는 “<span class='quot1'>자궁경부암 백신을 주사하면 근육 내에 백혈구의 일종인 ‘매크로퍼지’가 과도하게 모여들어 특수 알루미늄을 둘러싸 그대로 전신으로 퍼져 염증을 일으킨다</span>”고 지적했다. 특히 “분해가 안 된 알루미늄의 일부는 뇌에 축적돼 신경과 치매 장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br/><br/>다른 의학자 또한 “자궁경부암의 바이러스 DNA가 알루미늄에 흡착되면 인체에 심각한 자기면역질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등 자궁경부암 백신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br/><br/>이와 반대로 일본 후생성 전문가팀은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주사 통증에 대한 환자의 불안이 일으키는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br/><br/>자궁경부암은 여성의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말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며, 자궁경부암의 약 80%는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4.txt

제목: 서울아산병원 긴이식팀, 몽골 최초 소아 생체간이식 성공 지원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06  
본문: [쿠키 건강] 시한부 삶을 살던 5살 몽골 남자 아이가 울란바토르로 찾은 우리나라 간이식팀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다.<br/>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간이식팀(팀장 이승규)은 지난 22일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국립제1병원을 방문, 간경화로 생명이 위독하던 선천성 담도폐쇄증 환자 델게르세한(Delgersaikhan)에게 어머니 솔론고(Solongo·31)씨의 간 일부를 떼어주는 생체간이식술을 시술하는데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br/>델게르세한은 수술 후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 큰 합병증 없이 빠르게 건강을 회복 중이다.<br/>이번 간이식 수술은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아산병원의 ‘간이식 술기 몽골 전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행되었으며, 서울아산병원의 몽골 현지 최초의 소아 생체간이식수술이다.<br/>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1994년 12월 생후 9개월이었던 여아에게 아버지의 간 일부를 떼어주는 소아 생체간이식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이후 20년 뒤인 몽골에서도 현지 최초로 소아 생체간이식을 성공해, 세계 간이식 역사에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br/>이날 간이식을 받은 델게르세한은 2009년 11월 출생 시 담즙이 장으로 배출되지 않아 간을 망가뜨리는 선천성 담도폐쇄증 진단을 받고 새 담도를 만들어주는 카사이(Kasai) 수술을 시행했지만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하루하루 생명이 꺼져가는 시한부 삶을 힘겹게 이어가야 했다.<br/>이번 수술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외과 송기원 교수는 “기증자인 어머니의 간 30% 정도, 235g이 아들에게 이식되었다. 수술시 특별한 점은 없었고 결과도 성공적이다. 현재 아이의 얼굴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br/>역시 이번 수술에 동참한 몽골국립제1병원 간이식팀장 세르겔렌(Sergelen·48·여) 교수는 “몽골의 간암 사망률은 세계 1위이며 몽골 암 환자 40%가 간암 환자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의료진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br/>서울아산병원은 2011년부터 ‘간이식 술기 몽골 전수 프로젝트’에 따라 그동안 70여 명의 몽골 의료진을 초청 간이식 기술을 전수해줬다. 또 몽골 현지를 총 7차례 방문해 13명의 간암, 간경화 환자 등에게 간이식 수술을 대신해주기도 했다.<br/>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은 생체 간이식수술만 총 3480건을 시술, 세계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7년 연속 연간 300건 이상의 간이식 수술 기록(2007∼2013년)을 올리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5.txt

제목: 미래에셋생명, 오는 7월까지 '다이렉트보험 체험존' 운영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31  
본문: [쿠키 경제] 미래에셋생명이 다이렉트보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이렉트보험 체험존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br/>미래에셋생명은 고객들이 직접 다이렉트보험을 체험하고, 장점을 알 수 있게 하고자 여의도 본사 사옥 1층에 위치한 커피숍 ‘브라운벤치’에 다이렉트보험 체험존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고객들은 직접 보험료를 계산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다.<br/>또한 2월 28일까지 체험존을 통해 보험료를 알아본 고객에게는 룰렛 게임으로 영화관람권 등 모바일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br/>미래에셋생명 차승렬 e-Biz팀장은 “체험존을 통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보험의 장점을 많이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험 마케팅과 온라인에서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것” 이라고 전했다.<br/>한편 2013년 6월에 출시된 미래에셋생명 다이렉트보험은 온라인 보험 업계 최다인 7개의 상품(암, 정기, 어린이, 저축, 연금저축, 건강출산, 건강제대보험)을 인터넷 홈페이지(direct.miraeasset.com)에서 판매 중이다.<br/>다이렉트보험은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며, 가입절차가 간편하여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다이렉트 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낮춰 환급률이 높고, 암보험은 보험료 인상 없이 8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20대 남녀가 다이렉트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1만원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6.txt

제목: 일양약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임상3상 환자등록 완료  
날짜: 2014022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242  
본문: [쿠키 건강] 일양약품이 개발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가 1차 치료제 진입을 위한 임상 3상 환자등록을 2월 26일부로 완료했다.<br/><br/>지난 2011년 8월부터 2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서울 성모병원 등 국내 외 24개 대형병원에서 임상3상을 진행한 슈펙트는 약 2년 6개월 만에 환자등록을 완료하고 정해진 치료 기간을 마치는 데로 1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br/><br/>이에 따라 일양약품 슈펙트는 글리벡 내성 환자 및 불내약성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되고 있는 2차 치료제에서 만성기 만성골수성백혈병 초기 환자도 처방이 되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범위가 확대돼 매출성장은 물론 시장 점유율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슈펙트 임상3상 환자등록 완료의미는 유럽과 미국 중심의 백혈병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발된 슈펙트가 1차 치료제로 출시를 앞두게 된 것이자 향후, 전세계 백혈병 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다국적 제약사와의 치열한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br/><br/>특히 일양약품 슈펙트의 특장점은 경쟁약물에 비교되는 우수한 효능 효과와 경제적인 약가로 고가의 백혈병 치료제 처방이 힘든 국내 및 전 세계 환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실화와 글로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br/><br/>이미 슈펙트는 거대 백혈병 시장인 중국으로부터 약효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당사와 중국 고우시 정부가 투자 설립한 양주일양 유한공사를 통해 신약판매 및 기술이전에 관한 중국수출 계약을 완료했으며, 떠오르는 신흥시장인 중동의 라이프파마사(GCC 6개국 포함 총 13개국 영업망)와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다.<br/><br/>한편, 슈펙트는 2003년 백혈병 유도체 개발을 시작으로 전임상과 임상시험을 거쳐 2012년 1월 국산 18호 신약으로 승인 된 아시아 최초 슈퍼 백혈병 치료제로 출시 당시 1일 약값(800mg) 6만4000원, 1개월(4주) 약값 179만2000원의 경제적 약가로 다국적사와 당당히 경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신약으로 평가 받고 있다.<br/><br/>또한 기존 치료제보다 주요세포유전학적 반응율이 높고 안전성이 우수한 슈펙트는 초기반응도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도 글로벌 제품과의 간접 비교결과, 우수한 유효율을 보여 일양약품의 신약기술력이 검증 받은 대한민국 대표 슈퍼 백혈병 치료제이자 세계 4번째 개발된 신약이다.<br/><br/>단일과제로는 최대 규모인 43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슈펙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혈액학회저널 블러드(Blood)지와 세계적 뉴스 제공업체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지에 ‘경쟁력 높은 백혈병 치료제’이자 ‘암 부문 가장 유망한 글로벌 신약’으로 소개 된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7.txt

제목: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3대 비급여 개선 영향 민영 의보 가입자 도덕적 해이 심해질 수도”  
날짜: 20140226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6100000071  
본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br/>숭실대 신기철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span class='quot0'>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래 입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실제로 신 교수가 2011년 4∼9월 위장염·추간판장애·갑상샘암 등 20개 질환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81만9000명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57만1000명)와 비가입자(24만8000명)로 나눠 살펴본 결과 민영 보험금을 받은 환자의 입원 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배가량 길었다. 동네의원에서는 민영 보험 가입자 입원 일수가 9.03일로 비가입자(4.08일)보다 2.2배 길었다. 신 교수는 동네의원과 한방병원 등 수익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했다.<br/>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완료되면 간암·백혈병·지주막하출혈·급성심근경색·다발성경화증·선천기형 등 민영의료보험이 중점 보장하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올라간다. 신 교수는 진료비의 99.3%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본인 부담률 5∼10%) 0.7%만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1'>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의학적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1'>민영의료보험사들도 입원 일당 손해율과 실손형 손해율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span>”고 설명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8.txt

제목: 전립선암 후유증 발기부전, 치료 방법은?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354  
본문: [쿠키 건강] 서양의 경우 전립선암은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전립선암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중년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br/><br/>하지만 정작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건 다른 곳에 있다. 전립선암은 발병률이 높지만 생존율 또한 높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암에 속한다. 그러나 수술을 위해 전립선을 떼어내면 요실금, 발기부전, 사정장애 등을 겪을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기가 되지 않아 수술 후 남성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br/><br/>박성훈 세움비뇨기과 원장은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발기부전에는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br/><br/>박 원장은 “<span class='quot0'>난치성이나 암수술 후 발병하는 발기부전은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심리적인 문제와 부부관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발기부전은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 한번 치료할 때 확실하게 완치하는 것이 최선</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특히 박 원장에 따르면 발기부전 치료 중 비교적 확실한 방법은 바로 ‘팽창형보형물삽입술’이다. 이는 음경의 해면체에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성적 쾌감이나 음경의 감각도 그대로 유지되며 의지에 따라 발기가 가능하다.<br/><br/>박성훈 원장은 “<span class='quot1'>수술을 받는 것은 좋지만 무턱대고 병원을 선택하지 말고, 음경 보형물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은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철저한 감염관리 시스템과 평생시술 책임제 및 보증서를 발행하는 곳인지 확인한다면 더욱 청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술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비뇨기과 전문의인 박성훈 원장은 coloplast사(社) 글로벌트레이닝을 받았으며, 발기부전보형물 디지털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했다. 세움비뇨기과는 발기부전 수술에 필수적인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균조작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수술복과 소독포 같은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며 과학적인 감염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49.txt

제목: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51조원…65세 이상 노인이 34.5% 차지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298  
본문: 췌장암·간암, 1인당 요양급여비 800만원 넘어<br/><br/>[쿠키 건강] 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1조원으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이 3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2013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수는 4998만9620명)에 따르면 2013년 요양급여비용은 50조742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나타났다.<br/><br/>입원은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17조7279억원(구성비 45.6%)이고 외래는 5.9% 증가한 21조1459억원(구성비 54.4%)으로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외래보다 1.9%p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5일, 외래 16.8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일수는 0.2일 증가하고 외래는 0.1일 감소했다.<br/><br/>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1조8688억원으로 전년대비 0.4%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10일로 나타났다.<br/><br/>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38조8738억원으로 의원 10조6742억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8조2022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64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1.3%, 치과병원 15.6%, 한방병원 10.7%, 병원 10.4% 순이었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16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 증가했으며, 입원이 3조730억원이고 외래가 929억원으로 나타났다.<br/><br/>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했고, 방문일수는 전년 대비 2.0%(입원 5.5%, 외래 1.9%) 감소했다. 약국의 경우도 요양급여비용은 0.4% 증가했으나 처방조제에 의한 방문일수는 전년대비 1.6%(직접조제의 경우는 11.3%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는데 남성 23조3965억원(46.1%), 여성 27조3460억원(53.9%)으로 여성의 요양급여비용이 3조9495억원(7.8%) 많았다. 남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93만651원, 여성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10만456원으로 나타났다.<br/><br/>연령 구간별(10세 단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보면 10대는 1조961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1% 감소했고, 30대는 남성(1조9386억원)과 여성(2조5592억)의 차이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남성 46만7494원, 여성 65만1685원으로 나타났다.<br/><br/>70세 이상에서는 13조859억원(25.8%)으로 전년도 대비 11.99% 증가했으며,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64% 증가했고 전체 1인당 평균 요양급여비용의 3.3배이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2.13%p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br/><br/>◇65세 이상 노인, 전체 요양급여비의 34.5% 차지…백내장·폐렴 많아<br/><br/>201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4만명으로 요양급여비용은 17조5283억원(34.5%)이며, 전년 대비 증가액은 1조4901억원, 증가율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305만원으로 전체 1인당 요양급여비용의 3배이며, 노인 1인당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연간 68일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65세 이상 노인은 노년성 백내장(17만9123명),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7만1624명), 뇌경색증(6만8767명) 등의 상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많으며, 고혈압(227만6507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2만2586명), 급성기관지염(151만1428명) 등의 순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입원 노인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연간 6462억원이며,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092만9000원으로 나타났다.<br/><br/>4대 분류(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청구항목)별로 구분한 요양급여비용은 기본진료료 15조1122억원(29.78%), 진료행위료 20조1390억원(39.69%), 약품비 13조2413억원(26.10%), 재료대 2조2501억원(4.43%)으로 나타났다.<br/><br/>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38.87%, 진료행위료 43.97%, 약품비 11.37%, 재료대 5.79%이며, 전년도 대비 변동 내역은 기본진료료 0.5%p 감소, 진료행위료 0.8%p 증가, 약품비 0.2%p 감소, 재료대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약국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는 행위료(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25.68%, 약품비 74.32%로 전년도 대비 행위료 0.62% 증가, 약품비 0.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유방암·전립선암 환자 증가…비용은 췌장암·간암 높아<br/><br/>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 입원 다발생 상병은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24만2000명, 기타 추간판 장애 23만7000명 순이고,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1484만8000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1027만7000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도 대비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15.7%가 증가했으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3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요양급여비용이 가장 큰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6,569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685만3000원이며,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6630억원)으로 1인당 진료비가 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br/><br/>2013년도 암상병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는 37만9724명으로 전년 대비 4.1%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은 2조6582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다.<br/><br/>2013년도 암 진료 다빈도 순위는 갑상샘암 5만3737명, 위암 4만5745명이며, 전년 대비 암환자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유방암 9.3%, 전립선암 7.6% 순으로 나타났다.<br/><br/>암 상병별 요양급여비용은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암 상병 3132억원, 기관지 및 폐암 3073억원, 위암 2740억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며, 암 환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췌장(이자)암이 855만7000원, 간 및 간내 쓸개관(담관)암 833만5000원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0.txt

제목: 25일 강릉아산병원 신관 증축 기공식…2015년 완공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203  
본문: [쿠키 건강]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강릉아산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원지역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면적 24,751㎡(7500평), 12층(지상10층, 지하2층) 규모의 신관을 증축하며, 기공식은 2월 25일(화) 오후 2시 신관 증축 부지 현장에서 갖는다.<br/><br/>2015년 8월 신관이 완공되면 강릉아산병원(원장 김인구)은 전체 연면적 99,405㎡(3만100평), 병상 수는 기존 659병상에서 850병상 규모로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거듭나게 된다.<br/><br/>증축되는 신관에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뇌신경·관절 질환 등에 대한 전문센터가 신설되고, 건강검진센터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지역 내 백혈병환자들에게 전문화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동지역 최초로 조혈모이식센터가 개설된다.<br/><br/>또한 갑상선질환 및 암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실을 신설하고, 암 진단 장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사이클로트론이 설치되어 PET-CT 검사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필요로 하는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br/><br/>김인구 강릉아산병원장은 “<span class='quot0'>신관증축을 통해 선진화된 진료시스템이 도입되면 도내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원 영동지역 의료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더불어 김 병원장은 2015년 신관이 완공되면 지역 내 병상부족 현상의 해소와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1.txt

제목: 의료비 부담해결책, 의료실비보험 상품으로 대비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476  
본문: [쿠키 생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쓰는 평생 의료비는 평균 1억원정도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되어 있다. 항상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의 경우 병원 의료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당하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가벼운 감기부터 상해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인기가 높다.<br/>때문에 노후 대비 뿐만 아니라 병원치료비를 가입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편이다.<br/>최근 환절기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P씨는 작년 알레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방해와 더불어 스트레스까지 받아 힘들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직장 특성상 외출이 잦다 보니 낫다싶으면 또 걸려 병원을 여러 번 다녔는데, 그렇다 보니 병원비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어 부담이 컸다고 했다.<br/>그래서 의료실비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했는데 올해 초 독감으로 인해병원을 다니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환급 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br/>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하여,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 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2.txt

제목: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날짜: 2014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13560307  
본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다.<br/>이일학 연세대 의대(의료법윤리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span class='quot0'>지난해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다</span>”고 말했다.<br/>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13, 14조).<br/>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전의료의향서(유서 포함)가 있거나(명시적 의사),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대리 결정)에 해당한다.<br/>이에 대해 논평자들은 연명 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br/>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생명 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span>”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으로 이어져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1'>미국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실험에 참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2∼3%가 동의하고,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부모는 60∼70%가 동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리 결정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span class='quot2'>환자의 상태와 환자 의사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급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 권고안이 나오게 된 계기인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 2009년 5월 법원은 뇌사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대신 죽음을 선택할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 인공호흡기를 제거토록 했으나 김할머니는 201일을 더 생존했다. 이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2'>가족을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판단을 환자 자신의 의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크다</span>”고 강조했다.<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3.txt

제목: 말레이시아 의료진, 대전성모병원 방문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296  
본문: [쿠키 건강] 말레이시아 의료진이 한국의 첨단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전성모병원을 찾았다.<br/><br/>대전성모병원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의료진은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자국에서 메디컬 투어 병원으로 유명한 암팡 푸 테리 병원의 와합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을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총콩페이, 정형외과 전문의 아즈와 등이다.<br/><br/>이들은 27일까지 나흘간 대전성모병원의 통증센터에 머물면서 영상장치와 초음파를 이용한 통증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허리통증의 원인이 되는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인 경막외내시경술, 수핵성형술, 신경성형술 등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된다.<br/><br/>특히 경막외내시경술은 허리의 구조물 중에 경막외강이라는 매우 좁은 공간에 내시경을 넣어서 허리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시술로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등의 질환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고난도 시술법이다.<br/><br/>이들이 한국을 찾게 된 것은 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조대현 교수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말레이시아 의사 면허를 받고 말레이시아 현지 환자에게 경막외내시경술을 직접 시연한 후 그 효과를 확인한 데서 비롯됐다.<br/><br/>암팡 푸 테리병원 와합 병원장은 “<span class='quot0'>말레이시아의 통증 치료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지난해 말레이시아를 찾은 조대현 교수의 허리통증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여 이 시술법들을 배우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의 치료 시스템과 의료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span>”고 말했다.<br/><br/>조대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통증센터 교수는 “<span class='quot1'>환자들의 서울 대형병원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심각한 수도권 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크하는 외국 의사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지역 병원의 의료 기술이 외국에서도 인정할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4.txt

제목: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땐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도덕적 해이 우려"  
날짜: 201402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5100000454  
본문: [쿠키 사회]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이 정액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br/>숭실대 신기철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정액형 개인의료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span class='quot0'>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오래 입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실제로 신 교수가 2011년 4~9월 위장염 추간판장애 갑상샘암 등 20개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81만9000명을 민영의료보험 가입자(57만1000명)와 비가입자(24만8000명)로 나눠 살펴본 결과, 민영 보험금을 받은 환자의 입원 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배가량 길었다. 동네의원에서는 민영 보험 가입자 입원 일수가 9.03일로 비가입자(4.08일)보다 2.2배 길었다. 신 교수는 동네의원과 한방병원 등 수익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를 유도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했다.<br/>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이 완료되면 간암·백혈병·지주막하출혈·급성심근경색·다발성경화증·선천기형 등 민영의료보험이 중점 보장하는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올라간다. 신 교수는 진료비의 99.3%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고(본인부담률 5~10%) 0.7%만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기관 등에 지급한 의료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br/>신 교수는 “<span class='quot1'>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의학적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하는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span>”며 “<span class='quot1'>민영의료보험사들도 입원일당 손해율과 실손형 손해율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를 인상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span>”고 설명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5.txt

제목: 암 예방의 첫 걸음…‘생활습관’을 바꿔라!  
날짜: 201402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193  
본문: [쿠키 건강] 암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질병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반영물이다. 위생이 불결하던 시절에는 자궁경부암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암이 많았고, 빈곤의 시기에는 결핵이 흔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암 예방의 첫걸음 생활습관’에 대해 알아본다.<br/><br/>◇암과 음주, 암 발생률은 음주량에 비례한다<br/><br/>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공개한 각 나라의 수명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 수명이 단축된다. 여기에는 간질환이나 술로 인한 심혈관질환 영향도 있지만 암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과음이 생활화되면,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br/><br/>캐나다 맥길 대학의 앤드리어 베네데티 박사가 13종류의 암환자 3,064명과 건강한 사람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분석 결과, 독주를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마시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잔을 마시거나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식도암 위험이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다는 포도주도 적당량을 넘어 마실 경우 결장암과 방광암 위험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전체적으로 각종 암 발생률은 음주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1년 내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에 거의 중독되어 쉬지 않고 자주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췌장암과 결장암 위험은 2배 이상,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아질 수 있다.<br/><br/>특히 여성은 알코올에 더 취약하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항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이대일 원장은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에서 알코올 독성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라며 “여성의 몸은 남성과 같은 체중이더라도 지방의 비율이 높다. 마신 알코올은 지방에 축적되는데, 이 말은 곧 알코올이 여성의 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br/><br/>◇암과 흡연, 모든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흡연<br/><br/>담배 연기에는 62가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한다. 한 해에 5만 명이 담배로 인한 폐암과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흡연 후 30년 정도 지나면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1980년대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의 폐암 사망률 1위를 낳고 있다. 이 밖에 흡연은 구강암, 후두암, 방광암, 위암 등 거의 모든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br/><br/>게다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류의 당분이나 지방질 음식, 술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과일 및 채소나 해산물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나쁜 식습관까지 겹치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동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4,851명을 대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식습관을 비교한 결과다.<br/><br/>이에 따르면 흡연자들은 상대적으로 당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겼다. 알코올 소비량도 흡연자가 많아, 흡연 남성의 14.9%가 일주일에 4회 이상 소주를 마신 반면, 비흡연자는 그 비율이 9.1%에 그쳤다. 술을 마실 때 담배를 피우고 싶고, 담배를 피우면 술이 더 마시고 싶어지는 것처럼 중독성 있는 물질끼리 더 당기게 하는 이른바 ‘점화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br/><br/>◇암과 스트레스, 암 예방과 연결되는 스트레스 관리<br/><br/>스트레스는 내분비계를 활성화해 신체방어 작용인 면역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암 발생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이 떨어져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암 환자에겐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암에 걸리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혼, 사별, 실직, 고부갈등, 회사에서의 과로 등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무장해제시킨 것이다.<br/><br/>스트레스는 복합적으로 발암 효과를 낸다. 우선 스트레스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부른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은 흡연, 과식 혹은 잦은 음주 등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성의 약화도 암 발생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br/><br/>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몸의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종양이 그렇지 않은 쥐의 종양보다 빨리 성장하고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야 한다.<br/><br/>이대일 원장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등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조절법이 암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6.txt

제목: 국립암센터 26일, ‘암 질환 중심-바이오 빅데이터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2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199  
본문: [쿠키 건강]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는 오는 26일(수) 오후 1시부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암전문대학원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국회 바이오 빅데이터포럼(대표 권은희, 김성주, 윤명희, 이원욱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암 질환 중심 바이오-빅데이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br/>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 맞춤의료에 관한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된다. 또한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미래 R&D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며 향후 지향해 나가야할 방향도 논의된다.<br/>심포지엄 1부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시대의 암 연구개발 정책과 비전’ 주제로 ▲국립암센터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방향 및 비젼(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이덕형 본부장) ▲해외 빅데이터 기반 암 유전체 응용 사례(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열홍 교수)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삼성생명 보험연구소 양혜영박사) 등이 발표된다.<br/>이어 2부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암 정밀의료에 관한 미래 전략’ 주제로 ▲암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IT기반 빅데이터 R&D(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선 교수) ▲바이오 빅데이터 기반 질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응용(질병관리본부 조성범 과장) ▲국립암센터 빅데이터 기반 암 유전체 응용 전략(국립암센터 암유전체연구과 허철구 과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7.txt

제목: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광선각화증’…노년층 환자 많아  
날짜: 201402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209  
본문: 조기 진단 통한 올바른 치료 필수<br/>[쿠키 건강] 피부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광선각화증(Actinic Keratosis)’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선각화증은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50대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80%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br/>대한피부암학회(회장 김일환·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지난 21일 레오파마와 공동으로 ‘광선각화증의 치료 패러다임’ 주제의 미디어포럼을 열고 ‘광선각화증’의 심각성과 치료, 예방법 등을 제시했다.<br/>◇인구고령화와 야외활동 증가로 유병률 크게 늘어<br/>광선각화증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 발생하는 각화성 병변으로, 표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피부암 전 단계 질환 중 하나이다.<br/>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질환인 광선각화증은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피부질환으로, 백인의 경우 70세 이상 성인이 최소 한 개 이상의 광선각화증 병변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발생 빈도가 높다. 주요 발병요인은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로 알려져 있으며, 농·어업 종사자와 같이 장기간 야외 노출이 많은 직업군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50대 이상 노년층에서 주로 발병되는 질환이다.<br/>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광선각화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 2만2600명 중, 50대 이상의 노년층 발병률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또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광선각화증의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내의 경우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유해물질과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변화, 야외 활동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br/>◇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가 광선각화증으로부터 진행<br/>광선각화증이 심각한 것은 피부암(편평세포함)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실제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가 광선각화증 질환으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br/>국내 편평세포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광선각화증 동반 비율이 무려 8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999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0년간 강원지역 피부암전구증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광선각화증이 전체 피부암전구증의 7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br/>이에 대해 이미우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렇듯 광선각화증은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세포암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암단계의 질환인 만큼 단순히 미용적 문제의 피부질환이라는 인식을 넘어 심각성에 대한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이처럼 피부암과의 높은 연계성에도,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들의 질환 인지도 및 치료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의 발병이 높은 질환의 특성상, 검버섯이나 습진 등과 혼동해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잘못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br/>하지만 광선각화증은 이러한 단순 노인성 질환과 달리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방치하면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선각화증은 통증 등의 자각증상이 희박하고, 눈에 보이는 병변과 함께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잠재병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외선 노출이 잦은 직업군에서는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을 통해 증상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br/>◇광선각화증 치료와 예방은?<br/>광선각화증은 크게 눈에 보이는 병변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병변의 직접적 치료법(Lesion directed therapy)’과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잠재 병변까지 치료할 수 있는 ‘필드 치료법(Field therapy)’으로 분류된다.<br/>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변의 경우 냉동요법이나 레이저 치료 등과 같이 병변의 직접적 치료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나, 여러 부위에 걸쳐 나타나는 다발성 병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병변의 치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br/>또한 여러 번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치료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병변의 면적이 넓거나 다발성 병변(10개 혹은 그 이상)이 관찰될 경우에는 필드 치료법(Field therapy)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br/>김일환 회장은 “<span class='quot1'>광선각화증은 편평세포암과 연계성이 큰 전암단계의 질환으로 그 심각성이 제고 되어야 하는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잠재 병변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군에서는 정기적인 피부과 방문을 통해 규칙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한편, 이번 미디어포럼을 개최한 레오파마와 대한피부암학회는 향후 국내 광선각화증 환자들의 질환 인지도와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8.txt

제목: 광선각화증, 피부암으로 발전 위험 높다  
날짜: 20140224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016  
본문: 피부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조기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병인데도 제대로 주목 받지 못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광선각화증’이다.<br/>대한피부암학회(회장 김일환·고대안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2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광선각화증 치료의 패러다임’이란 제목으로 미디어포럼을 열고 피부암 위험을 높이는 광선각화증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 자리를 가졌다.<br/>광선각화증이란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발생하는 각질성 병변(병으로 인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을 말한다. 주로 뺨과 입술, 귀, 목 뒤, 팔과 손등 부위의 표피에 발생한다. 병변을 손으로 만졌을 때 사포 표면과 같이 까칠까칠한 것이 특징이다. 크기는 0.5㎜짜리부터 3∼4㎝짜리까지 다양하다.<br/>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3년간 광선각화증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총 2만2600명이다. 이중 80%가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이었다.<br/>중앙대병원 피부과 서성준 교수는 “<span class='quot0'>인구의 고령화, 유해물질과 햇빛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적 변화, 야외활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들어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 광선각화증은 피부암 중에서도 특히 편평세포암으로 잘 변한다. 전 세계적으로 편평세포암 환자의 약 60%, 한국인 편평세포암 환자의 88%가 광선각화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경우 냉동요법, 전기소작술, 이산화탄소 레이저 및 소파술(병변을 칼로 긁어내는 수술) 등으로 제거한다.<br/>서울아산병원 피부과 이미우 교수는 “<span class='quot1'>광선각화증을 막으려면 가능한 한 햇빛 노출을 피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1'>부득이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외활동을 해야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노출 부위엔 선블록크림을 하루 두 번 이상 바르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59.txt

제목: 기독교생명윤리협 ‘기독인 관점 연명 의료법’ 공개세미나 “연명 의료법,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 여지”  
날짜: 20140224  
기자: 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4100000398  
본문: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4길 신반포중앙교회에서 ‘기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명 의료법’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열고 입법 현황과 법안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모색했다.<br/><br/>이일학 연세대 의대(의료법윤리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span class='quot0'>지난해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복지부가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다</span>”고 말했다.<br/><br/>현재 마련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환자의 명시적 의사, 의사 추정, 대리 결정에 따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특수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13, 14조).<br/><br/>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사전의료의향서(유서 포함)가 있거나(명시적 의사), 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평소 의사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의사 추정), 가족 전원의 합의를 의사 2인이 확인할 경우(대리 결정)에 해당한다.<br/><br/>이에 대해 논평자들은 연명 의료 관련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br/><br/>김민철 G샘통합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연명의료 관련 법제화)생명 존중이 아니라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비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span>”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연명의료 관련 법제화는 결국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으로 이어져 현대판 고려장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br/><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1'>미국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실험에 참가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2∼3%가 동의하고, 자녀를 대신해 결정하는 부모는 60∼70%가 동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대리 결정이 본인의 의사결정과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상원 총신대 신대원 교수는 “<span class='quot2'>환자의 상태와 환자 의사 확인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급하게 제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pan>”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 권고안이 나오게 된 계기인 ‘김할머니사건’의 경우 2009년5월 법원은 뇌사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대신 죽음을 선택할 권리인 존엄사를 인정, 인공호흡기를 제거토록 했으나 김할머니는 201일을 더 생존했다. 이 교수는 또한 “<span class='quot2'>가족을 비롯한 법정 대리인의 대리판단을 환자 자신의 의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환자의 이익보다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크다</span>”고 강조했다.<br/><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0.txt

제목: 암 치료비 부담,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2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3100000123  
본문: [쿠키 생활] 매년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에 대한 불안감 만큼 다가오는 문제가 치료비 부담이다. 실제 2009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12.2% 보다 암 치료비 부담이 67.5%로 높게 나타나면서 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br/>최근 서구화 식습관이 늘어나면서 주위 환경과 잦은 흡연이나 음주 등으로 인해 암 발생 연령대가 점차 확대되어 젊은 연령도 안심할 수 없다.<br/>30대 중반의 여성 P씨는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 치료를 받다 보니, 치료나 검사 비용으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치료비 걱정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암 보험 추천 상품들을 비교해보고 가입했다고 한다.<br/>암 보험은 일반 암부터 고액의 암까지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에 가입의 필요성이 있다. 종류와 치료기간에 따라 암 비용의 차이가 큰데, 고액의 암은 검사비만 해도 금액이 상당하다.<br/>치료비가 큰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 문제는 보장내용과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스스로 암 보험 상품 비교하기가 어려워, 저렴한 것이 좋아서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이다.<br/>꼼꼼한 소비자라면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하여도 손해없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암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가입요령 및 주의사항 알아보자.<br/>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한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1.txt

제목: 건강관리협회가 알려주는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2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2100000111  
본문: [쿠키 건강] 암 경험자 130만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 4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히 암에 대한 정보도 차고 넘친다. 문제는 잘못된 암 정보. 맞지 않은 정보는 자칫 암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 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을 알아 보자.<br/><br/>◇휴대전화 사용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밝히던 그간의 입장을 뒤엎고 휴대전화의 암 발병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10년 이상)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매일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병률이 40%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내용도 인정했다. 이에 WHO는 음성통화 대신 ‘핸즈프리 키트’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대한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br/><br/>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통화 연결 중에 전자파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지하철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통화하면 정지 상태보다 평균 5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증가했다. 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기기 출력이 증가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때도 개방 공간에서 통화하는 것보다 평균 7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세졌다. 밀폐된 장소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출력이 증가하는 것이다.<br/><br/>◇술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br/><br/>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서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 주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주의 양과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루 40~80g의 술을 10년 동안 마신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br/><br/>◇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br/><br/>아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유방암 발병률이 여성 유방암 발병률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남성의 평균 진단연령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고 대체로 예후도 여성 유방암보다 좋지 않다.<br/><br/>◇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br/><br/>대표적인 속설 중 하나다. 대장암 전문의인 김재황 영남대병원 외과 교수는 “진료한 대장암 환자 중 육류를 자주 먹었다고 말하는 환자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면서 식습관과 대장암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익히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육식을 하는 경우는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암환자에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육식을 하되 살코기를 위주로 해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br/><br/>◇유기농 식품만 먹으면 암을 피할 수 있다?<br/><br/>유기농 식품과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미국 보건당국도 화학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나 호르몬, 방부제 등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먹으라고 권고했다.<br/><br/>다만, 모든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발암성분도 포함된 만큼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령, 사과나 상추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산, 알로에의 샤프롤, 파슬리에 들어 있는 소랄렌, 버섯에 있는 셀레릴 하이드라진, 마늘에 들어 있는 이소시오시아네이트 등은 천연 발암물질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기농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미량의 독성 성분이 쌓여 해가 된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2.txt

제목: 온 종합병원,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 진료협력 협약 체결  
날짜: 201402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274  
본문: 내달 3월 ‘원스톱 암치료센터’ 개소 앞서, 상호 진료협력 구축<br/><br/>[쿠키 건강] 부산 온 종합병원(원장 정근)은 지난 20일 지역 암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치료환경 제공을 위해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진료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업무협약은 온 종합병원이 오는 3월 환자 진료에 나서는 ‘원스톱 암치료센터’ 개소에 앞서 이뤄졌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온 종합병원 정근 원장과 최경현 암센터장,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박정호 과장 등 양측 병원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br/><br/>이로써 온 종합병원은 지난해 5월 부산의료원과 64채널 PET-CT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빛으로병원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온 종합병원은 지역주민들의 암 진단과 치료에 있어 대학병원 못지않은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br/><br/>3월 3일 문을 여는 온 종합병원 ‘원스톱 암치료센터’는 지난해 3월 정근안과병원빌딩 5~6층에 새롭게 들어선다. 암치료센터는 온 종합병원 건강검진서면센터과 함께 암의 조기 진단과 수술,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가적으로 암 병동 및 암치료센터 전담 코디네이터도 배치할 예정이다.<br/><br/>‘원스톱 암치료센터’ 개소를 위해 온 종합병원은 고신대병원 암연구소 소장을 지낸 최경현 외과 진료원장을 센터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화기내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약 3달간 준비과정을 거쳤다.<br/><br/>정근 원장은 “<span class='quot0'>암은 무엇보다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빠른 수술과 안정을 통한 건강 회복이 최우선의 목표인 만큼 그동안 장시간 이동과 체류 등의 어려움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아닌 고단한 치료환경으로 힘겨워했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원스톱 암치료센터’를 개설하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전했다.<br/><br/>박정호 메리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은 “<span class='quot1'>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암 치료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 협력처럼 암의 진단에서 수술, 치료까지 부산지역 선도 병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면 지역 환자들이 더 이상 서울로 가지 않아도 마음 편히 암 치료를 받게 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br/>한편, 부산시 서면에 위치한 온 종합병원은 2010년 3월 개원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중심의 종합병원이다. 올해 상반기내 간호 1등급과 2015년 상반기 500병상 규모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병상 증설과 시설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3.txt

제목: 유방암 환자 10명중 7명은 40~50대, 관심과 정기검진 필수  
날짜: 201402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184  
본문: 식생활 습관 개선과 식이습관 변화,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 가져야<br/><br/>[쿠키 건강] 국내 여성암 발생률 2위인 유방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학회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만1275명이었던 유방암 환자는 2010년 1만6398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육류섭취가 늘면 유방암 환자도 증가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br/><br/>보건복지부 지정 외과전문 민병원(원장 김종민)은 지난해 민병원에 유방관련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40~50대 유방암 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br/><br/>분석에 의하면 4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50대가 50명, 고 60대 25명 그리고 30대가 11명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0대가 총 방문환자 중 37.7%를 50대가 34.2%를 차지해, 40~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71.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점이다.<br/><br/>이는 미국의 유방암 환자 비율의 90%가 40대 이후가 높아지는 경향과 비슷해지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유방관련 질환도 서구형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r/><br/>또 다른 특징으로 우리나라는 30대 여성의 유방암 비율이 미국보다 매우 높다는 점이다.<br/><br/>여러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와 아닌 사람을 비교하였을 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위험인자라고 한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연령 및 출산 경험(여성호르몬의 영향), 수유 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비만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유방암 환자의 5~10%에서는 유전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유전성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br/><br/>유방 종괴(덩어리), 유방 통증, 유두 분비는 흔히 유방의 3대 증상으로, 이들은 유방암의 주요 증상이기도 하지만 양성 유방 질환이나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증상의 성격과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양성 질환과 악성 질환을 구별할 수 있는 각종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br/><br/>유방암 증상의 70%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방종괴는 유방암의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한 증상으로 유방에 종괴가 있을 때 가장 흔한 원인은 섬유선종, 섬유낭종 등이며 유방암과의 정확한 감별진단을 위해서는 유방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br/><br/>여성의 70%가 유방통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은 생리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여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종양이나 염증에 의한 통증을 감별하기 위해 전문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br/><br/>김종민 민병원 원장은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 치료 방법이 많고 치료 효과 역시 우수하다. 조기 유방암의 경우 생존율이 높은 편으로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을 일상생활에서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김종민 원장은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35세 이후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을 추가하며,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과 더불어 생활습관과 식이습관의 변화와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 정기검진 등으로 통해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4.txt

제목: 강릉의료원 요양병원 전환? 대학에 인수?  
날짜: 2014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202  
본문: [쿠키 건강] 강원의료원 발전방안으로 질환별 특성화, 지역거점 병원, 민간병원과의 상생 등을 담은 정부기관 보고서가 도출됐다. 체불임금이 41억원에 이르는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강릉의료원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거나 대학에 인수되는 방안이 제시됐다.<br/><br/>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강원도의 의료기관 종사인력과 의료자원의 전국대비 규모,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실적 등의 환경여건 등을 감안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안)’ 보고서를 최종 완성, 2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br/><br/>우선 강원도 의료기관 종사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및 간호사수, 그리고 인구 10만명당 CT, MRI 대수는 전국 및 강원도 평균에 비해서 원주 권역과 강릉권역 등은 다소 높게 나타나는 반면, 영월권역 등은 매우 낮게 조사됐다.<br/><br/>인구 10만명당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대부분 신생물(암), 순환기, 호흡기 계통, 외부요인의 질환 사망률 등의 순으로 전국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r/><br/>우선 원주의료원은 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등 기업체 입주계획과 원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전문질환을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확대 개설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br/><br/>진흥원은 원주의료원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경쟁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진료분야(호흡기, 소화기, 퇴행성질환 등)와 공공의료에 적합한 분야(재활, 요양, 치매 등)에 대한 질환별 특성화센터 운영, 주민 인지도가 높은 장례식장에 대한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br/><br/>그러나 원주시는 의료공급과 경쟁 과잉 지역으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기간동안 경영성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강원도 공공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이전·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br/><br/>속초의료원은 건강검진센터 및 장례식장 증축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 첨단장비와 강원대병원 의료진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인지도 및 친화도 제고,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거점병원 역할 수행, 소화기·척추·관절 등의 전문화를 통한 수익 창출, 민간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 등이 제시됐다.<br/><br/>삼척의료원은 의료원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관리비 등 원가비율이 높고 건물 노후화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저하 및 신규 수익창출을 위한 공간활용 불가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발전방안으로 적정규모의 증축을 통한 현대화를 추진, 진료영역과 병상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의료공급과 미충족 의료수요 제공을 제안했다.<br/><br/><br/><br/>영월의료원은 노년층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료인력 및 장비등 의료자원이 부족해 의료권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의 외부유출 방지대책과 의료자원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문했다.<br/><br/><br/><br/>특히, 강릉의료원은 전국평균 대비 병상수는 113％(종합병원 4개, 의원 100여개 등)수준으로 지역 내 경쟁 과잉상태이고,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의료원가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잠정 인건비 비율 86.3％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적자의 지속에 따른 체불임금 41억원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br/><br/>도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의료원의 축소 및 기능전환” 의견에 대해 강릉의료원이 27.4％로 5개 의료원 평균 15.9％보다 높았다.<br/><br/>진흥원은 강릉의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을 통합해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릉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이다. 다른 한편으로 강릉 권역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은 없기 때문에 대학(학교법인)이 강릉의료원을 인수해 대학부속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br/><br/>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김미영 국장은 “<span class='quot0'>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해 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원 경영혁신을 통해 도내 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한편,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의료원 발전방안(안)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좌용권 단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 영동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강병국 원장과 삼척의료원 서영준 원장, 강원대병원 예방의학과 이혜진 교수, 삼일회계법인 여수동 이사,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릉의료원 반태연 지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임솔 기자 slim@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5.txt

제목: [이산가족 상봉] 1·4후퇴 때 젖먹이였는데… 61세된 딸 부둥켜안고 통곡  
날짜: 20140221  
기자: 임성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136  
본문: 뜨거운 혈육 만난 감격의 금강산 현장<br/>60여년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20일 오후 3시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호텔은 한순간 울음바다가 됐다. 상봉 대상자들은 혈육을 만나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도 가슴에 고였던 그리움을 쉽게 채우지 못하는 듯했다. 오랜 세월과 노환 탓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금강산호텔에는 함박눈이 내렸다.<br/>◇“찾아오셔서 고맙다”…통곡, 오열=손기호(91)씨는 딸 인복(61)씨와 외손자 우창기(42)씨를 만나 통곡했다. 1·4후퇴 당시 마루까지 나와 손을 흔들던 어린 딸이 어느새 노인이 돼 있었다. 손씨는 딸을 눈앞에 두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인복씨는 “아버지, 못난이 딸을 찾아오셔서 고마워요”라며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다. 손씨는 세월이 내려앉은 딸의 얼굴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br/>강완구(81)씨는 형 정구(86)씨를 안고 쓰러지듯 오열했다. 경기도 연천 휴전선 인근에 살던 형제는 6·25전쟁이 터지면서 동생은 국군, 형은 인민군에 징집됐다. 전쟁 탓에 형제가 하루아침에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된 것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60여년이다. 형제는 지난해 9월에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게 됐다. 휴전선 인근에 살았던 탓에 선친의 묘도 현재 민통선 안에 있다.<br/>정희경(81)씨는 조카 정철균(71)씨와 만나 세상을 떠난 부모형제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당시 2세였던 조카는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다. 정씨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기일과 묘소에 대해 물으면서 눈물을 쏟았다. 정씨는 “너랑 네 아버지를 (북쪽에) 두고 와서 미안하다”며 “1983년 첫 상봉신청을 할 때 아버지와 함께 북쪽의 어머니와 너를 찾으려고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울었다. 정씨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으며 아이처럼 “엄마, 미안해”라고 외쳤다.<br/>◇“엄마 딸이에요” 안타까운 상봉도=이영실(88·여)씨는 북에 있는 딸 동명숙(67)씨와 동생 정실(85·여)씨를 만났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명숙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자 “<span class='quot0'>엄마랑 나랑 서로 보고 싶어서 찾았잖아요</span>”라며 흐느꼈다. 그러면서도 이씨의 손을 잡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정실씨도 “언니 저예요, 왜 듣질 못해”라며 눈물을 쏟아냈다.<br/>이씨와 동행한 딸 동성숙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혈육의 정을 나눴다. 성숙씨는 “엄마, 명숙아 해봐야, 엄마 딸이에요. 딸”이라고 외쳤다.<br/>김영환(90)씨는 아내 김명옥(87)씨와 아들 대성(65)씨를 만났다. 이번 상봉단 중 배우자를 만난 것은 김씨가 유일하다. 전쟁 당시 혼자 먼저 피란을 내려올 때만 해도 60여년을 떨어져 있게 될 줄은 몰랐다. 김씨와 이번 상봉에 동행한 아들 세진(57)씨는 “<span class='quot1'>아버지는 북쪽 가족들에게 젊을 때 그렇게 헤어졌다는 미안함을 안고 살았다</span>”고 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연로한 탓인지 아내를 잘 알아보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씨와 아내 둘 다 귀가 좋지 않아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힘겨웠다.<br/>이범주(86)씨는 남동생 윤주(68)씨와 여동생 화자(73)씨를 끌어안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전립선암으로 항암투병 중인 이씨는 “죽기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상봉을 신청했다. 60여년을 꿋꿋하게 살아온 동생들을 보며 혼자만 남한으로 왔다는 그동안의 미안했던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부모님의 묘소와 기일을 물을 때는 서러움에 북받쳐 다시 한참을 울었다. 이씨는 동생들을 주려고 선물 30㎏씩을 꽉 채운 가방 2개를 들고 왔다.<br/>◇‘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 구급차 상봉=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한 김섬경(91)씨와 홍신자(84·여)씨는 구급차에서 가족들과 만났다.<br/>김씨는 딸 춘순(68)씨와 아들 진천(65)씨를, 홍씨는 동생 영옥(83·여)씨와 조카 한광룡(45)씨를 비좁은 구급차 속에서 침대에 누운 채 상봉했다. 이들의 상봉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취재진이 몰려가면 건강이 우려된다는 북측의 주장 때문이었다. 앞서 김씨는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며 구급차로 타고 상봉장에 나왔다. 하지만 김씨와 홍씨는 의료진과 상의 끝에 21일 오전 개별상봉 후 남측으로 먼저 돌아오기로 했다.<br/>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주장도 나왔다. 최남순(65·여)씨는 60여 전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북한에 남기고 간 이복동생들을 만났다. 그러나 최씨는 상봉장에서 북측 가족에게서 건네받은 아버지 사진을 본 뒤 “<span class='quot2'>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과 다르다</span>”고 말했다. 최씨는 그러면서도 이복동생으로 나온 이들에게 “<span class='quot2'>이리 만났으니 의형제라고 생각하고 상봉행사가 끝날 때까지 같이 만나자</span>”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어 이들이 가족인지 최종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br/>상봉자들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저녁 만찬에서는 단체상봉보다 한결 안정된 모습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서로 준비해온 사진을 보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고, 취재진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상봉자들은 만찬으로 나온 닭고기, 야채, 송어구이 등을 서로의 입에 넣어주며 가족의 정을 느꼈다. 북측은 납북자 가족에 대한 남측 취재진의 관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납북자 가족들 상봉 테이블 주변에는 북측 안내원이 여러 명 나와 이산가족들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고, 남측 기자들에게도 “<span class='quot3'>한 테이블에 2분 이상 하지 말라</span>”라며 규정에 없는 주의를 주기도 했다.<br/>금강산=공동취재단,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6.txt

제목: 페이스북, 모바일 메신저 와츠앱 인수… 라인·카카오톡 비상  
날짜: 20140221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1100000108  
본문: 페이스북이 세계 최대 모바일 메신저 중 하나인 와츠앱(WhatsApp)을 전격 인수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라인, 카카오톡 등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에 적신호가 켜졌다.<br/>페이스북은 19일(현지시간) 와츠앱을 190억 달러(20조3600억원)에 인수키로 합의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주커버그는 성명을 통해 “와츠앱은 10억명의 사람을 이어주는 통로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br/>인수대금 중 4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120억 달러는 페이스북 주식으로 제공된다. 또 인수 종료 시점부터 4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30억 달러어치를 와츠앱 임직원에게 주기로 했다. 와츠앱 공동설립자이자 CEO 잰 쿰(사진)은 페이스북 등기이사로 합류한다.<br/>이로써 쿰은 가난한 이민자에서 억만장자가 되는 ‘어메리칸 드림’의 주인공이 됐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태어난 쿰은 유년기 대부분을 전기도, 뜨거운 물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보냈다. 가난을 피해 16세에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지만 끼니를 위해 무료 식권인 ‘푸드스탬프’에 의지해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가 암으로 쓰러지자 어머니에게 나오는 국가 보조금으로 모자가 연명했다.<br/>쿰은 중고책방에서 구한 컴퓨터 서적을 읽으며 희망을 키웠다. 1997년 야후에 들어간 그는 여기서 만난 브라이언 액튼과 2009년 와츠앱을 만들었다. 이번 인수로 20년 만에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개발자가 됐다.<br/>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의 인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와츠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모바일 메신저다. 월 사용자가 4억5000만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는 매일 와츠앱을 이용한다. 1년에 1달러를 내는 유료 서비스임에도 신규 가입자가 매일 100만명씩 늘고 있다.<br/>와츠앱 인수금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온라인 사진 공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을 살 때보다 19배 많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 달러에 인수했다.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다.<br/>페이스북도 지난해 11월 모바일 메신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곤 아직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와츠앱은 유럽, 인도 등 상당수 나라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br/>페이스북은 와츠앱과의 시너지를 통해 시장을 넓히고 우리나라의 라인, 카카오 그리고 중국 위챗 등이 버티고 있는 아시아 시장까지 넘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은 국내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고 라인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위챗을 비롯한 자국 업체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북미, 유럽은 와츠앱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br/>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들은 이번 인수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span class='quot0'>모바일 서비스의 중심이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span>”라면서 “<span class='quot0'>대형 글로벌 업체가 뭉치면서 국내외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pan>”고 우려했다.<br/>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7.txt

제목: "오늘 금강산호텔에는 함박눈이 내렸다"… 눈물바다된 이산상봉 현장  
날짜: 201402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0100000405  
본문: [쿠키 정치] 60여년간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20일 오후 3시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호텔은 한순간 울음바다가 됐다. 상봉 대상자들은 혈육을 만나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고도 가슴에 고였던 그리움이 쉽게 채워지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얼어붙었던 가슴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도는 듯한 모습이었다. 금강산호텔에는 함박눈이 내렸다.<br/>◇통곡, 오열…눈물 그치지 않은 상봉장=강완구(81) 할아버지는 형 강정구(86) 할아버지를 안고 쓰러지듯 오열했다. 경기도 연천 휴전선 인근에 살던 형제는 6·25전쟁이 터지면서 동생은 국군, 형은 인민군에 징집됐다. 전쟁 탓에 형제가 하루아침에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된 것이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60여년이다. 형제는 지난해 9월에서야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게 됐다. 휴전선 인근에 살았던 탓에 선친의 묘도 현재 민통선 안에 있다.<br/>손기호(91) 할아버지는 딸 인복(61)씨와 외손자 우창기(42)씨를 얼싸안고 통곡했다. 1·4후퇴 당시 마루까지 나와 손을 흔들던 어린 딸이 어느새 노인이 돼 있었다. 손 할아버지는 세월이 내려앉은 딸의 얼굴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손 할아버지는 선물로 겨울옷과 생필품, 초코파이를 준비했다.<br/>이범주(86) 할아버지는 남동생 윤주(68)씨와 여동생 화자(73)씨를 있는 끌어안고 흐느꼈다. 전립선암으로 항암투쟁 중인 이 할아버지는 “죽기 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상봉을 신청했다. 60여년을 꿋꿋하게 살아온 동생들을 보며 “혼자만 남한으로 왔다”는 그동안의 미안했던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부모님의 묘소와 기일을 물을 때는 서러움에 북받쳐 다시 한참을 울었다. 이 할아버지는 동생들을 주려고 선물 30㎏씩을 꽉 채운 가방 2개를 들고 왔다.<br/>김영환(90) 할아버지는 아내 김명옥(87)씨와 아들 대성(65)씨를 만났다. 이번 상봉단 중 배우자를 만난 것은 김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전쟁 당시 혼자 먼저 피난을 내려올 때만 해도 60여년을 떨어져 있게 될지는 몰랐다. 김 할아버지는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아내를 다시 만나고는 미안함에 흐느꼈다. 그는 남한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렸다. 남한에서 만난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세진(58)씨가 상봉에 동행했다.<br/>◇부모형제 소식에 터져 나온 탄식=만나고 싶던 부모형제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들이 남긴 혈육을 대신 만나는 상봉자들도 많았다. 상봉자들은 먼저 떠난 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그들이 남긴 새 가족을 만나는 반가움에 울음을 쏟아냈다.<br/>김순연(80) 할머니는 이름까지 같은 언니 순연씨가 낳은 조카 이명철(60), 이명복(56)씨를 만나 볼을 맞댔다. 김 할머니는 자신이 ‘작은 순연’, 언니가 ‘큰 순연’으로 불렸다고 전해줬다. 상봉 신청 과정에서 언니와 형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남은 피붙이들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 죽기 전에 북한 땅을 밟고 조카들을 만난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조카들의 얼굴에서 먼저 떠난 언니의 얼굴이 비치자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삼키기 어려웠다.<br/>정희경(81) 할아버지도 조카 정철균(64)씨와 만나 세상을 떠난 부모형제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당시 2살이었던 조카는 어느새 노년에 접어들었다. 정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의 기일과 묘소에 대해 물으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 이루진 30년 전부터 상봉을 신청했다. 그때 상봉이 이뤄졌더라면 어머니와 형제들을 다 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회한이 몰려왔다.<br/>천종악(73) 할아버지도 난생 처음 보는 조카들과 상봉했다. 1·4후퇴 당시 부모형제는 고향인 황해도 연백에 모두 남겨두고 장남인 자신만 먼저 남한으로 내려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부모님과 형제 4명은 전부 세상을 떠난 것을 알게 됐다. 동생들이 남긴 조카 천상명(43)씨와 천상남(37)씨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동생의 얼굴이 보였다.<br/>◇‘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 응급차 타고 북으로=금강산은 최근 내린 눈으로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설경을 연출했다. 상봉 장소인 금강산호텔 옆에는 최근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 장군 만세’라는 석판도 놓여있었다.<br/>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들은 오전 8시20분쯤 강원도 속초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다. 오후 12시58분쯤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온정각 휴게소에 도착했다. 감기 증세로 응급차를 타고 속초에 도착했던 김섬경(91)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타고 상봉 장소로 이동했다. 김 할아버지는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며 상봉장에 나왔다. 여동생과 조카를 만난 홍신자(84) 할머니도 구급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이동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봉 대상자도 19명이나 됐다.<br/>배웅을 나온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0세 이상 고령이 대부분인 상봉단의 건강을 걱정하며 의료진에게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br/>금강산=공동취재단,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8.txt

제목: 제주한라병원 온열암치료기 ‘온코써미아’ 도입,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날짜: 201402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20100000300  
본문: [쿠키 건강] 제주한라병원(원장 김성수)은 지나 15일 제주WE호텔에서 온코써미아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 도입을 기념해 ‘국제 온열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r/><br/>이번 국제 온열치료 심포지엄에서는 온열암 치료의 대가로 세계적인 정평이 나있는 최일봉 교수(2018년 아시아온열학회 대회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창원 교수(미네소타 의대교수, 전 북미온열학회장), Kanji Katayama(2014 아시아온열학회 대회장), Andras Szasz(St. Istvan Univ, Hungary), Gaber Andoc(Tottori Univ, Japan), 김승철 원장(이대목동병원 의학융합원), 이창걸 교수(세브란스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초빙돼 온열요법의 원론부터 최신 임상사례들이 소개됐다.<br/><br/>‘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자신의 몸처럼 돌본다’는 의미의 ‘이명아명’을 원훈으로 지역사회 의료 발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제주한라병원은 지난 2000년 도내 최초로 암센터(센터장 채수민·방사선종양학과) 및 심뇌혈관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의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br/><br/>고주파 온열암치료기 Oncothermia(온코써미아 EHY-2000)는 2007년 국내에 최초로 소개돼 여러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암치료에 적용되는 장비다. 이 장비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 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키는 최신치료법이다.<br/><br/>이 치료법은 방사선요법 및 화학요법과 병행할 경우 치료 상승효과가 나타나며, CT나 MRI 같은 영상 진단 없이도 자동 초점기능으로 인해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파괴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br/><br/>타 온열암치료기보다 치료범위가 넓고, 피부부위의 부작용 (화상,흉반)을 유발하는 과도한 에너지 방출방식이 아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에너지 제어 및 냉각 시스템 등 시스템이 안정화돼 있어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부작용 없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69.txt

제목: 건강지키는 국가 건강검진 올바른 활용법은?  
날짜: 201402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9100000221  
본문: [쿠키 건강] 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910만여 명과 비교해 2012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184만여 명으로 14.4% 증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다.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국가건강검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일반 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받을 수 있어, 암검진은 5대암 중심<br/><br/>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적인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진이다.<br/><br/>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 그리고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이 대상이며, 만 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만 40세~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주기는 2년에 1회(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다.<br/><br/>주요 검사 항목은 시력·청력 및 신체 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 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등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은 시력·청력 검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연령, 생활습관, 가족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br/><br/>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대장암과 간암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를 부담(자궁경부암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br/><br/>최근에는 국민암검진 수검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암검진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실제 국립암센터가 우리나라 성인 4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국민의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64.7%로, 2004년 대비 25.9% 포인트 증가했다.<br/><br/>‘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률’은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 권고하는 검진주기에 따라 5대 암 검진을 잘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가암검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은 암검진 수검률도 포함한다. 암검진 권고안을 이행한 수검자 중에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암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4년 45.7%로 절반에 못 미쳤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86.6%를 차지했다.<br/><br/>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 및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가 실시된다. 만 40세는 B형 간염 검사,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만 66세는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 생활습관 검사, 정신건강 검사 등이 추가된다.<br/><br/>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이다. 공단에서는 영유아의 월령병 검진시기에 맞추어 7차에 걸쳐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짐, 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br/><br/>이대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원장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고, 국가건강검진기관도 찾을 수 있다”며 “지역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의 기본정보, 예약현황, 주요 검사 장비 등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0.txt

제목: 을지대학교병원, 로봇수술 300례 시행  
날짜: 201402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8100000173  
본문: [쿠키 건강] 을지대학교병원이 중부권 최초로 로봇수술을 이용한 암수술 300례을 시행했다.<br/><br/>로봇수술로 진행한 암수술 300례 중 갑상선암 및 종양이 122례(40.6%), 직장암 및 결장암이 90례(30%), 전립선암 및 비뇨기계질환이 87례(29) 순이었다.<br/><br/>복강경 수술로봇 시스템인 다빈치 로봇수술은 환자의 몸에 몇 개의 작은 구멍을 뚫어 이곳을 통해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팔을 넣고 의사가 로봇 조작 장치(콘솔)에서 수술할 때와 같은 손동작을 하면 이 손동작이 로봇팔로 그대로 전달돼 수술을 하게 된다.<br/><br/>또한 기존 로봇 수술장비와 다르게 수술부위를 10~15배로 확대한 고화질의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볼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신경이나 혈관 손상 등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r/><br/>김창남 교수 을지대학교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span class='quot0'>로봇수술은 의사의 자유로운 손목 관절 움직임을 손 떨림 없이 재현해 기존 복강경 수술로는 까다로웠던 암수술을 보다 섬세하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로봇 수술은 기존 개복술(배를 여는 수술)에 비해 흉터가 현저히 작고 입원 및 회복기간이 짧으며 예후가 좋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1.txt

제목: 병원비 고민이라면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으로 줄여보자  
날짜: 20140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8100000492  
본문: [쿠키 생활] 독감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가 환절기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독감이나 알레르기의 경우 단 번에 잘 낫지 않다 보니 병원을 여러 번 다니게 되는데 병원비로 드는 돈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고 있다.<br/>회사원 P씨는 작년 이맘 환절기 알레르기 질환에 걸려 병원을 찾았다. 한 번으로는 쉽게 낫지 않아 여러 번 다니다 보니 병원비 부담이 커서 고민을 하다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올해 독감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br/>의료실비보험은 가벼운 감기부터 상해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인기가 높다.<br/>실손보장도 실제 지급한 병원치료비를 가입한도 내에서 최대90%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편이다.<br/>우리는 질병이나 상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에 노출 될 위험성이 높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항목 지출은 늘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정도,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가입은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 치료, 입원, 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 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2.txt

제목: 지방의료원연합회 정명철 신임 사무총장 취임  
날짜: 2014021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8100000183  
본문: [쿠키 건강]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는 신임 사무총장에 정명철 전(前) 국무총리실 저출산대책 정책과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br/><br/>정명철 제9대 사무총장은 17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임기는 오는 2017년 2월 16이까지 3년이다.<br/><br/>정명철 신임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국무총리실 저출산대책 정책과장, 국립재활원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등을 두루 거치며 보건의료분야에서 두루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3.txt

제목: 인천 서북부에 1000병상 ‘국제성모병원’ 탄생  
날짜: 2014021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7100000026  
본문: 인천 서북부 지역에 1000병상 규모 대학병원급 상급종합병원이 새로 문을 연다.<br/>가톨릭인천교구는 인천시 서구 심곡로에 응급실과 분만실을 포함해 입원 환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성모병원을 17일 개원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초대 병원장으로는 천명훈(62) 전 가톨릭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내정됐다. 천 내정자는 내달 1일자로 부임한다.<br/>국제성모병원은 36개 진료과와 전이·재발암센터, 장수의학센터 등 12개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병원은 인천 서북부권 천마산 아래 총 1만4363㎡의 대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응급 및 분만 병상 96개, 일반 병상 904개 등 총 1000병상 중 457개 병상을 우선 가동한다.<br/>병원 측은 특히 감염주의구역을 제외한 원내 전 공간과 시설을 외래 및 입원 환자는 물론 일반 시민에게 100% 개방할 계획이다. 국제성모병원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골프장·미용실·상가·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문화시설,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하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청정채소는 환자들의 식자재로 제공된다. 병원과 함께 지은 총 264가구의 실버타운 ‘마리스텔라’도 입주가 한창이다.<br/>국제성모병원은 앞으로 진료 전 분야에 걸쳐 ‘의료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뜻의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개념을 도입, 실천할 계획이다. 치료 외에 휴식과 즐거움도 제공하는 메디컬리조트형 테마파크 공간으로 국제성모병원을 꾸미겠다는 것이다. 또 올 여름 인천 청라지구 신도시에서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멀지 않은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살려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을 적극 유치, 글로벌 병원으로서의 입지도 다져나갈 예정이다. 병원 명칭을 ‘국제성모병원’으로 한 이유다.<br/>한편 가톨릭인천교구는 국제성모병원 개원과 함께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기존의 인천성모병원까지 아우르는 ‘인천가톨릭의료원’을 새로 출범시켰다. 초대 의료원장에는 이학노(몬시뇰) 신부가 취임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4.txt

제목: 암 치료비 부담,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으로 대비하자  
날짜: 2014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6100000137  
본문: [쿠키 생활] 2009년 국립암센터에 의하면 암에 걸렸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2.2%에 그친 데 비해 암 치료비 부담이 67.5%로 가장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 남성의 경우 5명 중 2명이, 여성의 경우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엔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과 흡연이나 음주, 주위 오염된 환경이 원인이 되기도 하여 암 발생 연령대가 점차 확대되어 젊은 연령도 이제 안심할 수는 없다.<br/>암 종류에 따라 치료기간 및 비용이 다르며, 긴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암 완치율을 높이지만 비용발생 또한 높아졌다.<br/>오랜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소득상실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게 다가오기에 국민들은 암 치료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br/>P씨(45세)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암을 미리 대처하고자 암 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중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서둘러 가입을 했다. 하지만 가입한 암 보험이 갱신형인 것을 몇 년후에 알게 되었다. 지금은 변동되어 올라가는 보험료로 인해 유지를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br/>문제는 보장내용과 어려운 보험용어 때문에 스스로 암 보험 상품 비교하기가 어려워, 저렴한 것이 좋아서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이다.<br/>꼼꼼한 소비자라면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하여도 손해없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 암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가입요령 및 주의사항 알아보자.<br/>▶ 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일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전했다.<br/>아울러, 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 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 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 보험 상품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 보험은 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 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한 같은 동일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 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5.txt

제목: 의료비 부담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으로 대비  
날짜: 20140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6100000136  
본문: [쿠키 생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독감 주의보는 여전하여 아직도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한겨울에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좀처럼 가시지 않다. 여기에다가 환절기 마다 찾아오는 알레르기로 인해 콧물 재채기는 기본, 집중력도 떨어져 병원을 내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한 번으로는 낫지 않아 여러 번 가는 경우, 병원비며, 약제비며 의료비가 만만치 않게 지출된다.<br/>P씨는 독감 때문에 잘 낫지 않아 세 번이나 병원을 방문하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실손으로 보장받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 고 있다고 한다.<br/>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우는 의료실비보험은 그만큼 의료혜택을 많이 지니고 있다. 감기부터 시작하여 상해나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실손으로 치료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가입금액 한도만큼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기에 인기가 높다.<br/>우리는 질병이나 상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 노출 될 위험성이 높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항목 지출은 늘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정도, 이 중에서 절반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하여,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6.txt

제목: 서울 신길로 노박의원·제일진단방사선과의원, 현대의학에 자연치유 접목 암 치료하는 형제 의사  
날짜: 2014021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091  
본문: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 노태성(59·신촌성결교회) 원장과 같은 건물 4층 제일진단방사선과의원 노태진(55·백주년기념교회) 원장은 형제 의사다. 이들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의학을 접목한 치료법을 제시, 큰 효과를 나타내 관심을 끌고 있다.<br/>서울대 의대를 졸업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노태성 박사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베일러(Baylor) 대학교에서 암유전학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암치료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br/>“저는 의사지만 마태복음 10장1절 말씀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통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간은 나약하고 엄청난 질병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님을 통해 공급받고 바른 치료를 행한다면 얼마든지 건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r/>크리스천이라면 치료자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먼저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관점에서 디톡스(detox), 즉 해독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병의 본질에 바르게 접근하고 질병에 대한 치료적·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span>”고 설명했다. 노박의원에서는 이를 ‘3박자 치료’라 부르고 그 원리를 암 환자에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br/>동생 노태진 원장 역시 전공은 충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취득했지만 역시 형과 같이 유전자 영양학과 암관리, 대체의학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왔다.<br/>“자연치료의학은 치료 자체가 자연에서 응용하기에 해가 없고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여기에 충분한 영양공급과 산소공급을 해주고 병에 적합하고 알맞은 다양한 치료를 했을 때 빠른 회복이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br/>노태진 원장은 “<span class='quot1'>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하신 대자연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치료에 임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이라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1'>무엇보다 지난 날의 잘못된 식습관 즉 음주와 흡연, 고지방식, 청량음료, 설탕, 짠음식,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고 늘 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 한계를 느꼈던 두 원장이 노박의원을 통해 펼치는 자연치유 의학요법은 무엇일까.<br/>먼저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치료’와 ‘면역치료’를 들 수 있다. 고주파온열 암치료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38.5∼42도의 열을 가해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최신 암 치료법이다. 특별한 통증 없이 암세포만 집중 치료할 수 있고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경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면역치료는 영양요법에 기초를 두고 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슬토(겨우살이)요법, 메가비타민요법, 핵산요법, 미네랄요법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심리분석과 뇌파분석으로 심신 전체를 파악해 개인 특성에 맞는 치료를 한다.<br/>암 치료에 두 형제 원장의 협진이 환자에게 도움이 크다. 방사선과 전문의인 동생이 각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책임지고 이를 서로 논의해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아주는 것이다.<br/>노태진 원장은 “<span class='quot1'>자꾸 재발되는 만성 질환들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우리 몸 속에 내재된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수십, 수백년 전부터 자연치유 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구소나 병원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있고 실제 치료 효과도 보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3대 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영향으로 한때 목사가 될 결심도 했었다는 노태성 원장은 환자를 대할 때마다 기도하고 때론 복음도 전한다. 그는 환자를 치유하고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사란 직업을 택하길 잘했다고 느끼며 감사하고 있다.<br/>노태진 원장도 크리스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항상 생각하며 환자를 대한다. 의사의 한 마디가 환자에게 용기에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 곳에서 17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 노태성·태진 두 형제는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란 책을 공동으로 집필, 암의 원인과 치료법, 자연치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두 형제는 “병원진료 외에도 대외적인 의료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려고 한다”고 밝혔다(노박의원 02-845-1353·inovac.co.kr).<br/>글=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br/>사진=이영환 인턴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7.txt

제목: 노박의원·제일진단방사선과는… 대학병원서도 포기한 환자들 자연치료법 통해 건강 회복도  
날짜: 2014021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093  
본문: ‘노박의원’이란 이름은 노태성 원장의 성과 부인인 박은숙(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성을 한 자씩 따온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노박의원과 제일진단방사선과 의원은 6층 건물 전체를 병원시설로 사용한다.<br/>1층 외래진료실·물리치료실, 2층 피부·비만·두피관리실, 3층 물리치료실, 4층 진단방사선과, 5∼6층 입원실로 돼 있다. 특히 6층 입원실은 암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이외에도 교정치료실, 도수치료실을 설치하고 암 치료에 있어 약물치료뿐 아니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균형을 잡고자 시도하면서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또 암재활, 비만, 관절 등 다양한 클리닉을 운영한다. 이처럼 일반 개인의원이 아닌 병원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환자가 내원하면 당일 진료와 치료가 곧바로 가능토록 되어 있다.<br/>이 병원을 거쳐 병이 호전되거나 치료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70대 후반의 의사였던 한 환자는 담낭암으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큰 통증을 호소했다. 자연치료법을 총동원했고 마침 크리스천이라 함께 기도한 결과 불안감과 통증이 완화되고 MRI에서 암이 소실되는 결과가 나왔다.<br/>지방에 거주했던 한 여성 환자는 자궁암으로 폐와 뇌까지 전이되고 있었다. 오랫동안 노박의원의 자연치유법과 대학병원의 항암요법을 병행하면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정도로 호전이 됐다. 현재도 자연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br/>60대의 남자가 악성 림프종으로 대학병원에서는 방사선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자연치료를 시작했고 1주일 후부터 병변 부위가 부드러워지고 작아지는 것을 체험했다. 이후 부비동 염증과 종양 등이 생겼으나 이 역시 자연치료로 호전됐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br/>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연치료 의학에는 얼마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여기고 연구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br/>노박의원은 자연치료라도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비로 보험 적용 테두리에서 진료를 해줌으로써 가능한 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고 있다.<br/>노태성 원장은 “<span class='quot0'>자연치료 방법이 정통적 암 치료와 반대 개념이 결코 아니며 대학병원에서 포기한 환자들이 자연치료를 통해 낫는 경우도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노박의원은 아직 자연치유 의학 프로그램이 국내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 앞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머무는 ‘메디텔’ 공간 건립과 전인적 케어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계획하고 있다.<br/>김무정 선임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8.txt

제목: 수술 전 MRI검사, 직장암 진행 예측 가능한가?  
날짜: 2014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115  
본문: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연구 결과 미국대장항문학회지 게재<br/><br/><br/><br/>[쿠키 건강] 대부분의 직장암 환자들이 병원에 처음 방문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거치게 된다. 현재 국제적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수술 전 영상 검사에서 임상적 병기가 암 침윤 정도(T-stage) 3기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근치적 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br/><br/>그러나 이러한 정밀 검진 장비들이 얼마나 예측 정확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믿을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외과 의사들은 MRI의 림프절 전이를 진단하는데 그 정확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br/><br/>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장암센터 연구팀(제1저자: 박준석, 장윤진 (영상의학과), 교신저자: 최규석)은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 하고자 “<span class='quot0'>직장암 조직에서의 MRI의 진단 정확도</span>”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수술 전 2차원 영상 이미지로 보이는 림프절을, 수술이 끝난 후 절제된 실제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1:1 매칭(matching)을 시킬 수 있는 가였다.<br/><br/>연구팀은 이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외초음파를 이용한 ‘침 정위술 실험 기법’(ex-vivo sono-guided needle localization)을 개발했다. 이 기법은사진에서 보이던 림프절을 종양에서부터 거리와 방향을 추정해 초음파를 이용해 찾은 후 세침을 이용해 위치를 고정하는 기법이다.<br/><br/>연구 결과 MRI는 암의 침윤 깊이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확도 82.5%로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림프절 전이의 예측에 있어서 약점을 드러냈다.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 방법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감수성(sensitivity)과 양성 예측율(positive predictive value)이 60% 내외에 그쳐, 현재의 진단 방법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br/><br/>본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침윤 정도가 2기 이하라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MRI에서 의심되면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어 불필요한 합병증과 의료비 증가가 문제 돼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단순히 수술 전 MRI에 의한 림프절 전이 여부만으로 수술전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과잉치료(overtreatment)가 될 수 있다는 학설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직장암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br/><br/>이 연구 결과는 미국대장항문학회 공식 학회지인 ‘Disease of the Colon and Rectum’ 1월호에 게재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79.txt

제목: [인터뷰-조병준 원장] “체내 독소 해독이 질병 예방·치유 지름길”  
날짜: 2014021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027  
본문: “현대인은 무수히 많은 질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건강을 가졌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br/>신경락빛사랑한의원 조병준 원장은 “질병의 종류는 많지만 그 질병이 걸리는 원인은 한방에서는 ‘음식’과 ‘스트레스’, ‘운동부족’ 이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절치 못한 인스턴트 및 고칼로리의 기름진 음식 섭취는 장내에 많은 독소를 만들고, 끊임없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와 DNA를 공격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과로 등은 젖산물질이 생성되게 하는 등 이러한 요인들이 체내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축적돼 결국 질병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br/>“결국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질병의 원인으로 보면 이 독소를 해독하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질병 예방과 치유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br/>조 원장은 “체내에서 축적된 독은 결국 호흡, 땀, 대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땀을 흘릴 기회가 적은 현대인이 식생활습관이 잘못되어 대소변으로도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니 체내 독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배출이 안 되는 독소들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므로 특히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br/>“면역 기능의 80%는 장이 담당합니다.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의 일부분도 장에서 분비하니 장이 건강해지면 면역 기능도 활성화되고 우울증도 사라지며 건강의 바로미터인 체온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용성 독소가 나가야 하니 소변 배출도 함께 중요합니다.”<br/>그렇다면 식생활 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은 무엇일까. 조 원장은 “해독식이라고 거창한 것은 아니고 효소가 들어 있는 야채와 과일, 현미밥과 삶은 고구마 1개 정도에 김치, 오이, 당근, 깻잎, 배추속, 상추, 양배추, 고추, 양파 등을 장에 찍어 드시면 훌륭한 해독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꼭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소식(小食)을 해야 하고 생야채 중심의 반찬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br/>“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잘 씻어 껍질째 갈아 드시는 것으로도 식사대용 및 해독식이 됩니다. 토마토와 아몬드를 3대 1 비율로 소스를 만들면 이 소스가 장에 들어가 발효하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br/>조 원장은 “독소와 노폐물들이 혈관과 피하지방, 내장지방으로 쌓이면 결국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고 악화되면 심장질환, 뇌경색, 암 등이 되는 것”이라며 “관절염과 디스크 등 모든 통증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등도 독소 노폐물을 제거해주면 치료가 된다”고 설명했다.<br/>체내 독소 배출을 주안점으로 처방하고 섭생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조 원장은 “많은 환자들이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질병이 호전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는 것에 보람이 크다”고 환하게 웃었다.<br/>김무정 선임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0.txt

제목: 서울시 서남병원 올해 공공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날짜: 2014021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4100000178  
본문: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소외계층 지원 적극 나서<br/><br/>[쿠키 건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원장 김준식)이 독거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아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br/><br/>서울시 서남병원 공공의료단은 지난 13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구 등 서울 서남권 4개 구 보건소와 구청, 지역복지관, 치매지원센터, 하나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공공의료사업을 평가하고, 2014년 서남병원 공공의료사업 추진 계획 등을 발표 공유했다.<br/><br/>이어 간담회를 통해 지역유관기관과 연계강화 방안을 모색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br/><br/>서남병원은 ▲의료취약환자 무료간병인 연계, 의료비 지원, 기타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대상 봉사자 파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서남건강안전망 통합센터, 무료진료, 시설종사자전문성향상교육 등 건강안전망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br/><br/>특히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을 2가지 이상가진 60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백세건강증진교실을 열어 5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 및 교육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br/><br/>또한 서남병원이 위치한 양천구는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예방 접종 사업, 의료이용교육 등 사업을 추진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성인병 환자 증가로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뇌혈관튼튼프로젝트, 치매지원사업, 건강강좌, 찾아가는 감염관리교육, 금연프로그램, 심폐소생술 교육도 연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br/><br/>입원관리가 필요한 말기 암환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프로그램과 가족모임 등 활성화를 통해 환자의 삶을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울 것이다.<br/><br/>이홍수 진료부원장 겸 공공의료단장은 “<span class='quot0'>서울시민의 건강수명은 연장하고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병원이 선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역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span>”고 전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1.txt

제목: 연세대 최강열·김태열 교수팀, 암 줄기세포 활성화 과정 첫 규명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310013459764  
본문: 암세포의 기원이 되는 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 앞으로 암 줄기세포 표적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br/>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발암 유전자 ‘라스 단백질’이 암 줄기세포를 활성화해 암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연세대 최강열(생명공학과) 김태열(의과대학) 교수팀이 규명했다고 밝혔다. 라스 단백질과 암 줄기세포 활성화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br/>연구진은 대장암 발생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 APC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때 암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돌연변이 라스 단백질이 암 줄기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PC는 생체 내에서의 발생·성장·항상성 유지 등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전달체계인 ‘윈트신호전달계’를 저해하는 유전자로 변이가 생기면 암을 일으킨다. 돌연변이 라스 단백질을 가진 대장암 세포는 정상 라스 단백질을 가진 대장암 세포보다 암 줄기세포 인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 온라인판에 실렸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2.txt

제목: 학화호두과자 “호두과자로 고마운 마음 전하세요”  
날짜: 2014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3100000021  
본문: [쿠키 생활] 오는 14일은 밸런타인데이와 정월대보름이 겹치는 날이다. 이에 유통업계의 각 선물 코너에는 초콜릿과 함께 각종 견과류가 즐비한 부럼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br/>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친구, 가족 등 주변의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데 있어 견과류는 맛, 영양,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 없는 아이템. 또 견과류가 심장 질환과 암 예방에 탁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 건강 선물로도 각광받고 있다.<br/>스페인 로비라 비르힐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3차례 이상 28g의 견과류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면 저지방식단을 먹은 이들 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55%,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40% 더 낮아진다고 한다. 견과류 가운데서도 호두를 즐겨 먹으면 사망률이 45%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두에는 다른 견과류보다 항산화 성분이 두 배 가량 많고 알파ㆍ리놀레산과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br/>이처럼 호두가 슈퍼푸드로 인정받으면서 호두과자, 호두파이, 호두양갱, 호두브라우니 등 호두를 응용한 메뉴들도 덩달아 인기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고소한 식감과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호두과자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물로 전하기에 그만이다.<br/>80여년을 한결같이 호두과자 생산에만 힘쓰고 있는 ‘학화호두과자’는 부드러운 앙금과 달콤한 빵 껍질로 호두과자하면 떠오르는 천안의 명물이다. 1934년 창업 이래 오랜 세월, 외길 인생의 장인정신이 담긴 호두과자는 호두의 거친 식감과 부드러운 앙금이 오묘하게 어우러져 유사 상표의 호두과자가 모방하지 못할 원조의 품격을 자랑한다.<br/>학화호두과자 제조과정은 원조 심복순 할머니의 정성과 고집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알맹이가 상하지 않도록 정성껏 호두 알을 채취하고, 인공감미료나 방부제를 넣지 않고 양질의 밀가루, 설탕, 계란만을 사용한 반죽을 더한다. 특히 앙금재료인 팥에는 더 신경을 쏟는데, 가마솥에 삶아 낸 팥을 거피 작업으로 곱게 마쇄해 찬물에 여러 번 걸러내는 과정을 거친다. 곱디고운 팥 앙금과 과자마다 일정한 크기로 들어가는 큰 호두 조각이야말로 학화호두과자가 우리네 제과문화의 한 자락을 이어온 원동력인 셈이다.<br/>맛, 정성, 가격의 삼박자를 갖춘 학화호두과자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3.txt

제목: “SM5 주행중 앞바퀴 덜렁덜렁 사고”… 르노삼성 이상한 고객대응 논란  
날짜: 201402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3100000054  
본문: [쿠키 사회] 출고된 지 1년도 안 된 르노삼성자동차의 SM5가 주행 중에 앞바퀴가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차주는 르노삼성이 차량 결함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조차 보여주지 않은 것은 물론 인터넷에 올린 관련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br/>차주 A씨는 12일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span class='quot0'>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는 SM5를 몰고 규정 속도에 맞춰 운전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차체와 조향장치에 연결된 부품인 로어암 볼 조인트(lower arm ball joint)가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차량 자체 결함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르노삼성측은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고객 과실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span>”고 주장했다.<br/>A씨에 따르면 사고는 2013년 9월 24일 오전 용인시 동막로길에서 주행 중이던 SM5의 오른쪽 로어암 볼트가 빠지면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급격히 오른쪽으로 쏠렸고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가까스로 멈춰 섰다. 사고로 A씨는 핸들을 급히 꺾느라 손가락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br/>A씨는 약하게 비가 온 것만 빼면 특이한 점이 전혀 없었으니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확신했다.<br/>실제 A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차량에는 앞바퀴와 조수석 문 하단에 가드레일과 스친 흔적이 있을 뿐 별다른 사고 흔적이 없다. 즉 육안으로는 로어암 볼 조인트가 빠질 만큼 큰 충격이 없었다는 것이다.<br/>A씨는 사고 당일 견인차를 요청해 차량을 르노삼성 정비 사업소로 넘겼다. A씨의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니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br/>르노삼성측이 운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이다.<br/>르노삼성은 사고 다음날 벌인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로 차가 오른쪽으로 쏠렸고, 이후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로어암 볼 조인트가 빠졌다고 판정했다. 해당 부품이 빠져 바퀴가 틀어지면 차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A씨 차는 충돌 이후에도 100m를 더 움직였기 때문에 차체 결함이 아니라는 것이다.<br/>르노삼성은 그러나 이와 관련한 근거 자료를 A씨에게 공개하지 않아 의심을 샀다.<br/>A씨는 “르노삼성에게 자체 조사 자료를 보여 달라고 했지만 르노삼성은 비밀이라며 법원 요청이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br/>르노삼성은 고객 과실인 만큼 유상으로 차량 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A씨는 거부했다. A씨는 대신 지난해 10월 7일에 이어 지난 6일 두 차례에 걸쳐 네티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 호소글을 올리고 르노삼성의 대응을 고발했다.<br/>인터넷 글이 논란이 되자 르노삼성은 지난해 10월 18일 A씨에게 직원을 보내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br/>A씨는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조차 당사자에게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니 고소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A씨는 또 “최근 르노삼성에게 내 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르노삼성이 6개월간 보관료 150만원을 내야 차량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br/>르노삼성측은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조사 결과 고객 과실이 분명한 사건”이라며 “다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보관료 150만원도 고객 만족 차원에서 우리가 대신 부담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br/>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로어 암 조인트 볼은 빠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품“이라며 “A씨가 공개한 사진만 보면 단순히 휠이 쓸린 모습만 보이는데, 저런 가벼운 충격에 해당 부품이 손상됐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br/>김 교수는 또 르노삼성이 자체 조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외비라고 숨기면 기업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르노삼성은 즉각 자료를 제공하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정훈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4.txt

제목: 국제개별화의료학회 6월, 일본 삿포로서 18회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02  
본문: [쿠키 건강] 신 수지상세포 암 백신 치료율을 발표했던 국제개별화의료학회(맞춤의료학회)가 오는 6월 제18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추가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하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는 지난 17회 학술세미나에서 신 수지상세포 암백신 치료 결과, 74.4%에서 치료 성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 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에 따르면 아베종양내과 연구팀은 진행성 전이·재발암 환자 39명을 대상으로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와 복합면역세포치료를 6회 실시한 결과, 74.4%에서 치료 성과를 보였다.<br/><br/>이 연구결과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암세포가 완전 관해된 환자는 2명(5.12%), 부분관해된 환자 5명(12.82%), 정지?안정된 환자22명(56.41%), 진행된 환자 10명(25.64%) 대상으로 진행됐다.<br/><br/>아베 히로유키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기존에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위해서 2~3시간 성분채혈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본 병원은 정상 혈액 중 4~8%의 단구(單球)에 개인별 유전자검사와 암항원 검사를 하여 암 치료에 필요한 펩타이드를 추가하는 ‘신 수지상세포 백신치료’를 했다</span>”고 말했다.<br/><br/>수지상세포는 나뭇가지 모양을 띠고 있으며 단구세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에 공격대상이 되는 암 항원의 정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면역계의 사령탑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지상세포로부터 암세포의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상해성 T림프구(Cytotoxic T Lymphocyte, CTL)는 이 정보를 가진 암세포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CTL이 정상세포는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은 거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수술이 어려운 침윤성암이나 발견이 어려운 미세한 암을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아베종양내과는 수지상세포의 암항원 인식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WT1과 MUC1 펩타이드를 개인별 암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 단구세포에 추가했다. 1번부터 449번까지 있는 WT1 펩타이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고, MUC1 펩타이드는 B임파구와 헬퍼T세포를 활성화해 항암 지속기간을 6~9개월까지 유지하게 한다.<br/><br/>아베 이사장은 “<span class='quot1'>현재까지는 펩타이드 중 일부분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낮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신 수지상세포 암백신치료에서는 암 항원인 WT1 펩티드 전체와 MUC1 펩티드를 모두 활용해 치료효과를 높였다</span>”고 강조했다.<br/><br/>이어 그는 “<span class='quot1'>또한 수지상세포를 동결해 보관하는 방식도 치료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는데, 매번 소량만 채혈하는 방식으로 선도 높은 백신을 제조해 이를 보완했다</span>”고 덧붙였다.<br/><br/>국제개별화의료학회가 제18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추가 임상연구결과에 많은 암환자와 가족들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5.txt

제목: 차세대 폐암치료제 ‘지오트립’ 국내 허가, 아레사·타세바에 도전장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484  
본문: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항암제 시장 본격 진출<br/>1차 치료제로 국내 시판 허가, 정부 보험급여 가능 여부에 촉각<br/>[쿠키 건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항암제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밀었다. 기존 표적항암치료제와 차별화된 차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지오트립’이 국내에 상륙했다.<br/>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1차 치료제인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정이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오트립은 1일 1회 40 mg 요법으로 사용한다.<br/>◇진행성 폐암, 조기발견 어려워 5년생존율 극히 낮아= 보통 폐암은 조기 발견 어려우며 5년 생존율이 극히 낮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br/>박근칠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대다수 환자가 폐암 조기에 발견하기보다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검진을 통해 알게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특히 진행성 폐암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며 폐암 진단 환자 5년 생존율 여전히 7% 밖에 안된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다른 암들에 비해 폐암의 생존율이 상당히 예후가 불량하고 낮은 편</span>”이라며 “이는 제일 큰 숙제거리다”고 덧붙였다.<br/>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소세포폐암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절제술이 가능한 1~3A기 환자는 4분의 1에 불과하다. 보통 비소세포폐암은 3A기 이후에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며 1기 또는 2기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항암화학요법은 생명을 연장하고 증상을 원화시키는 것이 치료 목적으로 반응이 좋은 환자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br/>박 교수는 “<span class='quot1'>지난 30~40년간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유방암, 전립선암 등 각종 암의 완치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폐암치료제가 연이어 등장하게 되면서 폐암의 생존율이 다른 암처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1세대 비소세포폐암 이어 2세대 항암제 ‘지오트립’ 등장= 현재 폐암 치료를 위한 1차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의약품이 있다. 국내에서는 1세대 EGFR 치료제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레사’, 로슈의 ‘타세바’가 있다. 이들 치료제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자 변이를 표적해 작용하는 표적항암제들이다.<br/>이들 시장에 차세대 치료제 지오트립이 지난달 허가를 받고 새롭게 등장했다. 이번 지오트립 출시는 기존치료제와 다른 2세대 표적항암제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오트립은 기존 표적치료제와 달리 수용체와의 친화도가 높아 수용체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용해 암 세포의 신호전달을 비가역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장기간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고, 내성발현의 위험을 줄여 치료 반응률을 높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br/>지오트립의 식약처 허가는 현재 EGFR 활성변이가 확인 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요법인 페메트렉시드와 시스플라틴 병용치료와 그 효과를 비교한 대규모 3상 임상인 LUX-Lung3 등의 임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LUX-Lung3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오트립은 현행 표준 치료법 대비 무진행생존기간(PFS)을 약 4개월 가량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트립정 치료군은 약 1년동안 종양이 성장하지 않고 생존한 반면, 대조군인 화학요법 치료군은 무진행생존기간이 6.9개월에 그쳤다.<br/>조병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지오트립 치료군은 유의한 호흡곤란 개선 효과를 보였고 통증 개선 경향 및 기침 횟수도 감소했다</span>”며 “<span class='quot0'>화학 치료요법 대비 기침이 악화되거나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시간도 유의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임상 결과 밝혀졌다</span>”고 말했다.<br/>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치료제가 정부에 보험급여로 인정될 지의 여부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오트립이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되도록 회사 측도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과 협의를 해 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기간은 약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6.txt

제목: 메트포르민, 방광암 예방 효과 있다? 없다?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44  
본문: 통계적 유의성 없어 vs 효과의 크기에 집중해야<br/><br/>[쿠키 건강] 메트포르민이 방광암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근 2건의 메타분석에서 메트포르민이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비교해 암 발생률을 30% 낮춘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진위 여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br/><br/>앞서 언급된 메타분석 외에도 메트포르민은 몇몇 관찰연구를 통해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및 췌장암 발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의대 Ronac Mamtani 교수(아브람슨암센터)는 지난 2월 4일 Diabetes Care 온라인판에 제2형 당뇨병 환자를 평균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메트포르민 복용군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br/><br/>Mamtani 교수팀은 영국 건강증진네트워크(THIN)에 포함된 제2형 당뇨병 환자 8만7600명을 메트포르민 복용군(7만1472명)과 설포닐우레아 복용군(1만6128명)으로 나눠 의무기록을 검토했다. 바이어스를 배제하고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를 대상군으로 선정했다.<br/><br/>추적기간 동안 방광암 발생건수는 총 262건이었고, 그 중 196건은 메트포르민군, 66건은 설포닐우레아군에서 발생했다. 연간 10만명당 발생률로 추산하면 메트포르민군 107.8건, 설포닐우레아군 166.7건이었고, 이를 연령, 성별, 흡연, 비만, 당화혈색소(A1C)로 보정하면 메트포르민군에서 방광암 발생 위험이 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또한 투약기간 별로 분석했을 때 메트포르민을 5년 이상 복용한 환자군에서 1년 미만 복용군 대비 방광암 발생 위험(HR)은 1.02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메트포르민 치료는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방광암 발생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br/><br/>Mamtani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러한 결과는 유용하지만 기존 연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보다 영향력있는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암에 대한 메트포르민의 예방적 효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이미 방광암이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적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span>”고 주장했다.<br/><br/>한편 메트포르민의 암 예방 효과를 주장했던 던디의대 Peter T. Donnan 교수는 “<span class='quot1'>메트포르민 복용군의 방광암 발생 위험 감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더라도 19%라는 효과의 크기에 주목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추적기간이 기존 암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span>”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7.txt

제목: [새로나온 책]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의 신비 外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13447970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의 신비/정성진 지음/예영커뮤니케이션 <br/>“존 밀턴은 ‘실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복낙원’에서는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썼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연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성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막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br/>죽음을 배우다/랍 몰 지음, 이지혜 옮김/IVP <br/>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고인이 편히 잠들었다고 믿으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통함은 감출 수 없다. 갑작스런 죽음에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자 역시도 암 투병을 하던 고모를 찾아뵐 때까지만 해도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호스피스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 등을 고민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런 고민을 녹였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소개한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장 원주희 목사는 “<span class='quot0'>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책을 추천했다.<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8.txt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복강경 위암 수술 3천례 돌파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15  
본문: 사망률(0.03%), 합병증(11.3%) 수술 성적 뛰어나<br/><br/>[쿠키 건강]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월 10일 기준으로 복강경 위암 수술 3000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br/><br/>지난 2003년 5월 첫 수술을 실시한 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김형호·박도중·안상훈 교수팀)는 지난달 10일 복강경 위암수술 3002건을 시행했다.<br/><br/>특히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2003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환자 4567건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 위암 수술 후 수술에 따른 사망률은 0.03% (1건)을 기록했다. 또한 수술부위 감염, 출혈 등 수술에 따른 합병증도 개복(18.7%) 수술보다 복강경 수술(11.3%)에서 더 낮았다.<br/><br/>이러한 성과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 위암수술 사망률 1등급 의료기관으로 평가 받았고, 2012년 기준 복강경 위암수술 후 입원일수 8.6일로 전국최저입원일수를 기록했다.<br/><br/>◇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다기관 연구 주도<br/><br/>현재 조기위암에서의 복강경 수술은 조기회복, 통증감소, 흉터 최소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분당서울대병원 위장관외과가 있다. 세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규모 다기관 연구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위장관외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br/><br/>현재까지는 위암에서 개복수술이 표준수술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복강경 위암수술의 장기생존과 관련된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김형호 교수가 총 책임연구자로 국내 16개 병원 1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 비용대비효과, 환자 삶의 질, 면역력 그리고 장기생존율을 비교하는 다기관 임상연구(KLASS-01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br/><br/>오는 2015년이면 장기 추적 결과가 나오고 위암에서 복강경이 표준 수술법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전체 위암환자 90% 난이도 높은 전복강경수술 시행<br/><br/>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전체 위암환자의 약 90%를 복강경으로 수술하고 있다. 과거에는 위 절제와 문합을 위해 상복부에 4~6cm 정도의 절제가 필요했지만, 절개창 없이 체내에서 위 절제와 문합을 모두 시행하는 전복강경수술로 모든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br/><br/>여기에서 더 발전해 기존 5~6개의 포트를 사용하는 복강경위암수술에서 축소포트위암수술(3개의포트) 및 단일절개 복강경위암수술(1개의 포트)을 적용하고 있다. 병원 측은 “배꼽에 2~2.5㎝의 단일절개만으로 수술하는 순수 단일절개 복강경위암수술은 2013년 10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이후 지금까지 100례를 시행해 가장 많은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김형호 교수는 “<span class='quot0'>복강경 위암 수술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물론 감시림프절연구, 이중통로근위부위절제술 및 순수단일절개위암수술 등을 시행하는 등 한국의 복강경 위암 수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외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진단 및 검사를 진행하는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와 항암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와 간호인력, 연구원들이 함께 하는 다학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89.txt

제목: [새로나온 책]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의 신비 外  
날짜: 20140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018  
본문: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성막의 신비/정성진 지음/예영커뮤니케이션 <br/>“존 밀턴은 ‘실낙원’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복낙원’에서는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원을 되찾는 여정에 대해 썼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사연으로 시작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성막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성막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br/>죽음을 배우다/랍 몰 지음, 이지혜 옮김/IVP <br/>장례식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고인이 편히 잠들었다고 믿으려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비통함은 감출 수 없다. 갑작스런 죽음에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자 역시도 암 투병을 하던 고모를 찾아뵐 때까지만 해도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호스피스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에서 배워야 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자세 등을 고민했다. 이 책은 저자의 그런 고민을 녹였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소개한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장 원주희 목사는 “<span class='quot0'>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책을 추천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0.txt

제목: 흡연 경험 여성 유방암 발생률 30% 높다  
날짜: 20140212  
기자: 맹경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047  
본문: 흡연이 유방암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20∼44세 960명과 일반 여성 938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0일(현지시간) 의학저널 ‘암(Cancer)’에 발표했다. 2004∼2010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960명 중 778명은 일반적 형태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 나머지 182명은 빈도는 적지만 공격적 형태의 3중 음성 유방암 환자였다.<br/>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선 흡연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환자와만 연관성이 있고, 3중 음성 환자와는 무관했다. 전체적으로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혀 피우지 않은 여성에 비해 모든 형태의 유방암 발생률이 30% 높았다. 최소 15년 이상 담배를 피우다 최근 끊었거나 아직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흡연기간이 이보다 짧은 여성에 비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발생률이 50%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담배를 하루 1갑씩 최소 10년 이상 피운 여성은 이보다 덜 피운 여성에 비해 유방암 위험이 60% 높았다.<br/>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1.txt

제목: [질환 바로알기-자궁근종] 20대부터 예방해야  
날짜: 201402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2100000308  
본문: [쿠키 건강] 20대부터 시작해 30~40대 여성의 몸에 소리 없이 파고들어 건강을 앗아가는 병 ‘자궁근종’은 초기에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욱 무섭게 우리를 위협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김태선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 도움말을 통해 ‘자궁근종’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본다.<br/><br/>◇한국 여성 자궁절제술 OECD회원국 중 최고 기록<br/><br/>한국 여성의 자궁절제술 수치는 한 해 평균 10만 명당 329명꼴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충격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br/><br/>자궁을 절제할 경우 개복 흔적이 남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막상 자궁을 절제하게 될 경우 임신이 불가능 한 것은 물론이며 자궁의 손상과 그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가지고 오는 근골격계의 2차적인 기능 저하와 환자 스스로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은 수술 이후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br/><br/>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여성의 가장 깊은 뿌리인 자궁 건강을 위해 자궁근종의 원인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br/><br/>◇자궁근종, 30대 중반이상 여성 약 20%에 있어<br/><br/>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다. 주로 호르몬 작용의 요충지가 되는 자궁 체부나 자궁 경부에 생기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 난소와 질, 외음부, 자궁 주변 조직에 생기기도 한다.<br/><br/>김태선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과는 무관한 성격의 종양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 20%가량이 자궁에 크고 작은 근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빈도가 높은 질병</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은 차고 냉한 기운이 자궁에 스며들어 자궁 내 어혈이 굳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생기는 병으로 여성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라 설명하고 있다.<br/><br/>자궁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근육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하나의 자궁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발병을 해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증상 없이 근종이 자라다 크기가 커져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과다이다. 그 밖에 비정상 자궁출혈, 골반의 통증과 압박감, 복통, 요통, 월경불순, 성교통, 빈뇨 등 자궁과 생식기의 기능 이상이 대표적이다.<br/><br/>◇조기발견 땐 약물치료<br/><br/>자궁근종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생위험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가족 중 자궁근종을 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일찍부터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충분히 발병이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뜻. 물론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 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자궁근종은 물론 여러 여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br/><br/>자궁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수술이 아닌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 검사에서 근종이 발견됐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결쳐 몇 차례의 추적 관찰을 통해 크기와 형태 변화를 보아가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도 있다.<br/><br/>김태선 원장은 “<span class='quot1'>모든 병이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통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평소에 자신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현명한 길</span>”이라고 조언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2.txt

제목: [다시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000006  
본문: “<span class='quot0'>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을 증거하라</span>”<br/>강원도 춘천시 동면의 한마음교회에 들어서니 왼쪽 벽에 붙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부터 한마음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상당수 성도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며, 놀랍고 생생한 간증이 매 주일 펼쳐지고, 초대교회와 비슷한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공동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소리가 마음을 끌었다. 더구나 한국교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는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도 관심을 가게 만들었다. ‘분명 그 교회에는 뭔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교통이 좋아졌다지만 그 교회에 뭔가가 없다면 불편함을 감수하며 서울에서 춘천까지 예배드리러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뭔가’를 찾아서 호반도시 춘천에 갔다.<br/>담임인 김성로(66) 목사를 만났다. 전직 체육교사 출신인 김 목사는 열정의 목회자였다. 마음속 숯불이 달궈졌고, 그 시뻘겋게 달궈진 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인물로 비쳐졌다. 열정은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 그와 대화하면서 ‘마음의 숯불이 달궈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혹 이 한마음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지금 한국교회엔 열정의 회복이 필요하다. 한 때, 우리를 달궜던 숯불이 꺼져가고, 식어가고 있다. 지금, 그 숯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 뭔가가 필요하다. 냉랭한 심장의 소유자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다. “<span class='quot0'>아, 한 번만이라도 다시 활활 타오르고 싶다.</span>”<br/>김 목사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깊이 ‘클릭’되는 두 단어가 있었다. 부활과 주인 바꾸기. 이 두 가지는 맞물린다. 김 목사는 부활에 ‘목숨 걸고’ 있는 목회자였다. 독실한 신자인 아내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난 김 목사는 교사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 목사 안수를 받았다. 처음에는 교직과 성직을 병행하다 나중엔 목양에 전념했다. 그의 가슴속에는 젊은이들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1986년부터 강원대 캠퍼스에 들어가 6명의 대학생들과 제자양육을 시작한 그는 90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훈련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강한 훈련을 시켰다. 성도들은 하루에 성경 30장을 읽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며, 매 주일 성구를 외워야 했다. 교회는 부흥했다. 지하 15평에서 시작된 교회는 30평, 60평으로 넓혀졌고 젊은이들이 그득 모였다. 98년 외환위기에는 춘천시 장학리의 우사(牛舍) 2동을 구입했다. 누구도 오기 힘든 지역이었지만 교회는 성장했다.<br/>그럼에도 김 목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만족이 있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만족이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제자훈련을 했건만 결정적 변화는 없었다. 성도들의 삶은 늘 도돌이표였다. 그때 회개를 붙잡았다. ‘회개가 약해서인가’ 생각하며 94년부터 99년까지 성도들과 함께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회개를 했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부흥은 됐지만 불만족과 무기력감은 더욱 커져 갔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br/>2001년 청년·대학생 수련회 때 김 목사와 한마음교회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나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부활을 붙잡은 것이다! 부활이 처음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갔다. 신자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싶었지만 그때,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실재로 다가왔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부활의 주님 앞에 거꾸러진 사람들’의 간증이 그때부터 터져 나왔다. 중독자들이 치유되고, 동성애자가 회개하며, 말기 암 환자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행복한 마지막을 보내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한마음교회 담임목사실 한쪽 책장에는 성도들의 간증을 모은 책자들이 가득했다. 성도들은 앞 다퉈 간증하려 한다. 매 예배마다 행해지는 간증과 160여개의 공동체(작은 교회)는 한마음교회의 특징이지만 그것은 온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br/>김 목사는 “<span class='quot1'>사람의 변화는 훈련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span>”고 강조했다. 10∼15년 훈련받은 사람보다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의 변화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그에 따르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복음이면 다 된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가셨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이 겪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셨다.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합쳐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건보다 더 크지 않다.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br/>김 목사는 오랜 훈련에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건너뛴 시대에 살고 있다</span>”고 언급했다. 그래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모든 사고체계와 삶의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br/>그에 따르면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권능의 삶을 살기 위해선 주인을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주인 바꾸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다.<br/>“우리는 스스로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br/>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전능자를 증거하니 제자들은 핍박을 받아도 신명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나 짜릿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일 ‘장송곡’만을 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서….’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보게 하고, 부활은 주님을 보게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립니다.”<br/>그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이들이 독생자 예수를 주로 믿게 하기 위해 확실한 표적(증거)을 주셨다. 그것이 부활이다. 마태복음 12장39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으로 보여 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은 “<span class='quot2'>요나의 표적(부활)밖에는 없다</span>”고 확실하게 말하셨다.<br/>“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부활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결코 어느 누구도, 마귀도, 바꾸거나 가릴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을 붙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잡으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br/>그는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했다. 부활의 복음에 거꾸러질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형성되며,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었다. 김 목사는 2001년 부활의 복음을 붙든 이래 13년 넘게 ‘오직 부활!’을 외치고 있다. 그의 가슴속 숯불을 타오르게 만들었던 부활의 복음은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열정을 회복시켰다.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만들었다.<br/>그렇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면 된다. 절망과 낙담, 좌절은 없다.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만 붙들면 된다. 이 부활의 복음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식었던 우리 마음 속 숯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들리라.<br/>춘천=글·사진 이태형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 소장 th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3.txt

제목: [소년소녀 가장돕기-제주도개발공사] 창립이후 순이익 절반이상 소외계층에 환원  
날짜: 20140211  
기자: 주미령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000009  
본문: 제주시 서사로에 사는 김영선(가명·19)양은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다. 과외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지만 서울의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다.<br/>당초 김양은 집안 형편상 진학의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장학재단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준다는 얘기였다. 김양은 곧바로 지원해 ‘삼다수장학생’이 됐다. 그는 “먹는샘물 ‘삼다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며 “제주도개발공사의 도움으로 이제는 가슴을 활짝 펴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br/>소녀가장 이선주(가명·17)양은 월세방을 전전하느라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살 집을 장만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거문제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뒤 생활이 안정된 것이다.<br/>이양은 “<span class='quot0'>월세방에 살 때는 다음달 방세 걱정으로 할머니를 붙들고 우는 게 일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제주도개발공사가 마련해 준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서 처음으로 보금자리의 편안함을 느끼게 됐다</span>”고 웃었다. 그는 또 “<span class='quot0'>학교에서 돌아와 동생과 함께 방 꾸미는 일도 재미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열심히 공부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림이 되겠다</span>”고 말했다.<br/>제주도개발공사의 소년소녀가장 돕기 및 장학지원 사업이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공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지원한 건수와 금액은 97건, 16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지원은 제주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는 방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br/>공사는 창립 이후 얻은 당기순이익 1908억원 중 58%인 1095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이 중 990억원은 제주도에 배당해 주민 숙원사업에 쓰이도록 했으며, 105억원은 직접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무엇보다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전폭 지원했다.<br/>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사업이다. 공사는 일반주택 232동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시중 전세가의 3분의 1 수준에 임대해주고 있다. 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것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백혈병·소아암·신장병 환자, 요양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br/>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은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을 벌여 도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span>”며 “<span class='quot1'>특히 내년부터는 도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4.txt

제목: [詩로 보는 성서] 창 6장 노아의 방주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13436774  
본문: 땅 위에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자<br/>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취해<br/>세상은 타락과 방종의 무법천지로<br/>인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네<br/>땅 위에 사람을 왜 지었을까<br/>120년 후 그 죄악 쓸어버리리라<br/>심히 괴롭고 답답하신 주님은<br/>새 세상 펼칠 대홍수 생각하시네<br/>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인<br/>흠 없는 노아에게 명하시네<br/>앞으로 대홍수에 대비할<br/>구원의 큰 방주 만들어라<br/>노아 가족은 방주 만드네<br/>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칠해<br/>하나님이 명하신 대로<br/>암수 동물 한 쌍씩 들여보내네<br/>詩作 노트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다.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자가 좋을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온 땅 위에 죄악이 차고 넘쳤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악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노아만은 예외였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경외한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며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했다.<br/>김영진 장로 <성서원 대표><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5.txt

제목: 의료관광허브 꿈꾸는 ‘인천 국제성모병원’ 17일 개원 ‘관심 집중’  
날짜: 201402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000409  
본문: [쿠키 사회] 의료관광의 허브를 꿈꾸는 명소가 인천 서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인근에 들어섰다.<br/>‘의료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곳’이란 ‘메디테인먼트(Medi-tainment)’ 개념을 도입한 병원이 문을 여는 것이다.<br/>천주교 인천교구는 인천시 서구 심곡로에 국제성모병원을 오는 17일 개원한다고 11일 밝혔다.<br/>초대 원장에는 가톨릭대학교 의료원장을 지낸 천명훈 박사가 내정됐다.<br/>1만4363㎡의 대지에 지하 6층, 지상 11층, 연면적 10만4656㎡ 규모로 25개 진료과목, 36개 진료과, 12개 전문 진료센터로 구성됐다.<br/>이 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로 무장했다.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포함해 암치료기 ‘인피니티’, ‘마그네톰 스카이라’라 불리는 인간 친화적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갖췄다.<br/>‘메디컬테마파크’를 표방하는 만큼, 병원이 단순한 치료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인 휴식과 즐거움을 주는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 오락시설을 구비했다.<br/>스크린 골프장과 미용실은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공장에서 상추와 치커리 등 각종 채소를 기르는 식물재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노천광장을 연중 무료로 개방해 각종 예술 공연과 전시회, 벼룩시장 등의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br/>국제성모병원은 현재 콜센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외래환자예약서비스를 펼치며 18일부터 본격 외래진료에 들어갈 예정이다.<br/>이 병원 경영을 총괄하는 박문서 신부(예방의학박사)는 “<span class='quot0'>오랜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개원을 준비해왔기에 개원초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배제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사전에 팀워크를 다져놓았기에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6.txt

제목: [詩로 보는 성서] 창 6장 노아의 방주  
날짜: 20140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000040  
본문: 땅 위에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자<br/>하나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을 취해<br/>세상은 타락과 방종의 무법천지로<br/>인류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네<br/>땅 위에 사람을 왜 지었을까<br/>120년 후 그 죄악 쓸어버리리라<br/>심히 괴롭고 답답하신 주님은<br/>새 세상 펼칠 대홍수 생각하시네<br/>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의인<br/>흠 없는 노아에게 명하시네<br/>앞으로 대홍수에 대비할<br/>구원의 큰 방주 만들어라<br/>노아 가족은 방주 만드네<br/>잣나무로 짓고 역청으로 칠해<br/>하나님이 명하신 대로<br/>암수 동물 한 쌍씩 들여보내네<br/>詩作 노트 인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다. 땅 위에 사람들이 불어나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각자가 좋을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온 땅 위에 죄악이 차고 넘쳤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직 악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노아만은 예외였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경외한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있을 대홍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시며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했다.<br/>김영진 장로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7.txt

제목: 한양대구리병원, 겨울철 운동법 건강강좌 실시  
날짜: 2014021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1100000209  
본문: [쿠키 건강] 한양대학교구리병원(원장 김경헌)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지난 2월 7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겨울철 운동방법과 스트레칭 배워보기’란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br/><br/>이날 강좌에서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가 강사로 나서 “<span class='quot0'>재활이란 다치거나 부상을 당한 후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평소에 자기 몸에 맞는 근골격계 운동을 통해 손상을 예방하고, 초기에 중상을 잡을 수 있으며 물리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치료</span>”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한 교수는 “겨울철에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하고, 스트레칭시 주의사항으로 동작을 천천히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동작으로 10초정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스트레칭”이라며 “스트레칭을 한 후에는 근력강화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60세 이상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근육 감소현상이 있기에 근력강화운동을 해주면 근력감소 예방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br/><br/>한양대구리병원은 2011년 6월부터 매월 건강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7일에는 구리시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한양대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 원영웅 교수가 ‘암 예방과 조기검진’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8.txt

제목: 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날짜: 201402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158  
본문: [쿠키 건강] 암 경험자 130만명 시대다. 우리나라 인구 45명 중 1명이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자연히 암에 대한 정보도 차고 넘친다. 문제는 잘못된 암 정보이다. 올바르지 못한 정보는 자칫 암을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br/><br/>▲휴대전화 사용이 암 발병률을 높인다?=그렇다.<br/><br/>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1년,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인된 증거가 없다고 밝히던 그간의 입장을 뒤엎고 휴대전화의 암 발병 연관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br/><br/>이와 함께 장기간(10년 이상) 하루 30분씩 휴대전화를 매일 사용할 경우 뇌종양 발병률이 40%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 내용도 인정했다. 이에 WHO는 음성통화 대신 ‘핸즈프리 키트’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대한 직접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br/><br/>지난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휴대전화 사용 환경에 따른 전자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흥미롭다. 통화 연결 중에 전자파 강도가 증가하고 특히 지하철과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상태에서 통화하면 정지 상태보다 평균 5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증가했다.<br/><br/>가장 가까운 기지국을 수시로 검색하기 때문에 기기 출력이 증가하게 된다.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장소에서 통화할 때도 개방 공간에서 토오하하는 것보다 평균 7배가량 전자파 강도가 세졌다. 밀폐된 장소는 전파 수신이 어려워 기기 출력이 증가하는 것이다.<br/><br/>▲술이 센 사람은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아니다.<br/><br/>술이 센 사람은 간이 튼튼해서 약한 사람보다 간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술이 간에 미치는 영향은 평소 주량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음주의 양과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잘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 한 번 마실 때 많이 마시기 때문에 오히려 간암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루 40~80g의 술을 10년 동안 마신 사람은 알코올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br/><br/>▲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아니다.<br/><br/>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유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남성 유방암 발병률이 여성 유방암 발병률에 비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은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남성의 평균 진단연령이 여성보다 10년 정도 늦고 대체로 예후도 여성 유방암보다 좋지 않다.<br/><br/>▲육식을 많이 하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다?=아니다.<br/><br/>대표적인 속설 중 하나다. 실제로 대장암 환자 중 육류를 자주 먹었다고 말하는 환자는 10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 다만, 익히지 않거나 조리하지 않은 날것의 육식을 하는 경우는 암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암환자에게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하다.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므로 육식을 하되 살코기를 위주로 하여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br/><br/>▲유기농 식품만 먹으면 암을 피할 수 있다?=아니다.<br/><br/>유기농 식품과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식품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다. 미국 보건당국도 화학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항생제나 호르몬, 방부제 등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을 먹으라고 권고했다.<br/><br/>다만, 모든 식품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발암성분도 포함된 만큼 유기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가령 사과나 상추에 많이 들어 있는 카페인산, 알로에의 샤프롤, 파슬리에 들어 있는 소랄렌, 버섯에 있는 셀레릴 하이드라진, 마늘에 들어 있는 이소시오시아네이트 등은 천연 발암물질이다.<br/><br/>이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유기농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먹으면 독성 성분이 쌓여 해가 된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br/>\* 도움말=이대일 원장(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299.txt

제목: [메디컬 뉴스] 가천대길병원, 공동간병서비스제도 새로 도입 外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022  
본문: 공동간병서비스제도 새로 도입<br/>가천대길병원은 2월부터 간병인 1명이 입원 환자 3명을 함께 돌보는 공동간병서비스제도를 새로 도입,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병원 측은 6인실 기준으로 정형외과와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각각 1실씩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면서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br/>수술 앞둔 환자용 탄수화물 보충음료 출시<br/>대상㈜ 웰라이프본부는 최근 각종 수술 및 검진을 앞둔 환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사과 맛 탄수화물 보충음료 ‘뉴케어 노엔피오’를 새로 출시했다. 200㎖들이 30캔 1박스에 6만원.<br/>청소년 건강 중요성 알리기 토크 콘서트<br/>한국건강증진재단은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일 오후 6∼8시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고(Go)함!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02-3781-3509).<br/>4월 개원 연세암병원 슬로건 공모<br/>세브란스병원은 20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세암병원 슬로건’을 공모한다. 오는 4월 개원하는 연세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병원, 통증이 적은 맞춤 암 치료를 구현하는 병원, 환자를 기다리게 하지 않고 가족같이 보살피는 병원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희망자는 이들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표어를 이메일(severance@yuhs.ac)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 상금은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이다.<br/>척추 이상 정확히 감별 최신 의료장비 도입<br/>바른세상병원은 평소 서 있을 때 요추에 걸리는 무게를 반영하여 누워서도 척추관절의 이상을 정확히 감별해낼 수 있는 최신 의료장비 ‘다이나웰(DynaWell)’을 새로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장비는 편안하게 누워서도 마치 서 있는 것과 같은 허리 환경을 만들어 직립 상태에서 허리에 가해지는 중력과 하중, 척추 압력상태를 측정해 수술 시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0.txt

제목: 의료실비보험 가입방법, 비교추천은 필수  
날짜: 2014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470  
본문: [쿠키 생활]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 노출이 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평균 1억원 정도다. 이 중에서 절반 가량이 64세 이후인 노년에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의료비 항목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후 의료비 대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br/>의료실비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손으로 보장받는 상품으로 국민의 60% 이상은 가입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보험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이나 가입 금액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며 비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실비보험 가입시 알아둘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br/>첫째,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 때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질병으로 인한 치료중이라면 가입이 제한된다.<br/>둘째, 보험료는 연령이 낮을수록 저렴하고 높을수록 의료비용 지출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다. 하여, 빠를수록 좋으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셋째, 실손보험 이기에 중복보장이 안된다.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일정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암 보험을 선택특약으로 할 경우 암 진단만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지만, 의료실비 자체 비갱신형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체크해야 한다.<br/>대신 중복보장이 가능한 경우는 의료실비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는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특정질병이 발병될 위험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 내용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br/>넷째, 의료실비보험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통원,입원,수술비 등을 보장받기에 보험금 청구횟수가 잦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빠른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br/>다섯째, 본인부담금 설정은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가능한 최소화 하는 것이 유리하다. 10%,20%가 있는데 10%를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다.<br/>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이기에 의료실비보험 비교추천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의료실비보험 가격비교견적 추천사이트(silbi-bohum114.co.kr)는 나에게 맞는 의료실비보험 실시간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추천해주는 곳으로 어린이 부모님 의료실비보험 등을 저렴하게 비교 가입 할 수 있다.<br/>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 LIG손해보험 닥터플러스건강보험/희망플러스자녀보험,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의료종합보험, 흥국화재 더플러스사랑보험/무배당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현대해상 하이콜종합보험/굿앤굿어린이CI보험 등의 인기상품의 의료실비보험순위와 가격비교를 할 수 있다.<br/>이러한 보험 상품들의 무료상담은 물론 가입시 유의할 점, 의료실비보험료 계산, 보장 내용 축소에 대한 설명과 무료 보험설계를 받을 수 있어 의료실비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보험정보를 알려준다. 의료실비보험 가격견적비교사이트를 꼭 활용하여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1.txt

제목: 김현구 교수, 美학회서 싱글포트 흉강경 폐절제술 성공사례 발표  
날짜: 201402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10100000264  
본문: [쿠키 건강] 김현구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교수(사진)가 지난 1월 29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흉부외과학회(Society of Thoracic Surgeon)에서 싱글포트 흉강경을 이용한 폐암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br/><br/>김 교수의 폐절제술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성공 사례로서, 지난 201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소 2.5~4cm가량의 단 한 곳만을 절개해 수술하는 싱글포트(single port) 흉강경을 이용해 폐암조직을 떼어내는 수술을 성공시켰다.<br/><br/>이후 최첨단 3D 흉강경 장비를 도입해 싱글포트 폐암수술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선도해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110례 이상 수술에 성공하며 폐암 완치를 돕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이에 김현구 교수는 오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아시아 싱글포트 흉강경 수술 심포지엄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술법과 노하우를 아시아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전수할 예정이다.<br/><br/>한편, 현재 김 교수는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탐색 기반의 흉강경 영상유도 폐암수술 기법 개발’과 ‘폐암에서 림프관을 통한 나노기반의 국소항암치료제 개발’ 등 국책연구를 총괄하며 미래 폐암 신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영상유도 폐암 수술법은 싱글포트로 보다 작게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폐암조직만을 미세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진보된 수술법으로, 초기 폐암환자가 보다 간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암 재발 및 전이를 막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강점</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2.txt

제목: 김현구 교수, 美 흉부외과학회서 폐암수술 성과 발표  
날짜: 201402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9100000031  
본문: 고대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과, 세계가 주목<br/><br/>[쿠키 건강] 고려대 구로병원 흉부외과 김현구 교수(사진)가 최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과를 발표해 호평을 받아다.<br/><br/>9일 고대구로병원에 따르면 김현구 교수는 지난달 29일 미국흉부외과학회(Society of Thoracic Surgeon) 학술대회에서 가슴의 한 곳만을 절개해 흉강경으로 수술하는 싱글포트 흉강경 폐암수술 성공사례를 발표했다.<br/><br/>김 교수의 수술법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흔치 않아 전세계 의료진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으며, 김현구 교수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수술법과 노하우도 전수해 우수한 수술역량을 알렸다.<br/><br/>이에 앞서 김현구 교수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소 2.5~4㎝가량의 단 한 곳만을 절개해 수술하는 싱글포트(single port) 흉강경을 이용해 폐암조직만을 떼어내는 수술에 성공한 바 있다.<br/><br/>이후 최첨단 3D 흉강경 장비를 도입해 싱글포트 폐암수술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수술을 선도해왔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총 110례 이상 수술에 성공하며 폐암 완치를 돕고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br/><br/>이와 함께 김 교수는 뛰어난 임상 및 연구역량으로 주요 국제 학회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현구 교수는 는 오는 4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리는 아시아 싱글포트 흉강경 수술 심포지엄의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아 수술법과 노하우를 아시아 흉부외과 의료진에게 전수할 예정이다.<br/><br/>특히 김현구 교수는 현재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이용한 감시림프절 탐색 기반의 흉강경 영상유도 폐암수술 기법 개발’과 ‘폐암에서 림프관을 통한 나노기반의 국소항암치료제 개발’ 등 국책연구를 총괄하며 미래 폐암 신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br/>김현구 교수가 개발하고 있는 영상유도 폐암 수술법은 싱글포트로 보다 작게 수술부위를 절개하고 폐암조직만을 미세하게 절제할 수 있는 진보된 수술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초기 폐암환자가 보다 간편하게 수술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암 재발 및 전이를 막고 회복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강점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3.txt

제목: 암 예방의 첫걸음은 생활습관 고치는 것  
날짜: 201402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8100000120  
본문: [쿠키 건강] 우리는 지금 세 명 중 한 명은 암(癌)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암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질병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환경의 반영물이다. 위생이 불결하던 시절에는 자궁경부암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암이 많았고 빈곤의 시기에는 결핵이 흔했던 것처럼 말이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요즘에는 식습관이 질병 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질병의 종류와 발생률이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r/><br/>◇암과 음식, 항암 냉장고= 평소 뭘 먹느냐에 따라 20~30년 후 질병 발생 패턴이 확확 바뀐다. 짜고 삭히고 절인 음식을 먹던 전통 한국인에게는 위암이 많지만, 그들이 미국에 이민 가 낳은 2세대들은 지방질 과잉 섭취로 대장암에 많이 걸린다. 이탈리아의 경우, 채소와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는 남부 지역이 묵힌 음식을 많이 먹는 북부보다 암 발생이 적다. 민족적 체질보다 우선인 것이 음식이다.<br/><br/>냉장고 안이 고기 버터 베이컨 등 고지방 음식들로 채워져 있다면 이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냉장고다. 그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냉장고라는 뜻이다. 젓갈 장아찌 절인 생선이 가득하면 위암 냉장고가 된다. 반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요구르트, 두부, 콩과 같은 음식으로 꽉 차 있으면 항암 냉장고가 될 것이다.<br/><br/>우리 속담에 동가식(東家食) 서가숙(西家宿)이라는 말이 있다. 밥은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 가서 잔다는 것으로,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빗댄 표현이다. 기자는 이 속담을 현대판 건강 규범으로 삼고 싶다. 먹는 것은 동양식으로, 생활은 서양식으로 말이다.<br/><br/>◇암과 음주, 암 발생률은 음주량에 비례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공개한 각 나라의 수명에 미치는 연구를 보면, 한국인은 술 때문에 약 11.1개월 수명이 단축된다. 여기에는 간질환이나 술로 인한 심혈관질환 영향도 있지만 암 발생도 무시할 수 없다. 과음이 생활화되면,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癌)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br/><br/>전체적으로 각종 암 발생률은 음주량에 비례한다. 따라서 1년 내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에 거의 중독 되어 쉬지 않고 자주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췌장암과 결장암 위험은 2배 이상, 전립선암과 대장암 위험은 80% 이상 높아질 수 있다.<br/><br/>특히 여성은 알코올에 더 취약하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될 때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항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br/><br/>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에서 알코올 독성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는 의미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 같은 체중이더라도 지방의 비율이 높다. 마신 알코올은 지방에 축적되는데, 이 말은 곧 알코올이 여성의 몸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뜻이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양의 술을 동일한 기간 상습적으로 마셨을 경우, 이런 연유로 여성이 더 빨리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된다.<br/><br/>◇암과 흡연, 모든 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흡연= 담배 연기에는 62가지 발암물질이 있다고 한다. 한 해에 5만 명이 담배로 인한 폐암과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흡연 후 30년 정도 지나면 폐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 1980년대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던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의 폐암 사망률 1위를 낳고 있다. 이 밖에 흡연은 구강암, 후두암, 방광암, 위암 등 거의 모든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 담배를 끊고 15년 정도 지나야 비흡연자 수준으로 건강 상태가 회복되니 하루라도 빨리 금연해야 한다.<br/><br/>게다가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건강에 좋지 않은 설탕류의 당분이나 지방질 음식, 술을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과일?채소나 해산물 등은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에 나쁜 식습관까지 겹치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br/><br/>◇암과 스트레스, 암 예방과 연결되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내분비계를 활성화해 신체방어 작용인 면역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암 발생 가능성이 큰 사람이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이 떨어져 보통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암환자에겐 대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암에 걸리기 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이혼, 사별, 실직, 고부갈등, 회사에서의 과로 등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무장 해제시킨 것이다.<br/><br/>스트레스는 복합적으로 발암 효과를 낸다. 우선 스트레스는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을 부른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은 흡연, 과식 혹은 잦은 음주 등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다.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성의 약화도 암 발생과 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몸의 면역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험용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쥐의 종양이 그렇지 않은 쥐의 종양보다 빨리 성장하고 전이되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따라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길이다. 그렇지만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다만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풀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 짧을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도 감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자신의 기호에 맞는 취미생활을 개발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는 등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조절법이 암을 막는 길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4.txt

제목: 담배 피해 소송 나선 건보공단, 금연운동 ‘총대’… 매달 발행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넣는다  
날짜: 20140208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8100000084  
본문: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만8000명’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2.9∼6.5배 증가’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흡연 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 57배, 폐암 발생률 2배’.<br/>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와 안내문에 이런 흡연 경고 문구가 실린다. 건보공단은 매달 국민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일반 건강검진 안내문,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등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달 1000만여건의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지속적인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르면 6월까지 관공서와 각 기업의 흡연율을 파악할 예정이다. 흡연율이 파악되면 각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금연패치 무상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br/>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를 알리고 금연운동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단본부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규명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폐암은 흡연량과 직접 비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연하면 5년 뒤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폐암 위험성이 떨어진다</span>”고 말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5.txt

제목: 20대부터 시작하는 자궁근종 예방법  
날짜: 201402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8100000122  
본문: [쿠키 건강] 20대부터 시작해 30~40대 여성의 몸에 소리 없이 파고들어 건강을 앗아가는 병 ‘자궁근종’은 초기에는 징후가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자궁을 적출하는 결과를 가져와 더욱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br/><br/>◇한국, OECD 가입국 중 자궁절제 가장 많아= 한국여성의 자궁절제술 수치는 한 해 평균 10만 명당 329명꼴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은 충격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자궁을 절제할 경우 개복 흔적이 남는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br/><br/>하지만 막상 자궁을 절제하게 될 경우 임신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자궁의 손상과 그에 따른 호르몬 변화가 가지고 오는 근골격계의 2차적인 기능 저하와 환자 스스로 느끼는 여성으로서의 상실감은 수술 이후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여성의 가장 깊은 뿌리인 자궁 건강을 위해 자궁근종의 원인과 예방법을 숙지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하자.<br/><br/>◇자궁근종, 알고 시작하면 예방법이 보인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을 일컫는다. 주로 호르몬 작용의 요충지가 되는 자궁 체부나 자궁 경부에 생기곤 하는데 경우에 따라 난소와 질, 외음부, 자궁 주변 조직에 생기기도 한다.<br/><br/>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암과는 무관한 성격의 종양으로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 20%가량이 자궁에 크고 작은 근종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큼 빈도가 높은 질병이며, 한의학에서는 자궁근종은 차고 냉한 기운이 자궁에 스며들어 자궁 내 어혈이 굳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생기는 병으로 여성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라 설명하고 있다.<br/><br/>자궁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바 없으나 근육세포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하나의 자궁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병을 하여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전체 환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증상 없이 근종이 자라다 크기가 커져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흔한 증상은 월경과다이다. 그 밖에 비정상 자궁출혈, 골반의 통증과 압박감, 복통, 요통, 월경불순, 성교통, 빈뇨 등 자궁과 생식기의 기능 이상이 대표적이다.<br/><br/>◇정기적인 검진이 예방과 빠른 치료의 최선책= 자궁근종은 가족력이 있을 경우 발생위험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가족 중 자궁근종을 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일찍부터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충분히 발병이나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뜻. 물론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3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자궁근종은 물론 여러 여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자궁근종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수술이 아닌 약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 검사에서 근종이 발견됐을 경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쳐 몇 차례의 추적 관찰을 통해 크기와 형태 변화를 보아가며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든 병이 음식이나 생활습관을 통해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인 만큼 평소에 자신의 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br/><br/>◇추운 날씨일수록 몸매보다 건강에 신경 쓰자= 어혈로 인한 병의 발전이 자궁근종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해석에 따르면 자궁이 위치한 하복부는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요즘 20~30대 젊은 여성들은 물론이며 40대 여성들도 즐겨 입는 스키니진은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자궁 내 생리혈과 어혈을 뭉치게 하며, 짧은 치마와 핫팬츠 등은 따듯해야 할 여성의 하복부에 냉기를 들여와 자궁질환 발병률을 높인다.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하이힐 또한 골반에 압박감을 주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 평소에도 생리 전후나 출산 전후에는 착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에는 실제로 생리통 등 여성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으므로 더욱이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br/><br/>◇채소부터 콩까지 음식으로 시작하는 자궁 건강= 현대인은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데 이러한 음식들은 장운동을 더디게 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특히 장운동이 지체되면 늘어진 장이 자궁을 압박하여 피로감을 준다. 과일과 채소, 곡류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채소 중에서도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싹양배추 등은 체내 에스트로겐 대사를 증진시켜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준다.<br/><br/>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돕는 대표적인 여성 권장 식품으로는 콩을 빼놓을 수 없다.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자궁 건강은 물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조류는 대사를 조절하고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므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미역국 등으로 생활 속에서 자궁 건강을 실천해 보자.<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6.txt

제목: 방선휘한의원,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의료서비스 협약  
날짜: 201402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7100000244  
본문: [쿠키 건강] 방선휘한의원(대표원장 방선휘)는 지난 6일 대전 라미아호텔에서 전통 한방 종양학을 바탕으로 암치료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센터장 조종관)와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br/><br/>방선휘한의원은 암치료의 세계적인 흐름인 양한방 통합암치료를 선도하는 부산지역의 면역치료 한의원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방선휘한의원과 동서암센터에서 진료 받는 환자들은 양 기관 순환 진료 서비스 등 진료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br/><br/>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환자 진료 협력, 환자 의뢰, 진료지원, 환자 치료 결과 공유, 의료비 감면 혜택 등의 교류 활동을 강화한다.<br/><br/>이와 함께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는 방선휘한의원에 매뉴얼, 세미나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교육 등에 대한 초청 등 다양한 의학 정보 공유 업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전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부산 방선휘한의원 간 의료기술 협력 및 자문, 최첨단 의료시설, 장비 등의 견학에 대해 상호 협력도 추진한다.<br/><br/>특히 양 기관은 통합의학과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임상시험 및 통계자료 등의 연구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br/><br/>방선휘 대표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암치료 현장에서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기간을 늘리는 한방면역치료의 발전 및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근거 중심의 신뢰성 있는 독창적이고 효과적임 한방암치료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br/><br/>방선휘한의원 측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 울산, 경상 지역의 대표적인 면역암치료 로컬센터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한방 통합암치료 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의료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 것이라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7.txt

제목: [겨자씨] 아도니람 저드슨의 기도  
날짜: 20140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710013406860  
본문: “<span class='quot0'>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 속에서 죽을 아내를 보내주십시오</span>”라고 기도한 아도니람 저드슨은 낸시를 만나 미얀마로 1813년 선교를 떠난다. 6년 만에 첫 설교하고 7년 되는 해 첫 회심자를 얻는다. 20년간 성서를 번역하고 두 아내와 6명의 자녀를 미얀마 정글에 묻었다. 그래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37년간 선교했다. 그가 죽을 땐 63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200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엔 300만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저드슨의 기도는 자신의 영광이나 영달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었다. 기도는 사명이고 봉헌이고 선교를 위한 목숨이다. 환난의 능력은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저드슨의 기도는 가족 모두를 미얀마 선교를 위해 바칠 수 있는 능력이다. 도적의 능력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나 기도의 능력은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도 주는 것이다.<br/>“<span class='quot0'>기도의 능력은 말기암보다 크다/ 기도는 의술도 포기한 암덩어리를 파괴하기에/ 기도의 능력은 죽음보다 크다/ 죽음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일 때/ 기도는 그의 능력으로 소망 갖고/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게 한다/ 기도의 능력은 모든 환난보다 크다/ 기도는 어떤 환난이라도/ 그것 딛고 설 수 있는 승리를 주기에/ 기도의 능력은 홍해보다 광야보다 더 크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길 내고 통과하게 하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기도를 이긴 어떤 불가능도 없다.</span>”(고훈 목사의 시 ‘기도 고백’)<br/>고훈 목사(안산제일교회)<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8.txt

제목: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담배 위험성 경고문구 들어간다  
날짜: 201402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7100000350  
본문: [쿠키 사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한 해 5만8000명’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 2.9~6.5배 증가’ ‘여성 폐암 환자 20%가 남편의 흡연이 원인’ ‘남편의 흡연으로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 50% 증가’ ‘흡연 부모가 있는 집의 어린이 급성 호흡기질환 감염률 57배, 폐암 발생률 2배’.<br/>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하는 고지서와 안내문에 이런 흡연 경고 문구가 실린다. 건보공단은 매달 국민들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일반 건강검진 안내문,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등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달 1000만여건의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지속적인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br/>건보공단은 또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르면 6월까지 관공서와 각 기업의 흡연율을 파악할 예정이다. 흡연율이 파악되면 각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금연패치 무상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br/>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를 알리고 금연 운동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단본부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규명한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근칠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폐암은 흡연량과 직접 비례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금연하면 5년 뒤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폐암 위험성이 떨어진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09.txt

제목: 국민 의료비 부담 날로 증가… 건보 보장률 하락… 본인부담 늘어  
날짜: 20140207  
기자: 문수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7100000086  
본문: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대 비급여 문제(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기준을 4인실로,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2011년보다 0.5% 포인트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였으나 2010년 63.6%, 2011년 63.0%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br/>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 비율(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2년 17.2%로 전년도(17.0%)보다 다소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법정 본인 부담률) 또한 20.0%에서 20.3%로 증가했다.<br/>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커진 셈이다.<br/>건강보험공단은 “<span class='quot0'>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법정 본인부담률 상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입원 진료보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외래 진료 비중이 증가한 게 원인</span>”이라고 분석했다.<br/>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5% 또는 10%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8%로 2011년(76.1%)보다 높아졌다.<br/>보건복지부는 이에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비급여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있다. 3대 비급여 문제 가운데 상급병실료 부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낮추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br/>또 병원마다 선택진료 의사 비중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br/>한편 복지부는 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에게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일단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해 왔다. 시행에 앞서 4∼6월 자진납부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0.txt

제목: 연세암병원 슬로건 공모전 개최  
날짜: 201402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6100000218  
본문: [쿠키 건강] 세브란스가 2월 6일(목)부터 2월 20일(목)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연세암병원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br/><br/>이번 공모전은 내원객 및 연세암병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이름과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severance@yuhs.ac)로 제출하면 된다. 1등 10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 각 1명씩 선정한다.<br/><br/>연세암병원은 ▲암 환자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병원 ▲통증이 적은 맞춤 암 치료를 구현하는 병원 ▲긴 진료대기 없이 환자를 내 가족같이 살피는 병원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는 설명 잘하는 병원을 목표로 오는 4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br/><br/>세브란스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연세암병원의 이러한 특징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br/><br/>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브란스 홈페이지(www.iseverance.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연세의료원 미디어홍보실(severance@yuhs.ac)로 연락하면 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1.txt

제목: 건강보험 보장률 3년 연속 하락…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날짜: 201402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6100000465  
본문: [쿠키 사회]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하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3대 비급여 문제(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병실 기준을 4인실로, 선택진료 의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2011년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였으나 2010년 63.6%, 2011년 63.0%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br/>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한 의료비 비율(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2년 17.2%로 전년도(17.0%)보다 다소 늘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법정 본인 부담률) 또한 20.0%에서 20.3%로 증가했다.<br/>2012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낮아지고, 법정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커진 셈이다.<br/>건강보험공단은 “<span class='quot0'>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법정 본인 부담률 상승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입원 진료보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외래 진료 비중이 증가한 것이 원인</span>”이라고 분석했다.<br/>다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5% 또는 10%인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8%로 2011년(76.1%)보다 높아졌다.<br/>보건복지부는 이에 오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비급여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있다. 3대 비급여 문제(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가운데 상급병실료 부문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낮추는 방안이 채택될 전망이다.<br/>또 각 병원마다 선택진료 의사 비중 기준을 현행 최대 8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br/>한편 복지부는 6회 이상 건보료 체납자에게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일단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한 뒤 그 비용을 나중에 환수해왔다. 시행에 앞서 4~6월 자진납부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2.txt

제목: 전 세계 암 환자, 2035년 70% 더 는다  
날짜: 20140205  
기자: 이제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271  
본문: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이 크게 늘어 2035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24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무려 70%가량 늘어난 수치다.<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에서 이같이 밝히고 술과 담배, 비만 등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br/>40개국 250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보고서에서 2008년 1270만명이던 암 환자는 2012년 1410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930만명, 2030년 2160만명, 2035년에는 24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820만명이었던 사망자수는 2030년에는 59% 증가한 130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br/>보고서는 인구증가와 노령화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 비만, 가공식품 섭취, 공해, 모유 수유 감소 등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발병률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br/>암 발병에 따른 치료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1조1600억 달러(약 12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br/>또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여 암 발병의 60%와 사망의 7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이뤄졌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이 높았다. 대부분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br/>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간암과 위암, 식도암이 주를 이뤘다. 이들 국가의 경우 열악한 의료장비 등으로 인해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 진단이 이뤄지고 치료 역시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폐암(19.4%),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순으로 발생했다.<br/>크리스토퍼 와일드 IARC 소장은 “<span class='quot0'>암 발병과 사망자 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저소득국가의 경우 초기 유방암 진단을 위한 영상판독 교육 등이 절실하다</span>”고 말했다.<br/>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3.txt

제목: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개소  
날짜: 201402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014  
본문: 암 경험자와 가족 대상, 통합적인 건강관리 지원<br/><br/><br/><br/>[쿠키 건강] 건국대병원이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을 개소했다.<br/><br/>‘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은 가정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암 전문센터의 협진시스템으로 암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의 예방법과 부작용 치료법, 생활습관 관리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br/><br/>암 치료를 마친 암 경험자는 치료에 따른 후기 부작용과 불안과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이 생길 수 있다. 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과 2차암(이차암)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암 치료 이후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br/><br/>암 경험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의 최재경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 경험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도 암 치료 이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경험자의 가족은 암 경험자와 같은 환경에서 생활습관을 공유하고 가족 내 암 발생 관련 유전자 변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암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span>”고 전했다.<br/><br/>암 경험자의 가족은 클리닉을 통해 암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발생위험이 큰 암을 선별해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br/><br/>세부프로그램으로는 금연과 절주, 체중관리, 불면과 통증치료, 예방접종 등이 있다.<br/><br/><br/><br/>암경험자와 가족 건강관리 수칙<br/><br/>1. 추적 관찰 주기적으로 받기& 합병증 정기적으로 점검하기<br/><br/><br/><br/>암 치료를 받은 이후 주기적인 추적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동반 질환이 무엇인지 등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후기합병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피로와 통증, 불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br/><br/>2. 다른 암에 대한 검진 챙겨 받기<br/><br/><br/><br/>이차함은 암 경험자에게서 암 치료 이후에 원래 있었던 암과 무관하게 새롭게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암 경험자는 일반인에 비해 이차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진이 필요하다.<br/><br/>3. 심장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만성질환 관리하기<br/><br/><br/><br/>암 경험자는 암 치료로 인한 후기 영향과 기존의 위험인자 등이 상호작용해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등 동반질환 유병률이 높다. 심장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환자 개개인의 맞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다.<br/><br/>4. 금연은 필수, 술도 가급적 마시지 않기<br/><br/><br/><br/>담배와 술은 그 자체로 암 발생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암 치료 후 흡연과 음주는 암경험자의 사망과 재발, 이차암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다.<br/><br/>5. 적정체중 유지하기<br/><br/><br/><br/>비만은 암 재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차암과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암 경험자의 예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정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br/><br/>6. 운동은 꾸준히, 매주 150분 유지하기<br/><br/><br/><br/>암 경험자에게 적절한 신체활동과 운동량 유지는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심장뇌혈관 질환과 대사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피로나 통증 등 신체증상과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br/><br/>7. 마음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도움청하기<br/><br/><br/><br/>암 치료 후에 불안과 우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약물치료와 지지적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br/><br/>8. 가족과 함께 검진 받고 건강 챙기기<br/><br/><br/><br/>암 경험자의 가족은 암 발생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철저히 받을 필요가 있다.<br/><br/>9. 예방접종하기<br/><br/><br/><br/>면역 이상이 없는 암경험자에게 인플루엔자, 폐렴사슬알균, 디프테리아-파상풍, 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암 치료자 뿐 아니라 가족 및 간병인에게도 적절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출처: 건국대병원 암 치료 후 건강관리 클리닉 최재경 가정의학과 교수)<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4.txt

제목: 비타민 D 효과, 기대해도 될까?  
날짜: 201402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140  
본문: VITAL 연구…비타민 D 복용 5년 효과<br/><br/>[쿠키 건강] 미국에서 비타민 D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여러 메타분석에서 더 이상의 비타민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대세를 이루는 터라 VITAL 연구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br/><br/>이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하버드공중보건의대 조안 맨슨(JoAhn Manson) 교수(브링험여성병원)는 “<span class='quot0'>비타민 D 보충제의 만성질환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span>”면서 “<span class='quot0'>VITAL 연구는 설계 자체가 매우 정교하고 연구의 질이 높아 비타민 D와 관련된 의문점에 중요한 해답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br/><br/>VITAL 연구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보충제의 암,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3상 연구다.<br/><br/>50세 이상 미국 성인 남녀 2만명을 비타민 D+오메가-3 복용군, 비타민 D 복용군, 오메가-3 복용군, 위약군으로 나눴고 해당 군에서 매일 비타민 D3 보충제(콜레칼시페롤) 2000IU과 오메가-3 지방산 840㎎을 함유하고 있는 오마코 1캡슐을 복용하도록 했다. 또한 비타민 D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군에게 1일 800IU 복용을 허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타민 D 투여용량이나 빈도가 낮아 생리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것이 맨슨 교수의 주장이다.<br/><br/>과거 비타민 D 보충제 복용 혜택을 단기간 평가한 데 그쳤다면, 추적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뼈 건강이나 심혈관질환, 암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당뇨병, 인지기능, 우울증, 감염률을 포함 다양한 평가항목을 포함시켰다는 것도 이 연구의 강점이다.<br/><br/>이미 1만6000명이 넘는 참여군이 베이스라인에 혈액검사를 통해 혈청 25-hydroxyvitamin D 수치를 평가했고 4000명이 추적검사를 마쳤다. 5000명이 넘는 흑인이 참여군에 포함돼 인종간 다양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br/><br/>2017년 상반기 발표될 VITAL 연구 결과가 기존의 메타분석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안경진 기자 kjahn@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5.txt

제목: 빛이 부족할 때와 과할 때 발생하는 질병은?  
날짜: 201402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348  
본문: [쿠키 건강]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5분만 호흡하지 못하게 되면 죽게 되는 공기와 5일만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되는 물이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급한 것으로 본다면 두 요소가 먼저일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본질은 햇빛으로부터 나온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의 도움말을 통해 ‘빛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 알아본다.<br/><br/>◇빛이 부족할 때 생기는 질병<br/><br/>▲일조량 부족으로 걸리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우울증은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은 일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조량에 따라 인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변하면서 생체리듬이 조절되는데 일조량이 줄어드는 밤 시간에 멜라토닌의 양이 늘어난다. 이는 수면 조절 호르몬으로서 기분을 가라앉게 하는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빛 부족 외에도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등의 불균형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br/><br/>▲빛을 보지 못하면 ‘다발성 경화증’=다발성 경화증의 원인은 겨울철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환경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신경 조직이 퇴화하는 것으로, 중추신경 조직의 염증성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쇠약감, 신체 말단부위나 한쪽 안면의 감각이상, 시력장애, 보행장애, 배뇨조절 곤란, 현기증, 감정적 불안정 등이 나타난다.<br/><br/>▲비타민D 부족하면 ‘전립선암’=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무한대로 분열하고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결국은 악성종양이 되는 질환이다. 슈왈츠박사는 1990년에 처음으로 전립선암과 비타민D의 관계를 밝혀냈다. 슈왈츠 박사에 의하면 비타민D가 적은 인구일수록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다. 또한,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암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비타민D가 전립선암 발병과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타민D는 80~90% 정도가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만들어진다.<br/><br/>◇빛이 과할 때 생기는 질병<br/><br/>▲야간의 인공조명이 유해한 ‘유방암’=유방암은 악성종양이 유방 밖으로 퍼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암으로 일반적으로 유관과 유소엽의 상피 세포에 생긴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으로 전이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br/><br/>선진국일수록 유방암 환자가 많은데 이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사회적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야간에 일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유방암에 더 많이 걸리는데, 이는 밤에 인공조명과 같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경내분비 전문의인 블래스크 박사는 실험을 통해 멜라토닌이 유방암과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했다.<br/><br/>▲밤에 켜두는 조명이 ‘근시’를 부른다=빛은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과도한 빛의 노출은 근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빛 노출이 눈의 각막과 홍막에 영향을 끼쳐 눈이 피로하고 시력이 떨어진다. 근시에 영향을 주는 빛은 어두운 빛, 번쩍거리는 빛, 적외선, 자외선, 너무 강하거나 약한 조명 등이다.<br/><br/>▲피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햇빛은 ‘피부암’의 원인=피부암이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총칭하는 말이다. 피부암의 원인은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하얀 피부, 소아의 주근깨, 피부암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자외선이 환경요소로 작용해 피부암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자외선 과다 노출은 피하고 방사선이나 지속된 열에 의한 노출도 피하는 것이 좋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야외활동을 피하면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br/><br/>\*도움말=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이대일 원장<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6.txt

제목: 척추종양연구회 15일, 한양대서 학술대회 개최  
날짜: 201402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5100000013  
본문: ‘척추종양 수술 후 척추복원’ 주제<br/><br/>[쿠키 건강] 대한척추종양연구회(회장 정천기·서울의대 신경외과학교실 교수)는 오는 15일 한양대학교 계단강의동 4층에서 ‘척추종양 수술 후 척추복원’ 을 주제로 제9차 학술대회를 연다.<br/><br/>지난 2010년 2월 창립된 대한척추종양연구회는 매년 2차례 학술대회를 열어, 척추종양의 연구·진단·치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 전문가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다.<br/><br/>그동안 열린 8차례 학술대회에는 ▲전이성 척추종양 ▲원발성 척추종양 ▲암에 연관된 뼈 질환 ▲척추 방사선 수술 ▲척추종양 수술에서의 척추 안정성 ▲척추 전이암의 사회?경제학적 관점 ▲척추 전이암 치료에서의 삶의 질 ▲신경성 종양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br/><br/>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Daniel K. Riew 교수와 국내 신경외과?정형외과 전문가들이 ‘후두부터 경추까지 척추종양 제거 및 복원술’ 에 대해 강의와 토론한다.<br/><br/>정천기 회장은 “<span class='quot0'>척추종양 분야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동 치료가 필수적인 만큼 평소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신경성 종양 전문가들의 훌륭한 강의와 활발한 증례 토론이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가 척추종양 연구와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7.txt

제목: 전 세계 암환자 크게 늘어… 2035년에는 2400만명이 암으로 고통받을 듯  
날짜: 2014020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4100000169  
본문: [쿠키 지구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이 크게 늘어 2035년에는 한 해에만 무려 24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암으로 고통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과 비교해 무려 70%가량 늘어난 수치다.<br/>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4일 ‘세계 암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세계 암 보고서 2014’에서 이같이 밝히고 술과 담배, 비만 등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br/>40개국 250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보고서에서 2008년 1270만명이던 암 환자는 2012년 1410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2025년에는 1930만명, 2030년 2190만명, 2035년에는 24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 820만명이었던 사망자수는 2030년에는 59% 증가한 130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br/>보고서는 인구증가와 노령화 과정에서 음주와 흡연, 비만, 가공식품 섭취, 공해, 모유 수유 감소 등이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발병률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br/>암 발병에 따른 치료 등 각종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1조1600억 달러(약 12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여 암 발병의 60%와 사망의 70%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이뤄졌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유방암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의 발병률이 높았다. 대부분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br/>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간암과 위암, 식도암이 주를 이뤘다. 이들 국가의 경우 열악한 의료장비 등으로 인해 암이 상당히 진행된 뒤 진단이 이뤄지고 치료 역시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전체적으로는 폐암(19.4%), 유방암(11.9%), 직장암(9.7%), 간암(9.1%), 위암(8.8%) 순으로 발생했다.<br/>크리스토퍼 와일드 IARC 소장은 “<span class='quot0'>암 발병과 사망자 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저소득국가의 경우 초기 유방암 진단을 위한 영상판독 교육 등이 절실하다</span>”고 말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8.txt

제목: 음악치료 젊은 암환자 항암치료 효과↑  
날짜: 20140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4100000031  
본문: [쿠키 건강] 음악 치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뮤직비디오 제작이 젊은 암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br/><br/>미국 인디애나간호대학 조안 하세(Joan Haase) 교수는 암저널(Cancer Journal)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span class='quot0'>뮤직비디오 제작에 직접 참여한 환자들은 암을 치료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효과도 향상됐다</span>”고 밝혔다.<br/><br/>연구팀은 11~24세 암환자를 대상으로 3주동안 치료 프로그램인 뮤직비디오를 직접 제작하게 하고 그 효과를 추적 관찰했다. 대상군은 줄기세포 이식 치료를 받은 암환자로, 전문 음악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작사 및 소리와 이미지 입히는 등의 작곡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완성된 뮤직비디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공유하도록 했다.<br/><br/>그 결과 뮤직비디오를 만든 그룹은 음악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보다 일상생활에서 더욱 활력있는 모습을 보였고 항암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높았다. 특히 환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가족, 친지들에게 보여준 뒤 의사, 친구,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음악 치료를 받은지 100일이 지난 후에도 환자들은 가족과의 소통부재가 줄어들었고, 친구관계도 더 친밀해졌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환자의 부모를 면담한 결과 뮤직비디오 제작이 자녀들의 암을 치료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사실도 발견했다.<br/><br/>조안 하세 교수는 “음악치료가 항암 치료를 받는 10대와 청년층 암환자의 항암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환자들은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을 극복하는 능력과 암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영국 암연구소도 음악치료가 암환자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19.txt

제목: [바이블시론-남성현] 비영리·공공성의 의료체계라야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310013362534  
본문: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의 눈썹 위쪽에 지름 1㎝ 정도 크기의 혹이 난 지가 여러 달째다. 두 주 전 딸아이를 데리고 몬트리올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았다. 의사는 5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로 이마의 혹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날 어떤 외과의원에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의료보험카드가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원이었다. 수술비용이 최저 65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작년에는 딸아이의 사랑니 2개를 빼느라고 800달러가량을 지불해야 했다. 사랑니 발치는 이곳 의료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br/>加 사회의료보험과 영리병원<br/>캐나다 몬트리올에는 주정부의 사회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공존하고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필자처럼 노동허가증(working permit)을 갖고 있는 경우조차 사회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이곳 사회의료보험의 문제는 ‘대기시간’이다. 딸아이의 경우 사회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할지 기약이 없다. 10여년 이상의 친분이 있는 한 지인이 이곳 의료체계의 치명적 결함을 내게 귀띔해 준 적이 있다. 지인의 직장 상사가 캐나다인이었는데 암 검사를 한 뒤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상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암에 걸렸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br/>작년 10월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핵심은 크게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주식회사) 설립,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 3가지다. 병의원의 접근성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도 드문데 원격진료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학교법인이 아닌 일반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적 사안이다. 쉽게 말해 병원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메디텔(의료관광호텔), 여행사, 음식점, 유사의료행위 등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안은 병원을 기업처럼 다루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br/>정부는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고 있고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런 정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종 사회·시민단체는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는 정부 정책이 캐나다 식의 의료정책, 즉 사회의료보험체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영리 병의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br/>무료병원은 기독교의 발명품<br/>보건의료의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발명’한 주체는 기독교다. 4∼6세기의 교회와 수도원은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았다”(마 25: 36)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 ‘무료 병원’을 발명했다. 372년 카이사레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바실리오스가 설립한 병원은 문서적 증거가 명확한 최초의 병원이다. 4∼6세기 동안 비잔틴 로마제국(동로마제국)의 교회와 수도원은 수백개의 무료 병원을 설립했다. 서유럽의 경우도 5∼6세기 프랑크제국 이후 15세기까지 교회와 수도원이 병원 설립과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15세기를 전후로 하여 시의회와 국가가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비영리성과 공공성의 원칙은 현재까지도 서유럽 의료정책의 골격으로 남아 있다.<br/>박애정신을 바탕으로 한 무료 병원은 기독교에 의한 기독교의 제도다. 경제성장 동력이니 산업 발전이니 하는 경제논리로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체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다. 의료보험체계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을 따르는 길이다.<br/>남성현 한영신학대 교수<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0.txt

제목: 서병후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 별세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310013362544  
본문: 유명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사진)씨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br/>고인은 1967년 최초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 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맡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br/>고인은 힙합 가수 타이거JK(본명 서정권·40)의 부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이다.<br/>박지훈 기자<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1.txt

제목: [겨자씨] 마음을 지켜라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310013362545  
본문: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고, 암의 주요 원인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br/>예전에 어떤 사람이 닭 3000마리를 잘 키워 2997마리를 팔고 자신이 먹기 위해 3마리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와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떤 닭을 잡아야 할지 몰라 닭에게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히면 살려주고, 못 맞히면 잡아먹기로 했습니다.<br/>첫째 닭에게 “2곱하기 5는 몇이냐”고 묻자 닭은 “10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둘째 닭에게 “2곱하기 7은 몇이냐”고 묻자 “14”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 닭에게 물었습니다. “<span class='quot0'>365곱하기 27 나누기 3은 몇이냐.</span>” 그 닭은 곰곰이 계산하다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끓여라, 이놈아.”<br/>세 번째 닭은 왜 본인에게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느냐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br/>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하며 웃어넘깁시다. “물 끓여라, 이놈아.”<br/>장경동 목사(대전 중문교회)<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2.txt

제목: 흉터도 디자인 시대… 절제 수술 단계부터 흔적 최소화 대비  
날짜: 201402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310013362535  
본문: 흉터도 디자인하는 시대가 됐다.<br/>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흉터 예방 및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 레이저치료를 기반으로 한 수술흉터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br/>이 흉터 예방 프로그램은 갑상선암 절제 수술을 받는 여성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피부과가 주축이 돼 외과, 이비인후과, 내분비대사내과 등 4개 진료과 교수진이 협진을 하는 형식이다.<br/>갑상선암 수술 후 목 부위에 생기는 일(一)자 흉터의 경우 목 주름살에 감춰지도록 노력해도 다 숨길 수 없어 6개월 정도 뒤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을 때(성숙반흔) 흉터 제거 치료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br/>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갑상선암 절제 수술 단계부터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게 수술 범위를 미리 디자인하고, 수술 후 생긴 흉터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가능한 한 빨리 시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br/>이 방법대로 하면 흉터 제거에 필요한 레이저 박피술 횟수도 최소 1회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갑상선암 절제수술 직후 곧바로 흉터 예방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나중에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시 평균 4회만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암 절제 수술 한 달 후부터 흉터 예방 치료에 돌입한 환자들은 레이저 치료 시술 횟수가 평균 5회를 기록했다. 더욱이 기존 관행처럼 수술 6개월 뒤 성숙반흔이 자리를 잡은 뒤에야 흉터 제거를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이 치료를 무려 10회 안팎이나 받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r/>일반적으로 수술 흉터 제거엔 혈관 및 피부재생 레이저가 사용되고, 필요 시 필러 주사요법도 시술되는데 월평균 1회 꼴로 진행된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3.txt

제목: 타이거 JK 부친 서병후씨 별세…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  
날짜: 2014020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201100000042  
본문: [쿠키 문화] 힙합 가수 타이거 JK(본명 서정권·40)의 부친이자 유명 팝 칼럼니스트 서병후씨가 1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br/>고인은 1967년 국내 최초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했다. 이후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한 국내 1호 팝 칼럼니스트다.<br/>1981년부터 3년 연속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맡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br/>타이거 JK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br/>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4.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상품 비교 후 가입해야  
날짜: 2014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30100000117  
본문: [쿠키 생활] 최근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암 발생률이 매년증가하고 있다. 암 발생률로 인해 암에대한 두려움만큼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치료비다.<br/>의료 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여주지만, 최신 장비 사용으로 인해 진단및 수술로 인한 비용 또한높아져, 고액 암 치료는 의료비 지출 항목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br/>최근에는 이러한 암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워낙 암 보험 종류가 다양하고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br/>K씨(40세)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암에 대비하고자 암 보험에 대해 알아보다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뒤늦게 갱신형인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때문에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br/>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한다면 손해 없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비교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보험 상품 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 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 같은 동일 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 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 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br/>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5.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상품 비교 후 가입해야  
날짜: 20140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30100000115  
본문: [쿠키 생활] 최근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암 발생률이 매년증가하고 있다. 암 발생률로 인해 암에대한 두려움만큼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치료비다.<br/>의료 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의 생존률을 높여주지만, 최신 장비 사용으로 인해 진단및 수술로 인한 비용 또한높아져, 고액 암 치료는 의료비 지출 항목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br/>최근에는 이러한 암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워낙 암 보험 종류가 다양하고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br/>K씨(40세)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암에 대비하고자 암 보험에 대해 알아보다가 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뒤늦게 갱신형인 것을 알게 됐다. 처음엔 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갈수록 올라가는 보험료 때문에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br/>소비자들이 암 보험 가입요령만 잘 확인한다면 손해 없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비교가입하기 전 알아야 할 암 보험 가입요령 알아보자.<br/>보험료 저렴을 원한다면, 갱신형 보다 비갱신형 암 보험을 선택하라.<br/>갱신형은 처음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40~50대 이후 갱신 시 보험료가 많게는 4배 가량 증가한다. 기간 또한 비갱신형 보다 길어 총 납입할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비갱신형 보다 높게 산출된다.<br/>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span class='quot0'>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만큼 현대인들에게 암 발생은 갑자기 찾아오기에 예상하기 어려워 미리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향후 보험료 변동에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갱신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암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암 보험 중복보장 여부 확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br/>암 진단비와 보장기간 반드시 확인하라.<br/>암보험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의 보험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최근 암보험 상품 중 일부는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진단비와 보장기간은 나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은특히, 젊을수록 가입해 놓은 것이 유리하다.<br/>고액 암과 일반 암의 보장금액 확인하라.<br/>암 진단비는 암 종류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고액암과 일반암, 소액암, 남녀생식기암등은 진단금도 다를 뿐 더러 지급이 어려운 것도 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진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의 남녀생식기암은 보험금이 낮거나 보장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니, 암 보험 상품 비교시 일반암 기준으로 진단금액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br/>가입율이 높은 상품이라 해도 성별, 가족력, 연령 등에 따라 보험설계가 달라지고, 상품에 따라 순수 보장형이나 만기 환급형이냐, 일부 적립형에 따라 보장 범위 및 금액이 달라지기에 특정 보험사 보다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손해 보지 않고 올바른 보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br/>또 같은 동일 상품이라도 가입 지점마다 의무적으로 넣는 상해 및 사망보장이 다르므로 암 보장만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으로 암 보험 가입순위 및 가격비교를 해야 한다.<br/>도움을 주는 암 보험비교추천사이트(cancer-bohum114.com)는 단순 상품비교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보험료 계산 및 조절이 가능하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AIA생명 등 국내 보험사별 보험을 최적의 비교 가입할 수 있다.<br/>기존 유지하고 있는 보험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별 비교설계를 통해 암 보험 추천을 받고, 보험정보를 알려주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6.txt

제목: “이, 이럴수가…” 세계 과학계 발칵 뒤집은 일본 30세 女과학자  
날짜: 2014013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30100000111  
본문: [쿠키 과학] 서른살의 무명 일본 여성 과학자가 개발한 ‘제3의 만능세포’를 놓고 전 세계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다. 과학계는 잘 만하면 수백 년의 생물세포학 역사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도 있다며 가히 충격적인 연구성과로 평가하고 있다.<br/>주인공은 일본 고베(神戶) 소재의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 종합연구센터 오보카타 하루코(小保方晴子·30·사진) 연구주임.<br/>영국 과학지 네이처는 30일 오보카타 연구주임 등이 개발한 만능세포 ‘STAP(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자극야기성 다성능획득) 세포’ 논문을 실었다.<br/>연구진이 쥐 실험을 통해 입증한 STAP 세포는 세포를 약산성 용액에 잠깐 담그는 자극만으로 어떤 세포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생명과학 상식을 뒤집는 혁신적인 성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STAP 세포는 그동안 획기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았던 유도만능줄기세포(iPS)에 비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데다 유전자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암 발생 우려도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노벨상을 수상한 야마나카 신야(山中伸彌) 교토(京都)대 교수가 2006년 개발한 iPS는 유전자를 세포 안에 주입해 만들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지금까지 개발된 또 다른 만능세포인 배아 줄기세포(ES세포)는 수정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지적돼 왔다.<br/>STAP 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쥐의 비장에서 채취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를 홍차 정도의 약산성 용액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배양하면 수일 후에 만능세포가 만들어진다. 연구팀은 이 세포를 쥐의 피하조직에 이식해 실험한 결과 신경, 근육, 장(腸) 세포 등 어떤 조직으로도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임을 확인했다.<br/>만능세포를 만드는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상식을 뒤엎은 것이다. 외부 자극으로 세포의 역할이 재설정되는 초기화가 식물이 아닌, 동물 세포에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증명됐다.<br/>다만 이번 발견이 사람의 세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의 확인 연구가 남아있다.<br/>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실리자 “혁명적, 충격적인 연구 성과”라는 절찬이 이어졌다.<br/>STAP세포 개발의 주역인 오보카타 씨는 와세다(早稻田)대 이공학부 응용화학과를 졸업한 후 2011년 박사학위를 취득한 무명의 젊은 여성 과학자로, 작년 봄 네이처에 논문을 투고했다가 한차례 퇴짜를 맞았다. 과거 수백 년의 생물세포학 역사를 우롱하는 논문이라는 이유에서다.<br/>하지만 오보카타 씨는 “STAP세포는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라는 신념하에 방대한 데이터를 보완해 다시 도전, 이번에 네이처 권두논문으로 실렸다는 후문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7.txt

제목: [오늘의 설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날짜: 20140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9100000003  
본문: 미가 6장 6∼8절<br/>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도 아니고 권세와 명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신데 세상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br/>첫째,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span class='quot0'>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찌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찌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span>”(암5:21∼24) 여러분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까.<br/>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때마다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역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던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무척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두 가지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br/>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모든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심스럽게, 겸손히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단순한 윤리적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할 우리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br/>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의와 사랑은 결코 부딪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명을 받았습니다.<br/>우리가 서야 할 곳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공의를 행할 뿐 아니라 공의가 깨어지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심장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br/>민필원 천안반석장로교회 목사<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8.txt

제목: 부모님 늙어감이 안타까워 때때옷 입어요… ‘孝의 아이콘’ 안동 농암종택  
날짜: 20140129  
기자: 박강섭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9100000019  
본문: “기묘년 가을에 관아에서 양로연을 베풀어 부내 여든 살 이상 노인들을 찾아 사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을 불문하고 나이만 되면 다 오게 하니 수백 명에 이르렀다. 내·외청에 자리를 마련하고 어버이를 중심으로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니, 보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나도 자랑스럽다.’(1519년 가을, ‘농암선생문집’ 중에서)<br/>적선애일(積善愛日). 밖에서는 선행을 쌓고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뜻으로 경북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농암종택의 가훈이다.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는 마을이란 뜻의 가송리에 둥지를 튼 농암종택은 농암(聾巖) 이현보(李賢輔·1467∼1555)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오는 곳. 지금은 농암의 17대 종손인 이성원(62)씨가 종부와 함께 종택을 지키고 있다. 농암종택은 원래 도산서원 인근 분천에 있었지만 안동댐 건설로 수몰되는 바람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br/>경상도관찰사와 호조참판 등을 지낸 조선 중기 문신 농암은 ‘어부가’로 유명하다. 농암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은 그가 조선시대 효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이다. 농암은 안동부사를 지내던 시절, 부모를 비롯해 지역 노인 수백 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벌였다. 반상과 남녀의 구별이 엄격하던 시대에 남녀귀천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 노인을 한자리에 초청했으니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다. 농암의 경로·효행 사상은 “자제와 노비들을 편애하지 않았고, 혼사도 문벌 집안을 찾지 않았으며, 사람을 대접함에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았다”고 평가한 퇴계 이황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br/>출세가도를 달리던 농암은 안동에 계신 부모를 더 잘 모시기 위해 지방근무를 자청했다. 벼슬 생활 중 30여년을 안동을 비롯한 인근 8개 고을에서 보낸 이유이다. 농암을 통해 유명세를 탄 효의 가풍은 당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수집안의 신화로 이어졌다. 농암 89세, 아버지 98세, 어머니 85세, 조부 84세, 조모 77세 등으로, 15∼16세기 한 가문의 평균 수명이 200여년에 걸쳐 80세를 넘었다. 당시 평균 수명이 50세 안팎이었으니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일이었다.<br/>1519년에 경로잔치를 열었던 그날의 모습은 보물 제1202호 애일당구경첩(愛日堂具慶帖)에 자세하게 묘사돼 있다. 이 그림에서 농암은 부모와 노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때때옷을 입고 있다. 농암은 어버이 살아 계신 나날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지은 애일당(愛日堂)에서 명절 때마다 아버지를 포함한 이웃 노인을 모시고 어린아이처럼 때때옷을 입고 춤을 추었다. 농암은 70세가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했다. 농암을 ‘때때옷의 선비’로 부르는 까닭이다. 이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은 1902년까지 400년 가까이 이어졌다.<br/>오늘날은 어떤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세 들어 사는 할머니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겨울옷을 아홉 겹이나 입고 죽은 지 5년 만에 백골로 발견되는 등 무관심의 세상을 살고 있다. 지금도 신문지상에는 가족이나 이웃의 보살핌 없이 홀로 살다 홀로 죽어가는 독거노인들에 관한 기사가 넘쳐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황혼이혼과 조기사별 등으로 2013년 기준 전국의 독거노인이 125만명을 웃돌고 있다. 약 500년 전 ‘때때옷의 선비’는 상상도 못할 서글픈 세태다.<br/>설날을 앞두고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농암처럼 때때옷 입고 춤을 추지는 못할지라도 올 설에는 어버이가 기거하는 방은 따뜻한지,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다. 귀가 어두워 몇 번씩 묻고, 했던 말 또 해도 귀찮아하지 말자. 나 어릴 적 말 배운다고 어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던 날을 기억하자. 이웃에 독거노인이 살고 있으면 찾아뵙고 세배라도 드리자. ‘착한 사회’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농암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소외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사회, 이런 세상이 ‘착한 사회’가 아닐까.<br/>◇농암종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명품고택<br/>문화체육관광부가 명품고택으로 선정한 농암종택은 사랑채와 안채, 긍구당, 사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 한속정사, 서재, 동재, 강당 등으로 구성된 분강서원, 그리고 애일당(愛日堂) 등이 더해져 하나의 마을을 이룬다.<br/>팔작지붕이 멋스러운 긍구당은 농암이 태어나고 임종한 곳으로 농암종택을 대표한다. 애일당은 농암이 때때옷 입고 춤을 추던 효의 현장으로 낙동강 상류 벽력암 아래에 있다.<br/>이 종택이 주변과 어우러져 빚어낸 풍경은 퇴계 이황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극찬한 퇴계오솔길 최고의 절경이다. ‘도산구곡’ 중 제8경인 가송협곡의 품에 안긴 농암종택 앞으로는 낙동강이 유유히 흐른다. 주변에 고산정, 월명담, 학소대 등 명소가 이어진다.<br/>안동=글·사진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kspark@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29.txt

제목: ‘철부지’ 비난보단 사랑과 희망을…설 앞둔 미혼모시설 르포  
날짜: 20140129  
기자: 백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9100000232  
본문: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가족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아기 엄마들이 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쓴 고통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켰지만 축하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곤 한다. 법적 남편이 없는 미혼모들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 ‘불장난을 한 철부지’ 정도로 낙인찍혀 불완전한 반쪽 인생을 살아야 하는 미혼모의 설 명절을 미리 찾아가봤다.<br/><br/>불안감<br/><br/>서울 공릉동 2층 단독주택. 이곳은 5명의 미혼모들이 자신의 성과 같은 아기들과 함께 지내는 ‘꿈나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다. 인터뷰 전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얼마 전 태어난 막내 이야기부터 꺼냈다.<br/><br/>“저도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머, 그래요? 지금 한참 힘들 때인데, 와이프가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다.” 김영신(가명·27)씨 품에서 10개월 된 토실토실한 수진(가명)이를 받아 안았다. 생글생글 웃었다.<br/><br/>수진이의 아빠는 군인이다. 김씨와 동갑내기인 생물학적 남편은 임신사실을 알리자 “근거를 대라”며 몰아붙였다. 김씨는 법정의 도움으로 DNA 검사 끝에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입양동의서 정도는 써줄 수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보라”며 엄포를 놨다.<br/><br/>“오는 2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요. 수진이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까 싶어요. 친정 엄마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빠는 절대반대에요. 설에도 집엔 못가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일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두 식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벌이와 육아의 깊은 고뇌가 묻어났다.<br/><br/>옆에 있던 이진영(36·여)씨도 입을 열었다. 이씨의 아들 호성(1)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인공 항문을 다는 큰 수술을 받았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이씨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자선재단을 통해 도움 받았다.<br/><br/>“<span class='quot0'>애 아빠는 경제력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span>” 이씨의 목과 팔목에 나 있는 베인 듯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호성이를 낳기 전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죠. 아이를 낳은 후부턴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젠 칼로 그런 짓 안 해요.” 호성이의 배에 설치된 인공항문 주머니를 살펴보던 이씨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커가면서 활동량이 많아져 변이 자주 흐른다고 했다.<br/><br/>안정<br/><br/>‘산부인과-산후조리원-친정집·시집’이라는 정통 코스를 밟는 일반 산모와 달리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곧바로 이곳으로 들어왔다. 같은 처지에 놓인 미혼모는 아기와 함께 방 1개씩을 사용한다.<br/><br/>28일 점심식사때는 설을 앞두고 떡국을 끓였다. “<span class='quot0'>국물 간은 이렇게 하면 좋아.</span>” “<span class='quot0'>쌀떡이 너무 불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해야 해.</span>” 자원봉사자들이 미혼모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쳐주며 대화를 나누는 ‘쿠킹 데이’를 진행했다.<br/><br/>1층 85㎡의 공간이 떡국 냄새로 가득 찼다. 2층에 있던 수빈이 엄마도 내려왔다. 엄마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수빈이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같은 층에는 19살 엄마도 있다. 회사에서 띠 동갑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눴지만 임신사실을 알고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아빠는 “바뀐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며 직장동료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한다.<br/><br/>“자, 우리 식사 기도부터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공주님과 왕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이연숙(53·여)씨의 집은 경기도 김포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 2시간 거리의 이곳을 매주 화요일마다 찾는다. 이씨가 구연동화를 하자 수진이와 호성이가 생긋 웃었다.<br/><br/>공동생활가정에선 미혼모의 교육, 상담, 직업재활부터 아기 백일과 돌잔치까지 대신 열어준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임신소식에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이 ‘아이를 지우거나 입양 보내라’는 것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수술로 아이를 지우는 게 무서워서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br/><br/>희망<br/><br/>사랑이 없으면 남의 실수 앞에 정죄하기 쉽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다. 미혼모를 정죄하는 것은 암에 걸린 환우에게 “어떻게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냐”며 조롱하는 것과 같다.<br/><br/>공동생활가정은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임차료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이다. 창문 전체를 김장용 비닐로 막고 1회용 기저귀가 아닌 천기저귀를 쓰는 것도 재정문제 때문이다.<br/><br/>박미자(53) 원장은 “<span class='quot2'>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 받은 배신감, 부모로부터의 외면, 육아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이들이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자원봉사자 민해기(57·여)씨도 “미혼모들이 진심으로 아기를 안지 못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에 대한 분노와 가족사에 얽힌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무기력한 마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 절실하다”고 이여기했다.<br/><br/>호성이의 대변주머니를 갈고 온 이씨가 손가락을 오무리며 말했다. “이제는 요만큼, 아주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여요.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리 두 식구는 아마도 길거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br/><br/>생명이라는 절대가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미혼모를 향한 숱한 편견과 조롱, 값싼 동정도 생명의 소중함 앞에 사그라져야 한다. 마치 1000, 1만, 1억 곱하기 0이 0이 되듯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br/><br/>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0.txt

제목: ‘철부지’ 비난보단 사랑과 희망을…설 앞둔 미혼모시설 르포  
날짜: 20140129  
기자: 백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9100000249  
본문: 설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가족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아기 엄마들이 있다. 이들은 죽음을 무릅쓴 고통 끝에 새 생명을 탄생시켰지만 축하는커녕 손가락질을 받곤 한다. 법적 남편이 없는 미혼모들이다. 가부장제 사회 속 ‘불장난을 한 철부지’ 정도로 낙인찍혀 불완전한 반쪽 인생을 살아야 하는 미혼모의 설 명절을 미리 찾아가봤다.<br/><br/>불안감<br/><br/>서울 공릉동 2층 단독주택. 이곳은 5명의 미혼모들이 자신의 성과 같은 아기들과 함께 지내는 ‘꿈나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다. 인터뷰 전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다. 얼마 전 태어난 막내 이야기부터 꺼냈다.<br/><br/>“저도 최근에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머, 그래요? 지금 한참 힘들 때인데, 와이프가 앞으로 고생 많으시겠다.” 김영신(가명·27)씨 품에서 10개월 된 토실토실한 수진(가명)이를 받아 안았다. 생글생글 웃었다.<br/><br/>수진이의 아빠는 군인이다. 김씨와 동갑내기인 생물학적 남편은 임신사실을 알리자 “근거를 대라”며 몰아붙였다. 김씨는 법정의 도움으로 DNA 검사 끝에 친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입양동의서 정도는 써줄 수 있다.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으면 법대로 해보라”며 엄포를 놨다.<br/><br/>“오는 2월부터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해요. 수진이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길까 싶어요. 친정 엄마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빠는 절대반대에요. 설에도 집엔 못가요. 당분간 친구 집에서 일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두 식구가 살려면 돈을 벌어야죠.” 돈벌이와 육아의 깊은 고뇌가 묻어났다.<br/><br/>옆에 있던 이진영(36·여)씨도 입을 열었다. 이씨의 아들 호성(1)이는 서울대병원에서 인공 항문을 다는 큰 수술을 받았다. 생활보호 대상자인 이씨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자선재단을 통해 도움 받았다.<br/><br/>“<span class='quot0'>애 아빠는 경제력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span>” 이씨의 목과 팔목에 나 있는 베인 듯한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호성이를 낳기 전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죠. 아이를 낳은 후부턴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젠 칼로 그런 짓 안 해요.” 호성이의 배에 설치된 인공항문 주머니를 살펴보던 이씨는 아기를 안고 방으로 달려갔다. 아이가 커가면서 활동량이 많아져 변이 자주 흐른다고 했다.<br/><br/>안정<br/><br/>‘산부인과-산후조리원-친정집·시집’이라는 정통 코스를 밟는 일반 산모와 달리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곧바로 이곳으로 들어왔다. 같은 처지에 놓인 미혼모는 아기와 함께 방 1개씩을 사용한다.<br/><br/>28일 점심식사때는 설을 앞두고 떡국을 끓였다. “<span class='quot0'>국물 간은 이렇게 하면 좋아.</span>” “<span class='quot0'>쌀떡이 너무 불지 않도록 불 조절을 잘해야 해.</span>” 자원봉사자들이 미혼모들에게 조리법을 가르쳐주며 대화를 나누는 ‘쿠킹 데이’를 진행했다.<br/><br/>1층 85㎡의 공간이 떡국 냄새로 가득 찼다. 2층에 있던 수빈이 엄마도 내려왔다. 엄마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수빈이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다. 같은 층에는 19살 엄마도 있다. 회사에서 띠 동갑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눴지만 임신사실을 알고는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고 했다. 아빠는 “바뀐 전화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며 직장동료에게 신신당부했다고 한다.<br/><br/>“자, 우리 식사 기도부터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공주님과 왕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이연숙(53·여)씨의 집은 경기도 김포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 2시간 거리의 이곳을 매주 화요일마다 찾는다. 이씨가 구연동화를 하자 수진이와 호성이가 생긋 웃었다.<br/><br/>공동생활가정에선 미혼모의 교육, 상담, 직업재활부터 아기 백일과 돌잔치까지 대신 열어준다.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임신소식에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이 ‘아이를 지우거나 입양 보내라’는 것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수술로 아이를 지우는 게 무서워서 낳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span>”고 말했다.<br/><br/>희망<br/><br/>사랑이 없으면 남의 실수 앞에 정죄하기 쉽다.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군중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다. 미혼모를 정죄하는 것은 암에 걸린 환우에게 “어떻게 그런 몹쓸 병에 걸린 거냐”며 조롱하는 것과 같다.<br/><br/>공동생활가정은 비난하기보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희망을 갖게 하는 곳이다. 살림살이가 넉넉한 것은 아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임차료만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이다. 창문 전체를 김장용 비닐로 막고 1회용 기저귀가 아닌 천기저귀를 쓰는 것도 재정문제 때문이다.<br/><br/>박미자(53) 원장은 “<span class='quot2'>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 받은 배신감, 부모로부터의 외면, 육아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복합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이들이 떳떳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br/><br/>자원봉사자 민해기(57·여)씨도 “미혼모들이 진심으로 아기를 안지 못하는 것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에 대한 분노와 가족사에 얽힌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무기력한 마음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담인력이 절실하다”고 이여기했다.<br/><br/>호성이의 대변주머니를 갈고 온 이씨가 손가락을 오무리며 말했다. “이제는 요만큼, 아주 조금씩 희망의 빛이 보여요.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리 두 식구는 아마도 길거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꼭 취득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br/><br/>생명이라는 절대가치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킨다. 미혼모를 향한 숱한 편견과 조롱, 값싼 동정도 생명의 소중함 앞에 사그라져야 한다. 마치 1000, 1만, 1억 곱하기 0이 0이 되듯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br/><br/>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1.txt

제목: 숙면, 전립선암 발생위험률 낮춘다  
날짜: 201401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8100000257  
본문: [쿠키 건강] 숙면을 취하면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미국 하버드의대 Sarah C. Markt 교수팀은 최근 미국암연구학회(AACR)전립선암재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잠을 충분히 자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는 전립선암 발생위험률을 낮춘다"고 밝혔다. 특히 멜라토닌은 밤에 더 많이 생기는데 멜라토닌 수치가 높을수록 밤에 숙면을 취했다는 의미다.<br/><br/>연구팀은 아이슬란드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규모 연구모집에 등록한 아이슬란드 남성 928명을 대상으로 멜라토닌 수치를 측정, 7년동안 비교분석했다. 대상군 가운데 111명은 전립선암 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였고 이 중 24명은 진행된 암을 가지고 있었다.<br/><br/>추적결과 멜라토닌 수치가 정상인 사람은 수치가 정상 이하인 사람보다 전립선암의 발병 확률이 7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행 전 측정한 환자들의 6-sulfatoxymelatonin 요비율이 17.14ng/㎖이었다. 환자들은 수면약을 복용한 경험, 숙면을 취하는게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 멜라토닌 수치가 평균보다 낮았다.<br/><br/>책임 연구자 Sarah C. Markt 교수는 "수면 장애를 비롯해 다양한 요소들이 멜라토닌 분비량에 영향을 주거나 분비 자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24시간 주기를 가지고 있는 서케디안 리듬(the circadian rhythm)과 전립선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 생성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br/><br/>연구에 참여한 Chan 박사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남성은 전립선 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멜라토닌 보중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br/><br/>한편 Markt 교수는 "수면 방해 및 낮은 멜라토닌 수치가 암 발병률과 밀접한 연관이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2.txt

제목: 분당차병원 조경기 교수, ‘악성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날짜: 2014012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8100000262  
본문: [쿠키 건강]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 연구팀은 재발된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면역세포치료제인 자가살해세포 투여 후 치료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관찰하기 위한 연구자주도 1/2상 임상시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승인 받았다고 28일 밝혔다.<br/>교모세포종은 뇌의 교세포에서 발생한 종양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주위조직으로 침습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특성을 보이고, 깊은 부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국소적인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발이 잘 되며 재발될 경우 기대수명이 수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전무한 상태다.<br/>이 연구의 핵심인 면역세포치료제는 본인의 말초혈액에서 암을 억제하거나 사멸할 수 있는 림프구만을 분리한 후 더욱 강력한 림프구세포인 자연살해세포(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T세포(Natural Killer T Cell), T세포를 선별한다. 여기에 특이적 항원과 질병, 감염에 맞서 싸우도록 자극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인 인터루킨 2(IL-2)를 첨가해 배양, 증식한 후 이를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이다.<br/>2주에 한번씩 면역세포치료제를 주입하며, 6주를 주기로 항암요법을 병행하는데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역세포치료제를 주입하지 않는다. 피험자가 최대로 투여 받을 수 있는 면역세포치료제의 주입 횟수는 24회다.<br/>대상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MRI 검사에서 재발성 교모세포종으로 확진됐으며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분당차병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3.txt

제목: 방사선종양학회 부울경지회장에 양광모 센터장  
날짜: 201401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7100000264  
본문: [쿠키 건강]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양광모 연구센터장(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사진)이 최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부울경지회 회장으로 선임됐다.<br/><br/>양광모 센터장은 최근 열린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부울경지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부울경지회를 이끌 예정이다.<br/><br/>양 센터장은 서울백병원,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로 역임했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교환 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과장을 역임했다.<br/><br/>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연구센터장과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을 맡아,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 및 의료용 가속기 연구개발 등 방사선의학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4.txt

제목: 최동훈 감독 신작 ‘암살’서 하정우-전지현 재회…네티즌, “기다렸다”  
날짜: 2014012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7100000409  
본문: [쿠키 연예] 하정우(36)와 전지현(33) 재회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br/>27일 하정우와 전지현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span class='quot0'>‘암살’ 출연 제의를 받은 게 사실</span>”이라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지현은 현재 출연 중인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을 마친 후에 영화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br/>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하정우와 전지현 캐스팅 대박이다</span>” “<span class='quot1'>둘이 다시 작품을 함께 하다니 너무 기대된다</span>”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영화 ‘베를린’(2012)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하정우와 전지현의 연기 합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득 찬 분위기다.<br/>‘암살’은 ‘도둑들’(2012) 최동훈(43) 감독의 차기작으로 1930년대를 배경으로 그려진 암살 프로젝트를 다룬 영화다. 범죄극 장르로 약 12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되는 대작이다. ‘도둑들’에서 호흡을 맞춘 최동훈 감독과 배우 전지현의 만남으로도 더욱 기대를 모은다.<br/>암살은 올 상반기 캐스팅 완료 후, 하반기 크랭크인 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5.txt

제목: 美 의학계 "암·심혈관질환자, 운동하면 사망위험 최고 48% 낮아진다"  
날짜: 20140125  
기자: 쿠키뉴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108  
본문: [쿠키 생활] 미국 메디컬 뉴스 투데이는 암 생존자가 열심히 운동하면 사망 위험을 최고 50%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조사 결과를 24일 보도했다.<br/>이 매체는 미국 하버드대학과 로욜라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하버드 졸업생 건강조사’(HAHS)에 참여한 남성 암 생존자 1021명의 장기간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br/>이 연구에 따르면 걷기, 계단 오르기, 스포츠 활동, 오락활동 등에 의한 일주일간 열량연소가 1만2000 칼로리 이상인 암환자의 경우 2100 칼로리 미만인 사람에 비해 암과 심혈관질환을 포함,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위험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br/>보통 체중이 80kg인 사람이 일주일에 5일간 빠른 걸음 걷기운동을 하루 약 30분씩 하면 약 4200칼로리가 소모된다.<br/>조사 기간에 사망한 사람은 모두 777명이었다. 이 중 335명은 암, 190명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암과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은 신체활동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r/>참가자들은 암 진단을 받은 지 약 6년이 경과한 1988년(당시 평균연령 71세)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각종 운동을 포함한 모든 신체활동량에 관한 설문조사를 받았다. 참가자들의 연령, 제질량지수(BMI), 흡연, 식습관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위험요인들을 감안한 결과이기도 하다.<br/>연구결과는 ‘신체활동과 건강 저널’ 신년호에 발표됐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6.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의결  
날짜: 20140125  
기자: 이영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095  
본문: 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대 332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르면 2월 중에 제기된다. 공공기관의 첫 담배 소송이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내 최대 규모 법정다툼이 될 전망이다.<br/>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4일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근거는 폐암 등 흡연이 유발한 질병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해 왔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피해액인 만큼 제조사인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사 15명 중 노동조합·소비자단체 등 13명이 찬성한 반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br/>김종대 이사장은 “<span class='quot0'>그간 공단의 연구를 통해 흡연으로 인해 암 심장 뇌혈관 관련 35개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 지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 유발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면 소송이 불가피하다</span>”고 밝혔다.<br/>구체적인 소송대상과 시기, 규모는 이사장에게 위임됐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늦어도 2월 중에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빅데이터 산출 자료를 토대로 130억~3326억원까지 6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 암등록 자료상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2만6000여명 중 기간별로 흡연 경험이 있는 이들을 추려낸 뒤 진료비 액수를 계산한 것이다.<br/>소송의 성패는 담배와 폐암의 인과와 함께 담배의 결함,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어디까지 입증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담배회사 퇴직자들의 내부고발도 이어지고 있다</span>”며 자신감을 표했다. 국내 담배관련 소송은 1999년 이래 총 3건이 제기돼 모두 패소했다. 이중 1건은 대법원에, 나머지 2건은 현재 2심 계류 중이다.<br/>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7.txt

제목: 제2회 고졸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시상식 훈훈한 화제  
날짜: 20140125  
기자: 정승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064  
본문: 세 명의 담임이 일군 ‘성찬이의 기적’<br/>“<span class='quot0'>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 봤나요</span>”… 당당한 ‘민아의 도전’<br/>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찬(가명·20)이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친구와 싸우다 교실 창문을 부수기도 했고 담임선생님에게 매일 같이 자퇴시켜 달라고 졸랐다. 2학년이 돼서도 지각과 무단결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킨 성찬이는 3학년이 되자 아르바이트 주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성실한 학생이 됐다. 결국 대기업 외식업체에 당당히 합격해 꿈꾸던 요리사가 됐다.<br/>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24일 열린 ‘제2회 고졸 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성인부 금상을 받은 한국외식과학고 박초롱 교사의 수기에는 제자 성찬이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박 교사는 “<span class='quot1'>요리 실력도, 스펙도, 가정형편도 별로라고 자책하는 성찬이를 보면서 일에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br/>박 교사는 “<span class='quot1'>성찬이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교사와 학교가 똘똘 뭉치면 학생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span>”고 했다. ‘세 명의 담임교사가 이뤄낸 특별한 기적’이란 수기 제목처럼 자퇴시켜 달라는 성찬이를 설득한 1학년 담임교사와 무단결석하는 성찬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독인 2학년 담임교사가 없었다면 3학년 때의 성찬이는 없었을 거란 얘기다.<br/>재학생 부문 금상을 받은 순천전자고 조민아(19)양은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봤나요?’라는 도전적인 제목의 수기를 통해 취업 성공담을 공개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가난을 짊어져야 했던 조양은 “꼭 성공해서 어머니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겠다”는 다짐 속에 특성화고에 진학했다.<br/>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고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했다. 봉사활동, 교지 편집활동 등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조양은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 남보다 두세 배 더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삼성 고졸 공채에서 삼성SDS에 합격한 그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앞으로 많은 성공을 거둘 인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했다.<br/>졸업생 부문 금상을 받은 정송이(20·여)씨 역시 특성화고 진학 후 KDB산업은행에 입사했다. 중학 시절 암으로 엄마를 잃은 정씨는 “<span class='quot2'>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섭렵해 여성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는 수상작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특성화고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b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8.txt

제목: ‘미세먼지’가 수면장애 악화시킨다  
날짜: 2014012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110  
본문: 가급적 야외외출을 삼가고 실내 습도 50~60% 유지해야<br/>[쿠키 건강]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이 걸렸다. 이는 중국발 스모그가 대량 유입됐기 때문이다.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나눠지는데,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크기보다 작은 크기이고, 지름이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br/>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 배출되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다.<br/>특히 초미세 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의 20~30분의 1보다 작아 코털 등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를 통과해 폐나 혈관 속에 축적되기 때문에 폐질환과 천식, 아토피 환자 등에게 치명적이다.<br/>미세먼지는 또한 혈액을 따라 몸 전체에 쌓이면서 유해한 활성산소 및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 세포와 조직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뇨와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br/>따라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의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br/>는 공기 중에 섞인 먼지를 걸러주고, 건조하고 찬 공기를 적절한 습도와 온도로 바꾸어 폐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감기나 수면장애로 인해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를 폐로 직접 들이마시게 돼 상하부 기도를 자극하고, 염증이 생겨 폐렴, 기관지염은 물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br/>한진규 서울수면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각종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병하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부종이 생기면서 비강이 좁아지기 때문에 숨쉬기가 더욱 어려워져 기존의 수면장애를 악화시킨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병원에 내원해 2차 감염 (폐렴 등) 등과의 병발이 없는지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br/>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습이 가장 중요하다. 해결책으로 한진규 원장은 “<span class='quot1'>실내가 건조하면 떠돌아다니는 먼지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습도를 50~60%로 유지하고,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면 호흡기의 점액이 늘어 몸 안에 쌓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는 것이 최선</span>”이라고 제시했다.<br/>이와 함께 한 원장은 미세 먼지가 심할 때는 창문 열고 환기하는 것도 피하고 외출은 삼가야 한면서,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반드시 양치해서 구강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39.txt

제목: [‘죽음에 대한 담론’ 지상 좌담] “우리 사회도 ‘준비된 죽음교육’ 해야”  
날짜: 20140125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100  
본문: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와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공동으로 웰리빙 스쿨 ‘세이레의 기적(奇籍)’ 세미나(2월 10∼11일, 서초 사랑의교회)를 개최한다. ‘임종영성, 그 시작과 끝’이란 주제로 7명의 강사가 죽음의 담론, 임종의 영성, 임종 환자를 위한 의료·심리이해·법률상식·유가족 돌봄 등에 대해 강연한다. 이에 앞서 23일, 서울 송파구 하이패밀리에서 주강사로 참여하는 송길원(하이패밀리 대표) 목사, 정진홍(서울대 종교학과 전 교수) 박사, 전세일(차의과학대 통합의학대학원장) 박사가 ‘죽음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지상 좌담을 가졌다.<br/>참석자: 정진홍 박사 전세일 박사 송길원 목사<br/>-최근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동안 기피하던 주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사회적 현상이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br/>△정진홍 박사(이하 정)=의학의 발전, 생활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길어진 수명이 양질의 삶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명(延命)’으로 묘사되는 ‘유예된 죽음’이 말년의 삶을 ‘길어진 고통’이게 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보다 더 혹독한 ‘죽음과정’을 이제는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br/>△전세일 박사(이하 전)=21세기를 학자들이 4D의 시대 즉, Digital(정보화), DNA(생명과학), Design(디자인), Divinity(영성)의 시대라고 특징 지웠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통합의학의 교육 콘텐츠 안에는 임종영성학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br/>△송길원 목사(이하 송)=소득 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던 삶에 변화가 왔다. ‘성공이 아닌 성찰’을, ‘추월이 아닌 초월’을 지향하게 됐다. 이는 영성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 임종의 영성이 강조되며 결국 영성시대의 특징을 드러낸 아이콘이 ‘죽음’이다.<br/>-‘죽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나.<br/>△전=우선 일반적인 죽음, 상식적인 죽음을 일단 기본적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다. 첫 숨을 들이쉬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이외의 모든 현상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과 관계된 현상’들이라 봐야 한다.<br/>△정=일반적으로 말하면 몸의 종언이 초래하는 생명의 소멸이다. 그래서 죽음은 좌절로, 절망으로, 허무로 경험된다. 그러나 죽음이 생명이 지닌 불가피한 종국이라면 동시에 그것은 삶이 마무리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체로 인류의 종교문화는 죽음을 삶을 총체적으로 추스르는 ‘완결의 고비’로 여긴다. 죽음은 끝이거나 무화(無化)의 계기가 아니라 ‘존재 양태의 변화의 계기’로 여기는 것이다.<br/>△송=기독교에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 호흡이 끊기는 것을 넘어선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도 비로소 죽음 앞에서 화해하지 않는가.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다.<br/>-우리 사회에 웰빙 열풍이 불더니 이제 웰다잉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좋은 죽음, 준비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죽음 교육이 이제 우리 사회에도 자리 잡아야 하지 않나.<br/>△송=당연하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치유와 회복,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생의 마무리를 깨우쳐줘야 한다. 하이패밀리에서는 이런 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임종영성 교육을 개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제대로 된 죽음 교육을 시도하려는 것이다.<br/>△전=죽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고, 이 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죽음 교육을 전 국민 교육운동으로 확산시킨다면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br/>△정=자연스러운 죽음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체들이 넘치는 사회는 우울하고 자포자기적이고 때로는 자학적인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죽음관을 문화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br/>정리=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좌담회 전문은 미션라이프(kukinews.com/mission2)에서 볼 수 있습니다.<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권胥?繭箚?해야할까? 북한 여성들을 위한 위생대,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우물파주기…. 조의금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내 놓는 등 내 생애 마지막 기부가 이뤄져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좋은 죽음이라 여긴다.<br/>?s전=백번 동의한다. 어떠한 죽음이든 그 죽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이타적’일수록 좋을 것이다. 나아가 살아 있는 것은 다 죽는다. 살아가고 있는 것(Living)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Dying)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생명체 안에만 존재하는 현상이고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웰비잉(Well Being)은 웰리빙(Well Living)과 웰다잉(Well Dying)이 합쳐진 개념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다.<br/>-그렇다면 준비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즉, 죽음교육이 이제 우리사회에도 자리잡아야 하지 않나.<br/>?s송=당연하다. 죽는 것에 준비된 사람은 사는 것에도 준비되었다는 말이 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치유와 회복,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생의 마무리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마치 결혼예비학교가 있듯이 천국준비교실이 필요하다. 하이패밀리에서는 이런 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임종영성 교육을 개발했다. ‘세이레의 奇籍’이란 주제로 2월 10, 11일 양일간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제대로 된 죽음교육을 시도하려 한다.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가 남달라지지 않겠나.<br/>?s전=죽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고, 이 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죽음교육을 전 국민 교육운동으로 확산시킨다면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br/>?s정=죽음은 누구나 예상하며 예감한다. 죽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죽음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지 하는 태도가 죽음이해를 달리하게 한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체들이 넘치는 사회는 우울하고 자포자기적이고 때로는 자학적인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죽음관을 문화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br/>-그렇다면 본인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덧붙여서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이야기해달라.<br/>?s정=죽음준비라면 마음의 무게, 살림의 무게 등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죽음준비의 모든 것이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임종이 거의 없다. 의식을 잃은 채 연명을 지속하는 ‘기계적인 정황’ 속에서 임종을 맞는다. 그래도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미소를 머금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임종이 너무 부럽다.<br/>?s전=저는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지켜본 사람 중의 하나다. 가장 인상깊었다고나 할까…. 사랑하는 아내 품에 안겨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은 말기 암 환자가 마음속에 지워지지를 않는다. 그런 죽음을 늘 지켜본 나 자신은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는 않다. 그저 죽음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의식하며 살고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다.<br/>?s송=저는 솔직히 정 교수가 어느 강의 장소에서 본인의 호스피스 봉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직자들은 곱고 우아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고 엉엉 울고 싶었다. 그 날 이후 제 삶의 슬로건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며 살자’고 정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도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더라. 제가 지켜본 가장 멋있는 죽음은 죽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고 채명신 장군이 아닐까 싶다. 장군묘역을 거부하고 사병 옆에 잠든 죽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br/>-이 참에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서슴없이 한 마디 해 달라.<br/>?s전=사후세계-하늘나라-는 영적 세계다.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육신을 가졌지만 역시 영적 존재다. 우리에게도 사후세계가 아니라 현세에서도 영적 체험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제시하고 가르쳐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죽음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란 걸 확신시켜 달라.<br/>?s정=죽음과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삶 속에 죽음이(죄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 죽음 속에 삶이 스며있다는 사실(용서받고 구원받은 부활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조하고 만나는 눈을 가지도록 신도들을 가르쳐 줬으면 한다. 그 둘을 아울러 지닐 수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현실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br/>?s송=저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건네는 말이 되겠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 부르지 않나? 죽음이 끝이 아닌, 그래서 한글이 그렇듯 ‘끄트머리’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다. 끝에서 시작을 보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목회자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죽음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기다. 이번 고난주간이 이런 생명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이기를 기도하고 있다.<br/>-장시간 감사하다.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좌담을 통해 한국교회에도 죽음의 담론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br/>정리=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죽음교육에 대한 정진홍 교수의 쓴 소리<br/># 죽음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핑계대거나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결국 죽음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긴장감을 수반한 ‘책임주체’임을 어떤 것보다도 명료하게 전해준다.<br/># 죽음교육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염려된다. 물론 어떤 것도 두드러진 주제로 선택되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따로 떼어내어 마치 깃발을 휘두르듯 죽음교육을 하는 일은 죽음을 역설적으로 값싸게 할 수 있다.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성찰하는 그러한 ‘삶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죽음교육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교육이 그 나름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싶다. 삶이 너무 황폐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교육을 종교만이, 의학만이, 법학만이, 철학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각기의 영역에서 불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모두가 함께 고뇌해야 한다는 것을 죽음교육에 조언하고 싶다.<br/># 오늘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현실 속에서 존엄사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를 보살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도 그렇다. 하지만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 허락하는 것과 그러한 희구의 현실성에 공감하는 것과는 다르다. 회복불가능하다는 판정 이후에 본인의 사전의향서, 곧 연명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통증완화치료만을 바라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존엄사법의 제정은 법을 빙자한 살인의 현실성을 간과할 수 없는 한,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0.txt

제목: [‘죽음에 대한 담론’ 지상 좌담] “우리 사회도 ‘준비된 죽음교육’ 해야”  
날짜: 20140125  
기자: 최영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5100000128  
본문: 국민일보 기독교연구소와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가 공동으로 웰리빙 스쿨 ‘세이레의 기적(奇蹟)’ 세미나(2월 10~11일, 서초 사랑의교회)를 개최한다. ‘임종영성, 그 시작과 끝’이란 주제로 7명의 강사가 죽음의 담론, 임종의 영성, 임종환자를 위한 의료·심리이해·법률상식·유가족 돌봄 등에 대해 강연한다.<br/>이에 앞서 23일 서울 송파구 하이패밀리에서 주 강사로 참여하는 송길원(하이패밀리 대표) 목사, 정진홍(서울대 종교학과) 박사, 전세일(차의과학대 통합의학대학원장) 박사가 ‘죽음에 대한 담론’을 주제로 지상 좌담을 가졌다.<br/>-최근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동안 기피하던 주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사회적 현상이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br/>△정진홍 박사(이하 정)=의학의 발전, 생활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졌다. 그러나 길어진 수명이 양질의 삶의 연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명(延命)’으로 묘사되는 ‘유예된 죽음’이 말년의 삶을 ‘길어진 고통’이게 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실감하고 있다. 그러므로 삶보다 더 혹독한 ‘죽음과정’을 이제는 누구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br/>△전세일 박사(이하 전)=21세기를 학자들이 4D의 시대 즉, Digital(정보화), DNA(생명과학), Design(디자인), Divinity(영성)의 시대라고 특징 지웠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육체적, 정신적, 사회 심리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까지도 포함시킨다는 사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통합의학의 교육 콘텐츠 안에는 임종영성학(Thanatology)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br/>△송길원 목사(이하 송)=소득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라이프스타일에 변화가 오고 있다.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던 삶에 변화가 왔다. ‘성공이 아닌 성찰’을, ‘추월이 아닌 초월’을 지향하게 됐다. 이는 영성시대의 개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성하면 기독교인들은 종종 기도의 영성만을 떠올리기가 쉽다. 하지만 언어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 영성이 있고 사막의 영성이 있는가 하면 유머의 영성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종의 영성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영성시대의 특징을 드러낸 아이콘이 ‘죽음’이다.<br/>-‘죽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 의사, 종교학자, 목사의 입장에서 말해달라.<br/>△전=우선 일반적인 죽음, 상식적인 죽음을 일단 기본적 죽음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다. 첫 숨을 들이쉬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이외의 모든 현상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과 관계된 현상’들이라 봐야 한다. 덜된 사람, 태어날 사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 또 태어날 사람, 딴 세상 간 사람 등….<br/>△정=일반적으로 말하면 몸의 종언이 초래하는 생명의 소멸이다. 그래서 죽음은 좌절로, 절망으로, 허무로 경험된다. 그러나 죽음이 생명이 지닌 불가피한 종국이라면 동시에 그것은 삶이 마무리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체로 인류의 종교문화는 죽음을 삶을 총체적으로 추스르는 ‘완결의 고비’로 여긴다. 죽음은 끝이거나 무화(無化)의 계기가 아니라 ‘존재양태의 변화의 계기’로 여기는 것이다.<br/>△송=이런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은 20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0에 치른다’ 참 무서운 말로 들렸다. ‘성경에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란 표현이 있는데 거꾸로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들이 많다. 기독교에서 죽음은 단지 육체적 호흡이 끊기는 것을 넘어선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추수되지 않은 벼는 그 자체가 저주이듯이 죽음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본다. 나아가 삶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도 비로소 죽음 앞에서 화해하지 않는가?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있다.<br/>-우리사회에 웰빙 열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더니 웰다잉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과연 좋은 죽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br/>△정=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마저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말한다.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죽음을 맞는 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영원한 평화로 맞는 일,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온갖 무게를 덜어놓고 죽음을 맞는 일, 죽음자리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흔적을 남기며 죽음을 맞는 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죽음을 맞는 일 등이 잘 죽는 것 아닐까.<br/>△송=방금 정박사 말씀에 한마디 보태자면 좋은 죽음이란 준비된 죽음이 아닌가 한다. 모든 생명체들은 태어날 때 자신은 울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세상 떠날 때, 자신은 웃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으면 그게 좋은 죽음이 아닐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죽음을 생각해 본다. ‘내 생애 마지막 선행’이라고 해야할까? 북한 여성들을 위한 위생대,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우물파주기…. 조의금의 일부를 통일기금으로 내 놓는 등 내 생애 마지막 기부가 이뤄져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면 좋은 죽음이라 여긴다.<br/>△전=백번 동의한다. 어떠한 죽음이든 그 죽음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이타적’일수록 좋을 것이다. 나아가 살아 있는 것은 다 죽는다. 살아가고 있는 것(Living)은 다 죽어가고 있는 것(Dying)이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죽어가고 있는 것은 생명체 안에만 존재하는 현상이고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웰비잉(Well Being)은 웰리빙(Well Living)과 웰다잉(Well Dying)이 합쳐진 개념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다.<br/>-그렇다면 준비된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즉, 죽음교육이 이제 우리사회에도 자리잡아야 하지 않나.<br/>△송=당연하다. 죽는 것에 준비된 사람은 사는 것에도 준비되었다는 말이 있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치유와 회복,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생의 마무리를 깨우쳐 주어야 한다. 마치 결혼예비학교가 있듯이 천국준비교실이 필요하다. 하이패밀리에서는 이런 점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임종영성 교육을 개발했다. ‘세이레의 奇籍’이란 주제로 2월 10, 11일 양일간 전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제대로 된 죽음교육을 시도하려 한다. 그러면 부활절의 의미가 남달라지지 않겠나.<br/>△전=죽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를 터득하고, 이 생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지를 준비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죽음교육을 전 국민 교육운동으로 확산시킨다면 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br/>△정=죽음은 누구나 예상하며 예감한다. 죽으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죽음을 긍정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지 부정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는지 하는 태도가 죽음이해를 달리하게 한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죽음을 긍정적으로 승인하도록 하지 않으면 그러한 주체들이 넘치는 사회는 우울하고 자포자기적이고 때로는 자학적인 풍토가 만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계기라는 긍정적인 죽음관을 문화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br/>-그렇다면 본인들은 죽음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덧붙여서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이야기해달라.<br/>△정=죽음준비라면 마음의 무게, 살림의 무게 등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제 죽음준비의 모든 것이다. 요즘은 자연스러운 임종이 거의 없다. 의식을 잃은 채 연명을 지속하는 ‘기계적인 정황’ 속에서 임종을 맞는다. 그래도 의식이 없어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미소를 머금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 임종이 너무 부럽다.<br/>△전=저는 의사로서 많은 죽음을 지켜본 사람 중의 하나다. 가장 인상깊었다고나 할까…. 사랑하는 아내 품에 안겨 즐겨 부르던 찬송가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은 말기 암 환자가 마음속에 지워지지를 않는다. 그런 죽음을 늘 지켜본 나 자신은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는 않다. 그저 죽음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의식하며 살고 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 아름다움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다.<br/>△송=저는 솔직히 정 교수가 어느 강의 장소에서 본인의 호스피스 봉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직자들은 곱고 우아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에 큰 충격을 받고 엉엉 울고 싶었다. 그 날 이후 제 삶의 슬로건을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며 살자’고 정했다. 그랬더니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도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더라. 제가 지켜본 가장 멋있는 죽음은 죽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고 채명신 장군이 아닐까 싶다. 장군묘역을 거부하고 사병 옆에 잠든 죽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br/>-이 참에 목회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서슴없이 한 마디 해 달라.<br/>△전=사후세계-하늘나라-는 영적 세계다.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육신을 가졌지만 역시 영적 존재다. 우리에게도 사후세계가 아니라 현세에서도 영적 체험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제시하고 가르쳐 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죽음이 하나도 두려운 게 아니란 걸 확신시켜 달라.<br/>△정=죽음과 삶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았으면 한다. 삶 속에 죽음이(죄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삶), 죽음 속에 삶이 스며있다는 사실(용서받고 구원받은 부활하는 삶),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조하고 만나는 눈을 가지도록 신도들을 가르쳐 줬으면 한다. 그 둘을 아울러 지닐 수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현실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br/>△송=저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건네는 말이 되겠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나비라 부르지 않나? 죽음이 끝이 아닌, 그래서 한글이 그렇듯 ‘끄트머리’의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본다. 끝에서 시작을 보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목회자들이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죽음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한 시기다. 이번 고난주간이 이런 생명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이기를 기도하고 있다.<br/>-장시간 감사하다.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좌담을 통해 한국교회에도 죽음의 담론이 보다 활발해 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br/>정리=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br/><br/>죽음교육에 대한 정진홍 교수의 쓴 소리<br/># 죽음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간으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다. 그러므로 게으르거나 핑계대거나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서 ‘결정’된다. 결국 죽음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긴장감을 수반한 ‘책임주체’임을 어떤 것보다도 명료하게 전해준다.<br/># 죽음교육이 없다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유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염려된다. 물론 어떤 것도 두드러진 주제로 선택되어 부각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따로 떼어내어 마치 깃발을 휘두르듯 죽음교육을 하는 일은 죽음을 역설적으로 값싸게 할 수 있다.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성찰하는 그러한 ‘삶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죽음교육을 분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교육이 그 나름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싶다. 삶이 너무 황폐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교육을 종교만이, 의학만이, 법학만이, 철학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각기의 영역에서 불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모두가 함께 고뇌해야 한다는 것을 죽음교육에 조언하고 싶다.<br/># 오늘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현실 속에서 존엄사를 승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를 보살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도 그렇다. 하지만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 허락하는 것과 그러한 희구의 현실성에 공감하는 것과는 다르다. 회복불가능하다는 판정 이후에 본인의 사전의향서, 곧 연명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통증완화치료만을 바라는 것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존엄사법의 제정은 법을 빙자한 살인의 현실성을 간과할 수 없는 한, 더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1.txt

제목: 암 환자의 건강한 명절 나기, 어렵지 않아요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164  
본문: [쿠키 건강] 최근 한 모바일 설문조사기업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음식’이라는 주제로 통계를 낸 결과, 남자는 ‘산적과 고기류’, 여자는 ‘각종 전류’를 가장 좋아한다는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다.<br/><br/>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는 즐거운 시간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각종 전과 산적 등의 명절 음식이 더해지면 자리가 즐겁게 무르익는 만큼, 우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br/><br/>이는 명절 음식에 단백질과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대부분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조리하기 때문에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기름기가 많은 고열량의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br/><br/>건강한 사람도 고열량, 고지방의 명절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체하거나 설사병이 나는 등 갖가지 음식과 관련된 증상으로 연휴 중 탈이 나는 사례가 잦은데,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처럼 평소 식이습관을 잘 관리해야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명절음식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br/><br/>기름진 음식보다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도라지, 고사리 등의 각종 나물류나 채소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식사 후에도 떡과 과일, 전류 등의 간식을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br/><br/>특히 암 환자나 보호자들은 영양상태의 과잉이 오히려 암을 키운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체적으로 지난날의 식습관을 반성하며 육류를 절제하거나, 저염식과 채식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 개개인의 영양 상태와 질환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지 적게 먹고 채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br/><br/>이는 단순히 채소 섭취만으로 몸에 꼭 필요한 좋은 단백질을 얻기 힘들고, 저염식으로 인해 암환자들의 식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닌,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몸의 건강한 세포들의 성장을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암 환자들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암 치료를 이겨내기 위한 체력과 면역력의 유지를 위해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br/><br/>방선휘한의원에서는 면역치료를 시행하는 암 환자들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 개선 및 실천형 식이습관을 처방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지방 고단백질 식이를 권장하고 있다. 고지방의 명절음식을 조심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br/><br/>윤호영 방선휘한의원 진료원장은 “<span class='quot0'>고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가 골고루 조화된 신선한 재료를 환자의 입맛에 맞게 조리해서 기쁜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암 환자의 식단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span>”라며 암치료에 있어서 음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br/><br/>또한 윤호영 진료원장은 “<span class='quot1'>몸에 좋은 채소를 섭취함에 있어서도 환자에 따라 주의할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소 편식으로 인해 잘못된 영양습관에 젖어있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br/>한편, 채소 편식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들은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45분, MBC 기분좋은날 ‘채소만 제대로 알고먹자’ 편에서 방영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2.txt

제목: 일동후디스-대한비만학회 MOU 체결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289  
본문: [쿠키 건강] 친환경 로하스 식품전문기업 일동후디스와 대한비만학회는 양해각서(MOU)를 맺고 장내 세균과 비만 및 각종 대사질환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br/><br/>현재 우리나라는 비만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30세 이상 성인의 3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10%에 가까운 당뇨병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유발된 심뇌혈관 질환과 각종 암 등 치명적 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br/><br/>이번 MOU체결로 대한비만학회와 일동후디스는 장내 세균총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실험연구 결과를 임상연구 영역으로 확산하고, 이를 평생건강과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 캠페인은 물론, 영양 및 기능성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br/><br/>또 비만과 장내세균총 관련 중개연구 및 임상연구 지원과 제품개발 관련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3.txt

제목: [착한 사회를 이끄는 기업-아모레퍼시픽] 여성가장 창업 돕는 ‘희망가게’ 11년째  
날짜: 201401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030  
본문: 아모레퍼시픽은 1945년 창립 이래 고객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주 고객인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br/>아모레퍼시픽이 후원하고 아름다운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희망가게’는 저소득 한 부모 여성 가장의 창업을 돕고 자활하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이다. 2003년 기금을 조성해 2004년 1호점을 열었고 10주년을 맞은 지난해 200호점을 개설했다.<br/>2008년부터는 ‘아모레퍼시픽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치료 과정에서 탈모 등 갑작스러운 외모 변화로 고통 받는 여성 암 환자들에게 메이크업과 피부 관리, 헤어 연출법을 알려주고 있다. 투병 중 겪는 심적 고통과 우울증을 극복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되찾아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고취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br/>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해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 핑크리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재단은 유방건강이라는 주제 아래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은 물론 유방건강강좌 핑크투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사회공헌포털 ‘메이크업 유어 라이프’(Make up your life)도 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10여개 사회공헌활동을 통합브랜드로 일원화한 것으로 임직원 외에 일반인, 수혜자 등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개방했다.<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4.txt

제목: 이화의료원,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수상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173  
본문: [쿠키 건강]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지난 23일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br/><br/>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 브랜드를 평가해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br/><br/>시상 주최 측은 “<span class='quot0'>최근 발표되는 각종 암 및 질환의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그 이름을 올리며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질 높은 의학 서비스와 함께 첨단 장비 도입과 미국 JCI(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 인증, 제2부속병원 개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선정 이유를 전했다.<br/><br/>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009년 이대여성암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전국 의료기관 유방암·대장암·급성심근경색증·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br/><br/>특히 이대여성암병원은 병원 방문 당일 진료 및 검사가 시행되는 원스톱 서비스, 암 진단 후 1주일 내 시술, 레이디병동 등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 시스템과 여성친화적인 시설이 여성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는 다른 많은 병원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아시아 최대 병원경영 학술대회인 ‘2013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대학병원 혁신 성공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br/><br/>이순남 의료원장은 “<span class='quot1'>이번 수상은 이화의료원의 꾸준한 병원 혁신 활동과 특성화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올해 성공적인 JCI 재인증과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5.txt

제목: 흡연자가 ‘건강검진’시 챙겨야 할 사항은?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162  
본문: [쿠키 건강]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흡연’이다.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이 생겨서, 또는 흡연을 하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폐암이나 심근경색, 중풍 등을 진단받은 것이 계기가 돼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에 의해 소위 끌려오는 경우도 있다.<br/>그러면 흡연자들은 어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검진들은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건강검진(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이나 5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누구나 받아야 하며, 흡연자라면 더 철저히 받는 것이 좋다. 서울대학교벼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의 도움말을 통해 흡연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본다.<br/>◇폐암 검진은 필수<br/>흡연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검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 검진이다. 흡연자의 폐암에 대한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약 23배 정도로 알려져 있다.<br/>최근까지는 폐암은 조기발견의 이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폐암에 대한 검진은 일반적으로 권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서 주관한 대규모 국가 폐암검진 임상연구(National Lung Cancer Screening Trial) 결과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br/>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장기간 흡연을 해온 고위험군의 경우 저선량 흉부 단층 촬영 (Low dose chest CT)을 통한 조기검진을 통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 전체 사망률을 7%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부각됐다</span>”고 설명했다.<br/>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미국 질병예방특별 위원회(USPSTF)에서는 “55세에서 80세까지 30갑년(1갑씩 30년) 이상 흡연력이 있으면서 현재 흡연중이거나 금연 후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는 1년마다 저선량 폐 CT검진을 권유한다”고 했다.<br/>흡연은 주요 사망원인이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일으키며, 이들은 관상동맥 CT촬영이나 뇌MRI/MRA, 경동맥 초음파 등을 통하여 조기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관상동맥 CT의 경우 흡연자에게서는 유의미한 협착에 대한 진단적 유용성이 일반인보다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의미있는 협착이 있다면 스텐트 삽입등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br/>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이 동반되었다면 위와 같은 검사를 고려해볼 수 있다.<br/>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비타민을 복용하거나, 베타카로틴, 토코페롤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 그러나 대규모 임상시험들에서 흡연자에게서는 이러한 보조제의 복용이 오히려 폐암발생률이나 사망률을 약간 높인다고 일관되게 확증돼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br/>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연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연이다. 흡연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새해마다 반복되는 금연 결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흡연은 단순한 건강습관이 아니라, 니코틴 중독이라는 하나의 질환이기 때문이다.<br/>신동욱 교수는 “<span class='quot1'>최근 금연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약물들이 개발되어 수년 전부터 많은 분들을 금연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의지로 끊겠다면서 수년간 담배를 더 피우는 경우, 금연 클리닉을 찾아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6.txt

제목: "교사와 학교가 뭉치면 기적이 생긴다"… 고졸 취업 수기 공모전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372  
본문: [쿠키 사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찬(가명·20)이는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친구와 싸우다 교실 창문을 부수기도 했고 담임선생님에게 매일 같이 자퇴시켜 달라고 졸랐다. 2학년이 돼서도 지각과 무단결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를 변화시킨 성찬이는 3학년이 되자 아르바이트 주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성실한 학생이 됐다. 결국 대기업 외식업체에 당당히 합격해 꿈꾸던 요리사가 됐다.<br/>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24일 열린 ‘제2회 고졸 취업 감동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성인부 금상을 받은 한국외식과학고 박초롱 교사의 수기에는 제자 성찬이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박 교사는 “<span class='quot0'>요리 실력도, 스펙도, 가정형편도 별로라고 자책하는 성찬이를 보면서 일에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span>”고 말했다.<br/>박 교사는 “<span class='quot0'>성찬이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며 모든 교사와 학교가 똘똘 뭉치면 학생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span>”고 했다. ‘세 명의 담임교사가 이뤄낸 특별한 기적’이란 수기 제목처럼 자퇴시켜 달라는 성찬이를 설득한 1학년 담임교사와 무단결석하는 성찬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독인 2학년 담임교사가 없었다면 3학년 때의 성찬이는 없었을 거란 얘기다.<br/>재학생 부문 금상을 받은 순천전자고 조민아(19)양은 ‘그저 겁만 내는 청춘들, 해보긴 해봤나요?’라는 도전적인 제목의 수기를 통해 취업 성공담을 공개했다.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와 함께 가난을 짊어져야 했던 조양은 “꼭 성공해서 어머니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리겠다”는 다짐 속에 특성화고에 진학했다.<br/>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업에 열중했고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자격증도 취득했다. 봉사활동, 교지편집활동 등에도 적극적이었다는 조양은 “또래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 남보다 두세 배 더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지난해 삼성 고졸 공채에서 삼성SDS에 합격한 그는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앞으로 많은 성공을 거둘 인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이라고 했다.<br/>졸업생 부문 금상을 받은 정송이(20·여)씨 역시 특성화고 진학 후 KDB산업은행에 입사했다. 중학 시절 암으로 엄마를 잃은 정씨는 “<span class='quot1'>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두루 섭렵해 여성 금융 전문가가 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는 수상작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특성화고와 시·도교육청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7.txt

제목: 건보공단 ‘담배 소송’ 시작한다…“흡연피해, 담배회사가 물어내라”  
날짜: 20140124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4100000342  
본문: [쿠키 사회]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추진한다. 담배 때문에 폐암 등의 발병률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지출된 만큼 그 손해를 담배회사들이 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br/>건강보험공단은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이 과반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했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이 11명이었다. 하지만 정부측 대표 2명은 신중한 입장 속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br/>이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언제든지 담배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송 방법이나 대상·규모(소송가액)·시기 등은 이사회가 공단측에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단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담배와 암 발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 담배 자체의 결함, 담배사의 고의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혀내기가 어려워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측은 이번 소송 규모(소송가액)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br/>한편 소송의 대상이 된 국내외 담배회사들도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국내외 담배회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도록 분명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 이사회가 건강보험 재정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8.txt

제목: 흉터도 디자인 한다?, 삼성서울병원 흉터예방프로그램 운영  
날짜: 2014012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3100000086  
본문: 치료시기 빠를수록 남는 흉터 적고 치료횟수 줄어…환자 만족도 상승<br/>[쿠키 건강]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흉터예방과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레이저기반 흉터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br/>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과가 주축이 돼 외과, 이비인후과, 내분비대사내과와 연계해 수술 직후부터 흉터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흉터의 경우 외상 또는 수술 후 으레 남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최소 6개월이 지나 치료가 어려운 성숙반흔(mature scar)이 된 뒤에나 고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br/>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흉터 그 자체를 하나의 질환으로 보고 초기부터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를 시작했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환자들의 치료동기 역시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br/>이종희 삼성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암환자들의 경우 질병에 대한 치료성적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예후가 평준화되면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치료흔적으로 자연스럽게 고민이 이어지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br/>삼성서울병원 흉터예방 프로그램을 찾는 환자들이 그런 경우다. 흉터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br/>이종희 교수팀이 갑상샘암 수술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흉터치료 시점에 따라 치료기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수술 직후 내원한 56명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만족하기까지 4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됐지만 1달이 지나 온 환자들은(26명) 평균 5회 가량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r/>반면 수술한지 6개월이 넘어 흉터가 오래된 환자들은(28명)은 평균 10회 정도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 연구는 흉터 치료의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비슷한 조건의 같은 연령대의 환자를 대상으로 면밀히 분석한 최초의 결과이다. 현재 세계적인 학술잡지인 ‘Dermatologic Surgery’에 연구 결과가 제출된 상태다.<br/>이종희 교수는 “<span class='quot1'>수술 직후 1달 이내, 즉 초기에 흉터를 치료하는 것이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결과</span>”라며 “<span class='quot1'>흉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삼성서울병원은 향후 흉터예방 프로그램을 더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br/>이에 대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1'>암환자들은 수술시 수술 부위가 넓어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러한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현재 병원 차원에서 레이저기반 흉터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밖에 없으나 향후 다른 병원들도 이러한 수술 흉터 예방 프로그램에 동참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49.txt

제목: 암 진단 후 흡연 환자, 10명 중 4명은 흡연 사실 감춰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401  
본문: [쿠키 건강]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 10명중 4명 이상은 죄책감 등으로 흡연 사실을 가족이나 의료진에 숨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흡연을 계속하는 경우 비난보다는 세심한 관심과 대화로 전문적인 금연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br/>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 박종혁 과장 연구팀은 2011년 암환자와 가족 990쌍을 대상으로 환자의 암 진단 후 흡연에 관한 심리적 어려움(죄책감, 비난, 흡연 사실 숨김)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br/>연구팀은 암 진단 후에도 1달 이상 흡연한 환자(45명)와 보호자(151명)를 대상으로 죄책감이 들었는지,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았는지, 흡연 사실을 주위에 숨겼는지 물었다.<br/>환자의 75.6%는 가족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77.8%는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으로 환자의 44.4%는 가족에게, 46.7%는 의료진에게 흡연 사실을 숨겼다. 또한 환자 가족의 63.6%는 환자에게 죄책감을 느꼈고, 68.9%는 환자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의 28.5%는 환자에게, 9.3%는 의료진에게 흡연 사실을 알리지 않아다.<br/>연구팀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죄책감, 비난, 숨김)’ 이 환자와 가족의 금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br/>신동욱 교수는 “흡연은 암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암 재발과 이차암 발생률을 높인다. 이러한 흡연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고 있는 환자와 가족은 죄책감과 비난으로 흡연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며 “흡연자에 대한 막연한 비난 보다 세심한 대화로 흡연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br/>이어 박종혁 과장도 “<span class='quot0'>국내 암전문의료기관들은 수술과 항암치료 등 급성기 암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 치료 후 암 재발, 이차암 발생의 대표적 요인인 흡연, 음주, 비만, 영양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생활로 신속한 복귀를 돕는 지지,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정신종양학(psycho-on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0.txt

제목: 바이오니아-사노피, 항암신약 공동연구 추가 계약 체결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179  
본문: [쿠키 건강]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와 유전자기술 전문기업 바이오니아는 유전자 치료제 개발 원천 기반 기술인 새미알앤에이(SAMiRNA) 기술을 이용한 난치성 암의 치료제 개발 관련하여 추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br/><br/>양 사는 지난 2012년 바이오니아가 개발한 SAMiRNA 기술을 활용, 아시아에서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간암 등 고형암 분야의 표적 항암신약 후보 발굴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간 바이오니아 주도로 신개념의 RNAi 신약물질인 SAMiRNA를 이용, 사노피가 발굴한 타깃 암 유전자에 대한 비임상 동물모델 연구를 진행해 왔다.<br/><br/>이번 추가 계약은 지난 2년간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검토한 SAMiRNA 기술을 사노피의 추가 항암 타깃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공동연구와는 달리, 이번에는 사노피 본사 R&D 연구진이 바이오니아의 SAMiRNA치료제를 사용해 난치성 암 질환에서 신약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다.<br/><br/>박한오 바이오니아 대표는 “<span class='quot0'>이번 추가 공동연구 계약은 바이오니아의 SAMiRNA기술의 수준과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사노피가 선별한 추가 항암 타깃에 SAMiRNA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돼 기존의 공동연구 부분이 포함된 기술이전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승주 사노피 아시아태평양 연구담당 소장인 박사는 “<span class='quot1'>이번 추가계약은 사노피가 그간 추구해 온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span>”라며 “<span class='quot1'>사노피는 아시아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술을 가진 학계 및 바이오 기업 등과 꾸준히 협력해 왔다</span>”고 말했다.<br/><br/>또한 “이번 바이오니아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간암 등아시아 지역의 호발 난치성 암 치료 분야에서 유전자 간섭기술(siRNA)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 대안을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1.txt

제목: [겨자씨] 희망의 증인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088  
본문: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Homo Esperance)라는 말이 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유명 대학병원의 암센터 의사가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됐다. 남의 암을 고쳐주던 의사에게 암이라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span>” 희망이 그 이유라는 말이다.<br/>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이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재미교포 정범진(알렉스 정)씨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용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법과대학원 재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br/>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퀸즈 공원묘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문득 죽은 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셨다. 이제 그는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증인으로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다.<br/>홍문수 목사(신반포교회)<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2.txt

제목: [겨자씨] 희망의 증인  
날짜: 2014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13282211  
본문: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Homo Esperance)라는 말이 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유명 대학병원의 암센터 의사가 암에 걸려 투병하게 됐다. 남의 암을 고쳐주던 의사에게 암이라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그런데 그는 평소대로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span class='quot0'>암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죽이는 것이다.</span>” 희망이 그 이유라는 말이다.<br/>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이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세상에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재미교포 정범진(알렉스 정)씨는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용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법과대학원 재학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당연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br/>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퀸즈 공원묘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문득 죽은 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결국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어넣어주셨다. 이제 그는 중증 장애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증인으로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다.<br/>홍문수 목사(신반포교회)<br/><br/><br/><b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3.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1천일간의 성과 발표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418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21일 병원 서성환홀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천일작전 워크숍’을 개최했다.<br/><br/>서울대암병원은 규모의 경쟁이 아닌 효율성의 추구,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11년 3월 개원과 함께 천일작전을 전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대암병원의 3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br/><br/>개원 첫 해인 2011년 서울대암병원은 조기 안정화에 성공하고, 2012년 일평균 외래환자가 31%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환자중심의 진료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당일진료·검사 ▲관련 진료과 의료진이 함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협력진료 ▲외래중심·단기병동 시스템과 암 전용 수술실을 활용한 입원 및 수술대기의 획기적 단축 ▲암의 예방부터 검사·진단·치료·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한 ‘원 스탑, 토탈 케어(One Stop, Total Care)’ 를 정착시키며 새로운 암병원 모델을 완성했다.<br/><br/>그 결과 개원 이후 서울대암병원의 외래 환자 수는 연평균 19%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누적 환자 수 111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전체 외래환자 중 약 21%를 차지하는 규모다. 2013년 수술 건수는 1만2500여건으로, 2011년 9300건 대비 35% 늘었다.<br/><br/>특히 유방센터, 대장암센터, 갑상선센터가 각각 ▲약 1640건 ▲약 1340건 ▲약 1200건을 기록했다. 이들 3개 센터의 수술 건수는 2011년 대비 약 21% 늘어난 것으로, 서울대암병원의 수술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와 함께 새로운 시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대암병원은 하버드의대 부속병원 MGH와 진료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화상 컨퍼런스를 갖는 등 암치료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있다.<br/><br/>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서울대암병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내 암 치료의 변화를 선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진료와 연구를 통해 항암제 및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어떤 암 환자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암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4.txt

제목: 건강검진 바로알기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199  
본문: [쿠키 건강] 새해 결심 중 대표적인 것은 단연 건강관리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배우며 건강관리를 계획한다. 건강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건강검진이다. 질환은 발병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청심국제병원에서 새해 계획에 미리 건강검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상식을 소개한다.<br/><br/>국가지정 건강검진 대상자인지부터 확인<br/><br/>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뉘며, 검진 대상자에만 속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br/><br/>일반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매 2년마다 한번씩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며, 자신의 출생연도의 짝수/홀수 여부로 구분한다. 2014년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짝수연도출생자가 검진대상이며,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만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가 대상자이다.<br/><br/>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이라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년 1회 실시가 적용되고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19세~39세 세대주 중 짝수연도 출생자, 만40세~64세 짝수연도 출생자 전원이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66세가 되는 사람은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선정된다.<br/><br/>암검진은 각 암의 발병위험이 높은 연령대별로 검진을 실시한다. 위암은 만4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2년에 1회 실시하며, 대장암은 만50세 이상의 남녀 대상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간암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경변증환자나 간염바이러스 양성인 자, 만성간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각각 만40세 이상 여성, 만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한다.<br/><br/>영유아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대상으로 생후 4개월부터71개월까지 7차에 걸쳐 검진시기별로 나눠 선정된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해 검진대상자에게 연초에 일괄적으로 검진표를 우편발송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된다. 만일 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주변의 가까운 지사나 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br/><br/>◇건강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은?<br/><br/>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은 기본적인 진찰, 시력, 청력 측정과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이상지혈증, 간장질환, 폐결핵/흉부질환 등 질환 관련 검진을 시행한다. 1차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병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만70세와 74세의 경우)을 대상으로관련 질병에 대한 2차 검진을 실시한다.<br/><br/>만 70세와 74세 대상으로는 치매선별검사도 실시한다.<br/><br/>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암 및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발병률이 상승하는 만40대와 낙상, 치매 등 노인성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만66세에 대해 이뤄지는 건강검진이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 사항과 함께 만40세에게는 암검진과 간염검사, 만66세에게는 암검진, 골밀도 검사(여성), 노인신체기능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1차 건강검진 결과와 관계없이 수검자 전체가 2차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br/><br/>2차 건강검진은 1차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담과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관련 생활습관검사, 고혈압 및 당뇨 2차 확진 검사, 1차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하여 우울증과 인지기능장애와 같은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한다.<br/><br/>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상황을 추적 관리하여 보호자에게 알맞은 육아 가이드를 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인 검사다. 검사는 영유아기에 문제가 되는 질환의 고위험군을 선별하기위한 진찰과 건강교육, 상담 위주로 이뤄진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 특정 질환 발견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br/><br/>◇건강검진 비용은 모두 무료?<br/><br/>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의 1, 2차 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의 암검진 비용은 건강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검진 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물론 정해진 횟수를 넘어서 검진받는다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br/><br/>자궁경부암검사를 제외한 다른 암검진은 공단에서 90%를 부담하고본인이 10%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암 검진대상자인 경우 10%의 본인부담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한다.<br/><br/>◇건강검진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br/><br/>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차 일반 건강검진에서 질환의심 및 유질환자의 비율은 52.3%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2차 검진에서 당뇨병, 고혈압 검사를 받은 후 실제로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을 받은 비율은 44.2%, 49.5%였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면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하고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br/><br/>김종형 청심국제병원 내과 과장(사진)은 “특히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암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인 대장암이나 간암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특별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담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해보고 나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5.txt

제목: 재판 앞둔 조석래 회장 암 진단차 美 출국  
날짜: 20140122  
기자: 지호일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142  
본문: 조세포탈과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신병 치료를 위해 21일 오후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했다.<br/>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수술을 했던 미국 병원 측으로부터 최근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미국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미국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 왔으며 서울대병원의 검사 결과를 본 뒤 신속한 진단을 권유했다</span>”고 말했다. 조 회장은 심장 부정맥 악화 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br/>조 회장은 지난 9일 7900억원대 경영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었지만 검찰에 상황을 설명한 뒤 출국 허가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신병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 회장 측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span>”고 말했다. 조 회장 변호인은 지난 20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에도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br/>조 회장은 검찰에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피의자가 준비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다.<br/>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6.txt

제목: 환자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 증가  
날짜: 2014012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2100000291  
본문: 국민 1인당 연간 5회 방사선검사, 피폭량 5년 동안 51% 증가 [쿠키 건강] 식약처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단을 목적으로 실시한 방사선검사 건수 및 검사종류별 피폭량 등의 빅데이터 10억여건을 조사?분석한 결과,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진단용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1억6000만건, 2008년 1억8000만건, 2009년 1억9000만건, 2010년 2억1000만건, 2011년 2억2천만건으로 5년간 약 35% 증가했다.<br/>국민 일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3.3회, 2008년 3.7회, 2009년 4회, 2010년 4.3회, 2011년 4.6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br/>국민 일인당 연간 진단용 방사선 피폭량은 2007년 0.93mSv(Sivert)에서, 2008년 1.06mSv, 2009년 1.17mSv, 2010년 1.28mSv, 2011년 1.4mSv로 5년간 약 51% 증가했다.<br/>식약처는 방사선검사 및 피폭량 증가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많아지고, 노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와 청진기 등 경험에 의존하는 진단보다는 방사선영상촬영 등 과학적인 진단방법이 보편화되는 최근 의료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br/>◇의료 방사선 피폭량의 절반 이상은 ‘CT촬영’2011년 방사선검사 건수 총 2억2000만건 중 일반 X-ray촬영이 1억7000만건으로 78%를 차지하고, ▲치과촬영 2천4백만건(11%) ▲유방촬영 1천6천백만건(7%) ▲CT촬영 6백만건(2.8%) ▲투시촬영 240만건(1.1%) ▲혈관촬영 34만건(0.2%) 순이다.<br/>2011년 국민 일인당 연간 피폭량 1.4mSv에 대한 검사종류별 피폭량 분포는 CT촬영이 0.79mSv로 절반 이상(56%)이고, ▲일반촬영 0.44mSv(32%) ▲투시촬영 0.09mSv(6.6%) ▲혈관촬영 0.05mSv(3.5%) ▲유방촬영 0.02mSv(1.6%) ▲치과촬영 0.004mSv(0.3%) 순이다.<br/>특히 2011년 총 검사건수의 2.8%(6백만건)에 불과한 CT 촬영이 국민 일인당 연간 피폭량의 56.4%(0.79mSv)를 차지하고 있어 방사선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일인당 연간 피폭량 중 CT 촬영비중은 2007년 49.3%(0.46mSv), 2008년 49.9%(0.53mSv), 2009년 52.1%(0.61mSv), 2010년 54.7%(0.7mSv)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br/>지역별로 보면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 지역이 검사건수도 가장 많았다. 2011년 방사선 검사건수는 서울 5100만건, 경기 4600만건으로 전체 건수(2억2000만건)의 44%를 차지했다.<br/>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대형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검사가 집중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분포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br/>40대 이후, 여성 방사선검사 많아2011년 연령별 방사선검사 건수는 50대가 4200만건(19%)로 가장 높았고, 40대 3800만건(17%), 60대 3200만건(1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암 검진이 시작되는 40대부터 50대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기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br/>2011년 성별 방사선 검사건수는 여성 1억2000만건(56%), 남성 9900만건(44%)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2% 높았다. 35세까지는 남성(3800건)이 여성(2800만건) 보다 약 5%가 높았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여성(9500만건)이 남성(6000만건)보다 약 16%가 높았다.<br/>특히 51세 이상 여성(6600만건)은 남성(3800만건)보다 70%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여성의 유방암 진단을 위한 유방촬영이 40대 이후로 증가하고 있고, 기대수명도 남성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br/>식약처는 이번 ‘국민 방사선량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2월부터 ‘CT 환자 방사선 피폭량 기록·관리사업’을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모든 방사선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환자 방사선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7.txt

제목: 흥국화재, '행복한 파워키즈보험' 출시  
날짜: 20140121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1100000177  
본문: [쿠키 경제] 흥국화재는 태아·어린이의 치과 질환, 환경 질환, 중증 질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행복한 파워키즈보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br/>흥국화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이 상품은 기존 태아·어린이보험 상품에 비해 가입연령,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질병담보 등이 추가 확대되는 등 어린이보험 상품의 장점을 한데 모았다</span>”고 강조했다.<br/>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들어 크게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폐렴 등 환경성 질환 입원비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입원비 및 수술비,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가와사키병 진단비, 인슐린 의존 당뇨병 진단비 등의 중대한 질병까지도 폭넓게 보장한다.<br/>보장금액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험 상품은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인큐베이터 이용시 1일 보장금액이 5만원이다. 하지만 ‘행복한 파워키즈보험’은 업계 최고인 1일 10만원을 보장한다. 일반암 진단비는 5천만원,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원까지 보장한다.<br/>또한 생활 속 어린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괴, 납치, 인질 등과 같은 각종 위험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장해준다. 아울러 식중독 감염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태아부터 30세까지는 유치(젖니)에서 영구치까지의 치과치료 보장이 가능해 따로 덴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br/>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각종 진단금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10세, 15세, 18세, 20세, 24세, 27세, 30세, 80세, 100세까지 총 9가지 만기기간 중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br/>보험 가입 시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가입자의 형제 1인당 보험료의 3%, 최고 6%를 할인해주고, 영어 애니메이션 창작동화 CD를 제공해 주는 혜택도 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8.txt

제목: 건강에 자신만만 40~50대, 건강검진 선택 아닌 필수  
날짜: 201401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0100000353  
본문: [쿠키 건강] 40~5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전반적인 몸 상태를 체크하고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하고픈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정작 사회와 직장, 가정에서 한창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개인 시간은 줄어들고 자신의 건강관리는 소홀하게 된다. 40~50대 건강검진, 어떻게 받아야 할까.<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40~50대는 여러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급증하는 시기다. 이 때문에 갑상선, 위, 간, 심장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하는 생활습관병=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는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이 있다.<br/><br/>대부분 생활습관병은 과식, 과음, 운동부족 등 안 좋은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암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br/><br/>더군다나 생활습관병 중에서도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같은 질환은 뇌심혈관 질환을 불러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에 따르면, 뇌심혈관 질환은 전체 암을 제외한 단일질환의 사망원인 1, 2위를 기록했다. 따라서 40~50대가 건강검진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관상동맥 검사다.<br/><br/>특히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밀검진을 하는 것이 좋다. 뇌혈관 CT와 관상동맥 CT, MRI 등의 검사를 받으면 동맥폐색이나 협착 등 뇌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파악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뇌심혈관 질환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후유증이 적고 치료비용도 줄일 수 있다.<br/><br/>◇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1위는 암이다. 그중에서도 암 사망률은 폐암, 간암, 위암순으로 높고, 대장암, 췌장암, 백혈병 사망률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무서운 것은 자각증상이 없는 암이 상당하다는 점이다.<br/><br/>폐암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기침이나 객담 등 가벼운 증상을 수반해 발견하기 어렵다. 간암의 경우 간염과 간경변 등의 질환이 악화되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윗배가 무겁고 부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간암의 초기 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황달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간암에 노출된 것일 수 있다. 대장암은 식생활의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암 중 하나로 육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높아졌다. 아랫배에 가스가 찬 것 같고 혈변이나 점액질 변을 볼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br/><br/>우선 암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병하는 위암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거나 헬리코박터균에 노출되면 발병한다. 특히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위암 발생률을 무려 10%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트림을 자주 하고 구토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 아울러 자주 체할 경우에도 위암을 의심해봐야 한다.<br/><br/>이제 암은 진단을 받는 동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질환이 아니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생존률과 완치율이 올라가지만 상당히 진행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40~50대 중년층의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것이다. 검진 주기는 첫 검진 이후에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질병마다 검진 주기가 다르니 잘 고려해야 한다.<br/><br/>◇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연령은 물론, 성별에 따라서도 받아야 할 건강검진의 특성이 있다. 남성의 건강검진은 흡연과 음주 여부에 따라 세밀화된다. 잦은 음주를 할 경우 남성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 위암 초기의 자각증상은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거나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 딸꾹질이 멈추지 않고 구토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환자에 따라 아예 자각증상이 없거나 심각한 통증을 수반하는 등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br/><br/>최근에는 남성 비뇨기암(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남성의 비뇨기암의 증가율이 위암, 폐암보다도 높다. 전립선암의 진단에는 전립선 조직검사, 신장암의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가 사용된다.<br/><br/>여성의 경우 여성 3대 암인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은 발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암이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 중 하나며, 비교적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목에 촉진되는 결절, 쉰 목소리, 연하곤란(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움), 경부 림프절 종대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으나, 진단 당시 50% 이상은 무증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증상이 발생할 때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59.txt

제목: ‘孝婦’ 베트남 며느리 ‘다문화 이주 여성 누엔띠 꾸이 씨’  
날짜: 20140120  
기자: 김재중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0100000086  
본문: 임신 8개월째 남편 사별… 극진히 봉양하던 시어머니 하늘로… 총리도 감동받았다<br/>한국 가수 ‘비’를 좋아했던 열아홉 살 베트남 처녀는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다. 자신보다 열아홉 살이나 많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산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br/>2008년 고향에 부모와 두 여동생을 남겨두고 16시간 걸려 한국에 도착한 누엔띠 꾸이(25)씨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말이 서툴고 문화도 달라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남편은 자상했고,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대해줬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다. 아이를 가져 기쁨은 배가 됐다.<br/>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열심히 생활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것을 권했지만 꾸이씨는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이제 낯선 땅에서 꾸이씨는 아들과 단둘이서 살고 있다.<br/>“<span class='quot0'>아들의 고향인데 제가 왜 떠나요?</span>”<br/>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의 10평 남짓한 집에서 만난 꾸이씨는 지난 17일 ‘한국을 떠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들 최선우(5)군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br/>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생계비는 선우의 고모부가 매달 보내주는 50만원이 전부다. 한때 야채 박스 포장하는 일을 돕고 시간당 4000원씩 받았으나 이제는 그 일마저도 없어 쉬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선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셔오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국 국적을 아직 얻지 못해 초청하기도 쉽지 않다.<br/>“한국 국적을 빨리 획득하고 선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줄 거예요.”<br/>꾸이씨의 가장 큰 소망은 선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매주 한 차례씩 한글학교에 나가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투른 한국말로 선우에게 한글책을 읽어주는 이유다.<br/>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추석 때 당시 효부로 소문난 ‘베트남 며느리’ 얘기를 듣고 이호영 비서실장을 통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span class='quot1'>꾸이씨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찡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어머니는 격려금을 받은 다음날 아침 소천했다. 꾸이씨 모자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 총리는 지난 18일 이 비서실장을 다시 보내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br/>“(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도 막 돌아다녀요.” 꾸이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다. 온갖 역경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꾸이씨 모습에서 다문화가족의 소박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br/>양평=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0.txt

제목: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 2018년까지 10배 성장 전망  
날짜: 201401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0100000344  
본문: [쿠키 건강] 전세계 원격의료 시장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br/><br/>글로벌시장조사업체 IHS 테크놀로지가 최근 발행한 ‘2014년 세계원격의료시장(World Market for Telehealth ? 2014 Edition)’에 따르면 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이 원격 통신기술 및 모니터링 기술사용을 점점 늘리면서 세계 원격의료기기 및 서비스시장의 매출이 2013년 4억 4060만달러에서 2018년에는 45억달러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br/><br/>그 주요 이유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수가 2013년에는 35만명 이하였지만 2018년에는 700만명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br/><br/>IHS 테크놀로지의 로인로아샨(RoeenRoashan)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담당 애널리스트는 “<span class='quot0'>늘어나는 비용, 고령화되는 인구, 날로 증가하는 만성질병의 유병률 등으로 인해 의료업계는 업무방식을 바꿔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원격의료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원격의료가 진료의 질을 높여주는 동시에 의료업계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br/>원격의료 프로그램결과 재입원율과 치사율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환자는 병원처방을 더욱 잘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유로 원격의료 사용을 더욱 장려하고 규제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재정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br/><br/>특히 모바일 의료허브(mobile health hub)가 소개되면서 원격의료 비용이 낮아지고 전반적으로 효용 가치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br/><br/>또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암, 비만 등과 같은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65세 이상 환자관리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며, 의료업계가 인원확충 및 의료자원부족 등 여러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br/><br/>IHS 테크놀로지는 의료기관이 이제까지 급성기후기(post-acute) 환자관리에 주로 사용됐던 원격의료 사용을 환자전체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웨어러블(wearable) 기술성장과 홈네트워크 셀프건강기록(quantified self) 트렌드로 원격의료 확장이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1.txt

제목: 골수 이식·항암치료 소아암환자 12% 영구탈모 후유증  
날짜: 2014012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0100000018  
본문: 서울대병원 강형진·권오상 교수 연구팀 분석<br/>소아청소년 백혈병 환자 중 12%가 조혈모세포이식 전 항암제 치료로 영구 탈모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경향은 ‘치오테파(thiotepa)’ 성분의 항암제를 쓸수록, 나이가 어린 환자일수록 심했다.<br/>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피부과 권오상 교수 연구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항암제 치료 후 조혈모세포이식술을 시행한 3∼24세 소아청소년 백혈병 환자 159명과 건강한 일반 소아청소년 167명(2∼21세)을 대상으로, 탈모 실태를 비교·분석했다.<br/>그 결과,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 중 12%가 약물 부작용으로 나타난 탈모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 탈모 후유증’이란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6개월 후에도 기존 모발의 75% 이상을 손실해 가발을 써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br/>이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나이가 어린, 특히 치오테파 제제를 항암제로 선택한 환자들이 더 많이 겪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을 때 이들의 나이는 영구 탈모 경험자의 경우 평균 5.2세,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평균 7.6세로 각각 확인됐다. 또 치오테파 제제를 쓴 환자들의 영구 탈모 위험률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치오테파는 암세포의 유전자(DNA) 복제를 억제해 증식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지만, 모낭줄기세포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약물이다.<br/>환자들에게 탈모증이 생기는 시점은 치오테파 등 항암제를 평균 1.5개월간 사용한 뒤부터다. 이들 중 67%는 치료 후 모발의 밀도가 줄었고, 58%는 색깔이 변했으며, 78%는 질감까지 변했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피부과학회지(JAAD) 12월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2.txt

제목: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못해…유출땐 과징금 최고 5억원  
날짜: 2014012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20100000146  
본문: [쿠키 사회]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8월부터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된다.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유출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br/>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br/>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br/>이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br/>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br/>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 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br/>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span class='quot0'>그동안의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각 기관은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 절차와 서식을 개선해 달라</span>”고 당부했다.<br/>안행부는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전화 118)을 운영하며 컨설팅 등을 지원해 각 기관의 빠른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3.txt

제목: 총리도 감동한 '베트남 며느리' 누엔띠 꾸이의 한국사랑  
날짜: 2014011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9100000077  
본문: [쿠키 사회] 한국 가수 ‘비’를 좋아했던 19살 베트남 처녀는 한국 땅을 밟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다.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지만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산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br/>2008년 고향에 부모와 두 여동생을 남겨두고 16시간 걸려 한국에 도착한 누엔티 꾸이(25)씨에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 말이 서툴고 문화도 달라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남편은 자상했고, 시어머니는 친딸처럼 대해줬다. 매주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렸다. 아이를 가져 기쁨은 배가 됐다.<br/>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임신 8개월째 되던 날 공장에 다니던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의지하며 열심히 생활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청상과부가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것을 권했지만 꾸이씨는 단호히 거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등졌다. 이제 낯선 땅에서 꾸이씨는 아들과 단 둘이서 살고 있다.<br/>“<span class='quot0'>아들의 고향인데 제가 왜 떠나요?</span>”<br/>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의 10평 남짓한 집에서 만난 꾸이씨는 지난 17일 ‘한국을 떠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아들 최선우(5)군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br/>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생계비는 선우의 고모부가 매달 보내주는 50만원이 전부다. 한때 야채 박스 포장하는 일을 돕고 시간당 4000원씩 받았으나 이제는 그 일마저도 없어 쉬고 있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선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베트남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셔오면 좋겠지만 자신이 한국 국적을 아직 얻지 못해 초청하기도 쉽지 않다.<br/>“한국 국적을 빨리 획득하고 선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늘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줄 거에요.”<br/>꾸이씨의 가장 큰 소망은 선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매주 한 차례씩 한글학교에 나가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투른 한국말로 선우에게 한글책을 읽어주는 이유다.<br/>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해 추석 때 당시 효부로 소문난 ‘베트남 며느리’ 얘기를 듣고 이호영 비서실장을 통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정 총리는 “<span class='quot1'>꾸이씨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찡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다</span>”고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시어머니는 격려금을 받은 다음날 아침 소천했다. 꾸이씨 모자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정 총리는 지난 18일 이 비서실장을 다시 보내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br/>“(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해요. 그래도 막 돌아다녀요.” 꾸이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주변의 시선이다. 온갖 역경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꾸이씨 모습에서 다문화가족의 소박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br/>양평=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4.txt

제목: [이기수 기자의 건강쪽지] 담배를 꼭 끊어야 하는 이유  
날짜: 20140118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8100000050  
본문: 이 코너에서는 물론 그동안 건강 관련 기사를 쓰면서 담배의 해로움을 누차 전한 바 있습니다만, 애연가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더 그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br/>담배를 꼭 끊어야 할 이유가 삼성서울병원 폐암센터 박근칠 교수팀에 의해 다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JCO) 최신호에 게재됐습니다.<br/>장기간 흡연 행위는 폐암 발병 원인의 약 25∼30%를 차지할 만큼 고(高)위험 암 유발 인자로 꼽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유전자 변형 때문이랍니다.<br/>담배를 오랫동안 피우게 되면 몸속에 퍼져 있는 여러 유전자가 제멋대로 변형돼 암세포가 발아(發芽)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흡연에 의한 유전자 변형은 이번에 확인된 것만도 400여개나 됩니다.<br/>더 큰 문제는 일단 유전자의 형질이 바뀌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유전자 변형에 따른 폐암은 마땅히 치료할 약도 없는 실정입니다.<br/>결국 담배는 처음부터 안 피우는 게 좋고, 현재 피우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것만이 체내 유전자 변형을 막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br/>연말연시 금연선언을 하고 지금 담배 끊기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은 그 결심, 이번엔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5.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287  
본문: [쿠키 생활] 매년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다. 최근 들어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음주와 흡연, 환경오염 등으로 암 발생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br/>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암 발생률 으로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률만큼 크게 다가오는 암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도 경제적인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하다.<br/>최근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상품에 관심이 높아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암 치료비용과 생활비용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br/>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다.<br/>암보험 추천 상품에 가입 시 보장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암 진단금 보장한도를 살펴보자, 암은 치료 시 어떤 암이냐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지는데 일반 암은 작게는 1000만원에서 고액 암은 최고 8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간다.<br/>최근 암 발병이 늘어나며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암 진단금 및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진단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높게는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br/>지속적인 암 치료를 위해 소득을 상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암 진단자금은 생활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진단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부담되지 않도록 암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br/>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나, 갱신할 때마다 나이와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되어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일수록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동일하지만 갱신형보다 가입 시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누적된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비갱신형 암 보험 상품이 저렴한 보험 상품이다.<br/>최근 젊은 연령층도 암에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높다. 암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 나이나 병력으로 재가입이 어렵고 보장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길게 선택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br/>암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암 진단을 받은 후 진단금을 받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암 보험 가입 후 90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야 한다.<br/>암보험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 암보험 비교를 해야 한단. 가입자의 나이, 병력, 가족력 등의 조건에 따라 보장금액,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br/>최근 암보험 비교추천 사이트(cancer-bohum114.com/?inType=291003)에서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및 실시간 보험료계산을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 암 보험 가입순위에 따른 비교가입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6.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240  
본문: [쿠키 생활] 매년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다. 최근 들어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음주와 흡연, 환경오염 등으로 암 발생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br/>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암 발생률 으로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률만큼 크게 다가오는 암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도 경제적인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하다.<br/>최근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상품에 관심이 높아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암 치료비용과 생활비용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br/>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다.<br/>암보험 추천 상품에 가입 시 보장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암 진단금 보장한도를 살펴보자, 암은 치료 시 어떤 암이냐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지는데 일반 암은 작게는 1000만원에서 고액 암은 최고 8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간다.<br/>최근 암 발병이 늘어나며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암 진단금 및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진단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높게는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br/>지속적인 암 치료를 위해 소득을 상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암 진단자금은 생활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진단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부담되지 않도록 암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br/>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나, 갱신할 때마다 나이와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되어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일수록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동일하지만 갱신형보다 가입 시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누적된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비갱신형 암 보험 상품이 저렴한 보험 상품이다.<br/>최근 젊은 연령층도 암에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높다. 암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 나이나 병력으로 재가입이 어렵고 보장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길게 선택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br/>암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암 진단을 받은 후 진단금을 받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암 보험 가입 후 90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야 한다.<br/>암보험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 암보험 비교를 해야 한단. 가입자의 나이, 병력, 가족력 등의 조건에 따라 보장금액,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br/>최근 암보험 비교추천 사이트(cancer-bohum114.com/?inType=291003)에서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및 실시간 보험료계산을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 암 보험 가입순위에 따른 비교가입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7.txt

제목: 고액 암 치료비, 비갱신형 암보험 비교추천 필수  
날짜: 2014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318  
본문: [쿠키 생활] 매년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암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높다. 최근 들어 암 발병률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음주와 흡연, 환경오염 등으로 암 발생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br/>의료기술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암 발생률 으로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률만큼 크게 다가오는 암 치료비용에 대한 문제도 경제적인 위협으로 오기 때문에 대비는 필요하다.<br/>최근에는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상품에 관심이 높아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암 치료비용과 생활비용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br/>암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이 있다.<br/>암보험 추천 상품에 가입 시 보장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암 진단금 보장한도를 살펴보자, 암은 치료 시 어떤 암이냐에 따라 치료비용이 달라지는데 일반 암은 작게는 1000만원에서 고액 암은 최고 8000만원까지 치료비가 들어간다.<br/>최근 암 발병이 늘어나며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암 진단금 및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상품들이 많아지고 있다. 때문에 진단금은 적게는 2000만원부터 높게는 1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들이 있기에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br/>지속적인 암 치료를 위해 소득을 상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암 진단자금은 생활비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진단금을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부담되지 않도록 암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한다.<br/>암 보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가입 시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나, 갱신할 때마다 나이와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되어 암 발병율이 높은 연령일수록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비갱신형은 처음 보험료 그대로 만기까지 동일하지만 갱신형보다 가입 시 보험료가 조금 더 높다. 그러나 누적된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비갱신형 암 보험 상품이 저렴한 보험 상품이다.<br/>최근 젊은 연령층도 암에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50세 이후에 발병률이 높다. 암 보험가입 시 보장기간, 나이나 병력으로 재가입이 어렵고 보장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길게 선택하여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좋다.<br/>암보험은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주어진다. 이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암 진단을 받은 후 진단금을 받기 위해 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드시 암 보험 가입 후 90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야 한다.<br/>암보험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 암보험 비교를 해야 한단. 가입자의 나이, 병력, 가족력 등의 조건에 따라 보장금액,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반드시 해야 한다.<br/>최근 암보험 비교추천 사이트(cancer-bohum114.com/?inType=291003)에서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및 실시간 보험료계산을 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등 암 보험 가입순위에 따른 비교가입 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9711<br/>(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8.txt

제목: 찬송가 주해 강좌를 연 김은희 횃불트리니티 콘서바토리 원장  
날짜: 20140117  
기자: 전병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113  
본문: 횃불트리니티 콘서바토리 김은희 원장이 최근 찬송가 주해 강좌를 열었다. 그는 찬송가를 주해하면 찬송의 울림이 더 깊어진다고 강조했다.<br/>찬송가도 성경처럼 주해할 수 있을까? 그가 말하는 찬송가 주해는 찬송가 가사를 주해로 풀어내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교리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찬송가 가사를 주해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찬송가를 주해하면 연주를 할 때 곡의 해석도 달라진다고 말했다.<br/>김 원장은 미국에서 성경 주해 강의를 들으며 찬송가 주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는 곧바로 찬송가 가사를 주해했다. 이 찬송가를 연주하자 남다른 은혜가 됐다. 가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자 연주가 곧 설교가 되는 느낌이었다. 실제 연주를 들은 청중들도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는 설명했다.<br/>찬송가 주해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할 때 피아니스트가 곡을 해석해 연주하는 것과 같다. 다만 주해는 이보다 더 깊이가 있다. 단순한 기교에서 오는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br/>“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신학적 교리적 간증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주해하고 연주한 음반을 내놓았더니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음악이 설교가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br/>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이 주해 찬송 연주를 듣고 암이 나았다는 감사 전화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우울증을 앓는 환자에게도 힘을 준다</span>”고 말했다.<br/>김 원장의 찬송가 주해 강좌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룬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있고 피아노 전공자여도 원리를 알지 못하면 주해 찬송가를 연주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강좌를 통해 그 원리를 가르친다고 말했다.<br/>또 콘서바토리 연주자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한 연주를 가르친다. 피아노는 물론 바이올린, 첼로, 오르간 반주를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성악도 가르친다. 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쉽게 목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발성법과 성가 지휘법도 가르친다.<br/>10주간씩 일 년에 4회의 연주자 과정이 있다. 10명씩 그룹수업으로 진행되고 개인 지도도 있다.<br/>“등록은 수업 중간에도 가능합니다. 순환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디 같은 단기 속성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와서 두 시간 정도 배웁니다. 좀 더 심화 과정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일대일 개인지도를 하면 됩니다.”<br/>수업은 오전 오후가 있다. 직장 반은 작년 4월에 시작했다. 직장은 일대일로 개인지도한다. 현재 60명 수업 받고 있다. 지도자 과정 최고 연주자 과정이 있다. 김 교수는 주해 찬송가 연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주를 통해 교회 음악이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br/>“샘을 파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몰라서 못 오는 분들이 와서 예배의 풍성함을 반주를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찬송가 연주법을 전수하고 싶습니다.”<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69.txt

제목: [인터뷰] 박영근 VGX인터 대표 “백신산업의 패러다임, DNA백신 통해 재편될 것”  
날짜: 2014011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280  
본문: [쿠키 건강] 선진국 유수의 제약사들은 앞 다퉈 ‘바이오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바이오 신약은 일반 신약과는 그 의미가 다른데, 기존 약이 화학 합성을 통해 만들어졌다면 바이오 신약은 생명공학을 이용한다. DNA→RNA→Protein이라는 생명공식이 밝혀지면서 바이오 신약 분야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br/><br/>바이오 신약의 장점은 질병의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면역체계 내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합성 신약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난치병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바이오 신약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DNA백신’이 주목받고 있다.<br/><br/>DNA백신은 독성을 약화시킨 병원균을 직접 넣어 만든 1세대 백신과 달리 병원균의 DNA 일부분을 넣어 만든 것으로 항체 형성뿐 아니라 몸 안에 들어온 병원균을 직접 죽이는 T세포까지 생성한다. 1세대 백신이 보이지 않는 병을 예방했다면 DNA백신은 이와 더불어 걸린 병에 대한 치료효과도 가지고 있는 셈이다.<br/><br/>이 같은 DNA백신 개발에 도전장은 낸 곳은 국내서 단 한 곳, VGX인터내셔널 사다. 박영근 VGX인터내셔널 대표를 만나 세계 의약품 시장의 흐름과 DNA백신 개발에 대해 물었다.<br/><br/>박 대표는 “DNA백신은 1980년 대 말 이론이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임상을 시작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다보니 많은 발전은 이뤄온 지금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내서는 개발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br/><br/>DNA백신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충분한 양의 DNA백신이 세포 내로 전달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05년 전기천공장치를 활용함으로써 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DNA백신의 효과를 증명하는 임상연구가 이뤄졌다.<br/><br/>현재 VGX인터내셔널 사는 미국 이노비오 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궁경부암 치료하는 DNA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대표는 “<span class='quot0'>현재 임상2상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치료백신은 우수한 임상 1상 연구결과로 이미 미국 내 의학계 및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큰 주목받고 있으며 최종 성공 시 60억불 규모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대체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VGX인터내셔널 사가 설립 초기부터 DNA백신 개발에 주력했던 것은 아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조그만 생명공학 벤처기업이 이 어려운 DNA백신 개발로 고개를 돌린 이유에 대해 박영근 대표는 “<span class='quot1'>세계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span>”이라고 말했다.<br/><br/>이어 “한국 제약업계의 최대 고민이자 과제는 ‘신약 개발’이다.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갖는 명성과 입지는 두터운 편은 아니다. 이 분위기를 역전할 만한 대박 신약이 나오려면 이전 약품보다 약효가 월등히 뛰어나야 하는데, 1세대 백신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것이 DNA백신에 주목한 이유다. DNA백신은 개발 그 자체는 어렵지만 제품화에 성공만 한다면 국내 백신산업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DNA백신의 적응증은 대부분은 암, 면역체계 이상, 난치성 만성질환 등이다. 최근 VGX 인터내셔널사가 국내서 착수한 임상실험도 만성 C형간염 치료백신(VGX-6150)이다. 이에 대해 박영근 대표는 “<span class='quot1'>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한 블록버스터급 제품</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본 제품은 향후 5년 내에 제품으로 만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br/><br/>DNA백신 개발과 관련해 VGX인터내셔널 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 제약사인 로슈는 VGX인터내셔널 사의 기술력은 인정하고 상호협력을 제안해왔다. 박 대표는 “세계적인 기업으로부터 개발능력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기쁘다. 하지만 연구개발 활동이 국내와 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국내 기업이라는 인식보다는 외국기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국내기업으로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DNA백신을 만들어 국내 백신산업의 세계화를 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0.txt

제목: [기독여성CEO 열전] ③ 안양샘병원 황영희 명예원장  
날짜: 20140117  
기자: 백상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7100000024  
본문: “<span class='quot0'>여긴 그냥 병원 아닌 선교병원입니다</span>”<br/>안양샘병원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때 피해를 입은 샘물교회 선교대원들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안양샘병원 명예원장과 아프리카 미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황영희 원장(안양제일교회 권사)을 15일 만나 선교병원 운영과 사랑실천에 대해 들어봤다.<br/>“안양샘병원은 그냥 병원이 아니라 선교병원입니다. 선교란 꼭 돈이 남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십일조 떼듯 먼저 떼어놔야 해요. 돈이 남으면 선교한다는 생각을 갖다간 이미 늦어요. 세상의 경영전략과 맞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br/>안양샘병원은 1224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안양지역 1호 종합병원이다. 암 특화 전문병원인 G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병원과 함께 효산의료재단에 소속돼 있으며, 선교병원답게 병원에는 원목 4명과 전도사 6명이 환자들을 돌본다. 지난 1년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428명,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148명이다. 이 중 104명은 지역교회에 연결됐다.<br/>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부산여고 재학 때다. 평소 절대적 존재를 향해 진리를 추구하던 그는 어느 날 새벽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에 부산 서부교회로 향했다. 고교 교장이었던 그의 부친은 법관이 되길 원했다. 하지만 “인간을 판단하는 법관보다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되겠다”며 1960년 부산의대에 진학했고 산부인과를 전공했다.<br/>황 원장은 “자궁 내 2.5㎝의 태아도 심장이 뛴다. 태반이 잘 형성될 때까지 난황이 링거 줄처럼 생긴 줄을 통해 태아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여호와 이레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람이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br/>그가 안양에서 병원을 차린 것은 1967년의 일이다. 부산의대 동기동창인 남편 이상택 효산의료재단 이사장과 함께 안양읍에서 4명의 직원, 3개 병상으로 시작한 의원은 숱한 고난을 이겨내고 5차례 증축을 했으며, 300배 이상의 외형적 성장을 했다. 비결은 내과와 산부인과에서 강점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춰 과목과 연구실을 개설한 데 있다.<br/>황 원장은 “<span class='quot1'>하나님은 특별한 고난을 통해 당신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신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며 그 다음은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아무리 탁월한 전략과 지혜를 지닌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밤잠 설치는 피곤한 진료일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를 붙들었다</span>”고 말했다.<br/>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를 핵심가치로 붙드는 안양샘병원의 운영은 아들 이대희 혈액종양 전문의가 돕고 있다. 그의 아들은 서울대 의대 누가회 멤버로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했다. 고려대 의대 누가회 출신인 박상은 의료원장을 영입한 것도 아들이다. 그의 아들은 병원교회에서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 때 기타를 둘러메고 찬양을 인도한다.<br/>황 원장은 2005년 효산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우청소년을 돕고 학술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턴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과 의료·보건 분야의 개선을 위해 설립된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br/>그는 “<span class='quot1'>고 배형규 목사님의 시신을 덮었던 담요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선교의 진짜 목적이 영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span>”며 “<span class='quot1'>100여 년 전 변변한 병원과 학교, 교회 하나 없던 한국 땅에 와서 피 흘린 선교사들의 헌신을 잊은 채 나와 내 주위의 생존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회개했다</span>”고 말했다. 황 원장은 “<span class='quot1'>우리는 선교지에서 선한 사업이라며 일을 해냈다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span>”고 말했다.<br/>‘탁월한 통합의료와 전인치유로 생명사랑을 실현하는 글로벌 선교병원’을 표어로 삼은 안양샘병원의 가치는 인터뷰 도중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안내 멘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오후 6시30분부터 군포 G샘병원에서 수요 치유집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br/>◇황영희 명예원장=△1942년 출생 △66년 부산대 의대 졸 △67년 안양의원 개원 △2005년 효산장학문화재단 이사장 △2007년 안양샘병원 명예원장 △2011년 아프리카미래재단 이사장, 낙태반대운동연합 이사장, 세종나눔봉사대상 수상.<br/>안양=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1.txt

제목: 목돈 드는 암 치료비용, 암보험 상품으로 대비해볼까?  
날짜: 201401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6100000251  
본문: [쿠키 경제] 예전과 달리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발전으로 암 조기발견이 가능해져 치료 및 생존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br/>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아직도 한국인 사망원인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암에 노출돼 있다.<br/>특히 요즘은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부족, 비만,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으로 젊은 층의 암 발병도 늘어나고 있어 젊다고 암에 대한 대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br/>암은 자각증상이 더디고 암 치료 시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족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료발전으로 암 치료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br/>이러한 이유로 나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암 보험 상품으로 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먼저 암 발병률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br/>최근 암 진단이 늘어남에 따라 자궁암,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남녀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는 추세로 암 보험 암 진단금의 보장금액과 보장범위를 살펴봐야 한다.<br/>그리고 가입하려는 암 보험 상품의 보장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한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받기위해 최대한 보장기간을 길게 선택해야 한다.<br/>만약에 현재 가입된 보험의 보장기간이 짧다고 생각될 경우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br/>암 보험 상품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가입 후 90일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이 지나야만 100%로 보장 받을 수 있다.<br/>게다가 연령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릴 때 준비하는 것이 저렴한 암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br/>아울러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비갱신형 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하다.<br/>이와 같이 상품마다 각기 다른 장단점과 보험료, 보장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 보험 가입 순위 가격비교를 통해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br/>그래서 암 보험 비교추천사이트(www.cancerok.com/inscare.php)가 큰 인기로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다양한 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가입 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입이 가능하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2.txt

제목: [내일을 열며-이기수] 건강에 나쁜 습관  
날짜: 2014011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6100000014  
본문: 해가 바뀌고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것을 탓하는 ‘작심삼일’파 직장인들의 안타까운 한숨소리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금연실천계획이 무산돼 다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금연선언을 한 지 보름도 안 돼 무너진 자신을 원망하며 담배를 피울 때마다 “끊어야 하는데∼”를 내뱉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br/>건강을 위해 새해 끊고 고쳐야 할 문제가 어디 담배뿐이겠습니까. 짠 음식을 즐기는 나쁜 식습관 고치기, 스트레스 피하기, 운동 부족 및 비만 탈출하기 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고 비만도 예방해 보겠다고 등록한 헬스클럽도 이미 여러 날 빼먹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초 흔히 목격되는 작심삼일 광경 중 하나입니다.<br/>이 모든 건 건강 돌보기를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흡연, 과음, 과식, 과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과 같은 것들이 잘 사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얘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생활습관이 나쁠 경우 질병에 걸릴 확률, 세상을 일찍 떠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경고를 받고도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br/>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나쁜 습관, 잘못된 습관을 조만간 버리거나 바꾸지 못하면 건강을 해치는 못된 것들의 기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이 생길 경우 두 명 중 한 명은 발병과 동시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심뇌혈관질환이 흔히 죽음으로 가는 급행열차, 또는 죽음을 부르는 시한폭탄으로 비유되는 이유입니다.<br/>보통 암이 무섭다지만 그래도 약 50%는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 환자 중 50%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돌연사하는 심뇌혈관질환보다는 나은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br/>만약 진행 단계에서 암을 뒤늦게 발견, 완치가 어렵다고 해도 암 진단자의 경우 죽기까지 몇 달간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에 걸리면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비율이 병원에서 사망하는 10%를 포함해 60%에 이릅니다.<br/>의사들은 나쁜 습관만 건강습관으로 바꿔도 이런 심뇌혈관질환의 50%, 암의 50%, 당뇨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재난사고와 회사부도 등 직장인 처지에서 예방이 불가능한 불행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치지 않고 손놓고 있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불행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br/>건강을 위한 금연계획 등 새해 결심이 잠시 흔들렸다면 지금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경구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모두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과 결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높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은 사람은 짠 음식을 멀리하고 가능한 한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길들이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권합니다. 물론 과음과 과로, 스트레스도 피해야 합니다. 내심 갑자기 병사할 일이 자신에게는 안 생길 것이라 믿고, 설령 생긴다 해도 ‘죽으면 그만’이라며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며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중병을 얻어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br/>진부한 얘기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후순위로 미뤄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마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습관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면 몹쓸 병이 찾아온다. 몸이 경고하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새해를 맞은 직장인에게 주는 조언입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3.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2014년 첫 번째 신년음악회 열어  
날짜: 201401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6100000352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은 지난 15일 병원 3층 로비에서 2014년을 여는 암병원 음악풍경 ‘2014년 신년음악회’를 열었다.<br/><br/>올해 첫 번째 암병원 음악풍경 행사로 열린 이날 음악회는 50회를 맞아 의미를 더했했으며, 암정보교육센터 주관으로 예술, 교육 전문 비영리단체인 이노비(EnoB,Inc.) 주최 진행됐다.<br/><br/>이날 메조소프라노 정유진과 목관 5중주팀 소누스, 피아니스트 장예현이 재능기부로 참여하여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중 ‘오버더 레인보우’,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 등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그리고 다양한 대중음악을 선사했다.<br/><br/>서울대암병원이 환자와 가족,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개최하고 있는 병원음악회 ‘암병원 음악풍경’은 다양한 음악장르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신년음악회에서는 플롯,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으로 구성된 목관 5중주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이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br/><br/>노동영 서울대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2014년 암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span>”며 “<span class='quot0'>암병원 음악풍경은 올해도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할 것이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4.txt

제목: 소아암 환자, 10명중 1명은 영구 탈모 겪어  
날짜: 2014011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6100000243  
본문: [쿠키 건강] 항암치료를 동반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소아암 환자 10명중 1명은 항암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탈모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 나이에 항암치료를 받을수록, 티오테파(thiotepa) 항암제를 사용할수록 탈모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br/>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강형진 교수(사진 왼족), 피부과 권오상 교수(오른쪽), 최미라 전임의 연구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항암치료를 동반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아 3~14세(평균나이 12.1세) 159명과 건강한 대조군 2~21세(평균나이 8.1세) 167명을 대상으로 탈모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br/>조혈모세포이식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종양환자에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와 함께 암세포와 환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제거한 다음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해 주는 치료법이다.<br/>분석 결과 항암치료를 동반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환아 중 12%는 항암 치료 종료 후에도 영구적인 탈모를 겪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159명의 환아 모두 항암 치료 후 탈모를 겪었다. 탈모증은 항암치료가 시작 된지 평균 1.5개월 후 부터 발생했으며, 항암치료 종료 후 평균 2.2개월까지 지속됐다.<br/>모발은 항암치료가 종료 된지 평균 2.6개월 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 항암 치료 종료 후 평균 7개월까지 지속됐다. 전체 환아의 67%는 항암치료 전에 비해 모발 밀도가 줄었고, 58%는 모발색이 변했으며, 78%는 머리 질감이 변했다.<br/>환아의 모발이 회복되더라도, 모발의 밀도와 두께(198.3± 47.4/cm2, 76.3±18.4?m)는 건강한 어린이(229.6±34.5/cm2, 79.5±12.4 ?m)에 비해 각각 15%, 5% 낮았다.<br/>전체 환아 중 12%(19명)는 항암치료 종료 후에도 탈모가 회복되지 않는 영구적인 탈모를 겪었다. 영구적인 탈모란 항암치료가 종료 된지 6개월 이 지났어도 기존 모발의 75% 이상이 손실되어, 회복 되지 않거나 미용적으로 가발을 써야하는 상태이다.<br/>◇소아암 환자 어릴수록, 티오테파 항암제 사용할수록 탈모 위험 높아<br/>특히 항암치료를 동반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어린 나이에 받을수록, 티오테파(thiotepa) 항암제를 사용할수록 영구적 탈모 발생 위험률이 높았다. 영구적인 탈모 환자군은 평균 5.2세, 비영구적인 탈모 환자군은 평균 7.6세에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다. thiotepa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영구적인 탈모 위험률이 7.5배 높았다.<br/>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의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모낭줄기세포가 가소성은 뛰어나나 손상에 취약 할 수 있다고, 줄기세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치밀 이음(tight junction)의 촘촘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br/>또한 Thiotepa는 DNA복제를 억제하여 세포분열을 방해하는 알킬화 항암제제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모낭줄기세포군에 큰 손상을 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br/>권오상 교수는 “<span class='quot0'>이 연구는 학령기를 앞둔 소아에서 조혈모세포이식 후 장기적으로 환자가 큰 부담을 가지는 항암유발탈모에 대해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연구로 추후 항암유발탈모의 발생을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br/>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피부과학 임상분야 권위지인 미국피부과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인용지수[IF=4.906]) 12월호에 게재됐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5.txt

제목: 장기 연체 안내문 반송돼도 보험사, 보험계약 해지 못해  
날짜: 20140114  
기자: 고세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4100000050  
본문: 사고로 사망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고 개연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장기 연체 안내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br/>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br/>A씨는 2010년 5월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을 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거절하자 금감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했다. B씨는 2012년 7월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보험사는 역시 부검을 하지 않아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B씨 가족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거절했다.<br/>금감원은 분쟁조정 끝에 A씨만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똑같이 부검하지 않은 변사임에도 A씨와 B씨에 대한 당국의 결정은 왜 달랐을까. A씨는 술을 마신 채 74도의 불가마실에 들어가 잠자다 질식 사망했다. 판례를 보면 음주 후 사우나 등에 방치된 사람은 심혈관질환이 없어도 급사 가능성이 있다. 경찰도 조사기록에서 A씨의 질식 사망을 추정, 사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br/>반면 B씨의 경우 경찰은 “<span class='quot0'>B씨가 실족해 바다에서 익사한 것</span>”으로 보았지만 시체를 검안한 병원은 “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했다. 금감원은 부검 없이는 사고 개연성을 엿볼 어떤 증거도 없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br/>장기 보험대출금 연체자에게 보험계약 해지통보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반송됐을 때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해선 안 된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계약자에게 해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안내문 반송의 경우 해지통보가 처리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암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서 숯찜질을 한다면 보험금을 못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숯찜질, 헬릭소(종양치료 예방주사제) 투약, 온천욕 등의 치료는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치료가 진행된 입원 기간에는 입원급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해석했다.<br/>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6.txt

제목: 癌 고기도… 채소도… 잘 먹어야 이긴다  
날짜: 20140113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033  
본문: 암 전문가들이 진료 중 암 환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 가지다. “완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완치가 어렵다면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라고 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등 음식에 관한 것이다. 먹을거리는 그만큼 암 환자들에게 생존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란 얘기다. 대부분 암 진단 후 치료 중의 식생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내가 뭘 잘못 먹어 암에 걸린 게 아닌가?’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암 환자들의 이런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나왔다. 대한소화기암학회(이사장 송시영)가 최근 한국임상영양학회(회장 조영연)와 함께 펴낸 ‘소화기암환자의 영양이야기’(대한의학)가 그것이다. 암 환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점을 간추려 소개한다.<br/>어떻게 하는 게 잘 먹는 것일까.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건 육류 섭취 문제다. 대부분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실제 암 치료에 좋지 않다고 여겨 육류는 전혀 먹지 않으면서 채소 위주로만 섭취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암 환자에게 영양공급이 잘 되면 암세포도 덩달아 잘 자라 좋지 않은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란 속설 때문이다.<br/>대한소화기암학회 송시영 이사장(세브란스병원 내과 교수)은 “그런 속설은 근거가 없다”면서 “<span class='quot0'>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 중의 식단과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을 혼동하고 있는 것</span>”이라고 지적했다.<br/>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단백, 고지방 식사를 피하고 육류보다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암에 걸려 항암 치료 또는 수술을 받아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암 환자의 경우 적절한 단백질 및 영양소 공급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적절히 고기를 먹는 게 좋다.<br/>잘 먹어야 암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실 속에선 영양보충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 및 치료 중 몸무게가 빠지게 되는 이유다.<br/>암 환자의 체중 감소는 심해져 특히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뚱뚱한 환자를 보기가 힘들어질 정도다. 암에 걸리고 나서 입맛을 잃고, 입맛이 없으니 잘 안 먹게 되고, 그러다가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게 된다. 항암 치료 중 식욕부진과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증상 때문에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은 탓도 있다.<br/>이런 탓에 암 환자의 영양실조 발생률이 63%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연구에서 대표적인 소화기암인 췌장암과 위암 환자는 83% 이상이 영양실조인 것으로 조사됐다.<br/>암에 의한 영양결핍은 암세포가 영양분을 가로채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다고 암세포를 굶겨 죽이기 위해 영양공급을 중단하면 사람이 먼저 죽게 된다. 그래서 전체 암 환자의 20%가 영양부족으로 사망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것이다.<br/>보통 사람들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빠지면 힘이 들게 마련.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불리는 암 환자들에게 영양결핍과 체중감소는 이보다 훨씬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br/>그렇다고 암 환자에게 보호자 등이 특정 음식 섭취를 강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뜩이나 몸이 힘든데, 옆에서 억지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게 되면 짜증을 내기 쉬운 까닭이다.<br/>따라서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 위주로 입맛을 회복할 수 있게끔 식단을 짜고 소화가 잘 되는 식사 위주로 소량씩 자주 먹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편안하고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br/>식단도 바꿔보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아도 입맛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떨어진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br/>송 이사장은 “보약이나 비싼 스태미나 음식이라야 좋은 게 아니다. 맛있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이라도 입맛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식욕촉진제이자 영양보충제”라고 강조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7.txt

제목: [금주의 건강강좌]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外  
날짜: 201401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157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만성콩팥병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장내과 김용수 교수)와 ‘만성콩팥병 환자의 저 단백식이’(영양팀 임현진 영양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br/><br/>◎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15일(수)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와 가족의 암검진 계획’ 주제의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서는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가 ▲원발암 치료 후 새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암(이차암)검진의 필요성 ▲원발암 종류 및 위험 요인별 암 경험자에게 필요한 암검진 ▲암환자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암의 위험도 ▲환자의 암 종류 및 위험 요인별 암 경험자 가족이 받아야 할 암검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문의: 02-2072-0077)<br/><br/>◎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6일(목) 오후 3시 김안과병원 명곡홀(망막병원 7층)에서 2014년 첫 번째 ‘해피eye 눈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20년 넘게 눈꺼풀 성형수술을 집도해 온 김지형 교수가 ‘쌍꺼풀 수술’을 주제로 쌍꺼풀 수술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쌍꺼풀 수술은 매몰법, 절개법, 부분절개법 등 수술 방법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며, 자신의 눈 생김새나 기존 쌍꺼풀 유무는 물론 시력이나 눈물 분비 정도 등도 검사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br/><br/>김지형 교수는 “<span class='quot0'>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이 향상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위험부담이 적은 수술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span>”며 “<span class='quot0'>민감한 눈 부위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계획단계부터 수술 시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8.txt

제목: [헬스 파일] 흡연자들이 건강검진때 유의할 점  
날짜: 20140113  
기자: 신동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003  
본문: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흡연 때문이다. 기침이나 가래가 들끓어서, 또는 평소 담배를 피우던 가족이나 이웃 사람이 폐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쓰러지자 ‘혹시 나도?’ 하는 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아보려는 것이다. 물론 가족에 의해 반강제로 끌려오는 분도 있다.<br/>그렇다면 흡연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br/>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들은 빠짐없이 받아야 한다.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대한 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나 5대 암 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흡연자라면 더 철저히 받아야 한다.<br/>흡연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검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암’에 대한 검사다. 흡연자의 폐암 위험도는 비(非)흡연자의 약 23배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가 발표한 대규모 국가 폐암검진 임상연구(NLCST)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간 담배를 피운 사람의 경우 저선량 흉부 단층 촬영(CT) 검사 중심의 조기발견 노력으로 폐암에 의한 사망률을 20%, 다른 모든 질환까지 포함한 전체 사망률을 7% 낮출 수 있다.<br/>흡연은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일으킨다. 이들 질환은 관상동맥 CT 검사와 뇌MRI/MRA,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조기진단이 가능하다.<br/>이중 관상동맥 CT는 특히 흡연자에게 유익한 검사다. 흡연자는 동맥경화가 촉진돼 혈관들이 들어붙어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CT가 이를 잡아내는 족집게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갖고 있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꼭 한 번 관상동맥 CT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br/>많은 흡연자들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종합비타민, 베타카로틴, 토코페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다. 그러나 대규모 역학조사 연구결과 이 같은 보조제의 복용이 흡연자들에겐 되레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을 높이는 등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용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br/>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연자에게 가장 좋은 건강증진법은 금연 실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금연 결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흡연 행위가 단순한 건강습관 때문이 아니라, 니코틴에 중독이 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br/>정말로 담배 끊기를 원한다면 니코틴 중독에 따른 금단현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사용해 보자. 반드시 의지로 끊어보겠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 병원 가정의학과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찾아 금연보조제나 치료제를 처방 받아 사용해 보길 권한다.<br/>신동욱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79.txt

제목: 박근칠 삼성서울병원 교수, 폐암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규명  
날짜: 201401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203  
본문: [쿠키 건강] 국내 의료진이 폐암을 일이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는데 성공했다. 또한 비흡연자에서 흔한 폐압과 달리 흡연자가 주로 많은 편평상피폐암의 경우 동양인과 서양인 사잉의 인종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규명했다.<br/>삼성서울병원 박근칠 교수(사진) 연구팀은 국내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 104명의 유전체 전부를 미국 브로드연구소와 공동으로 분석해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고 13일 밝혔다.<br/>아시아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근칠 교수 연구팀 연구는 보건복지부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사업단의 지원으로 진행됐다.<br/>해당 연구결과는 임상종양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임상 종양학(Journal of Clinical Oncology)에 게재됐다.<br/>◇흡연으로 폐암 발생…변형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금연’이 최선<br/>전체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에 이어 2번째로 흔한 편평상피세포 폐암은 특히 흡연자에게서 흔히 발병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도 104명 중 99명이 20년 안팎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피웠던 경험이 있었다. 담배를 피운 적이 아예 없다고 답한 사람은 5명으로 4.8%에 불과했다.<br/>연구팀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 중 96%인 100명에게서 주요 유전자 변형이 발견됐다. 2만 여개에 달하는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평균 400여개가 손상을 입거나 변형으로 제 모습을 잃었다.<br/>이 가운데 우리 몸을 보호해 왔던 대표적인 종양 억제 유전자인 TP53의 경우 전체 환자의 80%(84명)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편평상피세포 폐암 환자에게서 FGFR3과 TACC3 유전자가 서로 융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이번 연구에서 보고했다.<br/>이들 두 유전자의 경우 평소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흡연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유전자 재배열 및 융합을 일으켜 폐에서 세포증식과 분열을 반복하도록 작용한다.<br/>연구팀은 “흡연에 따라 유전자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또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문제는 유전자 변형과 결합 등이 시작돼 암이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 이를 되돌릴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5년 상대 생존율이 15% 안팎으로 낮은 폐암에서 이러한 유전자 변형이 온 경우 꼭 맞는 표적치료제가 아직까지 없다.<br/>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는 것이 유전자 변형을 막고 폐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란 의미다. 다만 FGFR3 유전자 이상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인 상태여서 이번에 박근칠 교수팀에 의해 밝혀진 FGFR3-TACC3 결합에 따른 폐암은 조만간 표적 항암치료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br/>이에 대해 박근칠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에 표적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난치성 폐암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깊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래도 흡연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폐암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새해에는 반드시 금연을 통해 폐암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돼야 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0.txt

제목: 효율적인 건강검진 방법, 국가건강검진 활용하기  
날짜: 201401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313  
본문: [쿠키 건강] 생각보다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시간과 노력은 물론, 경제적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자.<br/><br/>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1910만여 명과 비교해 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184만여 명으로 14.4% 증가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br/><br/>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나뉜다.<br/><br/>일반건강검진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본적인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검진이다.<br/><br/>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 그리고 40세 이상 직장 피부양자와 지역 세대원이 대상이며, 만 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와 만 40~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주기는 2년에 1회(단,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없다.<br/><br/>주요 검사 항목은 시력 청력 및 신체 계측, 비만도, 혈압, 소변, 구강검진, 흉부 X선, 간 기능 및 신장기능 검사 등이다. 일반건강검진에서 받은 시력?청력 검사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1~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연령, 생활습관, 가족력을 고려해 추가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br/><br/>암검진은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 국민이 대상자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년 주기로, 대장암과 간암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비용은 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를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br/><br/>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만 40세 및 만 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다.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가 실시된다. 만 40세는 B형간염검사, 구강치면세균막 검사, 만 66세는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 검사, 생활습관 검사, 정신건강 검사 등이 추가된다.<br/><br/>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이다. 공단에서는 영유아의 월령별 검진시기에 맞추어 7차에 걸쳐 대상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br/><br/>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국가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본인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건강검진기관도 찾을 수 있다. 지역별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해당 병원의 기본정보, 예약현황, 주요 검사 장비 등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1.txt

제목: 겨울 치질 비상… 추위에 모세혈관 수축으로 20~30% 증가  
날짜: 2014011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3100000315  
본문: [쿠키 건강] 추워지면 급격히 늘기 시작하는 질환들이 있다. 감기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 동상이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 외에, 치질도 겨울에 급증하는 질환으로 꼽힌다. 방치할 경우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데다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br/><br/>항문부 질병을 총칭하는 치질은 찬바람이 부는 10월 말부터 늘기 시작해 추운 겨울이면 20~30% 정도 증가한다. 오죽하면 ‘겨울 치질’이라는 말이 있을까. 실제로, H보험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고 200만여 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 년간 지급한 질병 보험금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이 치핵 등의 항문 질환이고, 특히 겨울철에 31%로 가장 많이 발병했다.<br/><br/>치질은 항문 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과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과도한 음주나 잘못된 식습관, 변비나 설사, 잘못된 배변습관에 의해 생기게 된다.<br/><br/>치질은 치핵, 치루, 치열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겨울에 특히 심해지는 것이 치핵이다. 전체 치질의 60~70%를 차지하는 치핵은 주로 항문 바로 위 조직인 항문쿠션조직에서 발생한다. 항문쿠션조직은 배변 시 대변 덩어리에 의해 밖으로 밀려나오고 배변이 끝나면 다시 항문관 안으로 들어가 대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항문쿠션조직 중 늘어지고 튀어나온 일부가 항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된 상태가 치핵이다.<br/><br/>기온이 내려가는 겨울에는 모세혈관이 수축해 혈액 순환이 둔해지는 데다, 바깥 활동량이 줄고 다른 계절에 비해 목욕 횟수도 줄기 때문에 말초혈관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치질이 더 심해지게 된다. 여기에 들뜬 연말연시 분위기에 휩싸여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증상은 더욱 악화된다. 또, 겨울철에 자주 찾는 스키장이나 눈썰매장도 치질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오랫동안 차가운 눈 위에 앉아 있거나 상체를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면 항문으로 피가 몰려 치질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br/><br/>치질의 대표 증상은 출혈과 탈항이다. 배변 시 선혈이 묻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치핵이 진행할수록 항문의 치핵 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와 만져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평소에도 항문 밖으로 나와 있다. 대개 통증은 없으나 치질의 혈전이나 부종으로 인해 항문이 빠지는 듯한 불편감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외 가렵거나 점액성 분비물을 보이기도 한다.<br/><br/>치질은 진단 당시의 환자 증상이나 항문쿠션조직의 탈출 정도에 따라 앞으로의 호전 가능성을 보고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초기인 1~2단계는 변을 부드럽게 하는 약물이나 식이요법, 좌욕 등으로 치료하고, 2~3기는 치핵을 고리 모양의 고무로 묶는 고무밴드결찰술이나 혈관 주위에 열을 통해 섬유화를 유도하는 적외선응고법, 레이저 등으로 치료한다. 특별히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둔다고 해서 암이 되거나 하는 질환은 아니므로 수술적 치료는 급성 혈전성 치핵에 걸렸거나, 통증이 심한 환자 등에 시행한다.<br/><br/>모든 질병이 그러하듯이, 치질도 예방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식생활과 배변습관을 유지하고, 과도한 음주를 삼가며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치질을 막는 길이다.<br/><br/>또 치질을 예방하려면 평소 항문 주위를 지나치게 차갑거나 습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고, 날이 춥더라도 적당한 운동을 하며 한자리에 오래 앉아 일하는 사람은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 화장실에서 휴대폰이나 책 등을 보며 오래 변기에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다.<br/><br/>박정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 건강증진의원 원장은 “<span class='quot0'>치질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항문을 38~40도 따듯한 물에 약 5분간 하루 3~4회 정도 좌욕을 해주는 것이 좋다</span>”며 “<span class='quot0'>좌욕은 항문을 청결히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치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span>”고 조언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2.txt

제목: ‘더 지니어스 2’ 비겁한 ‘방송인 연합’ …그들의 플레이가 기대된다  
날짜: 2014011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2100000030  
본문: [쿠키 연예] ‘더 지니어스 2: 룰 브레이커’(이하 ‘지니어스 2’)의 ‘룰 브레이커’는 ‘친목’인가.<br/>11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더 지니어스 2’ 6화에서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서로 카드를 교환해가며 카드 자원을 독점해야 승리하는 ‘독점 게임’이 메인 매치로 진행됐다. 그러나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던 해커 이두희는 ‘방송인 연합’ 앞에서 맥도 못 추고 탈락했다. 바로 친목 때문이다.<br/>은지원은 게임 시작 전 다른 참가자들과 ‘방송인 연합’을 결성해 방송인이 아닌 일명 ‘비방송인’들을 게임에서 탈락시킬 계획을 세웠다. 게임의 룰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지 않고 편법으로 상대를 탈락시킨 것이다. 결국 비방송인인 이두희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고 진행해야 하는 게임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신분증을 감춘 은지원 때문에 게임에 참가해 보지도 못하고 꼴찌를 했다.<br/>물론 이는 다른 게이머들과의 협업이 중요한 ‘독점 게임’에서 하나의 게임 진행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은지원과 조유영, 이상민, 노홍철 등은 처음부터 이두희 한 사람을 탈락자로 지정하고 게임 내내 그를 몰아세웠다.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임 방식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다가 답답해서 암 걸리겠다” “은지원 때문에 동맥경화 걸릴 듯”이라며 실시간으로 SNS 등에 분노를 표출했다.<br/>‘지니어스 2’의 재미는 게임 룰 위에서 참가자들이 머리를 쓰며 위기를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러나 참가자들끼리의 ‘친목’이 형성된 이후로는 ‘쾌감’은 온 데 간 데 없고 그저 답답함만이 존재한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일명 ‘방송인 연합’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교활함과 상대를 몰아가는 단체행동, 상대방의 신분증을 감춤으로서 게임에 다른 게이머를 참가하지도 못하게 하는 비겁함. 그들이 배척하던 ‘비방송인’무리가 모두 탈락했을 때, ‘방송인 연합’의 플레이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3.txt

제목: 국내 첫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부산 기장에 착공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306  
본문: [쿠키 생활] 인체 내 암세포만 파괴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가속기가 본격 도입된다.<br/>부산 기장군은 10일 좌동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 중입자가속기 사업부지에서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조감도) 착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br/>착공식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조철구 원장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수용 원장, 부산시 이영활 경제부시장, 오규석 기장군수, 새누리당 김세연·박민식·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탄소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는 장비를 말한다. 중입자 치료 시스템과 연결해 가속된 탄소입자를 체내 깊숙한 곳에 침투시켜 암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하는 첨단 암 치료기이다.<br/>중입자가속기는 치료 과정에 통증과 후유증이 거의 없고 두경부암, 폐암, 간암, 골육종 등 난치성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린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 및 치료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방사선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치료기간이 짧은(30~40회→3~4회)것은 물론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재발암 등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br/>의료용 중입자가속기는 세계적으로도 5곳(일본3, 독일2)만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 3곳(일본1, 중국1, 이탈리아1)이 도입 추진 이다.<br/>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완공되면 국내 자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원천기술 확보는 물론 중입자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br/>8만81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8352㎡ 규모로 2016년말 개원예정인 치료센터는 국비 700억원, 시·군비 500억원, 의학원 750억원 등 1950억원이 투입된다.<br/>부산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는 4월 착공 예정인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과 더불어 방사선 의·과학산업 벨트의 핵심 기반시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유치할 계획인 방사선동위원소 융합연구원과 전력 반도체 연구기반,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산과 연구,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4.txt

제목: “암 임상연구비 지원에도 ‘리베이트’ 딱지, 정부 재정지원 늘려야”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260  
본문: [쿠키 건강] “암 치료에 있어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주로 사업성이 있는 제약사 주도의 임상연구 수주를 적극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의 지원이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제약사 지원을 받아 공익적인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해도 리베이트로 낙인찍힌다.”<br/>10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새누리당) 의원과 대한항암요법연구회의 주최로 ‘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색을 위한 자리다.<br/>패널로 참석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암 임상연구의 현황과 걸림돌’로 정부의 임상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제약사로부터의 재정 조달 불가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br/>특히 우리나라 암 임상연구 당면 과제로 ‘예산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윤구 대한항암요법연구회(울산의대 교수) 회장은 “<span class='quot0'>임상연구를 위해 제약사들이 공익성을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해도 복지부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인해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span>”고 꼬집었다.<br/>강 회장은 “<span class='quot1'>한국은 다수의 대형병원, 훌륭하고 경험많은 연구자가 있어 국제허가용 임상연구를 하기 위한 최고의 장점을 가진 국가</span>”라며 “<span class='quot1'>제약사로부터 공익적 임상연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임상연구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리나라 암 임상연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아울러 정부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최근 의료산업화 논란이 거세게 있다. 신의료기술의 도움으로 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논리가 개입된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최선의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도 보장성 강화도 정부가 당면한 또 다른 과제다. 이 시장논리와 보장성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br/>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에 매년 1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고가의 항암신약 등 대부분의 국가의 재정이 다국적제약사로 들어가고 있다. 항암신약을 개발하는 다국적제약사들에 대한 급여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의료자원이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선결과제”라고 발표했다. 이어 허 교수는 “<span class='quot2'>공익적 목적의 암 임상연구에 투자해 제한된 의료자원의 낭비적 요인들은 제거하고 국민 의료의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동시에 신약개발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span>”고 말했다.<br/>이와 관련해 나성웅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이나 약제 대부분은 외국자료에 의존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제약사 주도가 되는 임상시험에 비해 더 나은 의료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임상지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앞으로 정부도 미래부 등과 협력해 다양한 방편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구자주도 암 임상연구 분야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2개 과제에 약 14억 정도 지원한다.<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5.txt

제목: 김우경 의료부총장 “그동안 쌓은 실력과 내실로 저평가된 패러다임 바꿀 것”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259  
본문: [쿠키 건강] “<span class='quot0'>전쟁이 터지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듯, 병원이 어려운 이 시기를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span>”<br/><br/>제12대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으로 취임한 김우경 의료원장이 1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취임일성을 밝혔다.<br/><br/>국내 대형병원이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쌓아온 실력과 내실을 통해 고려대의료원을 세계 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다.<br/><br/>김 의무부총장은 이날 “<span class='quot1'>국내 분위기에서는 병원 규모가 곧 실력으로 평가되다보니 내실이 탄탄함에도 그동안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의대·보과대가 모두 BK21 plus에 선정된 점, 산하 두 병원(구로·안암)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것은 실력과 내실이 탄탄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결과</span>”라고 강조했다.<br/><br/>지난해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의무부총장은 우선적으로 연구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임을 밝히며 “<span class='quot1'>매출액 대비 연구비를 8%대로 증가시킬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굵직한 국책과제를 연이어 수주한 것에 대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군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교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실질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실제로 안암병원은 김열홍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중심으로 유전체 맞춤의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줄기세포기반 재생의료, IT 융합연구를 중점연구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구료병원은 백신의 대가 김우주 감염내과 교수를 필두로 백신 국산화와 새로운 바이러스·세균 백신의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br/><br/>또한 올해부터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1단계 착공을 시작했으며 구로병원은 암 전문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다. 안산병원도 본관증축 공사를 완공해, 이를 계기로 고려대의료원은 400여병상이 추가로 확보된다.<br/><br/>한편 언론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고대구로병원장은 역임했던 김우경 의료부총장은 “언론에서는 ‘빅5’만 중점적으로 다뤄지다보니 고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 2년여의 임기 동안 저평가되고 있는 이 같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br/><br/>끝으로 그는 “핵심적인 선결과제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탁월하고 선도적인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6.txt

제목: [책꽂이]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外  
날짜: 2014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046  
본문: 인문·교양<br/>△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피터 싱어)=실천 윤리학자인 저자가 철학과 종교 영역에 한정돼 있는 윤리를 실천 영역으로 끌어들여 ‘윤리적인 삶은 과연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1996년 국내 번역됐던 원서를 새롭게 번역해 내놨다(시대의창·1만6500원).<br/>△삶을 위한 죽음 오디세이(리샤르 벨리보·드니 쟁그라)=암 예방 치료자인 저자들이 죽음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철학, 인류학, 문화사와 결부시켜 흥미롭게 들려준다. ‘죽음 없으면 삶도 없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와 닿는다(궁리·2만5000원).<br/>예술·실용<br/>△어머니의 실크로드(사진·글 최병관)=휴전선 155마일을 민간인 최초로 사진으로 찍은 작가가 어머니에게 바치는 포토 에세이. 어머니가 살아생전 장사 다니던 그 황톳길에 ‘어머니의 실크로드’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다(한울·3만원).<br/>△내 아이를 바꾸는 아빠의 말(김범준)=아직도 아이들과 단둘이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아빠들을 위한 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긍정말, 놀이말 등 10가지 아빠의 말을 소개한다.(애플북스·1만4000원).<br/>아동·청소년<br/>△앙코르와트의 비밀 1,2(김진경)=15세가 되면 인간 세상을 떠나 고양이 학교에 입학해 역사와 마법을 배우는 고양이들의 모험담을 담은 연작 판타지 동화 ‘고양이 학교’의 세계편이다. 앙코르와트를 배경으로 고양이 마술사들의 활약상이 그려진다(문학동네·각권 9500원).<br/>△어떤 소금을 먹을까?(김준)=어촌 사회를 연구하며 20년이 넘도록 갯벌과 섬을 다닌 지은이가 취재한 소금문화유산답사기다. 소금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소금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역사까지 살폈다(웃는 돌고래·1만4000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7.txt

제목: [건강 나침반] 안질환 황반변성, 단순한 노안으로 여기다 큰 코 다쳐  
날짜: 20140110  
기자: 유형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172  
본문: [쿠키 건강칼럼] 21세기 들어서 황반변성 만큼 주목을 받는 질환도 드물 것이다.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 질환인 황반변성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양쪽 눈에 오기 때문에 심한 경우 양안 모두 실명할 수 있다. 눈은 우리 몸에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노화가 시작되면 그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기관이다. 40세 이후가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게 되는 생리적 현상인 노안과 달리 황반변성은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질환이라는 점에서 구별되어야 하지만 노안으로 생각하다가 뒤늦게 클리닉을 찾는 환자들을 여전히 많이 보게 되어 안타깝다.<br/><br/>나이관련 황반변성, 줄여서 황반변성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서 노화와 함께 진행한다. 유병률이 당뇨병의 절반 정도인데 영구적인 실명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데, 전체 실명의 1/2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50대 초반에도 진단을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국 망막학회가 지난 10년간 서울의 대학병원들을 분석한 결과, 새로 발생한 진행형 황반변성 환자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무려 7.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br/><br/>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점차 중심시력이 상실되어 책을 읽거나 운전에 장애를 일으키고, 얼굴을 분간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며,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일으킨다. 007 시리즈의 보스’M’으로도 알려진 영국 최고의 여자 배우인 ‘주디 덴치’가 2007년에 ‘미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황반변성으로 대본을 보기가 어렵다고 고백하였다가 2012년에는 친구의 얼굴을 구별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호소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사회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용이 안 되어 일을 못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사회적 고립에 의한 정신/감정적인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br/><br/>사회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보면, 호주와 미국 등에서 전체 암 환자의 직간접적인 치료비용의 4분의 1 정도가 황반변성으로 지출된다고 한다. 이러한 숫자를 우리나라 인구에 맞추어 계산하면, 10조원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황반변성은 이제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고민하여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br/><br/>황반변성은 처음에는 건성 상태로 있다가 습성 황반변성으로 발전하게 되면 진행이 매우 빨라져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망막 신경 조직에 영구적인 상처가 남게 되어 수개월 내에 실명을 할 수 있다. 실제로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80% 이상은 이러한 습성 황반변성이 원인이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건성 상태에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넘어가다가 갑자기 습성으로 인한 시력상실로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자외선이 강한 시간에는 선글라스, 모자 등을 착용하고 외출을 하고, 식습관에서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며, 흡연자라면 금연을 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다. 흡연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2~3배 정도 발병 가능성이 높다.<br/><br/>이미 습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면, 안구에 직접 투여하는 ‘항체 주사요법’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항체(Anti-VEGF)주사는 이미 만들어진 신생혈관을 억제하고 추가로 생성되는 것 또한 막아준다. 보통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사를 맞지만, 상태에 따라서 기간과 치료 여부가 달라진다. 만성 질환의 특성 때문에 정기적으로 클리닉을 방문하여 주사 치료시기를 놓지 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임상 시험을 통해서 치료 횟수를 줄이고 좀더 환자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치료 방법들이 개발되는 등 치료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br/><br/>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일이 기술 발달로만 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하는 스스로의 노력에도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이제 눈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의 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한 검진을 해 혜안(慧眼)을 가져보자.<br/><br/>유형곤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8.txt

제목: 제일병원, 고객감동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189  
본문: [쿠키 건강] 제일병원(원장 민응기)이 여성병원의 특성을 살린 감성서비스를 앞세워 고객감동경영대상 의료서비스부문 대상을 4년 연속으로 수상했다.<br/><br/>고객감동경영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다.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창조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선진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br/><br/>제일병원 측은 “<span class='quot0'>감성코드를 자극하는 여성특화 서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여성질환 진료실적과 역대 신생아 분만 건수 전국 1위(대한병원협회)를 지키는 등 대한민국 여성의학 발전과 임신, 출산 문화를 이끌어온 성과도 함께 인정받았다</span>”고 설명했다.<br/><br/>특히 제일병원은 임신, 분만, 신생아 케어 분야에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존 임신 중 태아와 임산부 위험관리에 집중됐던 진료시스템을 임신 전후까지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제일병원은 임신 전부터 출산 후인 산욕기까지 전 기간 동안 임산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항시 치료·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20개의 전문클리닉과 프로그램을 임산부 중심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br/><br/>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일병원은 최근 러시아, 몽골 등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 불임과 여성암 치료의 선도 병원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병원 측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불임환자 시험관아기 성공률이 70% 이상을 웃돌고 있다. 또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갑상샘암 등 여성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빠른 수술의 장점이 입소문을 타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br/><br/>민응기 원장은 “<span class='quot1'>개원 반세기 동안 여성병원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고객서비스 마인드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감성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89.txt

제목: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  
날짜: 20140110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10100000282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환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성콩팥병 공개강좌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br/><br/>이번 강좌는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와 영양팀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강좌는 ‘만성콩팥병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장내과 김용수 교수)와 ‘만성콩팥병 환자의 저 단백식이’(영양팀 임현진 영양사)로 구성되며, 해당 강좌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br/><br/>한편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 만성콩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암환자 평균 생존율보다 낮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하면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0.txt

제목: 현대인의 질병 갑상선 질환  
날짜: 20140109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9100000384  
본문: [쿠키 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갑상선질환 한 해 평균 환자수가 11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 갑상선암 발병률은 해마다 증가해 2011년 국내 암 발병률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김종형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사진)의 도움말로 현대인의 질병이 된 갑상선 질환에 현명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br/><br/>◇골다공증, 생리불순, 우울증도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 원인?<br/><br/>갑상선은 목의 튀어나온 부분 조금 아래에 위치하며 날개를 펼친 나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내분비기관이다. 갑상선에서 생성하는 갑상선호르몬은 체온조절, 호흡, 심장수축, 각종 호르몬 대사 등 우리 인체의 전반적인 대사과정을 조절하여 각 기관이 적절한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심혈관계, 혈액계,위장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신체 전반적으로 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된다.<br/><br/>남성이나 폐경 전의 여성에게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갑상선호르몬의 과분비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식욕이 왕성한데도 체중이 감소하거나 두근거림, 손떨림, 초조함, 신경예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변 횟수가 증가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이밖에 근력 약화, 골밀도 감소로 골다공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br/><br/>일부 환자에게서는 눈이 튀어나오거나 안구건조증,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자가면역질환, 갑상선자극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의 이상 등이 있다.<br/><br/>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면 갑상선기능저하증이 원인일 수 있다. 기능 항진증과는 반대로 기능저하증은 갑상선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추위에 예민해져 수족냉증이 나타나기도 하며 만성피로와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생리불순과 변비가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 자체의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자가면역성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과 뇌하수체의 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다.<br/><br/>◇갑상선암 환자의 완치율, 100% 수준<br/><br/>갑상선암은 암종별 5년 생존율 조사결과 완치율이 100%로 나타나며, 전이되는 속도도 느려서 소위 '착한암'이라 불린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된다. 이렇게 완치율이 높은 암은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96.6%를 차지하는 유두암과 여포암이다. 국내 발생확률이 낮긴 하지만 다른 갑상선암인 수질암, 역형성암은 생존율이 떨어지고 치료가 곤란하기도 하다. 또 갑상선 암이 폐, 뼈 등의 다른 조직으로 원격전이 된 경우 생존율은 69.1%로 떨어지며 갑상선암은 재발율도 높다.<br/><br/>갑상선암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 갑상선에 덩어리가 형성되는 갑상선결절의 약 5-10%는 암일 가능성이 높은 악성종양이다. 덩어리의 크기는 밀리미터부터 수 센티미터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br/><br/>김종형 청심국제병원 내과과장은 “<span class='quot0'>특별한 이상 없이 검진센터에 왔다가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 이상을 진단받는 환자들이 대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갑상선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중년여성, 가족력이나 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예방에 좋다</span>”고 전했다.<br/><br/>◇갑상선에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호르몬제 치료를 해야 하나?<br/><br/>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나 갑상선 절제수술로 갑상선이 호르몬 생성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흔한 갑상선질환인 갑상선염은 급성 세균성 감염에서 만성 자가면역성 갑상선염(하시모토 갑상선염)까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염증질환이다.<br/><br/>대부분의 갑상선염은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히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갑상선 염증이 갑상선 세포들을 손상시키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 때에도 수개월의 치료 후 염증이 가라앉으면 대부분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소수만이 영구적인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되어 영구적으로 호르몬제 치료를 해야 한다.<br/><br/>갑상선 양성결절인 경우에도 암이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가 너무 크지 않거나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수술이나 치료 없이 경과를 지켜보는 편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1.txt

제목: 서울시 서남병원, 건강검진 특별 우대 이벤트 실시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175  
본문: [쿠키 건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원장 김준식)이 오는 3월 31일까지 새해맞이 건강검진 특별 우대 이벤트를 실시한다.<br/><br/>서울시 서남병원 측은 “부모님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금액적인 부담에 선뜻 병원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혹시 암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사람들 등 이번 특별 우대 이벤트를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특화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특별 우대 이벤트 점진항목으로는 스페셜 효 검진, 스마트 검진, 암 정밀 검진, 뇌 건강·심장건강 특화검진 등이다.<br/><br/>‘스페셜 효 검진’은 저선량 흉부 CT, 경독맥 도플러 초음파, 동맥경화도, 심전도, 종합혈액, 소변 검사가 포함됐다. 또한 ‘스마트 검진은’ 신체계측과 혈압, 종합 혈액검사와 상복부 초음파, 위내시경 등이 포함되어 이름그대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검사가 가능하다.<br/><br/>‘뇌 건강·심장건강 특화검진’은 뇌졸중과 뇌종양, 치매,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진단에 도움이 된다. 뇌 MRI, 뇌혈관 조영 MRA, 경두개 뇌혈류초음파, 경동맥 도플러 초음파, 심장초음파, 운동부하 심전도, 동맥경화도 검사 등이 포함됐다.<br/><br/>이와 관련 현재 서남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임상 최고 사양의 필립스 3.0T 자기공명영상촬영장비(MRI)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사선 노출 없이 자기장과 비전리 방사선인 라디오 고주파를 이용해 인체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영상기법이다<br/><br/>폐암, 갑상선암, 위암 등 각종 암의 가족력, 흡연자, 간접흡연 노출자 등은 ‘암 정밀 검진’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 갑상선 초음파, 저선량 흉부 CT, 대장 내시경과 스마트검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의 경우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저선량 흉부CT, 대장내시경과 함께 스마트검진을 받을 수 있다.<br/><br/>정혜경 서남병원 건강증진센터장(소화기내과 교수)은 “<span class='quot0'>건강에 대해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생활패턴과 가족력, 나이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2.txt

제목: 정부, 2017년까지 97개 사업 추진… 창업·물가분석·방범 ‘해결사’ 빅 데이터 활용 확 늘린다  
날짜: 20140108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057  
본문: 범죄기록과 유동인구, 주민신고 정보, CCTV 위치정보 등을 분석해 장소·시간대별 범죄확률을 예측한다. 기존 관서 및 행정동 위주로 짜여진 경찰의 치안활동은 범죄 위험 예측분석 결과를 반영해 ‘치안 블록’ 단위로 개편된다. 이를 바탕으로 순찰차를 사전에 배치하는 등 선제적인 치안 활동을 펼쳐 범죄 발생을 줄이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케 한다. 최근 경찰이 도입하기 시작한 빅 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기법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크기가 방대하고 형식이 다양하며 순환 속도가 빨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운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br/>앞으로는 비행·범죄·성매매 위험 등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의 조기발견과 이들을 위한 상담 등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이 창업을 할 때 해당 점포의 과거 개·폐업 이력, 추정매출, 입지분석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점포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찾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br/>정부는 7일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7년까지 97개 빅 데이터 활용사업이 추진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통화량 분석을 통해 심야 버스의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조정키로 했다. 서울 전역을 지름 1㎞ 1252구역으로 나눠 심야시간의 통화량을 분석해 유동인구의 밀집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노선별, 요일별로 유동인구 패턴을 분석해 심야버스 노선을 검증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은 곳에 심야버스가 집중적으로 배차돼 승객들이 밤늦도록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br/>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환자진료기록정보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등재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촘촘한 부작용 정보 수집을 통해 의약품의 위해 요인을 미리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보고된 내용 중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가 중점지원 과제로 선정한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창출 및 국정과제 관련 23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br/>올해에는 암 정복을 위한 유전정보 연계 공공데이터 플랫폼 개발 등 25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완료된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조기경보’, 경찰청의 ‘범죄확률 사전예측’, 통계청의 ‘일일 물가분석’ 등 주요 과제들도 본 궤도에 오를 예정이다.<br/>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3.txt

제목: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의학부 총괄에 김똘미 상무 선임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190  
본문: [쿠키 건강]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국내 제약사업부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기존까지 본사 R&D 소속으로 혁신 신약 개발 업무를 담당해 온 김똘미 상무(41, 사진)를 지난 1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의학부를 총괄하는 메디컬 디렉터(Medical Director)로 임명했다고 밝혔다.<br/><br/>신임 김똘미 상무는 2013년 1월 사노피 본사 R&D 소속으로 입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차세대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뛰어난 연구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 인정 받았다.<br/><br/>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번 선임을 통해 자사가 표방하는 ‘환자중심주의’(Patient Centricity)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을 비롯한 만성질환과 암 등의 치료 영역에서 자사의 차별화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br/><br/>또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직접 환자를 진료한 임상경험과 제약업계에서 신약 개발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선임함으로써, 앞으로 국내 환자들의 미충족 니즈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유수 병원의 연구진과 긴밀한 협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김똘미 상무는 “<span class='quot0'>제약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오픈 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임상시험의 양적,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의학부를 이끌게 돼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회사가 국내 R&D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공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포부를 밝혔다.<br/><br/>김 상무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및 내분비내과 전문 전임의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Eli Lilly)에 입사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동, 러시아, 터키, 아프리카 등 이머징마켓(Emerging Market)의 의학부 리더로서 경력을 쌓았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4.txt

제목: 류머티즘 관절염, 뼈·연골 파괴 원인 첫 규명  
날짜: 20140108  
기자: 황인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098  
본문: ‘류머티즘 관절염’에서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원인이 학계 최초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으로 지원하는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머티즘 활막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공격성을 갖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br/>류머티즘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인 활막세포가 암처럼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지닌다.<br/>연구팀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 유전자를 분석해 공격성과 파괴성이 큰 ‘페리오스틴’과 ‘트위스트’라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활막세포에 이 두 유전자를 제거하면 뼈와 연골 손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사실을 증명했다.<br/>이에 따라 류머티즘의 새로운 치료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를 주도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병든 류머티즘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나아가 치료제 개발을 통해 류머티즘 질환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률 감소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류머티즘 질환 치료의 1인당 직접비용은 연간 800여만원이다. 류머티즘 질환 관련 사망률은 일반인의 배에 달한다.<br/>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인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통해 관절염이 완치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span>”고 덧붙였다.<br/>이번 연구결과는 의학 및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5.txt

제목: 아주대병원, 소아암 완치 환아에 무지개증서 수여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362  
본문: [쿠키 건강] 아주대병원은 소아암 환우 부모모임인 온누리회와 공동으로 8일 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신년회 및 무지개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br/><br/>무지개증서는 매년 소아암 완치 판정을 받은 환아를 축하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모두 15명의 환아가 소아암을 극복하고 무지개상을 받았다.<br/><br/>행사에는 무지개증서 및 완치메달 수여식을 비롯하여 감사편지 낭독, 축하케익 절단식, 바이올린 연주, 레크레이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환아와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br/><br/>박준은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축사에서 “<span class='quot0'>지난 20~30년간 소아암의 치료법이 크게 발달한 덕분에 소아암은 이제 완치율이 80%에서 90%에 이른다</span>”며 “<span class='quot0'>힘든 암 치료과정을 견디고 이 자리에서 완치 메달과 증서를 받은 아이들을 축하하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견뎌 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6.txt

제목: 지난해 국내 신약 1품목…개량신약 19품목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311  
본문: 고혈압·당뇨 복합제 개발 두드러져…물 없이 복용가능한 구강붕해정 개발도 활발 [쿠키 건강] 지난해 신약 12품목, 개량신약 19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2013 하반기 의약품 심사정보에 따르면 2013년 1월~11월 의약품 심사현황을 보면 신약 12품목, 자료제출의약품 141품목 및 희귀의약품 18품목 등 총 171품목이 허가됐으며, 자료제출의약품 중 개량신약은 19품목이었다.<br/><br/>자료제출의약품 141품목은 각각 새로운 염(또는 이성체)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 25품목,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 6품목, 새로운 조성의 의약품 31품목, 새로운 제형 및 새로운 투여경로의 의약품 31품목, 유효성분의 함량만의 증감으로 허가된 의약품 48품목이었다.<br/><br/>201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에 대해 단일성분 의약품에 의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도록 복합성분 의약품(복합제)이 개발된 점이 두드러졌다. 또 종전 일반 정제에서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도록 복용 편의성을 증대시킨 구강붕해정제(구강붕해필름) 개발이 활발했다<br/><br/>지난해 신약 12개 중 1개만 국내 개발<br/><br/>지난해 국내 개발되거나 허가된 신약은 총 12품목(제조 3품목, 수입 9품목)으로 2012년(13품목, 이중 국내 신약은 3품목) 및 2011년(21품목) 보다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내 제조사에서 개발된 신약은 ‘듀비에정0.5mg’(로베글리타존황산염) 1품목으로 총 20개의 국내 개발 신약을 보유하게 됐다.<br/><br/>허가·심사된 신약의 약효군별로는 기타의 대사성의약품 6품목(당뇨병용제), 종양용약 3품목, 중추신경계용약 1품목, 알레르기용약 1품목, 골관절염 치료제 1품목으로 나타났다. ‘퍼마곤주 80mg, 120mg’(한국페링제약, 2013년 4월18일 허가)은 ‘데가릴렉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호르몬 의존성 진행성 전립선 암 치료제로 피하 주사 후 데포 형으로 바뀌어 체내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유리하며 안드로젠 박탈 요법이 권장되는 전립선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br/><br/>‘네시나정 6.25mg, 12.5mg, 25mg’(한국다케다제약, 2013년 5월31일 허가)은 ‘알로글립틴벤조산염’을 주성분으로 다이펩티딜펩티다제-4 억제제(Dipeptidyl peptidase-4 inhibitor, DPP-4 억제제)로 작용하며, 몸의 상승된 혈중 포도당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br/><br/>‘듀비에정0.5mg’(종근당, 2013년 7월4일 허가)은 ‘로베글리타존황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과산화소체증식 활성화 수용체(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s, PPAR)에 작용하는 치아졸리디온(Thiazolidinedion, TZD) 계열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이다.<br/><br/>‘콜벳정25mg’(동아에스티, 2013년 7월10일 허가)은 ‘아그리티모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면역글로불린 및 염증성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해 항염증작용을 한다.<br/><br/>‘스티바가정40mg’(바이엘코리아, 2013년 8월22일 허가)의 활성성분인 ‘레고라페닙’은 종양에 관여하는 multiple kinase의 억제제로 작용하는 전이성 항악성종양제이며, ‘아질렉트정’(한국룬드벡, 2013년 9월13일 허가)은 ‘라사길린메실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발성 파킨슨병의 치료제, ‘시노비안주’(엘지생명과학, 2013년 10월15일 허가, 주성분 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되는 관절강 주사제이다.<br/><br/>‘포시가정 5mg, 10mg’(한국비엠에스제약, 2013년 11월26일 허가)은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제로 주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은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주요 수송체인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2)를 선택적이며, 가역적으로 저해해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신장에서 포도당을 배설시킨다.<br/><br/>개량신약 19품목…한국인 대상 임상 눈길<br/><br/>▲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br/><br/>‘카나브플러스정 120/12.5mg’ 및 ‘카나브플러스정 60/12.5mg’은 국내 신약으로 허가된 ‘카나브정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 ?10.9.9 허가)’의 주성분 ‘피마살탄칼륨삼수화물’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의 복합성분 의약품으로 혈압 조절을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대조군(피마살탄)에 비해 우월성이 입증됐다.<br/><br/>‘보그메트정 0.2/250mg’ 및 ‘보그메트정 0.2/500mg’은 주성분 ‘보글리보스’ 및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성분의약품으로 ‘메트포르민염산염’ 투여군 대비 복합성분의약품 투여 시 치료효과의 우월성을 입증했다.<br/><br/>▲유효성분의 새로운 염으로 최초 허가된 전문의약품<br/><br/>‘올메탄정 22.08mg, 올메신에스정, 올모스에프정 22.08mg 및 올메세틸정 22.08mg’은 올메텍정(올메사탄메독소밀)과 활성성분은 동일하나 에스테르기가 ‘메독소밀’에서 ‘실렉세틸’로 치환된 ‘올메사탄실렉세틸’을 주성분으로 해 개발됐다. ‘올메사탄 렉세틸’은 국내 최초의 에스테르기 변경으로서 한국인 대상 임상약리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덱시드정480mg(알티옥트산트로메타민염)’은 기허가된 ‘티옥트산’의 R-체만을 분리한 ‘알티옥트산’의 트로메타민염을 주성분으로 한국인 대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기허가와 다른 새로운 효능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br/><br/>‘줄리안정15mg, 네노마정 15mg, 컨덴시아정15mg 및 클로잭정’ 4품목은 국내에서 우울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을 한국인 대상 임상에서 새로운 효능인 조루증치료제로서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해 개량신약으로 허가됐다.<br/><br/>▲제제개선을 통해 제형·함량·용법용량이 다른 전문의약품<br/><br/>‘실로스탄씨알정(실로스타졸)’은 종전 실로스타졸로서 성인 1회 100mg을 1일2회 복용하는 제제를 성인 1회 200mg을 1일1회 복용하도록 서방성 제제를 개발해 제제를 개선했다. 주성분인 ‘실로스타졸’은 PDE3 억제제로서 만성동맥폐쇄증에 따른 궤양, 동통 및 냉감 등 허혈성 제증상의 개선 및 뇌경색 발증 후 재발 억제 등에 사용된다.<br/><br/>희귀의약품, 종양용약·항악성종양제 주류<br/><br/>희귀의약품은 총 18품목이 심사됐는데 종양용약, 항악성종양제가 총 8품목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경험이 없는 성인의 HIV-1 감염 치료제 ‘스트리빌드’(주성분: 엘비테그라비르) ▲골수 섬유화증의 치료제 ‘자카비정’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불가능한 전이성 기저세포암 또는 국소진행성 기저세포암(수술 후 재발한 환자 중 수술과 방사선요법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치료제 ‘에리벳지캡슐’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갑상선 수질암의 치료제 ‘카프렐사정’ ▲재발성 또는 불응성 말초성 T세포림프종(PTCL)의 치료제 ‘이스토닥스주10mg(로미뎁신)’ ▲혈액투석환자에서 기존 치료법에 효과가 불충분한 소양증 개선에 사용하는 ‘레밋치연질캡슐’(날푸라핀염산염)’ ▲성인 쿠싱병 환자 치료제 ‘시그니포주’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지질 저하제 및 식이요법에 대한 보조제 ‘카이남로프리필드시린지주’(미포멀슨나트륨)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환자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 ▲재발형 다발성 경화증의 재발 빈도 감소 및 장애 지연 ‘오바지오필름코팅정’(테리플루노마이드) ▲IgE를 매개로 한 알러젠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알레르기용약 ‘스타로랄설하액(화분)초기치료단계’와 ‘스타로랄설하액(화분)유지치료단계’ ▲재발성-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최초의 임상 에피소드를 경험하고 MRI상 다발성 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포함한다)의 재발빈도 감소 ‘코팍손프리필드주’(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 등이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7.txt

제목: 메리츠화재, P세대 위한 '나만의 청춘보험1401' 출시  
날짜: 20140108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8100000231  
본문: [쿠키 경제] 메리츠화재가 구직급여지원금과 임신·출산질환, 고혈압·당뇨병입원일당 등 특화된 신담보를 보장하는 '(무)메리츠 나만의 청춘보험1401'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br/>이번 상품은 열정(Passion)과 잠재력(Potential), 힘(Power)을 바탕으로 월드컵과 촛불시위등을 거쳐 사회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는 P세대(15~30세)가 주 가입대상이다. 상품구성에도 이런 특성들이 반영됐는데 우선 P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취업지원금 △임신중독관련보장 △레저활동중사고보장 △성인법적리스크보장등 특화된 담보가 눈에 띈다.<br/>취업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를 31일 이상 수령한 경우, 구직급여 수령 31일째, 61일째, 91일째등 총 3회에 걸쳐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임신중독과 관련해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입원일당을 지급해 준다.<br/>형법상 과실치사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실손보상을 통해 법적리스크를 보장하며, 레저활동중이나 숙박을 동반한 여행중 사고로 인한 상해시에도 보장이 가능하다.<br/>적은비용으로 높은 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진단비는 한 증권에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체증형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가입시점부터 매년 100만원씩 보장금액이 늘어 20년 후에는 7000만원까지 늘어난다. 20년 만기후에는 자동갱신시 체증된 7000만원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해 한 증권으로 업계 최고수준의 진단비를 보장받게 된다.<br/>일당지급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념인 종합입원일당을 도입했다. 기존 상품이 질병/상해입원일당을 3만원까지 가입하던것과 달리 질병/상해입원일당(최고5만원)과 중환자실입원일당(10만원)을 합산해 첫날부터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수술비(30만원)와 18대질병수술비(50만원)가 동시 가입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가입하던 기존상품과 달리 최대 60만원까지 합산가입이 가능하며, 질병이나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남은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해 준다.<br/>이외에도 △1:1입시 컨설팅 △취업종합 컨설팅 △결혼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유료서비스 이용시 최대 50% 할인혜택등 젊은 P세대들에 맞는 특색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8.txt

제목: 방선휘 한의원 ‘췌장암’ 자체 호전사례 논문 발표  
날짜: 201401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218  
본문: [쿠키 건강]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 중 하나인 암, 이를 위해 수많은 연구와 치료법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러한 치료법들의 효과는 환자의 생존율과 종양크기의 축소정도로 측정해왔다.<br/><br/>전문가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측정방법 이외에도 암환자의 삶의 질, 즉 환자가 치료도중 혹은 치료 후에 얼마나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리고 지적한다.<br/><br/>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8%에 이를 정도로 예후가 아주 불량한 암종이며, 전체 암 중 암 사망률 5위인 악성종양이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췌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조기 발견율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br/><br/>이렇듯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들은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중 44%에서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br/><br/>하지만 실제 췌장암의 경우, 통증 조절을 위해 처음부터 상당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더라도,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조절되지 않는 통증과 함께 췌장암 환자들은 식사, 휴식, 수면, 활동 등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췌장암환자들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심해지거나, 우울증의 발생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게 된다.<br/><br/>방선휘 한의원은 최근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고 호전돼 삶의 질을 개선한 사례를 연구해, 한방치료를 통해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인 증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br/><br/>방선휘 한의원을 방문한 췌장암 환자는 상당량의 진통제에도 반응하지 않는 통증과 수면장애, 소화불량, 피로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됐다. 2013년 3월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으로 진단되어 2013년 4월부터 항암화학요법을 받던 중 십이지장의 농양과 누공, 좌측 흉수가 발생하여 항암을 중단했다.<br/><br/>이후 2013년 8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면역암치료 방선휘한의원에서 약침치료, 침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한 한방치료를 받았다. 이어 5개월 여의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적은 용량의 진통제에도 안정적으로 통증이 조절됐고, 수반되던 여러 증상들도 함께 호전됐다.<br/><br/>병원 관계자는 “치료 전후, 영상비교에서 종괴의 안정상태 소견을 보였고, 추가적인 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환자에게 시행된 한방치료가 암종의 성장억제 및 전이재발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또한 환자가 경구복용한 진세노필에 함유된 진세노사이드는 여러 연구에서 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암관리에 이 치료가 유효함이 보고되었다. 산양산삼약침치료는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암 환자의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항산화작용으로 인한 노화억제, 면역기능강화, 피로개선, 체력증강에 진세노사이드 성분들이 유효하다고 알려져있다.<br/><br/>방선휘 한의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통증조절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의 효과는 산삼의 유효성분 중 하나인 Ginsenoside RF 성분이 통증을 감소시키고 진통제의 내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399.txt

제목: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의 길 열리나…뼈·연골 파괴되는 기전규명  
날짜: 20140107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216  
본문: [쿠키 건강] 만성염증질환으로 알려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기전이 처음으로 밝혀졌다.<br/><br/>7일 보건복지부는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의 김완욱 교수팀(김완욱 교수·유승아 박사)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황대희 교수·유성용 박사)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류마티스 활막세포가 암세포와 같은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을 학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br/><br/>이번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뼈와 관절이 파괴되는 기전이 최초로 밝혀졌다. 연구팀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의 유전자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의 후보유전자를 찾아내었다.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periostin)과 트위스트 (TWIST)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연구팀은 활막세포에서 페리오스틴이나 트위스트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듬을 보임으로써 이들이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병든 류마티스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을 지녔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대한류마티스학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일인당 직접비용은 연간 800여만원, 류마티스 질환 관련 사망률 일반인의 2배에 달한다.<br/><br/>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통해 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다. 김완욱 교수는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암과 같이 공격적으로 변한 활막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법이 현재 없기 때문”이라며 “지난 6년 간의 연구를 통해 활막세포의 파괴적인 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게 됐고 이를 통해 관절염이 완치되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r/><br/>이번 연구결과는 의학 및 과학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0.txt

제목: 유한양행, 신약 연구개발 과제 20여건 활발히 진행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5  
본문: 유한양행의 R&D는 해외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 현재 유한양행은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체 개발 및 공동연구 과제 약 20여건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br/>유한양행은 단기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의 출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진 제약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혁신적인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을 통해 글로벌 R&D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R&D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br/>유한 R&D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요 표적질환으로는 자체 신약 ‘레바넥스’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화기계 질환, 당뇨와 동맥경화증을 중심으로 한 대사·순환계질환, 관절염과 호흡기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면역·염증성 질환, 그리고 항암제 분야 등이 있다. 레바넥스는 유한양행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신약으로 활성형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가역적 위산펌프 길항제(APA)이다. 2005년 9월에 십이지장 궤양 적응증으로 신약허가를 획득했으며, 2006년 5월 위염과 위궤양에 대해 적응증을 확장했다. 중국 지준사 및 인도 Zydus Cadlia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br/>또 유한은 다년간 축적된 소화기질환치료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해 약효와 안전성이 우수한 신약 후보물질인 YH12852를 도출했다. 현재 GLP비임상 평가 및 차별화된 약리기전 도출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IND 승인을 받아 하반기 임상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다.<br/>유한은 현재 수술 이외에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만성퇴행성 질환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한이 보유하고 있는 YH14618은 척추 부위에 직접 주사해 디스크를 재생시키는 혁신적인 기전을 갖고 있다. 현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br/>이외에도 류머티스관절염 치료 항체 ‘YHB1411-2’, 치주질환치료제 ‘YH14642’,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치료제 신약, 당뇨치료제 신약 등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항암제 분야의 경우 기존의 세포독성을 이용한 항암제와는 다른 면역항진을 통한 항암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타깃항암제와 암 전이를 억제하는 전이억제제 및 진단키트를 동시 개발해 동반진단을 통한 맞춤 치료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 암세포의 대사 경로를 억제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항암제 개발의 타당성도 검토 중에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1.txt

제목: 안국약품, ‘암 조기진단’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2  
본문: 안국약품은 지난해 ‘안국 대변혁, 선진화 전략’이라는 경영지침 아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국내시장 점유율의 확대를 이루어 보다 앞서가는 선진화 전략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다.<br/>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은 S-암로디핀과 R-암로디핀이 50:50의 비율로 혼합된 라세믹 물질인 암로디핀에서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는 S-암로디핀 성분만을 순수하게 분리해 만든 ‘국내 최초의 암로디핀 이성체’ 개량신약으로 4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끝에 2006년에 발매를 시작했으며, 약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50억원을 상회하는 거대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애니코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테오브로민’ 단일성분의 비마약성 말초작용 진해제로 기침억제 효과에 대해 세계적인 특허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0년 유럽 파트너사인 영국 SEEK 그룹과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해 유럽 등 선진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최근에는 중국의 허방그룹과도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해 유럽과 중국을 포괄하는 글로벌 신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br/>또한 시네츄라는 서양의 생약인 아이비엽과 동양의 생약인 황련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진해거담제 천연물신약이다. 현재 국내 진해거담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최근에는 미국 그라비티바이오와 ‘시네츄라’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의 개발 등록 및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br/>레토프라는 안국약품이 자체 개발한 ‘S-판토프라졸’ 성분의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 개량신약으로 2012년 발매됐으며, 미국에서 발간되는 소화기 분야의 SCI학술지에 레토프라의 유효성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 레보살탄은 CCB계열의 이성체 개량신약인 레보텐션에 ARB계열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발사르탄 성분을 조합한 고혈압치료 복합제로 발매 3년 만에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성장하고 있다.<br/>특히 안국약품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진단사업을 선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암의 조기진단 키트 개발에 매진해 왔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내에 위치한 안국약품 바이오진단연구소는 국내 제약사로서는 최초로 ‘다중 바이오마커 발굴기술’에 대한 국내외 원천 특허와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2.txt

제목: 인하대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6개월 시범운영… 모두가 Good！  
날짜: 20140107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18  
본문: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서 간병인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데 인하대병원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상담 후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간병을 하던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아 이제는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br/>인하대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이영란(50·여)씨는 간병인이나 가족 간병 없이 입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병동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br/>지난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병원 중 유일하게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의 경우 지난 6개월간 운영 성과가 긍정적이다.<br/>현재까지 운영결과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안승익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적정수준의 간호인력 확보와 병동 환경개선으로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에게 수준 높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는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아도 병원 자체 인력으로 편안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정부가 시행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은 보호자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의 병동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인하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7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해 9월부터 191병상을 ‘우리가족 돌봄병동’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기존 간호인력 77명에 추가로 간호사 47명, 간호조무사 28명을 충원해 총 152명의 간호인력이 보호자 없는 병원을 책임지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환자군은 각 진료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와 급성기 중증질환자, 시범사업에 동의한 환자 등이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소아환자, 감염성 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보호자 없는 병원의 경우 꾸준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야 하는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함영주 인하대병원 수간호사는 “<span class='quot1'>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 초기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보호자가 없는 것을 편하게 여기는 환자들도 많아졌다</span>”며 “<span class='quot1'>간병에 따른 비용과 일상생활 지장 등 보호자 입장에서는 매우 평가가 좋다</span>”고 말했다.<br/>하지만 시범사업 이후 보호자 없는 병원의 본 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의 수가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안승익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해야 할 점도 많이 드러났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보다 확대돼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인하대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정착과 롤 모델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br/>송병기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3.txt

제목: 녹십자, 백신·암 진단 시약… ‘건강산업 글로벌 리더’ 비전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29  
본문: 녹십자는 자체연구소의 효율극대화, 산학협력, 해외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제휴 등을 기본방향으로 국내외에 광범위한 R&D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br/>녹십자의 R&D조직은 제품화에 초점을 맞춰 중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종합연구소, 연구과제 및 출시 제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의학본부, 국내외 우수 의약품 라이선스 인/아웃 및 비임상과 인허가를 진행하는 개발본부로 구성돼 있다.<br/>녹십자 종합연구소는 30여년이 넘는 연구활동을 통해 간암 및 대장암 진단 시약, 3세대 유전자재조합 혈우병치료제 등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br/>특히 지난해 개발한 세계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뽑히는 등 고가의 기존약이 누리던 세계적인 독점을 깨고 국가보험재정 절감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 경제, 과학적 파급효과를 높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경구용 장티푸스 백신, 안티트롬빈Ⅲ, 그린플라스트, 아이비 글로불린 등을 개발했으며 이 중 다수 품목이 회사의 주력 매출원으로 성장했다.<br/>녹십자와 녹십자 R&D센터 가운데에 위치한 비영리 연구재단 목암생명공학연구소는 1984년 녹십자 B형 간염백신 상업화에 따른 국내외의 성공을 바탕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됐다. 연구소는 유전자재조합 B형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수두백신 등의 백신제제와 유전자재조합 인터페론, G-CSF 등의 단백질 치료제 및 HIV, HCV 진단제제 등의 상업화를 달성했다. 설립 이래 30여 년간 쌓아 온 190여 편의 등록 특허와 140여 편의 학술논문은 연구소의 뛰어난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현재는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희귀질환에 대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인적, 기술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br/>녹십자는 ‘건강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면서 2020년 국내 매출 2조원, 해외 매출 2조원을 달성해 글로벌 Top 50에 진입한다는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독점을 깨고 최근 출시된 헌터라제가 수년 내 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시장에서 녹십자가 목표로 하는 50%의 점유율을 기록한다면 한 품목만으로 이미 해외시장 목표매출 2조원의 4분의 1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4.txt

제목: 한미약품, R&D 집중 투자… 글로벌 신약 창출 도전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7  
본문: 국내 R&D 투자 1위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은 매년 15% 가까운 R&D 투자율을 고수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신약 창출에 도전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은 바이오신약과 차세대 표적항암제 그리고 치료효율을 극대화하는 복합신약으로 구성돼 있다.<br/>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은 2006년 자체 개발에 성공한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현재 활발한 해외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랩스커버리는 약효 지속시간이 짧아 매일 주사해야 하는 바이오 의약품의 단점을 보완해 약효 지속시간을 최대 월 1회까지 늘려주는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이 기술을 적용해 당뇨병치료제, 인성장호르몬, 호중구감소증치료제, C형간염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임상을 미국,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br/>차세대 표적항암제 중심의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도 활발하다. 기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암에 효과를 보이는 표적항암제 HM781-36B는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을 타깃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EGFR변이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표적항암제 HM61713은 폐암환자 대상의 1상과 건강인 대상 다민족 1상 임상을 동시 진행하고 있다. 또 미국 제약회사인 카이넥스사와 공동으로 다중 표적항암제인 KX2-391에 대한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궁암, 유방암 등 광범위한 암을 타깃으로 미국과 홍콩 등에서 추가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br/>한편, 한미약품은 아모잘탄, 낙소졸, 로벨리토 등 국내 복합신약 개발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7년간 14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 CCB 계열 고혈압치료제 아모디핀과 ARB 계열 오잘탄을 결합한 복합신약 아모잘탄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아모잘탄은 현재 ‘코자엑스큐’란 브랜드로 글로벌 제약회사인 미국 MSD를 통해 전 세계 51개국에 수출된다. 한국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을 글로벌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모잘탄이 최초이고 현재로도 유일하다. MSD와의 계약을 통해 입증된 한미약품의 복합신약 개발 역량은 GSK, 사노피 등 글로벌 최상위권 제약회사들과의 복합신약 공동개발 계약으로 이어졌다. 또 NSAIDs 대표 치료제인 나프록센과 항궤양제인 에소메졸을 복합한 진통소염 복합제 낙소졸은 지난해 11월 발매 이후 한 달도 안 돼 관련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또 한 번 한미약품 복합제 개발능력을 과시하고 있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5.txt

제목: [기획] “한 방이면 피로 회복·피부 미백·체중 감소…” 만능약 홍보 ‘비타민 주사’ 주의보  
날짜: 20140107  
기자: 조성은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140  
본문: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던 직장인 이모(32)씨는 서울 종로구의 한 내과를 찾았다. 의사에게 증상을 설명했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의사는 이씨에게 “<span class='quot0'>피로감이 심하다면 ‘칵테일 주사’를 맞아보는 게 어떠냐</span>”고 권했다.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요법이라고 했다.<br/>의사는 “<span class='quot0'>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지만 혈관에 넣으면 흡수율이 훨씬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얼마 전 한 직장인이 몸이 축 처진 채 왔다가 이 주사 맞고 나더니 ‘기운이 난다’며 병원 문을 나섰다</span>”고 말했다. 호기심이 동한 이씨는 7만원을 내고 시술을 받았다. 그는 “<span class='quot0'>피로는 조금 풀린 느낌이었지만 약효 때문인지, 주사 맞는 40분간 잠시 잠들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span>”며 고개를 갸우뚱했다.<br/>취업준비생 박모(26·여)씨는 지난달 ‘백옥 주사’를 맞았다. 인터넷에서 ‘피로가 풀리고 피부도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 이 주사의 성분은 간경화나 항암치료에 쓰이는 항산화제 글루타치온이다.<br/>의사는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맞는다. 일반적인 피로는 한 번만 맞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느 정도 풀리는 걸 느낀다”며 주사를 처방했다. 병원 상담실장은 “주사를 맞으면 육체 피로가 풀리고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면서 “한 번으로는 효과가 없고 5∼10회는 맞아야 한다. 1회 6만원인데 5회에 25만원으로 할인해주겠다”고 했다.<br/>비타민주사 과장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피로 회복, 피부 미백, 체중 감소, 노화 방지, 스트레스 해소 등 ‘만병통치약’처럼 온갖 효과가 있다며 병원들이 홍보하는 통에 소비자만 골탕 먹는다.<br/>명칭도 다양하다. 마네킹 같은 몸매를 만들어준다는 ‘마네킹 주사’, 피부와 몸매를 개선해 신데렐라로 만들어준다는 ‘신데렐라 주사’, 만성피로에 효과가 있다는 ‘마늘 주사’ 등 정체불명 시술이 난무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즐겨 맞는 주사라며 그들의 이름을 붙여 ‘비욘세 주사’ ‘아이유 주사’라고 광고하기도 한다. 도를 넘어선 병원 마케팅에 최근 가수 아이유 측은 “<span class='quot1'>아이유가 주사 맞고 검은 얼굴이 하얘졌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span>”고 직접 해명했다.<br/>전문가들은 주사 요법의 효능에 회의적이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는 “<span class='quot2'>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한 결과 멀티비타민이나 항산화제를 투여해서 증상이나 삶의 질이 개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2'>이런 요법으로 잘못된 위안을 얻기보다 절주·금연·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편이 삶의 질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덧붙였다.<br/>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주사 요법의 효능을 일종의 ‘위약 효과’라고 평가했다. 곽 교수는 “<span class='quot3'>주사 요법 열풍은 경쟁사회에서 더 쉽고 빨리 남보다 앞서려는 강박에서 비롯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자칫 중독 우려도 있어 병원의 지나친 상술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br/>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6.txt

제목: 종근당, 토종신약으로 글로벌 공략… 난치병 정복 십자군  
날짜: 2014010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7100000039  
본문: 종근당이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글리타존계 당뇨병치료제 신약 ‘듀비에정’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해외에서 진행되는 고도비만치료제 ‘CKD-732’의 임상 개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차세대 글로벌 신약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br/>◇글로벌 신약 탄생 눈앞에= 최근 미국 자프겐(Zafgen)사에서 내놓은 비만치료제 임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2013년 비만주간’ 학술회의에서 고도비만 치료제 ‘벨로라닙(beloranib)’의 임상 2a상 결과가 최초로 발표된 것. 벨로라닙은 종근당이 자프겐사에 기술을 수출해 해외 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CKD-732’의 성분명이다.<br/>종근당은 1998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신생혈관억제효과를 갖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CKD-732의 항비만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새로운 비만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발견했다. 2009년 새로운 기전의 비만치료제로서 CKD-732의 개발 가능성을 눈여겨보던 자프겐사에 기술을 수출해 공동개발을 시작했으며, 2011년 호주에서 임상 1상과 2013년 2a상(초기 임상)을 완료하고 미국에서 임상 2b상(후기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br/>CKD-732는 2011년 3월 미국 제약 연구저널인 ‘R&D Directions’가 선정하는 글로벌 100대 혁신적 신약에 선정됐으며, 9월에는 미국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 저널에 게재되는 등 향후 기대가 큰 세계적인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br/>◇난치병 정복으로 삶의 질 높인다= 2002년 보건복지부의 특정센터 연구지원 사업에서 ‘항암신약 연구개발센터’로 지정되는 등 항암제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근당은 항암제 신약 캄토벨의 개발 경험을 확대해 신규 기전의 다양한 항암제 개발로 이어가고 있다. 종근당은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CKD-516’은 혈관 내피세포의 골격 단백질의 활성 저해를 통해 종양혈관만을 선택적으로 막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항암제 및 항암요법과 병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종근당은 CKD-516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항암제 및 기타 항암 요법과의 병용전략을 연구 중이며, 특히 종양 주변 세포에만 적용되는 기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개선 전략으로 CKD-516의 탁월한 효능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CKD-516은 낮은 용량에서 효능이 탁월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혈관 내피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종양세포에 대한 약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우수성을 바탕으로 종근당은 지난 10월 국립암센터 항암신약개발사업단과 CKD-516의 경구제제에 대한 전임상 공동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br/>◇토종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글리타존계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듀비에정이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 듀비에정은 2003년 항암제 신약 캄토벨에 이어 종근당이 자체 개발한 두 번째 신약이자 전 세계에서 15년 만에 개발된 글리타존 계열의 국산 신약으로 의미가 매우 큰 약물이다. 듀비에정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에 비해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이다. 현재 당뇨병 세계시장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하고 국내시장은 5000억원 이상으로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종근당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토종 당뇨병 치료제 신약 듀비에정을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국산 신약의 자존심을 높일 계획이다.<br/>사망률이 높은 암에서부터 비만, 당뇨병까지, 종근당에서 개발 중인 신약은 삶의 질과 직결된 만성질환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는 난치병을 겨냥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이루어진 최적의 연구 환경 속에서 글로벌 신약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br/>이영수 쿠키뉴스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7.txt

제목: 서울대암병원 15일, 암검진 계획 건강강좌  
날짜: 201401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165  
본문: [쿠키 건강] 서울대학교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오는 15일(수)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와 가족의 암검진 계획’ 주제의 건강강좌를 연다.<br/>이날 강좌에서는 암건강증진센터 신동욱 교수가 ▲원발암 치료 후 새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암(이차암)검진의 필요성 ▲원발암 종류 및 위험 요인별 암 경험자에게 필요한 암검진 ▲암환자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암의 위험도 ▲환자의 암 종류 및 위험 요인별 암 경험자 가족이 받아야 할 암검진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문의: 02-2072-0077)<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8.txt

제목: [메디컬 뉴스] 동아에스티㈜, 토종 항생제 ‘테디졸리드’ 美 출시 계획 外  
날짜: 201401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012  
본문: 토종 항생제 ‘테디졸리드’ 美 출시 계획<br/>동아에스티㈜는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 피부감염 치료에 효과를 보이는 토종 항생제 ‘테디졸리드’를 미국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테디졸리드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 치료를 위해 경구제 및 주사제로 개발된 옥사졸리디논(Oxazolidinone) 계열의 항생제다.이 약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br/>‘암 경험자와 가족의 암 검진 계획’ 강좌<br/>서울대병원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센터장 조비룡)는 15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 임상 제2 강의실에서 ‘암 경험자와 가족의 암 검진 계획’이란 제목으로 공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가정의학과 신동욱 교수가 원발암(原發癌)치료 후 새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암(2차암)에 대한 검진의 필요성, 원발암의 종류 및 암 경험자에게 필요한 암 검진, 암 환자 가족이 알아야 할 암 위험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02-2072-0077).<br/>척추질환 비(非)수술요법 건강강좌<br/>자생한방병원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언주로 SS빌딩 2층 회의실에서 척추질환의 비(非)수술요법을 주제로 정기 건강강좌 ‘생생 척추관절 교실’을 개최한다. 강사는 임수진 한의사(1577-0007).<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09.txt

제목: 중소 무역업체 이메일 해킹 기승  
날짜: 20140106  
기자: 이도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129  
본문: 중소 무역업체의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처 정보를 빼낸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채는 무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5일 “<span class='quot0'>지난해에만 47건이 발생해 모두 41억원 피해를 입었다</span>”며 주의를 당부했다.<br/>사기범들은 주로 해외 거래처를 가장해 이메일을 보내면서 입금 계좌가 변경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지난해 10월 나이지리아 해킹 조직과 공모한 일당은 세제 원료를 수출입하는 리비아 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으로 알아냈다. 이 계정으로 국내 거래 업체에 가짜 이메일을 보내 거래대금 3000만원을 가로챘다. 8월에도 국내 의류업체 이메일을 해킹한 뒤 러시아 거래처라고 속여 6400만원을 받아낸 사기꾼들이 붙잡혔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피해 업체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대금 결제를 독촉 받고서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입금계좌 변동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받으면 전화·팩스 등으로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br/>또 경찰이 지난해 말 2개월간 실시한 ‘악성 사기범’ 집중 단속에서 모두 557명이 붙잡혀 172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검거된 한 사기범은 은행 직원이라고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650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억18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 작업반장은 부하직원들에게 “<span class='quot2'>어머니 암 수술비를 빌려주면 인사고과를 잘 주겠다</span>”고 속여 9억4000여만원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br/>이 같은 사기 피해자는 6707명, 피해액은 3650억원에 달했다.<br/>이도경 기자 yido@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0.txt

제목: 알츠하이머 극복의 길 한국에서 열리나  
날짜: 201401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229  
본문: 카엘젬백스 항암백신 효능, 국제학술지 실려<br/><br/>[쿠키 건강] 항암백신 및 항염증제 개발 바이오 생명공학 기업인 카엘젬백스는 항암백신 ‘GV1001’이 알츠하이머 발병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국제 학술지인 ‘Neurobiology of Aging’에 발표됐다고 6일 밝혔다.<br/><br/>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한양대학교 신경내과 고성호 교수(現 하버드대학교 교환 교수)연구팀이 쥐의 뇌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구한 내용으로, 카엘젬백스의 ‘GV1001’이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라는 독성 물질에 의해 신경세포가 사멸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염증반응을 통해 신경세포를 사멸시키고 이는 알츠하이머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GV1001은 사람 체내에 있는 16개의 아미노산 사슬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펩타이드 단백질로, 황산화 기능을 통해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은 감소시키고 생존을 유지하는 단백질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br/><br/>이번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고성호 교수는 “GV1001은 세포질 내에서 다양한 항염 및 세포 보호 효과를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GV1001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실험뿐만 아니라 임상연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br/><br/>김상재 카엘젬백스 대표는 “젬백스는 지난 25년간 신약 연구에 매진해 의미 있는 결과를 축적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췌장암 치료제에 집중됐던 GV1001의 항암 효능을 다양한 암 치료 분야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치매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며 “GV1001의 의학적인 가능성은 물론 상업적 가치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한편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는 약 4000만 명에 이르며, 현재 시장크기는 약 550조원 규모다. 노령화 인구증가, 초기 진단 기술의 발전, 기존 치료제에 면역치료제를 추가하는 처방 등에 힘입어 향후 치매 치료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전망이며 5년 내에 전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1.txt

제목: 새해 건강생활 실천 D데이를 잡아라!  
날짜: 20140106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029  
본문: 2014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정리하게 된다. 이때 빠지지 않고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br/>중·장년층의 경우 새해 다짐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금연 실천, 체중조절 등이다. 대부분 건강 유지와 관련돼 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지키기가 쉽지 않다.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는 질병은 좋은 건강습관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효과가 큰 만큼 새해 결심의 실천은 중요하다. 더욱이 질병은 발병 후 치료를 잘 하는 것보다 발병 전 예방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는가.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철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 지재환 교수의 도움말로 갑오년, 한 해 동안 건강과 젊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다섯 가지 건강플랜을 짜봤다. 새해 건강플랜의 궁극적 목표는 치명적인 암이나 ‘생활습관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br/>플랜1. 운동으로 생기 있고 탄력 있는 몸을 만든다<br/>근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을 체력의 3요소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몸은 이 3요소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br/>따라서 운동계획을 세울 때는 이 3요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일주일에 네 번 운동을 한다면 두 번은 근력운동, 나머지 두 번은 유산소운동을 시행한다. 물론 스트레칭은 운동을 할 때마다 매번 하는 것이 좋다.<br/>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5회는 해야 몸이 변하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시간은 최소 20분은 해야 하고, 보통 30∼60분이 적당하다. 운동 강도는 헉헉댈 정도로 숨이 차게 할 필요는 없으나 땀이 충분히 날만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현대인에게 운동은 최고의 보약이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갑오년에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계획을 세워 꼭 실천해보자.<br/>플랜2. 채소과일 365 캠페인에 동참하라<br/>“<span class='quot0'>하루 3회 6가지 채소와 5가지 색깔의 과일을 먹으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의 6대 암과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비만, 아토피 등의 5대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span>”<br/>국내 의학계가 질병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협과 손잡고 펼치는 ‘채소과일 365캠페인’의 구호다.<br/>채소와 과일이 각광받는 이유는 그 속에 함유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phytochemical) 덕분이다. 파이토케미칼이란 식물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생리활성물질을 가리킨다. 연구결과 파이토케미칼은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막아주고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켜 각종 질병과 노화를 방지해 주는 효과도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채소와 과일에는 이와 함께 다양한 비타민과 섬유질이 함유돼 있다. 형형색색의 컬러식품을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최고의 종합영양제라고 하는 이유다.<br/>식품과학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공 영양제도 자연의 생기가 농축돼 있는 천연 영양제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2014년엔 무엇보다 자연의 축복인 채소와 과일을 많이, 자주 섭취하여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해보자.<br/>플랜3.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라<br/>지난해 가을 건강검진을 받은 이들은 복잡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나와 있는 수치 중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다. 바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다.<br/>이들 3가지 수치가 높으면 만병의 뿌리라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3대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지금 당장 지난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꺼내 자신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올해 건강수첩을 꺼내 첫 장에 그 수치를 기록해두자.<br/>만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수치를 언제까지 얼마만큼 낮추겠다는 목표를 그 옆에 적는다. 마지막 단계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세 가지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br/>참고로 혈압은 120/80㎜Hg이하, 혈당은 공복 100㎎/㎗ 이하, 식후 2시간 140㎎/㎗ 이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200㎎/㎗ 이하가 정상이다.<br/>플랜4. 담배와는 영원한 이별을 고하라<br/>해악을 정확히 알고 나면 피우라고 해도 도저히 피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담배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 남자의 절반가량(43∼47%)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니코틴에 중독 되어 있는 탓이다.<br/>담배는 항(抗)노화와 건강유지에 있어 최대 적이다. 아무리 자주 운동을 하고 5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도 담배를 피운다면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만큼 담배의 해악은 크다. 발암물질 덩어리인 담배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혈관도 녹슬게 한다.<br/>만약 갑오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실천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과감하게 디데이(D-day)를 정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해 보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금연실천계획을 발표해도 좋다.<br/>니코틴 중독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선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피부에 붙이는 금연보조제나 먹는 금연치료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아울러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술자리와 스트레스를 피하는 노력도 중요하다.<br/>플랜5. 젊음과 건강의 상징인 허리둘레를 줄여라<br/>아름다움과 젊음, 그리고 건강은 삼위일체다. 신체적으로 보면 날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자랑하던 20대 때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시기다.<br/>고(高)칼로리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신체활동량이 부족해지다 보면 우리 몸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결국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 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에 빠지기 쉽다.<br/>허리둘레는 대사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자신의 허리둘레를 확인해보는 것으로 대사증후군 위험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허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뱃살(복부지방)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높아진다.<br/>대사증후군이 겁난다면 남자는 36인치, 여자는 32인치가 넘지 않도록 뱃살을 빼고 허리둘레를 관리해야 한다. 뱃살을 빼기 위해선 꾸준히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함께 소식 또는 절식 위주의 식생활습관을 길들여야 한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2.txt

제목: 한방치료도 필요하다면 해야…긍정적 시각 늘어  
날짜: 20140106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6100000265  
본문: [쿠키 건강] 한방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전문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소람한방병원 환자(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한 170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방 암치료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92.3%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변했다.<br/><br/>이번 조사는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8가지(오심구토, 체중감소, 기력저하, 빈혈, 탈모, 손발저림, 피로감, 통증)에 대해 한방치료로 인한 호전 정도를 7점 척도를 이용해 질문했는데 그 결과, 종합평균 5.45점으로 나타났다.<br/><br/>또 피로감의 호전 정도가 평균 5.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피로감 증상이 있는 응답자의 92%가 피로감이 호전 된 것으로 보고됐다. 치료기간과 내원 빈도에 따른 호전정도에 관한 조사는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됐고, 내원 빈도는 1주일에 3~5회를 내원해야 호전도에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br/><br/>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한방치료의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중 92.3%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했으며, 한방 면역치료에 대해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에 대한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났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3.txt

제목: 겨울철 자주 넘어지는 60세 이상, 치매 초기 의심  
날짜: 20140105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5100000031  
본문: [쿠키 건강]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옷차림이 두터워지고 몸 움직임도 위축돼 평상시보다 낙상 사고가 잦은 편이다.<br/><br/>특히 겨울철 낙상은 다리에 힘이 약하고 관절 기능이 약해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이다. 노인성 낙상은 부상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노인의 잦은 낙상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전보다 자주 넘어진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한다.<br/><br/>노인성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특정 기억은 전혀 떠올리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특징이다. 이는 그나마 흔히 잘 알려진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쉬운 편이다.<br/><br/>증세 중에는 잘 넘어지며 비틀거리는 형태도 있는데 대부분 단순히 근육의 힘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으로 여기고 방치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뇌의 퇴화로 몸의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잘 넘어지며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은 특징도 보이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br/><br/>치매는 암, 뇌졸중, 심장병에 이어 4대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기질성 장애다.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구화된 생활습관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혈관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치매가 생기는 연령도 40~50대의 중년층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br/><br/>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가장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이 50%를 차지하고, 고혈압,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가 20~30%를 차지한다.<br/><br/>치매는 기억력 감퇴는 물론 언어 능력, 이해력, 판단력, 사고력 같은 인지 기능에 다발성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특히 치매는 퇴행성 질환으로 점점 증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 MRA나 MRI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br/><br/>한도훈 구로튼튼병원 뇌신경센터 원장은 “<span class='quot0'>60세 이상 나이가 드신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어 그렇겠지 무시하다가 더 큰 질환으로 악화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치매 초기 증상이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잘 넘어지고 균형을 잡지 못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뇌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span>”고 강조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4.txt

제목: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6인의 기도] 내 인생의 첫날도 믿음과 함께 날자∼ 꿈을 향해 날자  
날짜: 2014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4100000014  
본문: 2014년이란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도착했다. 지난 시간이 힘들었다고 다가오는 시간도 힘든 것은 아니다.<br/>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여고생의 풋풋한 두려움 속에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꿈틀거린다.<br/>선교훈련을 받고 복음의 불모지로 떠나는 젊은 부부의 뜨거운 기도에서 두려움이 아닌 사명이 전해진다.<br/>첫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곤하게 잠든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미래를 꿈꾸듯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은 그렇게 다정하게 다가올 것이다.<br/>끝이란 없다. 뒤돌아서면 어느새 시작이다.<br/>각자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날아보자.<br/>인생의 중요한 선택 그리고 출발선에 서 있는 6인의 소망을 들어보았다.<br/>[봉사] 구세군대한본영 인사국장 임영식 사관<br/>“<span class='quot0'>영혼 사랑을 통해 치유의 기적 일어날 수 있도록</span>”<br/>“<span class='quot0'>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span>”(마 6:33) 이 말씀을 부여잡고 구세군 사관으로 지내온 지 42년. 2∼5년씩 순회하는 구세군 사역 특성상 많은 경험을 했다. 특히 사역지를 옮긴 ‘첫날’,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셨다.<br/>1985년 6월 대구시 대명동 구세군명덕영문으로 전근가고 첫 예배 때 만난 한경숙(가명·여) 성도님.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인데, 튀어나온 엉치뼈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 수지침을 놓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에 권면부터 했다. “제가 기도해서 낫는다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주신다’는 믿음부터 가지셔야 합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믿겠나이다.” 한 성도님의 첫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아픈 곳까지 치료해주셨다.<br/>나는 영덕, 전주, 안동, 광주, 수원 등지에서 목회했고 사회복지시설인 서울 후생원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그리고 지금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까지 40여년 사역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혼 사랑’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치유라는 기적도 일어났다.<br/>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성공한 목자라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할 ‘첫날’을 준비한다. 65세가 되는 오는 6월 은퇴한다. 현역에선 물러나지만 봉사하는 삶은 계속될 것이다.<br/>[선교] 기아대책 봉사단 조다윗·이은샘 부부<br/>“<span class='quot0'>해외파송 꿈 실현… 하나님 백성 진정으로 품을 것</span>”<br/>2014년은 우리 부부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일이 드디어 실현되는 해다. 나는 강도사로서, CHE(지역사회개발) 선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고 아내는 치과 의사다. 우리 부부는 십대, 이십대 중반에 각자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해 왔다. 부부가 된 후로도 함께 나갈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며 준비해 왔다.<br/>그러던 중 지난 5월, 기아대책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8월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비전트립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드디어 다음달인 2월, 기아대책 기아봉사단원으로서 S국으로 파송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바라온 일이기에 감격스러운 새해를 맞이함이 감사할 따름이다.<br/>2013년을 마무리하는 날 아내와 참석한 송구영신 예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넓은 마음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나아가지만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치이고 마음이 좁아지기 쉬운 것이 선교 현장이다.<br/>꿈이 실현되는 올해, 우리는 S국 선교사로 떠난다. 사역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다. 그 땅의 어떠함을 쉽사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S국을 진정 사랑하고 이 땅을 품을 수 있길 기도하고 있다.<br/>[육아] 황지나 서울 동안교회 성도<br/>“<span class='quot0'>동방박사 인도한 별처럼… 크게 쓰임받는 자녀되길</span>”<br/>올해 33세인 나는 2년차 주부, 1년차 초보 엄마다. 지난해 3월 9일 결혼 후 12월 11일 허니문 베이비를 출산했다.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돼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남편은 좋아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어 내게도 기대감이 생겼다.<br/>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건강상 이유로 휴직했다가 직장에 복직하려던 시기였다. 휴직을 이어서 했다. 아기가 서서히 생기길 바랐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시기에 주신 것 같다. 직장을 다니지 않아 스트레스 없이 태교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br/>성경적으로 태교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서울 베다니교회 태교학교, 일반 기업체 산모학교도 다녔다. 서울 회기동 동안교회에서 주일성수도 꼭 지켰다. 그러나 막상 아기가 태어나니 두려움이 앞섰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처럼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 같은 아이가 되라고 이름을 ‘지성’이라고 지었다.<br/>둘 다 믿는 가정에서 자란 우리 부부는 집이 예배처소가 되길 바란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며 말씀이나 찬양을 들려준다. 아기에게 바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일찍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다.<br/>마지막으로 지난해 추석 즈음에 암 진단을 받으신 친정아버지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span class='quot0'>아빠,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span>”<br/>[교회 개척] 당진 주인교회 윤화수·김수연 전도사 부부<br/>“<span class='quot0'>가정교회로 출발… 하나님께 의지해 두려움 없어</span>”<br/>나는 올해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울 곳은 충남 당진. 나도 아내도 전혀 연고가 없는 곳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와봤다. 신학교 시절 당진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당진을 택한 유일한 이유다. 우리 가족은 2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당진으로 이사왔다.<br/>5t 트럭에 우리 가족의 짐이 몽땅 실렸다. 나는 70여㎡ 크기의 다세대 빌라를 빌렸다. 첫 예배당이기도 하다. 교인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공간을 구할 생각이다. 공간을 먼저 준비하면 짐이 되는 것 같다. 5일 주일 첫 예배 참석자는 우리 부부와 두 자녀 영찬(6) 영채(2)뿐이다. 가정교회로 출발한다.<br/>아직 간판은 없지만 교회 이름을 정했다. ‘주인교회’다. 주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다. 나는 침례신학대학원 시절부터 분당 신약교회 유·초등부 전도사로 5년 동안 일했다. 아내는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모두 그만뒀다. 나는 올해 6월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다.<br/>처음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기도 중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아내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한다. 이 기대는 교회가 잘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하나씩 인도하리라는 기대다. 나는 올해가 기대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므로.<br/>[문화 사역] 탤런트 정태우<br/>“<span class='quot0'>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배우로 최선</span>”<br/>20대 후반, 나는 남자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 군대를 갔다왔고, 그에 앞서 결혼을 했으며 나를 닮은 아들도 얻었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 이상 꼭 마쳐야 하는 군 의무를 다해 솔직히 후련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 일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것 같다.<br/>하지만 한편에선 아쉬움도 남는다. 여러 경험을 통해 다소의 융통성이 생겼다고나 할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은 커졌지만 뜨거운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다. 지난해 6월 제대 이후 ‘정글의 법칙’ 촬영차 정글에 갔다왔고, 선교방송 CGNTV 프로그램 ‘힐링유’ MC도 새롭게 맡았다. 2003년부터 꾸준히 해온 기아대책 홍보대사 활동도 다시 시작했다. 모두 익숙한 일이지만 혹 열정을 잃을까 늘 애쓰고 있다. 처음은 아닐지라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열정만큼 가득 찬 한 해로 채워갈 것이다.<br/>2014년을 시작하며 간구하는 게 있다. 모범적인 크리스천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드린다. 요즘 들어 믿지 않는 이들을 전도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다. ‘나만 좋으면 됐지’ ‘우리끼리만 잘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렸으면 한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로 최선을 다하겠다.<br/>“<span class='quot0'>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span>”(빌 1:6)<br/>[진학] 온양한올고등학교 3학년 박지영<br/>“<span class='quot0'>열심히 경험하고 돈도 모아서 해외선교 가야죠</span>”<br/>올해 나는 새내기 대학생이 된다. 수시로 일찌감치 이화여대 인문학부에 합격했다. 합격 후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대학생이 됐는데도 부모님께 모든 것을 계속 의존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일이다.<br/>내가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용돈과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서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쳇바퀴 돌 듯 학교와 집을 오가던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기 때문이다.<br/>아르바이트하며 가장 고려한 것은 시급이었다. 깔끔한 브랜드 매장에서 예쁜 유니폼을 입고 하는 일도 좋지만 너무 낮은 시급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 좋아 다른 곳은 생각지 않는다. 불을 가까이하는 일이라 손을 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 항상 기쁘게 한다.<br/>입학 후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학생 가르치는 일도 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목돈이 만들어지면 해외여행과 선교를 가고 싶다. 아산, 작은 세상에 살다보니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고 싶은 간절함에서다. 내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온 것같이 하나님이 주신 길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5.txt

제목: “새해에는 금연하세요!”  
날짜: 201401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3100000183  
본문: [쿠키 건강]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새해를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한 ‘후두암 공개강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부천성모병원 옴니버스홀에서 개최한다.<br/><br/>이번 강좌는 이비인후과 주영훈 교수가 ‘흡연과 후두암’에 관한 주제 강의를 통해 후두암의 예방법과 치료법 등 후두암과 관련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부천성모병원 알콜의존치료센터 손성현 팀장의 ‘금연의 중요성’에 관한 강의 이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후두암, 구강암 무료 검진과 금연 상담도 실시된다.<br/><br/>후두는 목의 식도와 기도의 입구 부위에 위치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후두부에 발생하는 암이 후두암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의 1.1%를 차지하는 등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담배, 심한 음주, 여러 공해물질의 자극, 바이러스 감염, 그 밖의 외부자극 등이 원인이 돼 암으로 진행되는데 그중 흡연은 가장 확실한 후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중 흡연하는 남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6.5배, 여자는 5.5배 후두암 발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주영훈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후두암의 79.0%,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 허혈성 심질환의 45.0%, 방광암의 38.6%, 뇌졸중의 35.3%, 췌장암의 32.3%, 당뇨병의 25.4% 등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번 강좌를 통해 금연 결심도 세우고, 후두암에 대한 정보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6.txt

제목: 소아암 어린이 위한 머리카락 기부, ‘어머나 운동본부’ 출범  
날짜: 20140103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3100000188  
본문: [쿠키 건강] 사랑의 머리카락을 기증받아 소아암 어린이에게 착한가발을 무료로 기부하는 ‘어머나 운동본부’가 국내에 처음 설립됐다.<br/><br/>국제두피모발협회(이사장 김영배)와 한국가발협회는 지난 7년간 이미용 업계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해 온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머리카락 기부운동’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어머나 운동본부’를 공동으로 설립, 3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br/><br/>‘어머나’란 ‘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의 줄임말로, ‘어머나 운동’은 일반인들로부터 25cm 이상의 머리카락 30가닥 이상을 기부받아 항암치료로 탈모가 심한 어린이용 특수가발을 제작,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는 뜻깊은 운동이다. 긴머리를 커트해 기부하는 것은 물론, 평소 머리를 빗거나 말릴 때 빠진 머리카락을 조금씩 모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다.<br/><br/>소아암 환우들은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항암치료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머리카락이 흉하게 빠지게 되는데 이 때문에 주위의 놀림이나 시선을 감당못하고 정신적, 정서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항균처리된 환자용 인모 100% 가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보통 수백만에 달해 수천만원 넘는 암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선뜻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br/><br/>국제두피모발협회와 한국가발협회는 7년 전부터 가발제조·유통·서비스 회원사들과 뜻을 모아 머리카락 기부운동을 진행해 매달 1~2개씩 가발을 만들어 소아암 환우들에게 전달해 왔다.<br/><br/>김영배 국제두피모발협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소아용 가발 하나를 만들려면 약 1만5000~2만 가닥의 머리카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사람당 30개의 머리카락을 기부해도 줄잡아 5백명 이상의 선행이 필요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어머나운동본부가 설립됨에 따라 이미용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손쉽게 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7.txt

제목: 외로움을 반죽해 새 생명을 뽑아내다… 김숨 소설집 ‘국수’  
날짜: 20140103  
기자: 정철훈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3100000023  
본문: “그래요, 지금은 반죽의 시간입니다. 분분 흩날리는 밀가루에 물을 한 모금 두어 모금 서너 모금 부어가면서 개어 한 덩어리로 뭉쳐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부르튼 발뒤꿈치 같은 덩어리가 밀크로션을 바른 아이의 얼굴처럼 매끈해질 때까지 이기고 치대야 하는 시간이지요. 야무지게 주물러야 하는…….”(‘국수’ 도입부)<br/>소설가 김숨(40)의 신작 소설집 ‘국수’(창비)를 읽으면서 ‘2014년은 어쩌면 국수를 만드는 노동의 숨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도 좋을 것’이라는 상념이 스쳐갔다. ‘국수’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실상 이 단편이 그려내는 대상은 ‘나’의 새어머니다. 새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여자다. ‘나’의 어머니가 죽은 후 그녀는 혼인신고도 없이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서 ‘나’와 동생들을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들인 양 기른다.<br/>국수는 새어머니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자주 해주던 음식이다. ‘나’는 새어머니의 삶을 그녀가 마치 손님처럼 마루 한쪽에 오도카니 앉아 국수를 빚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이겨대던 모습으로 기억한다. “당신이 우리와 살러 왔을 때 꼭 지금의 내 나이였으니 말이에요. 마흔셋이던 당신은 일흔두 살이, 열넷이던 나는 마흔세 살이 되었으니… 당신이 오던 날 친척어른들이 방 안에 모여 쉬쉬 나누던, 석녀(石女) 어쩌고 하는… 애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여자라는 소리를 엿들어서였을까요. 어린 내 눈에 당신은 그저 식모살이를 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처럼 기가 죽어 보였던 것이요.”(‘국수’에서)<br/>그러나 ‘나’는 점차 새어머니가 지닌 끈질긴 생명의 힘을 느끼게 된다. ‘나’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나 아이를 유산했을 때, 새어머니가 만든 국수를 먹고 싶어 한다. 이제 ‘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가던 중 불쑥 어머니 집에 들른다. 새어머니는 혀에 암이 생겨 혀를 잘라내고 싶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혀가 말이다. 혀가… 국수가 닿기만 해도 혀가 대패에 쓸리듯 아파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구나. 혀 좀… 혀 좀 끊어줘라.”<br/>‘나’는 신음을 토하며 잠든 새어머니를 위해 국수를 만든다. 국수를 만드는 노동은 새어머니에게서 ‘나’에게로 전승된 것이다. 그것은 곧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노동에 다름 아니다. 이질적인 것 사이에서 태동하는 생명의 기운이야말로 삶의 영원한 화두일 수 있다.<br/>또 다른 수록작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밤’의 주인공은 임신 때문에 집에 갇혀있다시피 한 상태다. 그녀는 양은들통에 오리 뼈를 고고 있다. 오리곰국은 시아버지가 줄기차게 먹어온 것이다. 누리끼리한 기름과 뼈 고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 차 그녀는 질식할 것만 같다. 하지만 그녀를 숨 막히게 하는 기름과 냄새는 실제라기보다 오히려 편집증적인 망상에 가깝다.<br/>아버지가 살던 빌라를 팔아 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려버린 남편은 그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데 그녀는 남편의 늦은 귀가가 ‘아버지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박에 시달린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가 그 돈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까봐 두려워한다. 이 현실이야말로 오리기름이나 냄새보다 더 그녀를 짓누르는 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망상과 강박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한다.<br/>“빌라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에서 길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는 노인을 찾기 위해 그녀가 노인을 찾아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202호 여자가 돌아와 있기를 바라며. 정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강박의 원인이었던 시아버지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분명 희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숨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미묘한 조짐에서 리얼리티를 발견해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필터링한 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br/>정철훈 문학전문기자 chjung@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8.txt

제목: “마트에 여성용 민원발급기 설치 큰 호응”  
날짜: 20140103  
기자: 최정욱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3100000110  
본문: 서울시, 남녀 차이 반영 정책 성공사례 발표<br/>서울 구로구는 남성 및 여성의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이용 현황을 조사, 지난해 대형마트 등 생활밀접지역에 발급기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했다. 가사와 육아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이 거주지 인근 마트, 전통시장, 은행, 지하철역 등에서의 발급기 이용을 선호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br/>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남녀의 성별 경험과 차이를 반영해 호응을 얻은 서울시 및 자치구 정책 55개를 묶어 ‘서울시·자치구 성별 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생활의 발견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성별 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특성이나 사회적 격차 등 요인을 분석해 정책이 성 평등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다. 사례집에는 제도적으로 또는 생활 주변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한 내용 등이 담겼다.<br/>중구는 남성들과 마찰이 잦은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에 투입되는 기간제 여성근로자 비율이 2010년 60%에서 2012년 38%까지 줄자 근로 여건을 개선했다. 남녀 동수로 근로자를 뽑아 혼성조로 운영, 여성의 업무 부담을 줄인 것이다. 또 서울시는 강서구 마곡지구 도시개발 추진 과정에서부터 성 평등 항목으로 입주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표지판 등 사인물에 성 평등 디자인 활용 등을 제시해 반영했다.<br/>서초구는 2011년 ‘암 예방 건강대학’에 남성 참여율이 27.3%로 저조하게 나타나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 남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성의 관심이 높은 전립선 질환 예방강좌는 물론 전문의 상담 및 검진 등을 실시한 것이다. 송파구는 기존 공공시설 여자 화장실에만 있던 기저기 교환대를 아이를 동반한 아빠를 고려해 보건소, 방이공원 등 15개 공공시설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했다.<br/>시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시 남녀 특성과 요구를 반영,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 평등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span class='quot0'>남녀 요구를 고르게 반영했을 때 정책 결과와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었다</span>”고 설명했다.<br/>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19.txt

제목: 암환자 호중구성발열 치료제 ‘칸시다스주’ 등 보험급여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341  
본문: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1월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칸시다스주는 그동안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가 인정됐다.<br/><br/>또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했는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이외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을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해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0.txt

제목: 조아제약, 형질전환 복제돼지 다수 확보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238  
본문: hG-CSF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향후 바이오베터 개발해 시장 진출 예정<br/><br/>[쿠키 건강]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이용한 EPO(Erythropoietin) 및 성장호르몬(Growth Hormone) 의약품 연구로 유명한 코스닥 상장사 조아제약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br/>조아제약은 지난해 1월부터 ‘돼지 유즙에서 hG-CSF(Human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 인간백혈구 증식인자) 발현이 가능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에 대한 연구에 돌입해 2014년 1월 현재 hG-CSF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br/><br/>hG-CSF는 원래 인체 혈액에 있는 단백질로 백혈구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항암치료에 의해 백혈구 수치가 낮아진 암환자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필수 의약품으로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으면 백혈구가 파괴되면서 면역력이 감소돼 감염에 취약해 지는데 이때 외부에서 hG-CSF를 주입하면 백혈구 감소를 막아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편 hG-CSF 관련 세계시장규모는 약 3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br/><br/>조아제약은 이번 연구에서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형질전환용 벡터를 이용해 hG-CSF를 보유한 형질전환 세포주라인을 구축해, 2013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식작업을 진행한 결과 hG-CSF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다수 확보하는데 성공했다.<br/><br/>향후 돼지 유즙에서 hG-CSF의 분리 정제법이 확립되면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진행 중인 ‘다중기작 서방출형 수화겔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약물의 약효를 강화하고 지속 시간을 늘리는 바이오베터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br/><br/>조아제약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 EPO 및 인간성장호르몬 연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프로젝트인 hG-CSF까지 연구를 확장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지속적인 이식작업을 통해 상업적으로 의미가 있는 충분한 숫자의 hG-CSF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확보할 예정</span>”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조아제약은 2012년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와 영장류 및 미니돼지 형질전환 연구를 통한 바이오신약 및 질환모델 개발, 그리고 이를 활용한 유효성 평가 체계 확립 등에 대한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br/><br/>조아제약은 2002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체세포 복제돼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했고, 2005년에는 유즙에서 EPO(Erythropoietin)를 발현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했으며, 2007년에는 형질전환 복제 유산양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br/><br/>또한 EPO연구와는 별도로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국책사업인 바이오그린21사업의 지원을 받아 목적단백질 연구를 수행한 결과 목적단백질을 제공하는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고 그 돼지의 유즙으로부터 인간성장호르몬의 발현을 확인했으며 비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1.txt

제목: 삼성생명, 신상품 ‘통합 Stage CI보험’ 출시  
날짜: 20140102  
기자: 쿠키뉴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269  
본문: [쿠키 경제] 삼성생명은 중대한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단계별로 보장하는 '통합 Stage CI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br/>이번에 출시되는 신상품은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시에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는 기존 CI보험의 진화된 형태로 기본적인 CI상황에서 사망보험금액의 50%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말기 4기암이나 고액암, 중증 뇌졸중/급성심금경색증 등에 대해서는 사망시 받는 보험금 전액(100%)을 미리 지급하는 선진형 상품이다.<br/>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은 치명적 질병의 단계(중증도)에 따라 사망 보험금액의 50%와 최대 100%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예를 들어 중대한 암의 경우 1~3기에는 사망보험금의 50%(유방암의 경우는 20%)를 지급하고, 이 보다 더 위중한 말기 4기암이나 혈액암, 림프암 등 4종의 고액암 진단시에는 보험금의 전액(100%)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또한, 1~ 3기암이 4기로 진행되면 추가로 차액(50%)을 지급한다.<br/>보장 대상인 치명적인 질병에는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루게릭병 등 11종의 질병과 심장, 간 등 5대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등 8종의 수술로 총 19종의 중대한 질병과 수술이 해당된다. 특히, 기존의 CI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던 다발성경화증이나 중증루프스신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이 새롭게 추가됐다.<br/>이외에도 각종 특약을 통해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 등 비교적 경미한 암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장이 가능하고, 실손의료비보장특약도 추가로 가입해서 한 건 가입만으로도 종합적인 보장준비가 가능하다.<br/>보장기간도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춰 기존 80에서 100세로 확대하였고, 배우자나 자녀도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의 중도부가 기능도 추가했다.<br/>삼성생명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삼성생명 통합Stage CI보험은 기존 CI보험의 진화된 형태로,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다. 4기 암이나 고액암과 같이 치명적인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2.txt

제목: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 한국소아암재단에 성금 전달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197  
본문: [쿠키 건강] 지난달 30일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에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br/><br/>후원금을 전달한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박동수 본부장은 “<span class='quot0'>얼마 전 주변 지인을 암으로 떠나보냈는데,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고 있지만 소아암의 발병원인들이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으로 투병하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 본부 임직원은 꾸준히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돕겠다</span>”고 전했다.<br/><br/>(재)한국소아암재단 홍승윤 상임이사는 “<span class='quot1'>올 한해 전국의 각 병원에서 힘든 항암 치료가 종결되고 새 생명을 얻은 어린이들이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완치되지 않나 싶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무균실에서 힘든 투병중인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한국소아암재단은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한편 한국소아암재단은 2001년부터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 외래치료비 지원, 정서지원, 학습지원등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3.txt

제목: 부녀회장이 가명으로 주민 상대 8억원 사기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276  
본문: [쿠키 사회]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2일 가명을 쓰면서 마을주민들을 속여 모두 8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녀회장 방모(50·여)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br/>방씨는 연천 지역에 이사와 가명으로 부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006∼2012년 주민 등 14명에게 2000만∼1억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br/>방씨는 주민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돈을 빌린 뒤 제 날짜에 이자와 함께 정확히 갚아왔다. 그러면서 가명을 쓰는 것은 물론 ‘대포폰’과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정보를 철저하게 감췄다.<br/>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으며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다 암에 걸려 숨진 이도 있었다. 방씨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자 도주해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충남 아산의 공사현장 식당에서 검거됐다.<br/>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방씨가 도주한 뒤에도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아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2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한 집안에서만 13억원을 사기 친 사례도 추가로 신고됐다</span>”고 밝혔다.<br/>연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4.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흑색종 피부암 클리닉 개설  
날짜: 20140102  
기자: 국민일보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219  
본문: [쿠키 건강] 멜라닌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주로 검은 반점형태로 나타나는 흑색종이 최근 국내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흑색종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576명으로 2007년 1894명에 비해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에 삼성서울병원은 흑색종 피부암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치료에 나섰다.<br/><br/>전체 환자의 70% 정도가 50대 이상일 정도로 장년층과 노년층에게서 주로 발병한다.<br/><br/>동양인의 경우 주로 발바닥이나 손바닥, 손톱 밑과 같은 신체의 말단부에 자주 발생하며 특히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자각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치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br/><br/>하지만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으로 환자가 흑색종을 자각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다.<br/><br/>흑색종은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뼈, 폐, 간 등 어떤 기관들로도 전이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br/><br/>삼성서울병원 흑색종 피부암 클리닉은 진단과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관련 진료과들이 다학제협진 형태로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br/><br/>매주 수요일 오전 클리닉 참여 교수 전원이 동일 시간대 외래진료를 개설하고 방문 당일 관련 진료과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췄다.<br/><br/>점과 구별이 어려운 흑색종의 초기부터 빠른 치료가 가능하도록 삼성서울병원 흑색종 피부암 클리닉은 피부과와 병리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조기 진단 시스템을 마련했다.<br/><br/>또 흑색종 치료에 있어 핵심인 외과적 절제수술과 재건성형, 항암 및 방사선치료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체계적인 진료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 높은 진료를 선보이고 있다.<br/><br/>이동윤 교수는 “<span class='quot0'>흑색종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암종으로 다른 암들처럼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흑색종 치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5.txt

제목: 한화생명, 지급 보장 강화한 '한화CI보험' 출시  
날짜: 20140102  
기자: 쿠키뉴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2100000302  
본문: [쿠키 경제] 한화생명이 새해 첫 신상품으로 지급 보장을 강화한 '한화생명CI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br/>'한화생명CI보험'은 중대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중대한 질환 진단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비율을 최대 100%까지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CI보험은 최대 80%까지만 가능해, 치료비로 보험금 전액을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br/>또한 고객이 선택한 상품종류에 따라 100% 선지급을 받았다 해도,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유가족은 이를 장례비나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은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120%까지 보장을 극대화 할 수 있다.<br/>'한화생명CI보험'은 중대한 암보장을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주계약에서 중대한 암보장을 받아도 ‘더블케어암보장특약’으로 두번째 중대한 암을 또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최고 1억 5천만원까지 대비할 수 있다.<br/>아울러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최대 4%까지 월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의 고액계약 가입시 2.5% 할인되며, 보험료 자동이체시 1% 할인, 한화생명과 협약된 단체의 종사자가 가입하면 1.5%의 단체할인혜택도 있다. 중복할인 제외 등을 고려하면 최고 4% 할인 가능하다.<br/>또한 한 건의 보험계약으로 계약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2명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중증치매를 보장하는 장기간병보장은 물론, 실손의료보장, 성인병보장, 재해·입원·수술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30개까지 추가할 수 있어 부족한 보장을 필요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다. 계약시에는 물론, 가입 후에도 중도부가가 가능하다.<br/>이외에도 노후자금에 대한 필요가 늘어날 때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연금전환기능,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조정할 수 있는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고객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상품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고품격 의료서비스인 ‘헬스케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br/>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span class='quot0'>중대한 질환을 진단받으면 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span>”며 “<span class='quot0'>'한화생명CI보험'은 선지급 비율을 100%로 최대화하고 사망시에도 보험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 한화생명의 대표 CI보험</span>”이라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br/><br/>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국민일보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6.txt

제목: 암환자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날짜: 20140101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1100000103  
본문: 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br/>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급여 기준 29개 항목을 고쳐 1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항진균제 ‘칸시다스주’나 ‘마이카민주’ 등은 현재 첫 번째 약으로 치료되지 않아 2차 약제로 사용될 경우에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면역기능이 떨어진 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br/>또 급성허혈성뇌졸중 환자의 뇌혈전 용해제로 쓰이는 ‘액티라제주’는 기존 ‘증상 발현 후 3시간 이내’에 투여될 경우 보험적용을 받았지만 ‘증상 발현 후 4시간30분 이내’로 확대됐다. 천식과 만성폐질환용 ‘세레타이드’와 ‘디스커스’ 등도 보험 적용 대상이 넓어졌다. 천식은 ‘중간 정도 지속성 이상’에서 ‘부분 조절 이상’으로, 만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값 정상치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확대됐다. 보험이 적용되면 암 환자는 진료비의 5%,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일반 외래는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7.txt

제목: [글로벌 IT 거물] “SNS열풍 예측 못해” 후회하는 슈미트  
날짜: 20140101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1100000032  
본문: 에릭 슈미트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밝혔다.<br/>슈미트는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SNS 열풍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구글은 인터넷 검색과 모바일 등 뛰어든 사업 대부분에서 업계 선두를 차지했지만 SNS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구글의 SNS인 구글플러스는 여전히 가입자와 사용빈도에서 페이스북에 크게 밀리고 있다.<br/>슈미트는 “<span class='quot0'>굳이 변명을 하자면 구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빴다는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제때 뛰어들지 못한 것은 내 책임</span>”이라고 덧붙였다.<br/>슈미트는 2014년을 “모바일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모바일이 이기는 추세였다면 2014년은 모바일이 승리를 굳히는 해라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br/>슈미트는 “빅 데이터와 지능형 기계가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는 때가 왔다. 이는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전학의 발전으로 개인 DNA 정보를 활용한 암 진단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br/>그는 내년에 구글이 어떤 제품을 전면에 내세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는 구글이 웨어러블 기기와 로봇에 미래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br/>김준엽 기자<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3-2428.txt

제목: 월드디아코니아, 요르단 ‘시리아 난민캠프’ 구호 사역 현장  
날짜: 20140101  
기자: 송세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40101100000060  
본문: 30대 가장 수술 못해 소변주머니… 여덟 식구 생계 막막<br/>내전을 피해 요르단으로 탈출한 시리아 난민들의 겨울은 혹독했다. 중동 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는 난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무게를 더했다. 월드디아코니아(WD·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요르단의 암만과 마프락, 자르카, 마다바 등을 방문해 시리아 난민 구호 사역을 펼쳤다.<br/>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1차 구호 사역을 펼친 후 꼭 1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은 WD 구호팀을 동행 취재했다.<br/>21일 암만 시내 서남쪽 마르즈하맘 지역의 연립주택 4층. 남편들은 일거리를 찾아 나가고 아이들과 엄마들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 거실 하나에 방 둘인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시리아 하마에서 살다 지난 4월 요르단으로 탈출한 아흐마드 하순(46)씨 3형제와 가족 등 모두 21명. 세간은 간단한 주방도구와 얇은 카펫, 낡은 매트리스가 전부였다. 50㎝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영하의 추위가 몰아닥쳤지만 난방기구가 없는 집 안에는 냉기만 가득했다.<br/>2남5녀의 어머니 히땀 하순(45)씨는 “처음 요르단으로 넘어와 자타리 난민캠프에 머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캠프 바깥에선 비싼 월세를 물어야 하지만 일용직 노동이라도 할 수 있어 난민들은 대부분 캠프에서 나오려 한다”고 말했다. 긴장된 표정으로 구호팀을 맞은 이들은 전기난로와 식료품 쿠폰을 전달하자 비로소 “슈크란(감사합니다)”이라고 인사하며 웃음을 지었다. WD 구호팀은 이곳을 포함, 마르즈하맘의 26가정에 전기난로와 식료품 패키지를 전달했다.<br/>구호팀은 앞서 19일에는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마프락의 변두리 허름한 집을 방문했다. “<span class='quot0'>아흘란 와 싸흘란(환영합니다).</span>” 아랍어로 인사를 건넨 하이삼 함마드(37)씨는 비스듬히 기댄 채로 구호팀을 맞이했다. 시리아 홈스에서 건축노동자로 일하던 그는 내전 초기인 2011년 4월 집 앞에서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어떻게든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아내와 여섯 아이를 데리고 다마스쿠스를 거쳐 나흘 만에 국경을 넘었다. 유엔에 난민으로 등록해 1인당 매월 24디나르(약 3만6000원) 상당의 식료품 쿠폰을 지원받고 있지만 200디나르(약 30만원)의 월세를 내기도 버겁다.<br/>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마프락의 인구는 6만명에서 10만명으로 급격히 늘었고 33㎡ 규모 주택의 월세는 70디나르(약 10만5000원)에서 3배 가까이 올랐다. 더욱 암담한 것은 이곳에서도 수술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르단 병원에서 수술 받으려면 7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유엔에서 지원하는 수술비는 최대 1만2000달러에 불과했다. 소변주머니를 교체하기 위해 2주에 한 번 가까운 클리닉에 가는 게 그가 받는 치료의 전부다. 함마드씨는 “아내는 서른 살이고 막내는 1년8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내가 다시 건강해져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br/>이어 찾아간 집에서는 역시 시리아 홈스 출신인 압둘 하미르 함단(40)씨가 구호팀을 맞았다. 그는 지난 9월 아내와 네 아이, 총상을 입은 동생네 가족 세 명과 함께 요르단으로 탈출했다. 함단씨는 “고향에서 옷가게를 했지만 내전 이후로는 장사를 할 수도,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다”면서 “시리아를 바꾸려면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에 피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맏딸 니스란(12)은 주 전체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해 의사가 되려는 꿈을 키워왔다. 내전 이후 모든 것을 보류했지만 요르단으로 넘어온 뒤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WD 중동지역 코디네이터 송명근 선교사는 “<span class='quot1'>1년 전만 해도 요르단 학교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1'>다행히 최근에는 2부제 수업을 도입, 오후에는 난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요르단의 정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 아이들은 교회 등 구호단체가 운영하는 임시학교에 다닌다. 마프락연합교회가 예배당 2층에서 운영하는 난민학교에도 30여명의 난민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난 살리프 아웁(11)과 우레인(10) 형제는 홈스에 살다 지난 10월 엄마와 함께 요르단으로 탈출했다. 살리프는 “우리가 살던 동네는 모든 것이 부서졌고 아버지는 채소를 구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아버지를 찾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D는 마프락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20가정 3개월분의 식료품을, 마다바의 난민 50가정에 유아용 분유와 기저귀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br/>2011년 3월 알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면서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아프리카 르완다 내전 이후 최악의 난민 사태를 불러왔다. 내전 발발 이후 최소 12만명이 사망했으며 630여만명이 고향을 등졌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해외로 탈출한 난민은 233만여명이고, 57만여명은 전체 인구가 640만명에 불과한 요르단에 머물고 있다.<br/>마프락연합교회 누르 사와네 목사는 “<span class='quot2'>70개국 출신의 용병들이 전투에 참여할 정도로 시리아 내전에는 외부 세력들이 깊숙이 개입해 있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span>”면서 “<span class='quot2'>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를 부탁한다</span>”고 말했다.<br/>암만 북쪽 자르카의 나사렛교회 예배당에서는 19일 저녁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렸다. 교회가 난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40여명은 캐럴을 부르며 게임을 즐긴 뒤 WD에서 준 선물을 한 아름씩 받아갔다. 난민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아실 압마리(21·여·요르단대학4)씨는 “<span class='quot3'>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말을 잘 하지 않고 웃지도 않던 아이들의 표정이 이제 많이 밝아졌다</span>”면서 “<span class='quot3'>상처 많은 아이들이어서 무엇보다 관심과 사랑이 절실한데 한국교회가 따뜻한 사랑이 담긴 성탄 선물을 보내줘서 감사하다</span>”고 말했다. WD는 이 교회에 학생 100명분의 문구류와 3개월분의 영어교육비를 지원했다.<br/>21일 오전 11시 암만 마르즈하맘 교회에서는 시리아 난민 여성들을 위한 뜨개질 교실이 열렸다. 준비한 실과 바늘이 한정돼 있어 수강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 10여명은 되돌아가야만 했다.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의 취업은 불법이다. 남자들은 몰래 막노동이라도 하지만 여성들은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나 뜨개질을 배우면 가족들의 옷가지를 자급할 수 있고 숙련되면 내다 팔 수도 있다. 목도리 뜨는 법을 배우고 있던 살루와 하시니(40)씨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이곳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뜨개질은 재미 있고 살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강사는 그레이스 김과 라일라 리 등 한국 여성 선교사들이고, 교육을 마칠 무렵에는 이 교회 하산 다바브네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 마르자하맘 교회는 뜨개질 교실 외에 학생들을 위한 영어 강좌와 의료봉사, 식료품 지원 등의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WD는 이 교회에 난민들을 위한 여성 직업교육비와 학생 영어교육비,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br/>마르즈하맘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섭 선교사는 “<span class='quot4'>요르단의 기독교 인구는 3% 안팎이지만 교회들은 시리아 난민 구호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4'>난민 구호가 일회성이나 이벤트성에 머물지 않고 복음과 함께 효과적·지속적으로 전개되려면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다</span>”고 말했다.<br/>WD의 시리아 난민 구호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사랑의교회 대외협력담당 정병화 목사는 “<span class='quot5'>1년 전 방문했을 때는 난민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동안 다소 개선된 것 같아 다행</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5'>이제는 영어 컴퓨터 태권도 등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는 부가적인 교육과 여성들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 같다</span>”고 말했다.<br/>암만(요르단)=글·사진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 쿠키뉴스(kuki@kmib.co.kr)/전화:02-781-9711